고등학교

한국사



정재정
김태식
강석화
최병택
장종근
박찬석
김태훈
박귀미

(주)지학사

머리말

한국사는 한국인이 살아온 내력을 학습하고 탐구하는 과목이다. 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이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선정하여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국사의 큰 흐름을 새로 구성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교과서를 길잡이로 삼아 한국사를 학습함으로써 한국인이 어떤 생활을 해 왔고 무엇을 성취했으며, 어떤 사회와 나라를 이루며 살아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한국사는 각 시대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얽혀서 영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분야의 상호 관계를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한국인의 삶은 주변 나라 및 다른 민족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와 지역 상호 간에 사람, 물자, 정보, 문화 등의 교류가 활발해진 근대 이후 각 나라와 민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역사를 만들어 왔다. 따라서 한국사를 학습할 때에는 세계사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 교과서는 위와 같은 관점을 매우 중시하였다.

집필진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을 돕기 위해 내용의 선정과 구성 등에 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다. 고민 끝에 만들어진 이 교과서의 특징을 꼽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단원을 대표하는 그림과 사진을 제시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여기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문학 작품을 수록하여 대단원의 배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밝혀 방향을 안내하고, 소단원별로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움 글, 시각 자료, 예상 질문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단원 말미에 개념 확인 및 서술형 문항을 제시하여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학습 내용과 관련된 사료와 자료를 제시하여 본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한국사를 탐색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생활과 문화에 관련된 색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여 한국사의 다채로운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공간을 제시하여 현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

다섯째 본문을 학습한 후 대단원별로 주요 사건과 개념 등을 연표를 활용하여 다시 정리하도록 하였다. 또 답사 보고서 · 백과사전 · 역사 신문 만들기, 일기와 격문 쓰기 등의 활동을 학습자가 직접 해 보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본 교과서로 학습한다면 학습자는 한국사를 더욱 폭넓게 바라보고,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조상 대대로 이룩해 온 문명의 혜택을 입으며 살고 있는 우리는 조상이 만들어 온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한국사를 제대로 학습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내일의 대한민국을 충실히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 교과서를 학습하는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인으로 성장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 지은이 씀

차례



I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Ⅱ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Ⅲ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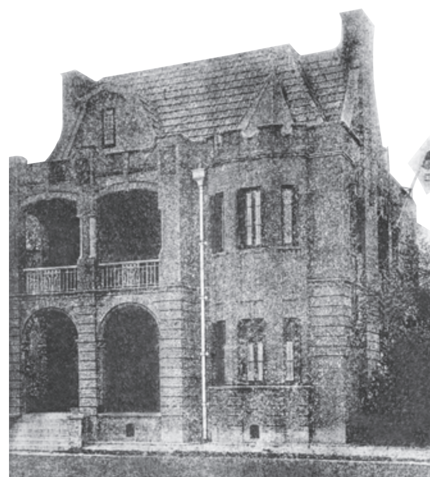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Ⅴ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부록



이 책의
구성과 특징

대단원 학습에 앞서

• 대단원을 대표하는 그림과 사진을 제시하여 학습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 문학 작품과 그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여 대단원의 시대적 배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본격적으로 학습하자!

•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밝혀 학습의 방향을 안내하였다.

• 소단원별로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글과 시각 자료, 학습과 연결되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된 사진과 지도, 도표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중요한 학습 내용을 부각하여 자기 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배운 내용 갈무리 하기

• 연표로 정리하기: 대단원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연표를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행하기: 답사, 백과사전·역사 신문 만들기, 일기·격문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단원 학습 내용을 재미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더 넓게 더 깊이



사료 쏙!쏙!

사료 쏙!쏙! 4·19 혁명의 의의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참여하여 지성과 진리, 자유의 정신을 뿌리고자 한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는 전제 권력에 의해 사라졌다. ……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우리는 침묵의 밤에 자유의 종을 치는 역할을 자랑한다. 영원한 민주주의를 위한 일은 자랑스럽기만 하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 서울 대학교 문리대학 학생 선언문(1960. 4. 19.)

4·19 혁명은 국민들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저버리는 독재 정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사건이었다. 이는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퇴진시킨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효시였다.


4·19 혁명 기

학습 내용과 관련된 사료와 그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을 제시하여 비판적 역사 읽기를 유도하였다.

역사 더하기

역사 더하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는 '꿈속에 도원을 노닐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안평 대군의 꿈을 바탕으로 1447년에 안견이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는 안평 대군이 쓴 제목과 표제 시, 그림의 내력 …

여기에 김종서, 신숙주, 서거정 등 집현전을 중 … 주름잡던 문인 20여 명에게 감상을 부탁하여 받 … 을 함께 덧붙였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 …

본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탐구 활동

탐구 활동 대한민국 임시 헌장(1919)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舊)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역사를 탐색하고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과 탐구력 함양을 도모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중단원 마무리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전후 조선의 독립과 자유는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강력히 보장받았다. ㉠ 이 회담 후 우리 민족과 국가의 국제적인 지위는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증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미국·영국 3대 연합국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 이렇게 유리한 국제 정세하에서 우리 독립운동은 중대한 진보를 이루었다. ㉡ 국내의 반일 투쟁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동북 지역 동포들도 용감하게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의 교포도 임시 정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본 당은 조선 의용대를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하여 전 …

1. ㉠의 '이 회담'은 어떤 회담을 의미하 …
2.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써 보 …
(1) 국내의 반일 투쟁:
(2) 미주 지역 교포들의 활동:
3. ㉢의 '본 당'이 어떤 단체인지 쓰고, … 술해 보자.
조건 '본 당'이 만들어진 목적을 포 …

중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념 확인 및 서술형 문항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일상다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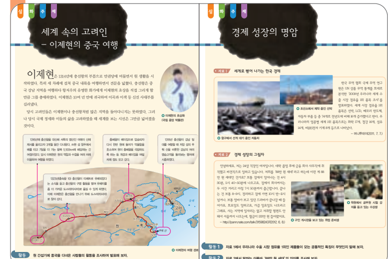
생활·문화와 관련된 재미있고 생생한 역사 이야기들을 엮어 역사의 다채로운 측면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 산책



역사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이야기 및 시간적 변천을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활용하여 흥미롭게 구성하였다.

심화 주제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풍부한 심화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활동 과제를 수록하였다.

I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 살수 대첩(상상화)

| 서동요 |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해 두고
맛둥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서동요는 신라 진평왕 때 백제의 무왕이 지은 향가라고 전해진다.

설화에 따르면 신라의 선화 공주를 연모하던 서동은 신라에 잠입한 뒤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퍼뜨려 부모의 질책을 받고 쫓겨난 선화 공주를 아내로 맞았다. 훗날 서동은 백제 무왕이 되었다고 한다.



▸ 가야 기마 인물형 토기 (김해 덕산)



▲ 안압지(경북 경주)



▲ 정효 공주 묘(중국 지린 성 지안)

01 선사 시대의 문화

이 단원에서는 >>
1.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선사 시대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2. 선사 시대 도구의 특징과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3. 선사 시대 주민들의 교류와 민족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1 구석기 시대의 사회와 문화

중국에서는 베이징 원인 화석이 발견된 이래 많은 화석과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산시 성 란톈[藍田] 유적이 약 100만 년 전 정도이다. 일본에서는 군마 현 이와주쿠[岩宿] 유적이 발견된 이래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3만 년 전 이후의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을까?



복원된 베이징 원인 두개골 (중국 고동물관, 베이징)

한반도에 사람이 나타나다

아프리카에서는 700만 년 전 무렵부터 초보적인 두 발 걷기를 하던 고인류가 있었으며, 400만 년 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나타났다. 180만 년 전에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하여 점차 세계 각지로 이동하였다.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20~15만 년 전에 등장하여, 늦어도 6~5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한반도 각 지역에서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화석과 동물 뼈, 각종 뗀석기 등이 발견되었다. 한반도에서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평양 상원 검은모루 동굴 유적과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 및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 등이 있다. 가장 오래된 유적은 10만 년 전 정도이나, 혹은 30만 년 전의 것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
한반도에서 출토된 인골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평양 역포인이며, 약 10만 년 전 시기의 것이다. 이 밖에 충북 단양의 상시 바위 그늘과 청주의 두루봉 동굴, 평남 덕천의 승리산 동굴, 평양 만달리 동굴 등에서도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인골들이 출토되었다.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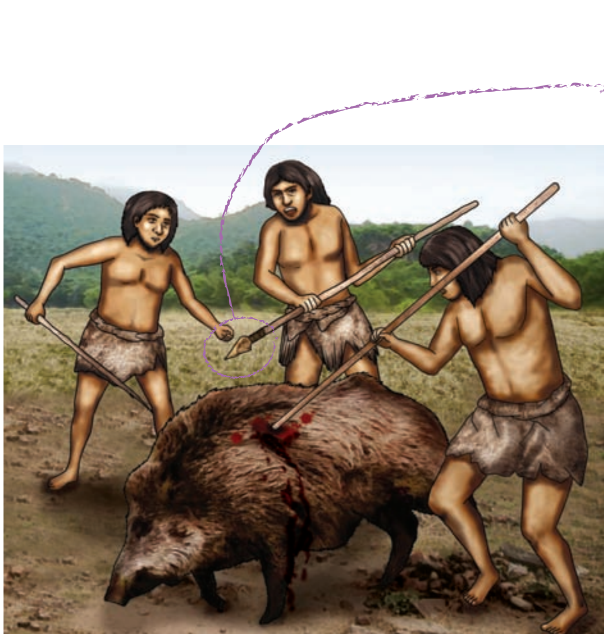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를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도구 제작 기법을 발전시키면서 자연환경에 적응해 나갔다. 초기 인류는 돌을 던지거나 돌망치로 쳐서 뗀석기를 만들었으나, 점차 뿔, 뼈, 나무망치 등으로 다듬어 주먹도끼와 같이 정밀한 도구들을 만들었다. 기법이 좀 더 발전하면서 격지를 이용하여 긁개 등의 여러 가지 석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현생 인류는 돌을 눌러 떼는 기법을 발전시켜 작고 정교한 돌날 등의 석기를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한반도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에는 평양 상원 검은모루 동굴, 경기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는 따뜻한 기후에서 살던 여러 포유류의 화석과 몸돌, 긁개, 돌망치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는 주먹도끼를 비롯한 다양한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주먹도끼**는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거나 동물의 뼈를 부수어 골수를 얻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는 3만 년 전 이후의 후기 구석기 유물이 주로 발견되었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적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시기에는 돌날이나 슴베찌르개 중심의 유물이 확산되다가 말기에는 좀돌날, 밀개, 새기개, 뚜르개와 같은 잔석기들이 등장하였다. 슴베찌르개는 창끝에 붙여 사냥 도구로 사용하였고, 좀돌날은 뼈나 나무에 홈을 파서 끼워 톱이나 칼 등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몸돌과 돌날(충남 공주 석장리)
격지는 돌을 깨뜨려 석기를 만들 때 떨어져 나온 돌조각이고, 몸돌은 이 격지가 떨어져 나온 원래의 몸체 돌이다. 돌날은 격지를 세심하게 다듬어 만든 석기이다.



슴베찌르개를 사용하여 사냥하는 모습(상상화)



슴베찌르개(전북 진안)



주먹도끼와 주먹 찌르개(경기 연천 전곡리)



긁개(충남 공주)



밀개(충북 청주)

가죽에 붙은 살을 긁어내거나, 나무껍질 따위를 벗기는 데 사용한 도구들이며, 날의 길이가 너비에 비해 더 길다.



덕천 승리산 유적에서 출토된 큰 쌍코뿔이 아래턱뼈 화석

무리지어 이동 생활을 하다

구석기 시대에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이동**하며 생활하였다. 이들은 소규모 집단을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였다. 무리 안에는 비공식적인 권위를 지닌 가장과 지도자가 존재하였으며, 대개 남자는 사냥, 여자는 채집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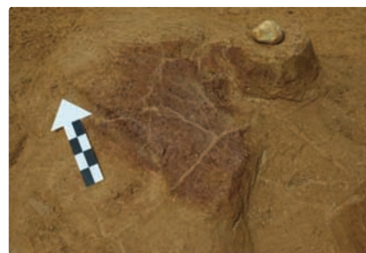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주거지를 짓는 데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겨울에는 동굴에서 살고, 여름에는 바위그늘에서 살거나 임시 막집을 짓고 살았다. 공주 석장리를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는 집터 안에 돌로 난로를 만들고 불을 피운 화덕 자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단양 금굴 유적(충북 단양)



복원된 전곡리 막집(경기 연천)



구석기 화덕 자리(충북 청주 노현리)
약 5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 더하기+ **불의 사용**

인류는 언제부터 또 무엇을 위해서 불을 사용하였을까?

인류가 불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중국 베이징 근교의 저우커우뎬 동굴에서 나왔다. 약 50만 년 전에 살았던 베이징 원인 화석들이 출토된 지층에서 불에 탄 재가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추위를 이기고자 불을 피웠다.

약 40만 년 전에 해당하는 스페인 토랄바 유적의 절벽 아래에서는 수천 점의 석기, 불에 탄 재와 함께 사슴, 말, 코끼리 등의 뼈가 발견되었다. 이는 인류가 불을 집단 사냥에 활용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류는 불을 사용하면서 자연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나갔다.

북유럽의 추운 기후에 적응한 네안데르탈인 유적에서 불에 탄 동물 뼈가 발견되면서 보통 20만 년 전부터 인류가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호모 에렉투스의 두뇌 용량이 커진 것이 화식(火食)의 결과이며 턱뼈와 치아가 이미 화식에 적응하고 있다는 해부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화식의 시초를 180만 년 전으로 올려 보기도 한다.

집터 안에 돌로 난로를 만들고 불을 피워 난방을 한 사례는 약 10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 유적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한반도에서는 2만 년 전의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 화덕 자리가 있는 임시 주거지 흔적이 나타났다. 대전 용호동, 전남 장흥 신북 유적에서도 화덕 자리가 발견되었다.



영화 '불을 찾아서'(1981)
다른 부족의 습격과 늑대들의 공격으로 불을 잃게 된 부족이 불을 찾아 떠나는 과정을 담았다. 당시 생존과 직결되었던 불의 소중함과 신비로움을 보여 준다.

2 신석기 시대의 사회와 문화

바다와 강이 발달된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한반도의 신석기인들은 어로와 조개 채집에 적극적이었다. 규모가 큰 유적 대부분이 강가나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생계 자원으로 수산물의 비중이 높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특히 해안 지역에 형성된 대규모의 조개더미는 조개류 채집이 활발하였음을 보여 준다.

●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조개더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개류는 무엇이었을까?



동물 뼈와 조개껍데기(경남 통영)

신석기 문화가 출현하다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약 1만 년 이후의 후빙기에 들어 원시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토기나 간석기와 같은 신석기 문화의 특징적 유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은 기원전 8000년경의 제주 고산리 유적이다. 여기에서는 갈색의 이른 민무늬 토기가 다량 발견되어 오랜 기간 동안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암사동 토기(서울 강동)

기원전 6000년경부터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강원 양양 오산리 유적, 서울 강동 암사동 유적, 부산 영도 동삼동 유적, 황해 봉산 지탑리 유적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은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지탑리 유적에서는 탄화된 곡식과 농기구가 발견되고 강원 고성 문암리에서 밭의 흔적이 확인되어, 기원전 3000년경부터 한반도에서 원시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석기 문화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기원전 1000년경까지 지속되었다.





▲ 오산리 토기(강원 양양)



▲ 동삼동 토기(부산 영도)



◀ 고산리 토기(제주 제주)

한반도의 주요 신석기 유적과 토기

오산리 유적에서는 이른 민무늬 토기와 결합식 낚싯바늘을 비롯한 간석기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와 비슷한 형태의 유적들이 동해안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암사동 유적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그물추를 비롯한 석기들이 발견되었으며, 서해안 일대에서 이와 비슷한 유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삼동 유적처럼 위의 두 문화가 결합된 형식의 유적지는 주로 남해안 일대에 분포해 있다.

어로가 발달하고 농경이 시작되다

기원전 약 1만 년 무렵 기후 변화로 대형 동물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았으며 야생 곡물을 채취하거나 농경을 시작하였다.

농경이 처음 시작된 서남아시아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보리와 밀을 재배하였다. 중국 창장 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벼를 재배하였고, 황허 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6500년경부터 조와 기장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신석기 시대의 경제에서 농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으며, 사냥과 채집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집단 사냥 대신 돌화살이나 돌창 등으로 멧돼지, 꿩, 오리 등을 잡는 개인 사냥이 주로 이루어졌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갈돌과 갈판**을 사용하여 주로 자연에서 채집한 도토리를 갈아 먹었다. 도토리는 당시의 중요한 식량이었는데, 이는 경남 진주 상촌리 유적이나 창녕 비봉리 유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정교하게 갈아 만든 결합식 낚싯바늘, 작살, 돌그물추 등으로 어로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참돔, 다랑어 등을 낚시로 잡고 바다사자, 물개, 고래, 상어와 같은 바다 포유류와 대형 물고기를 작살로 사냥하였다. 또한 대구와 농어 등을 그물로 잡는 집단 어로 방식이 유행하였다. 바닷가에서는 굴, 바지락, 홍합 등의 조개류를 채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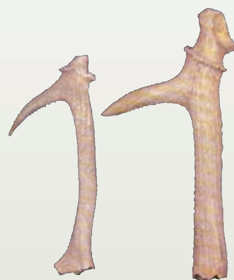
기원전 3000년경에는 한반도에서도 농경이 시작되어 돌로 만든 보습, 따비, 괭이 등으로 농사를 지었고, 돌낫이나 돌칼 등을 사용하여 수확하였다. 이 시기에는 조와 기장을 밭에서 재배하는 원시 농업이 이루어졌다.




탄화된 곡물, 돌보습과 돌낫(황해 봉산 지탑리)



결합식 낚싯바늘(국립 대구 박물관)



뿔괭이(평남 온천)



돌화살촉(제주 제주)



돌그물과 그물추(국립 중앙 박물관)

마을을 이루다


움집(서울 강동)

신석기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해안이나 강가를 중심으로 정착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구석기 시대보다 집단의 규모가 커져 부족 사회를 이루었다. 부족에는 족장이 존재하였으나 정치적 권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족 구성원들은 자급자족 경제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생활하였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주거지는 **움집**이었다. 처음에는 얕은 바닥의 원형 움집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바닥이 더욱 깊어지고 평면 구조도 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출입구가 돌출식이나 복도식으로 바뀌고 기둥 배치도 정연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장신구나 예술품도 나타났다. 옥이나 조개껍데기로 귀걸이, 발찌, 팔찌 등을 제작하거나 흙으로 개, 뱀, 말, 멧돼지와 같은 동물이나 사람 얼굴 모양을 빚었으며 큰 조개껍데기를 가공하여 가면을 만들기도 하였다.

시신은 독무덤이나 움무덤에 묻었으며, 화장도 행해졌다. 경남 통영의 연대도에서는 이 시기의 공동묘지가 확인되었는데, 피장자 사이에 신분 차이는 없었다.

이 무렵에는 **원시 신앙**도 출현하였다. 원시 신앙에는 만물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특정한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무당 등을 통한 초자연적 힘을 믿는 샤머니즘 등이 있었다.


조개껍데기 예술품과 각종 팔찌(부산 영도)

역사 더하기 — 신석기 시대의 주식, 도토리묵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는 도토리, 가래, 밤 등의 견과류가 출토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도토리이다. 도토리는 조와 기장 등의 곡물이 재배되기 이전에 가장 많이 이용된 야생 곡물이었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도토리는 잘 썩지 않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었다. 신석기인들은 도토리를 집안에 세워 둔 대형 빗살무늬 토기에 저장하거나 땅에 저장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도토리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을 제거하려고 주로 물기가 있는 지층에 저장 구덩이를 만들었다. 경남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는 도토리 저장 구덩이들이 발견되었는데, 큰 저장 구덩이는 지름이 1.9m, 깊이가 50cm로 도토리 500kg 정도를 저장할 수 있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갈돌과 갈판을 이용하여 도토리를 가공하였다. 이들은 껍질을 깐 도토리를 물을 채운 큰 토기에 1~2일 담아 두어 탄닌과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갈돌과 갈판으로 갈아 가루로 만들었다. 도토리 가루는 작은 토기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묵으로 만들어 먹었다.


비봉리 유적의 탄화된 도토리(복천 박물관)


갈돌과 갈판(서울 강동)

3 청동기 문화와 민족 형성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의 기원이 되는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요서와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며, 그 밖에 내몽골 지역과 한반도 전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비파형 동검과 함께 출토되는 여러 유물을 보면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에서는 어떠한 정치 세력들이 나타났을까?


비파형 동검



한반도의 청동기 유적과 토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요동 지방에서 청천강 유역에 이르는 미송리식 토기 문화권, 한반도 동북부 지역의 구멍무늬 토기 문화권,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포괄하는 한반도 서북 지역의 팽이형 토기 문화권, 한반도 남부 지역의 민무늬 토기 문화권으로 나뉜다.

비파형 동검을 만들다

청동기 문화는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서남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문명이 성립하였고, 기원전 2600년경에는 파키스탄 인더스 강 유역에서 인더스 문명, 기원전 1800년경에는 중국 황허 강 유역에서 중국 문명이 나타났다.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늦어도 기원전 1000년경에 비파형 동검을 바탕으로 한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비파형 동검은 중국의 요서 지방과 요동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요서 지방에서는 목축의 발달을 보여 주는 마구 등이 많이 출토되었고, 요동 지방에서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유물이 주로 출토되었다. 이 중 요동 지방의 청동기 문화는 고조선이 성립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벼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여주 흔암리 유적에서는 밭이나 화전에서 벼를 재배한 흔적이,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는 물을 댄 논에서 벼를 경작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논을 만들어 벼를 재배하는 본격적인 농경 문화는 그 후 한반도 남부 지역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청동기 시대의 논 유적(울산)
울산 무거동 옥현 유적에서는 구릉 위에 60여 동의 청동기 시대 집터가 확인되고, 구릉 아래 골짜기에서 논이 발견되었다. 청동기 시대 논은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며 수로, 경작 흔적, 발자국 등이 남아 있다. 땅을 파거나 수확하는 데 쓰인 석기들도 출토되었다.

계급 사회로 발전하다

요동 지방과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청동기 문화는 점차 한강 이남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은 지배층의 무덤인 돌널무덤과 고인돌이다. 이들 무덤에서 출토된 껴묻거리의 수량과 수준으로 보아 요동 지방과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발달된 계급 사회가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남부 지역은 계급 사회로의 발전이 늦어졌다. 청동기 시대 한반도 남부 지역에 형성된 마을의 주거지 크기나 배열 및 집약 농경을 위한 관개 시설 등을 볼 때 2~3단계의 계층과 함께 초보적인 **군장**이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남부 지역의 지배층 출현
충남 보령 관창리 유적에서는 논의 중앙부에 도랑을 설치하고 그 양쪽 둑에 나무를 박아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는 인공적 수리 관개 시설이 확인되었다. 이는 피지배층을 통제하고 동원하여 시설을 축조하고 관리하는 군장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탐구 활동 돌널무덤과 고인돌

청동기 시대의 돌널무덤은 중앙아시아에서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분포하는데, 청천강 이북 지역이 중심을 이룬다. 고인돌은 요동 지방에서 한반도에 걸쳐 분포하며, 청천강 이남 지역이 중심을 이룬다.

돌널무덤에서는 비파형 동검, 청동 화살촉, 청동 도끼와 같은 수준 높은 유물이 출토되며, 청동기를 자체 제작했음을 보여 주는 돌로 만든 거푸집들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발달된 청동기 문화를 보유한 세력들이 돌널무덤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고인돌에서는 간 돌검이나 간 돌화살촉 한두 점 정도가 출토되었다. 이따금 비파형 동검이나 청동 화살촉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는 고인돌 축조 세력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선진 문화 지역에서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대한 고인돌을 세우는 데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필요했으므로, 고인돌에 묻힌 사람들은 족장이나 군장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그 가족이었을 것이다.



십이대영자 무덤에서 출토된 원판형 장식품
중국 랴오닝 성 차오양 시에 있는 십이대영자 돌널무덤에서는 청동 검, 청동 단추, 말 재갈, 원판형 장식품, 말머리 모양 장식품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관산리 고인돌(황해 은율)
덮개돌 무게가 40톤에 이르는 거대한 무덤이다.





송국리 돌널무덤과 출토 유물(충남 부여)

1. 우리나라에서 청동기가 발달한 지역을 말해 보자.
2.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고인돌을 제작한 이유를 발표해 보자.

우리 민족의 토대가 형성되다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으나, 이들은 오늘날의 한국인과 차이가 난다. 신석기 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온 주민들이 우리 민족의 토대를 이루었고, 이들은 그 뒤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주민들과 결합하면서 한국인이 형성되었다. 한국인은 동북아시아 북쪽 인종의 특징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국의 동북부, 만주, 한반도 등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고대에 만주와 한반도에서 살던 주민들은 한족, 예족, 맥족 등으로 불리었다. 한족은 대체로 한반도 중서부와 남부 일대에, 예족은 만주와 한반도 동북부 및 경북 동부 지역에 분포하였다. 맥족은 요동 반도와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생활하였는데, 예족과 합쳐 예맥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강 유역에는 한족, 예족, 맥족이 모두 살았다.

이들은 각지에서 토기를 비롯한 특징적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면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국가를 세웠다.

역사 더하기+ 역사 속에서 통합을 이룬 한국인

한민족은 긴 역사 발전 과정을 거쳐 통일 왕조를 세우고 외세와 맞서면서 공동의 역사의식을 형성해 갔다. 삼국과 가야가 오랫동안 국가를 유지하면서 한, 예, 맥을 구분하던 인식은 사라졌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옛 삼국과 가야의 주민이었다는 정도의 역사의식만 남았다.

신라 말기에 후고구려, 후백제, 6가야 등의 관념이 일시적으로 부활하였으나, 고려가 이를 재통일하고 발해 유민을 수용한 뒤에는 민족 전체가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굳건해졌다. 고려 후기에 고구려와 백제 등을 부흥해야 한다는 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그 강도는 약하였고, 조선이 성립한 이후에는 분립적 역사 인식이 사라졌다.

중단원 마무리

1. 다음 도구의 용도를 써 보자.

(1)



(2)



2. 청동기 시대에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사회 변화를 서술해 보자.

조건 사회 변화를 보여 주는 유물을 포함할 것

역 사 산 책

전곡리 선사 유적지를 가다



1978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서 전기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어 2009년까지 17차례에 걸친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곡리 유적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이는 세계 전기 구석기를 찍개 석기 문화와 주먹도끼 문화로 구분한 모비우스의 이론을 반박하는 최초의 증거였다.

전곡리 유적에서는 몸돌과 격지, 주먹도끼, 가로날 도끼, 긁개, 뾰족 끝 찍개 등 다양한 석기들이 6,000점 이상 출토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도구는 주먹도끼이다. 주먹도끼는 끝이 뾰족한 첨두형과 전체적으로 두툼한 타원형이 있으며, 대체로 사람 손 크기 정도이나 이보다도 큰 것도 있다. 주먹도끼는 짐승을 도살하거나 나무를 다듬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전곡리 선사 유적지

전곡리 선사 유적에서 가장 이른 주먹도끼가 출토된 지층의 연대는 약 35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약 10만 년 전과 2만 5천 년 전의 화산 퇴적층도 확인되어, 그 후로도 구석기인들이 전곡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경기도는 이 유적지에 전곡 선사 박물관을 세웠다. 박물관에는 전곡리에서 출토된 주먹도끼 외에 프랑스의 화석 인류 복원 전문가가 복원한 세계의 대표적 화석 인류들이 다양한 동물 박제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전곡 선사 박물관은 인류의 기원과 진화를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주먹도끼 문화권과 찍개 문화권의 유적 분포



전곡 선사 박물관 상설 전시실, '인류 진화의 위대한 행진'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주먹도끼들

02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이 단원에서는 >> 1. 고조선의 성립과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 고조선의 대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3.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고조선의 성장

문헌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시기에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도인 왕검성 관련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조선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 고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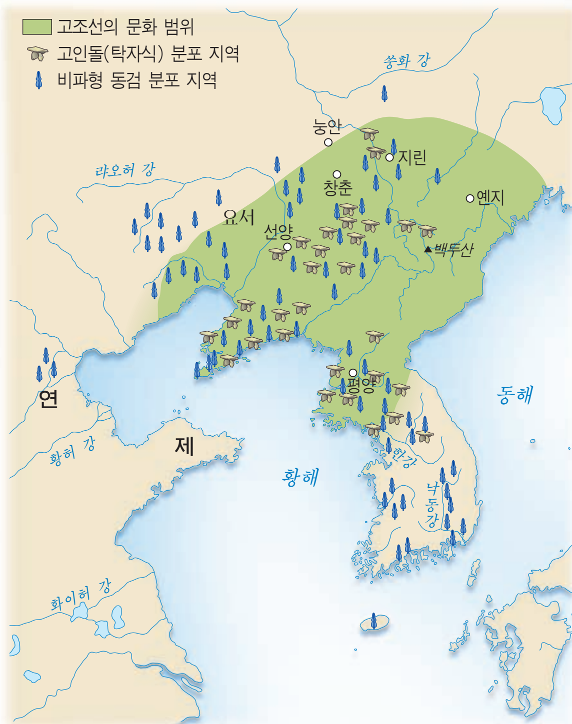


단군왕검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건국하다

"삼국유사"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의 아들 환웅이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고,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초기 계급 사회의 출현과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성립을 알려 주는 것이다.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 범위로 보아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초기에 중국의 랴오허 강 동쪽과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 사이에서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은 일찍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중국 고대 국가들과 교류하거나 대적하면서 성장하였다. 기원전 7세기경에는 산둥 반도에 있던 제와 교역하였고, 기원전 4세기 이후에는 중국 북부 지역의 연과 대립하다가 침입을 받기도 하였다.



고조선 관련 유물·유적의 분포



번개무늬 청동 거울(중국 선양)
중국 선양 정자와쯔 유적은 랴오허 강 중류의 기원전 5세기 덧널무덤 유적으로 비파형 동검, 청동 단추 등의 장신구, 재갈과 같은 마구류가 다수 출토되었다. 이 지역은 고조선의 초기 근거지 중 하나로 추정된다.



"위략"에 나타난 고조선과 연의 대결

"위략"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옛날에 주가 쇠하고 연이 자기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며 동쪽으로 땅을 빼앗으려 하자, 기자의 후손 조선후도 또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을 쳐서 주 왕실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대부 예가 간언하므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예를 서쪽으로 파견하여 연을 설득하게 하니 연도 전쟁을 중지하고 침공하지 않았다. 그 뒤 자손들이 점점 교만하고 포학해지자 연은 장군 진개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쳐서 2천여 리의 땅을 빼앗고 만번한에 이르러 국경을 삼았으니, 마침내 조선은 쇠약해졌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왼쪽 기록은 기원전 3, 4세기경의 고조선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의 시각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실과 어긋난 점도 있다. 고조선의 왕을 기자의 후손으로 여기거나 고조선 왕이 주 왕실을 높이려고 했다는 기록, 고조선 사람들이 교만하고 포학했다는 기록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서 고조선이 중국의 연과 대등하게 맞설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철기 문화를 수용하다

기원전 4세기 말에서 기원전 3세기 초에 요동 지방과 한반도의 서북부 지방에 중국 전국 시대의 철기 문화가 유입되었다. 같은 시기에 대동강 유역에서는 독자적인 형태의 **세형 동검**과 거친무늬 거울 등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

기원전 3세기 말 이후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가지창과 같은 청동 무기가 출현하였고, 청동기 주조 기술도 더욱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잔무늬 거울, 청동 방울 등이 제작되었고,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과 일본 열도에까지 전파되었다. 철기 문화가 보급됨에 따라 문화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으로 지배 계급의 권위가 높아져 계급 사회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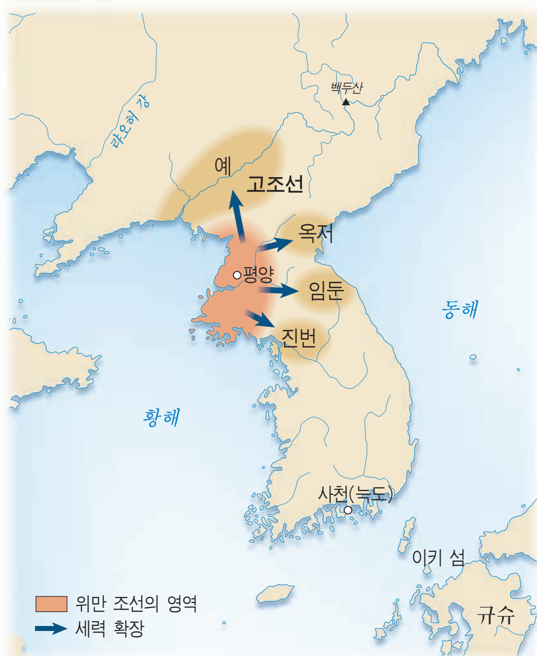

세형 동검과 거푸집(국립 중앙 박물관)

초기 철기 시대에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 시기의 주거지는 방형의 반움집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청천강 이북의 서북 지역과 두만강 지역에서는 종전의 화덕 대신에 난방과 조리 기능을 한층 발전시킨 부뚜막과 구들 시설이 나타났다. 또한 고인돌과 돌널무덤이 점차 사라지고, **널무덤**이 새로이 나타나 전국적으로 널리 유행하였다.


방패형 동기(충남 아산 남성리)


초포리 출토 유물(전남 함평)


각종 철기(평북 위원)



위만 조선의 팽창


명도전(평북 위원)과 반량전(경남 사천)
고조선과 한반도 각지에서 발견된 중국의 화폐이다. 당시 국제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 준다.

위만 조선이 뒤를 잇다

기원전 3세기경 고조선은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기원전 3세기 말 이후 중국에서 진이 멸망하고 한이 들어서는 혼란기가 전개되자 많은 사람이 고조선으로 이주하였다. 이 무렵 요동 지방에 있던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들어오자, 고조선의 준왕은 그를 받아들이고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위만은 세력이 커지자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이때 준왕은 신하들을 이끌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한왕(韓王)'이 되었다.

위만은 한과 협력하여 국경을 안정시키고 주변 군장 세력들의 교역을 중계하는 한편, 중국의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만 조선은 진번과 임둔 등을 정복하여 한반도 북부 지역을 거의 다스리게 되었다. 또한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의 여러 세력들과 교역하며 선진 문물을 전해 주었다. 위만 조선은 왕 밑에 대신, 장군의 신하를 거느리고 상당수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등 어느 정도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어 갔다.

위만 조선의 우거왕은 한반도 남부 세력들과 한의 교역을 막아 중계 교역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에 한 무제는 수군과 육군을 보내 위만 조선을 공격하였다. 위만 조선은 우거왕을 중심으로 1년여 동안 잘 저항하였으나, 지배 세력이 분열하여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 무제는 고조선의 옛 땅에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 등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탐구 활동 8조법을 통해 본 고조선 사회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8조법을 시행하였는데, 그중 3개 조항이 전하고 있다.

1.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3.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치러야 한다.

– "한서" 지리지

8조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말해 보자.

2 여러 나라의 성장

나라 안에서는 옷을 입을 때 흰빛을 숭상하여 흰 베로 만든 소매 넓은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에는 수를 놓은 비단옷과 모직 옷을 즐겨 입고 대인들은 여우, 너구리, 원숭이, 또는 희거나 검은 담비의 가죽옷을 더하고 모자에 금은으로 장식을 한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여러 나라가 있었던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흰옷을 숭상한 까닭은 무엇일까?



부여 관리의 모습(상상화)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파되다

기원전 1세기 이후 한반도 전역에 철기 문화가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세형 동검을 비롯한 한국식 동검 문화가 쇠퇴하고 중국 또는 고조선 등의 영향을 받은 청동기와 철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청동기로는 쇠뇌, 말종 방울, 마구나 수레 부속, 거울, 동전, 솥 등이 있다. 철기로는 가지창, 투겁창, 칼, 화살촉 등의 무기류와 도끼, 낫, U자형 삽날과 같은 여러 농기구가 나타났다. 또한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용해로의 벽체, 송풍관, 쇠 찌꺼기, 단야 도구 등 철기를 자체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토기는 개방형 노천 가마에서 구운 갈색 토기류 대신에 폐쇄형 오름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운 회색 타날문 토기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토기 형태도 다양해져 원통형 토기, 화분형 토기, 화로형 토기, 각종 항아리, 굽다리 접시, 시루 등이 나타났다.

한반도의 철 생산 관련 유적지
압록강 유역의 시중 노남리 유적, 두만강 유역의 무산 호곡동 유적, 경기 화성 기안리 유적과 가평 대성리 유적, 경북 경주 황성동 유적, 경남 창원 성산 패총 유적 등이 있다.

타날문 토기
불에 구운 태토(胎土)가 연하고 외면에 두들겨 만든 집선문 등이 찍혀 있는 토기이다.



송풍관(경북 경주 황성동)
금속을 달굴 때 사용하는 단야로의 온도를 높이고자 바람을 넣는 관이다.



단야 도구인 집게와 망치(경남 합천)
불에 달군 금속을 두드려 무뎌진 날을 날카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도화리 철기(충북 제천)



굽다리 접시(부산 노포동)



화로형 토기(경북 경주 황성동)



쇠뿔잡이 항아리(경남 김해 양동리)



화로형 토기(경북 경주 조양동)



시루(강원 홍천 화화계리)



여러 나라의 성립

나라마다 정치 발전 정도가 달랐다

1세기에서 3세기 무렵 만주와 한반도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정치가 발전한 정도는 서로 달랐다.

한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고구려**와 **부여**는 일찍부터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왕권이 존재하는 초기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다.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은 낙랑군 및 대방군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의 소국이 모여 연맹체를 형성하였다. 성장이 가장 늦은 **옥저**와 **동예**는 여러 부족이 뭉쳐 개별적인 군장 사회를 이루었다. 부여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상호 교류와 경쟁을 통하여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고대 국가의 기반을 닦아 나갔다.

이 시기에 철제 무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각 소국 사이에 전쟁이 빈번해졌다. 이 때문에 방어를 위해 약간 높은 지대에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마을 주위를 토성이나 목책, 도랑 등으로 에워싸기도 하였다.

가축을 기르고 농업에 힘쓰다

부여에서는 대가들의 호칭에 말, 소, 돼지, 개 등의 가축 이름을 붙일 정도로 목축이 중요시되었으며, 명마가 생산되었다. 고구려에서도 작지만 날렵한 말이 생산되어 탈것으로 이용되었다. 동예에서는 소와 말을 중요한 재산으로 취급하였고, 과하마가 유명하였다. 삼한 사람들은 소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녔으며, 주호(제주도) 사람들은 소와 돼지를 잘 길렀다.

과하마
키가 석 자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말로서, 말을 탄 채로 과일나무 밑을 지날 수 있다고 하여 과하마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러 나라는 모두 농업을 중시하였다. 부여와 고구려, 옥저는 주로 밭농사로 오곡을 생산하였다. 고구려에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조그만 창고가 있었으며, 곡식으로 술을 빚기도 하였다.

삼한에서는 밭농사뿐만 아니라 논농사를 지어 벼를 생산하였는데, 대개 음력 5월에 씨를 뿌리고 10월에 추수하였다. 삼한과 동예는 삼을 재배하여 베를 짜고 뽕나무와 누에를 쳐서 비단을 생산하였다.

이 시기에는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한층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쇠낫, 살포 등이 사용되었고, 점차 쇠도끼, 유(U)자형 쇠 삽날, 쇠스랑 등 대형 농기구도 나타났다.



각종 철제 농기구(국립 중앙 박물관)
초기 철기 시대에는 철기 제작 전문 집단을 보유하고 있던 왕이나 대수장이 각지의 소군장들에게 철제 농기구를 분배하였다.

나라마다 독특한 혼례와 장례를 치르다

고대 사회 초기에는 부계 중심의 일부일처제에 기반을 둔 가족이 형성되었으며, 각 지역마다 독특한 혼인 풍속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부여에서는 취수혼, 고구려에서는 서옥제, 옥저에서는 민며느리제, 동예에서는 족외혼 등이 시행되었다.

장례는 죽은 사람을 관에 넣어 매장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규모나 절차는 나라마다 달랐다.

일찍부터 계급 사회로 발전하여 뚜렷한 지배층이 형성된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장례도 후하게 치러졌다. 부여에서는 왕이나 지배층이 죽으면 수십에서 수백 명을 순장하고 몇 달에 걸쳐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음식을 차렸다. 고구려에서는 혼인 때부터 수의를 마련하고, 장례 때에는 금은, 돈, 폐백 같은 것을 후하게 썼다. 고구려 지배층은 돌무지무덤을 조성하고 그 앞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옥저에서는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긴 나무 덧널에 넣었고, 동예에서는 식구가 심하게 앓거나 죽으면 살던 집을 버리거나 헐어 버렸다.

마한에서는 장사를 지내는 데 소나 말을 순장하였다. 진한과 변한에서는 장사 지낼 때 큰 새의 깃을 함께 묻어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날아오르기를 기원하였다. 삼한의 고분이나 제사 유적에서는 오리 모양 토기와 새 모양 목기, 새 무늬 청동기 등이 출토되어 이러한 의식을 뒷받침한다.

동예의 족외혼과 책화
족외혼은 공동체 사회의 풍속이고, 책화는 배타적인 자급자족 경제에 기반을 두었던 부족 사회의 풍속이다.



오리 모양 토기(울산 중산동)

탐구 활동 여러 나라의 결혼 풍속

자료 1 부여와 고구려

부여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이 풍속은 흉노와 같다. …… 고구려의 풍속은 혼인을 할 때 양쪽 집의 의논이 이미 정해지면 신부의 집에서 자기 집 뒤에 조그만 집 하나를 짓는데 이것을 서옥이라고 한다. 사위 될 사람이 저녁에 신부의 집에 와서 문밖에서 자기 이름을 대고 꿇어 앉아 신부와 함께 자겠다고 간청한다. 간청하기를 두세 번 하고 나면 신부의 부모가 비로소 승낙하고 집 뒤 조그만 집에 가서 자게 한다. 이때 신랑은 돈과 비단을 내놓는다. 이렇게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아 이미 크게 자라면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간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자료 2 옥저와 동예

옥저에서는 여자가 열 살만 되면 이미 혼인을 허락한다. 남편이 될 사람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길러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때 여자의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여 돈을 지불하면 도로 사위 집으로 돌려보낸다. …… 동예에서는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또한 마을끼리 서로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그 벌로 노비[生口]나 소 또는 말을 내놓도록 한다. 이것을 책화라고 한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1. 자료 1을 읽고 부여와 고구려의 결혼 풍속을 지금과 비교해 보자.
2. 자료 2를 바탕으로 옥저와 동예의 경제와 사회 모습을 유추해 보자.



솟대
삼한의 소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신성 지역임을 표시하였다.

점을 치고 하늘에 제사 지내다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와 점복이 행해졌다. 부여에서는 전쟁이 나면 소를 잡아 그 발굽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 삼한의 각 고을에는 제사장인 천군이 머무르는 소도가 있었는데, 만일 도망자들이 **소도**에 들어오면 이들을 잡아 갈 수 없었다. 이는 삼한이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정 분리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편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5월제 · 10월제 같이 목축 및 농경과 관련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가 있었다. 이때에는 죄수를 풀어 주고 모든 사람이 잘 차려입고 나와 밤낮으로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다. 이러한 행사는 사회 규모가 점차 커지는 과정에서 여러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소국이나 왕국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을 하였다.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다

여러 나라는 상호 교역을 전개하면서 북방 유목 민족, 중국의 한, 일본 열도와도 문물을 교류하였다. 부여는 한에 말, 옥과 구슬, 담비 가죽 등을 수출하였고, 한의 옥갑과 청동 거울이 부여에 들어오기도 하였다. 부여가 있던 중국 지린 성 지역에서는 북방 계통의 각종 동물 모양 장신구가 발견되어 유목 집단과도 교류했음을 알려 준다.

고구려는 현도군을 통해 한과 교류하다가 나중에는 사신을 보내 조공 무역을 하였고, 동예는 단궁, 반어피, 표범 가죽, 과하마 등의 특산물로 중국과 교역하였다.

낙랑군이 있던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는 중국 계통의 금은 장신구, 옥, 동전, 청동기와 철기, 칠기, 봉니, 기와, 벽돌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삼한은 한 군현과 교역하며 중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마한은 큰 밤, 긴꼬리닭 등의 특산물로 유명하였고, 낙랑군 계통 토기와 각종 청동기, 동전, 금박 유리 등을 수입하였다.



여러 나라의 교역

변한은 덩이쇠를 만들어 물건을 사고팔 때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마한, 동예, 낙랑군과 왜 등에 수출하였다. 또한 중국과 낙랑군에서 각종 청동 제품과 장신구를 도입하였으며, 북방 계통의 청동 솥, 말 모양이나 호랑이 모양의 허리띠 장식 등을 들여왔다. 이 지역에서는 폭넓은 청동 투겁창, 야요이 토기 등이 발견되어 일본 열도와도 교류했음을 보여 준다.

남해안의 사천 늑도, 여수 거문도, 제주 산지항 등에서는 오수전을 비롯한 중국 동전들이 다수 출토되어 당시에 대외 교역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나라의 교역품




중국식 거울(국립 중앙 박물관, 경남 김해 양동리)
한의 대표 수출품인 청동 거울은 부여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전해져 각지에서 다양한 거울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평양 석암리 금제 띠고리(국립 중앙 박물관)
평양 석암리 9호 낙랑군 무덤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장식으로 얇은 금판에 수백 개의 금 알갱이를 붙이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옥갑(중국 허베이 성)
수백 개의 옥을 꿰매어 만든 장례 용구로서 한에서 천자나 제후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온몸을 감쌌다.



덩이쇠(국립 중앙 박물관)
덩이쇠는 철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미리 만든 중간 소재이다. 풍부한 철이 생산되었던 변한에서는 여러 나라에 덩이쇠를 수출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다음 글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 교류에 대하여 서술해 보자.

(가) (진 · 변한이란)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왜에서 모두 와서 가져갔다. 사고팔 때에 모두 철을 사용하였으니,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 또한 그것을 (낙랑과 대방의) 두 군에 공급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나) (대방)군에서 왜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따라 바닷길로 가는데, 한국을 거치면서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면, 그 북쪽 해안인 구야한국(가야 연맹 중 한 곳)에 이르니, 7천여 리이다. 비로소 바다를 건너 1천여 리를 가면 대마국(쓰시마 섬)에 이른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조건 교역로와 핵심 물품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03 삼국 및 가야의 성립과 발전

이 단원에서는 >>
1. 삼국 및 가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2. 삼국 및 가야의 경쟁 관계와 주변 국가와의 대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삼국 및 가야의 사회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1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는) 배를 타고 바다로 다녀서 사신 왕래가 항상 있었다. 또한 북위에도 사신을 보냈지만 그들은 강성해서 제약을 받지 않았다. 북위에서는 여러 나라 사신이 거처하는 집을 두었는데 남제의 사신이 첫째이고 고려(고구려)가 그 다음이었다. – "남제서"

● 북위나 남제와 대등한 외교를 펼친 고구려의 왕은 누구일까?



장군총(중국 지린 성 지안)

고구려가 한 군현을 몰아내다

고조선 이후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부여와 고구려가 일어나 한 군현과 맞서 싸우면서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였다. 1세기 후반 고구려 **태조왕**은 계루부를 중심으로 5부를 연합하여 초기 고대 국가를 성립시켰으며,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고 요동 지방을 공격하였다. 2세기 후반 한의 세력이 약해지자 고구려는 수차례 요동 지방을 공격하여 한 군현을 고립시키려 하였다. 이 무렵 고국천왕은 연나부의 반란을 진압하고 을파소를 등용하여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서안평
압록강 하류 유역으로 현재 중국 랴오닝 성 단둥 동북쪽이다. 당시 중국과 낙랑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3세기 전반 동천왕은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하다가 위 장군 관구검의 반격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 후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국력을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천왕은 낙랑군과 대방군을 멸망시켜 중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러나 고구려는 4세기 중엽 이후 전연의 침입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어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4세기 후반 고구려는 고국원왕이 백제의 공격을 받아 평양성에서 전사하는 어려움을 겪고, 거듭되는 위기 속에 주변 국가에 대한 거시적 외교와 안정된 지배 질서 창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하여 **소수림왕**은 전진과 교류하여 불교를 받아들이는 한편, 태학을 세우고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 후 고구려는 한반도 동남부의 신라와 수교하여 백제를 봉쇄하려 하였다.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이 되다

4세기 말에 즉위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대를 회복하고, 북쪽으로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여 요동과 만주 지역을 차지하는 등 영토를 크게 넓혔다. 또한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면서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여(427) 국내 정세를 안정시켰다. 장수왕은 중국 남북조의 대립을 이용한 실리적 외교 정책을 구사하여 북위와 화친을 맺고 북방 유목 민족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또한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백제의 수도 위례성(한성)을 함락시키고(475), 신라를 공격하여 한강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고구려는 북위와 외교 관계를 안정시키고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으나, 6세기 중엽에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면서 귀족 사회가 분열되고 왕권이 약화되었다. 이 무렵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협공을 받아 한강 유역을 모두 상실하였다.



고구려의 최대 판도(5세기)
고구려는 5세기에 만주와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역사 더하기 — 유물에 나타난 고구려의 정복 활동

> 고구려 대왕 할아버지왕의 명령으로 신라 매금(왕)과 더불어 영원토록 형제가 같이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 동이 매금의 옷을 내려 주었다. – 충주 고구려비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정복 활동은 중국 지린 성 지안의 광개토 대왕릉비와 충북의 충주 고구려비에 잘 기록되어 있다. 충주 고구려비에는 장수왕이 중원(충주)을 차지하고 신라 매금(왕)과 종속 관계를 맺는 내용이 있다.



충주 고구려비(충북 충주)

신라의 무덤인 호우총에서는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호태왕 호우십"이란 명문이 새겨진 청동 그릇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413년에 사망한 광개토 대왕의 3년상 행사(을묘년, 415)에 쓰였던 제사 용기로 보인다. 이를 통해 5세기에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수도였던 몽촌 토성에서도 고구려의 전형적인 토기인 네 귀 달린 항아리가 발견되어 고구려가 위례성을 함락한 뒤 한동안 이 지역을 점령했던 사실을 알려 준다.



호우명 청동 그릇(경북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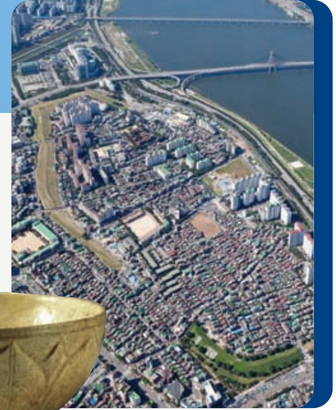
중국 지린 성(좌)과 몽촌 토성(우)에서 발견된 고구려의 네 귀 달린 항아리

2 백제의 성립과 발전

1996년에 풍납동 토성 안의 연립 주택 단지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 4~5미터 아래 백제 시대의 집터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또 토성 둑 안쪽에 세 겹의 도랑이 둘러져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백제가 3세기 후반에 거대한 토성을 축조하였고 그 전부터 이곳에 존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 서울 풍납동 토성을 축조한 백제의 왕은 누구일까?


서울 풍납동 토성에서 출토된 동진 청자


서울 풍납동 토성(서울 송파)


서울 몽촌 토성(서울 송파)

백제가 성장하다

3세기 전반까지 마한 지역에는 54개 소국이 분립되어 있었고 목지국의 진왕이 이를 대표하였다. 한강 유역의 백제는 마한의 북부 소국 중 하나였다. 백제는 3세기 후반 **고이왕** 때 관등제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한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서울의 풍납동 토성과 몽촌 토성은 이 시기에 고대 국가 백제가 탄생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 후 백제는 북쪽의 낙랑군과 대방군, 남쪽의 마한과 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4세기 전반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게 멸망하면서 국가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4세기 중엽에 백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였고, 남쪽으로 마한의 잔여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일대까지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동진에게서 선진 문물을 수입하여 가야 및 왜와 연결되는 교역로를 개척하였다. 이후 침류왕은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백제는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백제의 발전(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고 마한의 남은 세력을 복속시켰다. 또한 중국의 남조, 가야, 왜 등과 교류하였다. 요서 진출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서울 석촌동 고분군 중 3호분(서울 송파)
한성 시대 백제의 고분군 중에서 가장 큰 3호분은 근초고왕릉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중흥을 꾀하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위축되었다. 이에 중국 남조와 외교를 강화하고 신라, 가야, 왜 등 주변 국가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개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사망하고 한성이 함락되자 웅진(공주)으로 천도하였다. 백제는 동성왕 때부터 국력을 회복하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493) 안정을 도모하였다.

5세기 백제의 외교 전략
백제의 비유왕은 중국의 남조, 한반도 남부, 왜를 연결하는 동맹을 구성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남조의 송과 신라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6세기 무령왕 때에 이르러 백제는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해 갔다. 북쪽으로는 금강 이북의 일부 영토를 회복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영산강 유역을 정비하고 대가야를 억압하여 섬진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지방에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웅진성(공산성, 충남 공주)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수도를 사비(부여)로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청을 22부로 확대하고 수도와 지방을 5부와 5방으로 정비하였으며,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를 강화하였다.

성왕은 신라, 가야와 연합한 뒤 고구려 남부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유역을 회복하였으나, 얼마 뒤 신라에게 다시 빼앗겼다. 이로써 나·제 동맹은 파탄에 이르렀다. 백제는 한강 유역을 탈환하고자 가야, 왜와 함께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관산성(옥천) 싸움에서 성왕이 전사함으로써 패하였다. 6세기 후반 위덕왕은 관산성 패전 직후의 위기를 수습하고 중국 남북조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다.

역사 더하기 + 무령왕릉의 국제성

무령왕릉은 터널식 벽돌무덤으로 백제의 와박사(瓦博士)가 중국 남조의 양의 관와(官瓦)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이 들어 있는 목관의 고리와 못은 모두 금이나 은판을 씌운 화려한 것이었으며 특히 그 목재는 일본에서만 나는 금송이었다.

무덤의 껴묻거리도 외래 수입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 무덤 입구에 배치하여 외부 침입자와 사악한 기운을 막아 내는 돼지 모양의 진묘수는 형태로 보아 중국 남조에서 발견된 것들과 유사하다. 청동 잔, 청동제 그릇 받침과 은으로 만든 잔, 청자 단지, 네 귀 달린 흑자 병, 백자 잔 등은 모두 중국 남조에서 유래한 물건들이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의자손수대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청동 거울과 청동 다리미 등은 일본에서도 그와 똑같은 것들이 출토되었고, 무령왕비의 금귀고리와 비슷한 것이 가야계 소국이 있었던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이로 보아 무령왕릉은 백제가 중국 남조의 선진 문화를 소화하여 가야나 왜에 전해 주는 국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무령왕릉 내부(충남 공주)

3 신라와 가야의 성립과 발전

가라국은 삼한의 종족이다. 건원 원년(479) 국왕 하지의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쳤다. 조서를 내려 "…… 가라왕 하지가 먼 동쪽의 바다 밖에서 관문에 이르러 폐백을 받드니 가히 보국장군 본국왕을 제수한다."라고 하였다. - "남제서"

● 여기에 보이는 가라국은 어떤 나라일까?


本紀第一　南齊書一
梁　臣　蕭子顯　撰
大明南京國子監　祭酒　趙用賢
司　業　張一桂同校
高帝上
太祖高皇帝諱道成字紹伯姓蕭氏小諱鬭將
漢相國蕭何二十四世孫也何子酇定侯延生
侍中彪彪生公府掾章章生皓皓生仰仰生御
史大夫望之望之生光祿大夫育育生御史中

남제서

신라와 가야가 출현하다


경주 월성(경북 경주)

한반도 북부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늦은 남부 지방에도 철기 문화가 전파되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주변의 토착 세력들을 통합하고 낙랑군과의 해상 교역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소국으로 성장해 갔다.

3세기 전반까지 낙동강 유역과 영남 동부 지역에서는 각각 12개의 소국들이 느슨하게 연합하여 변한과 진한을 형성하였다. 변한과 진한의 소국들은 상호 간에 주도권을 다투다가 3세기 후반에 구야국과 사로국을 중심으로 좀 더 강하게 연합하여 가야와 신라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신라가 영토를 크게 확장하다

4세기 후반 신라의 **내물왕**은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고, 고구려를 통하여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왜의 침입을 물리치고 낙동강 동쪽의 가야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 대가로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에 눌지왕은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압력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5세기 후반 신라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맞서 국경 지역과 수도에 성을 쌓고, 백제와의 동맹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도의 방리명을 정하고, 우편 역마 제도를 실시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의 기반을 닦았다.


황남대총(경북 경주)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 중에서 가장 큰 고분이다.

6세기 지증왕은 지방을 주·군으로 제정하고,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이어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여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또 불교를 공인하였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왕권의 초월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금관가야를 병합하여 정복 전쟁에 나섰다(532).

진흥왕은 불교 교단을 육성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 후,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 지역까지 탈취하였다. 이어 함경남도 일대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일대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중국 및 왜와의 교통로를 확보하고, 삼국 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신라의 팽창(6세기)

가야 연맹이 발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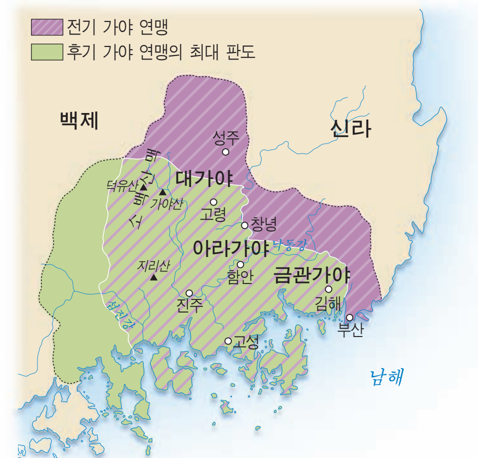
낙동강 유역의 가야 연맹은 우수한 제철 산업과 해운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교역하며 성장하였다. 4세기 후반 가야 연맹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룩하고, 백제와 왜 사이의 교역을 중계하며 발전하였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가야 연맹은 왜의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 낙동강 동쪽 영토를 상실하였고,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국이었던 금관가야도 크게 약화되었다.

5세기 이후 고령의 **대가야**가 안정된 농업 기반과 철광 개발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 되었다. 그 후 가야 연맹은 소백산맥 너머 호남 동부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중국 남조의 제에 조공하기도 하고 신라를 공격한 고구려 군대를 백제와 함께 물리치기도 하였다.

6세기에 가야 연맹은 백제에 밀려 소백산맥 서쪽의 호남 동부 지역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가야는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사방에 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였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522). 그러나 얼마 후 금관가야가 신라에 투항하면서 가야 연맹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과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역으로 분열되었다.

얼마 후에 가야 연맹은 다시 하나로 통합하여 백제에 의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가야 연합군이 관산성 싸움에서 신라에게 패하자 가야 연맹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결국 마지막까지 대항하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하면서 가야 연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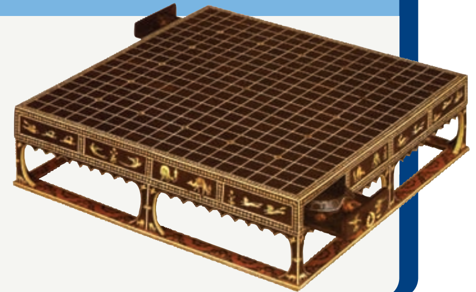


가야 연맹의 변천

4 삼국과 가야의 사회와 경제

(고구려 승려) 도림은 거짓으로 죄를 짓고 도망하여 온 것 같이 하여 백제로 들어왔다. 이때 백제 근개루왕이 바둑과 장기를 좋아하였다. …… 왕이 불러들여 바둑을 두어 보니 과연 국수(國手)였다. 이에 그를 높여 최고 손님으로 삼고 매우 친하게 지냈다. – "삼국사기"

● 백제 사람들의 바둑 열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백제의 바둑판(일본 도다이 사 쇼소인)

토지 소유에 차등이 생기다

삼국과 가야 초기에는 공동체적 성격이 유지되어 농민 사이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대 국가 체제가 진전되고 계급이 분화하면서 토지 소유에서도 차등이 생겼다.

고대 국가는 전쟁으로 영토를 획득하여 국가나 국왕의 직할지로 삼았으며, 귀족에게 직역이나 공로에 따라 토지를 주었다. 귀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력을 확대하여 대토지를 소유하고 하호나 노비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다.

농민이 대대로 경작하던 토지는 사유지가 되었고,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였다. 농민은 수취 체제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농민이 귀족에게 흡수되는 것을 막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고구려에서는 2세기 말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실시하여 봄에 농민에게 곡식을 꾸어 주고 추수가 끝난 가을에 돌려받았다. 백제에서도 6세기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좌관대식기(佐官貸食記) 목간(충남 부여)
6~7세기 백제 목간으로, 곡식을 돌려받을 때 봄에 꾸어 준 곡식의 30에서 50%를 이자로 받은 사실을 알려 준다.

조세 체제를 확립하다

국가는 개개인에게 인두세를 거두고, 집집마다 특산물을 부과하였으며, 부역으로 노동력을 징발하였다.

고구려는 15세 이상의 성인 남자인 정남에게 해마다 곡물 5석과 베 5필을 인두세로 내게 하였다. 이때 각 호를 재산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다.

백제는 보리, 콩, 벼 등의 현물을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였다. 신라에서는 중앙의 품주에서 수취 업무를 총괄하다가, 진평왕 때 조부가 설치되어 공부(貢賦) 수취를 담당하였다. 가야 연맹에는 각 소국 내부나 소국과 맹주국 사이에 일정한 공납을 부과하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각국은 정남을 부역에 동원하여 성이나 저수지의 제방을 쌓거나 궁궐을 수리하고 도로를 닦게 하였다.

신라의 부역 인구 파악
6세기 중엽에 세워진 단양 신라 적성비에는 소자(小子), 소녀(小女) 등의 구분이 보여 국가가 연령별, 성별 인구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농업 생산을 독려하다

고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기반은 농업이었다. 각국에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산간 지방이 많은 고구려에서는 조, 콩 등을 재배하는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다가, 점차 황해도 일대와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논농사가 확대되었다.



철제 보습(서울 광진)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 사이의 보습으로, 땅을 가는 데 사용하였다.

백제는 4세기에 벽골제를 축조하는 등 원래부터 논농사의 비중이 컸다. 신라는 초기에는 보리를 많이 재배하였으나 5, 6세기경부터 벼 재배가 확대되어 국가 차원에서 시제라는 저수지를 축조하고 전국의 제방을 수리하였으며 가축을 이용한 우경을 장려하였다.



김제 벽골제(전북 김제)
백제 비류왕 때 만들어진 저수지라 전해진다.

가야에서도 백제나 신라 못지않게 농업이 발달하였다. 경상도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지류 등을 이용하여 벼, 기장, 보리, 조, 밀, 콩, 팥 등을 재배하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농업 입지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이 재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한편 삼국과 가야에서는 시비법이 도입되지 못하고 토지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낮아 휴한 농경이 이루어졌다.

삼국과 가야에서는 가축과 가금류를 길렀다. 고구려에서는 돼지와 말이 널리 사육되어 중국 남조의 송에 말 800필을 보내기도 하였다. 가야 유적지에서는 개, 돼지, 소, 말, 닭의 뼈가 발견되어 가축이 사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악 3호분 벽화(황해 안악)
고구려 벽화 속 부엌에는 갈고리에 걸린 소, 돼지 등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의 조세 제도

- 부세(賦稅)는 비단, 베 및 곡물로 내는데 그 가진 바에 따르며, 빈부를 헤아려 차등 있게 내도록 한다. – "주서"
- 사람은 베 5필과 곡물 5석을 세(稅)로 내며, 유인(遊人)은 3년에 1번 세를 내는데 10인이 가는베 1필을 같이 낸다. 호(戶)마다 1석의 조(租)를 내며, 차등호는 7두, 하등호는 5두를 낸다. – "수서"

고구려가 3등호제를 기준으로 수취한 것은 사회·경제적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유목민에 대한 차별 과세는 북방 이민족을 다수 포괄하고 있던 고구려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다만 호조는 그 세액이 인두세보다 훨씬 적은 보조적인 세목이었다.

국가가 수공업과 상업을 진흥하다

백제의 관영 수공업
22관부 중 내관의 마부, 도부, 목부와 외관의 사군부, 망부 등이 관영 수공업을 관장하였다. 또한 사원 건축을 담당하는 사공, 노반박사, 와박사, 화공 등이 있었다.

실위
넌장 강 및 헤이룽 강 중상류 유역에 살던 몽골족 계통의 소수 민족이다. 5세기 이후 번성하다가 10세기에 거란에게 평정되었다.

고대에는 삼베와 명주 등을 가내 수공업으로 생산하였고, 각종 무기와 농기구 및 관청 수요품이나 건축 자재 등은 관영 수공업으로 생산하였다. 백제에는 관영 수공업을 관리하는 관서와 사원 건축을 담당하는 전문 기술자가 있었다.

고대 국가는 철을 중요시하여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하였다. 고구려는 주요 철산지가 있던 요동 지방을 확보하고 실위, 읍루 등 주변 민족들에게 철을 수출하였다. 신라는 4세기경에 제철, 주조, 제강, 단야의 일괄 공정을 갖춘 공방에서 철을 대량 생산하였다. 가야는 3, 4세기경에 덩이쇠를 규격별로 정형화하였으며 대규모 철 생산 전문 집단과 철기 제작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고대 국가는 물산이 집중되는 수도에 시장을 개설하였다. 신라는 5세기 후반 소지왕 때 수도에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6세기 초 지증왕 때 동시를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구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삼국과 가야는 상호 간은 물론 외국과도 활발하게 교역하였는데,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 성격의 교역도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읍루, 부여 등 주변 민족과 중국 남북조의 문물을 중계 교역하였다.

백제는 남조의 선진 문물을 가야와 왜에 전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가야는 낙랑군과 대방군 및 백제와 왜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번영하였으나, 6세기에 들어 백제가 왜와 직접 교역을 시도하면서 쇠퇴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통하여 중국 문물을 수입하다가, 6세기 중엽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부터 당항성을 통하여 수·당과 직접 교역하였다.


가야의 제철 도구(동아 대학교 박물관)와 덩이쇠(경남 함안)

고구려,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다

고구려에는 왕족 고씨와 주요 귀족들인 해씨, 우씨 등이 있었으며 유력 계층인 호민, 일반인인 평민, 천인인 노비 등이 존재하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부터 **율령**을 시행하였다(373). 율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여 반역자, 전쟁에서 항복하거나 패배한 자는 사형에 처하였으며, 도둑질한 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고구려는 사냥 대회를 자주 열어 전투력을 길렀다. 한편 아버지와 아들이 개울에서 같이 목욕하고 한방에서 잤다는 기록이 있어 가족 관계가 매우 친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인의 사냥 모습(무용총, 중국 지린 성 지안)

신라, 골품제와 화랑도를 운영하다

신라의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의 규제를 받았다. 골품제에서는 사회 계층이 성골, 진골과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뉘었다. 성골과 진골은 왕족을 포함한 최고 귀족이고, 두품은 신라가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족장 세력들을 6부에 편제할 때 수여한 신분이었다. 성립 초기에는 3두품부터 1두품까지 존재하였으나, 관직 임용과 연관성이 적어 평민층으로 통폐합되었다.

골품제는 개인의 혈통에 따라 관직 승진의 상한선을 정하였고, 혼인, 가옥의 크기, 의복의 빛깔과 옷감의 종류, 장신구와 그릇의 재질, 우마차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을 규제하였다. 다만 6두품 이하 계층에게는 제한된 관등 범위 안에서나마 특진할 수 있는 중위제 규정이 있어서 세습적 신분제에 대한 불만을 일부분 해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골품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 촌락의 토착 세력에게는 5, 4두품에 해당하는 외위 관등을 주었다.

신라는 진흥왕 때 촌락별로 구성된 청소년 집단을 **화랑도**로 개편하였다. 화랑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약을 통해서 조직되었으며, 혈연이나 씨족의 이해를 초월한 자치 단체적 성격을 지녔다. 단체의 우두머리인 화랑은 진골 귀족이 맡았고, 구성원인 낭도는 진골 귀족뿐만 아니라 하급 귀족과 일반 평민의 자제가 모두 포함되었다.

중위제(重位制)
신라 17관등 중에 아찬에는 중아찬부터 4중아찬까지, 대나마에는 9중대나마까지, 나마에는 7중나마까지 중위가 설정되었다. 아찬의 중위제는 6두품 신분자에게, 대나마의 중위제는 5두품 신분자에게 특진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외위
신라 지방민에게 주어진 관등제로서 11관등으로 나뉘었다. 악간(제1관등)부터 간(제7관등)까지는 종래의 소국 수장층에게 주어졌고, 일벌(제8관등)부터 아척(제11관등)까지는 소국 신료에게 주어졌다.



울주 천전리 각석(울산 울주)
선사 시대의 마름모, 동심원 등 기하학적 무늬와 더불어 통일 신라까지의 여러 가지 선각화와 화랑의 이름 등이 새겨진 바위이다. "술년 6월 2일에 영랑(永郎)이 성업(成業)하였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674년 무렵에 신라 화랑인 영랑이 수업을 마쳤다는 뜻이다.

역사 더하기 + 골품제의 성립

6세기 전반 신라는 수도에 거주하는 6부 사람들을 골품제에 따라 편제하였다. 당시에는 왕권이 6부 세력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골품제는 6부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배타적 특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착되었다.

성골과 진골은 박씨, 석씨, 김씨와 같은 신라 왕실의 혈족 집단, 신라에 병합된 금관가야 왕족인 신 김씨, 고구려 왕족 안승 등을 포함하였다. 그중 시조 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 28명의 왕은 성골, 무열왕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 28명의 왕은 진골이라고 하였다. 성골은 진평왕 때 왕실의 소가족 집단이 내물왕 계통의 왕족과 구별하고자, 불교적 신성화 작업을 거치면서 스스로 내세운 신분으로 보인다.

한편 족장들 중에서 6부나 지방 촌락의 지배층은 4두품으로, 그보다 큰 소국이나 6부의 수장급은 5두품으로, 다시 그 위에 성립된 대수장급으로서 국가 형성 때까지 그 세력을 유지했던 자와 6부의 부장층(이씨, 정씨, 손씨, 최씨, 배씨, 설씨)은 6두품으로 편제되었다.

관등: 등급	관등: 관등명	골품: 진골	골품: 6두품	골품: 5두품	골품: 4두품	복색
1	이벌찬					자색
2	이찬					자색
3	잡찬					자색
4	파진찬					자색
5	대아찬					자색
6	아찬					비색
7	일길찬					비색
8	사찬					비색
9	급벌찬					비색
10	대나마					청색
11	나마					청색
12	대사					황색
13	사지					황색
14	길사					황색
15	대오					황색
16	소오					황색
17	조위					황색

신라 골품제와 관등 승진 상한의 관계

백제, 오락을 즐기다

대성 8족
사씨, 연씨, 협씨, 해씨, 진씨, 국씨, 목씨, 백씨 등이다.

백제에서는 왕족인 부여족과 대성 8족을 비롯한 귀족, 일반 백성, 노비 등으로 신분이 구분되었다. 백제는 율령을 시행하였으며, 반역, 살인, 절도, 간통, 뇌물 수수 등에 대한 형량을 법률로 정하였다. 초기에는 죄인을 사형시키거나 노비로 삼는 등 직접 처벌이 많았으나, 후기에는 노비나 재물을 제공하는 등으로 간접 배상하는 일이 많아졌다.

백제인들은 투호, 바둑, 주사위 놀이, 쌍육 등 다양한 오락을 즐겼다. 또한 말 타고 활 쏘는 무예 시합을 즐겼는데, 백제 왕자들은 왜에서 매사냥을 가르치고 씨름 경기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쌍육을 하는 아이들(재현)

가야, 오랫동안 순장을 실시하다

5세기 이후의 가야 고분에서는 귀금속 유물이 출토되었다. 당시 가야의 귀족들은 관(冠),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뿐만 아니라 대도, 마구, 관(棺) 등의 소품들도 금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장식하였다. 이는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귀족 계급의 우월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야에서는 4세기부터 6세기 전반에 걸쳐 지배층의 장례에 살아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함께 묻었다. 순장은 주로 연맹장(왕)을 비롯한 가야 소국들의 최고 지배층이 실시하였으며, 덧널무덤, 움식 덧널무덤, 굴식 돌방무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장의 사례를 통하여 가야 사회에는 왕이나 소국 지배층을 비롯한 귀족과 평민, 노예 등 세 개 이상의 계층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성동 덧널무덤(경남 김해)



가야 금관(경북 고령)



백제의 법률

- 모반, 퇴군 및 살인자는 목을 베고, 도둑은 유형에 처하며 훔친 물건의 2배를 징수한다. 결혼한 부인이 간통하면 그 신분을 박탈하고 남편 집의 종으로 삼았다. – "주서"
- 반역자는 그 가족과 재산을 몰수하고, 살인자는 노비 3인을 제공하면 속죄되며,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그 액수의 3배를 배상하고 금고형(평생 벼슬길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받는다. – "구당서"

백제가 율령을 반포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박사 고흥이 활약하고 불교를 수용한 4세기 후반쯤에는 율령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세기 초에 만들어진 무령왕릉 매지권에도 율령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제는 초기에 살인자에게 참형을 내리다가 후기에는 노비 3인을 바쳐 속죄하게 하였다. 이것은 생명형에서 경제적 배상을 통한 재산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역사 더하기 **고대 사회의 순장**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는 순장을 한 여러 고분들이 발견되었다. 고령 지산동 44호분은 가운데에 3기의 대형 움식 돌덧널(주곽, 부장부곽)을 안치하고 그 주위에 32기의 소형 돌덧널(순장 곽)을 배치한 후 봉토를 쌓은 무덤이다. 이 가운데 22기에서 24개체의 순장 인골이 발견되었다. 주곽의 구석이나 부장부곽에서도 한 명의 순장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람은 무덤 주인의 금속 유물이나 토기류를 관리한 시종으로 보인다. 순장 곽에 묻힌 남녀들은 호위 무사, 시종, 노예 등과 같이 무덤 주인을 평소에 가까이 모시던 사람들이었다.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경북 경주 금령총)
기마 인물형 토기는 인간과 말을 순장하는 대신에 묻은 명기(明器)로 보인다. 명기는 장사 지낼 때 시체와 함께 묻고자 만든 기물로서, 대개 실물보다 작게 만들었다.

순장은 왕을 천신의 후손으로 여기는 세계관과 관계가 깊으며, 당시 왕권은 주민들의 반(半) 자발적인 복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야 사회에서 순장이 성행한 것은 각 단위 소국 수장들의 권력이나 연맹장의 권력이 강화되었으나 아직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세기 중엽 고구려 동천왕이 죽었을 때 중천왕이 순장을 금지하였으나 여전히 따라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신라에서는 왕권이 강화된 6세기 초에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하였으며, 그 후 신라의 왕릉 묘제가 대폭 축소되었다. 6세기 초에 해당하는 경주 금령총에서는 기마 인물형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순장의 증거는 잘 보이지 않고 인물을 형상화한 토용(土俑)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순장 금지 조치는 지증왕, 법흥왕 때부터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경북 고령)



중단원 마무리

다음 글을 바탕으로 신라의 신분 제도에 대하여 서술해 보자.

설계두는 신라 귀족 가문의 자손이었다. 일찍이 친구 네 사람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면서 각자 자기의 뜻을 말하였는데 계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라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데 골품을 따지기 때문에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어도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드날려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의 힘으로 영광스런 관직에 올라 의관을 차려 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측근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무덕 4년 신사(621)에 설계두는 몰래 바다 배를 따라 당에 들어갔다.
– "삼국사기"

조건 신분 제도의 한계를 포함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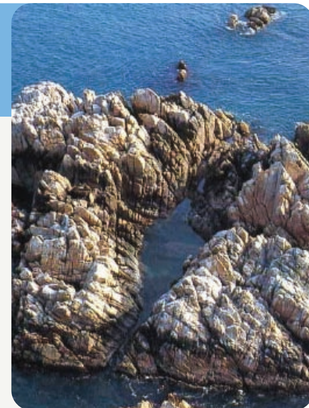
0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이 단원에서는 >>
1.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과정과 민족사적 의의를 알 수 있다.
2. 통일 신라와 발해의 통치 제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통일 신라와 발해의 사회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1 신라의 삼국 통일

(문무) 대왕이 왜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너희 나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강역이 나뉘어 있는데 …… 무슨 까닭으로 금일 백제와 함께 죄악을 저질러 우리나라를 도모하는가? 지금 너희 군졸은 나의 손아귀 안에 들어 있으나 차마 죽이지 않겠다. 너희는 돌아가 이것을 너희 왕에게 전하라."라고 하고 가는 대로 두었다. – "삼국사기"

● 왜인들이 신라 문무왕에게 포로로 잡힌 까닭은 무엇일까?


대왕암(경북 경주)

고구려가 수의 침입을 격퇴하다

6세기 말 수가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하면서(589), 동아시아 정세에 변화가 일어났다. 고구려는 수의 압력에 맞서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만여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수 문제는 이를 막아낸 후 3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요동 방면으로 침공을 시도하였으나, 육군과 수군이 모두 고구려에 막혀 큰 타격을 입고 물러갔다(598).

그 후 수양제는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 왔으나, 고구려는 요동성에서 수의 군대를 잘 막아 냈다. 그에 이어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직접 쳐들어오려는 수의 30만 군대를 청천강 부근에서 궤멸시키면서 대승을 거두었다(**살수 대첩**, 612). 이후 수는 고구려 원정에 거듭 실패하다가 결국 내란이 일어나 멸망하였다.

수가 멸망한 이후 당이 건국되자 고구려 영류왕은 당과 포로를 교환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당 태종이 즉위하여 고구려를 압박해 오자, 고구려는 천리 장성을 축조하며 당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수의 침공과 고구려의 방어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공세에 시달리다

고구려는 당과의 관계가 잠시 안정되자 신라 북방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고구려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는 신라를 뚫지 못하였으나 함경남도 지역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백제의 무왕은 한강 하류 유역과 옛 가야 지역을 되찾고자 두 방면으로 신라를 공격하여 경상남도 서부 지역을 일부 차지하였다(624).

신라의 진평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한강 하류의 중국 교통로를 지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중앙 관서를 새로 설치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선덕 여왕이 김춘추, 김유신 등 신흥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즉위하였다.

백제는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신라를 한층 거세게 공격하여 40여 성을 빼앗았다. 특히 군사적 요충지인 대야성(경남 합천)을 함락시키면서, 낙동강 서쪽의 옛 가야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였다(642). 이때 고구려에서는 천리 장성 축조 공사를 감독하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다.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죽령 서북, 즉 한강 유역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신라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 후 백제와 신라는 낙동강 중·상류 지역과 충북 내륙 일대에서 뺏고 빼앗기는 전투를 거듭하였다.

진평왕의 중앙 관서 설치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 공부(貢賦)를 담당하는 조부, 교육·외교·의례를 담당하는 예부 등이 새로 설치되었다.

신라의 신흥 세력
신흥 세력의 중심은 신라 왕실에서 축출된 진지왕의 자손인 김용춘, 김춘추 부자와 옛 금관가야 왕족으로서 진골로 편입된 김서현, 김유신 부자였다. 이들은 화백 회의에 바탕을 둔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반대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자 하였다.

고구려가 당의 침입을 물리치다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당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였다. 이에 당 태종은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645).

고구려는 요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빼앗기고 곤경에 처하였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그 후에도 당은 랴오허 강과 압록강 어귀 방면으로 침략해 왔으나, 고구려는 이를 모두 물리쳤다.



영성자산성 유적(중국 랴오닝 성 하이청)
고구려의 안시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당의 침공과 고구려의 방어



부여 가림성(충남 부여)

671년 신라 장군 죽지가 이곳을 공격하여 당군 5천여 명을 죽였다. 가림성 전투 이후 나·당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다

신라는 당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치려 하였다. 당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고구려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라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당 소정방과 신라 김유신의 연합 군대는 백제를 공격하여 사비성을 함락하였다(660). 당은 공주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여 백제의 옛 땅을 다스렸다.

백제가 멸망한 후 각지에서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 3년간 계속되었다. 백제 왕자 부여풍도 왜에서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부흥 운동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의 공격과 지도층의 내분으로 백제 부흥 운동은 실패하였다.

당은 백제가 멸망한 후 고구려의 평양성과 압록강 방면을 양쪽으로 공격하였으나, 고구려는 이를 잘 막아 냈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죽은 후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내분이 일어나자 당이 이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다.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하였다(668). 안승과 검모잠 등은 고구려 부흥 운동을 일으켰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나·당 전쟁

신라가 당을 몰아내다

당은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여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지배하며 신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신라는 이에 맞서 백제 옛 땅의 80여 성을 함락하고 가림성을 공격하면서 **나·당 전쟁**을 일으켰다.

당은 2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해전에서 신라에게 패배하였다. 결국 당은 안동 도호부를 요동 지방으로 옮기고 물러갔다. 이로써 신라는 당군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676).

역사 더하기 —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

삼국 통일은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을 신라가 이어받아 진행한 결과였다. 이는 우리 민족과 중국이 80년 동안 전쟁을 벌인 결과 압록강 일대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삼국 통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족 통일이었다. 삼국의 영토, 사람, 문화가 비로소 하나로 통합되어 민족 문화의 바탕이 마련되었다. 신라는 본래 가지고 있던 소박한 문화의 바탕 위에 웅장한 고구려 문화와 세련된 백제 문화를 받아들여 찬란하고 정제된 통일 신라 문화를 이룩하였다.

삼국 통일은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신라는 생존을 위해 당과 손을 잡고 통일 전쟁에 참여하였다. 비록 당의 야욕을 확인한 후에는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자주성을 보였으나, 그 과정에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요동 지역을 상실하였다.

2 통일 신라의 발전

원화 7년(812)에 중흥(애장왕)이 돌아가니 재상 김언승을 세워 왕(헌덕왕)으로 삼았다. …… 아울러 재상 김숭빈 등 세 사람에게 문극(두 갈래 창)을 내려 주었다.

– "구당서"

● 통일 신라의 재상은 어떤 직책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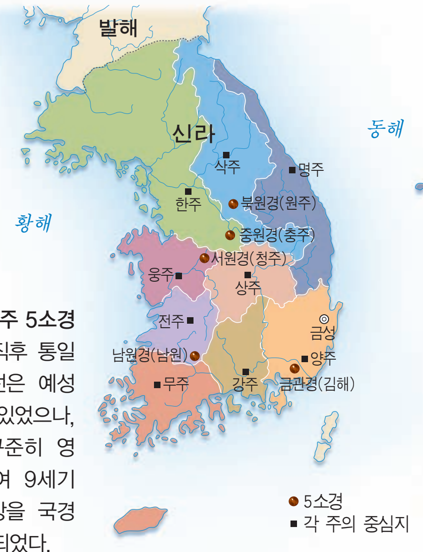


회의 중인 재상들(상상화)

신라가 통치 체제를 개편하다

7세기 후반 **신문왕**은 중앙 관제와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여 전제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어서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백성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녹읍을 폐지하였다. 또한 국학을 설치하여 귀족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고 관리로 양성하였다.

신라는 통일 후 넓어진 영토를 9주로 재편하여 다스렸으며, 수도가 국토의 동남부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고자 각 지방에 5소경을 두었다. 신문왕은 중앙군과 지방군을 각각 9서당과 10정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특히 9서당에는 신라인은 물론 옛 고구려와 백제인, 말갈인까지 편성하여 민족의 융합을 꾀하였다.



9주 5소경 나·당 전쟁 직후 통일 신라의 국경선은 예성강에 머물러 있었으나, 8세기부터 꾸준히 영토를 확장하여 9세기 경에는 대동강을 국경선으로 삼게 되었다.

역사 더하기 통일 신라의 중앙 행정 기구와 재상

법흥왕 때 군사 업무를 관장하는 병부를 설치한 이래 신라는 꾸준히 중앙 행정 기구를 신설하였다. 신문왕 때에는 공장부와 예작부가 설치됨으로써 14관부의 중앙 행정 체제가 마련되었다. 14관부는 당의 6부 체제를 본떠 행정 사무를 나누어 맡았다.

왕명 출납과 기밀 사무를 담당한 집사부(집사성)에서는 집사부 중시를 포함한 복수의 재상들이 국정을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재상들 간의 견제가 이루어져 국왕의 국정 장악력이 커졌다.

통일 신라에서는 상대등, 병부령, 집사부 중시(시중) 등을 재상이라고 하였으며, 상재상(대재상)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재상 회의를 주도하였다. 상재상은 귀족의 대표자로서 군신 회의를 주도하면서 왕권을 지원하거나 견제하기도 하였다.

당의 관부		기능	신라의 관부
상서성		정책 시행	집사부
6부	이부	문관 인사	위화부
	호부	호구, 재정	조부, 창부
	예부	교육, 외교	예부, 영객부
	병부	무관, 군사	병부
	형부	사법, 형벌	좌·우 이방부
	공부	토목, 교통	승부, 선부, 공장부, 예작부
어사대		백관 규찰	사정부

당의 관부와 신라의 14관부

하지만 통일 신라 시대에는 재상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훗날 고려 시대에는 최고위 직책을 맡는 8인의 재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문하시중(시중)이 수상을 맡는 것으로 체계화되었다.

전제 왕권이 흔들리다

고구려의 옛 땅에 발해가 들어선 후, 신라는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8세기 중엽 경덕왕 때에 이르러 신라는 전제 왕권의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나 기상 이변이 잦아 농업 생산이 감소하고 나라가 피폐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덕왕은 녹읍을 부활하고 지방 행정 구역 명칭을 정비하여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직명을 개정하고 관리의 휴가 일수를 대폭 축소하여, 직무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관리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덕왕이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은 후 나이 어린 혜공왕이 즉위하자, 진골 귀족들이 반발하여 왕권에 도전하기까지 하였다.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은 신라 말까지 이어졌다.

지방에서도 반란이 속출하였다.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일으킨 반란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822), 해상 무역으로 세력을 키운 장보고는 신무왕의 즉위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원성왕이 **독서삼품과**를 실시하고, 헌덕왕은 인사 제도를 개혁하여 왕권을 세우려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독서삼품과
신라 원성왕 4년(788)에 설치한 관리 등용 방법이면서 국학의 졸업 시험 제도였다. 신라 말기에 신분의 폐쇄성이 높아지고 도당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의미가 상실되었다.

탐구 활동 통일 신라 불교 예술의 정수



경주 불국사(경북 경주)
'부처의 나라'라는 뜻의 불국사는 부처가 사는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통일 신라의 높은 불교문화 수준을 보여 준다.



경주 석굴암 석굴(경북 경주)
석굴암은 신라인의 정교한 건축·조각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불상의 배치와 둥근 천장은 신라인의 수학적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음을 반영한다.

경덕왕 시기에 불국사, 석굴암과 같은 불교 예술이 나타난 원인을 발표해 보자.

후삼국으로 분열하다

9세기 후반에 이르러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여 국가 재정이 매우 곤궁해지자 진성 여왕은 전국에 관리를 보내 조세를 독촉하였다. 이를 견디지 못한 지방 농민들의 조세 저항이 이어지다가 얼마 안 있어 전국이 내란 상태에 빠졌다. 이에 각 지방에서 자립적인 **지방 호족**들이 등장하였다.

서남 해안 지역의 군인이었던 **견훤**은 사회의 혼란을 틈타 신라 조정에 반기를 들고 무진주를 점령하였다. 이어 백제 부흥을 내세우며 완산주를 수도로 삼고 후백제를 건국하였다(900). 후백제는 호남 지방의 군사 세력과 호족 세력을 두루 아우르고 신라를 압박하여 대야성(합천)을 함락하는 등 기세를 올렸다.



후삼국의 성립

초적의 무리를 이끌던 **궁예**는 철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경기도와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대를 점령하였다. 궁예는 신라 타도를 표방하며 개성을 수도로 삼고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철원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마진, 태봉 등으로 고쳤으며, 광평성을 비롯한 관부를 설치하고 황해도 일대와 평양성까지 영토를 넓혔다. 궁예의 정권은 초기에 호족 연합적 성격을 띠었으나, 국명을 태봉으로 바꾼 뒤에는 차츰 신정적 전제 왕권을 지향하였다.

10세기에 들어 신라의 영토는 영남 지방 일대로 축소되었다. 신라는 궁예의 뒤를 이은 고려 태조에게 기대어 후백제의 공세를 근근이 막아 냈다. 또한 경주 인근의 호족들도 하나둘씩 고려에 귀부하였다.



경주 삼릉(경북 경주)
경주 남산 기슭의 삼릉은 박씨 계통의 제53대 신덕왕과 제54대 경명왕 및 그 조상인 제8대 아달라왕의 무덤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전주 동고산성과 '전주성' 명문 와당(전북 전주)
동고산성은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궁성 터라고 알려져 왔다. 이곳에서 전면 22칸, 측면 3칸 넓이의 건물 터가 확인되었고 '전주성(全州城)'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와당이 나와 옛 전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발해의 발전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자 김씨가 그 남쪽을 영유하였고 대씨가 그 북쪽을 영유하여 발해라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부르는 것이다.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 유득공, "발해고" 서문

● 발해는 어느 나라를 계승하였을까?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동모산

고구려의 옛 땅에서 발해가 발전하다

7세기 후반 당은 요서 지방에 있는 영주를 중심으로 부근의 여러 종족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본래 거란족이 살고 있었으나, 당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등도 거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거란족 이진충의 반란이 일어나 영주 일대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유민 **대조영**과 말갈 추장 걸사비우가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탈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걸사비우가 당군의 추격으로 전사하였으나, 대조영은 천문령에서 당군을 격파하고 동모산 부근에 이르러 발해를 건국하였다(698).

대조영과 걸사비우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은 속말수(쑹화 강의 북쪽 지류) 유역에 살던 고구려인이고, 걸사비우는 속말 말갈 중에서 고구려에 동화된 인물이다. 속말 말갈은 5세기 초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에 복속되어 200여 년에 걸쳐 고구려에 동화되어 갔으며, 고구려인들도 이곳에서 많이 살았다.

발해 무왕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한편,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당이 발해 동북쪽의 흑수 말갈과 유대를 강화하여 발해를 견제하려 하자, 무왕은 장문휴가 지휘하는 군대로 산둥 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다(732).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신라와도 교류하였으며,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영토 확장에도 힘을 기울여 북으로는 쑹화 강 유역, 동으로는 연해주 지역까지 차지하였다. 8세기 중엽 문왕은 확대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고자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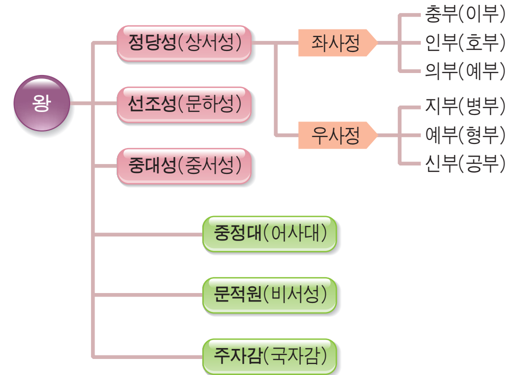
9세기 전반 선왕은 북쪽으로 헤이룽 강 하류를 점령하여 흑수 말갈과 당의 교통을 차단하고 서쪽으로는 요동 지방, 남쪽으로는 함흥 일대까지 차지하며 국력을 과시하였다. 이 시기에 당은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발해의 최대 영역과 5경
발해의 첫 수도는 지린 성 둔화의 동모산 일대였다. 무왕은 중경 현덕부(지린 성 허룽)로 천도하였다. 문왕은 756년에 상경 용천부(헤이룽장 성 닝안)로, 780년대 후반에는 동경 용원부(지린 성 훈춘)로 수도를 옮겼다. 794년 성왕은 상경으로 환도하였다.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발해는 3성 6부를 중심으로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지방의 요지에는 5경을 설치하고, 전국을 15부 62주 107현으로 나누었다. 이곳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으며, 말단 행정 단위인 촌락은 토착 세력이 다스리도록 하였다.



발해의 중앙 통치 조직
당의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6부의 명칭이나 운영 방식 등에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였다.

발해의 지배층에는 고구려인이 많았으며,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인이었다. 그러나 원래 고구려 땅에 머물다가 발해에 편입된 사람들은 발해에서도 일반 백성이 되었고, 말갈인 중에서도 발해의 건국 과정에 참여하여 지배층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

9세기부터 발해의 서쪽에서 성장하던 거란족은 10세기에 들어 부족을 통일하고 발해를 위협하였다. 9세기 말 이후 국력이 쇠퇴해진 발해는 결국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926). 거란은 발해인들을 다스리고자 상경을 수도로 하는 동단국을 세웠으나, 곧 수도를 랴오양으로 옮김으로써(928) 발해의 옛 땅을 포기하였다.

발해가 멸망한 이후 압록강 유역에서는 후발해국, 정안국 등 발해 유민들이 세운 국가가 이어졌다. 정안국은 주변 지역과 교류하면서 한동안 유지되었으나 요 성종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986).

역사 더하기 + 남북국 시대의 의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를 통일 신라 시대라고 부르면 발해의 한국사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진다. 또 통일 신라 시대 속에서 발해를 파악하면 발해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1990년 이후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이 점차 확산되었다. 그러나 통일 신라 시대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북한·중국·일본에서는 이 용어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치원의 글에서 신라가 일찍부터 발해를 '북국'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세기에서 10세기 전반에 이르는 한국사에 신라와 발해를 모두 포함하려면, 당시의 명칭에서 유래한 '남북국 시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발해를 한국사에 포함하는 근거는 발해와 고구려의 관련성이다. 발해 무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여러 번국을 아우르게 되어 고구려의 옛 터전을 되찾고 부여의 풍속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일본, 중국 등에 남아 있는 여러 기록에서도 발해 왕실이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일본이나 중국에 있던 고구려 왕실의 후손들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고(서울 대학교 규장각)

고고학적 증거도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한다. 정혜 공주 무덤은 대형 굴식 돌방무덤으로서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 발해 지방 유력층의 다인장(多人葬) 고분은 소형 굴식 돌방무덤으로서 역시 고구려 유민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통일 신라와 발해의 사회·경제

재상의 집에는 녹(祿)이 끊어지지 않고 노비가 3천 명이며 갑옷 입은 병사와 소, 말, 돼지도 이에 맞먹는다. 가축은 바다 속에 있는 섬에서 방목하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서 잡았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 주어 늘리는 데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 "당서"

● 신라 귀족들의 경제 기반으로 언급된 '녹'은 무엇일까?



신당서

토지를 측량하여 관료와 백성에게 나누어 주다

신라는 오랫동안 삼국 통일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 국가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일 후 신라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각 촌락별 토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신문왕은 관리에게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고(687) 녹읍을 폐지하는 대신 녹봉을 지급하였다(689). 그에 이어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722).

수조권(收租權)
국가는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물의 일정액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았는데, 그 조세의 징수권을 수조권이라 한다.

문무 관료전의 지급은 통일 이후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정부 기구가 확충되고 행정 관리가 증원된 것과 관련이 깊다. 정부 기구에서 더 많은 권력과 직무를 담당하게 된 고위 관리와 외관 등에게 경제적 대우를 추가해 준 것이다.

녹읍은 원래 모든 관리에게 보수로서 일정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었으나, 이를 받은 관리가 해당 지역의 땅과 주민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통일 이후 신라 정부는 농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녹읍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거기서 해마다 걷는 액수만큼의 녹봉을 지급하였다. 녹읍은 후에 다시 부활되었으나(757) 이는 기존의 녹읍과 달리 지역별로 할당된 녹봉의 성격이 짙었다.

녹읍의 변질
신라 경덕왕 때 부활된 녹읍은 실제로는 녹봉의 지역 할당 제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 얼마 안 있어 당시의 대부분 조치와 함께 폐지와 재시행을 거듭하였다. 다만 그 후에 정권 운영이 점차 문란해지자 녹읍의 성격도 다시 초기의 녹읍과 같이 변질되어 갔다.

국가는 농민이 경작해 오던 땅을 토지 대장에 등록하여 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또 주인이 없는 땅이나 경작이 끊어져 묵은 땅을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정전이라 한다. 정전의 지급은 국가의 공민에 대한 조세 및 부역 수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토지를 중심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다

통일 신라의 조세 체제는 인두세, 특산물, 부역의 세 가지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삼국 시대와 달리 인두세가 사라지고 토지의 면적에 따라 전조(田租)가 부과되었다. 토지의 면적은 곡물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결부제를 적용하였으며, 전조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수취하였다.

결부제
곡식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의 면적을 파악하는 단위이다. 낟알이 붙은 벼 줄기 한 줌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이라 하였다.

통일 신라는 민호를 9등급으로 구분하고, 인구를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특산물과 부역을 부과하는 자료로 삼았다. 각 민가에서는 베(布) 등의 특산물을 국가에 납부하였고,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은 각종 부역에 동원되었다.

발해에서는 교통망과 농경이 발달한 주요 도시나 성에 사는 고구려계 주민들은 주현제로 편제되고, 주로 촌락에 거주하는 말갈계 주민들은 부족이나 부락별로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인 조세 수취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고구려계 주민은 공식적인 행정 체계에 따라 조세와 부역을 수취하였고, 말갈계 주민은 각 촌락의 수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9등호제
고구려는 3등호제를 바탕으로 특산물을 부과하였으나, 통일 신라는 한층 향상된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민호를 아홉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신라는 벼, 발해는 콩을 많이 생산하다

통일 신라에서는 벼를 비롯한 곡물, 채소와 과일, 육류, 수산물 등이 생산되었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살생이 금지되었지만, 상류층은 육류와 수산물을 즐겼으며 섬에 목장을 설치하여 가축을 기르기도 하였다. 정부는 각 촌락의 논과 밭, 삼밭(麻田)의 결수를 조사하여 기록하였고, 그 밖에도 말, 소, 뽕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등의 숫자를 별도로 파악하여 재정 수입의 자료로 삼았다.

북쪽 평원 지대에 자리 잡은 발해는 기후가 차서 논농사에 불리하였다. 이 때문에 벼보다는 조, 보리, 기장, 콩 등의 밭작물이 주로 재배되었다. 노성의 쌀, 책성부의 콩으로 만든 된장이 유명하였고, 목축이 성행하여 사슴, 돼지, 말 등의 지역 특산물이 생산되었다.



발해는 땅이 넓고 바다에 면해 있어 다양한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 광물 등이 생산되었다. 그중에서도 콩, 돼지, 말은 인근에서 가장 유명하였다.



한카 호
중국과 러시아 경계에 있는 호수이다. 발해 시기에는 미타 호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붕어 산지로 유명하였다. 이곳에는 고기 떼들이 많아 요즘도 어부들이 많으며, 특산물인 큰 뱅어는 중국 4대 담수 명물 고기 중 하나이다.

직물류나 금속 가공품의 수준이 높아지다

통일 신라와 발해에서는 관영 수공업과 민영 수공업을 통해 철, 무기, 도자기, 베 등이 생산되었다.

통일 신라에서는 **공장부**가 전국의 수공업을 관장하였다. 이외에도 국왕이나 왕실 수요품을 생산하는 관청이 있었고, 귀족들도 수공업 경영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금·은·동 등의 광물, 과하마·가발·바다사자 가죽 등의 특산물, 우황·인삼 등의 약재, 비단 등 고급 직물, 금은 세공품, 침·금은 침통 등의 의료 기구, 화전·모전 등의 융단이 생산되었다. 또한 성덕 대왕 신종과 같은 거대한 범종과 불상들도 제작되었다. 한편 발해에서는 현주의 삼베와 세 가지 유약을 배합하여 구워 낸 삼채 도자기가 유명하였다.


성덕 대왕 신종(경북 경주)


발해의 삼채 도자기(중국 지린 성 허룽)

상업도 발달하여 통일 신라에서는 7세기 말에 종전의 동시 외에 서시와 남시를 개설하였고, 이를 관장하는 관청을 설치하여 상행위를 감독하고 도량형의 진위를 판별하게 하였다. 발해에서는 고구려와 유사한 도량형을 사용하였으며, 당과 일본의 화폐가 출토되어 이들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보여 준다.

통일 신라는 당이나 일본에 외국 물품을 중계 무역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각종 공산품을 수출하였다. 사회가 안정되고 문화 수준이 향상되면서 왕실과 귀족 사이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사치품이나 당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들여온 진귀한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발해도 당, 일본 등과 교역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였다.

신라에서 출신과 지역에 따른 차별이 완화되다

태종 무열왕 때부터 진골 출신의 왕이 등장하였고, 불교식 왕명도 중국식 시호 제도로 변하였다. 이것은 삼국 통일을 완수한 왕실의 권위가 높아져 성골이라는 막연한 신성 관념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불교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던 신라 사회에 유교 정치 이념이 도입된 결과이다.

신분을 표시하는 방식에도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수도 거주민의 관등을 나타내는 경위와 지방민의 위계를 나타내는 외위의 구분을 철폐하여 모두 경위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 거주민에 대한 출신지 차별 및 중앙과 지방민에 대한 외형적 구별이 사라져 골품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인 신분제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중앙이나 지방과 관계없이 모든 백성이 삼국 통일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나타난 변화였다.

통일 신라의 사회 계층은 왕족을 포함한 귀족, 농민을 위주로 한 평민, 노비 등의 천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귀족은 대토지와 목장을 소유하고 국가에서 관료전과 녹읍 또는 녹봉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다.

일반 농민은 연수유전·답을 소유하고 경작하였으며, 3년마다 한 번씩 작성되는 민정 문서를 통해 각 호별 인구의 증감이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농민은 국가로부터 자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은 대신 촌락별로 부과된 각종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지면서 생활하였다. 천민인 노비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
각 가구가 조상 대대로 소유해 온 사유지이지만,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로서 인식되었다.

탐구 활동 신라 수도 경주의 모습

자료 1 경주의 민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월상루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서울(경주)의 민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노래와 풍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왕이 시중 민공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지금 민간에서는 집의 지붕을 기와로 이고 짚으로 잇지 않으며 밥을 숯으로 짓고 나무로 짓지 않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하니 민공이 대답하기를 "신도 일찍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9세기경의 경주 복원도(국립 민속 박물관)

자료 2 경주의 35 금입택

"신라 전성 시대의 서울(경주)에는 17만 8천 9백 36호, 1천 3백 60 방(坊), 55리, 35개의 금입택(金入宅, 부유한 큰 저택)이 있었다. 이것은 남택, 북택, 오비소택, 본피택, 양택, 지상택(본피부), 재매정택(김유신의 종택), 북유택, 남유택(반향사 아랫마을), 대택, 빈지택(반향사 북쪽), 장사택, 상앵택, 하앵택, 수망택, 천택, 양상택(양부 남쪽), 한기택(법류사 남쪽), 비혈택(법류사 남쪽), 판적택(분황사 윗마을), 별교택(개천 북쪽), 아남택, 김양종택(양관사 남쪽), 곡수택(개천 북쪽), 유야택, 사하택, 사량택, 정상택, 이남택(우소택), 사내곡택, 지택, 사상택(대숙택), 임상택(청룡사 동쪽으로 못이 있음), 교남택, 항질택(본피부), 누상택, 이상택, 명남택, 정하택이다."

– "삼국유사"

자료 3 사절유택

"봄에는 동야택, 여름에는 곡량택, 가을에는 구지택, 겨울에는 가이택이다. 제49대 헌강왕 때에는 성안에 초가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추녀가 맞닿았고 담장이 이웃집과 이어졌다. 노래와 풍류 소리가 길에 가득 차서 밤낮 그치지 않았다."

– "삼국유사"

1. 금입택과 사절유택의 성격을 알아보자.
2. 위의 자료를 토대로 신라 귀족의 생활 모습을 재구성해 보자.

발해 사회는 도시와 촌락이 많이 달랐다

발해의 귀족 구성
발해에는 고·장·양·두·오·이씨의 성을 지닌 유력 귀족과 기타 49개의 성씨를 지닌 일반 귀족이 있었다. 최고 귀족인 고씨는 고구려 계통이었으며, 일반 귀족 중에는 말갈 출신들도 있었다.

발해의 신분은 왕족과 귀족, 평민, 하층민인 부곡과 노비로 구분되었다.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이었다. 유력한 귀족 중에는 고구려 계통이 많았으며, 말갈 출신 귀족들도 있었다. 평민은 성이 없었으며 백성이라고 불렸다. 평민은 고구려인보다 말갈인이 많았으며, 농민이 대부분으로서 조, 요역, 병역 등을 부담하였다. 천민도 성이 없었으며, 중앙 귀족이나 지방 수령 등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발해에서는 고구려인들을 **토인**이라고 하였다. 토인은 도독, 자사, 수령과 같은 지방 행정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말갈 부락에서도 촌장이 되어 마을을 직접 지배하였다. 토인 중에는 평민이나 기술직 종사자도 많았다.

가족은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놀이로는 말타기, 활쏘기, 격구 등이 성행하였다. 발해의 악기로는 고구려의 거문고를 계승한 발해금이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왕족, 귀족은 산에 능묘를 쓰거나 능원에 매장하였고 일반 평민들은 공동묘지를 이용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 통일 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에 대하여 써 보자.

2. 다음 글을 바탕으로 발해의 주민 구성에 대하여 서술해 보자.

> 그 나라는 사방 2천 리에 이른다. 주와 현 및 객사와 역참이 없고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 모두 토인으로 촌장을 삼는데, 큰 촌은 도독이라 하고, 그 다음 촌은 자사라고 하며, 그 아래는 백성들이 모두 수령이라 한다.
> – "유취국사"

조건 고구려인과 말갈인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심화 주제

문답식으로 풀어 보는 민정 문서

1933년 10월에 도다이 사에서 "화엄경론질"의 겉장을 수리하던 중 신라 시대 4개 촌의 사정을 기록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2매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4개 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방 관리가 3년마다 촌의 상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상황을 보여 준다. 이 문서는 신라 효소왕 4년(695) 또는 헌덕왕 7년(815)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정 문서에는 어떤 현의 사해점촌, 살하지촌, 이름을 알 수 없는 촌, 서원경의 □□자촌 등 오늘날 충북 청주 부근 4개 촌의 사정이 ① 촌의 이름과 넓이, ② 가구, ③ 인구, ④ 우마, ⑤ 토지, ⑥ 수목 등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민정 문서(일본 도다이 사 쇼소인)

1. 가구 수를 어떻게 산정하였을까?

신라에서는 개별 가구 1~3개를 합하여 공연(孔烟)이라고 하였으며, 각 촌에는 10~15개의 공연이 있었다. 공연당 인구는 8~12명 정도였다. 공연은 9등호제로 구분되었다. 신라는 이를 촌락별 점수인 계연(計烟)으로 환산하여 특산물 공납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2. 촌락의 인구는 어떻게 표시하였을까?

촌민은 크게 양인과 노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그 숫자를 기재하였다. 양인 남자는 16~59세의 남자를 정(丁)이라 하고, 양인 여자도 기록하였다. 전체 인구 462명 중에 노비가 25명으로 5.4%에 불과하였다.

3. 토지는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각 촌락에는 지목별로 토지 결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지목으로는 연수유전·답, 관모전·답, 내시령답, 촌주위답, 마전 등이 있다. 연수유전·답은 백성의 토지이고, 마전은 삼베를 공납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이며, 나머지는 국가 직역과 관련된 토지이다. 네 촌락에는 총 310결과 248결 정도의 연수유전·답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조세 액수가 결정되었다.

4. 가축과 나무의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

민정 문서에는 공연당 2~3마리 정도의 많은 소와 말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경작 활동에 소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이들 촌에 군마의 사육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정 문서에는 뽕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등의 숫자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들 나무에 대한 파악은 특산물 납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 있다.

민정 문서에 기재된 촌민은 공연 단위로 수령한 연수유전·답을 경작하며 살았다. 국가는 촌별로 토지 결수를 산정하여 전조를 거두고, 정남의 숫자를 토대로 요역과 군역을 징수하였으며, 계연 수치에 따라 특산물을 부과하였다.

활동 통일 신라가 민정 문서를 작성한 목적을 발표해 보자.

05 고대 국가의 문화와 교류

이 단원에서는 >> 1. 고대 국가와 중국, 일본과의 문화 전파 및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다.
2.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외래 사상과 문화의 수용, 발전을 파악할 수 있다.

1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발견된 7세기의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에는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의 사신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 새 깃털 두 개를 꽂은 모자(조우관)를 쓰고 고리자루 큰칼을 차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인다.

● 고리자루 큰 칼을 찬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들은 왜 사마르칸트에 갔을까?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우즈베키스탄)

삼국과 가야가 중국 군현과 교류하다

삼국과 가야는 각각 개성 있는 문화를 이룩하였다. 고구려 문화는 웅장하고 활기차고, 백제 문화는 우아하고 세련되며, 신라 문화는 소박하면서 실용적이다. 가야 문화에는 단정하고 보수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이것은 삼국과 가야가 자국의 문화를 토대로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국가적 차원의 중계 교역은 위만 조선부터 시작되었으나, 고조선이 멸망한 후 3세기경까지는 한 군현을 중심으로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이때 부여와 고구려는 현도군과, 삼한과 예는 낙랑 및 대방군과 주로 교역하였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중국 사이의 교역을 중계하였다. 삼한 소국들은 한 군현과 직접 교역하거나 해운이 편리한 장소에서 외래 상인과 교역하였다. 당시의 주요 교역 품목은 중국의 청동 거울, 유리나 수정 장신구, 변한의 철 등이었다.

한 군현의 견제에 대항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권력 주체들이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한 군현이 소멸될 무렵에는 동북아시아의 교역이 다원적 체제로 개편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세력이 지역 교류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청동 솥(경남 김해)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북방 계통의 유물이다. 가야의 김해 지역이 국제 교역의 거점이었음을 말해 준다.

중국과 직접 교역하다

삼국과 가야는 중국과 교역하면서 선진 문물을 수입하였다. 4세기 이후 중국에서

5호 16국이 성립하고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자, 삼국과 가야는 이들과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남조와 북조의 대립을 외교적으로 적절히 이용하면서 국가 발전을 꾀하였다.

고구려는 중국에서 불교, 태학, 율령과 같은 고급 정신문화를 받아들이고, 은이나 말 등을 수출하였다. 주변 민족들에게는 철제 생활 도구를 수출하고 담비 등의 동물 가죽이나 보석류를 수입하였으며, 이를 중국에 중계 교역하기도 하였다.

백제는 중국의 남조에서 청동 유물, 금동 허리띠, 청자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유교와 불교 관련 서적, 박사, 기술자 등을 받아들여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신라는 주로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도입하였으나,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한 후에는 남북조, 수 등과 직접 교역하였다. 신라 고분들에서는 중국과 고구려의 유물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계통의 물품들이 출토되어 교역 범위가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는 3세기까지 주로 낙랑군과 교역하였으나 낙랑군이 멸망한 이후에는 백제를 거쳐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였다. 그 외에도 해로를 이용하여 북방 민족 계통의 철제 갑옷과 마구 등을 받아들였으며, 중국 남조의 제에서 쟁 등을 수입하였다.



양 모양 청자(강원 원주)
4세기경 백제가 동진에서 수입한 것이다.



백제 무령왕릉 출토 청동 거울, 청자(충남 공주)
백제는 남조의 양·진, 북조의 북제 등과 교역하면서 청동 거울, 청자 등의 고급 물품도 수입하였으나, 그보다는 유교와 불교 등 정신문화 수입에 주력하였다.



신라에 들어온 외래 물품(경북 경주)
서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며, 로마에서 제작된 제품과 형태나 기법이 유사한 유리 용기, 황남대총 금팔찌, 계림로 14호분 출토 칠보 장식 보검이다.



고구려와 북방 민족의 교역

고구려에서 담비가 산출된다. 어떤 짐승이 함께 구덩이 속에 사는데 모습은 사람과 비슷하고 키는 3척이다. 능히 담비를 잡을 수 있고 손칼을 좋아한다. 그 습속에 사람이 담비 가죽을 얻고자 하면 칼을 그 구덩이 입구에 던져 놓는다. 그 짐승은 밤에 구덩이를 나와 담비 가죽을 칼 옆에 놓아둔다. 기다리던 사람이 가죽을 가져가면, 그 후에 비로소 칼을 집어 간다.

– 유경숙, "이원(異苑)"



담비

윗글은 중국 남조 송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고구려 모피 상인과 만주 읍루 사람들이 침묵 교역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 침묵 교역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물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주로 다른 인종이나 민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교역 방식이었다.

일본과 교역하며 문화를 전파하다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일본 열도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전파 과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 세력 사이의 교역 또는 원조에 의한 것도 있지만,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도 있다.

금관가야와 왜의 교역
2세기 이후 금관가야는 일본의 북규슈 일대의 소국들과 교역하였으나, 3세기에는 산인·산요 지방을 거쳐 긴키 지방까지 교역을 확대하였다.

초기에는 김해의 금관가야가 일본 열도와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당시 가야는 규슈를 비롯한 일본 지역에 덩이쇠, 철제 무기, 갑옷 등과 함께 낙랑군을 통해 수입한 선진 문물을 전해 주었다. 가야는 그 대가로 노동력이나 군사력을 제공받았다. 5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왜와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후기 가야는 일본 열도에 철, 도질 토기, 장신구, 마구 등을 수출하고, 철 생산 기술을 전해 주었다. 이처럼 가야는 야마토 정권이 고대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물질문화를 전파하였다.

규슈 지방 왜인들의 정세 변동
규슈 지방에는 독립적인 왜인 세력들이 존재하였으나, 6세기 전반에 나라 지방의 야마토 정권에게 토벌된 후 차츰 그에 복속되어 갔다.

백제는 처음에 가야와 규슈 지방 세력을 매개로 나라 지방에 중심을 둔 왜국과 교역하였으나, 6세기 전반에는 호남 동부의 가야 계통 소국들을 점령하고 왜와 직접 교역하기 시작하였다. 백제는 야마토 정권에 오경박사, 승려, 각종 기술자 등을 파견하여 국가 제도 정비에 필요한 한자, 유학, 불교, 역법, 의약, 건축, 공예, 미술 등을 전하였다. 또한 백제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이주민이 기악과 정원 축조 기술 등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백제는 야마토 정권에 고급 정신문화를 전해 주고, 그 대가로 신라와 대결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받았다.

고구려도 7세기에 왜에 종이와 먹, 연자방아의 제조 방법, 불교 등을 전파하여 일본 고대 문화가 발전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7세기 중엽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왜의 고위 관직에 임용되어 제도를 정비하고, 병법이나 한국식 산성 축조 기술을 전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위)와 다카마쓰 고분 벽화(아래)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들은 나라 현에 있는 다카마쓰 고분과 기토라 고분 벽화의 인물도, 사신도와 천문도 등을 남겼다.



가야 토기(국립 중앙 박물관)와 일본의 스에키(일본 오사카)



일본 열도로 건너간 백제 사람들

• 정원 축조술과 기악무의 전래

스이코 일왕 20년(612)에 백제에서 귀화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 얼굴과 몸에 모두 흰 반점이 있어서 문둥병 환자 같았다. …… 저에게는 조그만 재주가 있는데 산악의 모형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 궁궐 남쪽 뜰에 수미산의 모형과 오교(吳橋, 중국풍의 돌다리)를 만들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노자공이라 불렀다. 다른 이름은 지기마려라 한다.

또 백제인 미마지가 귀화하였는데 오(吳)에서 배워서 기악무를 출 수 있다고 하였다. 곧 사쿠라이[櫻井]에 안치하고 소년을 모아 기악무를 배우게 하였다. 이때 마노노 오비토데시[眞野首弟子], 이마키노아야 히토사이몬[新漢齊文] 두 사람이 그것을 배워 그 춤을 전하였다. – "일본서기"

• 백제 부흥군이 전한 것

덴지 일왕 4년(665) 가을 8월에 달솔 답발춘초를 보내 나가토국(지금의 시모노세키)에 성을 쌓게 하였다. 달솔 억례복류, 달솔 사비복부를 츠쿠시 국(지금의 후쿠오카)에 보내 오오노조와 키노조의 2성을 쌓았다.

덴지 일왕 10년(671) 정월 이달에 좌평 여자신과 사택소명(법관대보)에게 대금하(종 4위하)를 주었다. 귀실집사(학직두)에게 소금하(종 5위하)를 주었다. 달솔 곡나진수(병법에 숙달함), 목소귀자(병법에 숙달함), 억례복류(병법에 숙달함), 답발춘초(병법에 숙달함), 발일비자 찬파라 금라금수(약에 통달함), 귀실집신(약에 통달함)에게 대산하(종 6위하)를 주었다. 달솔 덕정상(약에 통달함), 길대상(약에 통달함), 허솔모(오경에 밝음), 각복모(음양에 숙달함)에게 소산상(종 7위상)을 주었다. 나머지 달솔 등 50여 인에게 소산하(종 7위하)를 주었다. – "일본서기"



➲ **호류 사 백제 관음상**
일본 나라의 호류 사에 있는 목조 관음 입상으로 아스카 시대에 만들어졌다. 높이 2.8m의 채색한 관음상으로 백제에서 귀화한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 **가네다 산성(일본 쓰시마 섬)**
일본이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고자 667년에 쌓은 한국식 산성이다. 아소만 남쪽에 있는 조야마[城山]를 빙 둘러 2km 이상 석축이 이어지며, 골짜기 입구에 성의 문이 있었던 터가 세 곳 있다.

• 일본 정원은 자연을 살리면서 연못과 연못 내부의 산을 만드는 고대 양식과 선종의 영향을 받아 사물을 극도로 추상화한 중세 양식으로 구별되는데, 고대 양식의 시조는 백제계 이주민 지기마려였다.

• 기악무(伎樂舞)는 금공 돌리기·사자춤 등의 곡예, 가면극이 음악 무용과 결합된 공연인데, 일본 사루가쿠[猿樂]의 시조는 백제계 이주민 미마지였다. 사루가쿠는 중세 이후 무대 위의 가면 가무극을 중심으로 노[能] 및 가부키[歌舞伎]로 발전하였다.

• 백제 달솔 답발춘초와 억례복류, 사비복부는 한국식 산성을 축조하였다. 백제의 여자신과 사택소명은 일본 조정에서 법무부 차관에 해당하는 법관대보, 귀실집사는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학직두에 임명되었다. 나머지 병법이나 의약, 오경, 음양 등에 통달한 60여 명의 달솔들도 모두 관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백제 부흥군으로서 663년 주류성 전투에 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들이다.

2 통일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



⬆ **경주 원성왕릉 앞 무인석(경북 경주)**
신라에 온 이슬람 인들은 상인, 악사, 무사 등이었다.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는 산이 많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영주국들로 갈라져 있다. 그곳에는 금이 풍부하다. 이 나라에 가서 영구 정착한 이슬람교도들은 그곳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 이븐 쿠르다드비, "제도로 및 제왕국 안내서"

● 통일 신라는 어떻게 이슬람 세계와 물품을 교류하였을까?

동아시아의 교류 관계가 긴박하게 변하다

7세기 고구려를 침공하던 수가 멸망한 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이 고구려를 침략하면서 동아시아는 다시 전란에 휩싸였다. 신라와 당이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삼국은 바다 건너 왜에 경쟁적으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여 왜를 전쟁에 끌어들이거나 배후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러 온 왜의 대군마저 격파하였다(663, **백강 전투**). 그러나 통일 전쟁 과정에서 당과 사이가 벌어지자 왜에 사신을 보내 관계를 회복하고 당을 견제하였다.

일본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신라와 사신을 교환하면서 신라의 법률, 학술, 사상, 제도를 수입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백제나 고구려의 유민을 받아들여 율령 국가의 틀을 마련해 갔다.

신라와 일본의 교류
고구려 멸망 후 왜가 신라 문무왕에게 배 1척과 비단을 비롯한 각종 선물을 보내고 신라의 사신을 정중하게 대접함으로써 양국의 대립 관계가 완화되었다. 일본은 그 후 702년까지 약 30년간 당과의 통교를 중단하고 신라와는 거의 매년 사신을 주고받았다.

통일 신라가 세계 각지와 교류하다

7세기 말 고구려의 옛 땅에 발해가 건국되자 통일 신라와 당은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교역을 재개하였다. 8세기 초 통일 신라의 성덕왕은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문물을 교류하였고, 숙위 학생과 구법승을 파견하여 학문과 제도를 수입하는 데 힘썼다. 통일 신라는 초기에는 인삼을 비롯한 특산물을 가지고 당과 교역하였으나, 9세기경부터는 고급 직물류와 불상, 금은 가공품 등 수준 높은 수공업 제품을 수출하였다. 당은 통일 신라에 회사품 형식으로 비단, 서적, 문구류 등을 수출하였다.

8세기 전반 발해와 당의 대립
732년 발해의 무왕이 당의 이민족 분열책에 맞서 등주를 공격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8세기 전반 발해와 당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신라는 당과 가까워지고 일본은 발해와 가까워져 신라와 일본도 정치적으로 대립하였다. 그러나 신라와 일본은 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여 문물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이에 따라 신라에서 생산한 각종 생활용품과 수공업 제품은 물론 당, 동남아시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들여온 제품들이 일본에 전해졌고, 일본의 금이나 직물 원료가 신라로 들어왔다. 7~8세기 신라와 일

본 사이의 교역은 신라의 가공 생산품과 일본의 원료가 교환되는 관계였다.

8세기 후반 이후에는 신라, 당, 일본 간에 사무역이 활발해졌다. 신라의 **장보고**는 9세기 전반에 청해진(전남 완도)을 거점으로 해상권을 장악하고 당, 신라, 일본, 동남아시아의 물품을 중계 무역하였다. 장보고의 활약을 계기로 중국 산둥 반도 연안과 대운하 연변, 창장 강 어귀 등지에는 국제 교역을 담당하는 신라 교민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교역의 경제적 성격이 한층 강화되면서 이전의 정치적 교역을 대체하게 되었다.

신라의 대외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의 서역 상인들도 중국을 거쳐 울산항에 왕래하였다. 이들은 서역,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의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왔다. 신라는 이를 신발, 가구 등에 장식하여 귀족 사회의 사치품 수요를 충족하고, 외국에 재수출하기도 하였다. 서역 상인들은 신라의 수공업 제품과 약재 등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이슬람 세계에까지 흘러들어 갔다.

8세기 초 당과 일본의 교류
8세기에 들어 일본은 견당사를 보내 당과의 교류를 재개하고 교역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역사 더하기+

장보고의 해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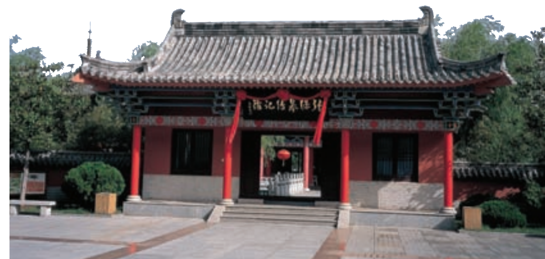
장보고는 당으로 건너가 쉬저우[徐州]의 무령군(武寧軍) 소장(小將)이 되었다가 828년에 신라로 귀국하였다. 그리고 흥덕왕의 허락을 받아 군사 1만 명을 모아 청해진을 건설하였다.

장보고는 당의 해적들을 소탕하여 한반도 서남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당은포(경기 화성)에서부터 중국 최초의 기항지인 산둥 반도 등주를 거점으로 화이허 강과 창장 강 하류 및 황해 연안 각지의 신라인 자치 구역(신라방) 무역상들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편제하여 당·신라·일본의 교역을 지배하는 해상 왕국을 건설하였다. 또한 그는 무역 활동으로 확보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산둥 성 원덩[文登] 일대에 신라소라는 자치 행정 기관과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워 운영하였다.

장보고는 당과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 양국에 독자적인 교역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그가 당에 보내는 사신을 '대당 매물사', 일본에 보내는 사신을 '회역사'라고 하였다. 장보고의 무역선은 '교관선'이라고 불렸는데 "속일본후기"에는 당시의 신라선이 '바람과 파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수한 배로 소개되어 있으며, 신라나 일본의 도당 구법승들도 그 배를 이용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의 배가 싣고 오는 물건들의 인기가 매우 높아 이를 구매하려고 예약 대금을 미리 납부할 정도였다.

장보고는 신무왕을 즉위시키는 등 중앙 정치에 관여하다가 846년에 피살되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 놓은 신라 해상 세력 중심의 한·중·일 삼각 무역 형태는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장보고(?~846)


법화원(중국 산둥 성)

발해가 당 및 일본과 교류하다

발해는 8세기 전반에 흑수 말갈 문제로 당과 무력 충돌하고, 신라와도 군사적으로 대립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역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8세기 중반 이후 당과 관계를 회복하고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발해는 **5대 교역로**를 이용하여 당, 일본, 신라 등과 교역하였다. 발해는 주로 말, 담비 가죽 등 특산물을 당에 수출하고, 비단과 공예품 등을 수입하였다. 또한 특산물과 당을 통해 들여온 외래품 등을 일본에 수출하고, 비단을 비롯한 각종 직물류, 금, 수은 등을 수입하였다. 발해와 신라의 주요 교역로는 **신라도**였으나, 민간 상인들은 서경 압록부에서 만포를 거쳐 신라의 서북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교역 물품은 견직물이었다.



쇼소인

일본 나라 시 도다이 사의 대불전 북서쪽에 있는 일본 왕실의 유물 창고이다. 일본 나라 시대의 전통 유물뿐 아니라, 당과 서역, 한반도에서 전해진 각종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어 일본 덴표 문화의 정수라고 일컬어진다.

통일 신라와 발해가 일본으로 문화를 전파하다

일본은 7세기 후반에 율령을 받아들여 고대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당시 일본은 당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가 율령을 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승려 심상은 일본으로 건너가 화엄경을 강의하고 일본 화엄종의 시조가 되었다.

일본 나라의 쇼소인에는 신라의 배 모양 먹, 놋그릇과 수저, 화려하게 채색된 양탄자, "화엄경론질", 가야금 등이 보관되어 있어 다양한 신라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발해는 일본에 양태사, 왕효렴 등 유명한 문인을 사신으로 파견하였으며, 장경선명력, 불경, 음악 등을 전해 주었다.

장경선명력
당의 목종 장경 연간(821~824)에 만들어져 사용된 달력이다. 일본은 이 달력을 신력(新曆)이라 하였으며, 861년부터 사용하였다.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서리 기운 가득한 하늘에 달빛 비치니 은하수도 밝은데
나그네 돌아갈 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
홀로 앉아 지새는 긴긴 밤 근심에 젖어 마음 아픈데
홀연히 들리누나 이웃집 아낙네 다듬이질 소리
바람결에 그 소리 끊기는 듯 이어지는 듯
밤 깊어 별빛 기우는데 잠시도 쉬지 않네
나라 떠나온 뒤로 아무 소리 듣지 못하더니
이제 타향에서 고향 소리 듣는구나
……
생각하고 또 생각하네 마음은 이미 그대에 젖어 있는데
또 들리누나 괴로운 이 마음
차라리 잠들어 꿈속에서 소리 찾아 가고 싶은데
다만 근심으로 잠 못 드누나

– 양태사

일본에 사신으로 간 발해의 양태사가 가을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의 부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은 서정시이다.

통일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역

통일 신라는 울산항, 당항성 등을 이용하여 당, 일본, 발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서역 상인들과도 교역하였다. 발해 역시 발해 5도라 불리는 교역로를 통하여 당, 일본 신라 등과 교역하였다.



당 월주요 비색 청자 횡파형차호 (중국 저장 성)
당의 자기는 훗날 고려청자에 영향을 끼쳤다.

신라금(일본 나라 도다이 사 쇼소인)
신라에서 제작된 가야금으로, 일본에서는 신라금이라 부른다.

바다거북 등딱지로 만든 장식 빗(호암 미술관)
통일 신라의 귀족들이 사용했던 사치품이다. 손잡이 부분은 정교하게 금을 세공하여 윤곽을 만들고 안쪽은 옥으로 장식하였다.

3 사상과 문화의 발달

신라 제24대 진흥왕 때 …… 바다 남쪽에 어떤 큰 배가 하곡현 사포(지금 울주 곡포)에 와서 정박하였다. 조사해 보니 공문서가 있는데 "서천축 아육왕이 황철 5만 7천근과 황금 3만분을 …… 배에 실어 바다에 떠나보내니 '인연 있는 국토에 도착하여 장륙존상을 이루기를' 축원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 대건 6년 갑오(574) 3월에 장륙존상의 주조를 완성하였다. …… 황룡사에 안치하였다. – "삼국유사"

● 신라는 왜 인도 아육왕(아소카 왕)이 보낸 철과 금 및 불상 모형을 받았을까?


경주 황룡사지 장륙존상 좌대석(경북 경주)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다

고구려와 백제는 중국 남북조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의 승려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왔으며(372),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에서 온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하였다(384).

신라는 5세기 전반 눌지왕 때 고구려에서 묵호자가 일선군(경북 구미)에 와서 포교하였으나, 토착 신앙의 영향이 강하여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 후 6세기 전반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고(528),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를 지었다.

삼국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민 의식을 통합하고자 불교를 수용하였다. 삼국은 불교를 수용한 후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차돈 순교비(국립 경주 박물관)

역사 더하기 ＋ 가야의 불교 수용

대가야의 이뇌왕은 6세기 전반에 신라 왕녀를 맞아 월광 태자를 낳았다. 월광 태자는 석가모니 전생의 이름이므로 가야에서도 불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는 6세기 중엽에 백제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가야는 약화된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 불교를 이용하였으나, 결국 불교를 통한 사회 문화 발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다.


고령 고아동 벽화 고분(경북 고령)
대가야 마지막 시기의 고령 고아동 벽화 고분 천장에 그려진 연꽃무늬는 불교문화를 상징하는데, 이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것과 비슷하다.


합천 월광사지 동·서 3층 석탑(경남 합천)
대가야가 멸망한 후 월광 태자는 가야산에 월광사를 짓고 말년을 보냈다고 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일 신라 후기에 해인사를 창건할 때 월광 태자의 후손들이 그의 마지막 거처를 월광사로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불교를 널리 퍼뜨리다

삼국은 왕실의 주도로 불교 사찰을 건립하고, 각종 불교 행사를 열었다. 고구려는 평양으로 천도하기 전 평양에 아홉 개의 사찰을 창건하였으며, 백제는 미륵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을 건립하고 가뭄에는 사찰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신라의 진흥왕은 불교의 전륜성왕 사상을 받아들여 정복지를 순수할 때 데리고 간 승려들에게 비문을 짓게 하였다. 또한 황룡사 등을 짓고 인왕백고좌회, 팔관회와 같은 국가적 불교 의식을 거행하였다. 진평왕은 중국 북조의 왕즉불 사상을 받아들여 신라 왕실을 불교식으로 신성화하였다. 원광은 국가 윤리에 충실한 세속 5계를 가르치고 수에 보내는 외교 문서인 걸사표를 작성하였으며, 자장은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워 사방의 나라를 제압할 것을 건의하였다.

삼국은 모두 불교의 힘을 빌려 정복 사업을 일으켰으며, 불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번영을 누리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미륵사 모형(전북 익산 미륵사지 기념관)과 사리호(국립 중앙 박물관)
백제 무왕은 왕비의 발원에 따라 익산 미륵사를 지었으며, 그 서탑에서 금제 사리 봉양기와 사리호 등이 출토되었다.

교학 불교 사상이 무르익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에 불교 교리를 깊이 연구하는 교학 불교 성향이 자리 잡았다. 고구려 승려 승랑과 백제 승려 혜균은 중국에서 삼론종을 깊이 연구하였다.

신라에서는 원광이나 자장이 마련한 유식 중심의 불교 사상 위에 고구려나 백제에서 발달한 중관 사상이 전해지면서 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대중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들의 신앙적 욕구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교 교리 연구와 불교 대중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한편 신라 승려 원측은 당에서 활약하면서 유식 일변도의 중국 법상종을 비판하고, 유(有)와 공(空)의 조화를 중시하는 신라 법상종의 시조가 되었다.

전륜성왕
불교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 전륜성왕은 무력 없이 전 세계를 통일하여 정법으로 통치하는 속세의 이상적인 왕이다.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예언자는 그가 전륜성왕이 되거나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 더하기+ 중관과 유식

중관(中觀)	유식(唯識)
• 인도 대승 불교의 한 유파로서, 공(空)을 강조하는 학파를 중관학파라고 한다. •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인연에 따라 잠시 존재하는 것(空)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분별과 양 극단을 타파하고 중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중국에서 이를 삼론종이라고 하였다.	• 인도 대승 불교의 또 다른 유파로서, 유(有)를 강조하는 학파를 유식학파라고 한다. • 현상도 본체도 모두 인간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것(有)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인식을 수행의 힘으로 정화하여 지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 중국에서 이를 법상종이라고 하였다.

원효가 기신론을 설명하다

원효는 많은 승려와 교유하고 여러 경전을 두루 섭렵하였다. 그는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여 중관과 유식의 교리적 대립을 해소하고 세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불교적 가치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는 공·유의 집착과 편견의 극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주장들이 존재할 수 있는 진리의 일면성을 인정하고(화쟁 사상), 각 입장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독자적인 이론과 실천 원리를 정립하였다.

원효는 귀족 불교에서 소외된 계층을 구제하고자 **불교 대중화 운동**을 벌였다. 그는 모든 중생이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불할 수 있으나, 생업에 바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아미타불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무아미타불’, 즉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는 말을 열 번 암송하면 누구나 극락에 왕생하여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쳐 소외된 계층에게 내세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였다.

화쟁 사상과 일심이문 이론
화쟁 사상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일심이문(一心二門)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중관학의 논리인 진여문(眞如門)과 유식학의 논리인 생멸문(生滅門)이 한마음에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 일심(一心)의 본원(本源)에 이르면 두 문이 서로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현실 세계를 긍정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의상이 화엄을 실천하다

의상은 중국에 유학하여 화엄 교학의 창시자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화엄 교학의 정수를 ‘화엄일승법계도’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법계도를 통하여 하나와 여럿이 서로 포함되고 서로 동일시되는 논리를 진리의 세계의 핵심으로 보고, 모든 현상이 붙어 있지도 않고 떨어져 있지도 않으며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아서 항상 중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의상은 화엄을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옷 세 벌과 바리 하나 외에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 청정 계율의 실천에 앞장섰다. 또한 그는 “화엄경”에 토대를 두고 실제로 신라 땅 낙산에 관세음보살이 머물고 있다고 널리 알림으로써, 질병이나 재해 등 인간 생활의 현실적인 고뇌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화엄일승법계도
의상은 화엄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210자의 글자에 담아 상징적인 정사각형 도안으로 배열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여럿 안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일체이고 여럿이 곧 하나이다.'라는 구절이다.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경북 경주)
원효는 분황사에 머물면서 불경을 연구하고 “화엄경소” 등을 저술하였다. 당시 분황사는 1탑 3금당 형태의 사찰이었다.


낙산사 홍련암(강원 양양)
의상은 홍련암에서 관음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관음은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 준다는 보살이다.

선문 9산이 펼쳐지다

신라 말에는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와 교종과 다른 유파를 형성하였다. 선종은 특정한 경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살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종파였다. 스승의 마음을 제자에게 전하는 교육 방법을 중시하였으니, 이는 곧 제자가 스스로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헌덕왕 때 도의가 당에서 돌아오면서 통일 신라에 선종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선종 승려들은 지방 각지에 사찰을 세워 선문 9산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경작하면서 수행에 힘써 지방의 민심을 얻었으며, 지방에 토대를 둔 호족 세력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사자산파의 절중과 봉림산파의 심희는 신라 조정의 부름을 사절하였고, 동리산파의 경보는 견훤과의 제휴를 거절하였다. 궁예는 자신의 설법에 비판적인 승려 석총과 가지산파의 형미를 살해하여 민심을 잃었다. 그에 비해 왕건은 선종 승려들을 포용하여 지방 호족과 일반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 **신라의 5교와 선문 9산**
신라의 교종이 성행하는 가운데 선문 9산이 새로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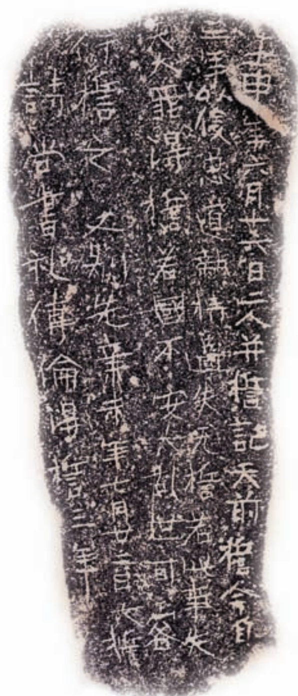
발해에서도 불교가 성행하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여 불교문화를 발전시켰다. 불상은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당의 요소를 융합한 독창적인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발해의 불교는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을 중심으로 융성하였으며, 문왕은 전륜성왕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 **문경 봉암사 지증 대사 탑(경북 문경)**
선종은 스승과 제자의 계승 관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고승의 사리를 탑에 안치하였다.


⬆ **발해의 이불병좌상(중국 지린 성 훈춘)**
왼쪽 부처의 오른손이 오른쪽 부처의 왼손 위에 겹쳐 놓인 점, 두 부처 옆으로 승려와 보살상이 1구씩 배치된 점 등의 세부 양식 면에서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 **발해의 영광탑(중국 지린 성 창바이)**
당의 벽돌 탑 양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탑의 운용 면에서 승려의 사리탑이 아닌 권력자의 무덤 탑으로 이용되기도 한 점은 발해 문화의 독자성을 나타낸다.



임신서기석 비문(국립 경주 박물관)
신라 진평왕 34년(612)의 것으로 보이며, 두 화랑이 "시경", "상서", "예기", "춘추좌씨전"을 3년 안에 습득하기로 맹세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삼국이 유교를 교육하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설치하였다(372). 태학에서는 박사들이 유교 경전인 오경과 중국 역사서 등을 가르쳤다. 영양왕 때에는 태학박사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600).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다. 비유왕 때에는 중국 남조의 송에서 유교 서적인 "역림" 등이 들어왔고, 성왕 때에는 오경 중의 하나인 "모시"의 박사를 보내 줄 것을 양에 요청하였다. 백제 부흥 운동을 이끌다가 당에 귀화한 흑치상지의 묘지명에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춘추좌씨전"과 "사기", "한서" 등을 읽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신라에서는 원광 법사가 귀산과 추항 두 낭도에게 가르친 세속 5계 중에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등의 덕목이 있어서, 당시에 승려가 생활 윤리로서 유교를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유학이 융성해지다

신라 진덕 여왕 때 김인문 등이 당에 가서 숙위 학생으로 국학에 들어갔는데, 이는 신라에서 유학이 발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무열왕과 문무왕 때 외교 문서의 해독과 작성에 뛰어났던 강수는 이미 통일 전에 국내의 스승에게서 다양한 유학 서적들을 배웠다고 하니, 신라인의 유학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신문왕 때에는 **국학**을 세우고 유교적 교양과 인문학, 산학을 가르침으로써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익히게 하였다. 원성왕 때에는 국학의 졸업 시험으로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었다.

성덕왕 때에는 신라와 당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많은 신라인이 당으로 유학하였다. 그중에서도 박인범, 최치원, 최승우 등은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인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며 당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한편 발해에서도 당의 국자감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동서고금의 제도를 익혔으며, 오소도와 오광찬 등은 당의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도교가 들어오다

7세기 고구려 영류왕 때 당에서 파견한 도사가 천존상을 가지고 와서 "도덕경"을 강론하였다. 당이 국가적으로 숭상하던 도교를 고구려에 전해 준 것은 양국의 우호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보장왕 때에는 연개소문이 당과 화친을 목적으로 도사를 초빙하여 강론을 열었고, 여기에 왕과 백성 수천 명이 참관하기도 하였다.

백제와 신라에 도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되거나 유행한 흔적은 없다. 다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노장사상, 신선 사상, 음양오행, 둔갑술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지식인들은 도교의 기본 교리서인 "도덕경" 구절을 익히 알고 있었다. 또한 무덤 내부나 궁궐 바닥의 벽돌에 **사신도**를 비롯한 도교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거나 무늬를 새겨 넣기도 하였다.

남북국 시대에는 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신라의 김가기나 발해의 이광현과 같이 도교에 심취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교는 통일 신라와 발해에서 유행하지는 못하였다.

김가기
당의 빈공과에 급제한 진사이면서 도교에 깊은 뜻을 지녀 신라에 귀국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중국 종남산에 가서 도복을 입고 일생을 보냈다.

이광현
중국 동해안에서 무역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당의 도인에게 도교를 배우고 발해에 귀국하여 수련하였으나, 다시 중국 숭고산에 가서 도교 관련 저술을 남겼다.



고구려의 현무도(남포 강서 대묘)
고구려인들은 무덤 안 벽에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사신도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 거북과 뱀이 엉킨 형태의 현무는 북쪽을 방위하는 신이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국립 중앙 박물관)
도교나 신선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품(品)자형의 세 봉우리를 겹겹이 그려 삼신산을 표현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 다음 인물의 활동을 써 보자.

(1) 장보고:

(2) 원효:

2. 다음 글을 읽고 통일 신라와 당의 교류에 대하여 서술해 보자.

> (최)치원은 어려서부터 정밀하고 민첩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나이 12세가 되어 장차 배를 타고 당에 들어가 공부를 하려 할 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십 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니 힘써 공부하라!"라고 하였다.
> 치원이 당에 이르러 스승을 좇아 학문을 배우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건부 원년 갑오(874)에 예부시랑 배찬 아래에서 한 번 시험을 보아 합격하여 선주(宣州) 율수현위(溧水縣尉)에 임명되었다.
> – "삼국사기"

조건 경제, 문화를 구분하여 서술할 것

연표로 정리하기


▲주먹도끼


▲비파형 동검


▲충주 고구려비


▲발해 막새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출현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하였다.
70만 년 전	구석기 문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 만든 ❶ □□□를 사용하였다.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문화	신석기 시대에는 ❷ □□이 시작되어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하였다.
기원전 2333	고조선 건국	❸ □□□□이 세운 고조선은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기원전 194	위만 조선 성립	위만 조선은 중국의 우수한 ❹ □□ 문화를 수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북부 지역을 거의 다스리게 되었다.
372	고구려, ❺ □□ 설치	소수림왕이 설치한 유교 교육 기관이다. 소수림왕은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하여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427	고구려, 평양 천도	❻ □□□은 평양으로 천도하여 국내 정세를 안정시켰다.
522	대가야, 결혼 동맹 체결	백제에 밀린 대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538	백제, 사비 천도	성왕은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쳐 중흥을 꾀하였다.
612	❼ □□ □□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은 청천강 부근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려는 수의 군대를 궤멸하였다.
676	신라, 삼국 통일 완성	신라는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해전에서 당에게 승리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당군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
687	신라, 문무 관료전 지급	신문왕은 ❽ □□을 폐지하고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이어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을 분배하였다.
698	발해 건국	❾ □□□ 유민 대조영은 동모산 부근에서 발해를 건국하였다.
822	김헌창의 반란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일으킨 난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901	후고구려 건국	초적의 무리를 이끌던 ❿ □□는 개성에서 후고구려를 세웠다. 그 후 철원으로 수도를 다시 옮기고 국호를 마진, 태봉 등으로 고쳤다.

대단원 마무리

수행하기

다음 역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둠별로 전자 백과사전을 만들어 보자.

- 구석기 시대의 생활
- 신석기 시대의 생활
-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 삼국과 가야의 외교 관계
- 신라의 삼국 통일
- 신라와 발해의 국제 교역

❶ 전자 백과사전 구성하기

1. 구성원들은 위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모둠별로 모여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목차를 정한다.
3. 목차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여 이미지와 함께 배치한다. 참고 문헌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경우 주석을 덧붙인다.
4. 참고 문헌과 관련 주제어를 가장 하단에 제시한다.
5. 다른 모둠 및 구성원들과 자료를 공유하여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나간다.

❷ 전자 백과사전 만들기(예시)

http://www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목차
- 구석기 시대 도구
- 식생활
- 주생활
- 참고 문헌
- 관련 검색어

– 구석기 시대 도구

외날찍개, 주먹도끼, 긁개, 찌르개 등의 뗀석기가 사용되었다. 외날찍개는 나무뿌리를 캐거나 동물의 뼈를 부수는 데 사용하였고, 주먹도끼는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 만능 석기였다.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밀개, 뚜르개와 같은 잔석기들이 등장하였다.

– 식생활

식물의 열매와 뿌리를 채집하였으며 동물을 사냥하였다. 여럿이 힘을 합쳐 노루나 곰을 잡기도 하였으나 주로 풀과 나무의 열매, 잎 따위를 먹고 살았다. 구석기인들은 채집한 식물을 그대로 먹거나 나뭇가지에 고기를 끼워 구워 먹었다.

– 주생활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살거나 막집을 지었다. 막집 안에는 돌로 난로를 만들고 불을 피우기도 하였다

– 주석

– 참고 문헌

– 관련 검색어: 주먹도끼,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상원 검은모루 동굴, 잔석기

Ⅱ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 벽란도의 모습(상상화)

쌍화점

작자 미상

쌍화점(雙花店)에 쌍화(雙花) 사러 갔더니만
회회(回回) 아비 내 손목을 쥐여이다.
이 소문이 이 가게 밖에 나명들명 하면
　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새끼 광대 네 말이라 하리라.
　더러둥셩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만두 가게를 의미하는 쌍화점은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지어진 고려 가요이다. 작품 속에 회회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사람의 왕래와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송을 비롯한 거란, 여진, 아라비아 상인 등과 교류하면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지는 사회로 발전하였다.


▲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국립 중앙 박물관)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경북 영주)


△ 용장산성(전남 진도)

01 고려의 성립과 발전

이 단원에서는 >> 1. 고려의 건국 및 발전 과정을 국제 정세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2. 고려 왕조의 통치 체제 정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고려 귀족 사회의 변천을 지배 계층의 변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1 고려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듣건대 왕공(왕건)은 문(文)으로 백성을 안정시키고 무(武)로 포악함을 금하므로 사방에서 왕건의 덕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없다 하니 나는 왕공에게 귀부하고자 한다. 너의 뜻은 어떠하냐?

– 신라 말 호족 공직이 아들 직달에게 물은 내용

●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왕건상(평양, 조선 중앙 역사 박물관)

5대 10국
중국에서 907년 당이 멸망한 뒤부터 960년 송이 통일할 때까지 흥망성쇠를 거듭한 다섯 왕조와 여러 지방에 세워졌던 열 개의 나라 또는 그 시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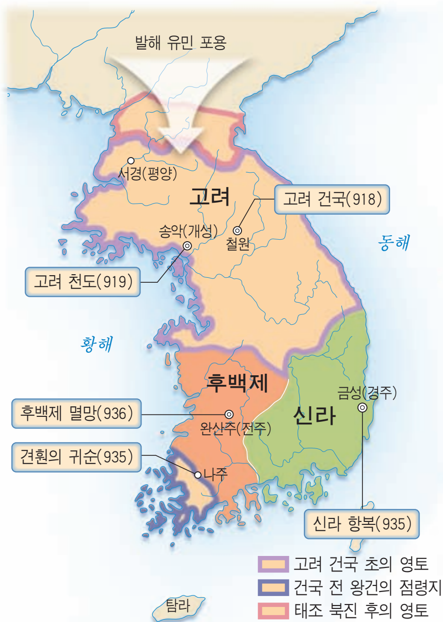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다

10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의 정세는 크게 변하였다. 중국에서는 당이 멸망한 후 5대 10국이 난립하였고,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부족을 통합하고 나라를 세웠다. 그 후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압박하였으며, 한반도에서는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 무렵 **왕건**은 궁예를 몰아낸 뒤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918). 그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수도를 송악으로 옮겼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자 호족 세력의 통합에 힘을 기울이고 신라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 밖으로는 중국의 5대와 외교 관계를 맺어 대외 정세를 안정시키고 후백제를 견제하였다.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긴 견훤이 고려에 귀순하였다. 이후 후백제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면서 고려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신라를 병합하였다(935). 다음 해 고려는 후백제를 공격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에서도 왕자 대광현을 비롯한 많은 유민이 고려로 망명하였다. 고려는 이들을 받아들여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어 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민심을 얻고 호족 세력을 통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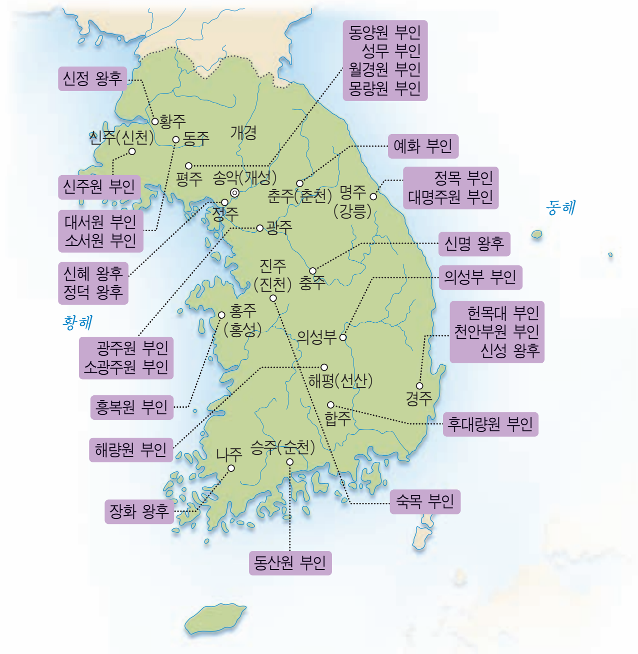
태조는 고려의 국가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취민 유도를 내세워 백성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흑창을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려 하였다. 또한 불교를 숭상하고 연등회·팔관회 등의 전통적 행사를 중시하여 민심을 얻으려 하였다. 태조의 정책 방향은 '훈요 10조'에 잘 나타나 있다.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개발하였으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태조의 북진 정책으로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까지 확대되었다.

태조는 **호족 연합 정책**을 추진하였다. 유력한 호족과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호족에게 관직과 토지를 수여하거나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이와 함께 호족 출신의 고위 관리로 하여금 자신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여 이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한편, 지방 호족의 자제를 뽑아 개경에 머물게 하는 기인 제도를 실시하여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의 호족 연합 정책으로 왕권은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태조의 뒤를 이어 혜종과 정종이 즉위하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외척 세력 간에 다툼이 일어나 왕권이 위협받기도 하였다. 또한 각 지역 호족들의 세력도 여전히 강하였다.

취민 유도(取民有度)
태조가 내세운 조세 정책의 기본 이념이다.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왕건의 혼인 관계도



훈요 10조 일부

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원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할 것
2조 산천의 기운에 따라 도선이 사원을 세울 곳을 정해 놓았으니, 함부로 더 짓지 말 것
4조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므로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며, 거란의 제도는 본받지 말 것
5조 서경을 중요시할 것
6조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하게 열 것
10조 왕은 유교 경전과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옛일을 거울삼아 오늘을 경계할 것

훈요 10조는 고려의 건국 정신을 담은 태조 왕건의 유훈이다. 유교, 불교, 풍수지리 사상을 넓게 받아들이면서 주체적이고 도덕적인 부국 안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거 시험 합격증 홍패(경북 울진)
1205년 진사 시험 병과에 합격한 장양수가 받은 홍패이다. 홍패에는 응시자의 이름, 지위, 성적, 고시관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하남 교산동 마애 약사여래 좌상(경기 하남)
하남 교산동 마애 약사여래 좌상에 새겨진 '황제만세원'은 고려가 대내적으로 천자국 체제를 지향했음을 보여 준다.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하다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서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 교양을 갖춘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을 교체하려 하였다. 또한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여 관료의 위계질서와 기강을 확립하였다. 광종은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개경을 '황도'라 부르는 등 고려의 국가적 위상과 왕권을 과시하였다.

광종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외척 세력과 공신, 호족 세력들을 과감하게 숙청하였다. 이로써 고려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은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었다.

성종 때에는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유교 정치가 본격화되었다. 최승로는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제출하여 유교를 진흥하고 불교 행사를 억제할 것과 각 지방에 외관을 파견할 것을 제안하였다. 성종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2성 6부의 중앙 관제를 마련하고,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국자감을 정비하여 유학 교육을 장려하고,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보내 지방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탐구 활동 고려 정치 질서의 확립 과정

자료 1 과거제

삼국 이전에는 과거법이 없었다. 고려 태조가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였다. 이때부터 문풍이 일어났고 그 법은 대체로 당 제도를 따른 것이다.

– "고려사"

자료 2 최승로의 시무 28조 일부

제7조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집집마다 가거나 날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하고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해야 합니다.

제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에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까운 것이요, 내세는 지극히 먼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고려사"

1.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한 목적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2를 바탕으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채택된 결과로 나타난 정책을 말해 보자.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고려는 당과 송의 제도를 수용하고 이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2성 6부제**를 기본으로 한 중앙 정치 조직을 운영하였다. 중서문하성은 최고 관서로서,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결정하였으며 책임자는 문하시중이었다. 상서성은 6부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맡았으며,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에만 있었던 독특한 기관으로,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인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 기구였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인 어사대의 관원들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더불어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정책이나 관리 임용의 잘잘못을 비판하면서 정치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다.

지방 행정 조직은 성종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현종 때 마무리되었다. 고려는 전국을 **경기, 5도와 양계**로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한 군·현 등을 두었다. 일반 행정 구역인 5도에는 안찰사을 파견하여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게 하고, 북방의 국경 지대에 설치한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하였으며 국방상의 요충지에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수도인 개경과 함께 서경(평양), 동경(경주)을 3경이라 하여 중시하였다.

고려는 군·현 등에 수령을 파견하였는데 관리가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속현과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은 주현의 수령이 향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였다.

고려의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지방군은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고려는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리를 등용하였다. 과거는 문신을 선발하는 제술과와 명경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양인 이상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제술과에는 주로 귀족과 향리의 자제가 응시하였고, 잡과에는 농민들도 응시하였다.

공신과 종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음서의 혜택을 받아 관료가 될 수도 있었다.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

제술과는 문장, 시무책 등을,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시험하였고, 승려는 승과를 거쳐 승계를 받았다.

2 문벌 귀족 사회의 발전과 변화

전남 영광 법성포에 유배된 이자겸은 소금에 절여 말린 조기를 임금에게 진상하면서 “선물은 보내도 굴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굴비(屈非)’라 적어 보냈다. 이는 오늘날 굴비의 어원이라 전해진다.

● 이자겸은 왜 영광에 유배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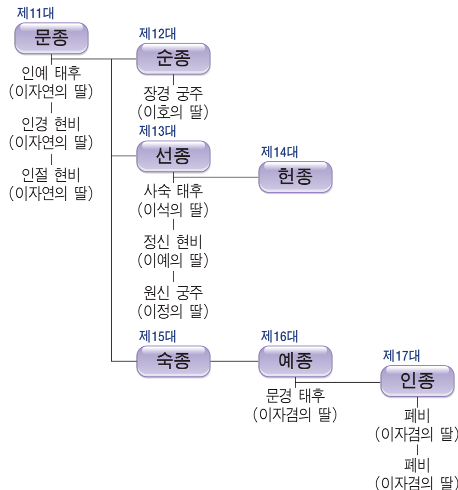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다

성종 때 이르러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고 유교적 정치 이념이 제도화되면서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지방 호족 출신으로 중앙 관료가 된 사람들과 신라 6두품 계통의 유학자 출신들이었다. 이 중 여러 대에 걸쳐 중앙의 고위 관직을 차지한 귀족 가문을 문벌 귀족이라 한다.

문벌 귀족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직에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전시과 토지를 받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는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문벌 귀족들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 기반을 굳건히 하였으며,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외척 가문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 일부는 과거 급제자를 2대 또는 3대에 걸쳐 배출하여 가문의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다.

역사 더하기 + 고려 최고의 문벌이 된 경원 이씨



이자겸의 아들들이 앞다투어 큰 집을 지어 집들이 거리에 이어졌다. 세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고 갔다. 사방에서 바치는 음식과 선물이 넘치게 되니 썩어서 버리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남의 토지를 빼앗고 종들을 시켜 수레와 말을 빼앗았다. 가난한 백성들이 모두 수레를 부숴 버리고 말을 팔아 버리니 길이 시끌벅적하였다.

– “고려사”

경원 이씨는 문종 때부터 7대 80여 년 동안 왕실의 외척으로 권세를 누리면서 왕위 계승 문제에까지 개입하였다. 특히 이자겸은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등 각종 부정을 일삼고 반대파를 숙청하였으며 왕권을 위협할 정도의 세력을 차지하였다. 그는 십팔자(十八子) 성씨 즉, 이(李)씨가 나라를 얻는다는 ‘십팔자위왕설’을 믿고 난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패하여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되었다.

이자겸, 왕이 되고자 하다

경원 이씨 가문은 이자연이 자신의 딸들을 문종의 비로 들이면서 최대 문벌이 되었다. 이후 경원 이씨는 대대로 왕실의 외척이 되었으며, 이자겸은 예종, 인종과 거듭된 혼인 관계를 맺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자겸의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자 인종은 왕권을 회복하고자 그를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자겸은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왕의 측근 세력들을 제거하였으며, 인종을 감금하였다(**이자겸의 난**, 1126). 권력을 장악한 이자겸은 여진족이 세운 금의 압력에 굴복하여 금과 군신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 후 이자겸과 척준경의 사이가 벌어지자 인종은 척준경을 회유하여 이자겸을 몰아내고 이어 척준경도 숙청하였다. 이자겸의 난은 지배층의 분열과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를 초래하였다.

묘청, 서경 천도를 주장하다

이자겸의 난 이후 인종은 외척과 문벌 귀족의 횡포를 막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서경 세력과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의 귀족들이 대립하였다.

묘청 등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으로 도읍을 옮길 것과 황제를 칭하고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인종도 이에 호응하여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여러 차례 행차하였다. 그러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서경 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묘청은 서경에서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 하고 연호를 '천개'라 고 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묘청 세력은 1년 여 동안 저항하였으나 결국 김부식이 이끈 관군에 진압되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진압된 이후 문벌 귀족 사회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지배층의 하위에 있던 무신들이 실력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묘청의 주장

제가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땅은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궁궐을 짓고 전하께서 옮겨 앉으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선물을 바치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요, 주변의 36개 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 "고려사"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전통 사상과 유교 정치 이념의 대립,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고려 지배 세력 내의 이견과 갈등이 얽혀 일어난 것이었다.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다

고려의 국가 체제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정비되면서 문신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 때문에 무신은 문신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 고려에서는 무과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고, 무신은 승진에 제한을 받았으며 군사 최고 지휘권은 문신이 독점하였다.

군사를 지휘한 문신들
거란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서희와 강감찬,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설치한 윤관,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종이 측근 세력에 기대어 실정을 거듭하자,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들은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몰아냈다(**무신 정변**, 1170).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였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저마다 사병을 길러 세력을 강화하였다.

무신 정권 초기에는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없어 무신들 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고, 경대승이 죽은 뒤에는 이의민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최충헌이 이의민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수습되었다.

최충헌은 무신 집권기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봉사 10조를 올려 정치 기강을 세우고 농민 봉기를 적극적으로 진압한 후 무단 정치를 실시하였다. 이후 4대 60여 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졌다.

최충헌은 최고 집권 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였으며 신변 경호를 위하여 도방을 운영하였다. 최충헌의 뒤를 이어 집권한 최우도 교정도감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고 유학 지식과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인을 관리로 등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삼별초를 조직하여 도방과 함께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으로 삼았다.

무신 정권은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시작된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고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막을 내렸다.

시기	집권 인물	집권 기구
1170	이의방	중방
1174	정중부	
1179	경대승	
1183	이의민	
1196	최충헌	교정도감
1219	최 우	교정도감 · 정방
1249	최 항	
1257	최 의	
1258	김 준	
1268	임 연	
1270	임유무	
1270		

무신 집권자와 집권 기구

역사 더하기 종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 권력자가 된 이의민

이의민은 소금 장수인 아버지와 옥령사의 여종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기골이 장대하였던 그는 경군에 편입된 후 수박희를 특히 잘해 의종의 총애를 받았다. 이후 무신 정변에 가담한 공으로 중랑장의 지위에 올랐고, 김보당이 의종의 복위를 꾀하자 의종을 살해하여 그 공으로 대장군이 되었다. 이후 서경 유수 조위총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토벌하여 무반의 최고직인 상장군이 되었다.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경대승이 실권을 장악하자 이의민은 고향인 경주에 내려가 있다가 경대승이 병사한 후 명종의 부름을 받고 정치적 실권을 잡았다.

그는 무신들의 문반직 겸임을 확대하고 막대한 권력을 기반으로 백성을 수탈하였다. 10여 년 동안 지속된 이의민 정권은 최충헌이 이의민을 살해하면서 끝이 났고, 이후 최씨 무신 정권 시대가 열렸다.

3 공민왕의 개혁 정책

서울 종묘의 공민왕 신당에는 공민왕과 원 출신 노국 공주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원 위왕의 딸인 노국 공주는 공민왕과 결혼한 후 함께 고려로 들어왔다. 노국 공주는 공민왕과 함께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회복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노국 공주가 죽은 후 공민왕은 밤낮으로 왕비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울었다고 한다.

● 고려의 공민왕은 왜 원 공주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을까?



공민왕과 노국 공주의 영정 (서울 종묘)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다

원 간섭기에 고려 국왕은 원 황실의 부마가 되었고 고려 왕실과 관련된 호칭과 정치 조직의 격도 낮추게 되었다. 원이 철령 이북에 쌍성총관부, 자비령 이북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면서 영토도 축소되었다. 또한 고려는 원의 일본 정벌에 필요한 병선과 군대를 마련하느라 많은 고통을 받았다.

원은 감찰관에 해당하는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으며,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하였던 **정동행성**을 계속 남겨 두고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다.

고려는 금, 은, 베를 비롯하여 인삼, 약재 등을 원에게 공물로 바쳤으며, 원 황실에서 일할 환관과 공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응방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사냥에 필요한 매를 기르고 이를 공물로 바쳤다. 이에 따라 고려는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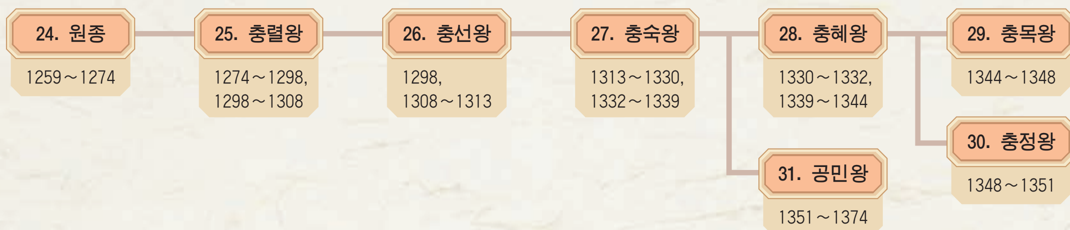
왕실 용어 격하	• 조 · 종 → 왕 • 짐 → 고 • 폐하 → 전하 • 태자 → 세자
관제 변경	2성: 중서문하성, 상서성 → 첨의부 6부: 이부, 예부, 병부, 호부, 형부, 공부(폐지) → 4사: 전리사, 군부사, 판도사, 전법사 • 중추원 → 밀직사

원 간섭기 고려 왕실 용어 및 관제의 변화

원의 간섭으로 고려의 국가 위신은 떨어졌으나, 원은 고려의 높은 문화 수준을 인정하여 풍속은 존중하였다.

탐구 활동 원의 정치적 간섭과 고려의 왕위 계보

• 자료 **고려 후기 왕위 계보**



1. 왕의 호칭 앞에 '충'을 붙인 까닭을 말해 보자.
2. 충렬왕에서 충혜왕의 재위 기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왕위에 오르게 된 원인을 조사해 보자.

도평의사사
일부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방·군사상의 문제를 회의하던 임시 회의 기구인 도병마사가 충렬왕 5년에 개편된 것이다. 개편과 더불어 구성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어 고려 후기에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공민왕, 개혁 정치를 펼치다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면서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였다. 권문세족은 종래의 문벌 귀족 가문, 무신 집권기에 새로 등장한 가문, 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한 가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권문세족은 음서 등을 통해 관직을 독차지하였으며,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아 경제력을 확대해 갔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고 부역과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의 숫자도 감소하였다.



공민왕의 영토 회복

원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 기구나 관청이 자주 바뀌어 행정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증가하였다. 이에 충선왕은 권세가들의 농장을 몰수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권문세족의 반발과 원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정치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것도 개혁 실패의 큰 원인이었다.

그 후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라는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밖으로는 반원 자주 정책을 펴고 안으로는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민왕은 정동행성과 정방을 혁파하고 도평의사사를 정비하는 등 고려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원의 연호 사용을 폐지하고 몽골식 풍습을 금지하였다. 또한 기황후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던 기철 일파를 숙청하고,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회복하였다.

탐구 활동 공민왕의 개혁

신돈은 왕에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원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각처에 포고문을 붙였다. "근래에 기강이 크게 무너지자 탐오함이 풍습이 되어 …… 토지와 나라 사람들이 가져온 전민을 권세 있는 집들이 강탈하여 점령하였다. 그들은 주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양민을 노예로 삼았다. 그리고 각 주·현의 역리, 관노, 백성들로서 자기 역을 도피한 자를 모조리 은닉하여 크게 농장을 차렸다. 이로 인해 백성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바 이것이 하늘에 감응하여 부단히 수재, 한재, 역질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도감을 설치하고 그 시정 사업을 담당케 하였으니 서울에서는 15일 이내로, 지방에서는 40일 이내로 자기 잘못을 알고 스스로 시정하는 자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일이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무고한 자는 그 벌을 도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명령이 반포되니 세도 있는 많은 집이 차지했던 전민(田民)을 그 주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온 나라가 모두 기뻐하였다.

– "고려사"

1. 당시 고려 사회가 안고 있던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찾아 보자.
2.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하여 실시하고자 한 개혁의 목적과 내용을 정리해 보자.

한편 공민왕은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성균관과 과거제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신진 사대부들이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개혁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고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고자 하였다.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반발과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개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계속하였다. 공민왕은 신돈을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회복시켰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로 개혁의 중심인물인 신돈이 제거되고 이어서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다.



공민왕이 그린 것으로 전하는 천산대렵도(국립 중앙 박물관)
들에서 말을 타고 짐승을 쫓아 활을 쏘면서 달리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비단에 그린 세밀한 채색화로 원 화풍의 영향을 받았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문하부는 나라의 온갖 정무를 맡아 본다. 문하부의 낭사는 임금에 대하여 충고를 하며 임금의 명령이 백성에게 불편한 것일 때에는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아 주는 일을 맡는다. 건국 초기에는 내의성이라고 하였는데 성종 원년에 내사문하성이라고 고쳤고, 문종 15년에는 중서문하성이라고 고쳤다. 충렬왕 원년에는 상서성과 중서문하성을 합쳐서 첨의부를 설치하였다. 5년에 원에서 첨의부에 정4품의 도장을 보내 주었으며 7년에는 원에서 첨의부의 품계를 높여 종3품으로 하였다. 19년에는 원에서 첨의부의 명칭을 도첨의사사로 고치게 하고 또 품계를 종2품으로 올리게 하였다. 공민왕 5년에 다시 중서문하성으로 고치고 상서성은 따로 설치하였다. 11년에 또다시 도첨의부라 하였다가 18년에 문하부로 고쳤다. – "고려사"

1. 다음 기구의 역할을 써 보자.

(1) 중서문하성:

(2) 낭사:

2. 충렬왕 때 상서성과 중서문하성을 합쳐서 첨의부로 한 까닭을 적어 보자.

조건 시대적 배경을 포함할 것

고려의 500년 도읍지, 개성을 가다



❶ 박연 폭포

금강산의 구룡 폭포, 설악산의 대승 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폭포 중 하나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서경덕, 황진이와 함께 송도삼절로 유명하다.



❷ 고려 첨성대

만월대 서북쪽에 있는 천문대이다. 지금은 화강암으로 만든 축대 부분만 남아 있는데 동서남북 방위와 일치한다.



❸ 만월대 궁궐터

만월대는 고려 왕조의 본궐이며 송악산을 배경으로 그 남쪽에 있다. 본궐의 중심 전각인 회경전 자리에는 돌계단과 터의 주춧돌 등이 남아 있다.



❹ 수창궁 용머리 조각

수창궁은 공민왕 후반 이후 고려의 왕이 정사를 돌본 곳이며, 조선의 태조, 정종, 태종이 즉위한 곳이다. 지금은 그 터에 학생소년궁전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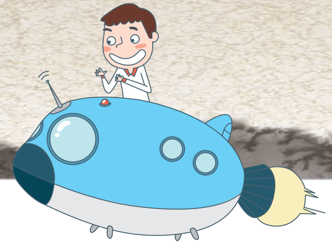


❺ 공민왕릉

반원 개혁을 주도했던 공민왕의 무덤(현릉)이다. 오른편에 조성된 노국 공주의 무덤(정릉)과 나란히 있으며, 밑에 서로 통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한다.







개성(개경)은 통일 신라 말기 예성강 주변을 기반으로 성장한 왕건의 아버지가 궁예에게 귀부하면서 역사 무대 전면에 등장하였다. 개성은 919년에 고려 왕조의 수도로 자리 잡은 이래 강화도로 천도한 기간을 제외하고 430여 년간 고려의 정치·경제의 중심지이자 주요한 생활 공간이었다. 개성에서 고려의 흔적을 찾아가 보자.



⑩ 영통사

개성 나성 밖 동북쪽에 있으며 고려 초에 창건된 화엄종단의 대표 사찰이다. 대각국사 의천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 대각국사비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다.



⑨ 개성 성균관

고려 말 개혁에 앞장선 신진 사대부들이 성장한 곳으로 현재 개성 역사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개성 근처의 여러 유물과 탑, 불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⑧ 선죽교

고려 말 정몽주가 피살되었다고 전해지는 돌다리이다. 옛 이름은 선지교였으나 정몽주가 피살된 날 밤 다리 옆에서 참대가 솟아나서 이름을 선죽교로 고쳤다고 전해진다.



⑦ 숭양 서원

정몽주의 집터에 세운 서원으로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근처 비각 안에 조선 후기에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고자 만든 표충비 2개가 들어 있다.



⑥ 개성 남대문

개성 중심에 자리 잡은 내성의 남문이다. 1393년에 완성되었으나 6·25 전쟁 때 파괴되었다가 복원되었다. 현판은 석봉 한호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02 고려의 경제와 산업

이 단원에서는 >> 1. 고려의 토지 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고려 수취 제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고려 시대 각종 산업의 발달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1 고려의 경제 정책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꼬리를 맞대고 머리로 베개 위 판을 받치고 있는 청자 쌍사자형 베개는 맑은 빛깔과 섬세한 조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베개는 고려 귀족의 화려한 생활을 보여 준다.

● 고려 귀족이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은 무엇일까?



청자 쌍사자형 베개(삼성 미술관 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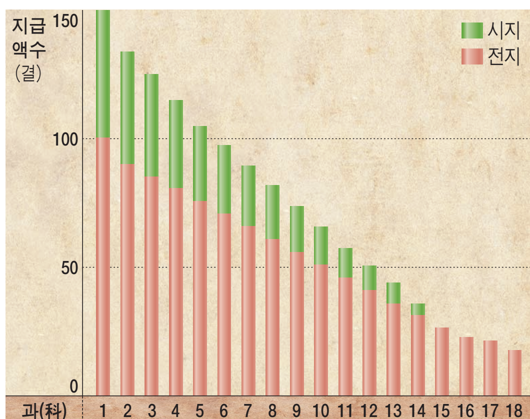
전시과 제도가 만들어지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그 후 관료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전시과는 문무 관리, 군인, 한인을 18등급으로 나누어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는 제도였다.

전시과는 국가가 관료에게 수조권을 일시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 지급받은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했다.

경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전시과 제도는 공복 제도와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하였다(시정 전시과). 이 때에는 관직의 높고 낮음 뿐 아니라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따랐다.

그리하여 목종 때 전시과를 개정하여 관직만을 고려하여 토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개정 전시과). 그러나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문종 때 다시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전시과를 다시 조정하였다(**경정 전시과**). 이때에는 무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사라졌으며 이전 전시과에 비해 군인에 대한 대우도 나아졌다.



경정 전시과의 등급별 지급 액수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는 전시과 이외에 **공음전**을 지급받아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 공음전은 음서제와 더불어 귀족의 특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외에도 한인전, 군인전, 구분전, 내장전 등이 지급되었다. 한인전은 관인 신분을 세습하기 위해 6품 이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다. 군역의 대가로 지급된 군인전은 군역과 함께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구분전은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고자 지급된 토지였다.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었으며,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사원전이라 하여 사원에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국가에서 나누어 준 전시과 토지 외에 농민이나 귀족 등이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조상 대대로 경작해 오던 것을 **민전**이라 불렀다. 민전은 매매, 상속, 증여, 양도가 가능하였으며, 소유자는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였다. 민전은 전체 토지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소규모의 민전을 소유한 대부분의 농민은 주로 자신과 가족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작하였으나,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소작인인 전호를 이용하여 민전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귀족들은 점차 토지를 독점하고 이를 세습하면서 농장을 확대해 갔다. 국가가 다시 분배해야 할 토지가 세습되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가 계속 감소하자, 전시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귀족들의 불법적 대토지 집적 현상은 무신 집권기와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한층 가속화하였다. 전시과 제도가 붕괴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고려는 신진 관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녹과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경남 양산)
1085년 호부의 승인 아래 세워졌다. 장생표가 세워진 영역 내의 농민과 토지는 사원이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탐구 활동 토지 제도의 변화

자료 1 (　　　　　)

태조 23년 처음으로 (　　　) 제도를 설정하였는데 삼한을 통합할 때 조정 관료들과 군사들에게 관계의 높고 낮음은 논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착하고 악함이나 공로가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　　　)을/를 차등을 두어 주었다. – "고려사"

자료 2 개정 전시과

목종 원년(998) …… 12월에 문무 양반과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 전 100결, 시 70결, 내사령, 시중, 제2과 전 95결, 시 65결 내사 문하시랑 평장사, 치사시중 ……제18과 전 20결 …… 여기에 들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전 17결을 주기로 하였고 이것을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법식으로 제정하였다. – "고려사"

1. 자료 1의 (　　) 안에 들어갈 제도명을 적어 보자.
2. 자료 1에서 토지를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밑줄을 그어 보자.
3. 자료 2를 참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기준이 이후 어떻게 변하였는지 설명해 보자.

조세, 공납, 부역을 거두다

조세, 공납, 부역은 고려 시대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다.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공유지의 경작자에게는 생산량의 4분의 1을 거두었다.



고려의 조운로
조세로 징수한 세곡 등은 수로를 이용하여 개경으로 운반하였다. 고려는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하면서 전국에 13개의 조창을 두었다. 조창의 감독관인 판관은 가까운 고을에서 거두어들인 세곡을 보관하였다가 보내는 일을 담당하였다.

공물은 베, 모피, 종이, 과일 등 각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도록 한 것이었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미리 정하여 군현에게 부과하면 각 군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공물을 부과하여 거두어들였다. 공물에는 매년 거두어들이는 상공과 왕실이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

역은 국가에서 백성의 노동력을 수취한 것으로서, 16~59세의 남자(정남)에게 부과하였다. 역은 요역과 군역으로 나뉘었는데, 백성은 도시의 건설이나 궁궐·사찰·성곽·관아·제방 축조·도로 보수 등의 토목 공사 및 조세의 수송 등에 동원되었다. 이 외에도 어민에게 어염세·선세를 거두거나, 상인에게 상세 등을 거두었다.

세금을 거두는 일은 수령의 책임이었으며 향리들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때 각 군현마다 토지와 인구의 규모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권세가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힘없는 백성이 더 많이 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와 공물 등은 배에 실어 수도인 개경으로 운반하였는데, 이를 **조운**이라 한다.



농민의 조세 부담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를 올리기를 "고려 태조가 즉위한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를 맞이하면서 '최근 백성에 대한 수탈이 가혹해져서 1결의 조세가 6석에 이르러 백성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 나는 이를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지금부터 마땅히 10분의 1세로 하여 밭 1부의 조를 3되로 하여라.' 라고 한탄하여 말하였는데 ……. "라고 하였다.

– "고려사"

조세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납부하는 것이었다. 지주 중에는 농민도 있었지만 귀족, 향리를 비롯한 지배층이 대부분이었다.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들은 국가나 왕실 소유지, 또는 귀족의 사유지를 빌려 경작하였다.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사람을 전호라 하였는데, 전호는 토지를 빌린 대가로 주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쳤다. 소작료의 액수는 땅 소유주가 국가이면 생산량의 4분의 1, 개인이면 생산량의 2분의 1이었다.

지주가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기준액은 수확량의 10분의 1정도였으며 자연재해로 수확이 줄면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국가 재정을 운영하다

고려 시대 재정 운영을 담당한 중앙 정치 기구는 **호부**와 **삼사**였다. 호부는 인구와 토지를 파악하여 호적과 양안을 만들고 관리하였다. 삼사는 곡식의 출납과 회계 관련 사무를 관장하였으며, 호부는 파악한 세원을 바탕으로 조세를 거두고 지출하는 재정 운영을 계획·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세 수취와 집행은 각 관청에서 담당하였다.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쌀이나 베를 저장하고 지급하는 일은 '창'이라고 불린 관청에서 나누어 담당하였다. 좌창은 관리의 녹봉을, 우창은 일반 비용을, 용문창은 군량을, 상평창은 물가 조절을, 의창은 빈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창들은 독립적인 관청인 동시에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역할도 하였다.

정부의 재정은 관리의 녹봉과 일반 비용, 국방비, 그리고 왕실 경비 등에 지출되었다. 녹봉은 현직 문무 관리, 왕비, 종실, 퇴직 관원과 공장 등에게 지급되었다. 일반 비용은 왕실의 공적 경비와 각종 제사 및 연등회나 팔관회에 드는 비용, 건물의 건축이나 수리비, 왕의 하사품, 군선이나 무기 제조 등에 사용되었다. 고려는 거란, 여진, 그리고 몽골과 지속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거나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국방비에 많은 재정이 지출되었다.



사뇌사 터에서 나온 청동 기름말 (충북 청주)
고려 시대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그릇이다. 몸통 옆면에는 청주목에서 기름말을 공인한 사실과 당시 청주목 관리들의 관직이 새겨져 있다. 고려 정부에서 도량형을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 준다. 전체 용량은 5l이다.

각 관청은 제 나름대로 독립적인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창에서 지급하였지만 각 관청에서 필요한 경비는 공해전을 재원으로 삼아 스스로 조달하였다.

왕실의 재정은 내장택·내고 등의 관청에서 관리하였다. 내장택은 왕실의 소유지를 관리하였으며, 내고는 금은, 베·비단, 보물과 전국 각지의 소에서 거둔 공물, 주현에서 거둔 상공 일부, 중국에서 들어온 하사품 등을 관리하였다.

역사 더하기 + 국가 재정으로 이익을 추구한 충혜왕

충혜왕은 충숙왕의 맏아들이었으며 공민왕의 형이었다. 그는 세자 시절을 원에서 보내며 동서 무역의 번영과 상업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고려의 왕이 된 후 의성고를 비롯한 세 곳의 나라 창고에서 포 4만 8천 필을 꺼내 시장에 점포를 차렸다. 왕이 국가 재정을 이용하여 장사에 나선 것이다. 또한 회회인에게 포를 주어 이자를 받는 이자 놀이도 하였다.

충혜왕은 국제 무역에도 관심이 높아 2만 필에 이르는 포, 금, 은 등을 가지고 원에 가서 무역을 하게 하였으며, 상인에게 장군의 직책을 주기도 하였다. 또 국내에서 종래의 은병 사용을 금하고 작은 은병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이 만든 은병의 가격을 비싸게 한 뒤 이를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한 조치였다.

2 고려의 경제 활동

고려 불화인 '미륵하생경변상도'에 보이는 농민의 모습이다. 고려 시대 농민들은 민전을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 고려 시대 농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산력을 향상시켰을까?



미륵하생경변상도(일본 신노인)

귀족, 토지를 겸병하다

귀족들은 조상 대대로 상속받은 토지와 관료가 되어 국가로부터 받은 과전, 녹봉 등을 경제 기반으로 삼았다. 귀족들은 토지를 노비에게 경작시키거나 소작을 주어 수확량의 반을 거두었다. 또 외거 노비에게 신공으로 매년 베와 곡식을 받았다.



불공을 드리는 고려 귀족의 모습
(수월관음도의 일부, 일본 교토)

과전은 관료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유족의 생계유지를 명목으로 일부 세습할 수 있었다. 귀족은 이 과전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받아 생활하였다. 공신전이나 공음전 역시 세습이 가능하였다. 현직에 근무하는 관리들은 주로 쌀, 보리 등의 곡식으로 녹봉을 받았으며 때로는 베나 비단으로 받기도 하였다. 관리들은 1년에 두 번 녹패라는 문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녹봉을 받았다.

이 밖에 귀족들은 권력이나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빼앗거나 헐값에 사들이고 개간에도 참여하여 토지를 늘려 갔다. 이렇게 늘어난 토지를 농장이라 한다.

귀족들은 각종 수입을 기반으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큰 누각을 짓거나 별장을 소유하기도 하였으며 외출할 때에는 시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다녔다. 또한 중국에서 들어온 차를 즐겼고 중국에서 들어온 비단으로 화려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고려 귀족의 생활

김돈중 등이 절의 북쪽 산은 민둥하여 초목이 없으므로 그 인근의 백성을 모아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전나무와 기이한 꽃과 이채로운 풀을 심고 단을 쌓아 임금의 방을 꾸몄는데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하고 대의 섬돌은 괴석을 사용하였다. 하루는 왕이 이곳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휘장, 장막과 그릇이 사치스럽고 음식이 진기하여 왕이 재상, 근신들과 더불어 매우 흡족하게 즐겼다. – "고려사"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다. 그는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일로 정중부의 원한을 샀으며 무신 정변이 일어났을 때 살해되었다.

농민, 생산력 향상을 위해 애쓰다

고려 시대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농민은 대개 일반 군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농민은 본인이 소유한 민전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경작하였다. 또한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소득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국가에서는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면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진전을 개간한 경우에는 주인이 없으면 개간한 사람의 토지로 인정해 주었다. 12세기에 들어 지방관에게 권농의 독려가 강화되면서 경작지를 확대하고자 연해안의 저습지나 간척지도 개간되었다.

농업 기술도 발달하였다. 보, 제언, 수로 등의 수리 시설이 확충되고, 호미, 보습 등의 농기구와 종자가 개량되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고 가축의 뒷거름과 인분을 사용하는 시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감소하고 계속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늘어 갔다.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확산되었으며, 논농사에서는 고려 말에 남부 지방 일부에 **모내기**가 보급되었다. 고려 후기에 이암은 원의 농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였고,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목화 재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자영 농민의 생활과 지위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이 권력이나 고리대를 이용하여 농민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만들고 지나치게 조세를 수탈하면서 몰락하는 농민이 늘어났다. 몰락한 농민들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 더하기+

문학을 통해 본 농민의 고단한 삶

내 촌집에 들러 늙은 농부에게 물으니 / 늙은 농부 나를 보고 자세히 얘기한다.
요사이 세력 있는 사람들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 산이며 내로써 한계 지어 공문서 만들었소.
혹은 토지에 주인이 많아서 / 조세를 받은 뒤 또 받아 가기 쉴 새 없소.
혹은 홍수와 가뭄을 당하여 흉작일 때에는 / 해묵은 타작마당엔 풀만 엉성하다.
살을 긁고 뼈를 쳐도 아무것도 없으니 / 국가의 조세는 어떻게 낼꼬.
몇천 명 장정은 흩어져 나가고 / 늙은이와 약한 사람만 남아서 거꾸로 달린 종처럼 빈집을 지키누나.
차마 몸을 시궁창에 박고 죽을 수 없어 / 마을을 비우고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는다.
– 윤여형의 상률가, "동문선"

고려 후기 윤여형이 당시 농민 생활의 참상을 표현한 시로 권세가들의 수탈로 젊은이들이 흩어지고 노약자들만 남은 농촌에서 연명하기 위해 도토리를 줍는 이야기를 노래하였다.



고려의 주요 교통로와 산업 중심지

도시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다

고려 시대에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태조 때 수도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게 하였으며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개경, 서경, 동경 등 대도시에는 서적점, 약점, 주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두기도 하였다.

지방에서는 관아 근처에 장시가 열려 사람들이 쌀, 베 등 일용품을 서로 바꾸었다. 행상들은 장시에서 물품을 팔거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상업 활동을 하였다. 지방에서 행상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조운로는 상선의 상업로로 이용되었다. 그리하여 여관으로 만들어진 원이 상업 활동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사원에서도 직접 생산한 곡물이나 수공업품을 민간에 팔았다.

고려 후기에는 상업이 더욱 발달하여 개경의 시전 규모도 커지고 업종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개경을 연결하는 예성강 입구의 벽란도는 조세와 공물이 통과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건원중보(한국은행 화폐 박물관)

활구(소은병)(한국은행 화폐 박물관)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쌀이나 저포가 교환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으며 철전과 은병도 화폐의 역할을 하였다. 성종 때에는 처음으로 철전인 **건원중보**를 만들었고 숙종 때에는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의 동전과 활구라는 은병을 만들어 유통하려 하였다. 원 간섭기에는 원의 지폐인 보초가 유통되었다. 그러나 자급자족적 경제 활동을 하던 농민들은 화폐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고 귀족들 역시 화폐 사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 거래에서는 곡식이나 삼베가 사용되었다.

역사 더하기+ 해동통보의 탄생, 의천의 화폐론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승려가 된 의천은 송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상업이 발전한 송에서 돈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았다. 의천은 귀국한 후 '화폐론'을 지어 숙종에게 바쳤다. 여기에서 그는 베와 쌀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백성의 이로움과 국가의 복을 얻으려면 동전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숙종은 해동통보를 만들어 1만 5000관을 관리와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주점을 개설하여 동전을 유통하고자 노력하였다. 숙종의 적극적인 동전 유통 정책은 물품 화폐에 의존하던 문벌 귀족 세력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당시 상업 발달의 성과를 국가 재정으로 수렴하려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해동통보(한국은행 화폐 박물관)
1102년 숙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동전

벽란도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다

통일 신라 말부터 서해안의 호족들을 중심으로 사무역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가의 통제 속에 공무역 중심으로 무역이 성행하였다. 대외 교류에 개방적이었던 고려는 송, 거란, 여진 등과 교류하였으며, 상업이 안정되면서 무역이 더욱 활발해져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는 **송**이었다. 고려는 왕실이나 귀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품을 수출하였다. 품질이 우수한 고려의 종이와 먹은 송의 문인들에게 인기가 있어 비싼 값으로 수출되었다.

고려와 송은 예성강에서 대동강 입구를 거쳐 산둥 지역에 이르는 항로와 예성강에서 흑산도를 거쳐 명주에 이르는 항로를 자주 이용하였다.



고려 전기의 대외 무역

거란과 여진은 고려에 은이나 모피·말 등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으로 바꾸어 갔다. 거란과는 조공을 통한 사행 무역 외에 국경 지대의 시장인 각장에서 양국 상인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일본과는 정식 국교가 없었으나 주로 민간 상인들이 내항하여 무역 활동을 하였다. 한편 대식국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송을 거쳐 고려에 들어와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해 고려는 **'코리아'** 라는 이름으로 서방에 알려졌다.

각장
송 태조 이후 한족(漢族)과 북방 민족 사이에 개설된 공식 무역장을 가리킨다. 고려 시대에는 거란, 여진족 등 북방 민족과의 교역을 위해 설치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몽골과의 전쟁 여파로 국제 교역이 위축되고 남송과의 무역도 다소 침체하였다. 반면 원과는 육로와 해로를 이용한 무역이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원 간섭기에는 조공을 통한 공적 무역 외에도 민간 상인의 사무역이 성행하였다.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벽란도

조수는 밀렸다가 다시 밀려가고
오고 가는 뱃머리는 서로 잇대었구나.
아침에 이 누각 밑을 떠나면
한낮이 안 되어 남만 하늘에 이른다.
사람들은 배를 물 위의 역마라고 하는데
바람처럼 달리는 준마도 이것만 못하네.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서해안의 항구 중 비교적 물이 깊어 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또한 고려의 수도인 개경과 가까워 무역을 하기에 유리하였다.

수공업의 모습이 달라지다

공장안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 생산에 동원할 수 있는 기술자를 조사하여 기록한 장부

고려의 수공업에는 관청 수공업, **소(所, 특수 행정 구역) 수공업**, 사원 수공업, 민간 수공업 등이 있었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소속된 기술자들은 무기류, 가구류, 금은 세공품, 마구류 등의 관수품을 생산하였다. 기술자들은 공장안에 등록되어 국역을 담당하였으며, 일반 농민들은 부역으로 동원되어 생산을 보조하였다.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는 금, 은, 철, 구리, 실, 각종 옷감, 종이, 먹, 차, 생강 등을 생산하여 상공과 별공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였다. 사원에서는 기술을 가진 승려와 노비들이 베, 모시, 기와, 술, 소금 등을 생산하였다.

민간 수공업은 농촌의 가내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졌다. 국가에서는 삼베를 짜게 하거나 뽕나무를 심어 비단을 생산하도록 장려하였다. 농민들은 삼베, 모시, 명주 등을 생산하여 직접 사용하고 판매하거나 공물로 납부하였다.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 수공업이 중심이었으나 후기에 들어 점차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진전(황폐해진 경작지)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는 사전(개인 소유지)의 경우 첫 해에는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 경작지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 나눈다. 공전(국가 소유지)의 경우 첫 해에는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4년째부터는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

(나) …… 여러 소에서 별공을 바치는 물건들을 함부로 징수해 장인들이 살기가 어려워 도망하고 있다. 해당 관청에서는 소에서 바치는 별공과 상공 물품을 적정하게 정하여 왕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도록 하라.

(다) 고려 제도는 백성이 나이 16세가 되면 장정이 되어 국역을 부담시킨다. 60세가 되면 늙은이가 되어 역을 면제받는다. 주군에서는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정리하고 호부에 올려 보냈다. 군대를 소집하거나 부역에 동원할 때에는 호적을 근거로 뽑았다. – "고려사"

1. 다음 용어의 뜻을 써 보자.

(1) 조(조세):

(2) 공부(상공과 별공):

(3) 역역(국역):

2. 위 용어를 사용하여 고려 왕조의 재정적 기반을 서술해 보자.

조건 경제 구조와 수취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서술할 것

심화 주제

황해에서 고려청자를 찾다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어부의 그물에 청자가 걸려 올라왔다. 이 사건은 바닷속 유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완도와 보령의 죽도, 무안의 도리포, 군산 앞바다 비안도, 태안 앞바다 등지에서도 바닷속 유물이 발굴·인양되었다. 황해에서는 조수 간만의 차이나 풍랑 등으로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청자를 실었던 배들도 이러한 운명을 맞아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려의 유물들(좌)과 원의 유물들(우)

신안 해저 발굴로 14세기 초반에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 무역선이 발굴되었다. 이 배에서는 많은 동전과 함께 2만 점이 넘는 도자기가 발견되어 당시 국제 교역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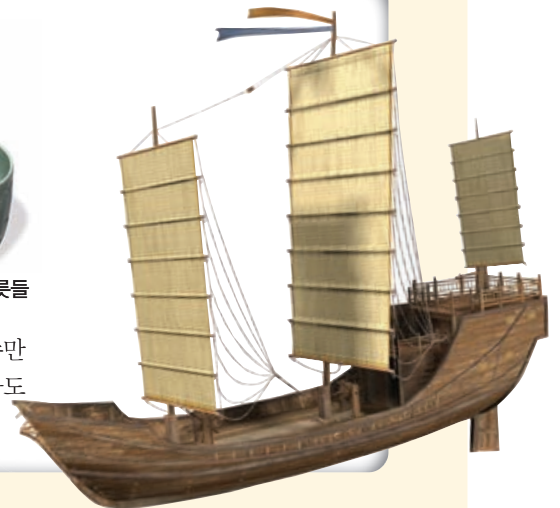


완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려의 그릇들



비안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려의 그릇들

완도 앞바다에서는 11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고려의 배와 도자기 수만 점이 발굴되었다. 2002년에는 군산 비안도 앞바다에서, 2003년에는 십이동파도 주변 등지에서 많은 고려청자가 발견되었다.



신안선 복원 모형
목포 국립 해양 유물 전시관은 발굴된 배를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활동 **황해에서 고려 시대의 배가 많이 발굴된 까닭을 발표해 보자.**

03 고려의 사회 제도

이 단원에서는 >> 1. 고려의 신분 구조와 각 계층의 사회 경제적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2. 가족 및 혼인 제도, 풍속,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고려 사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1 고려의 신분 제도

우리 고향(명학소)을 현으로 올려 주고, 수령까지 보내 백성을 위로하더니, 곧 군사를 보내 우리 고을을 치고 어머니와 아내를 잡아 가두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차라리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개경까지 가고야 말겠다.

– 홍경원에서 망이·망소이가 주지에게 쓰도록 한 편지

● 망이·망소이 형제가 봉기한 까닭은 무엇일까?



천안 봉선 홍경사 갈기비(충남 천안)

고려, 네 신분으로 나뉘다

고려의 신분 제도는 **신라 골품제보다 개방적인 성격**을 띠었다. 신분과 두품에 따라 출세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골품제와는 달리 고려의 신분 제도는 노비 등 천민을 제외한 모든 주민을 양인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고려 사회는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지만 출세의 기회에 차등이 있어 사회 내부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였다. 대체로 고려의 신분 구성은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으로 나뉘어졌다.

출세의 기회가 가장 큰 신분은 귀족이었다. 귀족은 최고 신분으로서 여러 특권을 누리며 고려 사회를 이끌어 갔다. 중류층은 중앙 관청이나 지방에서 행정 실무를 맡아 보았다.

양민은 일반 군현에 거주하는 농민·상인·수공업자와 향·부곡·소 및 진·역의 주민들로 이루어졌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으로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고려에서는 신분이 세습되었지만 신분 이동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았다.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였고, 군인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출세하기도 하였다. 노비 역시 재산을 모아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신분	구성
귀족	왕족, 문무 고위 관료
중류층	하급 관리, 서리, 향리, 남반, 하급 장교
양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 향·소·부곡민
천민	공·사 노비, 화척, 진척, 재인

고려의 신분

귀족, 고려 사회를 이끌다

고려의 건국을 주도한 지방 호족과 6두품 세력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음서제와 과거를 통하여 고위 관직을 차지하였으며 국가로부터 과전과 녹봉을 지급받았다.

귀족 가운데 대대로 고위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은 문벌 귀족을 형성하였다. 문벌 귀족은 왕실이나 유력한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하여 전시과로 받은 토지를 자신의 소유지로 만들거나 고리대 등으로 백성의 땅을 빼앗아 재산을 늘리기도 하였다.

지방 향리의 자제들도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에 나아가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있었다. 반대로 중앙 귀족이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의 귀족들은 개경에 거주하였는데, 만약 죄를 지으면 귀향시키는 형벌에 처하기도 하였다.



아집도 대련 중 일부(삼성 미술관 리움)
고려 시대 문인 관료들이 이상으로 삼은 생활상을 표현하였다. 귀족들이 정원에 모여서 시를 짓거나 그림을 감상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4세기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무신 정변이 일어난 후에는 문벌 귀족 세력이 몰락하고 무신들이 새롭게 권력을 잡았다. 그 후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였다.

권문세족은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고 음서제로 신분을 세습하였다. 이들은 강과 하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 규모가 큰 농장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며 몰락한 농민을 자신의 농장으로 끌어들여 노비처럼 부리기도 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과거 시험을 거쳐 관직에 진출한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전시과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과전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농장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폐단을 지적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권문세족과 대립하면서 고려 후기의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주장하였다.

역사 더하기+ 좌주와 문생, 고려 귀족 사회를 형성하다

고려 시대 과거제 운영의 특징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하는 지공거와 동지공거를 두는 고시관 제도가 있었던 점이다. 고시관은 '좌주', 혹은 '학사'라 불렸으며, 고시관의 주관으로 시행된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을 '문생'이라고 불렀다.

문생은 좌주를 은문이라 부르며 평생 스승으로 삼아 공경하였으며, 좌주는 문생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을 사위로 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좌주와 문생은 정치·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최유선
최충의 아들로 학문이 깊었으며 여러 차례 지공거가 되었다.

향리층,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다

고려의 지배층인 귀족과 피지배층인 양민 사이에는 중류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중류층에는 중앙 관청의 말단 관리인 서리, 궁중 실무 관리인 남반,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한 향리, 하급 장교인 군반, 각지의 역을 관리하는 역리 등이 있었다.

이들은 후삼국의 혼란을 거치고 고려가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아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으로 자리 잡아 갔다. 이들은 대개 직역을 세습하였으며, 그에 따른 대가로 국가가 주는 토지를 받았다.

중류층 가운데 향리는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지방에 남은 호족 출신이었다. 향리는 조세를 거두어들이고 간단한 소송을 처리하였으며, 지역민을 동원하는 공사 등을 담당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기 때문에 향리의 역할이 컸다.

향리층 내부에도 신분적 차이가 있었다. 지방 호족 출신의 향리들은 **호장층**이 되어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지만, 하위 향리들은 점차 지방관을 도와주는 역할에 머물러 사회적 지위가 낮아졌다.



부호장의 이름이 새겨진 기와(대전 유성)
향리의 우두머리인 호장층은 지방 행정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중앙 관직에 진출하는 데 제약이 없었다.

백정, 양민의 다수를 점하다

양민은 일반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향·부곡·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농민들이었으며 향리나 군인처럼 국가에 대하여 특별한 직역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백정**이라 불리었다.

백정은 자신의 소유지인 민전을 경작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땅이 없을 경우 남의 땅을 빌린 후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국가에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고려 시대 백정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인 제술과를 보기는 어려웠다. 이들이 과거를 통해 신분을 상승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 군인이 되어 공을 세우는 것이 출세의 한 방법이었다.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 거주민**은 신분상으로는 양민에 속하였지만 일반 양민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으며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과거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었다.

일반 군현민들도 반란을 일으키면 집단적으로 처벌을 받아 군현이 부곡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향과 부곡의 거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소의 주민들은 수공업과 광업 등에 종사하였다. 이 외에도 역의 주민은 육로 교통에, 진의 주민은 수상 교통에 종사하였다.

쇠솥(국립 청주 박물관)
"고려도경"에 "쇠로 만든 솥으로 위에 뚜껑이 있고 바닥에 세 개의 다리가 있는 것을 죽부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죽부는 죽을 끓이는 솥을 말한다.



노비, 재산으로 간주되다

고려 시대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었다.

공노비는 공공 기관에 속하는 노비로 입역 노비와 외거 노비가 있었다. 입역 노비는 궁중과 중앙 관청, 지방 관아에서 잡역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였다. 외거 노비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농사를 지어 얻은 수입 중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하였다.

사노비는 개인이나 사원에 딸린 노비로,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구분되었다. 솔거 노비는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로, 상전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인을 위하여 농사를 비롯한 온갖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였다.



송광사 노비 문서(전남 순천)
아버지에게 받은 남자 노비를 수선사(송광사)에 바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거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일정량의 신공을 주인에게 바쳤다. 이들은 솔거 노비보다 자유로웠으며 자기 재산과 독립가옥을 가질 수 있었다. 외거 노비는 주인에게 예속된 신분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반 농민과 비슷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신분의 한계를 딛고 지위를 높인 사람이나 재산을 늘린 사람도 있었다.

노비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관리되었으며 매매, 증여, 상속이 되는 비자유민이었다. 노비들은 노비들끼리 통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이면 그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이 밖에 천민으로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버들고리를 만들어 파는 양수척, 짐승을 잡는 화척, 광대놀음으로 살아가는 재인, 술을 파는 기생이 있었다. 이들의 대다수는 거란족이나 여진족 출신으로 고려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국가에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았으며 호적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고려 노비의 신분 상승

- 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로, 견주(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그는 권세가 있는 요직의 인물에게 뇌물을 바쳐 천인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고 산원동정의 벼슬을 얻었다. – "고려사"
- 고종 45년 2월에 최의가 집안 노비인 이공주를 낭장으로 삼았다. 옛 법제에 노비는 비록 대공이 있다 하더라도 돈과 비단으로 상을 주었을 뿐 관작을 제수하지는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항이 집정해서는 인심을 얻고자 처음으로 집안 노비인 이공주와 최양백·김인준을 별장으로 삼고, 섭장수는 교위로 삼았다. – "고려사"

노비 출신으로 부자가 된 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비 신분을 벗어난 평량의 이야기와 무신 집권기 노비 출신으로 출세하여 관직을 받은 경우를 통해 고려 사회가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개방적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농민과 천민들, 들고일어나다

무신 집권기에 백성은 이전보다 더욱 가혹한 수탈에 시달렸다. 무신 권력자들은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하였고, 지방 수령으로 파견된 무신들은 지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었다. 한편 이 시기에 노비 등 미천한 신분 출신에서 벼락출세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하극상의 풍조가 형성되고 신분 질서가 해이해졌다. 이처럼 가혹한 수탈에 따른 현실의 어려움과 신분 상승에 대한 희망으로 전국 각 지역의 하층민들이 무기를 들고일어났다.

가장 먼저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난 곳은 평안도 지방이었다. 이 지역 농민들은 서경 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이에 가세하였다. 조위총이 패한 이후에도 계속 항쟁하여 고려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는 데 2년여가 걸렸으며 이후에도 작은 봉기가 계속 이어졌다.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망소이 형제**가 봉기하여 충청도 일대를 점령할 정도로 세력을 떨쳤다. 경상도 운문에서는 김사미가, 초전에서는 효심이 일어나 경주 지역 세력과 연합하여 경상도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농민 봉기 세력은 유랑민과 합세하여 적극적으로 주변 지역을 습격하였다. 또한 신라나 백제의 부흥을 외치면서 고려 왕조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무신 집권기 농민과 천민의 봉기

전주 관노를 비롯한 천민들의 봉기도 잇따랐다. 천민은 주로 신분 해방을 목적으로 봉기하였다.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농민에 대한 회유와 탄압을 병행하여 농민 봉기는 약화되었으나, 그 대신 노비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최충헌의 사노비였던 **만적**은 개경의 노비들을 모아 무신 정변 이후 천한 사람들도 높은 벼슬에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봉기를 모의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만적의 난

경계(무신 정변) 이후 공경대부는 천예 속에서 많이 나왔다. 장상의 종자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상전의 채찍 밑에서 힘겨운 일에 시달리기만 하겠는가. …… 모두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예들의 호적을 불살라서 삼한에 천인이 없게 하면 공경과 장상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 "고려사"

만적은 개경 송악산에 노비들을 모아 놓고 노비 해방을 주장하여 봉기를 선동하였다. 그러나 봉기를 약속한 날 모인 사람이 적어 봉기를 연기하였고, 결국 거사 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때 체포된 100여 명의 노비는 예성강에 던져져 죽고 말았다.


흥국사 탑(개성)
만적이 노비를 모아 봉기할 것을 약속한 흥국사에 있는 탑이다.

2 고려의 사회 모습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나익희에게는 따로 노비 40구를 남겨 주었다. 나익희는 "제가 6남매 가운데 외아들이라 해서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과 화목하게 살게 하려 한 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더럽히겠습니까?"라고 하며 이를 사양하였다. 이에 어머니는 모든 자식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 "고려사"

● 고려 시대 여성의 사회생활은 어떠했을까?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에 나타난 고려 시대 여성의 모습(경남 거창)

농민들, 향도를 조직하다

고려에서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번기에는 잡역을 면제해 주었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 정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곡식을 빌린 농민이 이를 갚지 못해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빌린 곡식만큼 이자가 많아지면 이자를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태조는 흑창을 설치하여 백성을 구제하였는데 이것을 확충하여 개편한 것이 의창이었다. **의창**은 평상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이 되면 빈민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아울러 개경과 서경, 12목에 물가 조절을 담당하는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 등의 임시 기관을 설치하여 백성을 구호하는 데 힘썼고, 기금을 마련한 뒤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진료하기 위하여 개경에 동·서 대비원과 혜민국을 설치하고, 각 지방에는 약점을 운영하였다.

농민들은 향도를 조직하여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향도는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직된 단체로 **매향 활동**을 하였다. 향도는 향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사원 건축, 탑과 불상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향도는 점차 상장례 때 서로 돕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주관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역사 더하기+ 백성의 마음을 담은 매향 활동

매향은 미륵 신앙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향나무를 갯벌에 묻는 의식이다. 사천 매향비의 비문에는 '4,100명이 모임을 결성하여 내세의 행운을 기원하며, 나라의 태평함과 백성이 편안하기를 미륵불에게 비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비석은 좋은 향냄새를 맡은 미륵불이 미래가 아닌 현세에 내려와 백성을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은 것으로 보인다.


사천 흥사리 매향비(경남 사천)

남녀가 균등하게 상속하다

고려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는 단혼적인 부부와 미혼 자녀들로 이루어진 부부 가족이었다. 이러한 소가족을 바탕으로 부부가 노부모나 생활 능력이 없는 가까운 미성년 친척을 부양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혼인 제도는 솔서혼·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사위가 처가에서 처의 노부모를 봉양하며 살거나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며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지배층이나 하층민에게나 모두 나타났다. 대체로 여자는 18세, 남자는 20세 전후에 혼인하였으며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과부의 재혼은 금기시되지 않았다.

솔서혼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처가 가장의 권위에 복종하며 생활하는 혼인 형태이다. 데릴사위제라고도 한다.

남귀여가혼
남자가 신부가 될 여자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른 뒤 그대로 처가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오는 혼인 형태이다.

결혼은 같은 계층 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호장이나 부호장층은 지방에서 상층의 향리끼리 혼인하였고,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한 문벌 귀족들 역시 왕실을 포함하여 같은 계층 내에서 혼인하였다.

고려 시대의 친족 관계에서 **남녀의 지위는 대등**하였다. 이는 군주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남녀 차별 없이 골고루 분배되었다. 호적도 아들딸을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하였다. 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제사를 받들었고 상·제례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부담하였다. 상복 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염경애 묘지석(국립 중앙 박물관)
염경애의 남편이 직접 묘지명을 지었으며, 아내의 효심과 내조에 고마워하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탐구 활동 고려 여성의 지위와 결혼 제도

박유가 글을 올려 말하기를 "…… 우리나라는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은데 지금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처를 하나 두는 데 그치고 있으며 아들이 없는 자들까지도 감히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청컨대 여러 신하, 관료들로 하여금 여러 처를 두게 하되 품위에 따라 그 수를 점차 줄이도록 하여 보통 사람에 이르러서는 1인 1첩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여러 처에서 낳은 아들들도 역시 본처가 낳은 아들처럼 벼슬을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 때마침 연등회 저녁 박유가 왕의 행차를 호위하여 따라갔는데 어떤 노파가 그를 손가락질 하면서 "첩을 두자고 요청한 자가 저 놈의 늙은이이다."라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서로 전하여 서로 가리키니 거리마다 여자들이 무더기로 손가락질하였다. 당시 재상들 가운데 그 부인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정지하고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 "고려사"


벽화에 그려진 여성의 모습(경남 밀양)
고려 말 문신 박익(1332~1398)의 묘 벽화의 일부분이다. 당시 여성들의 의복과 장신구 등이 잘 나타나 있다.

1. 자료에 나타난 고려 사회의 일반적인 혼인 형태를 말해 보자.
2.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 사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설명해 보자.

불교와 토속 신앙에 따라 제사 지내다

고려 왕조는 성종 때 중국식 제도를 대거 도입하여 유교식 장례와 제사 의식을 보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교식 규범은 부계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고려 실정에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려 말 이후에 와서야 일부 성리학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추진되었다.

고려의 장례와 제사 의식은 불교와 토속 신앙에 따라 시행되었다. 장례 풍습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화장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행하여졌다.

매장 또한 널리 이용되었는데 움무덤이나 돌덧널무덤에 목관을 사용하였다. 이때 풍수지리설이 묘지의 위치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조상의 묘를 길지에 쓰면 복이 생기고 흉지에 쓰면 재앙이 생긴다고 믿어 장례 후에 이장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반 농민들은 관이 없이 구덩이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시신을 그대로 땅에 두고 그 위에 풀을 덮어 인적이 없는 산야에 방치해 두는 풍장을 하기도 하였다.

상례는 사원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 죽으면 사원에 빈소를 마련하고 가까운 곳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사원에 봉안하였다. 이러한 장례 과정에서 사원은 개인과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사원이 제사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석관(국립 중앙 박물관)
고려 관료들은 화장을 많이 하였다. 화장한 후 남은 유골은 석관에 넣었는데, 석관의 사면에는 사신(四神)을 새겨 넣었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전정과 호구가 현을 이룰 규모가 아니면 향이나 부곡을 설치하여 소재 읍에 속하게 했다. 고려 때 '소'는 은소·동소·철소·사소(실)·주소(비단)·지소(종이)·와소(기와)·탄소(숯)·묵소·곽소(콩)·자기소·어량소(물고기)·강소(생강) 등 공납하는 물품에 따라 구별하였다. – "신증동국여지승람"

1. 다음은 고려의 지방 행정 구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구역의 기원과 역할을 써 보자.

(1) 향·부곡:

(2) 소:

2. 고려 사회의 신분 구성을 네 개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서술해 보자.

조건 향·부곡·소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을 포함할 것

일상 다반사

고려 여성의 삶



남성 부럽지 않은 고려 여성

고려 시대 기록에는 고려의 여성이 남성 못지않은 지위를 누린 모습이 나타나 있다. 상속, 결혼과 이혼 등을 보여 주는 사료에서 고려 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자.

조반 부인 초상화(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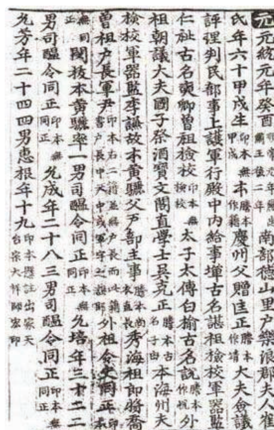
결혼 제도로 본 여성

의붓아버지가 가난을 이유로 공부시키지 않고 …… (이승장의)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며 고집하기를, "…… 내가 전 남편과의 의리를 저버렸지만, (남편의) 유복자가 다행히 잘 자라 학문에 뜻을 둘 나이가 되었으니, 그 친아버지가 다니던 사학에 입학시켜 뒤를 잇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죽은 뒤에 내가 무슨 낯으로 전 남편을 보겠어요?"라고 하였다. 마침내 (이승장을) 솔성재(率性齋)에서 공부하게 하니, 전 남편의 옛 학업을 뒤따르게 한 것이다. – 이승장 묘지명, "역주고려묘지명집성"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친아버지가 다니던 사학에 입학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고려 시대 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재혼을 하였고 재가한 여성과 그 자녀 역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았다.

상속 제도로 본 여성

어떤 남매가 서로 송사를 했는데 남동생은 "둘 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부모 유산을 누이가 독차지하고 동생인 나는 나누어 주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 전부를 나에게 주었으며 너에게 준 것은 옷 한 벌, 갓 하나, 미투리 한 켤레, 종이 한 권뿐이다. 증거 서류가 있으니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 반박했다. …… 부임해 간 손변이 둘을 불러다가 앞에 세웠다. …… "그 때 너희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이었느냐?" "누이는 먼저 결혼을 했고, 동생은 미성년이었습니다." 손변이 남매에게 타일렀다.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해서 출가한 딸에게만 후하고 어미도 없는 미성년 아이에게는 박하게 했겠는가? 생각해 보니 너희 아버지는 아들이 의지할 곳은 누이밖에 없는데 재산을 나누어 준다면 혹시 누이의 사랑과 양육이 부족할까 염려했던 것 같다. 아이가 장성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 종이에 소를 쓰고, 검정 옷과 검정 갓, 미투리를 착용한 채 관에 고소하면 이를 잘 분관해 줄 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 네 가지 물건만을 남겨 주었을 것이다." 누이와 동생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아 서로 붙들고 울었다. 손변이 재산을 남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 "고려사"



元統元年癸酉 南部德山里戶樂浪郡夫人崔
氏年六十甲戌生 本 慶州父贈匡正 大夫僉議
評理判民部事上護軍行殿中內給事壇古名諶祖檢校軍器監
仁祉古名奕卿曾祖檢校 太子太傅白揄古名訦 外
祖朝議大夫國子祭酒寶文閣直學士吳克正 本海州夫
檢校軍器監李謙故本黃驪父戶部主事 秀海祖卯翁喬
曾祖戶長軍尹 外祖僉史同正
閔拔本黃驪率一男司醞令同正 允培年三十二
男司醞令同正 允成年二十八三男司醞令同正
允芳年二十四四男惠根年十九

여주 이씨 준호구

1333년에 작성된 것으로 "여주 이씨보"에 실려 있다. 호주는 낙랑군 부인 최씨(60세)로 장남 이윤배(32세), 차남 윤성(28세), 3남 윤방(24세), 4남 혜근(19세)을 거느리고 있다. 고려 시대에 여성 호주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공녀가 되어 고려를 떠나야 했던 여성

1275년 원 세조가 조서를 내려 공납을 요구하자 고려 정부는 처녀 열 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공민왕 때까지 약 80년간 50회 이상의 공녀 진상이 이루어졌다. 공녀들은 원 황실의 궁녀, 고관들의 시첩, 시비 등에 충당되거나 군인들과 집단 혼인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딸을 공녀로 보내지 않으려고 어린 나이에 시집보내거나 딸의 출생 자체를 비밀에 부치기도 하였다.



족두리

공녀 요구에 따른 고려인의 고충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뽑혀서 서쪽(원)으로 들어가기를 거른 해가 없었다. 비록 왕실 친족같이 귀한 신분이라도 (자식을) 숨길 수 없고, 어미와 자식이 한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었다.
슬픔이 골수에 사무치고 심지어 병들어 죽는 이도 한둘이 아니었으니 천하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 수령 옹주 묘지명



수령 옹주 묘지명(국립 중앙 박물관)
문벌 귀족인 경주 김씨 출신의 수령 옹주는 왕족인 왕온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고명딸을 원에 공녀로 보내고 그 슬픔으로 병이 나 사망하였다.

공녀 차출

홍규는 무신 정권의 최후 집권자인 임유무를 제거하여 왕권 회복에 가장 큰 공을 세웠으며 중추원에서 좌부승선을 지낸 고위직 관리였다. 그러나 그는 충렬왕 시기에 원 황제에게 보내는 공녀에 자신의 딸이 뽑혔을 때 딸을 빼낼 수 없었다. 그는 뇌물도 소용이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잘라 버렸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모진 고문 끝에 아버지는 섬으로 귀양을 가고 딸은 원 사신에게 선물로 바쳐지고 말았다.

왕족이나 고위 관료의 딸들도 공녀로 뽑혀 원에 보내졌다.

기황후와 기씨 세력

기황후는 기자오의 막내딸로 태어나 원에 공녀로 보내진 후 1335년경 원 황궁의 궁녀가 되었다. 1339년에는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낳은 후 다음 해 제2 황후로 봉해졌다. 1353년 기황후의 아들이 황태자에 책봉되자 그녀의 세력은 더욱 커졌다. 그녀의 존재는 고려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일족이 권세를 부렸다. 기황후의 오라비들은 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와 노비를 함부로 빼앗았을 뿐 아니라 국왕의 권위에도 공공연하게 도전하였다. 특히 기철은 충혜왕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고려 왕조를 없애고 원에 편입시켜 달라 요청하여 왕이 원에 붙잡혀 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씨가 원 순제의 총애를 받아 황후가 되자 그녀의 집안은 기황후의 세력을 등에 업고 고려에서 전횡을 일삼았다.

04 고려의 사상과 종교

이 단원에서는 >>
1. 고려 시대 유교 사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고려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서 불교의 역할과 사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고려 사회에 도교, 풍수지리설이 널리 퍼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1 유학과 역사학의 발달

민간 마을에 경관(經館)과 서사(書舍)가 두세 개씩 늘어서 있다. 그리하여 그 백성의 자제로 아직 결혼하기 전인 자들이 무리 지어 살면서 스승한테 경서를 배우는 데 아래로 병졸과 아동까지 향선생에게 글을 배운다. – "고려도경"

● 고려 사회에서 유학 교육이 활발해진 배경은 무엇일까?


시를 짓고 독서하는 귀족의 모습(아집도 대련의 일부, 삼성 미술관 리움)

고려, 유학이 발달하다

고려에서는 불교와 유학이 함께 발전하였다.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최언위, 최응, 최지몽 등 6두품 계통 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유교 사상에 입각한 국가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광종 때에는 과거제가 실시되면서 유교적 지식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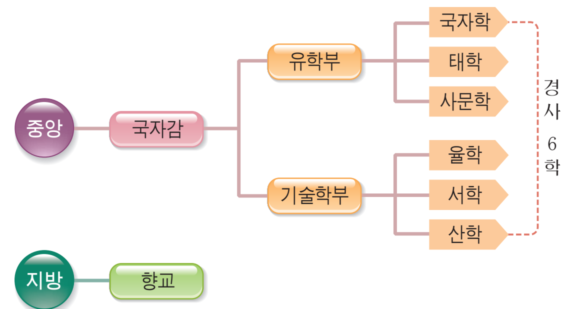
성종 때에는 유학이 정치사상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유교 교육 기관이 정비되었다. 당시의 대표적 유학자인 **최승로**는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려 유교 정치 이념에 입각한 정치·사회 질서의 개혁을 건의하였다. 그는 유교를 정치와 사회 운영의 원리로 받아들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고려의 생활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따를 것을 주장하는 등 자주적 성격을 나타냈다.

고려 중기에는 문벌 귀족 사회가 발달하면서 유학의 학풍도 점차 보수적으로 변하였다. 초기의 진취적 학풍이 퇴색하고, 귀족 사회의 안일함을 찬미하는 한문학이 발달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는 최충과 김부식이었다. 문종 때 활약한 최충은 후진 교육에 힘써 해동공자로 칭송되었으며, 인종 때의 김부식은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유학 학풍을 지녔다. 그 후 무신 정변으로 문벌 귀족 사회가 몰락하면서 유학은 한동안 위축되었다.

최충의 글씨

유학 교육 기관이 발달하다

고려는 관리 양성과 유학 교육을 위해 여러 학교를 설립하였다. 성종 때에는 개경에 국립 대학인 **국자감**을 설치하고 서경에는 도서관에 해당하는 수서원을 세웠다. 또한 중국의 경전과 문집을 많이 수집하는 등 유교 교육을 본격화하였다. 최고 교육 기관인 국자감(국학)은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구성되었으며 입학 자격에 차등을 두었다.



고려의 교육 기관
국자감의 유학부에는 문무관 7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가, 기술학부에는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고려는 지방 교육을 진흥하고자 성종 때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였고, 인종 때에는 지방 곳곳에 향교를 설치하였다.

국가의 유학 장려 정책으로 저명한 유학자가 배출되고, 이들이 학교를 세워 제자를 양성하면서 유학 교육은 한층 발전하였다. 11세기 중엽 최충이 사립 학교를 세운 이후 **사학 12도**가 성립하여 융성하였다. 사학 12도는 대부분 과거 시험에서 지공거를 지낸 사람들이 세웠으며,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더욱 번성하였다.



고려의 성균관(개성)

사학이 성행하면서 관학인 국자감이 위축되자, 정부는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숙종은 국자감에 서적포라는 출판사를 두어 서적 간행을 강화하였다. 예종은 국자감을 정비하여 전문 강좌인 7재를 설치하고, 장학 재단으로 양현고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연각과 보문각이라는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에 수많은 장서를 모아 두고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게 하였다. 인종은 경사 6학을 정비하여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무신 집권기에는 유학 교육이 위축되었으나 원 간섭기에 문신이 다시 정치를 주도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충렬왕은 유교를 진흥하고자 국자감과 공자의 문묘를 새로 지었다. 고려 후기에는 국자감의 명칭을 성균관으로 바꾸고 기술 교육을 분리하여 유학 교육만을 전담하게 하였다.

역사 더하기+ 고려의 사학 열풍

문종 때 최충이 송악산 아래 자하동에 9재 학당(문헌공도)을 마련한 이후 고관 출신의 대학자들이 사학을 열어 가면서 12도가 성립하였다. 사학 12도는 공양왕 3년까지 이어지면서 고려의 교육에 이바지하였다.

사학의 교육 성과가 국자감을 뛰어넘자 귀족의 자제들이 12도로 몰리게 되었고, 12도를 중심으로 일종의 학벌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문벌 귀족이 중앙 권력을 독점한 현상과 짝을 같이 하였다.

시기별 다양한 역사 인식을 보여 주다

고려 왕조는 건국 초부터 왕조실록을 편찬하였으나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이후에도 "7대 실록"이 편찬되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인종 때 김부식이 왕명으로 편찬한 **"삼국사기"**이다. 김부식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고려 중기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약해지고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무신 정변과 몽골 침략을 겪으면서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이해하려는 역사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의 역사서로는 "해동고승전",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이 있다.

승려 각훈은 삼국 시대 이래의 명승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으며 그중 일부가 전해진다.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은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것으로 고구려 계승 의지를 보인 작품이었다.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 탑(경북 군위)
"삼국유사"를 쓴 일연의 사리를 보관한 탑이다.

충렬왕 때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와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하고 전통문화를 중시하였다. "삼국유사"가 불교에 관한 내용을 주로 서술한 반면, "제왕운기"는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도교를 포괄하였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자료를 많이 담고 있어 삼국 시대 역사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려 후기에도 많은 사서가 편찬되었으나 대부분 없어졌으며 이제현의 "사략"에 실린 '사론'만이 남아 있다. "사략"은 고려 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대두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탐구 활동 |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

……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혹 두루 알아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는 도리어 잘 알지 못하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삼국의 "고기"는 문장이 거칠고 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적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선악, 신하의 충과 불충, 나라의 안위, 백성의 다스림에 관한 것을 다 드러내어 후세에 교훈으로 보이지 못하였으니, 일가의 역사를 완성해서 만대에 전하여 해와 별같이 환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삼국사기를 올리는 글, "동문선"



삼국사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지은 목적을 말해 보자.

성리학이 수용되다

원의 정치적 간섭을 받던 고려 후기에는 불교계의 혁신 운동이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불교계의 타락과 세속화 경향이 심해지고 신앙과 사상이 혼란해졌다. 이와 같은 정신적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지도 이념의 수용이 절실하였다.

고려 후기의 신진 사대부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할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유교적 생활 관습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성리학은 충렬왕 때 **안향**이 고려에 처음 소개하였다. 충선왕 때 이제현은 원의 수도에서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였고, 귀국한 후 이곡, 이색 등에게 이를 전수하였다.

공민왕 때 성균관이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되면서부터 성리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성리학은 이색이 성균관에서 정몽주, 권근, 정도전 등을 가르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그 후 성리학자들은 개혁의 정도와 방법을 둘러싸고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었다.

성리학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으로, 기존 한·당의 훈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 문제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색(1328~1396)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성균관 대사성으로서 성리학의 진작과 신진 사대부 육성에 이바지하였다.



정몽주(1337~1392)
이색에게 성리학을 배웠다. 일본 사행을 다녀왔으며 고려와 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성리학의 수용

안향이 학교가 날로 쇠퇴함을 근심하여 양부(첨의부와 밀직사의 대신들)와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임은 인재 교육이 제일 긴급한 일인데 지금 양현고가 완전히 탕진되어 선비들을 양성할 비용이 없으니 6품 이상 인원들은 각각 은 1근씩, 7품 이하 인원들은 베를 차등 있게 내게 하여 양현고에 돌려주어 그 본전을 남겨 두고 이식만을 가져다 쓰도록 하되 이름을 섬학전이라고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니 양부가 이에 동의하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 "고려사"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안향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주자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의미로 호를 회헌이라 하였다. 원을 통해 들어온 고려의 성리학은 이론적·철학적 성격보다는 실천적·윤리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의 폐단을 없애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실천적 윤리로서 성리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안향(1243~1306)
충렬왕과 원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였으며 고려에 처음 성리학을 소개하였다.

2 불교 사상과 신앙

태조 왕건은 신검을 무찌르고 후삼국 통일을 기리면서 황산을 천호산으로 개칭하고 그곳에 개태사를 창건하였다. 개태사 절터에는 보물로 지정된 석조 여래 삼존 입상이 서 있다.

● 왕건은 왜 승전을 기념하며 절을 세우고 불상을 만들었을까?



논산 개태사지 석조 여래 삼존 입상(충남 논산)

태조 왕건, 숭불 정책을 펴다

고려에서 불교는 건국 초부터 국가와 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다. 태조 왕건은 불교를 적극 지원하여 개경에 여러 사원을 세웠으며,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숭상할 것을 당부하였다. 흥왕사와 같은 규모가 큰 사찰이 왕실에 의해 여러 곳에 세워졌고 연등회와 팔관회 등 각종 불교 행사가 국가 행사로 치러졌다. 귀족들도 불교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일반인들도 현세적 기복 신앙으로 불교를 널리 믿었다. 이처럼 고려 사회에서 불교는 수신의 도리로서 치국의 도리인 유교와 함께 공존하였다.

광종 때는 승과 제도를 시행하여 승려의 수준을 높였으며, 합격한 자에게는 법계를 주었다. 법계 중 가장 높은 교종의 승통과 선종의 대선사 위에는 왕사와 국사를 두어 왕과 왕실의 고문을 맡도록 하였다.

국가는 불교가 국가에 공헌하는 대가로 사원에 각종 혜택을 주었다. 사원에는 토지를 지급하고 면세의 특권을 주었으며 승려들에게는 면역의 특혜를 주었다. 사원은 토지뿐만 아니라 막대한 노비를 소유하고 수공업품을 생산하기도 하였으며, 고리대 사업과 상업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흥왕사명 청동 은입사 향완(삼성 미술관 리움)

향완(향로)은 마음의 때를 씻는다는 의미로 향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역사 더하기 + 연등회와 팔관회

고려 시대 불교는 왕실과 귀족부터 일반 서민까지 모든 사회 계층이 신봉한 종교였다. 국가는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 중 가장 성대한 행사가 연등회와 팔관회였다. 연등회는 국초에는 정월 15일, 현종 이후에는 2월 15일에 열렸다. 연등회는 부처 공양과 태조 숭상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어 왕은 연등회 행사의 공연이 끝나면 봉은사의 태조 사당에 참배하였다.

팔관회는 천령·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대회로 불교 의식의 하나였다. 여덟 가지 계율을 하룻낮 하룻밤 동안 엄격히 지켜 불교 입문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이 8계를 수여하는 의식을 팔관회라 하였다. 팔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열렸으며, 고려 왕의 정치적 권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 불교 의식은 송의 상인이나 여진과 탐라의 사절이 와서 축하 선물을 바치고 무역을 하는 등 국제적 규모의 행사가 되었다.



현재의 연등 축제(서울 종로)

의천, 해동 천태종을 만들다

신라 말 선종이 새로 성립되면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고려 초 불교계는 난립한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광종은 당시 불교계를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 교종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선종은 중국에서 도입한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천태학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광종이 죽은 뒤 개혁은 중단되었으며 현종 이후 교종 계통의 법상종이 경원 이씨의 후원을 받으면서 화엄종과 함께 불교계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 두 종파가 왕실 및 귀족 세력에 연결되어 대립함으로써 종파적 분열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열과 대립 속에서 의천은 교단을 통합하여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먼저 화엄종의 입장에서 법상종 교단을 억압하여 교종을 정리하고, 새로 천태종을 개창하여 선종을 통합함으로써 교·선의 대립을 극복하려 하였다. 의천은 교·선 통합의 사상적 바탕으로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의천은 한때 경원 이씨와 연결된 법상종 교단의 공격으로 지방으로 밀려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원 이씨 세력을 억압하고 즉위한 숙종의 후원으로 국청사를 창건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립하였다.

의천의 교단 통합 운동은 분열하여 대립하던 불교 교단을 재편하고 교·선 통합의 사상적 과제를 해결하려 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통합의 방향이 학문·종교적 차원에 머물렀고 사회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의천이 죽은 후 불교 교단은 다시 분열하였으며 귀족 중심의 불교가 고려 사회에서 한동안 지속되었다.



영통사 대각국사비(경기 개풍)
대각국사 의천의 업적을 새긴 비석으로 김부식이 비문을 지었고, 오언후가 구양순체로 글씨를 썼다.

역사 더하기+

의천의 중국 유학과 국제 정세

고려는 거란과 전쟁을 치른 후 현종 때 국교를 맺으면서 송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문종 25년(1071)에 와서야 송과 국교를 재개할 수 있었지만 고려는 여전히 요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자 출신인 의천이 송으로 건너가는 일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의천의 중국 유학은 당시 송에서 신법당과 구법당의 정쟁거리가 되었다. 신법당은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려와 연합하여 요를 견제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고려와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한 송 상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법당은 의천의 중국 유학을 내심 환영하였다. 그러나 대외 정책보다 내정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구법당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구법당의 소식은 송의 서적이 해외로 반출된다는 이유로 고려와 통상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당 말부터 계속된 전란과 불교에 대한 탄압으로 많은 불교 서적이 유실되었는데, 고려에 남아 있던 불교 서적이 송에 역수출되어 중국에서 화엄학이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각국사 의천(1055~1101)
문종의 왕자로 승려가 된 의천은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송광사 전경(전남 순천)

지눌, 결사 운동을 제창하다

무신 집권기에는 오래전부터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었던 불교계에서 자기반성과 더불어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결사 운동이 나타났다. 지눌은 수선사(송광사)를 중심으로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과의 조화를 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계종을 개창하였다.

수선사를 창립한 지눌은 선과 교학을 나란히 수행하되 선을 중심으로 교학을 포용하자는 **정혜쌍수**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 꾸준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이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까지 포용하려는 이론 체계를 수립한 것이었다.

지눌의 뒤를 이은 혜심은 선종과 교종의 통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교와 불교의 통합을 시도하여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장차 사상계의 중심이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넘어가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련사 전경(전남 강진)

요세는 천태종 신앙 결사체인 백련사를 조직하였다. 백련사는 순수한 법화 신앙을 내세우고 강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불교의 혁신과 민중 교화에 힘썼다. 수선사가 불교를 혁신하고자 지식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백련사는 참회행이나 정토관에 좀 더 충실하면서 민중 구제에 집중하였다.

원 간섭기 불교계는 개혁 운동의 의지가 퇴색하고 다시 귀족이나 왕실과 밀착하면서 사회적 폐단을 낳았다. 사원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상업과 고리대 등에 관여하면서 부패해 갔다. 교단 정비와 자정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성리학이 혁신 운동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 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인연에 따라 성품을 수양하고 평생을 호방하게 고귀한 이들의 드높은 행동을 좇아 따른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 "권수정혜결사문"

지눌은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면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수행, 노동에 힘쓸 것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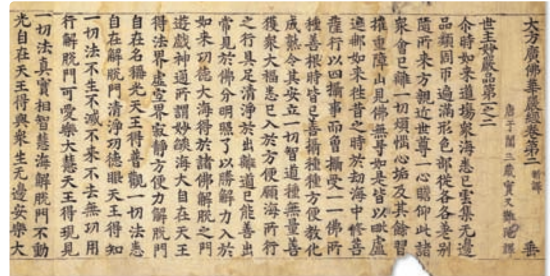

보조국사 지눌(1158~1210)

대장경을 간행하다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불교 관련 저술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장경이 만들어졌다.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을 간행하였다. 70여 년에 걸쳐 완성한 초조대장경은 개경에서 보관하다 대구 부인사로 옮겼는데,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인쇄본 일부만 전해지고 있다.

대장경
대장경은 경·율·논 삼장의 불교 경전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대장경 경판은 돈독한 불심과 많은 경비를 바탕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경판의 규모와 내용의 정확성은 당시 학문의 발달, 불교 이해 및 문화 수준, 인쇄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 준다.

의천은 국내는 물론 송·요·일본 등 각국의 불교 서적을 모아 목록에 해당하는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였다. 또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이 목록에 따라 4,700여 권의 "교장"을 간행하였다.


초조대장경 인쇄본(호림 박물관)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 시기에 불력으로 외침을 격퇴할 것을 염원하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조판 작업이 시작되면서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 진주 남해에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하였고, 고려의 구본을 토대로 송과 요 등 여러 나라의 장경을 대조하여 대장경을 새로 판각하였다.

16년 만에 완성된 팔만대장경은 8만 매가 넘는 목판이 모두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 팔만대장경은 최씨 정권의 주도로 제작되었으나 지방 세력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당시 불교 경전에 대한 높은 이해 수준을 보여 준다. 팔만대장경은 방대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이 정밀하게 제작되었고 글씨 또한 매우 아름다워 세계에서도 뛰어난 문화재로 꼽힌다.

탐구 활동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목적

…… 이로 말미암아 몽골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과 불서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에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 판본도 남기지 않고 쓸어 갔습니다. …… 간곡히 비는 것은 양찰하시어 신통한 힘을 빌려 주어 완악한 오랑캐로 하여금 멀리 도망하여 다시는 우리 국토를 밟는 일이 없게 하여, 전쟁이 그치고 안팎이 편안하며 대비와 태자가 무강한 수를 누리고 국운이 만세토록 유지되게 해 주신다면 제자 등은 마땅히 노력하여 법문을 보호하고 부처의 은혜를 만 분의 일이라도 갚으려 합니다.

– "동국이상국집"


팔만대장경(경남 합천 해인사)

고려가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목적을 말해 보자.

3 도교와 풍수지리설

정지상도 서경 사람인데 그들의 말을 깊이 믿고 수도의 업운이 이미 쇠진하였으며 궁궐이 다 타 없어졌으나 서경은 왕기가 있으므로 왕이 옮겨 앉아서 이곳을 수도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고려사"

● 정지상과 묘청은 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했을까?



대화궁 출토 유물(평양)

도교와 민간 신앙이 성행하다

고려 시대에는 유교, 불교와 더불어 도교가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숭상되었다. 도교는 삼국 시대부터 전해 오던 종교로 민간 신앙과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도가나 음양오행의 이론이 더해졌다. 도교는 여러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의례를 많이 행하였다.

왕실에서도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으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예종은 복원궁이라는 도교 사원을 건립하여 본격적으로 도교를 보급하고 이곳에서 초제를 자주 지냈다. 이는 도교를 내세워 국교의 위치에 있던 불교를 견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인의 부적(호암 미술관)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지은 죄를 용서받고 미래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는 무속 신앙·산악신앙 등 민간 신앙과 결합하였다. 그리하여 중요한 산천을 숭배하고 큰 산이나 강에 신의 이름과 벼슬을 내리기도 하였다. 국가적으로 이름난 명산대천에 제사 지내는 팔관회도 도교와 민간 신앙 및 불교가 어우러진 행사였다.

불교는 내세를 강조하며 금욕적인 삶을 요구하였고, 유교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중시하였다. 이에 비해 도교는 현세의 복을 기원하여 민간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역사 더하기 ✚ 고려인의 도교 신앙 생활 모습

고려 시대에는 수경신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수경신 신앙은 사람들이 60일마다 돌아오는 경신일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는 신앙 행위였다.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삼시충이 그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가 경신일에 잠든 사이 하늘로 올라가 상제에게 죄상을 보고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경신일에 삼시충이 몸속을 빠져나가 상제에게 죄상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면서 즐겁게 밤을 샜다. 수경신은 현세에서 무병장수하려는 욕망이 잘 드러난 신앙 행위이다.



청자 인물형 주전자(국립 중앙 박물관)
머리에 모자(관)를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이 복숭아를 얹은 그릇을 들고 있다. 도교에서 복숭아는 신성한 과일로 여겨진다.

풍수지리설이 유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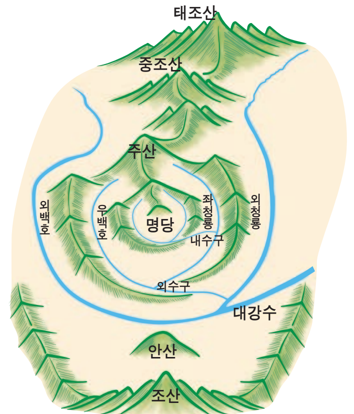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에 도선이 소개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고려에서 풍수지리설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사상과 결합하여 크게 유행하였다.

풍수지리설은 개경을 수도로 삼는 데 영향을 주었다. 태조 왕건은 국가를 경영하고 중요 시책을 결정할 때 풍수지리설을 크게 참고하였다. 풍수지리설은 사찰을 짓거나 수도를 정할 때 뿐 아니라 마을의 입지를 선택하거나 주택을 지을 때에도 영향을 끼쳤다.

고려 초에는 서경이 명당이라는 설이 유포되어 서경 천도 및 북진 정책 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인종 때 묘청은 서경 길지설을 근거로 서경 천도 운동을 추진하다가 개경 세력과 충돌하였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 결합한 대표적 사건이다.

고려 중기에는 북진 정책이 퇴조하면서 한양 명당설이 대두하였다. 한양에 대한 관심은 한강이 지닌 인문 지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문종 때에는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고 궁궐을 지어 왕이 머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미신적 요소만 남아 풍수지리를 빙자한 갖가지 행사가 왕실과 지배층 중심으로 치러져 각종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풍수지리설은 성리학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정할 때에도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였듯이 조선 건국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풍수지리설에 따른 명당
명당은 산세가 바람을 막아 주고 수세가 열기를 식혀 주는 곳이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經)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권태를 잊게 하였다. 이에 학자들이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정주 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 "고려사"

1. 다음 용어의 뜻을 써 보자.

(1) 성균관:

(2) 성리학:

2. 위의 용어를 사용하여 고려 말 신진 사대부 세력의 등장과 신유학의 발달 관계에 대해 서술해 보자.

조건
- 고려 말 사회 상황과 개혁의 필요성을 포함할 것
- 고려 말 성리학자들의 학문적 경향을 밝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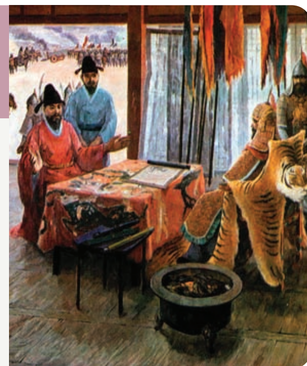
05 고려의 대외 관계

이 단원에서는 >> 1. 고려의 국제 관계와 교류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2. 고려의 문화 교류를 국제 관계의 변화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1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그대 나라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쳐들어와 차지했고 또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는 데도 바다를 넘어 송을 섬겼기 때문에 오늘 출병하였다. 땅을 떼어 바치고 서로 사신을 보내면 무사할 것이다. – "고려사"

● 서희는 소손녕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였을까?



서희의 외교 담판(민족 기록화)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다원적으로 바뀌다

중국은 당이 멸망한 후 5대 10국으로 분열되었다가 송에 의해 다시 통일되었다. 중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는 동안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성장하여 요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해 갔다.

전연의 맹약(1004)
송이 중국을 침입한 요에 패한 후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강화 조약이다. 송은 강화의 대가로 매년 요에 막대한 재물을 보내게 되었다.

송은 중국을 통일한 후 요가 차지한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회복하고자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송은 요와 전연의 맹약을 맺고 외형적인 평화 관계를 유지하였다.

12세기 초 만주에서는 여진족이 부족을 통일하고 금을 건국하였다.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키고, 곧이어 송까지 강남 지방으로 몰아내어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금과 남송이 서로 대립하는 형세가 전개되었다.

이처럼 고려 전기 무렵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의 흥망성쇠가 거듭되면서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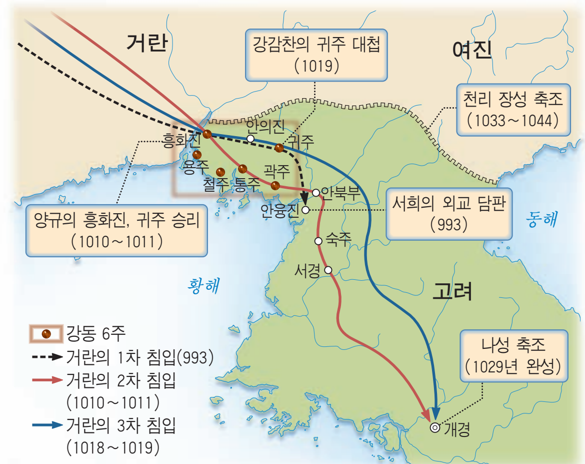


10~12세기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

거란을 격파하다

10세기 초에 랴오허 강 일대에서 일어난 거란(요)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후 중국에서 통일 왕조 송이 등장하자, 거란은 송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으려 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북진 정책과 친송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려와 거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 무렵 발해 유민이 압록강 유역에 세운 정안국이 송과 연결하여 거란을 공격하려 하였다. 이에 거란은 정안국을 정복한 다음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였다.



거란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

성종 때 거란의 소손녕은 수십 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왔다(993).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고려에서는 영토를 떼어 주고 거란과 강화를 맺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서희는 이에 반대하고 소손녕과 담판을 시도하였다. 서희는 거란의 1차 목표가 고려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고 거란과 강화를 맺으면서 여진에 대한 협공을 구실로 압록강 근처의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1차 침입 이후 거란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고려가 거부하자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2차 침입을 강행하였다. 이때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하였는데, 양규가 이끄는 고려 군사들이 화의를 맺고 돌아가는 거란군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거란은 10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고려를 공격해 왔으나 강감찬, 강민첨 등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파하여 거의 전멸시켰다(**귀주 대첩**, 1019).

강조의 정변(1009)
고려 목종의 생모 천추 태후와 김치양이 자신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려 하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 일파를 죽이고 목종을 폐위시킨 뒤 현종을 세운 사건

거란과의 전쟁 후 고려, 송, 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사신이 오가며 공무역이 행해졌다. 거란은 고려와의 무역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각장 설치를 요구하였고, 고려는 거란에서 대장경을 들여왔다.

역사 더하기+ 서희의 외교 담판과 강동 6주의 획득

거란의 장수 소손녕은 거란이 고구려를 계승하였으므로 옛 고구려 영토는 모두 거란의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서희는 고려는 신라가 아닌 고구려의 후손이므로 옛 고구려 영토 역시 고려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명분론을 내세웠지만 회담의 핵심은 여진족 문제였다. 당시 거란은 여진, 송, 고려가 연합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서희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거란과 고려가 여진을 협공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이에 소손녕은 기뻐하며 두 군대가 만나는 지점인 압록강 부근의 강동 6주를 내놓았다. 그 후 이 지역은 거란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하였다.


서희 동상(경기 이천)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고려는 다원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도 5대 및 송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였다. 당시 고려는 오랜 전통과 권위의 상징인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그 상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송과 활발하게 교류하다

고려는 국초부터 중국 5대의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었고, 송이 건국된 뒤에는 송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당시 고려는 중국의 5대 왕조나 송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해로를 이용한 왕래가 이루어졌다.

5대와의 관계는 태조부터 광종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광종 때에는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송과 오랫동안 활발하게 교역하였다. 송은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장려하고 그 대가로 거둔 세금으로 재정 지출을 보충하고자 적극적 통상 정책을 펴 나갔다. 또한 고려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거란을 거듭 격퇴하여 국위를 떨치자, 북방 민족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고려에 접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송의 물품과 수준 높은 문화를 수입하고자 군사적 교류보다는 경제와 문화 부문의 교류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려와 송 사이에는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항저우 등에는 고려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도 하였다. 고려는 사신, 학자, 승려들을 송에 보내 선진 문물을 수입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특히 불경을 비롯한 각종 서적, 자기 등이 송에서 수입되어 고려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고려가 초조대장경, 교장 등을 간행하고 청자 기술을 완성한 데에는 송 문화의 영향이 컸다.

고려와 송 사이에는 조공 무역과 민간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민간 무역이 더욱 활발하였다. 두 나라의 교역품은 주로 왕실이나 귀족의 수요를 충당하는 사치품과 고가품들이었다. 고려가 수입한 물품 중에는 서남아시아에서 생산된 것들도 있어 송 상인들이 중계 무역을 하였음을 알려 준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두 나라의 교역은 송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역사 더하기

고려에 귀화한 송 상인들

송의 상인 유성 등 49명이 왔다. 처음에 명주 사람인 두도제, 축연조 등이 상선을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가 돌아가지 않았는데, 명주에서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송에 편지를 부쳐 그들을 머물도록 하자고 하였더니 이 때 유성 등이 와서 자기 나라 황제의 지시에 의한 공문을 명주 고을에 전하였다. 그 공문에는 "두도제 등을 자기 생각대로 머물러 있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송의 상인이었던 두도제 등은 중국 명주에서 공적인 일로 고려에 왔다가 귀환하지 않았다. 이들은 송 황제의 허락을 받아 고려에 귀화하였으며, 송과 고려의 무역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비창천명 항해도 무늬 거울(국립 중앙 박물관)
'밝게 빛나고 창성한 하늘'이라는 의미의 황비창천이라는 명문과 돛을 올린 배가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모습이 새겨진 구리거울이다. 고려의 활발한 대외 교류를 짐작하게 해 준다.

동북 9성을 쌓다

일찍이 말갈이라 불리던 여진족은 고려의 동북방 지역에서 부족 단위로 생활하고 있었다. 고려 초기에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고려는 여진을 회유하여 복속시키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2세기 초 여진족은 완안부를 중심으로 통일하고 세력을 키워 고려를 자주 침공하였다. 고려는 군대를 출동하여 국경 지역의 여진족을 제압하려 하였지만 거듭 패하였다.

별무반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다.

고려는 보병만으로 기병 중심의 여진족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윤관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이라는 특별 부대를 편성하였다. 윤관은 예종 때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 장성을 넘어 여진족을 소탕하고 북방으로 쫓아낸 뒤 동북 지방 일대에 9성을 쌓아 방어에 나섰다. 이어 여진의 주력 부대마저 격파한 후 공험진의 선춘령에 기념비를 세웠다(1108).

그러나 여진족은 9성을 계속 공격하는 한편, 고려에 매년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이 지역을 되돌려 달라고 간청하였다. 고려도 여진의 계속된 공격으로 9성을 수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다시 침략하지 않고 조공을 하겠다는 여진족의 조건을 수락하고 1년 만에 9성에서 철수하였다.

그 후 여진족은 더욱 강성해져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금을 건국하였다(1115). 금은 요를 멸망시킨 뒤 고려에 군신 관계를 맺자고 요구하였다. 당시 정치의 실권을 쥐고 있던 이자겸은 정권을 유지하고자 금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려 하였다. 결국 고려는 금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두 나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다.



척경입비도(고려 대학교 박물관)
윤관이 9성을 개척하고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그린 조선 후기의 그림이다.



사료 쏙! 쏙!

금의 사대 요구에 대한 고려 조정의 논의

금이 새로 요를 격파하고 사신을 보내 형제의 나라로 조약을 맺고자 청하였다. 대신들은 격렬하게 안 된다고 말하였고 그 사신을 목 베어 죽이자는 사람도 있었다. 김부의(김부식의 동생)가 홀로 상소하여 말하기를 "신이 깊이 생각해 보니 한이 흉노에 대해서나 당이 돌궐에 대하여 속국으로 칭하였고, 혹은 공주를 시집보내는 등 그들과 화친할 길이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지금 송과 같은 대국도 거란과 더불어 서로 백숙이니 형제이니 하면서 대대로 화친하고 지내 왔습니다. 천자의 높음은 천하에 대적할 상대가 없지만, 이처럼 오랑캐 나라에 굴복하여 섬기는 것은 이른바 '성인은 잠시 원칙을 버리고 권도로서 처사하여 국가를 보전한다.' 라는 좋은 계책입니다. …… 신이 엎드려 원하건대, 왕께서는 길고 멀리 내다보는 계책을 생각하셔서 국가를 보전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고려사"

금의 사대 요구를 둘러싸고 고려 조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형제의 나라로 조약을 맺자는 금의 요구에 일부 신하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당시 문벌 귀족 세력은 국가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금의 요구를 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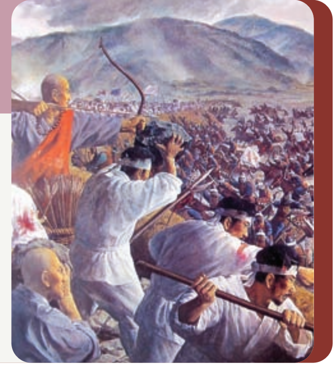
얼마 후에 세력을 키운 금은 더 나아가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

2 고려 후기의 대외 관계

김윤후는 고종 때 사람으로 일찍이 중이 되어 백현원에 있었다. 몽골 군대가 다다르자, 윤후가 처인성으로 피난하였는데, 몽고의 장수 살리타가 성을 치매 윤후가 이를 사살하였다.

– "고려사"

● 몽골이 침입하였을 때 고려는 어떻게 대처하였을까?



처인성 전투 기록화(전쟁 기념관)



몽골 제국의 판도

몽골과의 전쟁, 도읍을 옮겨 항전하다

13세기 초 몽골족은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금의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하여 화북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 후 몽골군은 서역으로 향하여 8년 만에 유럽의 폴란드와 러시아, 인도 북부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거란족 일부가 몽골에 쫓겨 고려에 침입하였는데, 고려는 몽골과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몰아냈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몽골과 사신을 왕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몽골이 고려에 많은 공물을 요구하여 양국 사이에 갈등이 커져 갔다.

몽골은 사신 저고여 일행이 귀국길에서 피살된 것을 구실로 고려를 침입하였다(1231). 이때부터 몽골은 30여 년 동안 여섯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몽골이 침입하자 고려의 박서는 귀주성에서, 최춘명은 안북부에서 이를 격퇴하였다. 이에 몽골은 고려의 항복을 유도하여 강화를 맺은 다음 다루가치를 남겨 두고 돌아갔다.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최씨 무신 정권은 주민들에게 산성이나 섬에 들어가 몽골군에 맞서도록 하였다.

고려가 항전 태세를 보이자 몽골은 다시 고려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처인성에서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가 김윤후가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하면서 곧 철군하였다. 그 후 몽골은 금을 정복한 다음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강화도로 들어간 왕과 귀족들은 안전한 해로를 이용하여 거두어들인 조세로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였고, 연등회와 팔관회도 거르지 않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육지에 남겨진 백성은 전쟁의 고통에 시달렸다. 국토는 황폐해지고 수많은 백성이 몽골군에게 살해되거나 포로로 잡혀갔다. 또한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 판목과 경주의 황룡사 9층 목탑도 소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백성은 몽골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와 부곡 지역의 주민들까지 몽골군과 맞서 싸웠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몽골군은 전술을 변경하여 도서 지방이나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이에 고려의 피해가 늘어났으며 민심이 동요하고 몽골군에게 항복하는 경우도 늘어 갔다.

오랜 전쟁으로 백성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강화도에 위기가 닥치자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과 강화를 맺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동안 대몽 항쟁을 주도했던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되었다. 당시 태자였던 원종은 원 세조(쿠빌라이 칸)를 만나 강화를 체결하였다. 이후 고려 정부는 무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몽골과 전쟁을 벌인 나라들이 대부분 원에 정복되거나 속국이 된 반면,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에서 오랫동안 항쟁한 결과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원 세조는 고려가 요구한 여섯 가지 사항을 모두 용인하였다.



몽골과의 전쟁

탐구 활동 백성의 대몽 항쟁과 원 세조의 세조 구제

자료 1 몽골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백성

처음 충주 부사 우종주가 매양 장부와 문서로 인하여 판관 유홍익과 틈이 있었는데, 몽골군이 장차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 지킬 일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의견상 차이가 있어서 우종주는 양반 별초를 거느리고, 유홍익은 노군과 잡류 별초를 거느리고 서로 시기하였다. 몽골군이 오자 우종주와 유홍익은 양반 등과 함께 다 성을 버리고 도주하고 오직 노군과 잡류만이 힘을 합하여 쳐서 이를 쫓았다.

– "고려사"

자료 2 세조 구제

첫째,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에 따라 바꿀 필요가 없다.
둘째, 사신은 오직 원 조정이 보내는 것 이외에 모두 금지한다.
셋째,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고려 조정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넷째, 압록강 둔전과 군대는 가을에 철수한다.
다섯째, 전에 보낸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한다.
여섯째, 몽골에 자원해 머무른 사람들은 조사하여 돌려보낸다.

원 세조(쿠빌라이 칸)는 고려가 요구했던 내용을 수락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국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때 세조가 약속한 것을 '세조 구제'라 한다.

1. 자료 1을 참고하여 원 세조가 세조 구제를 제시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자.
2. 세조 구제는 고려가 자주성을 유지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 보자.

삼별초, 끝까지 대몽 항전을 전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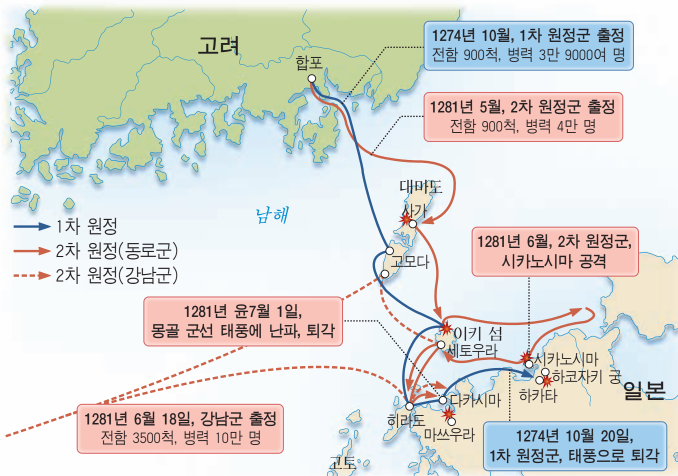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서 대몽 항쟁을 전개하던 삼별초가 배중손의 지휘로 반몽 정권을 세우고 저항하였다. 이들은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거점을 옮기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안 지역을 장악하고 4년 동안 대몽 항쟁을 벌였다. 그러나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제주도가 함락되면서 삼별초의 항쟁도 진압되었다.

고려, 일본 원정에 동원되다

고려를 복속시킨 원은 일본 가마쿠라 막부에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막부가 이를 거절하자 일본 원정을 추진하였다. 삼별초의 항쟁을 진압한 여·몽 연합군은 일본 원정군으로 전환되었다. 고려는 몽골의 요구에 따라 원정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하고 수군을 동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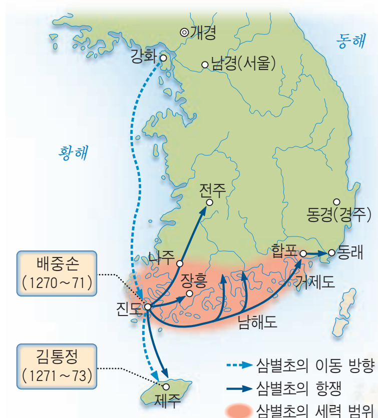
여·몽 연합군은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정벌하였으나, 그때마다 태풍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다.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났으나, 원이 전쟁을 위해 설치한 **정동행성**은 계속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본은 여·몽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과도한 군비 지출 등으로 가마쿠라 막부가 붕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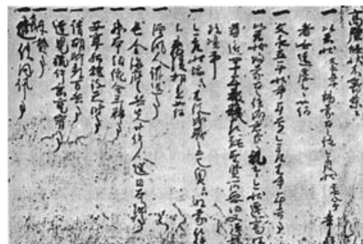


여·몽 연합군의 일본 원정

역사 더하기 끝까지 몽골에 저항한 삼별초



삼별초의 항쟁


고려첩장불심조조(도쿄 대학교 사료 편찬소)
1271년 진도에 있던 삼별초가 보낸 외교 문서를 일본이 3년 전에 원종이 보낸 국서와 비교하여 이해가 안 되거나 불확실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몽골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과 연대의 필요성, 군사적 지원 요청을 담고 있다.

강화도에서 봉기한 삼별초는 왕족인 승화후 온을 왕으로 삼았다. 이들은 관료와 가족을 인질로 잡고 진도로 떠났다. 진도의 용장산성에 자리 잡은 이들은 강력한 수군 조직을 바탕으로 서남해안 도서 지방을 점령하여 정부의 조세 수송로를 차단하였다. 여·몽 연합군이 진도를 함락하자 삼별초는 김통정의 지휘하에 제주도의 항파두리성으로 옮겨 항쟁하다가 1273년 결국 패하였다.

원과의 교류, 고려 사회를 바꾸다

고려와 원의 전쟁이 끝난 후 원의 정치적 간섭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문물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많은 고려인이 전쟁 포로나 공녀로 원에 끌려갔는데, 공녀 중에는 원 황제나 고위 관리의 후처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스스로 원으로 넘어가 그곳에 귀화하여 정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몽골 인, 중국인, 색목인 등 다양한 민족이 고려와 원 사이를 오고 가는 가운데 고려 개경에는 회회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고려와 원의 풍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두 나라는 머리 모양이나, 옷, 음식, 도자기, 언어 등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고려에 전해진 몽골의 풍습을 **몽골풍**이라 하고 원에서 고려 풍습을 따르는 것을 **고려양**이라 하였다.

원에서 새로운 문물을 들여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암은 농업서인 "농상집요"를 소개하여 농업 기술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문익점은 원에서 목화를 들여와 의생활을 혁신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최무선은 원의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한 후 고려에 화통도감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다. 화통도감에서 만들어진 화약과 화포는 고려 말 왜구를 격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수시력을 비롯한 과학 기술이 원에서 수입되어 조선 세종 때 과학 기술 발달의 밑바탕이 되었다.

성리학, 라마교 등 새로운 사상과 종교도 원을 통해 고려에 전해졌다. 고려는 원과 교류하면서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

몽골과의 오랜 전쟁과 원의 정치적 간섭은 고려의 풍습과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는 한편으로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 고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 주는 여러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소줏고리
소주를 내리는 데 쓰는 재래식 증류기다. 소주는 원에서 전래되었다.



문익점 목화 시배 사적비
문익점이 목화를 처음 들여와 심었다는 경남 산청 단성면 사월리 배양촌전에 세워져 있다.

역사 더하기 + 색목인으로 고려에 뿌리를 내린 설손

설손은 원에 살았던 위구르 인으로, 고조부가 원에 귀화한 후 대대로 벼슬을 하였다. 설손은 원 순제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황태자에게 경전을 가르쳤는데, 이때 원에 머물던 공민왕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피해 고려에 들어와 귀화하였다. 그는 공민왕에게 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고, 시에도 능하였다.

설손의 아들 설장수는 몽골 어, 중국어에 능통하였으며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한 후 고려 조정의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대명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장수는 고려 말 대표적 사대부로 이름을 날렸으며, 왜구 격퇴론을 올리고 공양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및 격퇴

홍건적과 왜구, 고려를 침략하다

14세기 중반 원이 쇠퇴하자 공민왕은 반원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홍건적과 왜구 등 외적의 침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홍건적은 원의 지배에 반대하여 일어난 한족 반란군으로 이들 중 일부 세력이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였다. 2차 침입 때에는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하기도 하였다.

홍건적보다 더 지속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왜구였다. 왜구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무렵 한층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해안 지방은 물론 내륙 깊숙이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개경 근처까지 위협하였다. 왜구의 침입으로 조운선이 끊어지고 서남부 해안이 초토화되었다.

고려는 적극적으로 외적 토벌에 나섰다.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이성계**가 황산 전투에서 왜구를 물리쳤고, 최무선은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격퇴하였다. 고려는 왜구를 근본적으로 박멸하고자 박위로 하여금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도록 하였다.

그 후 원이 북쪽으로 밀려나고 명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정치 세력은 외교의 중점을 달리하였다. 신진 사대부 세력은 명과의 관계를 중시한 반면, 권문세족은 원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 고려의 대외 관계를 정리한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보자.

시기	이민족	내용
10세기 말~11세기 초		• 1차 침입: (　　　)의 강동 6주 획득 • 2차 침입: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침입, 양규의 선전 • 3차 침입: (　　　)의 귀주 대첩
12세기		• (　　　) 편성 및 윤관의 정벌 → 동북 9성 설치 • 금 건국 후 고려에 사대 요구 → 이자겸이 요구 수용
13세기		• 사신 피살을 구실로 침입 → 최우의 강화 천도 • 항전의 전개 → 김윤후의 전투, 팔만대장경 조판, 하층민의 저항 • 최씨 정권의 붕괴와 강화 → 개경 환도 • (　　　)의 항쟁
14세기 후반		토벌 작전 전개 → 최영, (　　　)의 성장

2. 원과의 교류가 고려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서술해 보자.

조건 정치적 변화와 사회 · 문화적 변화의 내용을 구분할 것

세계 속의 고려인 – 이제현의 중국 여행

이제현은 1314년에 충선왕의 부름으로 만권당에 머물면서 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특히 세 차례에 걸쳐 중국 내륙을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혔다. 충선왕은 중국 강남 지역을 여행하다 항저우의 유명한 화가에게 이제현의 초상을 직접 그리게 할 만큼 그를 총애하였다. 이제현은 10여 년 만에 귀국하여 이곡과 이색 등 신진 사대부를 길러냈다.

당시 고려인들은 이제현이나 충선왕처럼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와 이들의 삶을 고려하였을 때 세계를 보는 시선은 그만큼 넓어졌을 것이다.



이제현의 초상화 (국립 중앙 박물관)

1316년에 충선왕을 대신해 서쪽의 명산인 어메이 산에 제사를 올리고자 3개월 동안 다녀왔다. 쓰촨 성 청두에서 배를 타고 7일을 더 가는 왕복 5,100km에 해당하는 긴 여정이었다. 당시 이제현은 원의 역참과 수참을 여러 차례 이용하여 여행을 하였다.

충혜왕이 베이징으로 압송되자 다시 한번 원에 들어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원이 충혜왕을 석방하도록 하는 등 개경과 베이징을 여덟 차례 정도 오고 갔다.

1319년 충선왕이 강남 일대를 여행할 때 저장 성의 푸퉈 산을 비롯한 강남의 여러 명승고적을 둘러보는 행차에 시종하였다.



이제현의 여행 경로

활동 원 간섭기에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활동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연표로 정리하기


▲만월대 터


▲강감찬 동상


▲척경입비도


▲항파두리 대몽 항쟁 기념비

연도	사건	내용
918	❶ □□, 고려 건국	궁예를 몰아낸 뒤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호족 포섭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훈요 10조'를 지어 전하게 하였다.
936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고려는 신라를 병합하고 후백제를 공격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958	광종, ❷ □□□ 실시	광종은 유교적 교양을 갖춘 신진 인사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993	거란의 1차 침입	❸ □□는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시도하여 거란과 강화를 맺고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1019	귀주 대첩	❹ □□이 고려를 공격해 오자 강감찬, 강민첨 등이 귀주에서 이를 격파하였다.
1076	문종, 전시과 개정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문종 때 ❺ □□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도록 전시과를 조정하였다.
1107	윤관, 여진 정벌	윤관은 ❻ □□□을 편성하여 여진족을 북방으로 쫓아낸 뒤 동북 9성을 쌓았다.
1126	❼ □□□의 난	예종과 인종에게 딸을 시집보내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그는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1135	서경 천도 운동	❽ □□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도읍을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경 귀족의 반대로 천도가 어려워지자 반란을 일으켰다.
1170	무신 정변	문신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1198	❾ □□의 신분 해방 운동	무신 집권기에 개경의 노비들을 모아 봉기를 모의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1231	몽골의 침입	몽골은 사신 저고여가 피살된 것을 구실로 이후 30여 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하였다.
1270	❿ □□□의 항쟁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 활약한 이들은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거부하며 여·몽 연합군에 저항하였다.
1356	⓫ □□□, 쌍성총관부 탈환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여 고려의 관제를 복구하고, 몽골식 풍습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



수행하기

고려 시대 역사적 인물이 되어 역사적인 순간, 그 날(들)의 일기를 적어 보자.

❶ 일기 쓰기 방법 안내

1. 고려 시대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선정한다.
2. 역사적 인물 및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사건이 발생한 날을 전후한 역사적 사실도 함께 조사한다.
3. 수집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기를 쓸 것인지 결정한다.
4. 일기 형식을 갖추어 글을 쓴다.

〈유의 사항〉
1. 분량은 A4 용지 1장 내외로 한다.
2. 추상적 · 단편적 글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쓴다.
3. 인물의 활동과 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쓴다.
4. 가능한 정보의 범위 안에서 연도, 날짜, 날씨 등도 기록한다.
5. 필요에 따라 하루가 아닌, 며칠 분량을 나누어 쓸 수 있다.



❷ 일기 쓰기 예시

– 선정 인물: 정중부

1170. 8. ○

임금이 보현원으로 가는 도중 오병 수박희를 시켰다. 나이 많은 이소응 장군이 젊은 무관과 상대를 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 물론 이 장군이 이길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적당히 상대하다가 물러난 건데, 한뢰가 갑자기 이 장군의 뺨을 쳤다. 아무리 무신 알기를 우습게 안다 하더라도 이 장군은 명색이 3품인 대장군인데 그런 짓을 하다니, 임금이나 나머지 놈들도 마찬가지다.

1170. 8. ○

지금도 거사가 성공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보현원 사건을 계기로 나와 뜻을 같이한 이의방, 이고 등은 왕을 수행했던 문신들을 제거하고, 그날 밤 개경으로 들어와 나머지 문신들을 없앴다. 이제 우리는 의종을 거제도로 추방하고 그 아우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무신들의 최고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할 것이다. 이제 무신의 시대가 열렸다.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01.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02. 성리학적 유교 사회의 성장

03. 조선의 대외 관계

04. 조선 후기 정치와 제도의 변화

05. 근대 사회를 향한 움직임

06. 조선 후기 학문의 새 경향

07. 서민 문화의 형성



▲ 종묘 제례악(상상화)

| 훈민정음 서문 |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음운과 문자를 연구한 끝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라는 의미의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서민과 부녀자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고, 백성의 교양 수준이 높아졌다.



▲ 대동여지전도(국립 중앙 박물관)


▲ 창경궁 자격루(서울 중구)


▲ 분청사기 조화 모란문 편병(국립 중앙 박물관)


▲ 안동 도산 서원(경북 안동)

01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이 단원에서는 >> 1. 국제 정세의 변동 속에서 조선의 건국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고려 말 조선 초의 사회 경제적 변동을 바탕으로 조선 건국을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이 유교적 민본 이념에 입각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1 조선의 건국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이 첫 번째요, 여름에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이 두 번째요, 온 나라가 멀리 정벌을 하면 왜적이 빈틈을 타서 침입할 것이 세 번째요, 때가 무덥고 비가 오는 시기라서 활에 아교가 녹아 풀어지는 것과 대군이 전염병에 걸릴 것이 네 번째 불가한 것입니다. – "태조실록"

● 이성계는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였을까?



이성계(1335~1408)

새로운 동아시아 세계가 열리다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원은 14세기에 들어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 왕실의 사치와 낭비 및 방만한 재정 운영 등으로 쇠퇴해 갔다. 원이 쇠퇴하자 각지에서 한족 반란군인 홍건적이 일어났다. 주원장은 반란군을 결집한 후 난징을 수도로 명을 세우고 원을 북쪽으로 몰아냈다.

일본에서는 남북조가 분열하여 막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연안 일대를 중심으로 왜구가 나타났다. 이들은 고려와 중국의 해안 일대를 자주 침입하여 인명과 재산을 약탈하였다.

고려에서는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백성의 신망을 얻었다. 한편 **신진 사대부**는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연구하며 결속을 다졌다. 고려 말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신진 사대부와 무인 세력은 새 왕조의 개창을 위해 손을 잡았다.



14세기 말 ~ 15세기 초의 동아시아
대마도와 규슈에 근거지를 둔 왜구는 고려와 중국의 해안 일대에 자주 침입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다. 특히 고려 말에 더욱 극성을 부려 해안가 백성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조세 운송도 어려워져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

신진 사대부, 조선을 건국하다

중국에서 새로 일어난 명은 고려에 압력을 가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우왕, 최영 등이 중심이 되어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이때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요동 정벌에 반대하였다.

이성계는 우왕의 명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향해 출발하였으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돌아왔다(**위화도 회군**, 1388). 그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킨 후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위화도 회군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농민에게 큰 부담을 준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과전법**을 제정하였다(1391). 신진 사대부들은 토지를 새로 측량하고 종래의 토지 문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개혁에 반대하는 권문세족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사전을 몰수하여 국가의 공전으로 귀속시키거나 원래의 소유자인 농민에게 돌려주었다. 신진 사대부는 국가에서 수조지를 나누어 받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화도 회군 이후 신진 사대부 세력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둘로 나뉘었다. 이색,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 개혁파는 고려의 정치를 안정시키고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반면 정도전을 비롯한 급진 개혁파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우려 하였다.

급진 개혁파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데 반대하는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태조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고,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역사 더하기 + 정도전이 꿈꾸던 나라, 조선

조선 건국 이후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선 정도전은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과 같은 저서에서 그의 정치 구상을 남겨 놓았다. 그는 재상이 중심이 된 정치 체제를 지향하였다. 또한 명에 대한 사대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조선의 주권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 보았다. 따라서 요동 정벌 계획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정도전은 본인이 소유한 땅에서 가족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고 생활해 나가는 자작농을 육성하려 하였다. 또한 성리학을 앞세워 불교 교리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정도전은 조선의 정치·경제·문화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지향한 이방원(태종)과 갈등을 빚어 끝내 그에게 목숨을 잃었다.


정도전(1342~1398)



경복궁 수정전(서울 종로)
원래 집현전으로 쓰였으나 임진왜란으로 불탄 후 고종 때 재건되면서 수정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다

조선 왕조는 태조에서 성종에 이르는 시기에 유교적 통치 질서를 정비하였다. 태조는 정도전에게 조선의 문물제도를 정비하게 하였다. 정도전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재상 중심의 정치 제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겪고 난 후 왕위에 오른 태종은 국왕 중심의 통치 질서를 세우고자 사병을 없애 병권을 장악하고,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으며, 언론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전과 호패법을 실시하고,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였다.

세종은 유교 정치를 실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였으며,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문종의 뒤를 이어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정치적 실권이 재상에게 넘어가자 수양 대군(세조)은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집현전을 없앴으며, 경연을 일시적으로 폐지하였다.

성종은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유교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였다. 성종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다시 열었다. 경연에는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가 참여하여 왕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심의하였다.



경국대전(한국학 중앙 연구원)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법전으로 조선 왕조 통치의 기본 규정을 담았다.

탐구 활동 왕권과 신권의 관계

• 자료 1 (　　　　　　)

의정부의 사무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켰다. …… 처음에 임금께서는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없앨 생각이 있었고 신중히 급작스럽지 않게 이를 행하였다.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사대문서와 중죄수의 심의뿐이었다. 지금 의정부의 권중한 폐단을 없애더라도 권한이 6조로 나누어져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서사를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많은 일이 막히고 쌓였다.

– "태종실록"

• 자료 2 (　　　　　　)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 보내어 시행한다. 다만 이조·병조의 제수, 병조의 군사 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 등은 종래와 같이 각 조에서 직접 아뢰어 시행하고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만약 타당하지 않으면 의정부가 맡아 심의 논박하고 다시 아뢰어 시행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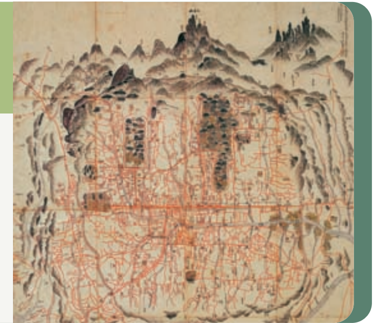
– "세종실록"

1. 자료 1, 자료 2의 내용과 관련된 제도의 명칭을 본문에서 찾아 각각 적어 보자.
2. 각 제도를 시행한 목적을 왕권과 신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자.

2 통치 체제의 정비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도성을 축조할 때 도성의 동서남북 네 방향에 4대문을 세웠다. 이 대문의 이름은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이었다.

● 4대문의 명칭에서 드러나는 조선 왕조의 통치 체제 정비 방향은 무엇이었을까?



도성도(호암 미술관)

중앙 정치를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다

조선은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 민본 사상과 덕치주의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고려보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치 체제를 지향하였다.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은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재상들이 합의하여 정책을 심의·결정하였다. 6조는 정책 집행을 담당하면서 의정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였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는 언론 기구로서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여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였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는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 국가의 중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등이 있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군·현을 두어 각기 관찰사와 수령을 파견하였다. 조선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고 속현을 없애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였다. 수령의 권한도 한층 강화되어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반면 향리의 지위는 낮아져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역할에 머물게 되었다. 또한 수령이나 관찰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기 출신 지역에 부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각 군현에서는 지방 양반들이 향촌 자치 조직인 유향소를 운영하였다. 유향소는 지방 양반의 여론을 수렴하고 백성을 교화하였으며, 수령에게 자문을 해 주거나 향리의 비리를 고발하였다.



조선의 중앙 정치 조직

조선은 2품 이상 재상들의 합좌 기구로 왕권을 견제하던 도평의사사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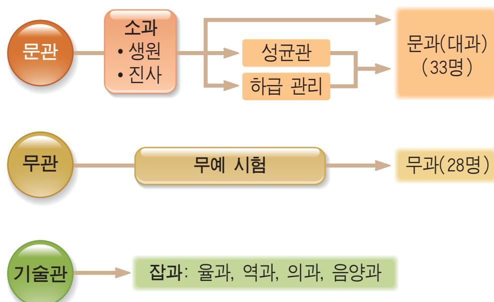
과거를 통해 관리를 뽑다



평생도 중 소과 응시 그림의 일부(국립 중앙 박물관)

조선 시대의 지배층은 문무 양반 관리였다. 관리는 과거, 음서, 천거 등으로 선발하였다. 과거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로 나뉘었다. 조선 시대에는 무과가 제도화되었으며, 고려에 비해 음서와 천거의 대상과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시험과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행해지는 특별 시험이 있었다. 문과와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의 절차를 통해 치러졌으며,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별도로 실시하였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일반 백성이 문과에 응시하기는 쉽지 않았다.



과거 제도의 운영

조선은 관리를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 제도를 마련하였다. 문관 양성에 필요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중앙에 **성균관**과 **4부 학당**을 설치하였고, 각 지방의 군현에는 향교를 두었다. 기술 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담당하였다.

양인 개병제를 실시하고 교통과 통신 체제를 정비하다

조선은 군역 제도를 정비하여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에게 모두 군역을 부과하는 양인 개병제를 실시하였다. 모든 양인은 현역 군인인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으로 편성되었다. 단, 현직 관리와 학생, 향리 등은 군역을 면제받았다.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편성되었다.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는 중앙군은 5위로 구성되었으며, 지방 각 도에는 병영과 수영을 두고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여 통솔하였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읍에는 읍성을 쌓아 방어에 힘썼다. 세조 이후에는 진관 체제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였다.

군사 조직과 함께 교통·통신 체제도 정비되었다. 정치·군사적 위급 상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봉수제**가 운영되고,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한 역참이 설치되었다.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고려 대학교 도서관)
17세기 후반 전국에 있는 봉수대의 위치를 상세하게 기록한 지도이다. 지역별로 각기 다른 색의 동그라미에 지명이 적혀 있고, 봉수대는 산봉우리 위에 촛불처럼 그려져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 지대 및 경상도 지역에 봉수대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탐구 활동

조선의 정치 조직

자료 1 중앙 정치 기구

- 시정을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주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등의 일을 맡는다. –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   )
- 간쟁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한다. –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   )
- 궁궐 안에 있는 경적을 관리하고, 문한을 관리하며, 왕이 물을 일을 대비한다.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제학 이상은 다른 관부 관원이 겸한다. 모두 경연을 겸대한다. –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   )
- 대간은 마땅히 위엄과 명망이 우선되어야 하고 탄핵은 뒤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엄과 명망이 있는 자는 비록 종일토록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두려워 복종할 것이요, 이것이 없는 자는 날마다 수많은 글을 올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 천하의 득실과 백성을 이해하고 사직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일정한 직책에 매이지 않는 것은 홀로 재상만이 행할 수 있으며, 대간만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니, 대간의 지위는 비록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대등하다. – 정도전, "삼봉집"

자료 2 지방 행정 조직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향리로서 영세민을 침해하여 도죄(징역형)를 범한 자는, 청하건대 장형을 집행한 후에 영구히 그 도의 잔폐한 역의 역리로 귀속하고, …… 그 백성을 침해한 향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고, 다시 심리하지 않은 관리도 아울러 법률에 따라 죄를 결단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자료 3 수령이 힘쓸 7가지(수령 7사)

1. 농업을 발전시킬 것
2. 유교 경전 등의 교육을 진흥할 것
3. 법을 잘 지켜 백성에게 올바름을 보일 것
4.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를 제거할 것
5. 때맞추어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정히 할 것
6. 백성을 편히 하고 호구를 늘릴 것
7. 부역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것

– "성종실록"



태인 동헌(전북 정읍)
동헌은 조선 시대 지방의 관아 건물로 수령이 일반 행정 업무와 재판 등 공적인 일을 하던 곳이다. 수령은 향리들을 거느리고 세금 부과·소송·행정 등을 처리하였다.

1. 자료 1의 빈칸에 들어갈 조선 시대 정치 기구의 이름을 각각 적어 보자.
2. 자료 1에서 대간이 지칭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자료 2의 정책을 실시한 이유를 발표해 보자.
4. 자료 3을 읽고 지방 수령의 임무를 정리해 보자.

3 수취 체제의 정비

조선의 국왕은 농사와 관련된 신농씨와 후직씨를 주신으로 모시는 선농단에서 제사를 드리며 풍년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적전을 마련하여 몸소 밭을 가는 친경을 실행하였다.

● 조선의 국왕이 농사를 권장하는 의례를 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선농단(서울 동대문)

농사짓기는 나라의 근본이다

조선은 농업을 국가 경제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건국 초부터 토지 개간을 장려하여 농경지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새로운 농업 기술을 민간에 보급하고자 애썼다. 또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조선은 검약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경제관에 입각하여 상공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규제하였으며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을 강조하였다.

조선은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 체제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화폐 유통이나 상공업 활동, 무역 활동은 다소 부진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농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상공업에 대한 통제 정책이 해이해지면서 상공업과 무역 활동이 활발해졌다.

과전법이 변화하다

조선은 과전법을 시행하여 수조권을 중심으로 국왕과 신하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농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 재정의 확보를 꾀하였다. 정부는 관리들에게 국역에 대한 대가로 경기 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지급하였다. 과전은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지급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전이 수신전, 휼양전의 이름으로 그 가족에게 세습되면서 새로 관직에 나온 이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다. 이에 세조 때에는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고 그 양도 줄였다.

수조권을 받은 관리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농민들에게서 조를 과도하게 수취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성종 때에는 국가에서 직접 조를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6세기 말에는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고 녹봉만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양반 관료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을 지배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양반 지주층의 토지 사유 욕구를 강화하여 이들이 자신의 토지 소유를 확대해 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풍흉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세금을 거두다

조선 시대 국가 재정의 토대는 조세, 공납, 역이었다. 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과전법에서는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세종 때에는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세를 거두는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실시하여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의 조세를 내게 하였다. 조세는 쌀, 콩 등의 곡식으로 거두었으며 각 지방에서 거둔 세곡은 조운을 이용하여 경창으로 운송되었다.

공납은 지방의 토산물을 거두는 제도로, 중앙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각 군현에 부과하면 각 군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거두어들였다. 그런데 공물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생산자가 변화하여 공물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물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하고 해당 군현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대납이나 방납이 성행하였다.



조선의 조운로

국경에 가까운 곳은 잉류 지역이라 하여 한양으로 보내지 않고 그 지역에서 군사비, 사신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역은 국가에서 16세 이상 정남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제도였다. 역에는 일정 기간 군사 업무에 복무하거나 또는 복무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군역과 토목 공사 등에 동원되는 요역이 있었다.

농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주는 요역을 기피하자 정부에서는 군인을 각종 공사에 동원하였다. 그러나 군인도 요역을 기피하자 면포를 받는 대가로 군역을 대신 부담하는 대립이나 군대의 장수들이 군졸을 내보내고 면포를 받는 방군수포 현상이 나타났다.



방납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

각 도에서 중앙의 관청에 납부하는 공물을 해당 관리들이 매우 정밀하게 살피면서 모두 품질이 나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도성 안에서 사들인 물품을 납부할 때에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각 관청 아전들이 이 과정에서 이득을 노려 다투어 대납을 하면서 원래 공물 가격의 몇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세종실록"

방납은 공물을 부담하는 백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인을 비롯한 방납업자들이 공물을 미리 관청에 납부하고 나중에 지방민들에게 그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이었다. 해당 군현에서 공물이 생산되지 않거나 공물의 수납 기한이 빠듯하여 대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리와 대납업자들이 이익을 노리고 행하였으며 해당 고을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품조차 대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방납을 금지하였으나, 방납에 따르는 이익이 막대하여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4 민족 문화의 발달

우리 왕조는 조종 이래로 지성으로 대국을 섬겨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준행하였는데, 지금 글을 같이하고 법도를 같이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는 것은 보고 듣기에 놀랍습니다.
–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의 상소

● 최만리의 반대 상소에도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한 까닭은 무엇일까?


세종대왕(1397~1450)


용비어천가(서울 대학교 규장각)

훈민정음, 민족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불편이 많았다. 이에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의 언어생활을 편리하게 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우리 민족은 과학적, 독창적인 고유 문자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조선의 창업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와 부처의 덕을 기리는 "월인천강지곡", 각종 윤리서 등을 훈민정음으로 편찬하여 보급하였다.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다

조선 초기 지배층들은 고려 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이루어 낸 자부심을 바탕으로 역사서를 편찬하여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 왕조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고자 실록을 중요하게 여겨 **"조선왕조실록"**을 지속적으로 편찬하였다. 이 밖에도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편찬되었다.

또한 지방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리서와 지도를 편찬하였다. 태종 때에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으며, "팔도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어 국토에 대한 인문 지리의 지식수준을 높였다.

윤리와 의례에 관한 서적도 활발히 편찬하였다. 국가 행사의 의례를 정리한 "국조오례의", 효자·열녀·충신의 사례를 모아 그림을 곁들여 기술한 "삼강행실도" 등이 간행되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류코쿠 대학 도서관)

부국강병을 위한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조선 초기 집권층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과학 기술 발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과 아라비아의 과학 기술을 폭넓게 받아들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용하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과학 기술을 지원하였다.

태조 때에는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겨 왕조의 권위를 표현하였다. 세종 때에는 천체 운행을 측정하는 혼천의를 제작하여 하늘을 관찰하였고,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천문학과 역법은 농업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은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우리 풍토에 맞는 독자적 농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물시계인 자격루, 토지를 측량하는 인지의 등을 만들어 농사에 활용하였다. 의약 분야에서는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개발하고 정리한 "향약집성방"과 의학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의방유취"를 편찬하였다.

각종 서적을 편찬하는 데 필요한 활자 인쇄술도 발달하여 계미자, 갑인자와 같은 금속 활자가 주조되었다. 또한 국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많은 병서가 편찬되고 무기 제조 기술도 발달하였다.



측우기(기상청)


앙부일구(국립 고궁 박물관)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이전에 과전은 아비가 죽고 자식이 받은 것은 휼양전이라 칭하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전해 받은 것은 수신전이라 칭하여 대대로 그 조세를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고쳐 직전으로 만들었는데, 그 세를 거두는 자가 혹 지나치게 받아 원망을 사는 자가 있으니, 만일 관으로 하여금 거두어서 주게 하면 백성이 수납하는 괴로움을 면하고 지나치게 거두는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 "성종실록"

1. 다음 용어의 뜻을 써 보자.

(1) 수신전, 휼양전:

(2) 직전법:

2. 위의 글을 바탕으로 조선의 토지 제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서술해 보자.

조건
- 1번 문제에 제시된 용어를 포함할 것
- 제도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밝힐 것

유네스코에 등록된 조선의 문화유산

유네스코는 '세계 유산 협약'을 체결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선 시대 문화유산 중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다음과 같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경남 합천, 1995)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자 지어진 목판 건축물이다. 매우 과학적 ·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대장경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창덕궁(서울 종로, 1997)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대표적 궁으로 배치가 탁월하며 주변 자연환경과 완벽한 조화가 돋보인다.



조선 왕릉(경기 구리의 동구릉 등, 2009)
조선 왕조의 독특한 장묘 문화를 잘 나타내며 타 유교 문화권 왕릉들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종묘(서울 종로, 1995)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 사당으로서 장엄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을 갖춘 건축물이다.



수원 화성(경기 수원, 1997)
18세기 정조 때 완공되었다. 동서양의 군사 시설 이론을 잘 배합한 독특한 성으로서 방어적 기능이 뛰어나다.



한국의 역사 마을(경북 안동의 하회 마을, 경북 경주의 양동 마을, 2010)
14~15세기에 조성된 한국의 전통 마을이다. 조선의 유교적 전통 사상과 건축 양식, 유교적 삶 등이 잘 계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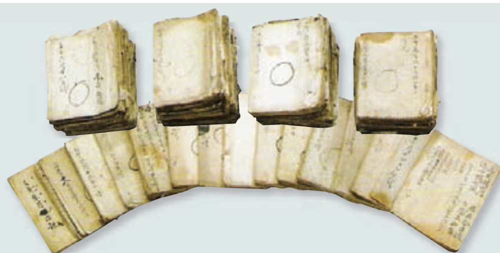
남한산성(경기 광주, 2014)
유사시 임시 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축조된 산성 도시로서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나타낸다.



유네스코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세계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류사의 특정한 시점에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경우, 전 세계 역사와 문화가 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의 삶과 업적에 관련된 기록 등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하였다.



훈민정음(서강대학교 도서관, 1997)
독창적인 문자의 창제와 그에 대한 해설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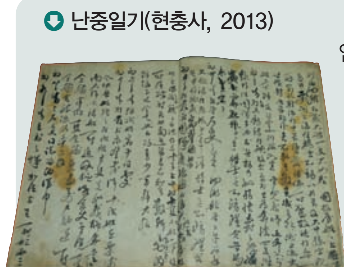


승정원일기(서울 대학교 규장각, 2001)
조선 국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의 기록으로 최대 규모의 기밀 기록이며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동의보감(국립 중앙 도서관, 2009)
1613년 허준이 편찬한 의학 서적이다. 예방 의학과 공공 보건 정책에 대한 관념을 구축하여 세계 최초의 공중 보건 의서라는 점을 인정받고 있다.

난중일기(현충사, 2013)



임진왜란 중 이순신이 매일매일의 전투 상황을 기록한 개인 일기이다. 당시의 기후나 지형,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귀중한 연구 자료이며, 문학 작품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



조선왕조실록(서울 대학교 규장각, 1997)
한 왕조의 역사 기록으로 가장 긴 시기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내용 역시 풍부하다.



조선왕조의궤(서울 대학교 규장각, 2007)
왕실의 주요 행사 및 건축 등 왕실 문화 활동에 대한 기록이 방대한 양의 그림과 글로 남아 있다. 600여 년의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희소성이 있다.



일성록(서울 대학교 규장각, 2011)
1760년부터 1910년까지 국정 전반을 기록한 왕의 일기이다. 왕이 그날의 국정을 반성하고자 집필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많지 않은 독특한 기록물이다.



한국의 유교책판(한국국학 진흥원, 2015)
조선 시대에 유학자들의 저작물들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목판으로, 총 6만 422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책판은 단 한 질만 제작되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02 성리학적 유교 사회의 성장

이 단원에서는 >> 1. 조선 시대의 신분 구조를 파악하고 각 신분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성리학의 보급과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 전기 양반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 조선의 신분 구조

왕실 종친인 근녕군 이농과 의성군 이용이 살곶이(지금의 한양대 근처)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였다. 이에 왕이 의금부에 명하여 그의 구사*에게 채찍 각 40대에 처하게 하고, 병조에 전하기를, “이후로 만약 개인 사냥을 금지하지 못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

*구사(丘史): 고위 관료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노비로 일종의 수행 비서이다.

● 종친의 잘못을 대신해서 그의 노비가 매를 맞은 까닭은 무엇일까?



평생도 중 정승 행차 장면
앞선 이들이 ‘구사’이다.

조선, 양인의 수를 확보하다

조선 초기의 신분 제도는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었다. **양인**은 법률상 자유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졌다. **천인**은 노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며 주인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었다.

고려 말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권문세족은 양인을 노비로 삼아 자신들의 농장에서 일을 시켰다. 이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세금을 낼 양인의 수가 적어 국가 운영이 어려웠다. 이에 조선은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기반이 되는 양인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태종 때에는 양인 출신 노비 수십만 명의 신분을 회복시켰으며, 인구 조사와 호패법을 실시하여 노비가 아닌 사람을 가능한 한 양인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조세와 역을 담당할 양인의 수가 고려 시대보다 크게 늘어났다.

조선에서는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을 구분하는 양천제가 유지되었다. 점차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하여 천민과 더불어 네 신분으로 정착되었다.

양인과 천인

조선 전기 관리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양인이 아니면 천인, 두 개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양인은 과거 응시와 입사가 가능하였고 승진에 있어서도 품계에 제한이 없었다.



호패(국립 중앙 박물관)
오늘날의 주민 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지녀야 했다.

양반과 중인이 나뉘다

양반은 문무반직의 현직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차츰 현직 관료뿐 아니라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신분과 가문을 의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양반 관료만이 군역을 면제받았으나 양반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까지 면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역의 의무에서 벗어난 양반은 생산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학문과 가문을 배경으로 관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과거, 음서, 천거 등으로 관직에 나아갔으며, 국가에서 과전이나 녹봉을 받아 생활하였다.



사인시음(강희언)에 보이는 양반의 모습
양반들이 나무 그늘에 가로로 길게 깐 돗자리에 앉아 시를 짓거나 책을 읽고, 손으로 수염을 비비 꼬며 시상을 가다듬고 있는 등 여러 모습이 그려져 있다.

양반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노비였다. 양반은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노비에게 경작시키거나, 농민에게 경작시킨 후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는 병작반수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노비에게 가사를 돌보게 하거나 옷감을 짜게 하는 등 일상의 잡일을 맡기고 자신은 독서를 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였다.

중인은 역관, 의관 등 기술직에 종사하던 사람들과 각 관청의 하급 관리인 서리, 지방 수령의 행정 실무를 돕는 향리 등을 말한다. 이들은 신분을 세습하였으며, 기술 교육을 받아 잡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중인은 처음에 신분 차별을 크게 받지 않았으나 양반 중심 사회가 정착되면서 중앙의 고위직에 오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향리는 고려에서 활발하게 관직에 진출하던 계층이었으나, 조선에 와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신분적 제약을 받아 지방 관청에 소속되어 수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머물렀다.

양반의 첩 소생인 **서얼**도 넓은 의미에서 중인으로 취급되었다. 이들은 법적으로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고, 간혹 무반직에 등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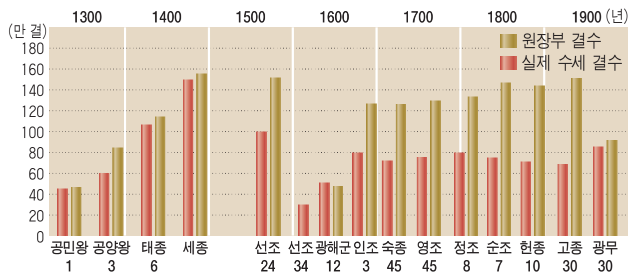
중인의 지위

- 사헌부 대사헌 채수가 아뢰었다. "어제 전지를 보니 통역관, 의관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니 듣고 놀랐습니다. …… 의관, 역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서 사족이 아닙니다."
  – "성종실록"
- 서얼의 자손은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 – "경국대전"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지배층이 늘어나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고려 시대와 달리 중인에 대한 신분적 제약이 생겨났다.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도 고려에는 없던 개념이었다.



수계도권(유숙)에 보이는 중인의 모습
중인들은 인왕산과 청계천 근처에 모여 살았으며 역관, 의관 등을 맡았다.



조선 시대 전국의 토지 면적

양전 사업의 실시로 태종, 세종 때 토지 결수가 늘어나고, 임진왜란 직전까지 150만 결 정도를 유지하였다. 당시 양인 민호를 50~60만 호로 추산한다면 매 호당 평균 3결을 보유한 셈이었다. 그러나 일반 농민 대다수는 이보다 적은 1~2결을 소유하였다.

상민과 천민, 역할과 지위가 다르다

상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을 말하며, 일반 백성이라는 뜻의 서민, 평민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상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은 대개 1~2결 정도의 땅을 소유한 자영농이거나, 타인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인으로서 전세·공납·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정부에서 세력가들의 토지 겸병과 병작 행위를 엄격히 억제하고 농업을 권장하면서 농민의 생활은 이전보다 나아졌다. 이들은 법제적으로는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생산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과거에 응시하기가 어려웠다. 공장으로 불리던 수공업자와 시전 상인 · 행상 등의 상인은 조선의 농본억상 정책으로 인해 농민보다 아래에 위치하였다. 한편 상민의 최하층으로 양인이면서도 천역에 종사하여 신량역천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신량역천(身良役賤)
수군, 조례(관청의 잡역 담당), 나장(형사 업무 담당), 일수(지방 고을 잡역), 봉수군(봉수 업무), 역졸(역에 근무), 조졸(조운 업무) 등 누구나 기피하는 천역에 종사하는 일곱 가지 부류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다. **노비**는 국가 기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로 구분되었는데, 사노비가 훨씬 많았다. 노비는 재산처럼 매매·상속되고 벼슬길에 나갈 수 없는 비자유민이었지만,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다.

공노비는 독립된 가옥에 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신공을 바쳤다. 사노비는 주인을 위해 농사와 가사 등을 맡았으며, 주인과 같은 집에서 사는 솔거 노비와 따로 나와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지정된 땅을 경작하고 수확물을 주인에게 신공으로 바쳤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나 주인이 함부로 노비에게 형벌을 내리거나 죽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노비의 경제적 가치

- 무릇 노비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사로이 몰래 사고팔았을 때는 관청에서 노비와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값이 저화 4천 장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천 장이다.
- 공노비의 경우 노비 1년의 신공은 남자 종이 면포 1필과 저화 20장, 여자 종은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이다. 이는 모두 사섬시에 납부한다.
- 면포 1필은 저화 20장에 해당하며 저화 1장은 쌀 1되에 해당한다.

–"경국대전"

노비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2013년 기준 일반미 4kg의 가격이 1만~1만 5천 원이라 할 때 쌀 1되(0.8kg)는 약 2~3천 원에 해당한다(1되=0.1말=0.01가마, 1가마=80kg). 따라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백만 원~1천 2백만 원에 해당하며 외거 노비가 바치는 신공은 약 6만 원~12만 원 정도이다. 노비가 땔나무와 식수를 조달하고 취사와 방아 찧기, 농사일 등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가치는 거래 가격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2 성리학의 보급과 발달

조선에서는 공공 교육 기관으로 중앙에는 성균관을, 지방에는 향교를 두었다. 이들 시설에는 공자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과 유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명륜당이 포함되어 있다.

● 조선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교육 기관에 대성전을 둔 까닭은 무엇일까?


전주 향교의 대성전(전북 전주)

성리학이 보급되다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 왕조를 열면서 성리학은 조선의 지배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 후 성리학은 신진 사대부들의 시각 차이에 따라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집권 세력인 정도전, 권근 등 관학파들은 성리학의 치인(治人) 측면을 받아들여 개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시하였다. 이들은 성리학 이외에 한·당 유학,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등도 수용하였다.

한편 고려 말 온건 개혁파로서 조선의 건국에 반대했던 길재 등은 향촌에 내려가 후학을 가르쳤다. 여기에서 비롯된 사학파는 성리학의 수기(修己) 측면을 강조하고, 가족 제도와 향촌 조직을 성리학의 명분론에 따라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이 향촌에 뿌리내리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그 학맥은 성종 때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림에게 계승되었다. 3사 등의 언관직을 맡은 사림은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여 그들과 대립하는 가운데 여러 번의 사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을 토대로 향촌 사회에서 꾸준히 세력을 키워 나갔다.

주례(周禮)
주의 제도를 기록한 유교 경전

훈구 세력
세조 이후의 공신들과 그 후예들로 중앙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사화
사림이 반대 세력으로부터 입은 화를 말한다.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 조광조 등의 개혁에 반발하여 일어난 기묘사화 등을 들 수 있다.

성리학이 자리 잡다

사림은 도덕성과 마음의 수양을 중시하고 이를 향촌에서 실천하고자 하였다. 사림은 성리학을 깊이 이해하고자 유교 경전을 연구하고 인간의 심성과 관련하여 이기론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중종 때 활약한 서경덕은 이(理)보다는 기(氣)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중시하였다.

이황은 주자의 이론을 조선의 현실에 반영하여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주자서절요”, “성학십도”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서경덕과 달리 이가 만물의 근본이며, 기를 이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학문은 김성일, 유성룡 등에게 이어져 영남학파를 형성하였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에 전해져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황(1501~1570)

이황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조식은 철학적 문제를 토론하기보다는 의리와 명분을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학풍의 영향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의 문하에서 곽재우, 정인홍 등 다수의 의병장이 배출되었다.

이이는 이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하여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는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사회 모순의 극복 방안으로 수미법 실시, 향약의 전국적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동호문답", "성학집요" 등이 있으며, 그의 학문은 김장생, 송시열 등에게 계승되어 기호학파를 형성하였다.

16세기에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사림은 학설과 지역에 따라 서원을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고 학문적 토론을 본격화하였다.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사림이 늘어나면서 각 학파는 **붕당**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권을 잡으려 하였다. 선조 때 이황 학파와 조식 학파, 서경덕 학파가 동인을 형성하였으며, 이이 학파와 성혼 학파가 서인을 형성하였다.

동인과 서인
선조 때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청산을 둘러싸고 철저한 개혁을 강조하는 신진 사림과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을 내세우는 기성 사림이 대립하였다. 여기에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어 김효원을 지지한 신진 세력이 동인을 형성하였고,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 사림이 서인을 형성하여 붕당이 출현하였다.

탐구 활동 이와 기를 바라보는 이황과 이이의 생각

• 자료 1 이와 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

• 천하의 사물은 반드시 각각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고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이(理)라고 한다. …… 무릇 모든 사물은 능히 그렇게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니, 이는 사물에 앞서 존재한다. – 이황, "퇴계집"

• 이가 아니면 기(氣)가 근거할 곳이 없고, 기가 아니면 이가 의거할 곳이 없다. 이미 두 개의 물건이 아닌즉, 또한 하나의 물건도 아니다. ……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나 묘하게 결합된 가운데 존재한다. 이는 이이고 기는 기이지만 혼돈 상태여서 틈이 없고 선후가 없으며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일이 없으니, 두 개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 이이, "율곡집"

• 자료 2 군주의 역할에 대한 생각의 차이

• 후세 임금들은 천명을 받아 임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고 지극히 크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는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높은 자리는 만백성이 떠받드는 자리인데 스스로 성인인 체하고 오만하고 방종하니, 마침내 어지럽게 되어 멸망하게 되는 것 또한 어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 바라옵건대 밝으신 임금께서는 이러한 이치를 깊이 살피시어, 먼저 뜻을 세워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노력하면 나도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 이황, "성학십도"

• 가만히 생각건대, 제왕의 학문은 기질(氣質)을 바꾸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질을 바꾸는 데는 병을 살펴 약을 쓰는 것이 성과를 거두고, 정성을 미루어 어진 이를 쓰는 데는 상하(上下)가 틈이 없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 이이, "성학집요"

1. 자료 1에서 이황과 이이가 각각 이와 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말해 보자.
2. 자료 2에서 이황과 이이가 생각하는 군주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3. 이황과 이이의 주장에서 보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서원과 향약, 사림의 기반이 되다

조선 정부는 성리학적 윤리를 보급하고자 집집마다 가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조상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였으며, 유교 의식에 따라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 기관을 정비하여 서울에 성균관과 4부 학당을 만들고, 지방의 부·목·군·현에 각각 향교를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시켰으며, 학생들에게는 군역을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이 향촌 사회의 유교적 교화 기능을 담당하였다.



영주 소수 서원과 편액(경북 영주)
백운동 서원은 이황의 건의로 국가의 승인을 얻어 '소수 서원'이라는 이름의 사액 서원이 되었다.

최초의 서원은 16세기 중엽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서원은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하였으며, 유생이 한자리에 모여 학문을 닦고 연구함으로써 향촌 사회를 교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사림은 서원을 중심으로 결속을 다지고 세력을 키워 나갔으며, 여론을 모아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국가에서는 **사액 서원**을 지정하여 토지와 노비, 서적을 지급하고 세금을 면해 주는 등 혜택을 주었다. 그 후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서원의 수도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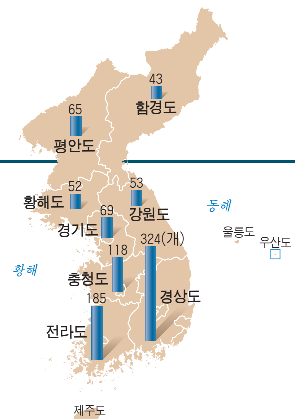
서원과 함께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고 유교 윤리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한 것은 향약이었다.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 등이 중국의 '여씨향약'을 들여와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 보급하면서 시작되었다. 향약은 전통적 공동 조직을 바탕으로 유교 윤리를 가미하여 만든 자치 규약으로서, 향촌 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질서 유지와 치안까지 담당하였다. 사림은 향약의 조직과 운영을 주도하였으며,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민도 향약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켰다. 사림은 향약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를 장악하고 그리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한 재판권까지 행사하였다. 이 때문에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보다 향촌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能變風俗者與私相作弊者詳悉報官
若報他人之事則都契長與其面契長有司著署若
報契長有司之事則只都契長僉署且相規戒以遣
行約條之意
海州鄉約
立約凡例
一初立約時以約文徧示同志擇其願操心撿身遷
善改過以參約契者若干人會于書院議定約法選
定都副約正及直月司貨
一衆推一人有齒德學術者爲都約正以有學行者
二人副之約中輪回爲直月司貨直月必以有奴僕

해주 향약
이이가 황해도 해주에서 실시한 향약이다. 덕업과 예속에 대한 100여 가지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였다.

역사 더하기 서원의 건립과 지방 문화의 발달

사족의 성장과 함께 전국적으로 발달한 서원은 대체로 교통로 근처에 세워졌다. 서원에서 선현의 제사를 지내고 그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면서 학맥이 형성되었다. 서원은 조선의 학문 발전을 자극하고 향촌 문화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학파와 당파의 결속을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서원은 자기 집안 조상의 제사를 지내거나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도 세워졌으며, 서원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사 기능만을 담당하는 사우를 세우기도 하였다.



서원, 사우의 도별 분포도

3 조선 전기의 양반 문화

양반 오희문이 쓴 일기에는 임진왜란 때 피란 장소인 강원도 평강에서 제사 지내는 내용이 1598년 1년에만 무려 28번이나 나온다.

● 양반이 일상생활에서 제사를 중시한 까닭은 무엇일까?



오희문 쇄미록(국립 진주 박물관)

문학과 예술이 발전하다

조선에서 양반이 지배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양반의 취향이나 가치관이 반영된 문화가 나타났다. 양반은 자신의 마음과 학문 세계를 표현한 산수화나 사군자 등을 그렸다.

15세기에 그려진 안견의 몽유도원도나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성리학 외에 도교와 노장사상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산수나 인물을 표현하였다. 화원 출신인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는 대각선 구도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현실 세계와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나타낸 걸작이다. 양반 관리였던 강희안이 그린 고사관수도는 간결하고 과감한 필치로 인물의 내면세계를 묘사하였다.

16세기에는 성리학을 중시한 사림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선비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사군자가 유행하였다. 이정의 대나무 그림이나 어몽룡의 매화 그림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고사관수도(국립 중앙 박물관)

역사 더하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는 '꿈속에 도원을 노닐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안평 대군의 꿈을 바탕으로 1447년에 안견이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는 안평 대군이 쓴 제목과 표제 시, 그림의 내력을 적은 발문(몽유도원기)이 앞뒤를 장식하고 있다. 여기에 김종서, 신숙주, 서거정 등 집현전을 중심으로 당대를 주름잡던 문인 20여 명에게 감상을 부탁하여 받은 글씨와 문장을 함께 덧붙였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인 몽유도원도 원본은 현재 일본 덴리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공예가 발달하였다. 고려 말에 등장한 **분청사기**는 15세기에 관 주도로 제작되어 궁중이나 관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6세기에는 세련된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분청사기의 생산이 줄어들었다. 백자는 선비의 취향에 어울리는 순백의 고상함을 지녀 양반 사대부의 사랑을 받았다.

15세기에는 조선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면서 궁궐, 관아, 성곽, 학교 등을 중심으로 건축이 발달하였다. 16세기에는 사림에 의해 지방 문화가 발달하면서 서원 건축이 활발해졌다. 가람 배치 양식과 주택 양식이 실용적으로 결합된 서원 건축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양반의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 주위의 자연과 빼어난 조화를 이룬 서원으로는 경주의 옥산 서원, 해주의 소현 서원, 안동의 도산 서원 등이 있다.


백자 항아리(국립 중앙 박물관)

조선 시대에는 한시 등 양반 중심의 한문학이 주로 발달하였으나, 한글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시조나 가사 문학 등도 발달하여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 다양해졌다.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시조는 16세기에 접어든 이후 황진이, 윤선도 등이 활약하면서 인간 본연의 감정을 드러낸 작품이 많이 나왔다. 조선에서 새롭게 발전한 가사 문학에서는 송순, 정철 등이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가 확대되다

조선 시대 양반들에 의해 성리학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명분론이 강조되고 **삼강오륜**이 기본 덕목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삼강오륜은 현실적으로 가부장적 종법 질서로 구현되어 성리학 중심의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는 윤리서의 편찬으로 이어져 15세기 세종 때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고, 16세기에는 사림에 의해 "이륜행실도" 등이 간행·보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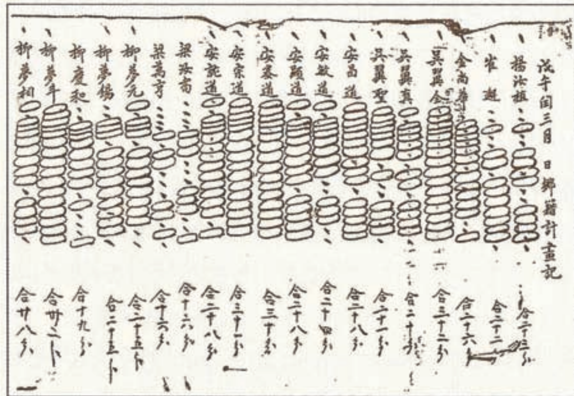
이륜행실도
16세기 중종 때 조신이 왕명에 따라 만든 윤리서이다. 유교의 기본 윤리인 오륜(五倫) 중 장유와 붕우의 윤리를 민간에 널리 가르치고자 간행되었다.

사림은 도덕과 예학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고, 가묘와 사당을 건립하였으며, 족보를 편찬하여 성리학 중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족보는 가문의 내력을 기록한 것으로, 안으로는 종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다른 집안이나 하급 신분에 대해 우월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혼인 상대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림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향약을 만들어 군현 등을 단위로 시행하였으며, 향촌 사회 양반의 명단인 향안을 작성하였다. 향안에 이름이 오른 지방 양반들은 자치 기구인 향회를 조직하여 결속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하였다.


사당(경기 고양)과 족보

역사 더하기 + **향안에 이름 올리기**



향안 등록 여부에 대한 회의 결과(전북 남원)

자료는 남원의 어느 마을에서 향안 등록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이름 위에 점이 찍힌 사람이 향안에 등록될 사람이고, 이름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와 점은 각각 찬성과 반대 표시이다. 끝에는 합산 점수가 있다.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면 지방 양반들의 모임인 향회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했다. 부모와 처 모두 양반 출신이어야 했으며, 이미 향안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왼쪽 자료처럼 개인의 인품과 행실을 토대로 투표를 거쳐 투표 참가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우리나라 교육 방법은 중국 제도를 따라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학(四學)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진실로 좋은 일이지만 서원이 설치되었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방의 큰 결점입니다. 주세붕이 처음 서원을 세울 때 세상에서는 의심하였습니다. 주세붕은 뜻을 더욱 가다듬어 많은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물리쳐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이 서원을 세우는 가르침을 동방에 일으켜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게 되도록 하는 것인가 합니다. …… 사방에서 기뻐하고 사모하여 서로 다투어서 이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선왕의 자취가 남고 향기가 뿌려져 있는 곳.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 이런 곳에는 모두 서원이 세워질 것입니다.

– "퇴계집"

1. 다음 용어의 뜻을 써 보자.

(1) 향교:

(2) 서원:

2. 위의 용어를 사용하여 조선 시대 유학을 교육한 주체와 교육 기관에 대하여 서술해 보자.

조건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서술할 것

심 화 주 제

성리학의 정착으로 여성상이 바뀌다

"소학"은 주자의 지시에 따라 그의 제자 유자징이 청소년용 교재로 편집한 것으로, 현실 생활에서 성리학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윤리 규범서이다. 조선은 건국 이후 "소학"을 암송하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등 "소학"을 매우 중시하였다. "소학"은 특히 사림의 노력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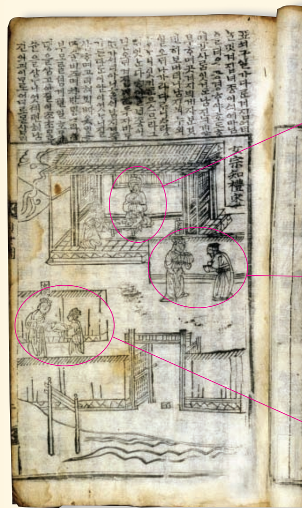
이 책에서 여성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남성에게 복종하는 존재였다. 흔히 알고 있는 삼종지도(三從之道), 즉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라는 내용과 함께 한번 혼인한 여성은 재가할 수 없다는 '일부종사(一夫從事)' 의 관념도 나온다.

"경국대전"은 이와 같은 여성관을 제도화하였고, "삼강행실도" 열녀편 목판화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희생을 제도화하고 성리학적 여성 윤리를 확대시키고자 제작되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 16년(1434)에 만들어진 것으로, 110편의 각 편마다 판화 한 점을 그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 글을 모르는 백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종 때에는 "삼강행실도" 한글 번역본이 간행되었다.

• 자료 1 소학

공자가 말씀하셨다. "부인은 …… 독단으로 판단하는 의(義)가 없고, 세 가지 따르는 도(道)가 있으니, 집(친정)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 감히 스스로 하는 일이 없다. 가르침과 명령이 규문(閨門)을 나가지 않으며 부인의 일은 음식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을 뿐이다."

• 자료 2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열녀편, 여종지례

활동 **교과서 104쪽의 내용과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말해 보자.**

03 조선의 대외 관계

이 단원에서는 >> 1. 조선과 명의 조공·책봉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양 난의 전개 과정과 영향을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3. 양 난 이후 조선의 대외 관계와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 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옛날부터 제왕(帝王)들은 국토를 개척하여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두만강을 경계(境界)로 하였으니, 하늘이 만들고 땅이 이루어 놓은 땅이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국토를 지키고, 변방 백성이 수비하는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할 뿐이다. – "세종실록"

● 세종이 이같이 말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신기전과 화차(행주 대첩 기념관)

명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다

사대교린(事大交隣)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 대등하게 교류하는 정책이다. 조선은 명에 조공을 바치는 한편, 일본과는 대등한 관계를 맺었다. 동시에 유구나 대마도, 여진의 각 부족에게 조공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국제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외교 정책이었다.

조선은 **사대교린**을 기본 방침으로 대외 정책을 전개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정도전이 요동 수복을 추진하여 한때 명과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종이 정도전 등을 제거하고 즉위한 이후 명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조선은 명의 책봉을 받고 중국의 연호와 달력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명의 국제적 권위를 인정하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내정이나 외교에 대한 간섭은 받지 않았다. 조선은 매년 여러 차례 명에 사절을 보내 종이와 붓, 인삼, 도자기 등을 조공하고 서적, 비단, 약재 등을 받아 왔다. 이러한 조공 무역으로 조선은 명의 선진 문물과 기술을 도입하는 실리를 취하였다.



책봉과 조공

일본 국왕이 박서생 등에게 말하기를, "부왕(父王)의 뜻을 이어받아 중국에 조공하고자 하나, 혹 전날의 일로 구류(拘留)를 당하지나 않을까 우려되어 청하오니, 돌아가거든 귀국 왕에게 고하여 내 뜻을 중국에 전달하게 하여 먼 곳에 있는 저희 오랑캐도 명 천자의 덕을 입게 도와주소서."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

책봉과 조공은 중국과 주변국 간에 형성된 외교 체제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동아시아 외교 체제에 편입하고자 명과 사대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조선에 요청하였다.

영토를 확장하고 여진을 회유하다

조선은 여진에 대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함으로써 국경 지역을 안정시키고 영토를 확장하려 하였다. 세종 때에는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벌여 여진을 몰아내고 **4군과 6진**을 세워 국경선을 확보하였다. 새로 확보한 지역에는 삼남 지방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고, 거주민들을 토관으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였다.



4군과 6진


야연사준도(고려 대학교 박물관)
김종서가 6진을 개척한 후 함경도에 있을 때의 일을 그린 그림이다. 부하 장수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장면과 김종서를 암살하려고 누군가 쏜 화살이 술병에 박힌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귀순한 여진족에게는 관직을 주거나 토지와 주택을 마련해 주어 조선인으로 동화시켰다. 경성과 경원에는 무역소를 열어 여진족이 가죽이나 말 등 특산물을 가지고 와서 식량과 농기구, 의류 등을 사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진족이 국경 마을을 약탈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조선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들의 근거지를 토벌하기도 하였다.

3포를 열고 일본과 교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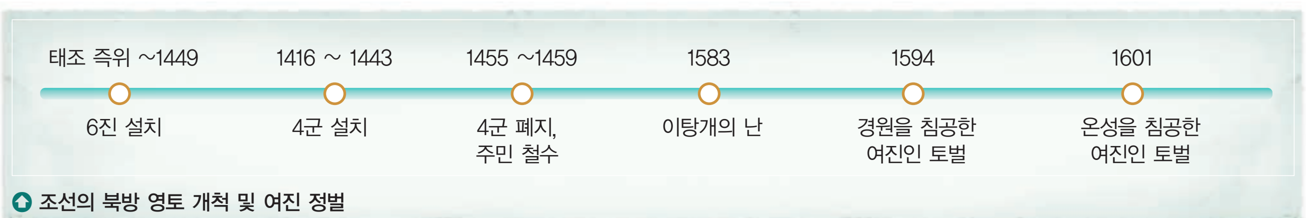
조선은 일본에 대해 교린 원칙에 따라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하였다. 화약 무기와 병선을 개량하여 고려 말부터 극성을 부리던 왜구를 격퇴하였으며, 일본 측이 무역 관계를 요청해 오자 제한된 범위에서 교역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왜구의 침탈이 근절되지 않자 대마도를 직접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다. 그 후 부산포, 제포(창원), 염포(울산)를 다시 열어 교역을 허가하였다.

조선은 일본에 식량과 의복, 면포, 서적 등을 제공하고, 구리와 유황, 물감, 향료, 약재 등 무기 원료와 기호품을 구입하였다. 이때 조선에서 일본으로 "팔만대장경" 인쇄본이 전해져 일본에서 불교가 발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교역을 허락한 후 3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일본의 교역 확대 요구도 높아졌다. 조선이 이를 강력히 통제하자 이에 반발하여 일본인들은 3포 왜란(1510), 을묘왜변(1555)과 같은 소란을 자주 일으켰다.



대마도 정벌
세종 때 이종무가 군사를 이끌고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조선의 북방 영토 개척 및 여진 정벌

유구 및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류하다

조선은 유구, 시암(타이), 자와(인도네시아) 등과도 교류하여 각종 토산품을 받아들이고, 의복이나 면포류, 문방구 등을 보냈다. 특히 유구와 활발하게 교역하였으며, 유교 경전과 불경, 범종, 불상 등을 보내 유구의 불교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6세기 이후 일본의 방해로 조선과 유구의 직접 교역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양국 사신이 명의 연경에서 만나 표류민 송환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조선과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



원감지(일본 오키나와)
유구는 조선에서 기증받은 "팔만대장경" 인쇄본을 보관하고자 1502년에 원감지(圓鑑池)라는 연못을 파고, 인공 섬인 중지도(中之島) 위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1609년 사쓰마 번의 침입으로 대장경은 소실되었다.

탐구 활동 조선과 명, 조선과 유구의 관계

자료 1 조선과 명의 관계

(태종의 즉위에 대해) 명 예부에서 자문을 보내다. "조선은 본래 예의의 나라이므로 …… 왕위를 전하거나 직위를 승계하는 일은 천리를 어기고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없거든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 주관하여 하도록 하라." – "태종실록"

"여러 주변 국가에서 온 사절들은 조공을 바치고 답례품을 받은 후 숙소 부근에서 3일이나 5일간 물품을 교역할 수 있다. 조선과 유구의 사신은 기한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 "대명회전"*

*대명회전: 명의 기본 법전

자료 2 조선과 유구의 관계

유구 국왕의 사신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자문(咨文)에 이르기를, 유구는 지난해 예물과 함께 대장경(大藏經)을 하사받았는데 사례를 하려 하나 바닷길에 익숙하지 못한 까닭으로 일본 사람 종구(宗久)를 보내어 다음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예물은 침향 40근, 목향 50근, 소목 6천 근, 화석 2천 근, 단향 2백 근, 정향 1백 근이었다. – "세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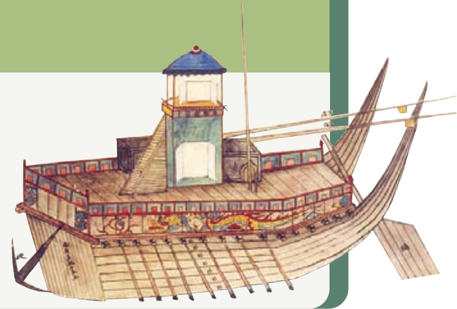
1. 자료 1을 바탕으로 조선과 명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자.
2. 조선에서 전해진 문물은 유구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해 보자.

2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임진년 이후 적이 감히 우리 서해안에 오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아직 전선 열두 척이 있으니 사력을 다하여 맞서 싸우면 될 것입니다.

– "이충무공 전서"

● 이순신이 이 같은 장계를 올린 후 벌어진 해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판옥선(각선도본, 서울 대학교 규장각)

일본의 침입을 막아 내다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하였다. 그는 지방 영주(다이묘)들의 힘을 약화하여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세력을 확장하고자 조선 침략을 추진하였다. 전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선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일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일본은 명을 공격하기 위한 길을 빌린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공하였다(임진왜란, 1592). 병력 동원 체제나 무기 성능 면에서 일본군에 뒤져 있던 조선군은 20일 만에 한양을 빼앗겼다. 선조는 개성, 평양을 거쳐 의주로 피신하고 명에 원군을 요청하는 한편, 강원도와 함경도, 전라도 지역에 왕자들을 보내 군사를 모집하게 하였다.

일본군의 침공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나 향토를 지키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공격하는 등 배후에서 적을 괴롭혔다. 일본군은 한양과 평양 등 주요 도시는 어렵지 않게 점령하였으나 의병의 저항으로 전국을 장악할 수 없었다. 또한 관군과 의병들이 합세한 진주성 싸움에서 패하여 전라도 지역을 침공하지 못하였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군 선단을 여러 차례 격파하고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바닷길을 이용하여 물자를 수송하려던 일본군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동래부순절도(육군 박물관)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에서 벌어진 전투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성을 에워싼 일본군과 이에 맞서 싸우는 조선군의 모습, 성이 함락되자 여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왓장을 던지며 항거하는 장면, 동래 부사 송상현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관복으로 갈아입고 북쪽을 향하여 예를 올리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 끝까지 싸우지 않고 북문 밖으로 달아나는 경상 좌병사 이각의 모습도 보인다.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

일본군을 몰아내다

조선의 수군과 의병이 일본군에 맞서 싸우고 관군이 전력을 정비하는 가운데, 명군이 참전하였다. 일본군은 명군의 공격으로 평양에서 밀려나고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이끄는 조선군에게 패하자, 한양을 버리고 남해안으로 철수하여 명군과 강화 교섭을 벌였다.

일본은 조선 영토의 일부를 요구하였으나 조선과 명이 응하지 않자 다시 침공하였다(**정유재란**, 1597). 이 무렵 조선은 일본군의 신무기였던 조총을 자체 제작하여 병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조·명 연합군은 직산에서 일본군을 물리쳤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명량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기세가 꺾인 일본군은 남해안으로 후퇴하였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철수하였다.

동아시아의 정세가 바뀌다

조선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의 살상,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인명이 손실되었고, 토지 대장과 호적이 대부분 사라져 국가 운영이 어려워졌다. 정부에서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명첩을 발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선의 엄격한 신분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

조선에 원병을 파견한 명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여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만주의 여진족은 이를 틈타 급속히 성장하였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가문이 몰락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열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 그림, 서적 등을 약탈하고 학자, 인쇄와 도자기 분야의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가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각국의 주요 무기

조선



천자총통과 대장군전(충남 아산 현충사)
대구경 화포인 천자총통과 무거운 화살인 대장군전은 육상보다 전함에 탑재하여 운용하기에 편리하였다. 조선 수군이 해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명


삼안총(육군 박물관)
탄환이나 짧은 화살을 세 발 연속 사격하거나 연달아 사격할 수 있는 무기로 신호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일본


조총(육군 박물관)
일본이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수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에게 큰 위협이 되었으나 조선군도 곧 이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후금이 쳐들어오다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명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요동과 만주 지역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졌다. 여진의 누르하치는 이 틈을 타 주변의 부족들을 통일하여 후금을 세우고 칸이 되었다(1616). 후금은 서쪽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명과 대립하였다. 이에 명은 군대를 동원하여 후금을 공격하고 조선에도 군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명의 요청에 따라 1만여 병력을 보내면서 도원수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행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조·명 연합군이 후금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하여 조선군의 피해를 줄였다.

이후에도 명은 후금과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으나, 광해군은 명의 요구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명과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광해군의 실리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서인 세력은 '폐모 살제'의 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웠다(**인조반정**, 1623).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은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면서 후금을 배척하였다.

후금은 명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물자를 확보하고 배후의 위협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조선을 침공하였다(**정묘호란**, 1627). 후금군은 의주와 안주를 함락하고 황해 평산까지 침입하였다. 철산 용골산성의 정봉수, 의주의 이립을 비롯한 의병들은 각지에서 후금군에 대항하였다. 의병과 관군이 합세하여 배후를 차단하자 후금은 조선에 강화를 요구하였다.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강화하였다.



호병도(김윤겸, 국립 중앙 박물관)
호란 때 조선을 침입한 청(후금) 병사들의 모습이다. 털모자를 쓰고 굽은 칼을 찼으며 키가 작은 만주 지역의 말을 이용하였다.

폐모 살제(廢母殺弟)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繼妃) 인목 대비를 서궁(西宮)에 유폐하고, 그 아들 영창 대군을 살해한 사건

탐구 활동 광해군의 외교 정책

(광해군이) 전교하였다. "적의 형세는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병력과 인심은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고상한 말과 큰소리만으로 하늘을 덮을 듯한 흉악한 적의 칼날을 막아 낼 수 있겠는가. 적들이 말을 타고 들어와 마구 짓밟는 날에 이들을 담론으로써 막아 낼 수 있겠는가. 붓으로 무찌를 수 있겠는가."

– "광해군일기"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는 모습(양수투항도, "충렬록")
조선과 명 연합군이 후금에게 대패한 후 강홍립은 조선군의 출병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통고한 후 후금에 항복하였다. 강홍립이 항복하자 후금은 국서를 보내 조선이 명에 원군을 보낸 것을 이해한다고 하였고, 광해군도 후금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답서를 보냈다.

광해군이 이 같은 전교를 내린 까닭과 그의 대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호란의 전개

청의 침략에 굴복하다

조선은 후금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인 중에 후금과의 강화로 인조반정의 명분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척화파가 나타났다. 이들은 후금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하여 온건책을 내세우는 주화파와 갈등을 빚었다.

정묘호란 이후 후금은 요서 지방과 내몽골까지 장악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1636). 청 태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조선에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조정은 척화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이다 척화론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청 태종은 10여 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한양을 점령하였다(**병자호란**, 1636).

조선 조정은 남한산성에서 고립된 채 45일간 농성하였으나, 결국 항복하고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청은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비롯하여 척화를 강경하게 주장했던 신하들을 인질로 데려갔다. 또한 수많은 사람이 청의 포로로 끌려갔다.


남한산성 남문(경기 광주)


서울 삼전도비(서울 송파)
조선이 청에 항복한 후 청의 요구로 세워졌다. 청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척화론과 주화론

- 장령 홍익한이 상소하여 적의 사신을 목 베고 결전을 준비할 것을 아뢰다. – “연려실기술”
- 최명길이 차자를 올려 하루아침에 오랑캐 기병이 달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 “인조실록”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제기되었던 척화론과 주화론을 대표하는 글이다. 홍익한은 청의 포로가 된 후에도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최명길은 조선이 청에 굴복한 후 청의 무리한 경제적·군사적 요구를 막아 내고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3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일본의) 관사에 도착하자, 관원은 물론 심부름하는 일본인과 승려들이 종이와 벼루, 먹을 가지고 와서 날마다 글과 글씨를 청하므로 어쩔 수 없이 붓을 휘둘러 써 주느라 고역을 치러야 했다. – 김지남, "동사일록"

● 일본인들이 통신사 일행에게 글과 글씨를 청한 까닭은 무엇일까?



통신사 행렬 모습(국사 편찬 위원회)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고 청에 연행사를 파견하다

임진왜란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조선은 일본과 교류를 중단하였다. 그 후 에도 막부가 국교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자 일본으로 끌려간 포로를 데려오기 위하여 다시 교류하였다. 조선이 일본과 화친을 맺은 데에는 강성해진 북방 여진족을 견제하여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조선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통신사 일행은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하여 일본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들은 일본의 역사서를 수입하고 견문록을 남겨 일본의 사정을 국내에 전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무력으로 복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청의 세력이 더욱 커짐에 따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중국을 차지한 청은 민심을 수습하여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중국의 전통문화는 물론 서양의 문물까지 수용하였다. 연행사가 쓴 기행문이나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청의 발전된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론**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부상록(국립 중앙 박물관)
광해군 때 이경직이 일본에 다녀온 뒤 쓴 기록으로 일기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을 데려오는 데 얽힌 사연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역사 더하기 한류의 원조, 통신사

에도 막부는 이전의 막부와는 달리 지방의 영주(다이묘)들을 강하게 통제하였다. 그리고 영주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고자 조선에 통신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조선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에도에 왕래하는 동안 통신사는 가는 곳마다 성대한 대접을 받았다. 이들은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로 편성되어 학문·사상·기술·예술 등 발달된 조선의 문화를 전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려 통신사의 숙소에 모여들었다.



통신사 행로



백두산정계비
1712년(숙종 38) 백두산 해발 2,200m 지점에 세웠으나, 1931년경에 사라졌다.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다

중국을 차지한 청은 그들의 본거지인 만주 지역을 성역화하여 한족의 출입을 제한하고, 매년 허가된 인원에게만 백두산 부근에서 인삼을 캐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 지역의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 인삼을 캐거나 사냥하다가 청인들과 충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에 조선과 청은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워 서쪽으로 압록강, 동쪽으로 토문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정하였다. 청과 국경을 확정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 중상류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개간지가 확대되었다. 조선 정부는 이곳에 읍을 두어 주민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였다.

삼국 시대 이래 우리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출몰하자 숙종 때 **안용복**은 이들을 몰아내고 일본과 담판하여 이곳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고 돌아왔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다. 정부는 거주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섬을 비워 두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일본 어민이 계속 침범하자 19세기 말에는 주민들의 이주를 장려하고 군을 설치하였으며 관리를 파견하여 독도까지 관할하도록 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병자·정축의 일로 말하면 하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 금수에게 치욕을 당한 것이었는데, 그때 인조 대왕께서는 종묘사직과 만백성을 위해 한번 죽고 싶은 것도 참고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 임진년의 왜란으로 팔도 백성들이 도마 위의 고기 신세가 되었을 때에 명 신종께서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구출하여 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 우리나라는 정예한 병력과 화포가 있으니 군대를 더 선발하고 무기를 갖춘 후 노련한 장수를 임명하여 북으로 연경을 향해 진군하면 그들을 정벌할 수 있습니다.
– 윤휴, "갑인봉사소"

(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물어야 한다. …… 만일 배우려 한다면 중국을 두고 어디에 묻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은 오랑캐들이다."라고 하면서 배우기를 꺼려하며, 중국의 옛 법마저 다 함께 얕잡아 무시해 버린다. ……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여 한 치도 나은 점이 없다. 그럼에도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중국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제도마저 배척해 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장차 어디에서 본받아 행하겠는가.
– 박지원, "북학의" 서문

1. 다음 용어의 뜻을 써 보자.

(1) 북벌:

(2) 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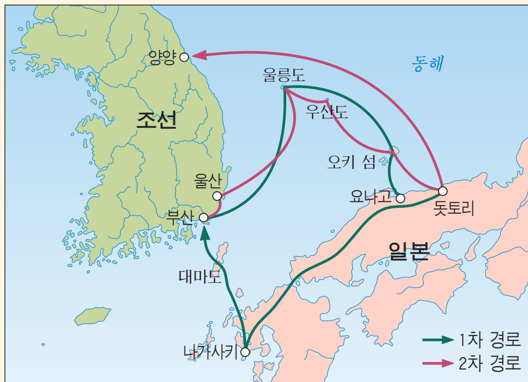
2. (가), (나)에 나타난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서술해 보자.

조건 시대적 배경을 포함하여 쓸 것

심 화 주 제

조선 후기의 영토 수호 활동

자료 1 안용복의 독도 수호 활동



안용복의 활동 경로

숙종 때 안용복은 에도 막부에게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고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 왔다. 에도 막부는 1696년에 지방 영주들에게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일본인들의 출어를 엄금한다."라고 명령하였다.

자료 2 조선 후기 북방 지역의 발전

조선은 세종 때 4군 6진을 설치하였으나 1455년부터 1459년에 걸쳐 4군을 폐지하고 주민을 철수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은 폐4군이라 불리었다. 양 난 이후 조선은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면서 북방 지역 영토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1684년(숙종 10)에 함경도 무산에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후에는 적극적으로 북방 지역을 개발하여 1787년(정조 11)에 개마고원 일대에 장진부를 세우고, 1823년(순조 23)에는 압록강 상류 지역에 후주부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1869년(고종 6)에는 자성군과 후창군을 세워 폐4군 지역의 행정 구역을 완전히 복구하였다.



폐4군 복구

활동 1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알려 주는 다른 시대의 자료를 조사해 보자.

활동 2 조선 후기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에 행정 구역이 설치된 의미를 말해 보자.

04 조선 후기 정치와 제도의 변화

이 단원에서는 >> 1. 붕당 정치에서 세도 정치까지의 정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2. 제도 개혁과 체제 정비 노력의 영향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3. 세도 정치의 폐단과 농민층의 저항을 설명할 수 있다.

1 조선 후기의 정치

나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무리와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당습에 어긋날까 염려하니 이것이 어찌 충효이겠는가. …… 탕평하는 것은 공이요, 당에 물드는 것은 사인데 여러 신하는 공을 하겠는가, 사를 하겠는가. – "영조실록"

● 영조가 이러한 교서를 내린 까닭은 무엇일까?


영조(1694~1776)

붕당 정치가 예송으로 이어지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은 한 정파가 정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던 광해군 시기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남인을 정권에 참여시켰다. 또 정책이나 인사를 결정할 때 일반 재야 사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서인과 남인은 정치사상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협력하였다. 이러한 붕당 연합 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양반 사대부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공론에 입각한 정국 운영이 이루어졌다.

소현 세자를 대신하여 즉위한 효종은 청에 대한 복수를 내세우면서 재야 서인 송시열과 송준길 등을 중용하고, 허목과 윤선도 등 저명한 남인 인사도 등용하여 붕당 간 조화를 유지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대동법이 확대 실시되고, 북벌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 두 차례 **예송**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의 붕당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숙종 때에는 당파 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허목(1595~1682)
남인의 핵심 인물로 1차 예송에서 송시열로 대표되는 서인과 논쟁을 벌였다. 1차 예송에서 서인이 승리함에 따라 좌천되었으나, 2차 예송에서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우의정까지 올랐다.

서인의 집권 원칙, 물실 국혼 · 숭용 산림

"당의통략"에 있는 물실 국혼, 숭용 산림은 인조반정 성공 후 반정 주도 세력들이 정한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서인 세력 중에서 왕비를 내어 왕실과 밀착된 권력을 유지하고, 명망 있는 재야 산림을 중용하여 공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한두 번 외에는 모두 서인 집안에서 왕비가 나왔고 조선 후기 정국에서 산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두 원칙은 서인이 집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환국이 일어나다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여 득세한 가운데 즉위한 숙종은 집권 당파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그는 붕당 간 연합이나 공존보다는 국왕이 중심이 되어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환국이 일어났다.

환국(換局)
집권 세력이 급격히 교체되는 상황을 말한다.

숙종은 즉위 초에 남인의 윤휴 등이 북벌론을 제기하며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력을 넓혀 가자 이들을 몰아내고 서인 중심의 정권을 세웠다(경신환국). 정권을 잡은 서인은 정국 운영 방식을 두고 분열하여 송시열 중심의 노론과 윤증을 영수로 하는 소론으로 나뉘었다. 노론은 북벌론의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민생 안정을 강조하였고, 소론은 실용 지식과 행정 실무를 중시하면서 적극적인 북방 개척과 국방 강화를 추진하였다.


송시열(1607~1689)
노론 중심의 정국 운영을 주도하며 반대 세력을 사문난적이라 비판하였다. 노론의 정신적 지주로 인정되어 정조 때 그의 문집이 "송자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노론이 정국을 이끌어 가던 중 숙종은 남인계 후궁인 장희빈이 낳은 왕자(경종)를 세자로 책봉할 것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론 세력을 몰아내고 남인 정권을 성립시켰다(기사환국). 그러나 숙종은 5년 후 장희빈을 내치면서 다시 남인을 쫓아내고 노론 정권을 회복시켰다(갑술환국).

갑술환국으로 남인은 집권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이후 노론과 소론이 연합한 가운데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에 소론은 일부 남인과 합세하여 세력을 만회하려 하였다.

경종이 즉위하자 노론은 그가 병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복동생 연잉군(후에 영조)을 세제로 책봉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론은 이를 빌미로 노론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몰아 제거하였다(신임사화). 이후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의 보복을 우려한 일부 소론 세력이 경종의 사망에 영조가 간여되어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이인좌의 난, 1728).

역사 더하기 + 예송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하자 효종의 계모인 자의 대비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였다.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 세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었을 때 자의 대비는 3년간 상복을 입은 바 있었다. 서인들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므로 "주자가례"를 따라 1년간 상복을 입으면 된다고 하였고, 남인들은 효종이 국왕이었으므로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차 예송).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에도 서인들은 둘째 며느리를 위한 소공(9개월 복상)을 주장하였고, 남인들은 왕비를 위한 대공(1년 복상)을 내세웠다(2차 예송).

예송은 단순한 복상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천하의 예는 같다고 주장하며 신하의 위상을 강조한 서인과 왕의 예는 일반 사대부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국왕의 권위를 중요시한 남인의 정치적 입장이 충돌한 것이었다.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탕평을 추진하다

탕평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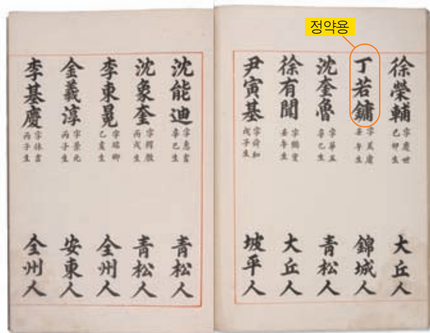
상언
백성이 사사로운 일로 국왕에게 직접 글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격쟁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 길가에서 징을 쳐서 주의를 환기시킨 후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아뢰는 것이다. 궁 밖 행차가 잦았던 영조와 정조 시기에 많이 이루어졌다.

붕당 간의 세력 다툼이 왕위 계승 문제 및 왕권의 정통성까지 위협하자 영조는 탕평론을 내세우면서 국왕 중심의 정국 운영을 시도하였다. 붕당의 배후 세력인 재야 산림의 공론을 인정하지 않고 그 근거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으며, 이조 전랑이 자신의 후임과 3사의 관리들을 추천하던 관행을 폐지하였다.

영조는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고 궁 밖에 자주 행차하였으며 상언과 격쟁을 널리 허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균역법**을 실시하여 군역의 부담을 줄였으며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엄격히 시행하였다. 이와 아울러 “속대전”과 “여지도서”를 편찬하여 양 난 이후 변화된 사회 체제에 맞는 제도 개혁을 이루어 나갔다.

영조의 손자 정조는 영조의 탕평 정치를 계승 발전시켜 국왕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정조는 영조 때 득세하던 외척 세력들을 제거하고 소론과 남인 계열 등 그동안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인사들을 중용하였다. 또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초계문신제를 실시하고 **규장각**에 신진 인사들을 등용하였다.



초계문신제명록(서울 대학교 규장각)
정조는 초계문신제로 젊은 문신들을 선발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계문신제명록”은 초계문신으로 뽑힌 사람들을 적은 명단으로 오른쪽 상단에 정약용이 보인다.

정조는 장용영을 설치하여 강력한 친위 부대로 길렀으며, 수원에 화성을 세워 개혁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신도시로 육성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수원에 행차하면서 국왕의 위상을 보이고 민생에 관한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 하였다.

한편 정조는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사상들이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사족들의 향촌 지배력을 억제하였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책으로 붕당 간 대립이 완화되고 국왕이 주도하는 정치 구도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는 국왕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으며 인사 제도나 권력 구조를 체계화한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국왕과 측근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고, 국왕의 권위가 약해졌을 때에는 외척 세도 정권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영조의 상언 수렴

왕이 과거 시험장에 임하였을 때에 어떤 여인이 남자 옷을 입고 들어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였다. 형조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아뢰자 왕이 하교하기를 “아, 김 소사가 만약 피에 사무치는 억울함이 없었으면 어찌 손가락을 잘라 피로 글씨를 썼겠는가? …… 방자한 뜻으로 법을 업신여긴 관리들을 처벌하고 관련자를 정배하도록 하라. 그리고 김 소사에게는 쌀을 주어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영조실록”

부녀자의 하소연을 들은 영조가 관리들에게 상세히 조사하도록 명하고 잘못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례이다.

2 양 난 이후의 제도 변화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훈련도감을 별도로 설치하여 화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두어 달 훈련시킨 결과 기량이 늘어서 명의 정예 병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으니 군량 조달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였다. - "선조실록"

● 훈련도감에는 어떤 군인들이 속해 있었을까?



김홍도의 '북일영도'에 나타난 훈련도감의 군영 (고려 대학교 박물관)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되다

비변사는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임시 기구였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외교, 재정, 사회 전반은 물론 고위 관리의 인사 문제까지 관할하였다. 이에 의정부와 6조는 비변사에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기구로 위상이 낮아졌다. 의정부의 3정승은 비변사에서 협의된 내용을 왕에게 알리는 처지가 되었고 전국 8도의 업무는 지역별로 구관당상이 도맡아 처리하였다.

비변사 회의에는 정승과 판서, 화성 유수와 대제학, 각 군영의 대장 등 고위 관리가 참여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고위 당상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핵심 인사들이 비변사에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무 사항을 논의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권위가 낮아지고 지역별·행정 부서별 현안이 무시되었으며, 권력을 장악한 붕당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구관당상
비변사의 고위 관원들 중에 각 도의 관찰사를 역임하는 등 지역 사정에 정통한 관리가 겸하는 직책이다. 8명의 당상이 전국 8도를 하나씩 맡아 해당 지역에서 올라오는 관찰사나 병사 등의 보고서를 우선 처리하였다.

5군영이 만들어지다

임진왜란 중에 조총을 주로 사용하는 일본군에 맞서고자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 훈련도감은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상비 부대로서 삼수병 체제로 조직되었다. 이어서 후금과 전쟁을 치르면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이 신설되고 숙종 때에는 금위영이 세워져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훈련도감은 수도를 방위하는 핵심 부대였으며, 어영청과 금위영은 도성 수비를 맡았다. 총융청과 수어청은 각각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수도 외곽을 방어하였다.

지방에는 양반을 비롯한 양인과 천민을 모두 포함한 **속오군**을 편성하였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어 전투에 동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속오군을 훈련시키고 관리하고자 수령과는 별개로 영장을 파견하여 여러 읍의 속오군을 함께 관할하게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은 속오군을 기피하였다.

삼수병
조총을 주로 사용하는 포수와 활을 쏘는 사수, 칼과 창을 쓰는 살수를 가리킨다. 조총은 정확도가 높은 반면 장전 시간이 오래 걸렸으므로 포수가 조총을 사격한 후 사수가 화살을 쏘아 적의 접근을 막았고, 근접전이 벌어질 경우 살수가 나서도록 병종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대동법의 확산
정부는 1608년에 선혜청을 설치하여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하고 1708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하였다.

영정법을 시행하다

조선은 두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토지 대장이 소실되고 토지가 황폐해져 재정 수입이 크게 줄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취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영정법을 실시하여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6두씩**을 내게 하였다. 영정법의 시행으로 국가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삼수미를 비롯한 각종 부가세가 새로 더해져 농민의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대동법을 실시하다

지방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는 공납은 초기부터 방납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폐단이 많아져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임진왜란 후에는 현물 징수 자체가 어려워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은 현물 대신 집집마다 토지 1결당 쌀 12두 혹은 베나 무명, 동전 등을 거두어들인 것으로서,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방납 관련자들과 지주층이 강하게 반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공인(貢人)
납품가를 미리 받아 물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대상인으로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주역이 된 대표적인 상인이다.

대동법 실시로 선혜청에서 **공인**이라는 특허 상인에게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독점적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공인들은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고 화폐 유통이 활발해졌으며, 공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는 수공업도 발달하였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진상, 별공 등 현물 납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농민의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으며 국가 재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탐구 활동 대동법

우의정 김육이 아뢰다. "백성이 편안한 연후에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 대동법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 다만 교활한 아전은 명목이 간단함을 싫어하고 모리배들은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삼남에는 부호가 많은데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으나 국가에서 법령을 시행할 때에는 마땅히 소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대동법을 시행하면 대호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소민이 원망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원망이 더 큰가?"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소민의 원망이 큽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대소를 참작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 "효종실록"



김육(1580~1658)

대동법 시행에 반대한 사람들과 그 까닭을 발표해 보자.

균역법을 시행하다

훈련도감을 비롯한 중앙 5군영은 모병제로 운영되었으나 군영의 운영 비용은 양인이 바치는 군포로 충당하였다. 군포는 양인 장정 1명이 16개월마다 포 2필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국가는 양인 장정의 수와 징수할 군포의 양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마을 단위로 부과하였다. 징수 기관도 통일되지 않아 중앙 군영은 물론 각 지방의 감영과 병영에서도 군포를 받아 재정에 충당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양인들은 규정보다 많은 군포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담을 견디지 못한 양인들은 도망하거나 양반이 되려 하였으며 스스로 천인이 되기도 하였다. 남은 양인들은 도망한 이웃이나 친족은 물론, 양반이 되거나 천인이 되어 면제받은 이들의 군포도 대신 내야만 하였다.

영조 때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역의 종류와 배정된 양인의 수를 조사하여 "양역실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양인 **1명당 1년에 1필**씩 내도록 부담을 조정하였다. 국가는 균역법 시행으로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고자 지주에게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1결당 쌀 2두를 부과하였고, 각 아문이나 궁방의 수입이던 어세·염세·선세를 거두어들였다. 또 군역을 면제받던 상층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포 1필을 받았다.

균역법이 실시됨에 따라 국가의 수입은 줄지 않으면서 농민의 부담은 일부 경감되었다. 그러나 균역법을 시행하기 전에 재정 수입을 감안하여 양인의 수를 미리 늘려 잡았고, 지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결작을 소작인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또 국가에 재원을 빼앗긴 지방 관청은 각종 무명잡세를 신설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였다. 이 때문에 군역의 폐단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삼정 문란의 주요한 일부가 되었다.



양역실총(서울 대학교 규장각)
각 읍에 배정된 양역의 종류와 담당 인원수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한 책으로 균역법 시행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궁방
왕자, 대군, 공주, 옹주 등의 집을 말한다. 국가에서는 이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각종 이권을 부여하였다.



선무군관의 불만

영조 27년 4월 28일 을미

충청도 관찰사 이익보가 상서하다. "선무군관은 국가의 법령에 따라 뽑아 정원을 채우고 이들에게 과거 응시를 허락하여 무반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문관도 아니고 무관도 아니며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니며 농사짓는 이들도 있고 장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사대부의 의관을 모방하여 군역을 모면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관이라는 명칭을 주어 군포를 거두니 일반 정군이나 보인과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모면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 "영조실록"

선무군관은 양인 신분이면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령이나 향리들과 결탁하여 향촌에서 사대부로 행세하면서 군역을 피하고 있었다. 국가는 이들에게 무반 명목을 주고 군포를 내도록 하였다. 일반 양인과 마찬가지로 군포를 부담하게 되자, 이들은 신분 상승 노력을 계속하였다.

3 세도 정치에 대한 비판과 저항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운다. 무릇 관서는 기자와 단군 시조의 옛터로서 벼슬아치가 많이 나오고 문물이 발전한 곳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버림이 더러운 흙과 다름없다.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신들의 간악한 짓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김조순·박종경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각 주 군현의 고을 원에게 보내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 "동국전란사"

- 홍경래는 왜 이러한 주장을 하였을까?



홍경래군과 관군의 전투를 그린 순무영진도(서울 대학교 규장각)

세도 정치가 나타나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는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붕당 간의 대립을 억누르고 정국의 안정을 가져왔으나 집중된 권력을 제도화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순조 때부터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 외척 세도 가문이 정국을 이끌었다.

11세에 즉위한 순조는 이미 정조가 정한 노론 명문가 김조순의 딸을 비로 맞이하였다. 이후 안동 김씨 가문이 정사에 깊이 간여하였다. 헌종이 즉위하자 풍양 조씨 가문이 잠시 득세하였다. 그러나 헌종의 비가 안동 김씨 집안에서 간택되었고, 뒤이어 철종의 비도 안동 김씨 집안에서 들이면서 안동 김씨 집안의 세도가 오래 유지되었다.



김조순(1765~1832)

세도 정치의 폐단이 심해지다

세도 정치 시기에는 서울 지역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정권에 참여해 오던 유력한 집안 출신들이 혈연관계를 맺으며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중국 등 국외에서 들어오는 최신 문물과 정보를 접하여 북학론을 내세우는 등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도 밝았다. 그러나 소수 가문을 제외한 남인, 소론, 지방 사족들은 권력에서 배제되었다. 새롭게 성장하는 상인, 부농층 역시 집권층에 포함되지 못하고 수탈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소수의 세도 가문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언론의 정책 비판이나 견제 기능은 마비되었고 붕당의 의미는 퇴색하였다. 또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과거 시험에서 부정이 성행하였으며 관원들의 부패가 일반화되었다.

재야의 공론은 정치 문제를 비판하지 못하고 세도 가문의 위상이나 세도가 개인의 업적을 숭앙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촌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면서 향리나 향임들을 이용하여 부세를 거두어들였으나 지위가 낮아진 사족층은 이를 견제하지 못하였다.



세도 정치기 왕위 계승 및 왕실의 혼인 관계

삼정 문란이 극심해지다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관리들이 부패하면서 광범위한 착취와 수탈이 이루어졌다. 특히 전정, 군역, 환곡 등 수취 체제가 어지러웠는데, 이를 삼정 문란이라 하였다.

농민들은 규정의 여러 배에 이르는 **토지세**를 부담하였다. 세력이 있는 이들은 향리와 결탁하여 세를 면제받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비총제라 하여 마을 단위로 세액의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농민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군포의 경우 규정상 장정 1인당 1년에 1필만 납부하면 되었으나, 이미 양인 장정의 수를 늘려 놓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이보다 컸다. 양인으로 남아 있는 백성에게는 신분을 위조하거나 도망한 사람들이 내야 할 군포까지 징수하였다. 더불어 인징과 족징 등 기존의 폐단이 여전하였으며, 군역을 질 수 없는 남자 어린아이까지 군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였다.

지방 수령과 향리들은 **환곡**의 이자에 각종 가산세를 더 물려 고리대처럼 운영하였다. 중앙 정부에서도 재정이 필요하면 돈이나 곡식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환곡으로 운영하였다. 환곡이 중요한 재원이 되자 필요 이상의 곡물을 억지로 떠맡기거나 유사시에 대비하여 남겨 두어야 하는 곡식까지 더 대여하였다. 이뿐 아니라 곡물의 양을 줄여 규정보다 적게 대여하고 거둘 때에는 규정대로 받아 내는 등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만연하였다. 곡물을 실제 대여해 주지도 않고 이자만 납부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수령의 청렴을 강조하고 암행어사를 여러 차례 파견하여 부정을 단속하려 하였다. 그러나 세도 가문의 주요 인사들과 지방 수령들이 중층적 수탈 구조를 이루고 있어 근본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에 대한 세금
토지 1결에 대한 세금은 규정대로라면 전세 4두, 대동미 12두, 결작 2두, 삼수미 2.2두 등 모두 20.2두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송비, 문서 처리 비용, 향리 수고비 등이 덧붙여져 원래 부담액의 몇 배에 달하였다.

비총제
한 마을의 토지를 기준으로 마을 전체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총액으로 정하여 일괄 부과하는 방식이다.



삼정 문란

백성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벌레가 먹고 서리를 맞아 한 톨도 거두지 못했더라도 재상(災傷)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다. 백성이 뇌물만 주면 자색(紫色) 이삭과 붉은 낟알이 100경의 넓은 땅에서 익어 가도 재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 체납된 묵은 환곡을 탕감하는 것, 대동미의 징수를 정지하거나 연기하는 것, 재상된 전결에 조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나라에서는 손실이 있으나 백성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 체납된 묵은 환곡을 징수하는 것을 정지 또는 연기하라는 윤음(綸音)이 내려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으나, 조금의 혜택도 촌민(村民)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대개 정지 또는 연기할 때에 오직 간활한 아전이 사사로이 써 버린 것만이 정지 또는 연기되고, 촌민에 이르러서는 비록 유망하여 호(戶)가 끊어져 지목하여 징수할 곳이 없는데도, 이웃에 징수하고 그 친족들에게 징수하기를 성화(星火)처럼 급하게 할 따름이다. – 정약용, "경세유표"

중앙 정부는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흉년이 들었을 때 세를 면제해 주고 대동미를 징수하지 않거나 오래 갚지 못한 환곡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나 중간 수탈층의 부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 수령이나 아전만 이익을 취할 뿐 백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세도 정치에 불만을 품다

정치 기강의 해이와 삼정 문란으로 가장 고통을 받은 계층은 가난한 농민이었다. 수탈을 이기지 못한 농민들은 유민이 되거나 광산의 임노동자가 되었다. 또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치권 내에서도 세도 정치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순조는 안동 김씨의 전횡을 견제하고자 효명 세자의 빈으로 조만영의 딸을 간택하고, 세자에게 대리 서무를 시켜 유력 가문 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효명 세자의 죽음으로 개혁은 실패하였으며, 세도 가문의 전횡이 더욱 심해지고 상대적으로 국왕의 지위는 약해졌다.

대리 서무
왕이 재위 중에 세자의 국정 운영 능력을 키우고자 왕 대신 정사를 처리하도록 임시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상인이나 부농 등 새로 성장하고 있던 계층은 능력에 걸맞은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몰락한 양반이나 잔반들은 정치권력에서 배제된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지역 차별 문제도 컸다. 평안도나 함경도 출신은 과거에 급제하기도 어려웠지만 급제해도 승진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세도 정치 시기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으나 이 시기에 더욱 심해졌다. 실학자들도 세도 정치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농민들이 봉기하다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의 불만은 점차 높아졌다. 농민들은 벽서, 괘서의 형태로 소극적으로 저항하다 세금 납부 거부, 항의 시위, 관리나 향리 폭행 등의 방법으로 항거하였다. 농민의 저항은 결국 집단 봉기로 발전하였다.

집단 봉기가 먼저 일어난 곳은 평안도였다. 평안도는 대청 무역의 경로에 있어 상인층이 성장하였고 광업으로 부를 쌓은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평안도를 수탈의 대상으로만 여겼을 뿐 주민들이 바라는 인재 등용의 길은 가로막고 있었다.

1811년에 **홍경래**가 평안도의 상인과 향임층, 무반, 광산 노동자 등과 합세하여 난을 일으켰다. 가산에서 봉기한 이들은 선천과 곽산 등 청천강 이북의 주요 고을을 손쉽게 점령하였다. 그러나 주요 거점인 의주나 안주를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전멸되었다.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수취 체제의 모순은 시정되지 않았고 사회



수령의 부민층 수탈

관서 지방에 부유한 이가 많은데 수령은 이들을 잡아들여 불효하였으니 공손하지 못하느니 하는 죄목을 씌워 가두고 뇌물을 받고야 풀어 주는데 뇌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득 악형을 가하기도 한다.
– 성해응, "연경재총서"

세도 정치 시기 지방 수령은 일반 백성이 과도한 부세와 수탈을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 경제력이 있는 부유한 계층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는 여전히 불안하였다. 이에 크고 작은 농민 봉기가 계속 이어졌다.

19세기 후반에는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가혹한 수탈에 불만을 품은 농민과 부민들이 소청 운동을 주도하고 향반이나 잔반이 이에 합세하였다. 이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수령이나 지주, 고리대금업자 등을 공격하였다. 철종 말년에 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저항하여 일어난 진주 농민 봉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를 계기로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임술 농민 봉기**, 1862).

이에 정부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하여 조사하는 한편, 봉기의 원인이 삼정 문란에 있음을 파악하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였다.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중단원 마무리

(가), (나)를 읽고 당시 정부에서 파악한 농민 봉기의 원인과 대책을 서술해 보자.

(가)	(나)
(가) 진주 안핵사 박규수가 상소하여 아뢰기를 "난민(亂民)들이 일어난 것은 삼정(三政)이 모두 문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환곡의 폐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번번이 탕감할 수는 없으며, 특별히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먼저 한 도에 시험하여 보고 전국에 행할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 "철종실록"	(나) 전세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전이 급선무이나 일이 아주 커서 급작스럽게 할 수가 없다. ……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읍의 대소와 호의 다과를 헤아려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부담이 고르지 못한 문제가 있다. 군액이 많은 곳에서 덜어 내어 호수는 많으나 군액이 많지 않은 읍에 옮기도록 한다. …… 환곡의 폐단 중 백징의 문제가 가장 크니 백성의 어려움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명목만 남은 곡식을 모두 탕감하고 실제 수량에 따라 장부를 정리하라. – "일성록"

조건 대책의 한계를 언급할 것

05 근대 사회를 향한 움직임

이 단원에서는 >> 1. 조선 후기 경제적 변화 양상을 양 난 이후 국가 재건 과정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다.
2. 양 난 이후 대외 교류의 변동을 국제 정세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을 사회 · 경제적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1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

금령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이익을 위해 모내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가뭄이 들면 그만 농사를 망치게 되니 안타깝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 도에 엄히 신칙해야(타일러 경계해야) 합니다.
– "정조실록"

● 정부가 금령을 내렸음에도 농민들이 모내기를 열심히 한 까닭은 무엇일까?


경직도(작자 미상, 독일 게르트루트 클라센)

모내기가 널리 퍼지다

양 난 후 농민들은 모내기를 비롯한 새로운 농사법을 적극 도입하였고 농기구와 시비법을 개량하였다. 현종 때에는 제언사가 설치되어 국가의 지원 아래 수리 시설이 관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제언과 보, 저수지 등이 신설되거나 보수되었다. 18세기 말에는 전국적으로 저수지가 6천여 개소에 이르렀다.

모내기의 도입으로 김매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들고 생산력이 높아졌으며,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해져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광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광작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 대동법이 시행되어 쌀을 생산하기 위한 경작지가 확대되었다. 농민들도 개간이나 매입을 통해 자작지나 소작지를 늘려 갔으나, 대지주가 소유한 토지 규모가 더욱 증가하였다. 왕실에서는 바닷가의 갈대밭을 불하받아 개간하거나 민전을 사들여 궁방전을 경영하였으며, 관료들은 산지를 개간하거나 매입하여 소유지를 늘려 갔다. 지방 양반들도 생활 기반을 확보하고자 개간을 장려하고 토지를 사들였다. 강화도 등 서해안 일대의 간척 사업도 널리 진행되어 농경지가 확대되었다.

광작
한 사람의 경작 면적이 늘어나자 소작인을 시켜 경작하던 지주는 직접 농사짓거나 머슴을 써서 경작하였고, 일부 소작인들도 더 많은 소작지를 경작하였다. 이 때문에 영세한 소작농들은 소작지를 얻기 어려워 몰락하기도 하였다.



강화도의 간척
강화도의 간척지는 갯벌을 논으로 만든 것이었으며, 고려 시대부터 조선 후기를 거쳐 20세기 초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상품 작물과 구황 작물을 재배하다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에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목화, 담배, 채소, 약재와 인삼 등을 많이 심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작물은 인삼과 담배였다.

18세기에 재배법이 개발된 인삼은 청과 일본에서 수요가 높아 경기 개성과 삼남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었다. 기호품 혹은 약재로 취급되던 담배 역시 전국적으로 재배되었다.

농민들은 고구마와 감자 등 기근에 대비한 구황 작물도 많이 심었다. 고구마는 1764년에 일본에 다녀온 조엄이 가져와 널리 퍼졌고, 감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청에 전래된 것이 다시 들어왔다.


김홍도의 '담배 썰기'(국립 중앙 박물관)

민영 수공업과 광업이 발달하다

상품 경제의 발달로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에 주문 생산이 아닌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생산이 활발해졌다.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등장한 공인들은 국가 기관에서 미리 받은 공가의 일부를 장인들에게 지급하여 생산품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관청에 납품한 나머지 물품은 시장에 판매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확산되자 국가 기관에 동원되어 관청 수요품을 생산하던 관영 수공업이 줄고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장인**들은 국가에 세금만 납부하면 자유롭게 물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국가에서는 대규모 건축 사업이 있거나 중요 행사에 많은 물품이 필요할 경우 장인들을 동원하는 대신 **임금을 주어 고용**하였다.


대표적인 가내 수공업인 길쌈과 민영 수공업인 대장간의 모습(김홍도, 국립 중앙 박물관)
조선 후기에는 관영 수공업 대신 민영 수공업이 활기를 띠었다. 민간에서는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


許靑龍 金學龍 洪化釆 金應
璧 金履海 李羅金 萬宗之金
以上六百四十二名
木手
京丁福龍 權成文
金成仁
楊世得 全厚昌 金億世 金得興
李德世 朴福東 金點同 李遇春
李纘宗 楊之興 韓天碩
金光福 李世大 李貴才
李光佑 李三辰 金福尚 權德龍
金喆良 安光福 安成大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장인들의 명단(서울 대학교 규장각)
장인들의 이름과 노동 일수 및 작업 장소를 기록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였다.

18세기 초까지 수공업 생산 방식으로 **선대제**가 유행하였다. 자본이 풍부한 공인이나 대상인들은 물주가 되어 작업장 규모가 작은 영세 수공업자들에게 자금을 미리 지불하고 생산된 제품을 독점하였다. 또한 장인들을 직접 고용하여 제품을 만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는 자기 자본을 이용하여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한 후 직접 판매하는 수공업자들이 늘어났다. 이들이 생산한 제품은 시장권이 통합되어 수요가 커지면서 보부상을 통해 전국의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전문 수공업자들은 작업 공정에 따라 원료 가공에서 제품 완성까지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모인 곳을 점촌이라 하였는데 경기 안성과 평안 정주 등 놋그릇 생산지가 유명하였다.

조세나 소작료가 금납화되면서 농촌 수공업도 자급자족을 위한 부업에서 시장 판매를 위한 것으로 변하였다. 군포 납부를 위한 포목과 나무 그릇, 대나무나 왕골 제품 등이 주로 생산되었다.

광업 분야는 조선 초기 이래 국가가 독점하였으나 17세기 중엽부터 개인에게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받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개인이 경영하는 광산은 특히 은광이 많았는데 당시 대청 무역의 중요한 결제 수단이 은이었기 때문이다. 17세기 말부터 일본에서 들어오는 은이 줄어들면서 광산 개발은 더욱 촉진되었다.

광산으로 농민이 몰려들자 정부에서는 세율을 높이고 공개적인 채굴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상업 자본이 사금 채취에 투입되어 금광 개발이 추진되었고 관청의 눈을 피해 몰래 채취하는 잠채도 성행하였다.

광산을 개발하려면 많은 인력을 집중적으로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상인이 물주가 되어 **덕대**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덕대는 채굴업자와 노동자를 고용하여 광물을 캤으며 제련 과정까지 주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의 수공업과 광업

안성의 놋그릇(안성맞춤 박물관)

덕대
광산 주인과 계약을 맺고 광산을 맡아 광부들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람

사료 쏙!쏙! 광산 개발의 부작용

전 평안 감사 이성원이 아뢰기를 "평안도 곳곳에서 금을 캐는데 심하면 남의 산을 침범하고 남의 밭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백성들도 태반이 금광에 몰려드니 평안도 농사가 근년에 잘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각별히 금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정조실록"

당시 정부에서는 광산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드는 것이 농업 생산력 저하와 사회 불안 세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막으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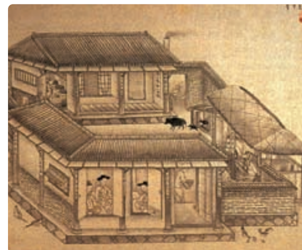
사상이 성장하고 화폐가 유통되다

농업, 수공업, 광업의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상품 유통이 확대되었다. 대규모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공인들과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사상들은 도고 행위로 물품을 거래하였다. 특히 사상들은 전국의 지방 장시를 연계하여 물화를 교역하고 각지에 지점을 두었다. 서울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동래의 내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등이 유명한 거상들이었다. 이들은 국제 무역에도 참여하여 많은 이득을 취하였다.

상품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여 18세기 중엽에는 전국에 천여 개소에 이르는 **장시**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보통 5일마다 열렸으며 인근 주민들이 농산물과 수공업 제품을 교역하였고, 보부상들은 여러 장시를 돌면서 다른 지역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한 지역의 장시는 인근 장시와 연계되어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였으며 일부는 상설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서울 부근의 송파, 칠패, 이현, 누원장과 지방의 전라도 전주, 경상도 대구와 안동, 강원도 대화(평창)가 상업 거점으로 성장하였다. 대규모 교역이 이루어지는 항구 부근 장시에서는 객주, 여각, 선상 등이 활동하였다. 은진 강경장, 창원 마산포장, 덕원 원산장 등이 대표적인 포구 장시였다.

상인들이 물품을 대규모로 거래할 때에는 어음이나 환 등을 이용한 신용 거래가 늘어났고, 소규모 상행위에는 동전이 사용되었다. 동전은 인조 때 시험적으로 사용되었고 효종 때부터 **상평통보**가 발행되었는데, 18세기 후반 이후 동전의 세금과 소작료 납부가 가능해져 유통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지주나 대상인들이 동전을 재산의 축적 수단으로 삼아 쌓아 두기만 하여 유통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다(전황). 또 동전과 현물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고리대도 성행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동전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고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사재기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던 상업 방식 혹은 그러한 상인이나 상인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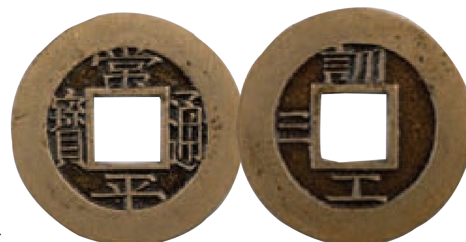
객주 풍경(김준근, 독일 함부르크 민속 박물관)



조선 후기의 상업 발달



칠패(김학수, 서울 시청)
숭례문 밖 칠패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상평통보의 앞면과 뒷면(국립 중앙 박물관)

국제 무역이 발달하다

개시와 후시
국가 간 공식적인 교역을 개시, 상인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후시라 하였다.



동래의 초량 왜관(국립 중앙 박물관)

양 난 후 청 · 일과의 국제 관계가 회복되면서 무역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연행로를 따라 의주에서 중강 개시와 중강 후시가 열렸고, 청의 봉황성에서 책문 후시가 개설되었으며, 연경에서도 공무역과 사무역이 행해졌다. 조선은 청에서 비단, 약재, 서적, 모자, 문방구, 사치품 등을 수입하였고 종이와 인삼 등을 수출하였다.

함경도 국경 지역의 교역을 **북관 개시**라 하였는데, 회령에서는 매년, 경원에서는 2년마다 열렸다. 이곳에서는 국가 간의 공적인 교역인 공시와 양국 상인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사시가 열렸다. 조선은 만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철제 농기구, 소, 소금 등을 수출하고 말과 가죽 제품을 수입하였다.

일본과는 주로 동래에 있는 **왜관**을 통해 거래하였다. 조선은 대청 무역에 필요한 은과 무기를 제조할 때 필요한 구리, 유황을 주로 수입하였고 인삼과 무명, 쌀 등을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또 청에서 수입한 비단과 명주실 등의 물품을 중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조선의 인삼을 선호하여 공적으로 허용된 양보다 많은 인삼이 밀거래되었다.

국제 무역은 국가 간의 공식적인 거래보다 상인들이 참여하는 사무역이 더욱 활발하였다. 특히 의주의 만상과 동래의 내상이 이를 주도하였으며, 개성의 송상과 서울의 상인들은 양자 간 거래를 중계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사료 쏙!쏙! 국제 무역의 풍경

• 대일 무역

호조 판서 김상성이 아뢰기를, "전에는 품질 좋은 강계삼의 가격이 2냥에 지나지 않았으나 지금은 값이 뛰어 아주 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라 안 사대부와 서민은 물론 의원이라도 비싼 값을 주고 사려고 해도 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 근래 강계에 몰래 들어가 삼을 사들이는 상인들은 동래 왜관에서 매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을 처벌하는 법은 속대전에 실려 있으니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 "비변사등록"

• 대청 무역

– 경원에서 열리는 교역 모습을 보니 사람과 가축이 바글바글하고 사방에서 다투고 흥정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장시와 다름이 없다.

– 박래겸, "북막일기"

–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 한 마리 가격은 담비 가죽 100장이나 모자 80개에 이르니 우리 측 이익이 몇 배에 달합니다. 또 백미 서너 되와 백동(白銅) 담뱃대를 바꾸니 이익이 열배나 됩니다. 그래도 저들은 다행으로 생각하니 추운 지방이라 곡식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 거래할 때에 조선 상인들과 청 상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청 상인들이 얻어맞기도 하는데 크게 다쳐도 감히 고소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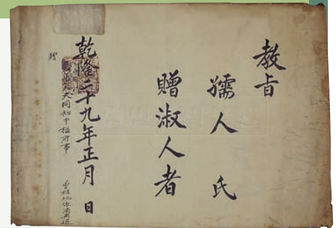
– 홍의영, "북관기사"

조선에서 나는 인삼은 일본에서 수요가 높아 밀거래가 증가하였다. 함경도 회령과 경원에서는 조선 상인과 청 상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교역하였다. 특히 청의 훈춘 지역과 가까운 경원에서는 일상 용품도 많이 거래되었고 교역에 참가하는 청 상인의 수도 1만 명에 달하였다. 조선 상인들이 공급하는 곡식이나 소는 훈춘 주민들의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조선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하였다.

2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공명첩을 전국에 내려 보내 곡식을 사서 진휼에 보태게 하였다. 이때 해마다 큰 흉년이 들어 저장된 곡식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 "영조실록"

● 조정에서 발행한 공명첩은 어떤 사람들이 사들였을까?



공명첩(국립 민속 박물관)

양반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다

양 난 이후 경제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신분 구조 역시 크게 바뀌었다. 양반은 군역을 비롯한 각종 국역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상민들은 호적을 새로 만들거나 족보를 위조하는 등 갖은 방법을 써서 양반으로 행세하려 하였다.

그러나 납속이나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된 사람들은 품계만 있을 뿐 실제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청요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주로 서울이나 경기의 유력 가문 출신들이었고, 지방 출신들은 차별을 받았다. 선전관 등 무반들의 요직에도 서울 출신이 주로 임명되었다. 과거 시행 횟수가 늘고 응시자와 합격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허한 사우(충북 충주)
사우는 가문에 이름 있는 선조나 훌륭한 인물을 모셔 제사 지내는 곳이다.

벼슬길과 거리가 멀어진 지방의 양반들은 청금록 혹은 향안이라는 양반 명단을 만들고 문중 중심의 서원과 사우를 세워 향촌에서 위세를 지키려 하였다. 또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시행하거나 부계 위주의 족보를 편찬하고 동성 마을을 이루었다.

향반 혹은 잔반이라 불린 몰락한 양반 중에는 소작이나 임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다. 반면 부농층들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를 장악하여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 이들은 종래의 재지사족을 대신하여 정부의 부세 제도 운영에 참여하였고, 향임직에도 진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양반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향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청금록(충남 홍성)

향전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반 신분을 가지게 된 신향층과 기존의 재지사족들 간의 충돌

역사 더하기 + 한양 나들이 길이 된 과거

나라의 경사로 과거 시험을 한양에서 시행하였다. 3개 과장에서 열린 문과의 응시자는 모두 111,838명이었는데 거두어들인 시권은 38,614장이었다. 무과도 3곳에서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모두 35,891명이 응시하였다. – "정조실록"

과거에 응시하고자 한양에 모인 유생들은 당시 서울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시권을 제대로 제출한 사람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지방 유생들에게 서울에서 열리는 과거는 급제를 바라기보다는 응시 자체에 목적이 있는 한양 나들이 길이었다.

농민의 계층 분화가 심해지다

조선 후기에는 소작인이 대대로 경작하였거나 원래 소유하였던 토지, 직접 개간한 땅 등에 대해서는 소작권이 인정되어 지주라도 소작인을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또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는 대신 미리 일정한 액수를 정하는 **도조법**이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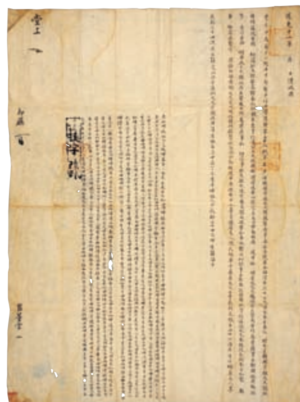


자매문기(自賣文記)(서울 대학교 규장각)
1862년(철종 13)에 극심한 빈곤을 견디지 못한 가족 전부가 노비로 팔리게 된 내용이 적혀 있다.

자작농과 일부 소작농들은 모내기를 시행하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이득을 얻었다. 그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개간하여 지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지주들도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늘리거나 임노동자나 머슴을 고용하여 경작 규모를 확대해 갔다. 이 때문에 토지를 얻기가 어려워진 소작인들은 농촌을 떠나 떠돌거나 광산, 도회지의 날품팔이가 되기도 하였다. 소작료와 관혼상제 비용, 부세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과 가족 전체를 스스로 팔아 노비로 전락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경제력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된 일부 유력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이나 임노동자로 살아갔다. 이들의 처지는 주인의 땅을 경작하며 신공을 바치는 외거 노비나 주인집의 잡일에 종사하는 솔거 노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군역이 군포를 납부하는 조세로 변하고, 지방의 속오군에 양인과 노비가 함께 편제되는 추세 속에서 일반 농민과 노비의 사회 · 경제적 처지는 거의 같았다.

도망 노비가 증가하다



준호구(수원 박물관)
개인의 호적 사항을 해당 읍의 수령이 확인하여 증명해 준 문서이다. 가족 구성원 외에 노비들의 성명과 나이도 기재하였는데 도망한 노비는 100세가 넘었어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잡아들이지 못한 도망 노비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노비들은 군공을 세우거나 도망하여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도망한 노비들은 다른 지역에 이주하여 임노동자나 머슴, 화전민이 되어 살았다. 주인들은 이들을 잡아들여 신공을 거두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가에서는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자 군공을 세우거나 군량을 바친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 주었다. 또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신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노비종모법**, 1731).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가 도망하는 일도 증가하였다. 국가에서는 신공 부담을 줄여 주기도 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중앙 관서에 소속된 공노비 66,000여 명을 해방시켰다(1801). 이때 해방되지 못한 공노비들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모두 해방되었고 사노비의 세습도 금지되었다. 양인들의 신분 상승 노력과 노비 해방 추세는 신분 평등이 이루어지는 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움직임이었다.

중간 계층이 성장하다

경제적 여건이 변하고 신분제가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재력을 가진 서얼과 중인 등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얼의 역사를 밝힌 "규사"와 향리의 내력을 적은 "연조귀감"이 편찬되었으며, 능력이 뛰어나거나 공을 세우고도 신분적 한계 때문에 출세하지 못한 중인들의 전기를 모은 책들이 간행되었다. 중인들은 옥계시사 등 **시사**를 결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양반 사족층도 함께 참여하여 어울렸다.

서얼들은 여러 차례 집단 상소를 제기하는 등 **통청 운동**을 전개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서얼이 관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늘었는데,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에도 서얼들의 노력은 지속되어 1851년에는 청요직 통청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의관, 역관, 율관, 화원, 서리 등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던 중인들 역시 1850년대에 집단 상소 운동을 펴는 등 통청 운동을 벌였다. 통청 운동이 성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들은 전문 기술과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특히 역관층은 대청 외교 업무에 종사하면서 서학을 비롯한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옥계십이승첩의 '산사유약'(삼성 출판 박물관)
"옥계십이승첩"은 18세기 중인들의 시 모임 중 가장 대표적인 옥계시사에서 만든 시화집이다. '산사유약'은 이 시화집에 실린 그림으로 늦가을 인왕산의 정취를 묘사하고 있다.



서얼의 통청 운동

황경헌 등 하삼도의 유생들이 상소하여 아뢰다. "작위의 높고 낮음은 조정에서만 써야 할 것이고 적자와 서자의 구별은 한 집안에서만 통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사천 신분이었다가 면천된 이들은 벼슬을 받기도 하고 아전이었다가 관직을 받은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한번 낮아진 신분이 대대로 후손에게 이어져 영구히 서족(庶族)이 되어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임에도 그저 버려진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 "정조실록"

직급은 낮으나 이후 고위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3사나 이조 낭관직 등을 청요직이라 하며, 여기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통청 운동이라 한다. 왼쪽 자료는 청요직 통청을 바라는 서얼들의 상소문이다.



(가), (나)에 나타난 경제 변화가 조선 후기 국제 무역과 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해 보자.

(가) 처음 왜관에서 개시를 허락하였을 때에는 중국의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동래부에서 왜인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이익이 자못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왜인들이 장기도(長崎島)에서 출발하여 중국 남경과 직접 거래하니 왜관 개시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다. – "연려실기술"

(나) 동지사 부사 정준일이 아뢰기를, "청에서 사용할 은이 해마다 늘어 6, 7천금인데 가져간 은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왜에서 들어오는 은이 극도로 줄어들고 은광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 "비변사등록"

조건 (가), (나)에 나타난 경제 변화 내용을 포함할 것

06 조선 후기 학문의 새 경향

이 단원에서는 >> 1. 조선 후기에 실학이 나타난 배경과 실학자들의 개혁론을 이해할 수 있다.
2. 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과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천주교와 동학이 사회 변동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실학 성립의 배경

윤휴는 주자에 반대하고 거슬려서 경전의 체제와 문장을 마구 뜯어 고쳤으며, "중용"에 대해서는 주자가 붙인 주석을 더욱 많이 고쳤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자사의 뜻을 주자 스스로 혼자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모르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로 사문난적이다.

– "숙종실록"

● 윤휴는 왜 사문난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을까?



윤휴(1617~1680)

사문난적
'성현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는 자'라는 뜻으로 주자 성리학의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서인들이 상대 당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자주 사용하였다.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모색하다

16세기 후반 사림 세력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동인에는 서경덕, 조식, 이황의 학맥을 잇는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서인은 성혼과 이이 계통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으며, 광해군 시기에는 북인이 집권하였다. 붕당은 정치 현안을 두고 대립하였으나 모두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시하였다. 광해군이 인목 대비를 폐위하고 영창 대군을 죽이는 등 명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자 서인과 남인이 함께 인조반정을 일으킨 것은 이 때문이었다.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주화론과 척화론이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전후에는 척화론과 의리 명분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는 전후 민심 수습과 국론 안정에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노론계 학자들은 점차 주자의 학설 이외에 다른 이론을 거부하는 경색된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17세기에는 **예학**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예학이 발달하였다. 이는 양 난으로 국가의 명분이 훼손되고 신분 질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지배층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예학 연구가 심화되면서 각 학파는 제례나 전례 등 국가의 주요 전례 행사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는 정치적 대립으로 발전하여 예송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주자 성리학의 권위가 절대화되는 가운데 6경과 제자백가의 이론을 폭넓게 수용하

여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학자들도 나타났다. 윤휴와 박세당은 주자가 정립한 학문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 학문 체계를 주장하여 노론에게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도 하였다.

양명학이 들어오다

인간 개개인의 양지와 지행합일을 중시한 양명학은 16세기 전반에 소개되었으나 이단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명 군대를 따라온 학자들에 의해 다시 알려졌고 최석정 등 일부 학자가 관심을 가졌다.

18세기 초에 정제두는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이론 체계를 세웠다. 그는 누구나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신분제 철폐를 내세웠다. 그의 학문은 집안 후손과 친인척 사이에 가학의 형태로 계승되면서 강화 학파로 불리었다. 강화 학파 학자들은 국어학, 역사, 서예, 문학 등 우리의 고유문화에 폭넓은 관심을 보였으며 정약용 등 실학자들과도 교류하였다.

양지와 지행합일
양지는 사람마다 타고난 마음의 본체이다. 지행합일(知行合一)은 깨우친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실천을 통해 깨달음이 완성된다.

서양 과학을 수용하다

중국을 통해 유입된 서양의 과학 기술은 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서양 선교사들은 크리스트교 전파의 수단으로 과학 기술을 중국에 소개하였고, 이는 베이징에 왕래하던 사신들을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 세계 지도와 천리경, 자명종, 화포가 소개되었고 새로운 역법인 시헌력도 도입되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지구설과 지전설이 퍼졌고 세계 지리에 대한 인식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에 조선 정부는 벨테브레이와 하멜 등 표류한 서양 선원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서양식 대포와 조총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 일행은 표류기를 지어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알리기도 하였다.


하멜 표류기에 실린 삽화
제주도에 난파한 스페르웨르호와 하멜 일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7세기 초에 전해진 새로운 문물


천리경(숭실 대학교 박물관)
망원경이다. 원거리 항해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청을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


자명종(숭실 대학교 박물관)
태엽을 이용하여 정확한 시각을 알려 주는 시계이다. 조선에서도 이를 모방한 제품이 만들어졌다.


화포(홍이포)(실학 박물관)
명이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수입한 장거리 화포이다. 성을 포위한 전투가 벌어질 때 위력을 발휘하였다.

2 실학의 발달

생각하건대, 털끝만큼 작은 일이라도 폐단이 없는 것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 끼고 방관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 정약용, "경세유표" 서문

● 정약용이 제시한 개혁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정약용(1762~1836)

농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다

17세기 이래 붕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교조화된 주자 성리학을 극복하고 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실학이 등장하였다.

실학자들은 6경 중심의 고학 학풍을 계승하고 경전을 해석할 때 주자의 주석에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의 깨달음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청과 서양 학문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성향을 수용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학자들 중에는 숙종 때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 밀려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남인 출신 인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붕당 정치의 폐단을 비판하고 토지 제도를 비롯한 정치·사회 개혁을 통해 성인 군주 중심의 이상 사회를 이룰 것을 지향하였다.



반계수록(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전론
집집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영업전을 주고 매매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외의 토지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균전론을 내세워 사농공상 직업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양반 문벌제도, 과거 제도, 노비 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토지를 기준으로 역역을 부과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익은 유형원의 사상을 심화 발전시켜 "성호사설"을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한전론을 주장하였으며 고리대, 화폐 제도, 환곡 제



이익이 생각한 나라의 폐단

나라를 어지럽히는 폐단이 여섯 가지인데 첫째가 노비 제도요, 둘째가 과거 제도이며, 셋째가 벌열이고, 넷째가 광대나 무당 따위이며, 다섯째는 승려요, 여섯째는 게으른 무리들이다.

– "성호사설"

이익은 이러한 여섯 가지 폐단 때문에 농업에 힘쓰지 않게 되고 생산력이 뒤떨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익(1681~1763)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은거하면서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만 힘써 성호학파를 이루었다.

도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정된 관직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당쟁이 비롯되었다고 보고, 양반들도 농사를 짓게 하며 과거 실시 간격을 늘려 합격자를 줄이고 전랑들의 후임자 천거권을 없애 군주의 인사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산 초당(전남 강진)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살던 곳이다. 정약용은 이곳에서 주위 학자들에게 학문을 전파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다.

정약용은 이익의 학풍을 계승하여 토지 제도를 비롯한 정치·사회 다방면에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당시 대두되고 있던 북학을 받아들여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군주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하고 언관의 역할을 제한하며 6조의 기능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8도를 12개의 성으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또 교육과 선거 제도를 연계하고 고과 제도 개혁으로 관리의 전문성과 임기를 보장하여 능력을 극대화하고 민폐를 줄이려 하였다.

정약용은 이용감을 신설하여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박, 수레의 크기와 도로의 폭을 규격화하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주관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토지를 무조건 재분배하기보다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여 정전제의 이념을 구현하려 하였다. 그는 근본적 개혁에 앞서 민생 안정을 위해 수령의 행동 지침서인 "목민심서"와 사법 제도 운영에 관한 "흠흠신서"를 저술하였다.

이용감
정약용은 정치 제도와 조세 제도의 개혁을 중시하면서도 청의 발달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감은 청 기술 도입과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정약용의 정전제
정전제(井田制)는 토지를 국유화하고 바둑판형으로 나누어 가운데 토지에서 생산된 것은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농민이 갖도록 한 것이다. 정약용은 토지를 구획하거나 국유화하는 대신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재원에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정전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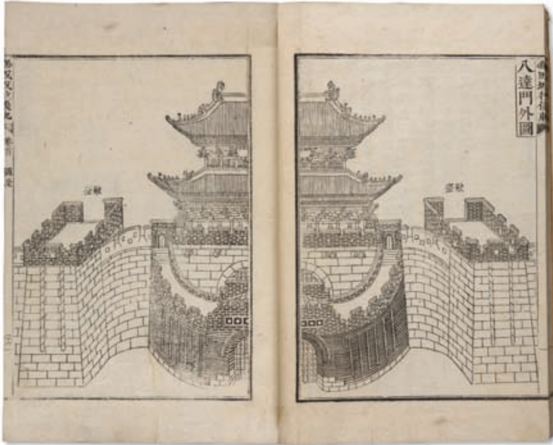
상공업 진흥을 주장하다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청에 굴복하였으나 조선이 중화 문명의 유일한 승계자라는 관념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안정되고 교류가 잦아지면서 청의 현실적인 우위를 인정하고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 경제적 발전과 부국 강병을 이루자는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다. 이를 **북학**이라 한다.

북학 사상의 선구자는 영조 때 활동한 **유수원**이었다. 그는 "우서"에서 상공업을 진흥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벼슬 없이 무위도식하는 양반들을 농, 공, 상업에 종사하게 하고 사농공상을 신분이 아닌 평등한 직업으로 전문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업 발전을 위해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하여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대상인의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였다. 농업 부문에서는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실옹과 허자의 대담 형식을 빌려 관념적 화이관과 중국 중심 세계관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북학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술 혁신과 문벌제도 철폐, 성리학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 하였다.

북학(北學)
청이 조선의 북쪽에 있었으므로 청의 학문을 북학이라 불렀다.



수원 화성 팔달문 도면(화성성역의궤, 서울 대학교 규장각)

박지원은 청에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수레와 선박 이용의 활성화, 화폐 유통 확대, 상공업 진흥을 주장하고, 양반층의 허위의식을 고발하였다. 또한 농업 분야를 개혁하기 위하여 한전론과 함께 영농 방법 개선과 상품 작물 재배, 농기구 개량 등 기술 개선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강조하였다.

서얼 출신 **박제가**는 연행 경험을 바탕으로 “북학의”를 저술하고, 상공업을 육성하고 선박, 수레, 벽돌 등 발달된 청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또 생산력을 높이고자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구의 상선들이 청에 왕래하는 것처럼 조선도 대형 선박을 건조하여 국제 무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학자들의 제안 가운데 일부는 정조 때 수용되었다. 수원 화성을 쌓을 때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데 거중기를 사용하였고, 주요 건축물에 벽돌이 사용되었다.



북학파의 주장

• 홍대용의 역외 춘추론(域外春秋論)

공자는 주 사람이다. 주 왕실(王室)의 권위가 날로 떨어지고 제후들이 쇠약해지자, 오(吳)나 초(楚)가 중국을 어지럽혀 도둑질하고 해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춘추(春秋)는 주의 역사책이니, 공자의 입장에서 주를 높이고, 오와 초를 물리치기를 엄격히 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일 공자가 바다를 건너 구이(九夷)의 땅에 들어와 살았다면, 중국의 법을 써서 구이의 풍속을 변화시키고 주의 도(道)를 역외(域外)에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과 밖의 구별과 높이고 물리치는 의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별도의 역외 춘추(域外春秋)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공자가 성인(聖人)이 된 까닭이다.” – “의산문답”

• 박제가의 시정론(市井論)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대저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 쓸수록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다. – “북학의”



북학의

공자가 주를 중국 역사의 정통으로 보고 저술한 역사서가 “춘추”이고, 여기에 바탕을 둔 것이 춘추 대의론이다. 역외 춘추론이란 춘추 대의론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세계에 안과 밖이 없으니 내가 서 있는 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이다. 홍대용을 비롯한 북학자들은 지구 구형설에 근거하여 세계의 중심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부정하였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는 박제가의 주장은 상공업을 진흥하여 국가의 경제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당시 상공업이 발달하고 국제 무역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3 국학의 발달

동방의 땅은 수천 리에 지나지 않으나, 삼국 이전에는 50개의 나라가 있었으니 무엇 때문이겠는가. 대저 중국은 땅이 커서 상고 시대에는 사방 백 리 정도의 땅을 가진 나라가 많았고, 주 때에도 1천8백의 나라가 있었다. 동방의 삼국 이전은 상고 시대에 해당하니 50개의 나라가 있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 이수광, "지봉유설"

● 상고 시대 우리나라에 많은 나라가 있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봉유설(국립 중앙 박물관)

우리의 역사를 활발히 연구하다

병자호란 후 문물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청과 주변 국가에 비해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이념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이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우리 역사와 지리,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삼한을 비롯한 고대 국가의 지명을 고증하고 가야의 역사를 복원하였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우리 역사가 중국에 뒤지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으며 문화 수준 역시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명분론적 역사의식과 실증적 연구 방법을 결합하여 역대 국가들의 계승 관계를 제시하였다.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여 발해를 우리 역사의 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발해고"는 고구려사를 강조한 이종휘의 "동사"와 함께 고대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으며 우리 역사의 무대를 만주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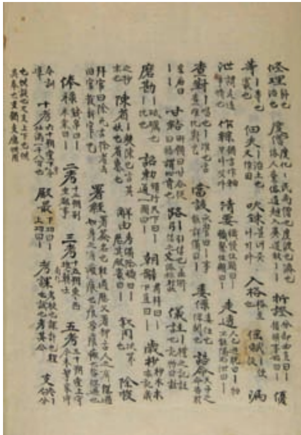
각 항목마다 인용한 책을 밝혔으며, 축약하기는 하였으나 내 의견을 붙여 논평하지는 않았다. 동서 당파가 나뉜 후로 이쪽저쪽의 기록에 헐뜯고 칭찬한 것이 서로 반대가 되는데 한쪽에만 치우치게 편찬한 경우도 많았다. 나는 모두 그대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각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도록 맡겼다. – 이긍익, "연려실기술" 의례

청에서 발달한 고증학의 영향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관련된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여러 주장의 논거를 스스로 비교하여 판단하게 하는 학문 경향도 나타났다.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은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을 모아 조선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로 충실히 기록하였다. 한치윤의 "해동역사"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사서 500여 종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석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김정희는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김정희(1786~1856)



고금석림(서울 대학교 규장각)

우리 문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다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어 연구도 활발해졌다. 최석정은 훈민정음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경세정운"에서 훈민정음과 한자의 음운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신경준은 "훈민정음운해"에서 훈민정음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훈민정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주장하였다.

유희는 "언문지"에서 훈민정음이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는 우수한 표음 문자임을 밝혔으며 우리말 어휘를 정리하여 "물명고"를 편찬하였다. 이의봉은 "고금석림"에서 우리나라 문헌에 나오는 어휘와 국외 언어를 정리하였다.

자세한 지도가 만들어지다

영조 시기에는 양 난 후 변화한 전국 각 지역의 인문 지리적 여건을 반영하여 "여지도서"를 국가 주도로 편찬하였다. 한백겸은 역대 국가의 위치와 주요 지명을 고증하여 "동국지리지"를 만들었고, 이를 계승한 신경준은 "강계고"에서 우리나라의 지맥과 강들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산과 강을 표현한 "산경표"가 제작되어 유행하였고,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인문 지리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은 우리나라 전역의 산천과 역대 국가의 위치에 관한 사료를 모아 서로 비교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강역고"를 편찬하였다.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업의 발달로 물화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상세한 지도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정상기는 정확한 축척을 적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김정호는 그 영향을 받아 **'대동여지도'**에서 각종 시설물을 기호로 제시하고 산맥, 하천, 포구, 도로를 정밀하게 묘사하였으며 10리마다 눈금을 매겨 지역 간 거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 등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도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한층 정확해졌으며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세계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중 팔도도(부분)

회화식 기법 대신 백 리 척을 사용하여 과학적으로 제작한 지도이다. 정상기는 평지에서 100리를 1척으로 하고, 굴곡이 심한 곳에서는 120리 혹은 130리를 1척으로 정하여 거리를 계산하였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다

중국을 통해 유입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면서 과학과 기술도 발전하였다. 박세당은 "색경"에서 벼농사는 물론 과수와 축산, 원예 기술을 소개하였고,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농업과 임업, 축산, 식품 가공과 저장 등 의식주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였다. 영조의 명으로 서호수가 편찬한 "해동농서"는 조선 고유의 농학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농업 기술을 받아들여 농학을 체계화하였다.

의학 분야에서는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를 사용한 치료법을 소개하였으며 안경창은 전염병을 치료하고자 "벽온신방"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홍역에 관한 지식을 모은 "마과회통"을 썼고, 박제가 등과 함께 종두법을 실험하기도 하였다. 고종 때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를 편찬하여 사상 의학 체계를 수립하였다.

효종 때 정부는 시헌력을 만들어 시행하였고, 숙종 때 김석문은 지구가 자전한다고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우주를 상대적으로 파악하여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별에도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중국에서 수입된 "기하원본"의 영향으로 수학 연구도 발달하였다. 최석정은 대수와 기하 이론을 정리한 "구수략"을 썼고, 홍대용은 "주해수용"을 저술하였다.



홍대용이 만든 혼천의(숭실 대학교 박물관)

지식을 망라한 백과전서가 편찬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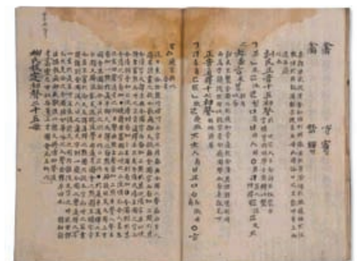
다양한 문물이 수용되고 여러 분야의 학문이 발달하면서 제반 지식을 망라하여 주제별로 분류하고 항목별로 설명한 백과전서들이 편찬되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가장 앞서 나왔으며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가 대표적이다. 영조 때부터 국가에서도 역대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대한 제국 시기에 "증보문헌비고"가 완성되었다.



유희의 "언문지"

한자의 음으로 다른 한자음을 표현하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데 한글을 가지고 음을 기록하면 바르게 전해지니 올바른 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 한문은 간결하게 뜻을 전하는 것을 중시하니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우나 한글은 뜻을 그대로 전하여 조금도 의심나는 곳이 없으니 부녀자들이 쓰는 글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언문지" 서문

표음 문자로서 한글이 어떤 음이든 표기할 수 있고,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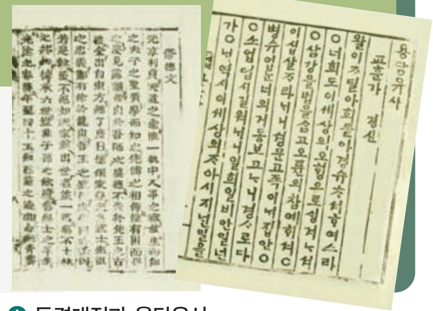


언문지(서울 대학교 규장각)

4 서학의 유입과 동학의 창도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 – "동경대전"

●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당시 지배층과 민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천주교가 전래되고 박해를 받다

천주교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조선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정두원 등은 명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천주교 서적을 가져왔고 이수광, 유몽인은 천주교 교리를 자신의 저술에 소개하였다. 당시 지식인들은 천주교를 서양 학문의 일부로 인식하여 **서학**이라 칭하였다.



천주실의(절두산 순교 박물관)
명에 파견된 이탈리아 천주교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지은 책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천주교 교리를 중국인들이 알기 쉽도록 서술하였으며, 조선의 학자들도 이 책을 통하여 교리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였다.

18세기 후반 정치, 사회의 모순에 대해 고민하던 일부 남인 학자들은 서학을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영세를 받고 오면서 신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천주교는 신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교리와 내세 신앙에 힘입어 재야의 양반, 중인, 부유한 농민층에 퍼져 나갔다. 그러나 천주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등 성리학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자 국가에서는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신주를 불태운 윤지충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순조가 즉위한 후 집권한 노론 벽파 세력은 정조 때부터 세력을 키워 가던 남인들을 탄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천주교도들이 희생되었다. 여기에 황사영이 프랑스 군사력을 동원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 달라는 글을 보내려다 발각된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1830년대에 독립된 조선 교구가 설정되고 프랑스 신부가 들어와 포교를 하자, 조정에서는 프랑스 신부와 수많은 신도를 처형하였다. 이 무렵 최초의 조선인 신부인 김대건이 순교하였다.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천주교 교세는 계속 확장되어 19세기 후반에는 신자 수가 3만 명에 이르렀다.



김대건(1822~1846)



황사영 백서

전선 수백 척과 정예 병사 5, 6만을 얻어서 대포 등 예리한 무기를 많이 싣고 우리나라 해변에 와서 국왕에게 글을 보내기를 "우리는 전교를 목적으로 온 것이지 재물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니므로 선교사를 용납하여 받아들여 달라."라고 해 주소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외국과 내통하여 군대를 끌어들이려 하였다는 명목으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었다.

동학이 창도되어 확산되다

19세기 중엽에는 삼정 문란의 폐해가 극에 달하고 전염병이 유행하여 농민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 서양 세력의 접근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 사이에 각종 예언 사상과 비기, 도참설이 유행하였다. 그중 말세와 변란, 왕조 교체 등의 내용이 담긴 “정감록”이 널리 퍼졌다. 현실에 불만을 품은 무리들은 미륵 사상에 의지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 경주 출신의 몰락 양반 **최제우**는 동학을 창도하였다. 그는 천지개벽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예언하였다. 또 평등주의를 내세워 반상의 차별과 노비 제도를 폐지하고 여성과 어린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학에는 유·불·선의 내용이 종합되어 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가 담겨 있어 민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동학이 삼남 지역의 농촌 사회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자 조정에서는 혹세무민의 죄를 씌워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러나 2대 교주 최시형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 교리를 가다듬고 교단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교세가 회복되었다.

천주교와 동학은 기본 교리나 수용 계층, 신앙을 받아들인 이유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두 종교 모두 기존의 사회 질서를 수긍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였으며 이 때문에 지배층의 탄압을 받았다. 특히 동학의 평등사상과 개혁 사상은 사회 변혁 운동의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하여 개항 후 사회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최제우(1824~1864)
세도 정치로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서양 세력의 접근으로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학을 창도하였다. 동학이란 서학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중단원 마무리

1. 다음 실학자들이 주장한 토지 제도에 대하여 써 보자.

(1) 균전론:

(2) 한전론:

2. 다음 글을 바탕으로 정약용이 주장한 토지 제도를 서술해 보자.

> 가옥이나 상점에 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공업과 광업, 임업과 어업에 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오로지 농민에게만 세를 부과한다. 이에 일하는 농민의 수는 줄어들고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데 이래서는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 토지 10결 가운데 1결을 공전으로 삼고 농민이 경작하게 하며 이외의 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군포의 법을 없애고 모든 재원에 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백성의 역을 고르게 해야 한다.
>
> – 정약용, “경세유표”

조건 유형원, 이익이 주장한 토지 제도와의 차이점을 언급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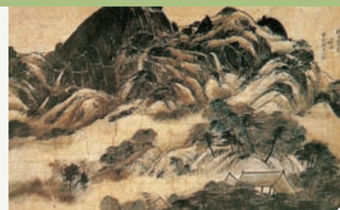
07 서민 문화의 형성

이 단원에서는 >> 1.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의 주체들이 다양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등 다양한 서민 문화가 유행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서민 의식이 성장하여 현실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문화의 새 경향

서울 인왕산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그린 이 그림은 관념적으로 산수를 표현하던 기존의 그림과 다른 화풍을 따르고 있다.

● 조선 후기에 이 같은 그림이 유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인왕제색도(삼성 미술관 리움)

우리의 멋을 발견하다

조선은 문화 수준이 낮다고 여기던 청에 굴복한 것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멸망한 명을 대신하여 조선이 정신문화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부심은 우리 국토, 문화, 역사, 언어, 지리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학 관련 서적이 출간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의 자연과 삶의 모습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8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진경산수화**는 우리 고유의 자연과 풍속을 대상으로 하면서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르게 수용하여 창안된 새로운 화법이다. **정선**은 서울의 인왕산과 압구정 등은 물론 금강산을 비롯한 강원도 명승지를 실제 본 것과 같은 느낌을 주도록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 그는 세밀한 선묘와 부드러운 묵묘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바위산과 폭포, 흙산과 구름을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정선의 뒤를 이은 김홍도는 정조의 화성 행차 등 중요한 왕실 행사 장면을 묘사하였다. 그의 그림은 의궤 등에 남아 있다.



정조 대왕 능행 반차도 일부(복원도)
1795년(정조 19)에 사도 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행차할 때의 행렬을 그린 그림 중 혜경궁 홍씨의 가마 부분이다.

서예에서는 우리의 정서와 감성을 표현한 이광사의 필체가 동국진체라 불리었고, 김정희는 우리의 금석문과 중국의 다양한 필체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추사체라는 독특한 필법을 창안하였다.

역사 더하기 + 이광사의 동국진체와 김정희의 추사체



동국진체(전남 해남)



추사체(전남 해남)

전남 해남에 있는 대흥사 대웅전에는 원교 이광사가 쓴 '대웅보전' 현판이 있고 백설당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무량수각' 현판이 걸려 있다. 우리 고유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국진체와 독특한 세련미를 갖춘 추사체의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서민이 문화를 향유하다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의 생산력이 증가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문화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서민의 경제력이 확대되고 신분이 상승하면서 종래 양반층의 전유물이었던 문예 활동에 참여하는 계층이 늘어났다. 역관, 서리 등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부유한 농민과 상인은 문화의 소비자이자 창작자가 되었다. 지방에서는 부유한 농민의 요구로 **서당**이 세워져 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전국에 장시가 늘어나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공연이 자주 열리게 되었다. 상인들이 장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공연단을 끌어들이면서 장시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장시 곳곳에서 상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서민 문화의 폭이 확대되었다. 서민 문화는 권선징악의 양상을 띠면서도 양반층의 비리나 위선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풍자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교육 기회의 확대와 문화 활동 참여는 서민들이 사회 모순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서당이나 장시는 문화 교류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상소나 상언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장소였다.



대쾌도(유숙, 서울 대학교 박물관)
한양의 광희문 남쪽에서 벌어진 유희 장면을 그렸다. 가운데에서 벌어진 씨름판과 택견 판을 구경하는 다채로운 인물들의 모습과 자세, 복장 등을 세밀한 필치로 묘사하여 당대의 풍속을 잘 보여 준다. 왼쪽에 나막신을 벗은 채 앉아 장죽(長竹)을 든 노인이 있고, 반대쪽에는 서서 엿을 파는 사내가 있으며, 아래쪽에 좌판을 벌리고 술을 파는 노점상과 돈을 꺼내는 한량, 위쪽 성벽 구석에는 노상 방뇨하는 어린아이가 보인다.

다양한 공예품이 만들어지다

조선 후기에는 수공업의 발달과 개인 공방을 운영하는 장인들의 활동으로 실용적이면서 간결한 멋을 갖춘 다양한 공예품이 나타났다. 경제력이 상승한 민간에서는 백자를 장식의 용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청화 백자나 조각, 투각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자기가 생산되고, 정교하고 세심한 기술이 필요한 나전칠기와 화각 공예품도 유행하였다. 목공예품도 발전하여 장롱, 소반, 의자 등 가구뿐만 아니라 문갑, 필통, 서안 등 문방구가 많이 제작되었다.

다양한 공예품의 등장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부를 쌓은 서민들이 경제력에 걸맞은 문화를 누리려는 욕구에 따라 기존 양반의 문화와 생활 풍속이 확산되어 나타난 현상이었다.



화각장(숙명 여자 대학교 박물관)
화각은 소의 뿔을 얇게 펴서 그림을 그린 후, 이를 목제품에 붙여 장식하는 기법이다. 화각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공예 분야이다.



나전 칠기(국립 중앙 박물관)
목제품의 표면에 옻칠을 하고 거기에 광채가 나는 조개껍데기를 여러 가지 문양으로 박아 넣어 장식한 칠기이다. 19세기에는 풍경을 표현하거나 기하학적 무늬를 새기는 등 기법이 다양해졌다.



청화 백자(호암 미술관)
백자에 청색 안료로 무늬를 그리고, 그 위에 투명 유약을 입혀 구워 낸 도자기이다.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생산되었으나 후기에 들어 널리 보급되었다.

역사 더하기 — 조선 후기 도자 문방구의 유행

조선 후기에 다양한 형태의 문방구가 도자기로 많이 제조되고 널리 퍼졌다. 이는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문방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음을 반영한다.



백자 청화 투각 만자문 필통(국립 중앙 박물관)



백자 청화 투각 운룡문 연적(국립 중앙 박물관)



백자 청산 모양 필가(국립 중앙 박물관)

2 서민 문화의 발달

흥부 치레를 볼작시면 철대 부러진 헌 파립 버레줄 총총 매어 조새 갓끈을 달아 써. 면자 떨어진 헌 망건 밥풀 관자 노당 줄을 뒷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 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 흥부가

● 탈춤, 판소리와 같은 공연 예술이 유행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판소리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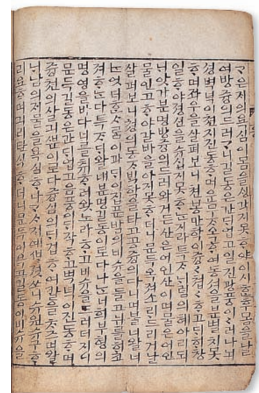
한글 소설이 유행하다

조선 후기에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한글 소설이 발달하였다. 최초의 한글 소설은 17세기 초에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다. 이어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이 등장하였고, 작자 미상의 “전우치전”, “윤군평전”, “곽재우전” 등 도술가가 주인공인 전기물이 유행하였다.

18세기 이후로는 “장화홍련전”, “흥부전”, “심청전”, “춘향전” 등 권선징악과 애정 문제를 소재로 한 소설이 널리 읽혔다. 특히 “춘향전”은 애정 문제와 함께 탐관오리와 신분 질서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거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서민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설시조가 발달하였다. 가사 문학에서는 내방 가사가 유행하여 규중에 얽매인 여성의 하소연, 애정, 시집살이의 괴로움 등 부녀자의 생활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양반층 중심의 한문학에서도 사회 비판과 풍자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박지원은 “양반전”, “호질” 등의 한문 소설에서 양반 신분의 허구성과 허위의식을 비판하였고, 정약용은 삼정 문란을 고발하는 한시를 남겼다.



홍길동전(국립 중앙 박물관)



한문 소설의 풍자성

……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듯한 선비가 있으니 그의 호는 북곽 선생이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한 글이 1만 권이며, 경전의 뜻을 설명하여 엮은 책이 1만 5천 권이었다. ……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과부가 살았는데 수절하는 과부였으나 아들 다섯의 성이 각기 달랐다. 어느 날 밤 둘이 같은 방에 있으니 그 아들들은 어진 북곽 선생이 밤에 과부를 찾아올 일이 없으니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 여기고 잡으려 하였다. 북곽 선생이 놀라 도망치다가 벌판의 거름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

– 박지원, “호질”

박지원의 “호질”은 사대부층의 부패한 도덕관념과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비판하였다. 주인공 북곽 선생과 동리자는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대표되는 당시의 양반 계층을 나타낸다.

판소리
판소리는 지방마다 독특한 창법이 있었으며 동편제와 서편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공연 예술이 발달하다

상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여럿이 어우러져 즐기는 공연 예술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판소리와 잡가, 가면극이 유행하였는데 특히 판소리가 중심이었다.

판소리는 소리꾼이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내용을 창과 사설로 직접 전달하면서 관중도 함께 어울릴 수 있어 하층민과 양반 모두에게 호응을 받았다. 춘향가, 적벽가, 심청가, 토끼 타령, 흥부가 등 인기 있는 판소리들은 한글 소설로도 잘 알려진 작품이었다. 19세기 이후에는 왕실에서도 판소리를 감상하였으며 신재효는 고종 때 판소리 사설을 정리하였다.

공연 예술이 활발해지면서 **가면극**도 크게 성행하였다. 봉산 탈춤과 강령 탈춤, 안동 하회 별신굿, 양주 산대놀이, 통영과 고성의 오광대, 북청 사자놀음 등이 대표적이다. 가면극이 유행한 지역들은 대부분 교통, 상업, 군사·행정의 중심지였다. 양반 사회의 허구와 위선을 풍자하는 가면극을 보면서 서민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잊고 자연스럽게 사회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천민 예능인들의 유랑 연예 집단인 사당패들의 활동도 늘어났다. 사당패는 꼭두쇠라는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철저한 위계질서에 입각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였다. 이들은 각지를 떠돌면서 풍물과 줄타기, 각종 재주 등을 공연하였다.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

조선 후기의 공연 예술


외줄타기


사당패의 무동


봉산 탈춤


북청 사자놀음

풍속화와 민화가 발달하다

조선 후기 문화 향유층의 확대는 미술품에도 나타나 풍속화와 민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김홍도**는 밭 갈기, 추수, 집짓기, 대장간, 씨름, 서당 등 서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특유의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하였다. **신윤복**은 도시 양반들의 풍류와 부녀자들의 생활, 애정 표현 등을 거리낌 없이 화폭에 담았다. 이 밖에 김득신, 김석신 형제도 당시의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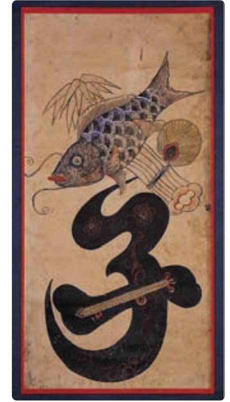
민화도 유행하였다. 민화는 해와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 친숙한 것을 소재로 하여 서민의 소박한 정서를 담았다. 부유한 중인이나 상민들은 집안을 민화로 장식하여 출세와 장수, 행운과 복을 기원하였다.



김득신의 파적도(간송 미술관)
병아리를 물고 도망치는 고양이 때문에 생긴 한순간의 정경을 그렸다. 주인 부부와 어미 닭의 다급한 몸짓과 나동그라진 소도구들이 긴박한 정황을 잘 보여 준다.



까치와 호랑이(부산 박물관)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로, 호랑이는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동물로 여겼다.



문자도(국립 민속 박물관)
일상생활의 도덕이나 윤리 규범을 나타내는 글자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근년 이래로 평안도의 풍습과 세속이 점점 변하여 궁술과 마술을 숭상하지 않고 유자를 자칭하면서 마을마다 서당이 서게 되었고, 각 고을마다 사우를 함부로 세워 폐단이 되고 있다. 향교의 교생도 정원이 있는데 정원보다 많은 장정이 그 이름을 빙자하여 군역을 피하고 있으나 수령들이 불문에 부치고 있다. 기강의 해이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각별히 금단하라.

– “정조실록”

(나) 근래에 부녀자들이 다투어 읽고자 하는 것은 소설 따위인데 날로 달로 늘어나며 그 종류도 백 가지 천 가지이다. 상인들은 책을 필사하여 대여해 주며 비용을 받아 이익을 취한다. 부녀자들이 식견이 없으니 비녀를 팔거나 돈을 꾸어서 다투어 빌려 보고 하루 종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다.

– 채제공, “번암집”

1.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평안도 지역의 사회 변화 현상을 써 보자.

2. (가), (나)에 나타난 현상으로 형성된 문화의 특징을 서술해 보자.

조건
- 문화 향유층의 확대를 언급할 것
- 문화의 사례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일상 다반사

풍속화로 본 조선 후기의 생활

김홍도

김홍도는 29세에 영조의 초상을 제작하는 데 참여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으며, 정조의 총애를 받아 화원 출신으로 벼슬을 지냈다. 그가 그린 풍속화로는 '행려풍속도'와 "단원 풍속도첩"이 남아 있다. '행려풍속도'에는 김홍도가 여행하면서 목격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 담겨 있고, "단원 풍속도첩"에는 서민의 생활 모습을 실감 나게 표현한 다채로운 그림들이 들어 있다. '행려풍속도'와 "단원 풍속도첩"은 현재 국립 중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무동(일부)

논갈이



한 쌍의 소가 쟁기를 끌고 뒤에 두 명의 농민이 쇠스랑으로 흙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대각선으로 솟구친 소의 모습이라든지 쟁기를 잡은 농부의 몸짓이 생동감을 더해 준다.

씨름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의 격렬한 몸짓과 씨름에 푹 빠진 다양한 구경꾼들의 표정을 담은 작품이다. 구경꾼들을 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좌측 하단에 어린아이가 엿을 파는 모습을 그려 넣어 긴장을 덜어 준다.



점심



점심을 먹는 일꾼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렸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맛나게 점심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였다.

자리 짜기

네모 모양의 망건을 쓴 남편이 자리를 짜고 트레머리를 한 아내가 실에 풀을 먹이고 있다. 부부 뒤로 어린 아들이 서당에서 배운 글을 읽고 있다.



신윤복

신윤복은 화원이었으나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남녀 간의 애정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도화서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그가 그린 그림은 "혜원 풍속도첩"에 실려 있는데, 주로 양반과 여인들의 풍속, 남녀 간의 사랑을 담았다. 도회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배경에 대담한 감정 묘사가 돋보인다. "혜원 풍속도첩"은 현재 간송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춘색만원(일부)

월하정인



늦은 밤 담 모퉁이에서 은밀하게 만난 한 쌍의 남녀를 정감나게 표현하였다. 그림의 제목으로 '달빛 그윽한 삼경,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겠지.' 라고 적혀 있다.

연소답청



연소답청은 봄날에 경치 좋은 산을 찾아 행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반들이 기생을 데리고 봄나들이 가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새봄을 맞이하여 들로 놀러 나가는 일행의 기운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쌍검대무



두 무녀가 양손에 긴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다. 하단에는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며, 상단에는 양반과 기녀로 보이는 구경꾼들이 앉아 있다. 춤을 추는 무녀의 움직임이 정적인 구경꾼들과 대조되어 역동적으로 느껴진다.

단오풍정



단오절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는 여성들을 그렸다. 좌측 상단에 여인들을 훔쳐보는 승려들의 모습을 대담하게 표현하였다. 성리학적 명분론이나 유교적 도덕이 더 이상 사회를 속박하지 못하는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연표로 정리하기


▲훈민정음


▲이순신


▲남한산성 남문


▲순무영진도

1394	조선, 한양 천도	태조는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국방과 교통의 요지인 한양에 여러 시설을 건설하였다.
1446	훈민정음 반포	❶ □□과 집현전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문자를 가지게 되었다.
1485	❷ □□□□ 반포	성종은 문물제도를 정리한 기본 법전을 완성하여 반포하였다.
1543	백운동 서원 건립	풍기 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안향을 배향하고 유생을 교육하고자 서원을 설립하였다.
1592	❸ □□□□ 발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하였다. 이후 명을 공격하기 위한 길을 빌린다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1623	인조반정	서인 세력은 ❹ □□□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웠다.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은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후금을 배척하였다.
1636	❺ □□□□	청 태종은 군사를 직접 이끌고 한양을 점령하였다. 인조와 대신들은 남한산성에서 청에게 저항하였으나 결국 항복하고 군신 관계를 맺었다.
1696	❻ □□□, 독도 수호 활동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출몰하자 일본과 담판하여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고 돌아왔다.
1712	백두산정계비 건립	국경 지역에서 조선과 청의 주민들이 자주 충돌하자 청의 요구로 비석을 세워 두 나라 사이의 경계를 정하였다.
1750	균역법 실시	❼ □□는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이전의 군포를 절반 가까이 줄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줄어든 재정은 결작과 선무군관제 등을 시행하여 보충하였다.
1811	❽ □□□의 난	몰락 양반과 대상인, 광산 노동자 등이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다.
1860	동학 창도	경주 출신 몰락 양반인 ❾ □□□는 동학을 창도하여 인간 존중과 평등을 강조하였다.
1861	대동여지도 제작	❿ □□□는 대동여지도에서 각종 시설물을 기호로 제시하고, 10리마다 눈금을 매겨 지역 간 거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1862	임술 농민 봉기	탐관오리와 향리의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대단원 마무리

수행하기

다음은 조선 시대 어느 한 신분·계층이 처한 상황에 대한 글과 그림이다. 이를 참고하여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를 작성해 보자.

❶ 활동 계획 세우기

1. 4~6명이 하나의 모둠을 만들고, 대사를 작성할 신분 · 계층을 선정한다.
2. 제시된 글을 바탕으로 당시 시대 모습과 각 신분 · 계층이 처한 상황을 정리한다.
3. 그림에 나오는 인물 중 대사할 사람을 선정한다.
4. 각 인물이 할 대사를 작성한다.
5. 토론을 통해 각자 작성한 대사를 수정·보완한 뒤 말풍선을 넣는다.

❷ 활동하기

양반

평생도 중 소과 응시 부분
소과는 성균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이므로 평균 연령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림에는 장년의 사내와 청년이 비슷한 수로 등장하고 있다. 삼삼오오 모여 웃으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노비

김홍도, 벼 타작
흥겨운 추수 장면을 묘사하였다. 볏단을 묶어 지게로 실어 오고, 통나무에 내리쳐서 알곡을 떨어내며, 한편에선 싸리비로 알곡을 쓸어 모으는 광경이 분주해 보인다. 오른쪽 상단에는 짚단을 받친 멍석에 기대어 느긋한 얼굴로 장죽(長竹)을 빼어 문 양반이 보인다.

여성

김홍도, 빨래터
시냇가에서 빨래하고 목욕하는 아낙네들을 나그네가 몰래 훔쳐보고 있다. 작품 속의 여인들은 신분이 낮은 기혼 여성들로, 자신의 머리를 한 갈래 또는 두 갈래로 땋아 머리끝에 댕기를 돌리고 머리 둘레를 감아 올려 끝이 옆으로 되게 한 뒤 고정시킨 '코머리'를 하고 있다.

청소년

김홍도, 서당
한 아이는 훈장에게 방금 종아리를 맞았는지 눈물을 닦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다. 훈장도 지그시 웃음을 머금고 있다. 정면이 아닌 사선 구도의 짜임새 있는 화면 구성이 돋보이며, 작품의 배경은 여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IV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01. 서양 열강의 침략과 흥선 대원군의 정책

02. 개항과 개화 정책

0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04.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05. 국권 수호 운동

06. 개항 이후 경제·사회의 변화

07. 독도와 간도



△ 만민 공동회(상상화)

| 경부 철도가 |

최남선(1908년 作)

1.
우렁탸게 토하난 긔뎍(汽笛) 소리에
남대문을 등디고 떠나 나가서
빨니 부난 바람의 형세 갓흐니
날개 가딘 새라도 못 따르겟네?

2.
늙은이와 뎖은이 셕겨 안즈니
우리네와 외국인 갓티 탓스나
내외 틴소(親疎) 다 갓티 익히 디내니
됴고마한 딴 세상 뎔노 일웠네

이 시는 철도의 개통으로 대변되는 근대 문물의 수용 과정을 보여 준 창가이다. 우리나라에는 개항 이후 통신, 전기, 교통 분야 등에서부터 근대 문물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고 근대 시설이 갖추어졌다. 전차와 철도의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서양식 의료 시설이 도입되어 국민 보건 수준이 향상되는 등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근대 문물은 열강의 이권 침탈과 침략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 서울 독립문(서울 서대문)

▼ 경복궁에 전깃불이 들어오던 날(상상화)




▲ 정읍 황토현 전적(전북 정읍)

01 서양 열강의 침략과 흥선 대원군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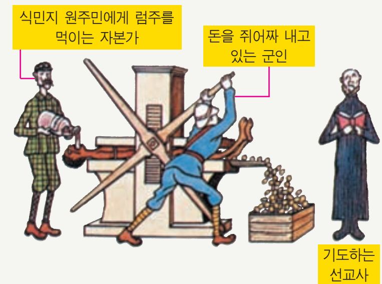
이 단원에서는 >> 1. 서양 열강의 아시아 침략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흥선 대원군의 통치 체제 정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3.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배경과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1 서양 열강의 침략과 아시아의 대응

궁극적으로 가장 옳은 전쟁은 야만과의 전쟁이다. …… 야만인을 영토에서 몰아내는 난폭하고 잔인한 정복자는 문명화된 인류에 공헌할 것이다. 미국인과 인디언, 보어 인과 줄루 인 …… 중에서 승자는 비록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강대국 국민의 미래의 영광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놓은 것이다.

– 시어도어 루스벨트, "서양의 승리"

● 서양 열강이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한 근거는 무엇일까?



제국주의를 풍자한 그림

제국주의가 등장하다

사회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왜곡 적용한 이론으로, 적응과 자연 도태를 거치면서 열등 사회가 우등 사회로 발전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19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으로 확산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자연 과학이 발달하고 전기와 석유가 새로운 동력원으로 사용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철강, 전기, 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나타나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 서양 열강은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받고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며, 잉여 자본을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국외 식민지를 필요로 하였다. 한편 19세기에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계기로 고조된 유럽의 **민족주의**는 점차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을 띠었다.

서양 열강은 독점 자본주의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군사력을 앞세워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를 침략하고 식민지를 확대해 나갔다. 이로써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고, 식민지 쟁탈전이 점차 격화되었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서양 열강의 식민지 지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정당화하였으며, 백인이 황인이나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인종주의**를 내세웠다.



인종주의가 깃들어 있는 영국의 비누 광고(19세기 후반)
흑인이 사용하면 백인이 될 정도로 미백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흑인을 멸시하는 인종주의가 깃들어 있다.

서양 열강이 아시아를 침략하다


세포이의 항쟁(러크나우 전투)

서양 열강은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어 갔다. 영국은 프랑스와 벌인 플라시 전투 이후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1857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경제적 착취에 맞서 **세포이의 항쟁**이 일어났으나, 영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를 계기로 인도는 영국 왕이 직접 지배하는 식민지가 되었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사이공을 점령한 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세웠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자와 섬에서 향신료 무역을 하다가 주변의 섬을 합쳐 식민지로 삼았다. 필리핀은 처음에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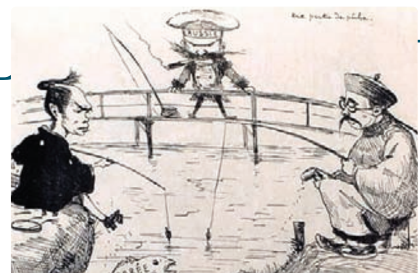
청은 18세기 이후 서양 세력이 적극적으로 통상을 요구해 오자 광둥의 광저우로 무역항을 제한하고 공행을 통한 거래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한적인 무역으로 서양 상인들은 자국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어려웠던 반면, 중국 물품에 대한 수입은 증가하여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았다. 이에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열강은 청에 자유 무역을 요구하며 군사력을 앞세워 청을 침략하였다. 게다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역시 청을 공격해 왔다. 이로써 청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본은 에도 막부가 성립한 이래 약 200년 동안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벌였으나, 18세기 말부터 서양 여러 나라가 빈번하게 개항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일본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유지하면서 네덜란드와 청 상인에게만 나가사키 항을 개방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군함을 앞세운 미국에 결국 문호를 개방하였고, 이후 메이지 정부를 중심으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켰으며,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이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권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팽창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역사 더하기+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 주권선과 이익선

1890년 일본의 의회에서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시정 연설을 통해 국가가 독립하려면 국경인 주권선(主權線)뿐만 아니라 주권선 유지에 필요한 이익선(利益線)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군비 확장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구하였다.

그의 주장에서 이익선으로 설정된 것은 한반도였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한반도로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한발 앞서 한반도를 세력권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침략적인 발상이 깔려 있었다. 또한 주권선이 늘어나면 이익선도 커진다는 팽창 논리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일본은 군사력을 확충하였으며, 결국 청·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풍자 잡지에 실린 그림(1887)
조선을 낚으려고 하는 일본과 청, 그리고 빈틈을 노리고 있는 러시아가 등장하는 이 그림은 1880년대 후반 조선이 처한 정세를 낚시놀이로 풍자한 것이다.

아시아 각국에서 반제국주의·근대화 운동이 일어나다



일본 유학 시절의 판보이쩌우 (1867~1940)
판보이쩌우는 일본에서 중국의 캉유웨이 등을 만나 제도 개혁과 서양 문물의 필요성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이 베트남을 도울 수 있다고 인식하여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대중적 민족 운동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났다. 베트남에서는 19세기 후반 황제의 호소에 응하여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프랑스 투쟁이 일어났으나 실패하였다(근왕 운동). 20세기 초반에는 **판보이쩌우**가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하고 근대 문물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동유 운동). 또 중국의 신해혁명에 자극을 받아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영국 왕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된 인도에서는 우상 숭배 배격, 구습 타파,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내걸고 인도 사회의 개혁과 독립을 위한 민족 운동이 추진되었다. 인도의 민족 운동이 점차 고조되자 영국은 **인도 국민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회유하려 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인도 국민 회의는 영국 상품 불매, 국산품 애용, 자치 획득, 국민 교육의 진흥 등을 내걸고 반영 운동을 전개하였다.

필리핀에서는 서양 사상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계몽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호세 리살**은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식민지의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이 네덜란드의 지배에 맞서 **이슬람 동맹**을 결성하였다.

19세기 후반 타이에서는 노예제 폐지, 서양식 관료 제도와 교육 제도의 도입 등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타이는 영국과 프랑스에 많은 영토를 빼앗겼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 지대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서양 열강에 외교적으로 적절히 대처하여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였다.

역사 더하기+ 필리핀의 독립 운동을 이끈 호세 리살

필리핀의 근대 민족 운동은 19세기 말 에스파냐에서 유학한 개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 리살(1861~1896)이었다. 젊은 시절 에스파냐에서 유학한 그는 "우리의 조국은 필리핀"이라고 외치며 각종 언론 활동을 펼쳤다. 또 에스파냐의 가혹한 통치와 필리핀의 현실을 폭로하고자 소설 '나에게 손대지 마라'를 쓰기도 하였다. 그의 소설이 널리 읽히자 당황한 에스파냐 정부가 호세 리살을 추방하였지만, 유럽에서도 그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호세 리살은 위험을 무릅쓰고 필리핀으로 돌아와 직접 학교를 세워 학생을 가르치며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러다 에스파냐 식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당하고 말았다.

필리핀에서는 지금도 호세 리살을 국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다. 필리핀의 수많은 거리와 건물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으며, 곳곳의 공원에서 그의 동상을 볼 수 있다.



호세 리살(1861~1896)

2 통치 체제의 재정비

원님 위에 감사요, 감사 위에 참판이요
참판 위에 판서요, 판서 위에 삼상(三相)이요
삼상 위에 승지요, 승지 위에 임금이요
임금 위에 만동묘지기

– 만동묘지기의 위세를 풍자한 노래

● 이와 같은 노래가 불린 까닭은 무엇일까?



만동묘(충북 괴산)

흥선 대원군, 중앙 기구를 개편하다

철종이 죽자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조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왕의 생부인 **흥선 대원군**이 국왕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실권을 장악하였다.

대원군
조선 시대에 왕위를 계승할 자손이나 형제가 없어 종친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해당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 한다.

당시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인해 국정이 혼란하고 삼정 문란으로 농민 봉기가 빈번하였으며, 밖으로는 외세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흥선 대원군은 과감한 개혁을 시행하여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흥선 대원군은 당파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 또한 국왕 중심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고자 왕권을 제약하던 **비변사**를 **철폐**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정치와 군사 업무를 분리하였다. 아울러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을 편찬하여 **통치 규범**을 **재정비**하였다. 이양선 출몰에 대비하여 훈련도감의 군사력을 보강하고 중국을 통하여 서양의 화포 기술을 도입하는 등 국방 강화에도 힘썼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 기강을 바로잡고 중앙 집권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흥선 대원군의 인재 등용

대원군이 집권한 뒤 어느 공회 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여러 대신을 향해 말하기를, "나는 천 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내려 평지로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여러 공들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하였다. 대개 천리지척이라는 말은 종친을 높인다는 뜻이요, 남대문 3층이라는 말은 남인을 천거하겠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말은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의사였다.

– 황현, "매천야록"

흥선 대원군은 외척의 세도로 권세를 누려 온 안동 김씨 가문을 정계에서 밀어내고, 남인, 북인 등 권력에서 배제된 이들을 고루 등용하려 하였다.


흥선 대원군(1820~1898)



서원 철폐 후 남은 서원의 소재지

서원을 철폐하다

흥선 대원군은 영조의 서원 개혁 정책을 참조하여 서원을 과감하게 정리하였다. 원래 서원은 선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나, 면세·면역의 혜택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제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백성을 수탈하였다. 이에 흥선 대원군은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 세워졌던 만동묘를 시작으로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여 1871년에는 사액 서원 중 47개소만 남겼다. 그리고 서원에 딸린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였다.

백성들은 이 조치를 크게 환영하였으나 양반 유생들은 반발하며 경복궁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흥선 대원군은 단호한 의지를 보이며 이들을 탄압하였다. 이는 훗날 대원군이 물러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경복궁을 중건하다

흥선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자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였다. 그는 경복궁 중건에 들어가는 막대한 공사비를 마련하려고 **원납전**이란 이름의 기부금을 거두었다.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도 발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물가가 폭등하기도 하였다. 또 토목 공사에 많은 백성을 동원하고, 도성문을 통과하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양반들의 묘지림까지 베어 경복궁의 목재로 사용하였다.

고종이 완공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왕실은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중건 과정 때문에 양반층과 백성 모두에게 반감을 샀다.



당백전

당백전 한 개가 상평통보 100배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당백전의 실제 가치는 상평통보의 5배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약 6개월 간 1,600만 냥이 발행되어 심각한 물가 폭등을 유발하였다.



경복궁 중건을 위한 원납전 징수

- 경복궁을 지을 비용과 백성들의 노역에 대한 절차를 의논하는데, 백성의 노역 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안으로는 재상 이하, 밖으로는 수령 이하가 역량에 따라 보조하며, 선비와 서민층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자진 납부하는 자는 상을 주기로 하고 이를 8도에 알리게 하였다. 이미 지금까지 원납이 10만이 되었다. – "승정원일기"
- (경복궁을 짓는 일의) 재정이 메말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8도의 부자 명단을 뽑아서 돈을 거두어들였다. 그리하여 파산자가 잇달았다. 이때 거두어들인 돈을 원납전이라 했는데, 백성들은 입을 비쭉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원납전(願納錢)이 아니라 원납전(怨納錢)이다." – 황현, "매천야록"

경복궁 중건을 위해 거두어들인 원납전은 처음에 기부금의 형태였으나 점차 빈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징수되었다. 이는 많은 양반과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북궐도

북궐은 경복궁의 별칭이다. 북궐도는 19세기 후반 경복궁이 중건된 후 제작된 북궐도형을 바탕으로 그려진 경복궁 조감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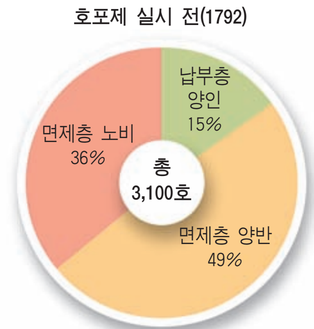
수취 체제를 개혁하여 민생 안정을 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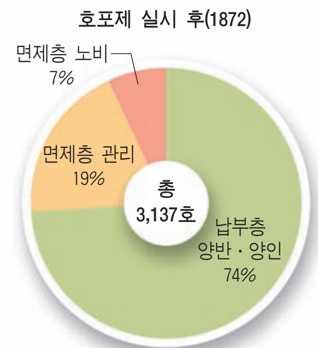
흥선 대원군은 농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삼정**을 **개혁**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 하였다. 권세가와 양반 토호의 토지 겸병을 금지하였고, 일부 지방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내 세금을 거두어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래 상민에게만 거두었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부과하였다. 이는 동포로 불렸다가 후에 **호포**로 바꾸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호마다 2냥씩 징수하였다. 다만 양반의 경우 노비의 이름으로 납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군역의 부담이 상민에게 집중되어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였던 폐단을 시정하고 조세 부담을 공평히 하려 한 것이다.

삼정 가운데 환곡은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다. 흥선 대원군은 환곡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면민들이 근면 성실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을 뽑아 사창의 자치적인 운영을 맡겼는데, 이는 탐관오리와 토호의 중간 수탈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은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전통적인 체제 내에서 전제 왕권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 호포 부담층의 변화(경북 영천)

탐구 활동 호포제와 사창제의 실시

자료 1 호포제

근래에 와서 무릇 사족이란 자는 모두 신포를 바치지 않고, 그 모자라는 액수를 평민에게 부과하여 보충하고 있었다. 대원군은 액수를 수정하고자 동포(洞布)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가령 한 동리에 200호가 있으면 매호에 더부살이 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정밀하게 밝혀내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하였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면제되던 자라도 신포를 바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조정의 관리들이 이 법의 시행을 반대하였으나 대원군은 이를 듣지 않고 시행하였다.
– 박제형, "근세조선정감"

자료 2 사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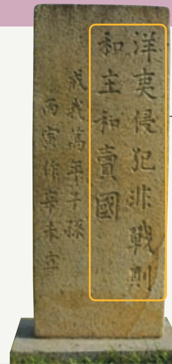
사창에는 관장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니 반드시 면민 중에서 근면 성실하고 넉넉한 자를 택하여 관에 보고한 뒤 뽑는다. 또한 관에서 강제로 정하지 말고 그를 '사수(社首)'라 하여 환곡을 나누어 주고 수납하는 때를 맡아서 검사한다. …… 사수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며, 창고지기 1명도 사수로 하여금 지역민 중에 잘 선택하여 맡아서 지키고 출납하고 용량을 재게 하는 등 모든 것을 해당 지역의 백성에게 맡긴다.
– "일성록"

1. 자료 1에서 조정의 관리들이 호포제 실시를 반대한 까닭을 말해 보자.
2. 자료 2에서 사창제의 시행이 가져온 효과를 알아보자.

3 통상 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화친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파는 것이다.
해독을 이겨 내지 못하고 교역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적이 경성에 다다를 때 도성을 버리고 간다면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용호한록"

● 당시 흥선 대원군의 이러한 정세 판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척화비



이양선의 출몰

흥선 대원군, 통상 수교를 거부하다

18세기 우리나라 연해에 처음 등장한 **이양선**은 점차 통상을 요구하며 자주 출몰하였다. 그러던 중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애로호 사건을 계기로 베이징을 함락하고 이에 청 황제가 피난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선의 지배층 사이에 위기감이 확산되었다. 또한 러시아가 강화를 중재한 대가로 청에게서 연해주를 획득함에 따라 조선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두만강을 건너 경흥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자 조선 정부는 이를 매우 불안하게 여겼다.

한편 19세기 중엽 이래 프랑스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천주교 신자가 2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 무렵에 집권한 흥선 대원군은 러시아의 위협을 막고자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교섭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마침 청에서 천주교를 탄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여기에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유생들의 주장이 이어지자 흥선 대원군은 9명의 프

탐구 활동 이양선의 잦은 출몰

• 이양선이 서해에서 부안 앞 바다로 향해 옵니다. 작은 산 덩어리처럼 크고 …… 배 위에 튀어나온 구멍에서 연기를 토합니다. 마치 날아가는 기구처럼 빠릅니다. – "고군산연혁사"

• 이달에 이양선이 출몰하여 스스로 영국의 배라 하면서 이르는 섬마다 곧 희고 작은 기를 세우고, 물을 재는 줄로 바다의 깊이를 재며 돌을 쌓고 회를 칠하여 그 방위를 표시하였다. – "헌종실록"



● 이양선이 조선의 해안에 와서 무엇을 하였는지 말해 보자.

랑스 선교사와 8천여 명의 신자를 처형하였다(**병인박해**, 1866).

1866년에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 부근까지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포로로 잡고 대포와 총을 발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자 평양의 주민들은 관군과 합세하여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워 침몰시켰다.

병인양요가 일어나다

프랑스는 자국 선교사의 처형 사실을 접하고서 이를 구실로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였다. 군함 7척을 앞세우고 들어온 프랑스군은 서울을 왕래하는 뱃길을 막으려고 한강을 봉쇄하였다. 이어 갑곶진을 거쳐 강화부를 점령하여 외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의궤와 금, 은 등을 약탈하였다. 그러나 한성근 부대가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문수산성에서 방어하였고, 양헌수 부대가 삼랑성(정족산성)에서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 결과 조선을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모두 퇴각하였다. 이 사건을 **병인양요**라 한다(1866).



강화도의 방어 시설(인천 강화 광성보)

한편 두 차례에 걸쳐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무장한 선원을 데리고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발각되어 달아났다(1868). 이를 계기로 서양인에 대한 반감이 더욱 확산되었고,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한층 확고해졌다.

역사 더하기

외규장각 도서, 140여 년 만의 귀환

병인양요 당시 참전했던 프랑스 해군 견습 사관 쥐베르는 강화도 어느 촌락의 초라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조선 선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에 “조선과 같은 먼 극동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존심마저 겸연쩍게 만든다. 조선 사회에서 문맹자들은 심한 천대를 받기 때문에 글을 배우려는 애착이 강하다.”라고 전하였다. 또한 쥐베르는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발견한 방대한 양의 서적에 대해서도 감탄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외규장각 도서 중 다수가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것이었다. 1992년에 고속 철도 건설 관련 협상 과정에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의궤 1책을 우리나라에 가져온 적이 있었다. 이 일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는 양국 간의 외교 현안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환수를 요구해 온 끝에, 지난 2011년 5월 27일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외규장각 도서 297책이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의궤 반환 요청 광고
(르몽드, 2007. 3. 7.)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전개

신미양요 이후 척화비를 세우다

미국은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직전에 발생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내세워 조선과 통상을 하려 하였다. 1871년에 미국은 강화도의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이에 어재연이 이끄는 부대가 격렬히 싸웠으나 전력의 열세로 결국 함락당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예상과 달리 조선군의 저항이 강하고 조선 정부 역시 외교 교섭에 응하지 않자 결국 철수하였다. 이 사건을 **신미양요**라 한다(1871).

신미양요 이후 흥선 대원군은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의 수교를 거부한다는 의지를 널리 알렸다.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서양 열강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대원군이 명을 내려 나라 안의 서원을 죄다 허물고 서원 유생을 쫓아 버리도록 하였다. …… 감히 항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니, 사족이 크게 놀라서 온 나라 안이 물 끓듯 하였고 대궐 문간에 나아가 울부짖는 자도 수십만이나 되었다. 조정에서는 어떤 변이라도 있을까 하여 대원군에게 간청하기를, "선현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선비의 기풍을 기르는 것이므로 이 명령만은 거두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대원군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 하였다. – 박제형, "근세조선정감"

(나) 호조 참판 최익현이 상소하기를 "지난 나랏일을 보면 폐단이 없는 곳이 없어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않아 짧은 시간 안에 다 미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서원 철폐로 스승과 제자의 의리가 끊어졌고, …… 호전(청나라 돈)을 써서 중화와 오랑캐의 분별이 어지러워졌습니다. – "승정원일기"

1. **다음 용어의 뜻을 간단히 써 보자.**

(1) 사족:

(2) 서원 철폐:

2. **서원 철폐를 둘러싸고 대원군과 양반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서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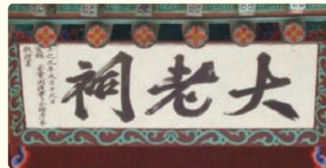
조건 대원군의 명분과 최익현의 주장을 비교하여 쓸 것

흥선 대원군과 노론 세력



1. 대로사에서 강한사로 ……

일찍이 송시열을 받들던 노론 세력은 경기 여주에 있는 송시열의 사우 현판에 '대로(大老)'라는 글자를 써서 걸었다. 그런데 1873년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흥선 대원군을 '대로'로 추대하고, 국태공(國太公) 등과 함께 공식 직함으로 사용하였다. 왕실의 위상을 높이고 서양 세력을 물리쳐 대의를 세운 공로라는 명분이었다. 그리고 '대로'가 둘일 수 없다 하여 송시열 사우의 현판을 '강한(江漢)'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노론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흥선 대원군은 자신을 '대로'라 부르게 함으로써 송시열을 간접적으로 격하시켰다. 이는 10여 년 집권 동안 권세를 부려 온 노론 세력을 누르려 한 것이다.



대로사 현판
'대로사'는 정조가 직접 지은 것으로, '덕망이 높은 노인'이라는 뜻이다.



강한사 현판
'강한사'는 '남한강가에 있는 사우'라는 뜻으로, 사우 뒤쪽에 걸려 있다.

2. 괴산 송시열 유적



괴산 송시열 유적의 구조(충북 괴산)
숙종 때 사사되었던 송시열이 복권된 후 전국 각지에 그를 모시는 서원이 40개가 넘게 세워졌다. 화양 서원은 숙종 때 송시열 문하의 유생들이 세웠다.



만동묘(萬東廟)
명 황제인 신종과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 도와준 의종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숙종 때 지은 사당이다. 만동묘라는 이름은 선조의 친필 '만절필동(萬折必東)'에서 따왔다. 이 말은 '황하는 아무리 곡절이 많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으로, 명에 대한 조선의 신하된 도리를 결코 그만둘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동묘에 오르는 계단
폭이 좁고 무척 가파르기 때문에 정면을 보고는 오를 수 없고 발을 옆으로 디뎌야만 오를 수 있다. 이는 행동을 조심하고, 들어서서 공손하게 절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노론의 숭명 사상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화양 서원 입구의 하마소 근처에 세워진 돌
'중국의 황제와 우암 송시열을 모신 곳이니 말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흥선 대원군은 집권하기 전 화양동의 경치를 구경하고 만동묘를 둘러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동묘지기에게 봉변을 당한 적이 있었다.

02 개항과 개화 정책

이 단원에서는 >> 1. 동아시아 삼국의 개항 과정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다.
2. 정부의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3. 개화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청과 일본의 개항 및 근대화 움직임

청에게는 아편을 금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편의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국의 외무 장관은 청의 정당한 권리마저 짓밟으며 이 부정한 무역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렇게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영국 글래드스턴 의원의 의회 연설(1840. 4.)

● 글래드스턴 의원이 청과의 전쟁을 반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편 전쟁

청, 불평등 조약을 맺다

중국의 차와 비단 수입으로 무역 적자가 심해진 영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였다. 청에서는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 국민 건강이 몹시 나빠졌고, 막대한 양의 은이 유출되어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또 은의 급격한 감소로 은 가격이 폭등하여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던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

애로호 사건(1856)
청의 관리가 중국인 용의자를 잡으려고 애로호에 들어가 수색·체포하는 과정에서 게양되어 있던 영국 국기를 내린 사건이다. 영국은 영국 국기를 모독했다는 구실로 전쟁을 일으켰다.

청은 광저우에 임칙서를 파견하여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무역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영국은 **아편 전쟁**을 일으켜 청을 굴복시키고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그리하여 청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을 열었으며 홍콩을 할양하였다. 또한 관세를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정 관세 제도의 도입으로 관세 자주권을 잃게 되었다. 영국은 이듬해 청과 추가 조약을 맺어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무역액이 늘지 않자 영국은 애로호 사건을 구실로 프랑스와 연합하여 광저우와 톈진, 베이징을 점령하였다(제2차 아편 전쟁). 전쟁에서 패한 청은 톈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어 10개 항구를 더 열고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이때 러시아는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얻었다.



아편 전쟁의 전개

태평천국 운동과 양무운동이 전개되다


금릉 기기국

개항 후 배상금을 지불하느라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지는 가운데, 광둥 출신의 홍수전이 청조를 타도하고 한족의 국가를 일으키자는 '멸만흥한'의 구호를 내세우며 **태평천국 운동**을 전개하였다(1851~1864). 이들은 난징을 점령한 후 천조전무 제도를 공포하여 이상 정치를 실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도부가 분열한 가운데 한인 관료가 향용을 조직하여 공격하고, 서양 세력이 청 정부와 함께 진압에 나서면서 붕괴하였다.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홍장 등 한인 관료들은 서양 무기의 우수함을 실감하고 중체서용의 원칙 아래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서양식 무기를 도입하고 군수 공장을 세웠으며, 조선·철도·제철 등의 산업을 일으키고 육해군을 양성하였다. 또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고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감독하고 상인이 경영하는 기업 운영 방식이 비효율적이었고, 지역별로 진행되어 전국적인 통일성이 떨어졌다. 결국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무운동은 중단되었다.

중체서용(中體西用)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국강병을 위해 서양의 근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개혁 운동과 반외세 운동이 일어나다


의화단 운동(1900)

청·일 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캉유웨이 등 개혁적 지식인들은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법자강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입헌 군주제 도입과 신교육 실시, 상공업 진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서 태후를 비롯한 보수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하였다(1898).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크리스트교의 확산에 분노한 사람들은 **의화단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청을 도와 서양인을 멸한다는 '부청멸양'을 내세우며 크리스트교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고 선교사를 살해하였다. 의화단 세력이 베이징에 입성하여 외국 공사관을 습격하며 기세를 올리자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8개국은 연합군을 구성하여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였다. 이후 열강은 신축 조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고 베이징에 군대를 주둔시켰다(1901).



천조전무 제도

천하의 토지는 천하의 사람들이 함께 경작하는 것이므로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황상제의 커다란 복을 받아서, 토지가 있으면 함께 경작하고, 음식이 있으면 함께 먹으며, 옷이 있으면 함께 입고, 돈이 있으면 함께 쓰며, 장소에 따라 불균형이 있거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자가 없도록 한다.

태평천국 운동은 토지의 균등 분배와 남녀평등 등의 개혁을 주장하여 농민층의 지지를 받았다.


홍수전(1814~1864)

일본,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맺다

에도 막부는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에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미국은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미국 어선의 피난처 및 중국 진출을 위한 중개 지점으로서 일본을 개항하려 하였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하자, 이에 굴복한 일본은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였다(1854). 이어 **미·일 수호 통상 조약**(1858)을 맺고 더 많은 항구를 열었다. 이후 일본은 다른 유럽 국가와도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최혜국 대우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항 이후 외국 상품이 유입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세금이 증가하자 민중의 불만이 높아 갔다.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한 에도 막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개항에 반대해 왔던 정치 세력들이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이들은 서양 세력과의 무력 충돌을 겪으면서 외국 세력의 강대함을 알게 되었고, 입장을 바꾸어 개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막부를 타도하는 데 전념하였다. 마침내 이들은 막부를 무너뜨리고 국왕 중심의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다(1868).



대정봉환
에도 막부가 국왕에게 국가 통치권을 반환한 것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막부가 폐지되면서 일본의 봉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가 마련되었다.

메이지 유신이 추진되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대적 개혁인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부국강병과 식산흥업, 문명개화를 표방하였다.

먼저 에도를 도쿄로 개칭하고, 국왕을 교토에서 이주시켜 도쿄를 정치의 중심으로 삼았다. 정부는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면서 지방 세력이 다스리던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아울러 신분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였으며, 납세 의무를 제도화하여 국가 재정의 기반으로 삼았다. 또한 국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대적 산업 시설을 도입하고 우편·철도·은행 등 근대 시설을 설립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 문물을 시찰하고자 관료와 유학생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였다. 사절단의 견문은 일본 근대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역사 더하기 이와쿠라 사절단의 파견

1871년에 메이지 정부는 서양과 맺은 조약 개정을 위해 예비 교섭을 하고 서양 문물을 배워 올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정부의 핵심 관리와 남녀 유학생을 포함하여 총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2년여 동안 각국을 방문하였다. 서양에 직접 유학하였던 유학생 중에는 훗날 총리가 되어 내각을 이끌었던 사람도 있었다.



이와쿠라 사절단(1871~1873)

일본, 제국주의의 길로 나아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조선에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국서를 보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일부 인사들이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을 주장하였다. '정한론'은 메이지 유신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농민과 무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개혁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정한론'이 당장 실행되지는 않았다.

1874년에 일본은 타이완을 침략하고, 이듬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을 개항하고 치외 법권과 무관세 조항 등을 확보하였다. 또한 유구 왕국을 강제 합병하여 오키나와 현으로 삼았으며, 국내 반정부 세력의 반란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에 사쓰마·조슈 번 출신 관료의 독단적인 정치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상인과 지식인들, 정권에서 밀려난 일부 세력은 헌법 제정과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하는 한편, 국왕이 절대권을 가지는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국회를 개설하였다. 이때 일본은 입헌 군주제를 내세웠는데, 이는 민의를 반영하기보다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부 권력을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이후 일본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등을 벌여 대외적으로 세력을 팽창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한국의 주권을 빼앗았다.

일본 제국 헌법 (1889)

- 대일본 제국은 국왕이 통치한다.
- 국왕은 제국 의회의 협찬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국 의회는 귀족원, 중의원의 양원으로 하여금 성립된다.

탐구 활동 중국과 일본의 개화를 향한 움직임

자료 1 이홍장의 군비 증강론

유럽 여러 나라가 중국에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은 자기들의 총포나 기선의 뛰어난 성능을 믿고 중국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로는 그들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서양 세력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합니다. 외국과의 평화를 유지하고 중국을 지키려면 그에 대한 방비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국가의 모든 경비를 절약하되, 병사를 기르고 총포나 군함을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만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홍장의 상소문(1862)

자료 2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개화론

지금 나라의 문명화를 꾀함에 있어서 모조리 유럽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모름지기 그쪽의 문명을 채택할 때에는 우리의 인심과 풍속을 살펴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취사선택해야 적절한 조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명에는 밖으로 드러나는 사물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의 구별이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문명은 취하기가 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문명은 찾아내기 어렵다. 나라의 문명화를 꾀하는 데는 어려운 쪽을 먼저 하고 쉬운 쪽을 나중에 해야 한다.

– 후쿠자와 유키치, "문명론의 개략"(1875)

1. 두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방식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2. 자료 1, 2의 방식이 조선의 개항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자.

2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300년 동안 통신사를 교환하고 왜관을 설치하여 교역해 왔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외교 격식을 두고 서로 버티어 왔으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처지에 통상을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다. 통상 조약 등의 절차를 잘 협상하여 조치하라. – "승정원일기"

● 우리나라가 일본과 전쟁 없이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강화도 조약의 체결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다

1873년에 흥선 대원군이 물러난 후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 민씨 세력이 정권을 주도하였다. 이후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려면 문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통상 개화론이 힘을 얻었고, 종래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 무렵 일본은 운요호를 조선에 보내 무력시위를 하며 통상 수교할 것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통상 요구에 조선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박규수, 신헌 등의 의견을 들어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1876)를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그러나 일본에 전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약에는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일본이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외에도 조선은 부산 등 3개 항구의 개항,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치외 법권) 등을 인정하였다.

부산 외 항구 추가 개항
강화도 조약에는 부산 외 2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880년에 원산, 1883년에 인천이 추가로 개항되었다.

이어서 조선은 일본과 조·일 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개항장 내 일본인 거류지 설정, 일본 화폐의 통용, 양곡의 무제한 유출과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조선은 일본의 정치적·경제적 침탈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선책략
중국 외교관 황준헌이 쓴 책이다. 조선이 러시아의 침략을 막으려면 중국과 친하고 일본·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조선책략"은 조선이 미국에 문호를 개방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나, 유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서양 열강에도 문호를 열다

개항 후 일본의 정세를 탐색하기 위해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어났다. 고종은 미국과의 수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미국 역시 조선에 진출할 목적으로 조선과의 통상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때 청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세력 확대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조선은 청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882). 이 조약은 우호 협력을 강조한 거중 조정 조항과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의 내용을 담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선은 미국과 수교한 뒤 영국, 독일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러시아와는 청이 알선을 거부하여 독자적으로 수교하였다. 프랑스와는 천주교 공인을 둘러싼 갈등으로 수교가 늦어졌으나,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선에서 천주교 포교가 묵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맺은 조약은 기본적으로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탐구 활동 동아시아 삼국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자료 1 조선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1) 조·일 수호 조규(1876. 2.)

주요 내용	일본의 의도
제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______
제4관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 ______
제7관 조선의 연해 도서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 ______
제10관 일본 인민이 조선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 ______

(2) 부속 조약(1876. 8.)

- 일본 인민은 일본의 화폐로 조선 인민의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다. –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제7관
- 금후 조선의 여러 항구에서 양미(糧米) 및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 조·일 무역 규칙 제6칙
-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 조·일 무역 규칙 제7칙

자료 2 청, 일본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1) 청과 영국 간 조약

난징 조약(1842)
- 5개 항구의 통상을 허용한다.
-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 공행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통상한다.
- 영국 상인이 청에 납부하는 관세를 상호 의논하여 결정한다.

후먼 추가 조약(1843)
- 영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다.
- 청은 영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다.

(2) 일본과 미국 간 조약

미·일 화친 조약(1854)
- 미국 선박에 연료 및 식량을 공급한다.
- 2개 항구의 개항과 영사의 주재를 인정한다.
-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1858)
- 5개 항을 개항하고 에도, 오사카의 시장을 개방한다.
- 일본의 관세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미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한다.

1. 자료 1에서 각 조항 내용에 내재된 일본의 의도를 빈칸 ㉠~㉣에 써 보자.

2. 자료 1,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찾아 그 의미를 이야기해 보자.

3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1883년 미국으로 파견된 보빙사는 24세의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여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일행 중에는 홍영식, 서광범 등 개화파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 중국인 우리탕, 미국인 로웰 등이 있었는데, 정작 영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영어와 중국어, 중국어와 조선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이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였을까?



보빙사

개화파가 형성되다

홍선 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문호를 개방하여 통상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는 양무운동 당시 청에 사신으로 다녀온 뒤 근대 문물에 눈을 떴다. 역관이었던 오경석은 여러 차례 청을 왕래하면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책을 가져와 서양 문물을 소개하였다. 한의사였던 유홍기도 이러한 서적을 접하면서 통상 개화를 주장하였다.

"해국도지", "영환지략"
청에서 간행된 세계 지리서로 "해국도지"는 위원이 지었고, "영환지략"은 서계여가 썼다. 국내에 유입되어 국외의 지식과 개화사상을 전달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들은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 젊은 양반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가르치며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후 개화파는 정계에 진출하여 정부의 개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수신사를 통해 세계정세의 변화상이 알려지면서 조선에서는 개화가 시급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청의 양무운동을 본보기로 삼아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
전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통리기무아문**을 새로 설치하여 정국을 운영하였다. 그 아래 12사를 두어 외교, 통상, 재정, 군사 등의 업무를 맡게 하였다. 또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종래의 5군영을 무위영과 장어영의 2영으로 통합 개편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따로 두었다.

정부는 개화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일본에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일본의 정부 기관은 물론 학교와 조선소 등 근대 시설을 돌아본 뒤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청에는 김윤식을 영선사로 삼아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근대식 무기 제조법과 군사 훈련법을 배우게 하였다. 그러나 근대 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년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서울에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치되었다.

정부는 미국과 수교한 후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로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보빙사 일행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박람회, 병원, 신문사, 육군 사관 학교 등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일행 중 유길준은 미국에 남아 유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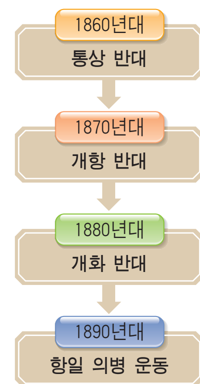
정부 주도의 개화 정책은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을 살피면서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그러나 개항 이후 농민을 비롯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개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고, 일부 유생들 역시 거부감을 나타냄으로써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다

천주교가 유포되고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보수적인 유생들을 중심으로 서양 세력을 배격하려는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났다. 1860년대 유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통상 반대의 흐름은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기정진, 이항로 등에 의해 서양의 무력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화 주전론으로 이어졌다.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은 일본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개항 반대론을 주장하였다. 1880년대에는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선책략"을 유포하고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반발하였다.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은 '만인소'를 올려 "조선책략"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이를 계기로 개화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위정척사 운동은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는 **반외세, 반침략 운동**의 성격을 띠었으며, 1890년대 이후에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되었다.

위정척사(衛正斥邪)
성리학과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배척하자는 주장이다.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



경복궁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린 최익현

저들이 우리가 방비가 없고 약함을 보이는 실상을 알고서 우리와 강화를 맺을 경우 앞으로 밀려올 구렁텅이 같은 저들의 욕심을 무엇으로 채워 주시겠습니까? …… 저들의 물화는 모두가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노리개이고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하지만, 우리의 물화는 모두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 도적이옵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학이 온 나라 안에 퍼질 것입니다. – 최익현, "면암집"

1876년 강화도에서 개항 협상이 진행될 때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가 경복궁 앞에 엎드려 위와 같은 상소를 올렸다. 그는 왜양일체론을 내세우며 일본의 침략에 의한 국가 자주성의 손상, 일본과의 교역으로 인한 산업의 폐해, 천주교 확산에 따른 미풍양속의 파괴 등을 지적하였다.


최익현(1833~1906)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을 풍자한 그림

군인들이 개화 정책에 반발하다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은 유생뿐만 아니라 구식 군인과 하층민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개항 이후 일본 상인에 의해 쌀, 콩 등의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되어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에 서민과 하층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인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 갔다.

한편 군제 개혁에 따라 구식 군인들이 2영으로 통합되면서 많은 군인이 실직하였다. 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우대받는 것에 비해 구식 군인들은 봉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불만이 많았다. 구식 군인들은 1년이 넘게 밀린 월급 중 1개월분의 월급으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개화 정책을 추진한 민씨 정권의 고관 집을 습격하고 일부 관리들을 죽였다. 여기에 도시 하층민까지 가세하여 관청을 공격하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였으며,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궁궐이 공격당하여 고관들이 살해되고 왕비가 피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고종은 흥선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요청하였다. 다시 집권한 흥선 대원군은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구하는 등 개화 정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청이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하고 군인과 도시 하층민의 저항을 진압하였다. 이로써 민씨 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마건상과 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적극 간여하였다. 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을 강요하여 청 상인의 내륙 진출과 치외 법권을 인정받았다. 한편 일본은 조선에 거류하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여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고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켰다. 임오군란 결과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게 되었고, 청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투가 심화되었다.

제물포 조약

제3조 조선은 5만 원을 내 피해를 입은 일본 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흉도의 폭거로 일본이 받은 피해 및 공사를 호위한 육해군 경비 중에서 50만 원은 조선이 채워 준다. 매년 10만 원씩 5년 동안 완납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개화의 방향을 두고 두 세력으로 나뉘다

임오군란 이후 개화 세력은 청에 대한 입장과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을 둘러싸고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화되었다. 온건 개화파는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반면, 급진 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 적극적인 개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세력 간의 불신과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진 개화파는 국가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개화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하려다 실패하였다.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자 급진 개화파는 비상수단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급진 개화파, 정변을 일으키다

청은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충돌할 조짐이 나타나자 조선에 주둔하던 군인의 절반을 베트남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급진 개화파는 이를 기회로 삼아 정변을 계획하고 청군의 개입에 대비하여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는 우정총국 완공을 축하하는 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갑신정변**, 1884). 이들은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죽이고 새 내각을 발표하였다. 이어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인민 평등권 확립, 내각 중심의 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14개조 정강을 발표하고 근대적 개혁 정치를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변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홍영식은 죽임을 당하였다.

갑신정변은 소수의 지식인들이 급진적 방식으로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여 농민들의 염원이었던 토지 제도 개혁에 소홀하였고,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전개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으로서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인민 평등권을 반영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이 추구했던 개혁 사상과 정책은 갑오개혁에 반영되었다.

새 내각의 주요 명단	
좌의정	이재원
우의정	홍영식
전후 영사	박영효
좌우 영사	서광범
병조 참판	서재필
호조 참판	김옥균



갑신정변의 전개

탐구 활동 갑신정변 14개조 정강

1.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하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의 행사를 폐지한다.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한다.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를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제하며 국가 재정을 충실히 한다.
4. 내시부*를 폐지하고 그 가운데 재능 있는 자는 등용한다.
5.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를 처벌한다.
6.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순사 제도를 시급히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폐지한다.
10. 그동안 유배·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한다.
11. 4영을 합하여 1영으로 만들고,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설치한다.
12. 재정은 호조가 관할하며, 그 밖의 모든 재무 관청은 폐지한다.
13.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부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서 시행한다.
14. 정부는 6조 외의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없애고 대신과 참찬이 협의해서 처리한다.

– 김옥균, "갑신일록"

*지조법: 토지에 부과된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정
*내시부: 조선 시대에 내시(환관)를 관할하던 관아
*혜상공국: 1883년에 보부상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한 관청

1. 급진 개화파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장했던 내용을 찾아보자.
2. 급진 개화파가 추구한 정치 체제가 무엇인지 관련 조항을 찾아 설명해 보자.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의 각축이 심해지다

갑신정변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에 온 위안스카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였으며 청 상인의 활동을 비호하였다. 일본 역시 정변의 책임을 조선 측에 돌리며 배상금 지불, 공사관 신축비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이를 받아들여 일본과 한성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축

일본은 불리해진 상황을 만회하고자 이토 히로부미를 청에 보내 **톈진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 청과 일본 양국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사전에 서로 알린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정부는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러시아와 접촉하여 이전에 맺은 수호 통상 조약에 이어 비밀 협약도 모색하였다. 러시아가 영흥만을 조차하는 대가로 조선에 군사 교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조선에 접근하는 것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1885~1887).

한편 이 무렵 열강의 조선 침략이 격화되자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유길준 등은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동도서기론**: 군신·부자·부부·장유·붕우의 윤리는 하늘로부터 얻어서 본성에 부여된 것인데, 천지에 통하고 만고에 뻗치도록 변하지 않는 이치로 위에서 도(道)가 되었습니다. 수레·배·군사·농업·기계는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에 이로운 것으로 밖에 드러난 기(器)가 되니,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나) **위정척사론**: 서양 물건과 사학의 위세로 공맹의 태도는 날로 사라져 가정에는 윤리가 깨지고 사람에게 예의가 허물어진 결과,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으니 전하께서는 더욱 위정척사의 대의를 밝혀 '주화매국' 하려는 신하를 처단해야 합니다.

1. 다음 용어의 뜻을 써 보자.

(1) 동도서기:

(2) 위정척사:

2. 개항 이후 1880년대까지 (가), (나)의 입장에서 전개된 활동을 각각 서술해 보자.

심화 주제

갑신정변의 주역, 그들을 찾아가다

박규수의 사랑방에 모여 개화사상을 나누던 젊은 청년들은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결국 삼일천하로 막을 내렸다. 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 이들은 살해 위협 속에 김옥균과 같이 일본 전역을 떠돌거나,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처럼 미국으로 떠나기도 하였다. 이제 서울 곳곳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아보자.



김옥균(1851~1894)

급진 개화파의 지도자였던 김옥균은 안동 김씨 출신에다 22세 때 이미 장원 급제하여 출세를 보장받은 청년이었다. 박규수의 영향으로 신사상을 접하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과 교류하며 세력을 형성하였다. 평소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라면, 조선은 아시아의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을 통해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홍영식(1855~1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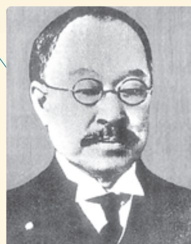
홍영식은 1881년에 조사 시찰단의 수행원으로서 일본에 다녀왔고, 1883년에는 보빙사의 수행원으로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때부터 개화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우편 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1884년에 우정총국이 설립되자 우정국 총판에 임명되었다. 홍영식은 갑신정변 당시 국왕을 호위하다 청군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서광범(1859~1897)

1882년 김옥균과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 수행하였고, 1883년에는 보빙사의 수행원으로서 미국과 유럽을 순방하였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일본, 미국 등으로 망명하였다. 그러다 1894년에 귀국하여 2차 김홍집 내각에 참여하였다.



박영효(1861~1939)

철종의 부마였던 박영효는 1882년 임오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수신사로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정계 지도자 및 구미 외교 사절들과 접촉하였다.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1894년에 귀국하여 2차 김홍집 내각에 참여하였다. 1907년에 다시 귀국한 이후로는 친일의 길을 걸었다.

활동 **위의 인물들이 갑신정변 전후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조사해 보자.**

0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

이 단원에서는 >> 1. 동학 농민 운동의 반봉건적·반침략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2.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을 시기별로 제시할 수 있다.
3. 동학 농민 운동과 갑오개혁의 개혁 방안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이제 와서 그 흙탕물 어찌 두고 보랴.
원한 쌓인 만석보 삽으로 찍으며 /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소리소리 쳤다
만석보를 허물어라 만석보를 허물어라 / 터진 봇둑 밀치며 핏물이 흐르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얼싸안고 울었다.

– 양성우, '만석보' (1980)

● 여러 사람이 만석보를 허문 까닭은 무엇일까?



만석보 유지비(전북 정읍)

안팎의 문제로 농민들이 고통받다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의 추진, 외국과의 분쟁에 따른 배상금 지불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농민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또한 외세의 간섭과 민씨 세력의 부정부패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지방관의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관직을 산 수령들은 농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수탈하여 곳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한편 쌀, 콩 등의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국내의 곡물 가격이 치솟아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일본 상인들이 수출할 쌀을 확보하려고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붙여 가을에 쌀을 걷어 갔기 때문이다. 또한 청과 일본 상인들이 내륙까지 들어와 외국산 면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국내의 면포 산업이 몰락해 갔다. 지방관의 수탈과 외세에 의한 경제적 피해로 농민을 비롯한 백성들 사이에서는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갔다.

동학교도, 교조 신원 운동을 펴다

동학은 '인내천'이라는 평등사상과 외세를 배척한다는 반침략적 사상을 내세워,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경제 침탈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대 교주였던 최시형이 교단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 동학의 교세는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확장되었으며, 강원도와 경기 일대까지 세력이 퍼져 나갔다.


최시형(1827~1898)

이러한 교세의 확장에는 동학의 조직망인 포접제가 큰 역할을 하였다.

세력을 확장한 동학교도는 억울하게 죽은 교조 최제우의 누명을 벗기고 포교의 자유를 얻고자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교도는 충청도 공주에서 첫 집회를 열었고 전라도 삼례에서도 집회를 가졌다(1892). 이듬해 동학 지도자들은 복합 상소에 나서 교조 신원과 동학의 공인 등을 요구하였다.

1893년 3월, 동학 지도부는 최제우의 기일에 맞추어 충청도 보은에서 수만 명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모아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나 정부의 탄압과 회유로 해산되었다. 이 집회에서는 지도부의 의사와 달리 종교적 요구뿐만 아니라 탐관오리의 숙청과 외세 배척 등 정치적 요구까지 제기되었다. 동학은 교조 신원 운동을 거치면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농민들을 조직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포접제
전국을 포와 접으로 나누고, 책임자를 두어 관리한 동학의 교단 조직이다.

복합 상소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관료나 유생이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올리는 상소를 말한다.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시작되다

전라도 고부는 비옥한 농토와 해안을 낀 곡창 지대였다. 고부 군수 조병갑은 농민을 동원하여 기존의 보 밑에 새로이 만석보를 세워 강제로 물세를 거두는 등 농민을 수탈하였다. 이에 전봉준 등은 사발통문을 돌려 농민들을 모아서 고부 관아를 습격하여 군수를 내쫓고 아전을 징벌하였다. 불법으로 거둔 곡식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새 보는 무너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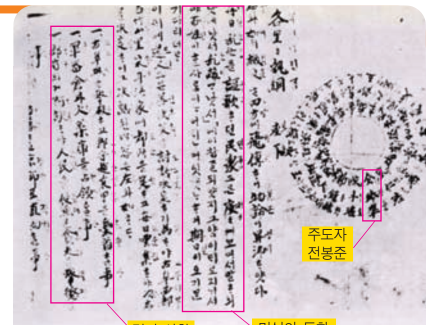
이에 놀란 정부는 조병갑을 서울로 압송하고 새 군수를 임명하였으며, 이용태를 안핵사로 보내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농민들은 새로 부임한 군수의 회유로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조사관으로 온 이용태는 일체의 죄를 동학교도에게 돌리고 봉기 관련자를 처벌하였다.



사발통문

민중이 곳곳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겠는가?" 하며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 결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의 것을 빼앗은 탐관오리를 공격하여 징계할 것



사발통문

이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 전봉준 등의 주동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1968년에 서명자 중 한 사람의 후손 집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민심의 동향, 결의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고, 주동자들의 이름이 둥글게 쓰여 있다.

보국안민을 내걸고 제1차 농민 봉기를 전개하다

전봉준은 손화중을 찾아가 손을 잡았고, 여기에 김개남이 합류하면서 동학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무장에서 농민군을 재편성하여 다시 봉기하였다. 농민군은 고부를 점령한 후 백산으로 이동하여 4대 강령과 보국안민, 제폭구민의 내용이 담긴 격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백산을 떠나 전주성 점령을 목표로 태인을 거쳐 금구 원평에 진을 쳤다. 그러는 사이 4천여 명으로 시작된 봉기는 날로 세력이 커져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일반 농민들도 참여하여 탐관오리 축출, 조세 수탈 시정 등을 주장하였다.

농민군은 전주 감영에서 온 관군을 황토현에서 격파하였다. 또한 중앙에서 파견된 정부군을 장성 황룡촌에서 크게 물리쳤으며, 기세를 몰아 전주성까지 점령하였다.

농민군의 4대 강령

1.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남의 물건을 해치지 말라.
2.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3.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하라.
4.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애라.

– 정교, "대한계년사"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다

전주성 함락 소식에 놀란 정부는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청이 군대를 보내자 일본 역시 톈진 조약을 구실로 곧바로 조선에 파병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의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외국 군대의 파병 소식을 접한 농민군은 전주에서 정부군과 휴전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한 뒤 해산하였다. 정부도 농민군의 신변 보장을 약속하고 개혁안을 일부 수용하였다. 농민군은 전주 화약을 맺은 후 새로 부임한 전라 감사와 타협하여 전라도 각 지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개혁을 추진해 갔다. 농민군은 부패한 지방관과 향리, 횡포한 양반 등을 처벌하였다. 그러자 불안을 느낀 양반들이 노비 문서를 불태우기도 하였다. 정부는 전주 화약을 체결한 후 교정청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면서 청과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집강소
전주 화약 체결 이후 동학 농민군이 내정을 개혁하고자 전라도 각 군에 설치한 민정 기관이다. 한 사람의 집강과 그 아래에 서기, 성찰, 집사 등의 임원을 두었다.



백산기포의 격문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른 것은 그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내몰고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을 받는 민중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다. 조금도 주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 오지영, "동학사"


동학 농민 운동 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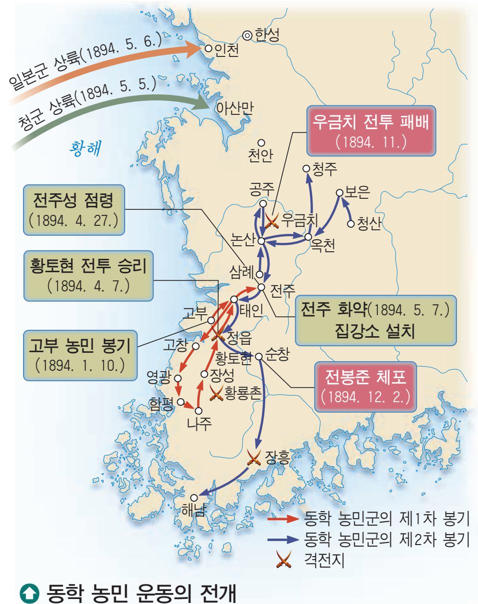
1894년 3월 25일 여러 지역에서 모인 농민군들은 백산에서 전봉준을 대장으로, 손화중과 김개남을 총관령으로 선출하였다. 여기에서 농민군의 4대 강령과 격문이 발표되었는데, 보국안민, 제폭구민이라는 농민군 이념과 함께 일본을 배척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2차 농민 봉기에서 반침략을 주장하다

일본은 조선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 후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1894).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농민군은 일본군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삼례에서 다시 봉기하였다. 그동안 종교 활동을 강조하며 농민 봉기에 반대하였던 북접도 손병희의 지도 아래 농민군을 이끌고 가세하였다. 북접은 논산에서 남접과 연합하여 공주로 나아갔다.

남접·북접
동학 조직은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동학 지도부를 북접, 전봉준 등 전라도를 중심으로 민란을 주도했던 지도부를 남접이라 불렀다.

남접과 북접이 연합한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화력에서 밀려 결국 패배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기울어진 전세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체포되면서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반외세, 반봉건의 방향을 제시하다

동학 농민 운동은 안으로 정치와 사회 개혁을 이루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했던 대규모 농민 운동이었다. 비록 정부와 일본군의 공격으로 실패하였으나 이후 농민의 사회 개혁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의병 운동에 가담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갑오개혁 때 신분 제도와 봉건적 악습이 폐지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탐구 활동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

자료 1 전봉준 공초

문 고부 등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다 하니 무슨 사연으로 그리 하였는가?
답 고부 군수가 정역 외의 가렴이 수만 냥인 고로 민심이 억울하고 통한스러워 이 의거가 있었다.
문 고부에서 난을 일으킬 때 동학이 많았느냐, 원민(寃民)이 많았느냐?
답 의거할 때에 원민과 동학이 합하였으나 동학은 적고 원민이 많았다.
문 다시 난을 일으킨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 일본이 개화라 칭하고 …… 서울에 들어와 밤에 왕궁을 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초야의 백성들이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여 군사를 규합하였다.

자료 2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

1. 전운소*를 없앨 것
2. 세금을 징수할 토지를 확대하지 말 것
4. 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간 환곡을 다시 내라고 하지 말 것
7. 탐관오리들을 아울러 파면하여 내쫓을 것
10. 전세는 이전의 예에 따를 것
11. 집집마다 부과하는 노역을 줄일 것

– 전봉준 사형 판결문 중

*전운소: 세금으로 낸 쌀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이다. 쌀 이외에 선박 수리비 등을 징수하여 삼남 지방 백성들의 불만을 샀다.

1. 자료 1에서 전봉준이 지적한 고부 농민 봉기의 원인을 찾아보자.
2. 자료 2를 읽고 농민군이 파악했던 조선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2 갑오·을미개혁의 추진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을 설치하였고,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폐정 몇 가지를 개혁하니 모두 동학당이 주장해 온 일이다. 자주 개혁을 점차 추진하여 일본인들이 끼어듦을 막고자 하였다. …… 공사채를 물론하고 족징을 절대 금한다. – 김윤식, "속음청사"

● 정부가 교정청을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김홍집(1842~1896)

군국기무처가 개혁을 주도하다

동학 농민 운동을 구실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청에 조선의 내정 개혁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일본군이 조선에 계속 주둔하고 청과 전쟁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 청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일본군에게 먼저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교정청은 곧바로 동학 농민군이 요구한 개혁안을 일부 받아들여 잡세 폐지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한 후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1894). 이러한 상황에서 제1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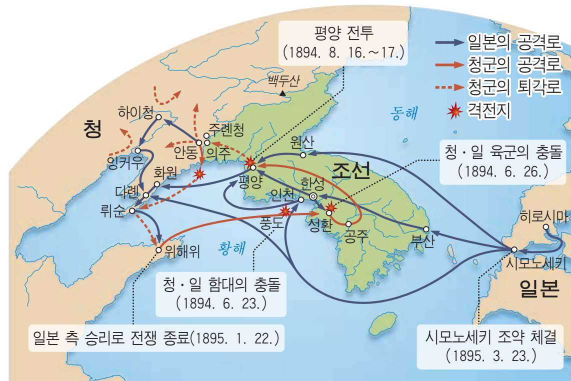
역사 더하기 청·일 전쟁의 발발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이 더욱 심해졌다. 청은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고, 일본은 청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1894년 4월,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정부는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5월에 청과 일본의 군대가 잇따라 조선에 들어와 주둔하였다. 조선의 철병 요구를 거절한 일본군은 6월에 충청도 아산만 부근의 풍도 앞바다에 있는 청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8월 평양 전투와 황해 해전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일본군은 남만주와 랴오둥 반도에 진격하고 산둥 반도의 청 해군 기지를 공격하였다. 이에 청이 일본에 강화 회담을 요청하였고,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1895).

전쟁 결과 일본은 거액의 배상금과 랴오둥 반도, 타이완 등의 영토를 차지하여 중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쟁 중에 무주지라는 이유로 조어도(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를 영토로 편입하였다. 이는 오늘날 일본과 중국, 타이완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



청·일 전쟁의 전개(음력 표기)

새 내각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개화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개화파 인물들을 기용하여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일본은 청과의 전쟁에 힘을 쏟고 있어서 개혁에 관여하기 어려웠다. 군국기무처에 참여한 이들은 개혁에 열성을 갖고 갑신정변의 정강이나 동학 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치 면에서는 궁내부를 따로 설치하여 국정과 왕실 사무를 분리함으로써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의정부 산하의 6조는 8아문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였다. 또한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 임명 제도를 마련하였다. 경제 면에서는 탁지아문이 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왕실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세금을 걷는 폐단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은본위 화폐 제도와 조세 금납제를 시행하였으며,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사회 면에서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조혼을 금지하였다. 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고문과 연좌제 등 봉건적인 악습을 혁파하였다.


군국기무처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 회의 기구로, 1차 개혁 기간인 약 3개월 동안 국정 전 분야에 걸쳐 200건이 넘는 의안을 의결하였다.

개국 기년
조선의 건국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갑오개혁이 있었던 1894년은 '개국 503년'으로 표기하였다.

홍범 14조가 반포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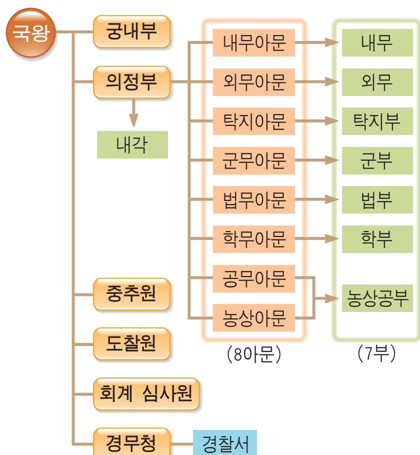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조선의 내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친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군국기무처를 폐지한 후 일본에서 돌아온 박영효를 내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김홍집·박영효 내각이 출범하여 제2차 개혁이 추진되었다.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내정 개혁 및 자주독립을 선포하는 독립 서고문을 바치면서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탐구 활동 홍범 14조의 반포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 외척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 대군주는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과 외척의 내정 간섭을 금지한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해 함부로 거두지 않는다.
7.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총명한 젊은이를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보고 익히게 한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과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 관보(1894. 12. 12.)

1. 위의 개혁안 중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찾아보자.
2. 개혁안 가운데 근대 국가를 지향했던 요소를 찾아 말해 보자.



1·2차 개혁 때의 정부 기구

제2차 개혁에서는 의정부를 내각으로 명칭을 바꾸고, 내각 아래에 이전의 8아문을 조정하여 7부를 두었다. 이와 함께 지방 행정 구역을 전국 8도에서 23부로 재편하였다. 지방관의 사법권을 배제하여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꾀하였다. 한편 국민 교육을 위한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한 후 한성 사범 학교, 소학교, 외국어 학교 관제 등을 공포하여 근대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하였다.

제3차 개혁(을미개혁)이 국민의 반발을 사다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사이,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과 랴오둥 반도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팽창을 경계하던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의 랴오둥 반도 점령을 좌절시켰다(**삼국 간섭**, 1895).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자 조선 정부는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의 간섭을 막으려고 하였다. 여기에 개혁을 주도하던 박영효가 실각하고 일본으로 다시 망명하자, 고종은 이완용, 이범진 등 미국 및 러시아와 가까운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배일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군인 출신의 미우라를 주한 공사로 임명하여 무력 행동에 나섰다. 일본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배척한 배후 인물로 명성 황후를 지목하고 무참히 시해하였다(**을미사변**, 1895).

을미사변 이후 다시 구성된 친일 내각은 태양력 사용, 소학교 설치와 우편 사무 시작, 종두법과 **단발령**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건양' 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군제를 개혁하여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를 각각 두었다.

건양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 1월 1일부터 '건양' 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하였다. '건양' 은 '양력으로 세운다.' 라는 의미이다.

유생과 농민들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노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일본군이 의병을 진압하려고 지방으로 출동하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아관 파천**, 1896). 이로써 친일 내각이 붕괴하고 개혁은 중단되었다.

역사 더하기 태양력의 사용

조선은 해와 달을 고려한 기존의 음력(태양태음력)을 1896년부터 태양력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시간과 관련된 모든 일상생활과 근무일, 공휴일 등이 바뀌었으며, 나아가 중국을 기준으로 하였던 표준 시간이 서양을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는 음력과 양력 사이에 어떤 과학적인 우열을 토대로 했다기보다 당시 권력을 가진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1896년 이후 태양력을 공식 달력으로 채택했지만 왕실에서 생일, 제사 등을 지낼 때에는 여전히 음력을 사용하였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음양과 오행의 기운이라고 보았다. 이는 오랜 기간을 거쳐 하나의 전통문화가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는 공식적으로 양력만 허용되었고, 음력의 사용은 미신을 따르는 것이라며 거부되었다.

갑오·을미개혁, 근대 사회를 지향하다

갑오·을미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진행되었으나,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던 개화파의 의지와 사회 변혁을 시도한 동학 농민군의 요구가 담긴 근대적 개혁이었다. 특히 신분제를 폐지하고 내각 중심의 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 독립 협회와 애국 계몽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개혁은 친일적 인물들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일본의 간섭과 침략적 의도 아래 진행되어 국방상 중요한 군사 분야 등의 개혁에는 소홀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갑오개혁과 일본의 간섭

조선 정부도 10년 이래 내정 개혁의 필요를 느끼고 점차적으로 개혁에 착수하여 왔다. 그렇지만 아직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차에 남도에 민란이 발생하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민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때에 조정 회의에서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위해 대군주 폐하로부터 엄중한 칙령도 내려졌으며 계속해서 교정청을 설치하고 위원들을 임명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일신(一新)된 정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귀 공사가 지금 대군을 주둔시키고 기한을 정해서 개혁의 실행을 촉구하는 것은 자못 내치에 간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일 수호 조규 제1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조선 정부가 일본 공사에게 보낸 외교 문서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명분을 찾고자 '내정 개혁'을 내세워 조선 정부를 압박하였다. 정부는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는 한편, 농민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하고자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가), (나)와 같은 시행령이 나오게 된 계기와 이에 대한 국내 반응을 서술해 보자.

(가) (1895년 11월) 15일에 고종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 내외 신민에게 명하여 모두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 ……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지니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하고 노해서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며, 형세가 바야흐로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엄히 하여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 황현, "매천야록"

(나) 모든 남자는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으라는 시행령을 선포하였다. 성문마다 파수꾼과 군졸들이 배치되었다. …… 남자들의 갓은 예외 없이 벗겨지고 가위가 나와 상투를 잘랐다.

– 올리버 에비슨, "구한말 비록"

조건 해당 시행령에 반발한 세력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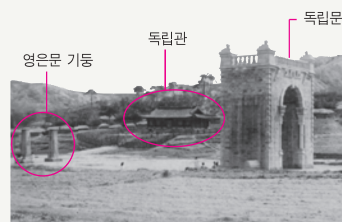
04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이 단원에서는 >> 1. 독립 협회의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 독립 협회가 지향한 근대 국민 국가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3. 대한 제국이 추진한 광무개혁의 성격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1 독립 협회의 활동

서재필은 1895년에 철거되어 돌기둥만 남아 있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1896년 11월 21일 독립 협회 회원, 정부 관리, 시민, 학생 등 무려 5~6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정초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1년 뒤인 1897년 11월 20일 독립문의 역사적인 준공이 이루어졌다.

- 영은문이 철거된 자리에 독립문을 세운 까닭은 무엇일까?



준공 당시의 독립문(1897)

아관 파천 시기의 개혁
- 단발의 자유화
- 내각 폐지와 의정부 복설
- 지방 행정 체제를 23부에서 13도로 개편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다

1896년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뒤 명령을 내려 친일적인 김홍집 내각을 해산하고, 박정양, 이완용, 이범진 등 친미·친러 성향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새 내각은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단발은 자유의사에 맡겼고 의병들에게 해산을 권유하였으며, 각종 잡세를 줄여 민생고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 혼란은 줄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는 여러 유리한 상황들을 이용하여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차지하며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 갔다. 서양 열강도 이 틈을 이용하여 저마다 최혜국 조항을 내세워 각종 경제적 이권을 빼앗아 갔다. 일본 역시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면서 러시아와 대립하였다.


독립신문 창간호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 협회를 세우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서재필은 을미사변 이후에 다시 귀국하였다. 그는 서구 시민 사상에 입각하여 국민을 계몽할 방안을 고심하였다. 그러던 중 아관 파천으로 일본의 압력이 약화되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한글과 영문판으로 된 독립신문은 국민을 계몽하고, 자주독립과 자유 민권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어 서재필은 독립문 건립을 명분으로 하여 근대적 개혁 사상을 지닌 인사들과 함께 **독립 협회**를 결성하였다. 결성 초기에는 현직 관료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독립 협회는 의사 결정 과정에 다수결의 원칙 등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독립문과 독립관 건립에 쓰일 보조금을 내고 가입 의사를 밝히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점차 학생, 교사, 하급 군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적인 단체로 성장해 나갔다. 독립 협회는 모금을 통해 청의 사신이 사용했던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조하였으며, 청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터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서재필(1864~1951)

토론회를 열어 국민 계몽에 나서다

독립 협회는 독립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주제를 정하고 찬반 토론자로 하여금 토론을 하게 한 후, 참석한 방청인이 다수결로 결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토론회의 주제는 신교육 진흥, 산업 개발, 위생 및 치안, 민족 문화, 미신 타파, 신문 보급 등 계몽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다 점차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의회 설립, 민권 신장, 개혁 내각 수립 등 당면한 현안 문제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토론회는 수백 명이 방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으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민중을 계몽하고 정치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독립 협회는 임원이나 관료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성장하였다.



복원된 독립관(서울 서대문)

역사 더하기 + 토론회의 규칙과 주제

1897년 8월 29일부터 1898년 12월 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열린 토론회의 규칙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규칙

제1조 본회는 독립 협회 토론회라 칭함.
제2조 본회의 처소는 독립관으로 함.
제22조 개회 예식은 다음과 같음.
5. 회장이 토론할 문제를 회원에게 포고함.
6. 토론 문제는 찬성 2명과 반대 2명으로 나누어 논하되 시간은 매 1인 각 10분에 한함.
7. 찬반 토론이 끝난 다음 회장이 토론권을 회원에게 허락하되, 시간은 매 1인 각 5분에 한함.
8. 토론이 끝난 다음에 회장이 서서 회중의 찬반을 질문하면 …… 다수에 따라 결정함.

(2) 토론회 주제

1897. 8. 29.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에 있다.
1897. 12. 26.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신문을 발간하는 일이 제일로 중요하다.
1898. 3. 6.	우리 국토를 남에게 빌려 주면 이는 죄인이요, 원수이다.
1898. 4. 3.	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 제일 긴요하다.
1898. 5. 8.	백성의 권리가 튼튼할수록 임금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나라의 형세가 더욱 커진다.

자주 국권 운동을 벌이다

고종이 환궁한 이후 러시아는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군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고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더욱이 러시아는 목포와 진남포의 토지 매입을 비롯하여 부산 절영도 석탄고 기지의 조차, 한러 은행의 설립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독립 협회는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고종에게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 개혁의 단행을 요구하는 구국 운동 상소문을 올렸다. 독립 협회의 구국 운동 상소문으로 사회 정치 운동이 추진되자 정부 관료들이 독립 협회를 떠나기 시작하였다.

1898년 3월에 독립 협회는 종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 대회인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고 이권 요구를 규탄하였다. 만민 공동회는 상인, 학생 등 1만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대한 제국 정부와 외국인을 움직였다. 결국 러시아는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으며 한러 은행을 폐쇄하였다.

구국 운동 상소문

나라의 나라됨은 둘이 있으니 자립(自立)하여 타국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수(自修)하여 한 나라에 정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립에 있어서는 재정권과 병권·인사권을 자주(自主)하지 못하고, 자수에 있어서는 제도와 법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국가가 이미 국가가 아닌즉, 원컨대 안으로는 정식의 제도를 실천하시고 밖으로는 타국에 의뢰함이 없게 하시어 우리의 황제권을 자주하고 국권을 자립하소서. – 정교, "대한계년사"

자강 개혁과 자유 민권 운동을 이어 가다

독립 협회는 반러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권 의식이 높아지자, 국내 문제로 관심을 돌려 내정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1898년 중반 이후 독립 협회는 황실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통화를 남발했다는 이유로 황제의 측근이었던 이용익의 죄를 고발하고 사퇴시켰다. 또한 보수적인 대신들이 연좌법 등 이미 폐지된 악법을 부활시키려 하자 이에 맞서 관련 대신들의 사임을 촉구하였다. 고종은 이를 수용하여 박정양 등을 중심으로 개혁적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독립 협회는 정부의 탐관오리와 보수적 대신들을 규탄하고 물러나게 하려고 연일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으며,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박정양(1841~1904)

독립 협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국민 참정권 운동을 펼쳤다.

한편 독립 협회는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 기능을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 대신들까지 참석한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고 황제에게 바칠 **헌의 6조**를 채택하였다. 고종은 이를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중추원 관제의 내용

중추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 독립 협회의 선거로 뽑힌 25인, 황제가 임명한 25인으로 구성된다. 법률과 칙령안, 의정부 의결안, 국민의 건의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독립 협회가 해산되다

박정양이 독립 협회에 중추원 의관 절반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독립 협회는 이들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독립 협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보수파 관료들은 익명서 사건을 조작하여 고종에게 '독립 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국을 세우려 한다.'라고 모함하였다. 이에 고종은 독립 협회의 해산을 명령하고 독립 협회 간부를 구속하였다. 또 헌의 6조에 서명한 박정양 등을 파면하고 보수적인 내각을 구성하였다.

독립 협회가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가자, 정부는 황국 협회의 보부상들을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를 습격하게 하였다. 독립 협회와 정부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결국 독립 협회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익명서 사건

조병식 등 보수파 관료들은 의회가 설립되어 내정 개혁을 단행하면 자신들이 배제될 것이라 우려하였다. 이에 독립 협회의 이름을 꾸며 넣은 익명서(비밀 전단)를 시내 곳곳에 붙여 일부러 발각되게 하였다.

독립 협회,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다

독립 협회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여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국민을 계몽하고 자유 민권 사상을 보급하여 자강 개혁을 달성하려 하였다. 독립 협회는 민중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

그러나 독립 협회의 주도 세력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에 적극적이었지만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외세에 대한 편중된 인식을 가졌다. 또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과 교류하면서 근대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역점을 두어 그들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녔다.

탐구 활동 독립 협회의 활동과 지향

자료 1 자주 의식의 필요성

누구든지 남의 물건과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데, 한두 번이고 빼앗아 본 사람과 나라는 언제든지 욕심이 자라 그칠 날이 없다. 이런 무리한 일을 못하게 하는 방책은 아무리 저 사람이 뺏으려 하더라도 내가 뺏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무리한 일을 못하는 법이다. …… 도적들이 가진 병장기의 힘을 헤아려 도적의 병장기보다 더 편리한 병장기를 준비해 두어야 설령 도적이 오더라도 방어를 할 터이요, 또 도적이 그 집에 이로운 병장기가 있고 사람이 많이 있는 줄 알면 가지를 아니할 터이다. – 독립신문(1897. 8. 12.)

자료 2 민권 의식의 중요성

정부에서 벼슬하는 사람은 임금의 신하이며 백성의 종이다. 종이 상전의 경계와 사정을 자세히 알아야 그 상전을 잘 섬길 터인데, 조선은 거꾸로 되어 백성이 정부 관리의 종이 되었으니, 백성은 죽도록 일을 하여 돈을 벌어 관리들에게 주면서 상전 노릇하여 달라 하니 어찌 우습지 않겠는가.

– 독립신문(1896. 11. 21.)

1. 자료 1에 드러난 사상을 토대로 독립 협회가 전개한 활동을 조사해 보자.
2. 자료 2를 토대로 독립 협회가 지향한 정치 체제를 말해 보자.

2 대한 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가 됨을 고하는 즉위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또 대한 제국의 출범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이처럼 환구단은 대한 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하였던 뜻 깊은 장소이다. 하지만 일제는 환구단을 없애고 천지신령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황궁우만 남겨 두었다. 환구단 자리에는 호텔이 들어섰다.

● 대한 제국이 환구단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황궁우와 환구단

대한 제국의 수립을 선포하다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독립 협회를 비롯한 개화 지식인, 지방 유생 등 각계각층이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세력 독점을 견제하려는 국제적 여론이 높아졌다.

고종은 러시아 군사 교관에 의해 궁궐을 경비할 병력이 갖추어진 후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아관 파천 이후 1년여 만이었다. 고종이 환궁하자 열강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권을 바로 세우고 대내외에 자주독립 국가임을 알리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편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어느 쪽도 우위에 서지 못하고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서 전·현직 관리들은 '황제가 없으면 독립도 없다.'라고 주장하며 **칭제건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건양' 대신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관리와 유생, 개화파 지식인들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국가의 주권을 세워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국호, '대한 제국'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 이래로 황제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다. 조선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한'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우리나라는 마한·진한·변한 등 원래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

– "고종실록"

'대한'이라는 국호에는 우리나라가 마한·진한·변한 등 삼한을 통합한 나라이며, 중국과 같은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


오얏꽃 모양의 은잔과 잔받침(충청남도 역사 박물관)
이것은 어느 관리가 고종에게서 하사받은 것이다. 오얏꽃 무늬는 대한 제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이다.

고종은 칭제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 제국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각국 외교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일본이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자 가장 먼저 대한 제국을 승인하였고, 이어서 러시아와 프랑스 등도 승인하였다. 처음에 반발하였던 청 역시 결국에 대한 제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양국 황제의 이름으로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1899).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다

고종은 민권을 확대하고 내정을 개혁하려는 독립 협회에 부담을 느꼈다. 이에 독립 협회를 해산한 다음, 황제 직속으로 법규 교정소를 설치하여 지금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1899). 대한국 국제는 만국 공법에 의거하여 대한 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며, 황제가 군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고종은 궁내부의 조직과 권한을 보강하여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또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황실 재정을 확보하고 황실 주도의 개혁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군부와는 별도로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대원수로서 군대를 통솔하였다. 이처럼 대한 제국은 황제가 전권을 행사하는 전제 군주국이었다.

대한국 국제
9개조로 이루어진 대한국 국제는 황제의 대권만 규정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군주의 대권을 법에 따라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국 공법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튼의 국제법 저서를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1864년에 한자로 번역하여 출판한 책이다. 국제법을 뜻하기도 한다.

탐구 활동 대한 제국의 정치 체제

자료 1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외부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범죄는 공개 재판하되,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한 후 시행할 것
5. 칙임관(고위 관료층)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임명할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자료 2 대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만세에 걸쳐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대의 편제를 정하며 계엄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한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의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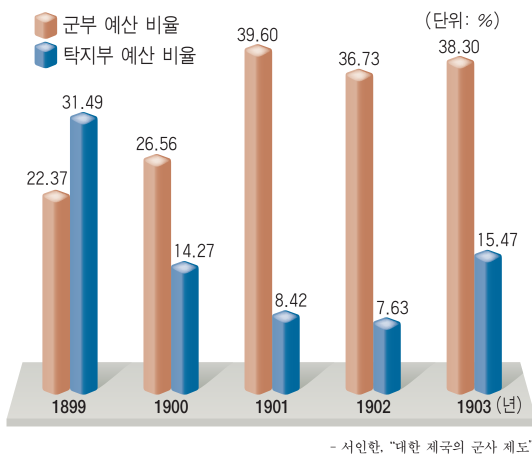
1. 자료 1과 자료 2에서 추구하는 정치 체제를 각각 설명해 보자.
2. 두 자료를 보고 대한 제국이 독립 협회를 탄압하였던 까닭을 추론해 보자.

구본신참의 광무개혁을 추진하다

구본신참(舊本新參)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는 뜻이다. 이는 갑오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며 전통적인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절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려는 입장이다.

대한 제국의 집권 세력은 갑오·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고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광무개혁**). 정부는 국가의 자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며, 상공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정부는 군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여, 군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기존의 친위대 군사 수를 늘리고 시위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지방의 진위대 군사도 증원하였다. 또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고장난 군함을 수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군비 확장이 의도와 달리 내실을 기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음을 보여 준다.



군부 예산의 증가

한편 정부는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이는 대한 제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었다. 당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려면 전국의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러·일 전쟁 발발과 함께 중단되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지 못하였다.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은 실제 경작지를 파악하여 조세 수입을 늘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 개항장 이외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여 외국인의 토지 침탈을 막는 성과도 거두었다.



지계와 지계아문

지계아문 규정

제1조 지계아문은 한성부와 13도 각 부와 군의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다.

제10조 대한 제국 인민이 아닌 사람은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가 될 수 없다. 단 개항장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가 관계(官契)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그 가격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관계를 발급한다. – 관보(1901. 11. 11.)



지계

지계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증명서로서, 지계 발급의 대상은 모든 산림, 토지, 전답, 가옥까지 포괄하였다. 대한 제국은 지계를 발급하여 토지의 명분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를 일치시키고,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하였다. 지계는 같은 양식으로 된 문서 두 개를 한 장으로 만들어, 한쪽은 지방 관청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쪽은 토지 소유주가 갖도록 하였다.

정부는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섬유, 운수, 광업,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근대적 산업 기술을 습득하고자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상공 학교, 광무 학교 등의 실업 학교와 기술 교육 기관을 세웠다. 또 전화를 가설하고 전차와 철도를 부설하는 등 교통과 통신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처럼 광무개혁은 대한 제국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였다. 특히 국방력의 강화, 상공업 발전,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 근대 시설의 마련 등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황제권 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민권을 보장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개혁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여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중단원 마무리

1. 다음 용어의 뜻을 써 보자.

(1) 대한국 국제:

(2) 지계:

2. 광무개혁에 대한 두 가지 견해의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정하여 다른 쪽의 시각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가) **긍정적 견해:** 고종은 황제 즉위 과정에서 황제라 칭하면서 황실의 권위를 높였다. 또한 만국 공법에 입각하여 대한 제국을 근대 국가로 개편하고 계몽 군주로서 자신을 개혁의 주체로 격상시키면서 서구적 근대화를 모델로 하여 개혁을 추진해 갔다. 양전·지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의 도시 정비 사업,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식산흥업 정책 등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황제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자주독립을 지키려 하였다.

(나) **부정적 견해:** '광무개혁'이라는 말은 아예 성립될 수 없다. 1898년에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가 추진한 헌의 6조와 중추원의 의회 개편 운동은 대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근대 국가와 시민 사회 형성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운동을 탄압한 이들이 바로 고종과 측근 세력이었으므로, 광무 연간의 집권 세력은 반개혁적이고 수구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역사 용어 바로 쓰기" 재인용

조건
- 1890년대 말 근대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힐 것
- 비판의 근거는 두 가지 이상 제시할 것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현장을 거닐다

서울 정동 일대에는 경운궁(덕수궁)을 비롯하여 각국 공사관이 모여 있다. 정동 일대는 개항 이후에 개화의 열풍이 가장 먼저 불어닥친 곳이자, 아관 파천과 대한 제국 수립 선포, 을사늑약 체결 등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이다. 또 한국 근대 교육과 개신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대한 제국 말기, 생생한 역사가 묻어 있는 정동 일대로 떠나 보자.





과거 러시아 공사관과 현재 남아 있는 모습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처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중명전
1901년에 황실 도서관으로 지어진 건물로 원래 이름은 수옥헌이다. 1905년에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중명전을 포위하고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이 계획된 곳이기도 하다.



손탁 호텔(현 이화 여자 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 자리)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함께 조선에 온 손탁은 고종에게서 토지를 하사받아 2층짜리 양옥집을 지어 손탁 호텔을 세웠다. 이곳은 유력 인사와 외교관들이 모여 친목 단체를 만들었던 곳이며, 독립 협회 회원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석조전
1900년부터 1910년에 걸쳐 유럽의 궁전 건축 양식에 따라 지어진 서양식 건축물이다. 1905년에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내한한 이후에 일본의 오쿠라 토목 회사가 공사를 담당하였다.



9



복원된 건청궁
일본은 조선에서 배일 정책이 추진되자 그 배후 세력으로 명성 황후를 지목하고, 경복궁의 건청궁 안 곤녕합에서 명성 황후를 시해하였다.

8



서울 운현궁
운현궁은 흥선 대원군이 사저로 쓰던 궁궐이다. 원래 관상감이 있던 자리인데, 철종 초 이곳에서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았다.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서 태어난 고종이 즉위하였고, 흥선 대원군은 운현궁을 수리하여 확장하였다.



7





황궁우와 석고
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대한 제국 수립 선포가 이루어졌던 환구단은 1913년 일제에 의하여 헐렸다. 지금은 황궁우와 석고 3개만 남아 있다. 황궁우는 3층으로 된 8각 건물로 하늘신과 조상신을 모시는 곳이었고, 석고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썼던 악기를 상징한다.

5



중화전
덕수궁의 중심 건물로서 국왕이 하례를 받거나 국가 행사를 거행하던 곳이다. 중화전에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될 때 양위식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6



정관헌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한 건물로, 전통적 양식과 서양식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건물이다. 고종 황제는 이곳에서 외국 외교관들과 만나 다과를 들거나 연회를 베풀었다.

05 국권 수호 운동

이 단원에서는 >> 1. 일제의 국권 강탈이 불법적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2. 항일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1 일제의 국권 침탈

오른쪽 그림은 이탈리아의 군사 잡지에 실린 그림이다. 일제는 1907년 7월 18일 총리대신 이완용을 시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그러나 고종과 순종은 일제의 결정에 반발하며 양위식과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고 내시를 시켜 의식을 거행하게 하였다.

● 고종이 강제로 물러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순종의 즉위식(서울 대학교 규장각)

일제,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을 침략하다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일본과 서양 열강들에 각종 이권과 조차지를 넘겨주었다. 또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체결된 **신축조약**으로 열강들의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로써 청은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로 굳어졌다.

한편 삼국 간섭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이 격렬해졌다.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받은 배상금을 군수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군사력을 키워 나갔다. 아울러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한반도를 통하여 대륙을 침략하려 하였다.



한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러·일 전쟁을 줄다리기로 풍자한 그림

러시아는 삼국 간섭의 대가로 랴오둥 반도에서 이권을 확보하였다. 또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자, 연합군에 가담하여 이를 진압하면서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후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개발하고자 그 배후 지역인 한반도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청에서 세력을 확대하려 했던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각각 청과 조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권을 침해받을 경우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제1차 영·일 동맹**, 1902).

이후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에서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러시아 역시 만주에서 군대를 철수하겠

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압록강 지역의 삼림 채벌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한국의 용암포를 점령하였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더욱 심해지자, 고종은 대한 제국의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1904년에 일본은 인천 연안과 뤼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한 후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어 대한 제국의 중립 선언을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서울을 점령하였다.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내에서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군사 기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가 유리해지자 일본은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을 강요하여 메가타를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오랜 기간 일본 정부에서 일했던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러·일 전쟁의 전개
1904년 2월 8일, 일본이 갑작스레 인천항과 뤼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틀 뒤에 일본은 선전 포고를 하였다.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의 체결

한·일 의정서(1904. 2.)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4조 제3국의 침략이나 내란으로 인해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대한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차 한·일 협약(1904. 8.)

1.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초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초빙하고 외교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일본은 러·일 전쟁에 돌입하면서 곧바로 서울에 군대를 진주시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한·일 의정서 체결로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한 제국의 내정에 간여하였다. 또한 시정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에 걸쳐 군용지를 수용하고 어업권을 확장하였으며,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였다.

한편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한하게 된 일본인 메가타는 재정·경제적 합방에 착수하였다. 그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일본의 제일 은행권을 유통시켰다.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하다 외교 고문으로 임명된 미국인 스티븐스는 대한 제국의 외교에 관한 모든 사항에 간섭하였다.

을사늑약의 명칭

일제에 의해 강제로 조약이 체결될 당시 조약 원문에는 공식적인 명칭이 없었다. 그래서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을사 보호 조약, 을사 조약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늑약'이란 무력을 앞세운 협박 아래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뜻이다.

을사늑약을 강요받다

러·일 전쟁이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고, 이어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져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였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여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 군대가 만주에서 물러날 것과 일본이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열강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제는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늑약**을 강요하였다.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일제는 박제순, 이완용 등 이른바 을사 5적의 동의만으로 공식 명칭조차 붙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약을 체결해 버렸다.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을 끝까지 인준하지 않았다.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여 외교뿐만 아니라 여러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면서 내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탐구 활동 대한 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들

자료 1 한반도 지배를 승인한 국제 조약

-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 평화에 직접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한다.
- 제2차 영·일 동맹(1905. 8.):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군사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 포츠머스 강화 조약(1905. 9.):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이 한국에서 정치·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

자료 2 을사늑약(1905. 11.)

제1조 일본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이후에 한국이 외국에 갖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며 일본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관리, 국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맡고, 한국 정부는 이후에 일본 정부의 중개를 경위하지 않고서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의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정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당시 열강들이 자료 1과 같은 국제 조약을 맺은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자료 2의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의 국제 위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말해 보자.

고종이 강제 퇴위되다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고종은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열강의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헐버트에게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미국 정부에 알리도록 하였다. 1907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대한 제국에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당하였다.


No. 18. VENDREDI 5 JUILLET 1907

Courrier de la Conférence

DE LA PAIX

Rédigé par WILLIAM T. STEAD

Publié sous les auspices de la FONDATION POUR L'INTERNATIONALISME à La Haye.

Directeurs-Éditeurs: MAAS & VAN SUCHTELEN

BUREAUX: Princessegracht 6A, La Haye. — Téléphone No. 287. — Adr. Télégr. MAASSUCHTELEN.

AVIS.

Qu'est-ce que la Contrebande de Guerre?

헤이그 특사 특집 기사가 실린 현지 보도

일제는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그 후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강요하여 통감의 내정 간섭 권한을 크게 강화하였다.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속 각서를 체결하여 **군대**를 **해산**하고, 중앙의 각 부 차관과 지방 각 도의 관리에 일본인을 임명하였다.

부속 각서

제3조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군비를 정리함.
1. 육군 1대대를 두어 황궁 수비를 맡기고 기타 부대를 해산할 것

제5조 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 일본인을 임명함.
1. 각 부 차관
1. 각 도 사무관

한국이 국권을 상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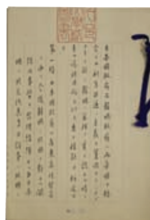
일제는 1909년에 대한 제국의 사법권을 빼앗아 항일 세력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현역의 육군 대장을 통감으로 부임시키고, 경찰권을 박탈하여 일본군이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친일 단체인 일진회로 하여금 대한 제국을 일본과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일본 군대가 서울 곳곳에 배치된 삼엄한 분위기에서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체결한 **한국 병합 조약**이 발표되었다(1910. 8. 29.). 이로써 우리 민족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역사 더하기 — 절차상 결함이 많은 한·일 간의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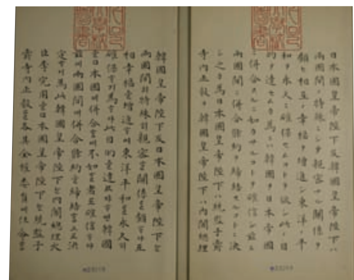
을사늑약

약식 조약의 형식을 취한 을사늑약의 첫 장을 보면 제목 없이 첫 줄이 비어 있다. 또한 마지막 장에는 한국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특명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라는 서명만 보인다. 절차상 조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황제에게 올려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고종 황제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다.



을사늑약 원문

한국 병합 조약

조약문에 국새가 아닌 통감부가 관리하는 행정용 어새가 찍혀 있고, 순종 황제의 서명(押)도 없다. 이는 한국의 황제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제목을 '칙유(勅諭)'라 했는데, 이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국에서는 쓰지 않는다.


한국 병합에 대한 순종 황제의 조칙

2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

• 전라남도 보성군에 사는 담살이* 안규홍이 의병을 많이 모집하여 그 고을 안에 머물렀지만 백성에게는 침범하는 일이 추호도 없었다. – 신보(1909. 5. 20.)

• 보성은 안(규홍)의 출신지라 주민들 가운데 배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극히 많고 도리어 안(규홍) 등에게 동정하는 자가 있어 토벌의 효과가 적다. – "폭도사 편집 자료"

*담살이: 전남 지방의 방언으로 나이 어린 머슴을 일컫는 말

● 안규홍이 의병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체포된 호남 의병장들

위정척사 운동을 계승한 의병 투쟁이 시작되다

일제의 침략에 맞선 강력한 저항이 의병 투쟁으로 나타났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서 비롯된 의병 투쟁은 **명성 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실시**를 계기로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을미의병**). 을미의병은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소응 등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였고, 농민과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가담하였다. 의병들은 지방 관청이나 일본군을 공격하고 친일 관리와 일본인을 처단하였다.

그러나 양반 유생 의병장들의 신분 차별 의식 때문에 전력이 약화되었다. 또 아관 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고종이 단발을 자유의사에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병의 해산을 권유하자 대부분 활동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의병 투쟁에 참여하였던 농민층은 의병 부대가 해산된 이후에도 활빈당 등을 조직하여 반봉건·반침략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들은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하여 다시 의병 부대에 합류하였다.

평민 의병장이 등장하다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이에 맞서 수많은 의병이 항일 투쟁에 나섰다(**을사의병**). 이때에는 양반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등장하였다.

전직 관리였던 민종식은 한때 천여 명에 이르는 의병을 모아 충남 홍주성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세한 장비를 앞세운 일본군의 공격에 패하여 물러났다. 최익현은 임병찬 등과 함께 전북 태인에서 봉기하여 일대를 장악해 나갔다. 그는 일본군과 지방 관군에 맞서 싸우다 순창에서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순국하였다. 평민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진 신돌석은 경상북도와 강원도 경계의 산악 지대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유격전을 펼치며 많은 전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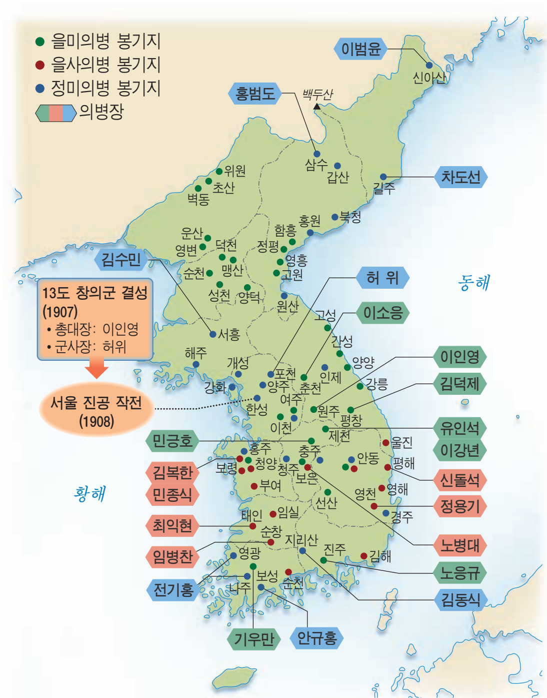


평민 의병장 신돌석(1878~1908) 기념비

신돌석은 용맹하기로 이름나 '태백산 호랑이'로 불렸다. 그는 일본군에 맞서 의병 활동을 벌여 큰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본군에 매수된 부하에게 암살당하였다.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다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뒤이어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에 서울과 지방의 해산 군인들 중 일부가 무기를 지닌 채 의병에 대거 가담하였다. 이로써 의병 조직의 전열이 재정비되고 전력이 강화되었다(**정미의병**).



의병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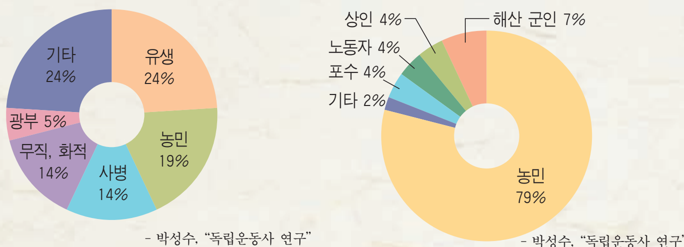
전국의 의병 부대들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경기 양주에 집결하였다. 의병 1만여 명은 총대장으로 이인영, 군사장으로 허위를 선출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였다. 이에 앞서 이인영은 외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의병 부대를 국제 공법상의 교전 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908년 1월, 허위의 선봉대 300여 명이 동대문 밖 근처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후속 부대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후퇴하고 말았다.

서울 진공 작전이 실패한 이후 의병 부대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이강년, 임진강 방면에서 허위, 강원도 지역에서 민긍호, 함경도 지역에서 홍범도 등이 이끄는 부대가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전국의 의병 부대들은 소규모 부대로 활동하며 유격 전술을 써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탐구 활동 의병 활동의 변화

자료 1 정미의병 당시 의병의 구성



의병장의 출신

의병의 직업별 분포

자료 2 각 도별 교전 횟수

구분 / 도별	교전 횟수		교전 의병 수	
	1908년(하반기)	1909년(상반기)	1908년(하반기)	1909년(상반기)
경기도	78	165	1,453	3,453
충청도	330	204	14,481	1,835
전라도	493	820	20,504	23,155
경상도	311	222	9,030	4,601
강원도	273	124	18,599	2,468
황해도	232	111	7,998	2,148
평안도	149	78	3,981	663
함경도	110	14	6,721	270
합계	1,976	1,738	82,767	38,593

- 국사 편찬 위원회 편, "한국 독립운동사"

● 두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의병 활동의 성격을 말해 보자.

호남 지역에서 의병 활동이 지속되다

1909년 무렵 대부분 지역에서 의병 투쟁이 잦아들었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항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전기홍, 안규홍, 심수택 등이 이끄는 의병 부대들은 유격전을 펼치며 일본군에 맞섰다. 의병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힌 일제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호남 의병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남한 대토벌 작전'** 을 전개하였다. 2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의병장과 수천 명의 의병이 체포되거나 피살되었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어렵게 되자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장기 항전에 대비하였다. 일부 의병들은 국내에 남아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1910년대 초반까지 항전을 이어 갔다.

항일 의병 운동은 일제의 침략에 격렬하게 저항하며 직접 부딪쳐 싸운 국권 수호 운동이었다. 의병 운동 초기에는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양반 의병장들과 봉건적 지배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농민들 사이에 거리감이 있었다. 하지만 평민 의병장의 비중이 늘어나고 국가의 위기에 뜻을 같이하는 가운데 점차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 이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안중근(1879~1910)

항일 의거 활동이 일어나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각계각층에서 항일 투쟁이 전개되었다.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을 발표하여 조약의 부당성을 규탄하였으며, 민영환, 조병세 등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로써 저항하였다. 나철·오기호 등은 을사 5적을 처단하려 하였다.

장인환과 전명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던 스티븐스를 저격하였고,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1909). 이재명은 친일 매국노인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매켄지가 바라본 의병 운동

의병 5, 6명이 내 앞에 왔는데 모두 18~26세 정도의 젊은이들이었다. …… 하나는 한국 정규군의 낡은 제복을 아직도 입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군복 바지를 입고, 둘은 얇고 누덕누덕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 오전에 벌어진 전투를 지휘한 장교인 그는 자기들의 앞날이 결코 밝지는 않다는 것을 시인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되라지요. (그러나)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로운 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 매켄지, "한국의 독립운동"



한말 의병 전쟁 당시의 의병들

캐나다 인 매켄지는 영국 신문사에서 기자를 지낸 언론인으로,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이 고조될 무렵 한국에 특파원으로 오면서부터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러·일 전쟁을 취재하던 중 일본군이 한국인들에게 약탈, 방화 등의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며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가 남긴 여러 저작은 1900년대에서 1920년까지의 한국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3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날로 기울어져 가는데 …… 총을 드는 사람, 칼을 갈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 이승훈의 오산 학교 개교사(1907. 12.)

●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제일 급선무'라고 본 것은 무엇일까?


오산 학교 제2회 졸업식

정치·사회단체가 항일 운동에 나서다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하여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수호하려는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되었다. 개화 운동과 독립 협회의 맥을 잇는 애국 계몽 운동은 사상적으로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과 실업을 통해 근대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1904년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여 유생, 전직 관리 등의 주도로 **보안회**가 설립되었다. 이들은 반대 집회를 열어 연일 성토하고 선언문을 발표하여 일제의 요구를 막아내었으나, 일본 측의 압력으로 해산되었다.

친일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제는 친일 세력을 매수하여 일진회를 조직하게 하였다(1904). 이에 많은 애국 계몽 단체가 일진회에 대항하며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였다. **헌정 연구회**는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여 민권을 확대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 해산되었다. 헌정 연구회를 계승하여 1906년에 창립된 **대한 자강회**는 공개적인 정치 활동이 어려워지자 교육 활동과 산업 진흥을 내세웠다. 전국 각지에 지회를 두었으며, 월보를 간행하고 정기적으로 연설회를 개최하여 대중적인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 자강회는 일본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다가 강제로 해산되었다.

일진회(1904~1910)
송병준과 이용구가 만든 대표적인 친일 매국 단체이다. 1905년 일본에 외교권을 넘길 것을 주장하였고, 1909년에 한·일 병합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대한 자강회 취지서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으니,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가 부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대한 자강회 월보"(1906. 7.)

대한 자강회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대항하여 즉각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국권을 회복하려면 우선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한 자강회 월보

실력 양성과 무장 투쟁을 함께 준비하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합법적인 계몽 운동에 한계를 느낀 안창호, 양기탁 등은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하였다(1907). 신민회는 언론인, 종교인, 교사, 학생 등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8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를 바탕으로 실력을 키워 근대 국민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평양에 대성 학교, 정주에 오산 학교 등을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기 회사와 태극 서관을 설립하여 문화 활동과 민족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고 경제·문화적 차원의 실력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독립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신민회는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하였다.

태극 서관
1905년에 이승훈, 안태국 등이 서적이나 인쇄물의 출판 및 공급을 목적으로 평양에 세운 서점이다. 후에 신민회의 산하 기관 역할을 하였다.

교육과 언론을 통한 구국 운동이 전개되다

서울에서 활동한 지방 출신 인사들은 국권 수호를 위한 민중 교육과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많은 학회를 설립하였다. 1906년 서우 학회를 시작으로 호남 학회, 기호 흥학회 등이 조직되었다. 이들 학회는 군 단위로 지회를 두고 사립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회지인 월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언론을 통한 항일 운동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러·일 전쟁 시기부터 한반도를 침탈하면서 신문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하였다. 또 신문지법과 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제정하여 언론을 더욱 탄압하였다. 여기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자 애국 계몽 운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탐구 활동 신민회의 활동

신민회는 국권 회복을 위해 다음의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각 장소에 권유원을 파견하고 권유문을 전파하여 인민의 정신을 깨우치게 할 것
2. 신문, 잡지와 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계발하게 할 것
3. 정미(精美)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6. 실업가에게 권고하여 영업 방침을 지도할 것
7. 본회의 합자로 실업장을 세워 실업계의 모범을 만들 것
8. 본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애국심이 있는 동포로서 일체 단합할 것
9. 회원이 산재한 각 구역에 연락 기관을 나누어 설치하여 교통 편의에 전적으로 힘쓸 것
10. 실력을 확장하여 국체를 완전하게 할 것

– 대한 신민회 통용 장정

● 위의 실행 방법에 따라 신민회가 전개한 활동을 말해 보자.

민족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다

애국 계몽 운동은 정치·사회·교육 단체와 언론, 학교, 학회 등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근대 시민 의식을 계발하였으며, 산업을 진흥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회 진화론을 수용한 일부 지식인 중에는 근대화에 집착하며 일제의 지배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다. 또는 경제적·문화적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고 의병 투쟁을 격렬히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독립 전쟁을 준비하고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구상한 신민회와 같은 단체가 활동하였다. 의병 투쟁의 활약상을 긍정적으로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이처럼 애국 계몽 운동은 국민의 민족적 자각과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민족 독립 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을사늑약 체결)는 만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해 오던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 …… 나라를 들어 적국에 넘겨준 이지용 등은 실로 우리나라 만대의 변할 수 없는 원수요,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은 마땅히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토벌해야 할 역적이다. …… 각기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역적을 죽여서 그 간을 내어 먹고 왜적을 무찔러 그 소굴을 소탕하라. – 최익현, "면암집"

(나) 실로 충의의 정성에 격발하여 의병이라 일어나는 자도 있는 동시에, 저 교활한 도적떼와 전일의 부랑 파락호의 못된 무리가 때가 왔다고 하면서 의병을 거짓 칭하는 자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무리는 이르는 곳마다 만행 폭거만 자행할 뿐이오, 한 점의 애국하는 정성이 있으리오. 이러한 무리는 오히려 의병에게 누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의 모욕을 불러들이는 자이니, …… 무기가 날카롭고 재정이 넉넉하더라도 학술이 부족하여 전략과 무예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병역(兵役)에 종사할 수 없을지니, 지금 훈련받지 못한 병졸과 오합지중으로 혈기만을 믿고 전략·무예가 모두 갖추어진 군대와 교전하고자 함은 부녀자와 아이들이라도 그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눈앞의 치욕을 참고 국가의 원대한 계획을 도모하여 일체 병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각기 산업과 교육에 종사하라. – 황성신문(1907. 9. 25.)

1. **(가), (나)에서 지향하는 항일 운동 방식을 써 보자.**

(1) (가):

(2) (나):

2. **(가)의 입장에서 (나)의 기사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작성해 보자.**

조건
- (가), (나) 항일 운동 방식의 차이점을 밝힐 것
- 반박하는 근거를 두 가지 이상 쓸 것

06 개항 이후 경제·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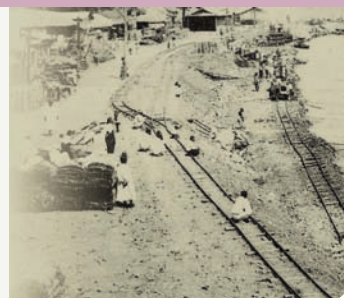
이 단원에서는 >> 1. 열강의 경제 침탈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다.
2. 우리 민족의 근대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3. 개항 이후의 새로운 문화적 경향을 말할 수 있다.

1 열강의 경제 침탈

일본인이 호남 지방에서 목면을 매입, 운반하여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매매하는 고로 저희가 진고개로 가서 일본 영사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사관은 "조선 사람들은 마음대로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일본인은 장애 없이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 원필성 등의 청원서(1888. 9. 18.)

● 일본 상인들이 마음대로 매매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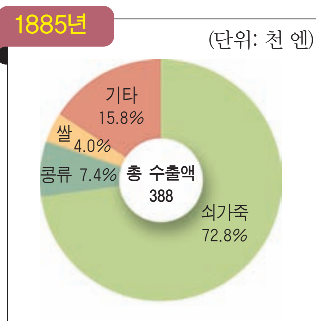
개항 당시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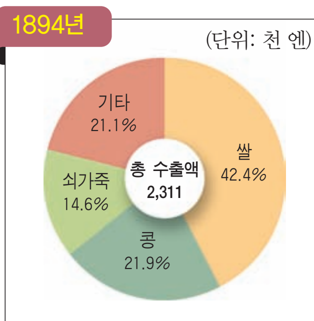
거류지 무역을 시작하다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개항장에서는 외국인의 내왕과 무역이 허용되었다. 개항 초기에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거류지 무역**이 이루어졌다.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10리(약 4km)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항장의 조선인 객주와 여각, 거간, 보부상들이 거래를 중개하였다.

일본 상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조선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조선에서 치외 법권, 무관세, 일본 화폐 사용 등의 특권을 누리며 약탈 무역을 행하였다. 일본 상인들은 홍콩, 상하이 등지에서 영국산 면직물을 가져와 팔고, 조선에서 쇠가죽과 쌀, 콩 등의 곡물을 사 갔다.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쌀을 수입하여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 이들은 벼를 수확하기도 전에 미리 곡물 대금을 지불하거나, 곡물을 담보로 하였다가 가을에 높은 이자를 붙여 곡물을 상환받았다. 이러한 곡물 수출은 농산물의 상품화를 확대하여 쌀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익은 주로 지주나 부농, 상인들에게 돌아간 반면, 소농과 빈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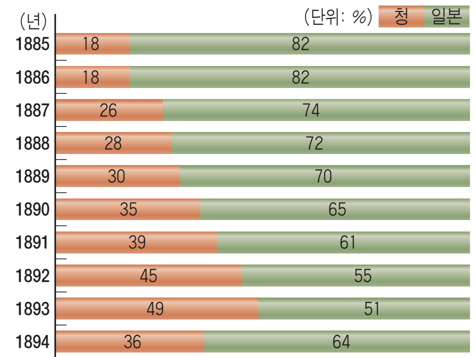
- 하원호, '제국주의의 침탈과 상품 화폐 경제의 변동'

대일 수출 품목과 구성 비율

청과 일본 상인이 경쟁하다

임오군란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청을 비롯한 외국 상인들이 서울에서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항장을 벗어나 내지 통상이 가능해졌다. 외국 상인들은 한국인 객주나 여각과 거래하지 않고 직접 거간을 고용하여 상권을 경쟁적으로 잠식해 나갔다.

개항 초기 무역은 일본 상인이 주도하였으나,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 상인이 활발하게 진출하여 조선의 상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청 상인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특히 청과의 무역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청과 일본에서 수입한 총액이 거의 비슷해졌다.



청 · 일본에서의 수입액 비율

조선은 개항 직후 맺은 조·일 무역 규칙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1883년 조·일 통상 장정이 체결되어 관세 자주권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 불리한 최혜국 대우 등이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불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었다.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조선의 무역 수지는 점차 악화되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훨씬 웃돌아 1893년에는 그 비율이 2배 이상 되었다.

탐구 활동 조 ·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 있었으므로 제도와 의식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다 정해진 규정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지금 여러 나라는 벌써 뱃길로 통상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마땅히 바다에 대한 금령을 하루빨리 취소하고, 두 나라 상인들이 똑같이 상호 무역을 하여 함께 이득을 보아야 한다. …… 이번에 체결한 수륙 무역 규정은 중국이 속국을 위한 것이고, 우호 관계를 가진 각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이득을 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체결된 각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청 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의 · 처리한다.

제4조 두 나라 상인들이 쌍방에서 이미 개항한 항구에 가 무역을 할 때에 만일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며 집을 지을 수 있게 승인하며, 모든 토산물과 규정에 금지되지 않은 물건은 다 팔고 살 수 있도록 승인한다. 조선 상인이 베이징에서 규정에 따라 물건을 팔고 사도록 하며, 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차려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외에 각종 화물을 내륙 지방에 운반하여 상점을 차려 놓고 파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

– "고종실록"

1. 위 규정으로 청 상인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지 말해 보자.
2. 위 규정이 조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자.



열강의 이권 침탈

제국주의 열강이 이권을 차지하다

청·일 전쟁과 아관 파천 이후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졌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저마다 **최혜국 대우**를 내세우며 광산, 삼림, 철도 등의 이권을 가져갔다.

러시아는 친러 내각을 앞세워 광산 개발권, 삼림 채벌권 등을 빼앗아 갔다. 미국은 광산 채굴권과 철도, 전기, 전차 부설권 등을 차지하였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도 이권 침탈에 나섰다.

일본은 이권 침탈 경쟁에 뒤늦게 뛰어들어 철도 부설권, 금광 채굴권 등을 가져갔다. 일본은 미국인 모스에게서 경인선 부설권을 사들이고, 러시아와 경합하여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또한 대한 제국과 한·일 양국 공동 경영을 전제 조건으로 경부 철도 합동 조약을 체결하였다(1898). 이 조약에는 철도 용지 무상 제공, 철도 용품 및 영업 이익의 무과세 등 매우 불평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일본은 프랑스로부터 경의선 철도 부설권을 넘겨받아 군용 철도 명목으로 부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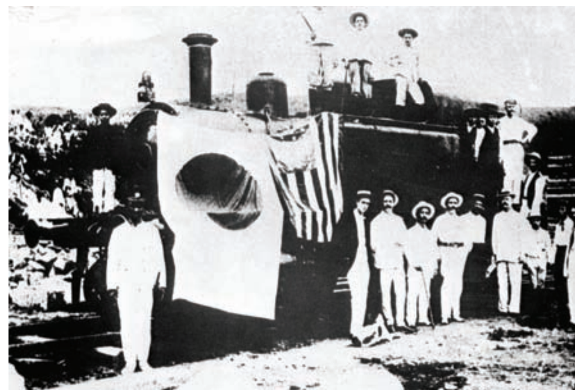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 침탈은 주로 광업과 삼림 등 자원, 철도와 전화 등 교통·통신 분야에 집중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열강의 원료 공급지 및 자본 투자 대상으로 전락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역사 더하기

일본의 철도 침략사

1894년에 청·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군사 행동상의 이유로 서울~부산, 서울~인천 간 군사 철도 부설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8월 20일 이른바 한·일 잠정 합동 조관을 강요하면서, '경부선·경인선의 철도 수축 공사는 한국 정부가 재정이 아직 충분하지 못함을 고려하여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의 한 회사와 체결하고, 시기를 보아서 이를 기공시킴을 희망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여 철도 부설권을 확보하였다.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내정에 간섭하자, 1896년 한국 정부는 국내 철도 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부설·경영하는 일반 철도에 관하여 의거하여야 할 바를 규정한 것이다.



경인선 개통식

대륙 진출의 야욕을 가진 일본은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러시아까지 제압하면서, 미국인과 프랑스 인에게 특허하였던 철도 부설권마저 집요한 배후 공작을 펼쳐 인수하였다. 결국 일본은 1899년 처음으로 제물포~노량진 간 경인선 철도를 개통시켰다.

일본이 경제 침략을 본격화하다

일제는 러·일 전쟁 중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자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메가타 다네타로를 재정 고문으로 앉혔다. 메가타는 재정 정리 사업과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 제국 황실 재정을 해체하고 한국의 금융을 장악하였다. 일제는 대한 제국의 궁내부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세목을 탁지부로 돌려 황실 재정을 대폭 축소하였다. 또 지방관이 담당하던 징세 업무를 일제가 임명한 세무관이 담당하게 하였으며, 재무 업무도 일본인이 장악하였다.

일제는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백동화를 일본 제일 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게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일본 상인들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여 큰 이익을 챙겼다. 한편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 차관으로 조달함에 따라 대한 제국은 거액의 국채를 떠안게 되었다.

러·일 전쟁 직후 일제는 철도 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대한 제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와 역둔토를 빼앗았다. 경부선 등 여러 철도를 부설하면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철도 부지로 편입하여 약탈하였으며, 군 주둔지 근처의 토지를 군용지라는 이유를 내세워 대량으로 빼앗았다. 일제는 이렇게 탈취한 막대한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에 넘겨 관리하도록 하였다. 일본 상인들도 고리대로 농토를 저당잡았다가 압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약탈하였다.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 대자본가들이 전주, 군산, 나주 일대에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일본 제일 은행에서 발행한 화폐

탐구 활동 화폐 정리 사업

자료 1 교환의 조건

상태가 매우 좋은 갑종 백동화는 개당 2전 5리의 가격으로 새 돈으로 바꾸어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들이며, 팔기를 원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단하여 돌려준다. 단 모양과 질이 조잡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사들이지 않는다.

– 탁지부령 제1호(1905. 6.)



백동화

자료 2 예고 없이 실시된 정책

아무런 예고도 주지 않고 돌연히 이와 같은 발표를 하고 바로 실시함은 실로 배우지 못한 백성을 죽이는 것으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와 동시에 시행이라니 이 조치를 무엇이라 평할 것인가. 사실 그 비밀은 제정 이전에 벌써 일부에 누설되어 양화는 점차로 일부의 수중에 들어갔다. 한국인은 악화만을 손에 쥐고 알지 못하며 단두대 위에 끌려온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경성 상업 회의소 의원이 일본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1905)

1. 자료 1과 같은 조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보자.
2. 자료 2에서 말하는 ‘양화를 가진 일부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해 보자.

2 경제적 구국 운동

우리 고을에 흉년이 든 것은 귀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리고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하다. 곡물이 수출되는 것을 당분간 막지 않을 수 없다.

– 동래 부사 김학진이 일본국 총영사 마에다에게 보낸 서신

● 이와 같은 조선 관리의 조치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일본으로 보내려고 쌓아 놓은 곡식

조선의 곡물을 지켜라

개항 이후 곡물이 일본으로 대량 유출되면서 조선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고 곡물 가격이 폭등하였다. 지주들은 곡물을 수출하여 이익을 남겼고 그 이익금으로 다시 토지를 사들였다. 많은 농민은 땅을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농촌의 임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식량난이 가중되어 도시 영세민과 농촌 빈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에 흉년까지 들자 함경도와 황해도 등 각 지역의 지방관들은 **방곡령**을 내렸다. **조·일 통상 장정**의 규정에 따라 흉년이 들면 지방관은 직권으로 방곡령을 실시할 수 있었다.

방곡령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어느 지역의 곡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1889년과 1890년에 일본에서 대흉작으로 쌀 소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함경도와 황해도 관찰사의 방곡령을 외교적으로 트집 잡았다. 일본은 조선 정부로부터 통고받은 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방곡령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 상인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식량 부족이 저곡가 정책을 바탕으로 한 공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조선의 방곡령에 적극 대응하였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여 청에서 막대한 차관을 빌려 와 배상금을 물었다.



방곡령의 선포

조·일 통상 장정(1883)

제37칙 만약 조선국이 자연재해나 변란 등으로 인해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이 영사관에게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를 미리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하게 한다.

상인들, 상권을 지키려 노력하다

임오군란 이후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이 허용되면서 객주와 여각, 보부상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객주들은 동업 조합이나 상회사를 설립하여 상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880년대에 평양의 대동 상회와 서울의 장통 상회를 비롯한 **상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청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 상인들은 남대문로와 수표교 일대를 중심으로, 일본 상인들은 명동과 충무로 일대를 중심으로 상권을 잠식해 나갔다. 이에 시전 상인들은 자신들의 상권을 지키고자 청과 일본 상인의 점포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와 동맹 철시를 벌이며 강력히 저항하였다.

경강상인들은 일본인이 증기선을 이용하여 정부의 세곡 운반을 독점하려 하자 증기선을 구입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한편 일본 자본가들이 대규모 운수 회사를 설립하여 해상과 육상의 운송업을 지배하려 하자, 국내 자본가들은 대한 협동 우선 회사, 인천 우선 회사 등을 설립하여 이에 대항하였다.

개항 직후부터 일본의 금융 기관이 침투하고 일본 상인들의 고리대금업이 성행하자, 우리 자본으로 **은행을 설립**하여 이에 맞서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관료 자본이 중심이 된 조선은행은 국고 출납 업무를 대행하였고 지방에 지점을 두었다. 한성 은행, 대한 천일 은행 등도 설립되었으나 화폐 정리 사업으로 몰락하거나 일본 금융 자본에 편입되어 갔다.



대한 천일 은행(서울 종로, 현 우리 은행)



회사설

무릇 회사란 여러 사람이 자본을 합하여 농·공·상의 사무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 농·공·상의 사무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종류 역시 많다.

철도 회사는 국내의 운수를 편리하게 하고, 선박 회사는 외국 왕래를 통하게 한다. 일용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으며, 오직 토지 개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기타 다른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다. 또 정부에서 그 사업을 장려하여 날로 발전하게 한 회사도 있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가 어떤 회사를 국가에 이로운 것으로 판단하면 장려하는 방법이 매우 많다.

제1조 처음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광고하여 동지를 얻는다. 회사를 조직할 때에는 자본의 총액과 수익의 다과를 통틀어 계획하여 신문에 발표해서 모든 세상 사람이 그 회사의 유익함을 알게 한다. 그런 후에 고표(주식)를 발매하는데, 만일 회사의 자본금으로 1만 냥이 필요하면 1장의 정가가 10냥짜리인 고표 1천 장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매입하게 하는데, 고표를 사는 사람을 사원이라 한다.

– 한성순보(1883. 11. 20.)

조선 상인들은 개항 후 외국 상인들의 진출에 대항하여 상회사를 설립하였다. 개화파 인사들도 서양의 회사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논설들을 발표하였다. 한성순보에 실린 '회사설'은 산업 각 부문에서 합자 회사 설립의 필요성,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이권 침탈에 저항하다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독립 협회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러시아가 목포, 진남포의 토지 매입을 비롯하여 부산 절영도 석탄고지 조차, 한러 은행 설립 등을 요구하자, 독립 협회는 러시아의 조차 요구를 좌절시키고 한러 은행 폐쇄를 요구하였다. 또 프랑스, 독일 등이 광산 채굴권을 요구하자 외부대신에게 항의서를 보내 이를 저지하는 등 많은 이권을 지켜 냈다.

제국주의 열강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확산에 농민들도 강하게 저항하였다. 남대문과 부산진 등 철도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지역의 주민들은 철도 부설에 거세게 항의하였으며, 철도 부설 과정에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반대 투쟁에 나서기도 하였다. 제주에서는 농민들이 정부 및 천주교 세력과 충돌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운산 금광
운산 금광에서는 연간 15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이 생산되었다. 이는 당시 대한 제국 1년 예산의 4분의 1에 이르는 액수였다.

동학 농민 운동의 잔여 세력 중 일부는 전라도 지역에서 **영학당**을 조직하고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내세우며 봉기하였다(1898). 개항 이후 몰락한 일부 농민들도 **활빈당**과 같은 화적 집단을 만들어 일본에 저항하였다.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광산, 해운, 철도 등에 집중되면서 이러한 분야에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되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으로 혹사당하였다. 이에 평북 운산 금광에서는 광산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통문을 돌리고 미국인의 금광 채굴에 저항하였다(1898). 강원 당현 금광, 평남 은산 금광에서도 각각 독일인과 영국인의 금광 채굴에 반대하며 광산 노동자들이 봉기하였다.



활빈당의 13조목 대한 사민 논설

6. 시장에 외국 상인이 나오는 것을 엄금할 것. 근래 개항장 이외의 곳에 외국 상인의 출입이 심하여 도성의 시민들이 모두 곤궁하게 되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외국 상인을 엄금하고 구빈법을 제정하여 외국 상인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곡류를 매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외국인 스스로가 미곡 매입을 그만두게 할 방도가 없어서 나라의 이익과 백성의 영리를 외국 상인에게 넘기게 될 형편이다. 따라서 신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시장에서 곡물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흥국을 도모할 것

13. 우리나라 철도 부설권을 다른 나라에 주었다고 하는데, 4천여 년 내려온 국가가 다른 나라에 허락된다면 만약 각국이 국토를 강하게 요구할 때에는 이를 양도해야 할 것인가? 도로는 인체의 혈맥과 같고 혈맥 없이는 삶을 바랄 수 없게 된다. 국내 철도 시설 용지로 인하여 만백성의 살 길과 수확하는 논밭 수만 두락에 손상을 가져온다면 국가의 피해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 것 – 한성신보(1900. 10. 8.)

활빈당은 주로 탐관오리, 부정한 부호 및 대상인, 외국인 등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활빈당 지도부를 체포, 해산하였다.

우리 힘으로 나랏빚을 갚자

러·일 전쟁 직후 일제가 경제 침탈을 강화하며 일본인에게 막대한 황무지 개간권을 주도록 요구하자 국민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특히 보안회는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한편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한 이래 적극적으로 차관을 도입하여 화폐 정리 사업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각종 생활 시설 마련에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제국은 1년 예산에 해당하는 1,3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애국적 지식인들은 일본에 진 빚을 갚는 것이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다. 이에 대구에서 서상돈 등이 국민 성금으로 국채를 갚자는 운동을 일으켰다(**국채 보상 운동**, 1907).

국채 보상 운동은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남자들은 금연으로 돈을 모으고, 부녀자들은 반지와 비녀를 모아 보상금으로 냈다. 일본 유학생과 연해주의 동포들도 의연금을 보내왔으며, 일부 외국인까지 참여하였다. 고종 황제와 정부 대신들 역시 금연을 하면서 이에 동참하였다. 그리하여 모금 운동이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20만 원에 이르는 성금이 모였다.

그러나 통감부가 국채 보상 운동을 배일 운동으로 간주하여 탄압함으로써 운동은 중단되었고,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국채 보상 운동은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애국심과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채 보상 모집 금액표

탐구 활동 국채 보상 운동

지금 우리는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천 3백만 원은 우리 한(韓)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이것을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나,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갚는다면 그때는 이미 3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될 것입니다. 국토가 한 번 없어진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월남 등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그런데 이를 갚을 길이 있으니 수고롭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재물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천 3백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응당 자원해서 1원, 10원, 100원, 1000원을 특별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 국채 보상 운동 취지서(대한매일신보, 1907. 2. 21.)



국채 보상 운동 기념비(대구 중구)

1. 국채 보상 운동이 빠른 시간 안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을 당시 상황과 연관 지어 말해 보자.
2. 일제가 국채 보상 운동을 탄압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3 근대 문화의 형성

남대문 정거장에서 요령 소리가 덜렁덜렁 나며 붉은 모자 쓴 사람이 '후상, 후상, 후상 오이데마셍까?(부산, 부산, 부산 안 가십니까?)' 하고 외는 소리가 장마 속 논가에 맹꽁이 끓듯 하니, 이때는 하오 십 시 십오 분 부산 급행차 떠나는 때라.

– 최찬식, "추월색"

● 기차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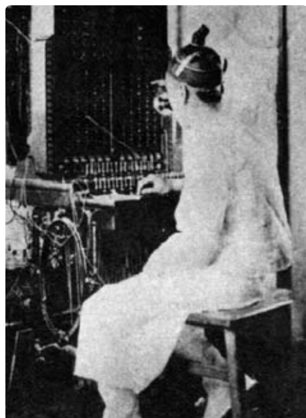


근대 문물의 상징, 기차

근대 시설을 도입하다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 문물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통신, 교통, 전기, 의료 등 각 분야에서 근대 시설이 갖추어져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 정부는 1880년대 청과 일본에 영선사, 조사 시찰단 등을 파견하여 근대적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정부는 **박문국**, **기기창**, **전환국** 등 근대 시설을 갖추어 신문을 발간하고 무기를 제조하였으며, 화폐를 주조하였다.

전신 시설은 1884년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 사이에 처음 개통되었다. 이후 서울과 제물포,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전신선이 가설되고, 조선과 청,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이 형성되었다. 전화는 궁궐 안에 처음 가설되었고, 그 후 서울 시내의 민가에도 설치되었다. 우정총국이 설립되면서 근대적 우편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갑신정변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후 정부는 만국 우편 연합에 가입하여 여러 나라와 우편물을 교환하게 되었다.



전화 교환원

1887년 경복궁에 처음 전등이 설치되었다. 이후 황실과 미국인의 합작으로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어 발전소를 세우고 서울에 전등과 전차를 가설하였다. 최초의 전차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운행되었다. 한편 근대 문물의 상징인 철도는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 러·일 전쟁 중 경부선과 경의선이 차례로 부설되었다.

서양식 의료 시설도 도입되어 1885년에 정부는 개신교 선교사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하였다. 광혜원은 제중원으로 이름을 고쳐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서양 의료 기술로 치료하였다. 한편 제중원을 모태로 한 세브란스 병원은 의료 기술 보급에 이바지하였으며, 정부는 대한 의원을 세워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 요원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서울 대한 의원(서울 종로)

근대 문물과 시설들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들 중 일부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근대 교육이 시작되다

개항 이후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해 근대 학교인 **원산 학사**가 설립되었다(1883). 같은 해 정부는 외국어 통역관을 양성하고자 동문학을 세웠고, 이어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육영 공원**은 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양반 자제들에게 영어를 비롯한 수학, 지리학, 정치학 등 근대 학문을 교육하였다.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교육 행정을 전담할 학무아문이 설치되었고, 고종이 국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1895). 대한 제국 시기에는 관립 중학교와 외국어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상공업 진흥 정책에 따라 각종 실업 학교와 기술 교육 기관이 마련되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와 계몽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였다. 배재 학당, 이화 학당, 경신 학교, 정신 여학교, 숭실 학교 등 사립 학교에서는 근대 학문을 가르쳤으며, 민족의식을 깨우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

대한 제국 말기에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 교육을 통해 애국 청년들을 길러 내는 것이 국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이에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설립하였다.

근대 교육은 국민의 지식을 계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근대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에 대한 인식도 변하였다. 여권 의식이 확산되고 여성 교육 기관이 세워졌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도 활발해져 여성 단체가 만들어지고, 교육계와 의료계 등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하였다.



이화 학당의 수업 모습



배재 학당 동관(서울 중구)



교육입국 조서

아,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건대 부유하고 강하여 우뚝이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들이 개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개명하는 것은 교육이 잘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나는 임금과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육하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있다.

교육에는 방도가 있으니 먼저 허명과 실용을 분별해야 한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익혀 고인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지금 돌아가는 큰 형편에 어두운 자는 문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선생에 지나지 않는다.

– "고종실록"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됨에 따라 근대적 학제가 마련되었다. 이에 한성 사범 학교가 개설되었으며, 전국의 주요 도시에 소학교가 설립되었다.

국어와 국사를 연구하다

근대 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에 국한문이 혼용되기 시작하였고, 독립신문과 제국신문 등 순 한글로 쓰인 신문이 발행되면서 한글이 널리 보급되었다. 정부는 한글의 체계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 **국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1907). 주시경과 지석영 등은 국문의 정리와 철자법 등을 연구하여 국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석영(1855~1935)

국사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신채호, 박은식 등은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역사를 연구하여 **근대 계몽 사학**을 성립하였다.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은식은 최남선과 함께 조선 광문회를 조직하여 민족 고전을 정리, 간행하였다.

계몽 사학자들은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이순신전" 등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족을 수호하고 국난을 극복한 영웅의 전기를 써서 보급하였다. 또한 "미국 독립사", "이태리 건국 삼걸전", "월남 망국사" 등 외국의 건국이나 망국의 역사를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국권이 침탈당하는 상황에서 널리 읽혔으며, 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어 국민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탐구 활동 국학 운동

자료 1 주시경, '국어와 국문의 필요'

후생들이 (세종 대왕의) 뜻을 본받지 못하고 오히려 한문만 숭상하며 어릴 때부터 이삼십까지 아무 일도 아니하고 한문만 공부로 삼았으되, 능히 글을 알아보고 능히 글로 그 뜻을 짓는 자가 백에 하나도 못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한문은 형상을 표하는 글일뿐더러 본래 타국 글인 고로 이 같이 어려운지라. …… 지금부터 이후로는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수이 여기지 말고 힘써 그 문법과 이치를 탐구하며, 사전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들어 더 좋고 더 편리한 말과 글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온 나라 사람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의 주장 글로 숭상하고 사랑하여 쓰기를 바라노라. – "서우"(190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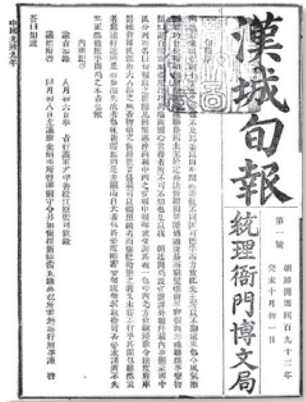
자료 2 신채호,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글자가 울리게 할까? 오직 역사로써 할지니라. ……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의 피 방울방울이 나라를 위하여 끓게 할까? 오직 역사로 할지니라. 역사가 무엇이기에 그 효능이 이처럼 신성하단 말인가. 가로되, 역사라는 것은 그 나라 그 국민의 변천 성쇠의 실적이니, 역사가 있으면 그 나라가 흥하는 것이다. …… 그러하니 애국심이 없는 사람도 역사를 반드시 읽어야 하고, 애국심이 있는 자도 반드시 역사를 읽어야 하노라. – "대한 협회 회보"(1908. 6.)

1. 주시경 등이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자.
2. 신채호는 역사를 읽어야 하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말해 보자.

신문을 통해 사회를 읽다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박문국을 설립하고 **한성순보**를 발간하였다(1883). 한성순보는 정부가 개화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발행한 신문이었다. 한편 민간에서는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1896). 독립신문은 순 한글만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소개하였다.


漢城旬報

第一號

朝鮮開國四百九十二年 癸未十月初一日

統理衙門博文局

한성순보

대한 제국이 수립되면서 근대 의식의 확산에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아래 많은 신문이 간행되었다.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발간되었는데(1898), 주로 유림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한 제국이 추진한 광무개혁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그 부당함을 일깨웠다.

제국신문은 순 한글 신문으로, 주로 서민이나 부녀자를 독자층으로 삼아 간행되었다(1898). 지식 습득과 한글 사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으며, 교육과 실업의 발달을 강조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과 함께 창간하였다(1904). 대한매일신보는 의병 투쟁을 널리 알렸으며, 국채 보상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밖에도 천도교의 기관지인 만세보(1906), 천주교 기관지인 경향신문(1906), 대한 협회의 기관지인 대한민보(1909) 등이 창간되었다. 이와 같은 신문들은 계몽 활동과 언론 활동을 전개하여 국권 회복 운동을 확산시키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베델과 대한매일신보

민지(民智)가 몽매하여 민권이 서지 못하면 그 민은 민이라 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민지가 발달한 후에야 우리나라의 안녕과 민권의 동등이 가능한 것이며, 민지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대한매일신보(1907. 10. 5.)

대한매일신보는 베델이 사장이었고, 양기탁이 발행 책임을 맡았다. 베델은 영국의 언론인으로서 1904년에 런던 데일리 뉴스의 특파원으로 파견을 나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치외 법권의 혜택을 누리던 베델 덕분에 대한매일신보는 일제의 침략 행위를 마음껏 폭로할 수 있었다.


베델(1872~1909)

종교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다

개항 이후 종교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다. 1880년대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서울, 평양 등에 병원과 학교를 건립하여 서양 문물 수용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는 등 **국민 계몽 활동**에도 힘썼다. 1900년대에 개신교는 각지에 학교를 세워 계몽 활동과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서울 약현 성당(서울 중구)
1892년에 세워진 약현 성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딕 양식 건축물이다.

천주교는 선교의 자유를 얻은 후 약현 성당, 명동 성당 등 성당 건물을 전국 각지에 건축하였다. 특히 명동 성당 안에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천주교는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해 애국 계몽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학 농민 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 이용구 등 일부 동학교도가 친일 활동을 하였다. 이에 손병희는 문명개화, 근대화, 동양 평화론을 내세우면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동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천도교는 만세보를 창간하였으며, 보성 학교와 동덕 여학교를 경영하는 등 민족 교육에도 힘썼다.

나철, 오기호 등은 1909년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대종교는 국권 피탈 후 교단을 간도 지역으로 옮기고 **무장 독립 투쟁**에 앞장섰다.

유교에서는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을 써서 유교의 개혁과 유림계의 단결을 주장하였고, 불교에서는 한용운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내세워 불교의 혁신과 자주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역사 더하기+

대종교의 창시

나철은 애국심을 가진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구국 운동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민족을 부흥하는 원동력은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1909년에 동지 오기호 등 10명과 함께 서울 종로 재동에서 단군대황조신위(檀君大皇祖神位)를 모시고 '단군교 포명서'를 공포함으로써 국조 단군을 숭앙하는 단군교를 창시하였다.

나철 등은 1910년에 단군교에서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고 대일 투쟁 전략과 관련한 종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철은 '홍익인간'을 교의로 삼고 이를 구현하여 지상 낙원을 세우자고 주장하였다. 대종교는 1914년 본사를 간도로 옮겨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앞장섰으며, 훗날 청산리 대첩에 참가한 북로 군정서 창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나철(1863~1916)

예술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다

서양의 근대 문화가 유입되면서 문학과 예술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대한 제국 말기에는 순 한글로 쓰인 **신소설**이 등장하였다. 신소설은 언문일치의 문장을 사용하였으며, 신식 교육과 신분 의식 타파, 남녀평등 사상, 자주독립 의식의 고취 등을 주제로 하여 계몽 문학의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 최찬식의 "추월색",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등이 있다.



금수회의록

시가 문학에서는 **신체시**가 발표되어 근대 시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하였다. 최남선이 발표한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최초의 신체시였다. 신체시는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노래하거나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담은 외국의 문학 작품들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성경", "천로역정", "이솝 이야기", "로빈슨 표류기"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음악에서는 찬송가가 불리면서 서양의 근대 음악이 소개되었다. 또 서양식 악곡에 맞춘 창가가 유행하면서 애국가, 독립가, 권학가 등이 애창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미술에서도 서양의 화풍이 소개되어 유화가 그려졌다. 연극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지고, '은세계', '치악산'과 같은 신극이 공연되었다. 또한 변사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활동사진이 상연되기 시작하였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근래 외국인의 상업은 날로 더욱 흥성하는데 자국민의 상업은 날로 더욱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의 상업계는 다 저들이 점유하고 있고 오직 중앙에 겨우 손바닥만큼의 한 조각만이 남아 있으니 …… 이 때문에 총상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승정원일기"(1898. 9. 29.)

(나) 무릇 우리 동포된 자는 한번 생각할지어다. 자기 자신 세대는 구습과 고루 속에서 성장하여 새로운 학문에 종사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 이 시대에 이르러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을 얻을 수 없으니 우리 동포는 자제 교육에 떨쳐 일어나야 한다.

– "서우"(1906. 12.)

1. (가), (나)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를 써 보자.

(1) (가):

(2) (나):

2. (가), (나)와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서술해 보자.

조건 경제 침탈과 애국 계몽 운동의 개념을 포함하여 쓸 것

일상 다반사

근대 문물, 생활 모습을 바꾸어 놓다

개항 이후 정부의 개화 정책에 따라 통신, 전기, 교통 분야를 시작으로 근대 문물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근대 문물은 우리 사회를 외형적인 면에서 크게 변화시켰다. 일상생활에서 근대 문물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아보자.


서울 서대문과 청량리를 오갔던 전차

전차, 서울을 달리다

1899년, 서울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를 오가는 노면 전차가 운행되기 시작하였다. 전차 운영은 한성 전기 회사에서 담당하였다. 고종 황제는 종종 황실 전용 전차를 타고 청량리에 내려 왕비가 잠들어 있는 홍릉을 찾았다고 한다.

전차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개통식이 있던 날에는 전차 송전선을 끊었다고 지목된 두 사람이 재판 과정도 없이 처형되었다. 또 1899년에는 탑골 공원 앞에서 다섯 살 난 어린아이가 전차에 치여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격분하여 전차를 가로막으며 전차 운전사와 차장을 폭행하고 전차를 불태워 버렸다.

커피를 즐긴 고종 황제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90년 무렵이었다. 커피는 '가배차' 혹은 '가비차'라고 불렸고, 서양에서 왔다 하여 '양탕국'이라고도 하였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는 동안 커피 맛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경운궁으로 환궁한 후 고종은 경운궁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정관헌을 지었다. 정관헌은 고종 황제가 홀로 나라의 시름을 달랬던 곳으로서, 대신들과 커피 등 다과를 즐기고 서양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곳으로 이용하였다.

커피는 왕실의 기호품으로 그치지 않고 서울과 지방 양반 사이로 점차 확산되었다. 궁중에서 관리들에게 선물을 하사할 때 커피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고종 황제(1852~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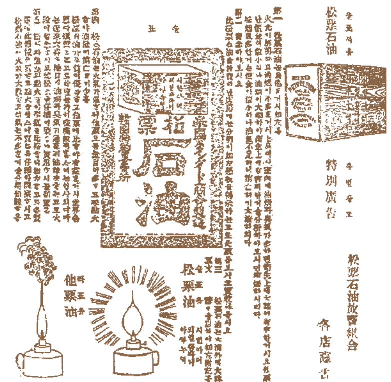
남포등 아래에서 책을 읽다

대표적인 근대 문물인 전기는 처음에 서울 등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들어왔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근대적인 등잔불이 어둠을 밝혔다. 그러한 가운데 남포등이라는 새로운 빛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왔다.


남포등

남포등은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휴대용 등으로, 개화기에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남포는 램프(Lamp)에서 나온 말이다. 남포등은 석유를 넣은 그릇의 심지에 불을 붙이고 유리로 만든 등피를 끼운 석유 등잔이다. 이를 서양등이라는 뜻에서 '양등'이라고도 하였다. 석유를 사용하였던 남포등은 등잔에 비하여 빛이 매우 밝았으며, 심지를 올리고 내리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였다. 육영 공원 등 개항 초기 학교에서는 남포등을 켜고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남포등에 사용되었던 석유는 1884년 미국과의 무역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회사는 1897년 인천에 석유 저장소를 만들고 솔표라는 상표를 붙인 석유를 팔았다. 당시에는 석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솔표 석유 신문 광고
(황성신문, 1903. 10. 28.)

> 석유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는데 어떤 이는 바닷속에서 얻어 낸다고 하고, 어떤 이는 석탄에서 짜낸다고 하며, 또 다른 이는 돌을 달여서 걸러 낸다고도 한다. …… 석유는 처음에는 색깔이 붉고 냄새가 아주 나빴으나 한 홉이면 열흘 밤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후 몇 년 사이에 색깔이 점점 희어지고 냄새도 차츰 덜해졌지만 화력은 약해져서 이제 한 홉으로 겨우 사나흘 밤을 쓸 수 있을 뿐이다.
>
> – 황현, "매천야록"


개화기의 성냥

남포등과 함께 성냥도 함께 전해졌다. 당시 사람들은 성냥을 자기황(自起黃)이라 불렀는데, 마치 요술을 부리듯 불이 켜지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1906년경 서울 태평로에 세운 솔표 석유 광고탑

07 독도와 간도

이 단원에서는 >> 1. 역사적 경위로 보아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설명할 수 있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다.
3. 간도를 둘러싸고 청과 영유권 갈등이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1 독도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고 일관된 주장에 대해 한국 국민은 일본이 동일한 방법의 침략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다. ……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를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보낸 외교 문서(1954. 10. 28.)

● 독도가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독도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삼국 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영토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직접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날은 연중 60일이 넘는다.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남해안의 어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독도 근처 바다에서 어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독도를 울릉도에 딸린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한때 왜구의 침입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울릉도 등 섬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쇄환 정책을 실시하였다. 숙종 때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에도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이로써 19세기 중엽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철종 때부터 울릉도 근처 바다에서 일본 어민들의 불법 어로 활동이 다시 빈번해졌다. 이에 조선 정부는 울릉도에 대한 쇄환 정책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으며, 관리를 파견하였다.



울릉도와 독도

대한 제국,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선포하다

19세기까지 일본 역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779년에 간행된 일본여지노정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경위도 선 밖에 그려져 있다. 또한 1876년 일본 육군 참모국이 발행한 조선전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해 놓았다. 1877년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 라고 밝혔다.



일본의 조선전도에 그려진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해 왔다. 특히 1900년 10월 대한 제국은 칙령을 반포하여 이를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하였다. 대한 제국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도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에 석도(독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사실을 중앙 관보에 게재하여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러·일 전쟁 중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억지를 부려 이를 빼앗았다. 제주도, 거문도, 울산에 이어 울릉도에까지 전쟁 수행을 위한 망루를 설치하면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였다. 처음에 일제는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성과 해군성의 사주를 받은 일본 어업인의 영토 편입 청원서를 구실로 하여 독도를 침탈하였다.

울릉 군수는 1906년에 시마네 현 관리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중앙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한 제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울릉 군수에게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한 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여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은 일제의 독도 편입에 항의하는 기사를 실었다.

탐구 활동 한·일 양국 문서에 나타난 독도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바가 없으나 원록 연간(1688~1704)에 주고받은 죽도에 관한 서한이 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사람을 파견해 거류하게 했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었다.
–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품의한 취지의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 일본 태정관 지령 (1877)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 (1900. 10. 27.)

독도가 일본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니, 독도의 정황과 일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
– 참정대신 박제순 지령 제3호(1906.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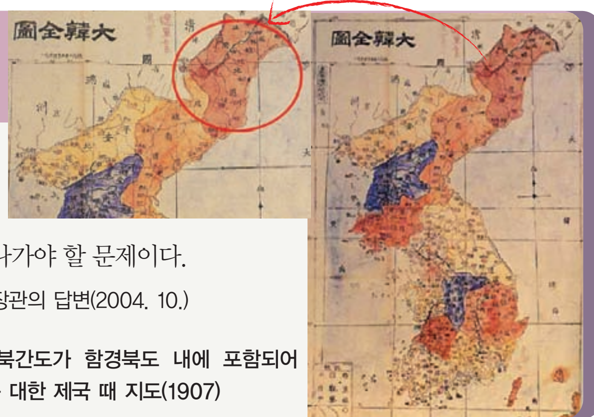
1. 일본 정부가 19세기까지 독도를 어떻게 여겼는지 말해 보자.
2. 대한 제국은 독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아보고, 독도를 왜 석도라고 했는지 조사해 보자.

2 간도

간도 문제는 북한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고증을 위한 역사적 자료 수집 및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루어 나가야 할 문제이다.

– 국회 국정 감사에서 외교 통상부 장관의 답변(2004. 10.)

● 간도 문제는 왜 복잡하고 민감할까?



북간도가 함경북도 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한 제국 때 지도(1907)

대한 제국,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다

19세기 중반 이후 한국인 중 일부는 기근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가 농토를 개간하고 정주하였다. 특히 두만강 건너편 지역에 한국인 정착촌이 많았는데, 그 지역을 흔히 **간도**라 불렀다.

그런데 청 정부는 1881년 만주 지역에 대한 한족의 이주 금지를 해제하면서 조선 정부에 간도 지역의 한국인을 귀환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과 청은 두 차례 국경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백두산정계비에 새겨진 토문강이 어느 강인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려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1900년에 의화단 사건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간도에 군대를 파견하여 청군을 물리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대한 제국은 간도의 한국인들이 청의 패잔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진정을 받아들이고, 두만강 일대에 경찰을 파견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대한 제국은 1901년 회령에 변계 경무서를 설치하고 이듬해 이범윤을 간도 시찰사로 파견하였다. 1903년에는 간도 지역에 대해 사실상 영유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내와 간도 지역의 한국인 사이에서 일고 있던 간도 영유권 주장에 힘입은 것이었다. 정부는 간도에 파견되어 있던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의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고 조선인을 보호하는 영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범윤은 간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관청을 설치하고자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서 조세를 징수하였다. 그리고 간도는 대한 제국의 영토이므로 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범윤(1856~1940)
1903년에 간도 관리사가 되어 간도 지역의 한국인을 보호하였으며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국권 피탈 후에는 의병을 모아 함경도 방면에서 일본 수비대와 싸웠고, 3·1 운동 후 남만주에서 의군부를 조직하여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청 역시 그때까지 관청을 설치하지 않았던 간도 지역에 연길청을 설치하고 행정 사무를 개시하였다. 또 이 지역의 한국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지린 성에 4개의 부대를 주둔시켰다. 대한 제국의 적극적인 영토 정책과 청의 대응 조치로 두 나라 사이에 국경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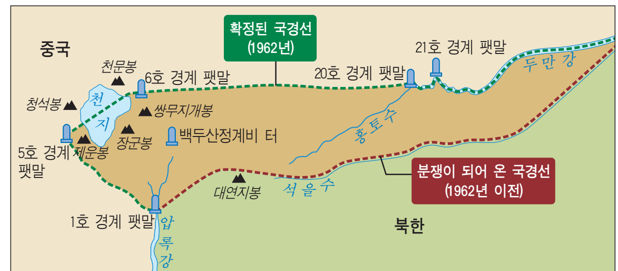
청과 일본, 간도 협약을 체결하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대한 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빼앗았다. 대한 제국은 1906년 11월 통감부에 간도의 한국인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반도를 통해 만주로 진출하려던 일본은 대한 제국의 정책을 답습하여 1907년 용정에 통감부 간도 임시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간도 문제는 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문제로 변하였다.

간도 파출소를 설치한 일본은 간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이며,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청 정부에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천명하였다. 청과 일본은 간도를 둘러싸고 국경 조사와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09년 9월에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백두산정계비와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하였다. 일본은 간도 협약을 통해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이 지역의 이권을 장악하고 일본 총영사관을 두었다.

> **간도 협약의 주요 내용**
> - 한·청 양국의 국경은 도문강(=두만강)으로써 경계를 이루되,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동시에 청은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를 한국민의 잡거 구역으로 인정한다.
> - 잡거 구역 내에 거주하는 한국민은 청의 법률에 복종하고, 생명·재산의 보호와 납세, 기타 일체의 행정상의 처우는 청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 청국 정부는 간도 내에 외국인 거주 또는 무역지 4개 처를 개방한다.
> - 장래 지린·창춘 철도를 옌지 남쪽까지 연장하여 한국의 회령에서 한국의 철도와 연결한다.

이후 1962년에는 북한과 중국이 조·중 변계 조약을 체결하여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백두산 천지를 북한이 55%, 중국이 45% 비율로 분할하여 귀속시켰으며,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크고 작은 모래섬은 북한이 264개, 중국이 187개를 갖게 되었다.



조·중 변계 조약 체결에 따른 국경선 변화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일본	한국
• 역사적으로 한국은 독도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함. •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 •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	• 한국의 고문서에 우산도(독도) 인식 • 19세기 일본 측 문서에도 자국 영토와 무관하다고 표명 • 러·일 전쟁 중 불법 편입

1.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여 써 보자.

2.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해 보자.

조건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독도 관련 문서 내용을 활용하여 쓸 것

연표로 정리하기

1866	❶ □□□□	프랑스 선교사 처형을 빌미로 프랑스가 강화도에 무력으로 침략해 왔으나, 한성근 부대와 양헌수 부대가 이를 격퇴하였다.
1871	신미양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강화도의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1876	❷ □·□ □□ □□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한다.
1882	임오군란	이를 계기로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과 외교 문제에 심하게 간섭하였다.
1883	❸ □□ □□ 설립	함경도 덕원 주민들에 의하여 근대 학교가 설립되었다.
1884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는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❹ □□ □□□ 확립, 내각 중심의 정치 등을 담은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였다.
1894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❺ □□□□ 추진	동학 농민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청과 전쟁을 벌였고, 이후 조선의 내정 개혁에 간섭하였다. 한편 제1차 김홍집 내각은 ❻ □□□□□를 설립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1895	❼ □□□□	일본은 명성 황후를 배일 세력으로 지목하고 시해하였다. 이를 계기로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1896	아관 파천, ❽ □□ □□ 결성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후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한편 서재필은 근대 개혁 사상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❽ □□ □□를 결성하였다.
1897	❾ □□ □□ 수립 선포	고종은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내외에 자주독립 국가임을 천명하였다.
1904	러·일 전쟁	러·일 전쟁 중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1905	을사늑약 체결	일제는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❿ □□□를 설치하였다.
1907	⓫ □□□ □□ 파견,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고종은 을사늑약의 무효를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한편 이해에는 국민이 모금하여 나랏빚을 갚자는 ⓬ □□ □□ □□이 일어났다.
1908	⓭ □□ □□ □□	전국의 의병 부대들은 무기와 병력을 갖추고 집결하여 서울로 진입하려 하였다.
1910	한국의 국권 피탈	일본군이 곳곳에 배치된 상황에서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가 체결한 한국 병합 조약이 발표되었다.


▲갑신정변의 주역들


▲동학 농민 운동


▲독립문


▲을사늑약 원문

수행하기

동아시아 삼국의 개항과 한국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에 대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둠별로 역사 신문을 만들어 보자.

❶ 역사 신문 발간 계획 세우기

1. 4~6명이 모여 하나의 모둠을 만든다. 모둠 대표를 선출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2. 구성원들은 모둠별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과 자료를 조사한다.
3. 모둠별로 모여 준비된 자료를 분석하고 내용을 파악한다. 이때 신문에서 부각하거나 강조할 내용을 결정한다.
4. 기사, 사설, 만평, 광고 등 신문 지면을 구성할 코너들을 결정한다. 코너에 들어갈 내용은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5. 신문 전체, 각 코너의 분량을 정하고 지면을 구성한다.
6. 각자 맡은 부분의 기사를 작성한다. 이때 인용 자료를 활용하거나 사진을 수록한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7. 모둠별로 모여 작성된 기사를 토의하여 수정 · 보완한다.
8. 신문의 표제를 정하고 각 코너에 맞는 기사를 수록하여 완성한다.

❷ 역사 신문 만들기(예시)

역사신문

청, 마침내 서양에 문호를 열다

1842년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을 맺고 개항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래 청은 광저우의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였으나, 영국의 끊임없는 도발과 전쟁으로 결국 광저우,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였다.


난징 조약 체결(존 플랫 그림, 존 버닛 조각)

영국은 홍차 소비 증가 추세에 따라 청의 차를 대량으로 수입해 왔다. 하지만 막대한 양의 은을 청에 지불하여 무역 적자가 심각해졌다. 이에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여 적자를 메우려고 했다. 나아가 아편에 대한 청의 강경한 대응을 빌미로 전쟁까지 도발하여 청을 개항시켰다.

예로부터 조공 무역 체제를 고수해 왔던 청이 문호를 개방했으니 앞으로 동아시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V 일제의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 3·1 운동(상상화)

| 고향 |

현진건(1926년 作)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개인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주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현진건의 '고향'은 일제 강점기 한국 농민들의 참담한 생활을 폭로한 소설이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한국의 농민들은 관습적인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소작농들은 지주와 기한부 소작 계약을 맺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간도, 일본 등지로 이주하였다.



▲ 민족주의를 고취했던 역사서들



▲ 청산리 대첩 기념비(중국 지린 성 허룽)


▲ 노르망디 상륙 작전

01 세계 대전과 동아시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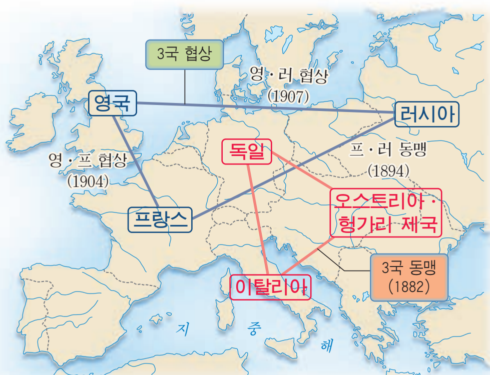
이 단원에서는 >> 1.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와 동아시아의 민족 운동을 파악할 수 있다.
2. 러시아 혁명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3.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 배경과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말할 수 있다.

1 제1차 세계 대전과 새로운 국제 질서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인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을 향해 총을 쏘았다. 황태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청년은 '검은 손'이라는 조직에 소속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였다.

●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라예보 사건



3국 동맹과 3국 협상
독일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고립시키자, 프랑스는 러시아, 영국과 3국 협상을 맺어 이에 맞섰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고자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을 맺거나 대립하였다. 3국 동맹과 3국 협상의 대립은 발칸 반도에서 충돌하였다. 발칸 반도에서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운 세르비아와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사이에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스니아를 방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되는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를 하고 동맹국과 협상국이 양측에 개입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1914).

일본은 영·일 동맹을 구실로 협상국 편에 가담하여 동아시아 및 태평양에서 독일이 가졌던 권익을 빼앗고, 특히 중국에서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였다. 한편 오스만 제국은 동맹국 편에 섰다. 유럽 열강이 대부분 전쟁에 참전하자, 비유럽 국가 및 인도, 아프리카의 식민지 주민들도 어느 한 편에 가담해야만 했다.

참전국들이 총력을 기울여, 전쟁은 좀처럼 우열을 가리지 못한 채 지루한 참호전이 계속되었다. 영국이 동맹국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자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고, 이에 미국은 협상국 편에 가담하였다. 전쟁 초 중립을 선언하였던 중국 베이징 정부도 전후 승전국으로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참전을 선언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은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협상국의 승리로 끝났다(1918).

베이징 정부
1912년부터 1928년까지 위안스카이를 비롯한 군벌 세력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중화민국 정부를 말한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나, 차르의 전제 정치가 계속되었고 민중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자 민중의 불만은 고조되었으며, 입헌 정치를 요구하는 시위 행렬을 정부가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피의 일요일 사건, 1905). 이에 일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급진적 지식인들은 혁명을 준비하였다.



피의 일요일 사건
차르 정부는 황제에게 청원을 하고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에게 무차별 발포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협상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계속 패배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1917년 2월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전쟁 중지와 식량 배급, 전제 정치 타도를 외치며 봉기하였다. 이들은 소비에트를 조직하여 혁명을 추진하였다. 이에 니콜라이 2세가 물러나면서 제정이 무너지고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2월 혁명).

임시 정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제헌 의회의 구성을 지연시키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쟁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이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무장봉기하여 임시 정부를 타도하고 소비에트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최초로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10월 혁명). 정부는 즉각 정전을 선포하고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영토를 인정하였으며, 각 민족의 자결을 선언하였다.

혁명은 곧 러시아 전역과 주변국으로 확산되었다. 레닌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위하여 코민테른을 결성하고 식민지 약소민족의 독립 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주의 사상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코민테른
1919년 3월 레닌의 주도로 모스크바에서 창설된 공산주의 국제 연합으로, 각국 공산당의 창립과 혁명 운동을 지원하였다.

탐구 활동 사회주의의 확산

자료 1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1920)

민족과 식민 문제에 대한 코민테른의 모든 정책은 지주와 부르주아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적인 투쟁의 연대를 위해, 모든 국가 및 민족의 프롤레타리아와 노동 대중의 밀접한 연합에 초석을 두어야 한다. 이것만이 자본주의에 대한 승리를 보장하며, 이것 없이 국가 간의 억압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레닌

자료 2 나를 레닌주의로 인도한 길(1920)

한 동지가 나에게 "루마니테"에 실려 있는 레닌의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를 읽어 보라고 주었다. …… 레닌주의는 기적을 가져다주는 '지혜의 책'이며 우리 베트남 혁명가들과 인민에게는 나침반이다. 이는 또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마지막 승리로 가는 우리의 길을 밝혀 주는 빛나는 태양이다. – 호찌민

두 자료를 보고 호찌민이 레닌의 사상에 심취하게 된 까닭을 말해 보자.

워싱턴 체제가 성립하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19년 1월에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평화를 위한 14개조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결과는 전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독일은 전승국과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으로 국외의 모든 식민지를 잃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부담하였으며,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제국도 영토를 상실하였다.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1조 평화 협정은 공개적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5조 식민지 주권 문제는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가 장래에 그 주권을 결정하게 될 정부의 정당한 주장과 같은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은 독일이 지배하던 중국의 산둥 지역과 남태평양의 섬들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중국 베이징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여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이권을 확보하였다(1915). 전쟁이 끝난 후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산둥 성에 대한 이권을 보장받으며 중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해군 군비 축소 문제와 중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 주도로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회의의 실제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의 결과 일본은 칭다오 등에 주둔한 일본군을 철수하고 산둥 반도를 중국에 반환해야 했다.


워싱턴 회의(1921~1922)

워싱턴 체제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민중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인하여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북벌을 단행하였고, 한국인은 항일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워싱턴 체제는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붕괴하였다.

사료 쏙! 쏙!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 성에 대한 일체의 권익을 일본이 이어받는다.
- 뤼순과 다롄의 조차권, 남만주와 안봉 철도의 권리 기한을 다시 99년 동안 연장한다.
- 일본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 일대의 권익(토지 임차권 또는 소유권, 광산 채굴권 등)을 소유한다.
- 일본 국민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서 자유로이 거주 왕래하며 각종 상공업 및 기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서 정치, 재정, 군사에 관하여 고문이나 교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 반드시 먼저 일본과 협의한다.
- 중국에서 일본인의 포교를 인정한다.

21개조 요구 문서(일본 도쿄 외무성 외교 사료관)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베이징 정부에 강요하여 관철시키자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격화되었다. 이는 반군벌·반일을 주장하는 5·4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민족 운동이 일어나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 약소민족과 약소국의 독립 및 해방 운동이 고양되었다. 한국인은 **3·1 운동**을 일으켜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였다(1919). 3·1 운동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민족 운동에 자극을 주었다.

중국은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21개조 요구는 무효이며, 따라서 패전국 독일이 산둥에서 차지하였던 권익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일본과 비밀리에 여러 협약을 맺고 있었던 열강들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베이징 대학생들은 산둥 반도 반환과 21개조 요구의 철폐, 군벌 타도, 친일파 처벌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노동자와 상인들도 파업을 하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며 적극 가세하여 전국적인 대중 운동으로 발전하였다(**5·4 운동**, 1919). 베이징 정부는 이에 굴복하여 파리 강화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5·4 운동을 계기로 쑨원은 광둥에 국민당 정부를 세우고, 군벌을 타도하고자 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 공산당과 **제1차 국·공 합작**을 이루었다(1924). 쑨원이 죽은 후 장제스는 국민 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을 단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을 배척하여 국·공 합작은 와해되었다. 그러나 장제스의 국민당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중국 통일을 실현하였다(1928).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베트남은 제1차 세계 대전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독립을 약속받았으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호찌민**은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를 결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하여 프랑스의 지배에 맞서 민족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북벌
1926~1928년에 중국 국민당이 북방의 군벌 정권을 타도하려고 벌인 민족 통일 운동이다.


호찌민(1890~1969)

탐구 활동 전체 학생 톈안먼 선언(1919)

지금 일본은 칭다오를 삼키고 산둥에서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산둥을 잃는 것은 중국이 망하는 것이다.

조선은 독립을 꾀해 "독립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였다. 생각하건대, 전국의 국민이 일제히 일어나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가의 적을 제거하자. 중국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번 일에 달려 있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될지언정 넘겨줄 수 없다. 중국 국민은 죽을지언정 머리를 숙일 수 없다.


5·4 운동

중국이 주장하는 '산둥에서의 모든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전체주의의 등장과 제2차 세계 대전

국가를 떠나서는 인간과 영혼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단체도 국가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 전쟁만이 인간의 모든 정력을 최대한으로 고양시킨다. – 무솔리니의 파시즘 독트린

● 위와 같은 사상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무솔리니(1883~1945)

대공황이 발생하다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공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례 없는 호황과 번영을 누렸다. 미국의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생산 설비에 재투자하여 제품 생산량을 늘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은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 소비가 생산량의 증가를 따르지 못하여 재고품이 창고에 쌓여 갔다.



대공황 시기의 단면
'세계 최고 수준의 삶'이라는 간판을 배경으로 식량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29년 10월, 미국 뉴욕의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였으며, 실업자가 속출하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세계 여러 나라로 파급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미국은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의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는 **블록 경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취약하고 식민지가 많지 않았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국가 지상주의를 내세워 국민의 일상생활을 낱낱이 통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갔다.

뉴딜 정책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금융과 산업, 물가 등 시장 경제 전반에 걸쳐 실시한 강력한 통제 정책을 가리킨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다

대공황은 워싱턴 체제가 무너지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전체주의 국가들은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하여 침략 전쟁을 강행하였다.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을 세웠다(1932). 국제 연맹이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자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였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은 제2차 국·공 합작을 이루어 일본의 침략 확대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군비 확장과 대외 강경책을 추진하여 중국 본토를 침략하였다(**중·일 전쟁**, 1937). 일본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하였다. 중국인의 저항이 계속되자 일본은 난징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중국은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고 항전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다

국제 연맹에서 탈퇴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베를린-로마-도쿄 추축을 이루어 전체주의 국가의 결속을 다지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세계를 재분할하려 하였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1939).


진주만 공습

전쟁이 유럽에서 전개되어 열강들이 동남아시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게 되자, 일본은 이 틈을 타 지하자원을 확보하고자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였다. 일본은 침략 전쟁을 '아시아를 유럽 열강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 성전'이라고 하며 국민을 선동하였다.

이에 동남아시아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일본을 압박하였고, 미국은 일본에 석유 등의 전략 물자 수출을 금지하였다. 그러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1941). 전쟁 초기에 일본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듯하였으나 미드웨이 해전 등에서 패퇴하면서 연합군이 승세를 잡게 되었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지에서도 대일 항전이 전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태평양 전쟁 직후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항복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이 막을 내렸다(1945. 8.).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애초 세계 각국이 각자의 것을 얻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만방공영(萬邦共榮)의 즐거움을 함께함은 세계 평화 확립의 근본 의의이다. 그런데 미·영은 자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타국, 타민족을 억압하고 특히 대동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침략·착취를 행하여 대동아 노예화의 야망을 마음대로 펼치려 하고, 결국에는 대동아의 안정을 근저로부터 뒤집으려 하니 대동아 전쟁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제휴하여 대동아 전쟁을 완수하고 대동아를 미·영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그 자존자위를 완수하여 아래의 강령에 기초, 대동아를 건설함으로써 세계 평화의 확립에 기여하려고 한다.

– 일본 외무성 편, 일본 외교 연표 및 주요 문서

1. 이 자료는 1943년 11월 6일에 발표된 것이다. 그 제목을 써 보자.

2. 일본이 주도하여 위와 같은 선언문을 발표한 까닭을 서술해 보자.

조건 일본이 내세운 명분과 실제 목적을 구분하여 밝힐 것

02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

이 단원에서는 >> 1.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 일제의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1 무단 통치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선 태형령(1912)

● 일제가 조선 태형령을 실시한 까닭은 무엇일까?


태형 도구(서대문 독립 공원 역사 전시관)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하다

1910년 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조선 총독은 일본 국왕에 직속된 조선의 최고 통치권자로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조선 총독은 입법·사법·행정 및 군 통수권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조선 총독 밑에는 행정을 총괄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을 두었다. 경무총감은 현역 군인인 헌병 사령관이 겸임하였으며, 전국에 헌병 분대와 파출소, 경찰서와 주재소를 두어 한국인을 감시하였다.

헌병 경찰은 첩보 수집과 의병 토벌은 물론 산림 감시, 징세 사무의 협조, 민사 소송의 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간여하였다. 이들은 즉결 처분권을 가졌기 때문에 재판 없이 벌금을 매기거나 구류, 태형 등의 형벌을 가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던 태형은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태형을 당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제는 총독부 관리는 물론 교원들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총독부를 비롯한 상급 기관의 고위 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하였고, 한국인을 정치에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조선 총독의 자문 기관으로서 설치한 중추원은 일제에 적극 협력해 온 친일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었다.


조선 총독부
일제는 남산에 있던 통감부 건물을 사용하다가 1926년에 경복궁에 새로 총독부 청사를 지었다.

일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였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들이 폐간되었고,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이 해산되었다. 또한 일제는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여 일본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기른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다

일제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토지 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전국의 호구를 조사하여 새 호적 대장을 만들었다.



토지 조사 사업
조선 총독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의 소유자, 가격, 모양과 용도 등을 조사하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근대적인 등기 제도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토지 대장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하여 식민 통치에 필요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왕실과 공공 기관에 속한 토지 및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가 차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토지의 매매와 저당을 자유롭게 하여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은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주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여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조선 총독부는 미신고 토지, 왕실과 국가의 토지였던 궁방전과 역둔토 등을 모두 차지하여 최대 지주가 되었다. 또 과세지 면적이 크게 늘어나 재정 수입이 증가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이렇게 차지한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비롯한 식민 회사나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팔아넘겼다.

궁방전, 역둔토
궁방전은 궁중에서 소요되는 경비와 제사 비용을 마련하고자 대한 제국 황실이 소유하였던 토지를 말한다. 역둔토는 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역토와 지방의 병영과 관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둔토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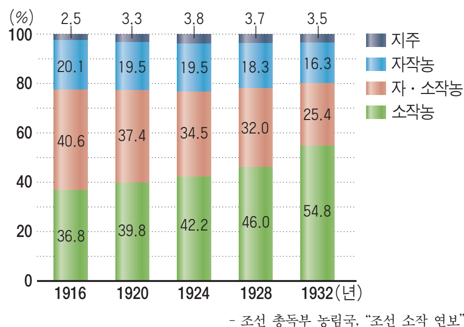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은 대지주로 성장하였으며, 조선인 지주의 토지 겸병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몰락하는 농민이 크게 늘었다.



제1차 조선 교육령(1911)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제5조　보통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 교육은 농업·상업·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일제는 식민지 교육 체계를 보통 교육과 실업 교육을 위주로 편성하고, 고등 교육의 기회는 거의 부여하지 않았다. 수업 연한은 일본과 달리 4년으로 짧게 하였다. 이는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인을 식민 지배 체제에 순응시키고, 한국인의 노동력을 마음껏 부리려는 의도였다.



- 조선 총독부 농림국, "조선 소작 연보"

농가 호수 구성비의 변화



간선 철도와 주요 항만

호남선은 호남 지방의 쌀과 면화를, 경원선은 함경도 지방의 광산물을 일본으로 가져갈 목적에서 건설되었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되고, 종래 농민들이 누려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이나 영구 소작권은 부정되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소작료가 크게 올랐다. 소작권마저 잃은 가난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로 떠났다.

식민지 수탈 체계가 확립되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에 **회사령**을 제정하여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함으로써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1911년에는 조선 어업령을 반포하여 어민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새로이 면허·허가를 받아 조업하도록 하였다. 또 삼림령을 공포하여 농민들의 국유림 이용을 단속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은 땔감을 구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15년에는 조선 광업령을 제정하여 광업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광산 경영을 규제하면서 금, 은, 철, 석탄 등 경제성이 있는 광산은 거의 일본인이 독점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삼, 담배, 소금 등에 대해서는 전매제를 실시하여 조선 총독부의 수입을 늘렸다.

일제는 한국을 일본 경제권에 편입하고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기간 시설**을 **정비**하고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경부선, 경의선에 이어 호남선, 경원선 철도를 건설하여 경성을 중심으로 한 X자 형태의 간선 철도망을 완성하였다.

역사 더하기+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조선 이주민 모집 광고

조선은 기후와 풍토가 일본과 다름없고, 작물 종류와 재배 방법도 거의 같다. 단보*당 수확은 보통 현미 2~3석이다. 토지 가격은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단보당 70, 80엔에서 300엔이다. 일본에서 1단보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조선에서는 7단보를 살 수 있다. 토지 가격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이다.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토지는 대개 철도나 일본인 부락 부근이다. 이미 회사가 경작하던 토지이기 때문에 홋카이도나 사할린 같이 새로이 개간된 토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통도 편리하고 수해와 한해 염려도 없다. – 우방 협회, "자료 선집 동양 척식회사" *1단보≒990m²



동양 척식 주식회사

2 민족 분열 통치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해서 더욱 고려하여 그 할 바를 얻게 하고 …… 장래 기회를 보아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키고 일반 복리를 증진시킬 것이다. – 사이토 마코토의 시정 방침(191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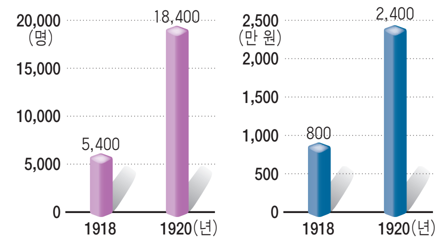
● 사이토 총독이 위와 같은 방침을 내세운 의도는 무엇일까?



칼을 벗기 전에는 조선을 다스릴 수 없다는 내용의 풍자화(일본 시사신보 게재)

회유와 탄압이 교묘해지다

일제는 3·1 운동 이후에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끼고 통치 방식을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꾸었다. 일제는 현역 대장이 임명되던 총독에 문관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다. 일반 관리와 교원이 착용하던 제복을 폐지하였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 또 제2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여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을 늘리고 대학 설립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찰 인원과 비용의 증가
일제는 1군(郡) 1경찰서, 1면(面) 1주재소 제도를 확립하고 경찰관 수를 대폭 확충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내세운 문화 통치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일본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감추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하였다. 문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고, 경찰 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또한 **치안 유지법**을 적용하여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농민 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으나 언론 검열로 인하여 수시로 기사가 삭제되거나 발행이 금지되었다. 학교는 여전히 부족하였고, 유상 교육이었기 때문에 취학률은 매우 낮았다.

치안 유지법(1925)
일본의 국가 체제(천황제)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을 통제하고 탄압하고자 제정한 법률로,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다.

탐구 활동 친일파 양성의 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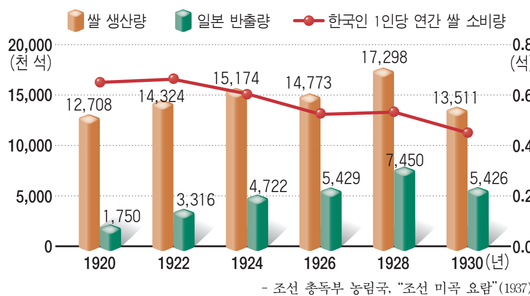
1. 친일 인물을 골라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2.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 친일파를 앉히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3.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4.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 사이토 마코토,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1920)

1. 일제가 친일파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일제의 회유 정책이 민족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

일제는 한국인을 회유하고 분열시키기 위해 각계에 친일 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식민 지배의 협력자로 삼으려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으로 완전 독립보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 운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도시 인구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농업 생산력이 이를 따르지 못하여 쌀 부족으로 쌀값이 오르면서 전국적인 쌀 소동이 일어났다. 일제는 식량을 확보하고자 1920년부터 한국에서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는 품종 개량과 비료 사용 확대, 수리 시설 확충과 개간, 밭을 논으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쌀 생산을 늘려 일본으로 가져가려는 정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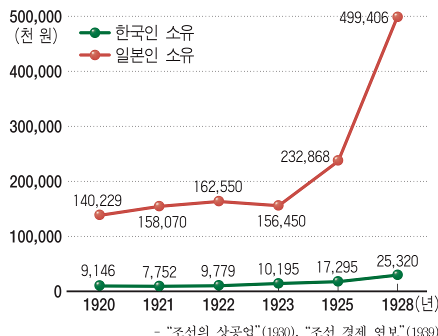
쌀 생산량과 반출량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 생산은 늘었으나 일제가 계획한 양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제는 증산된 쌀보다 더 많은 쌀을 가져갔다. 한국인은 식량이 부족해져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먹어야 했으며, 일부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수리 조합비와 비료 대금 등을 떠넘겨 가난한 농민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폐지하여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다(1920). 이로써 회사 설립이 한층 쉬워져 자본을 축적한 일본의 대기업들은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찾아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인의 회사 설립도 늘어났지만 대부분 소규모 제조업이나 유통 관련 분야에 그쳤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본금의 비중은 미미하였다. 1923년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서 값싼 일본 제품이 밀려오자 한국인 회사들은 더욱 어려워졌다.

역사 더하기 +

일본 자본의 진출



한국 내 본점을 둔 회사들의 자본금

구분	1918년	1930년
전체 물자 생산물 액수 중 농산물 액수 비율	80%	60%
전체 물자 생산물 액수 중 공산물 액수 비율	15%	26%
공장 수	1,800여 개	4,400여 개
전체 소비 중 공산품 소비 비율	21%	41%

-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사 48"

경제 구조의 변화

1920년대 일본 자본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일본 자본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공업의 양적 확대는 한국 내 산업에 대한 일본 자본의 지배가 확립되고,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하는 식민지적 공업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3 민족 말살 정책

1.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는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 황국 신민 서사(아동용)

● 일제가 위와 같은 맹세를 어린이에게 강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는 학생들

한국인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려고 하다

일제는 만주 사변 이후 중국 본토로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였다. 이에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들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를 내세웠다. 황국 신민 서사를 어린 학생들에게 강제로 외게 하였으며, 각종 행사에서 제창하고 모든 출판물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전국의 읍, 면에 신사를 세우고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정해 신사 참배를 의무화하였고, 궁성 요배라 하여 매일 아침 일본 궁성을 향해 허리 숙여 절을 하게 하였다. 또 우리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는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여 학교 명칭과 교육 과정을 일본과 동일하게 고치면서 한국어와 한국사 과목을 사실상 폐지하였으며, 수업도 일본어로만 하게 하였다. 소학교의 명칭도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의미에서 국민학교로 바꾸었다(1941).



창씨개명 강요를 위한 방침

-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전학을 거부한다.
- 창씨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사가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할 수 있다.
-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공사 기관을 불문하고 일체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현직자도 점차 면직 조치를 취한다.
-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 또는 불령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수첩에 등록, 사찰과 미행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노무 징용의 대상자로 한다. 또한 식료 및 기타 물자 보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창씨하지 않은 이름이 붙어 있는 화물은 철도국 및 운송 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半島文壇の大御所
李光洙さん
氏へ名乗り
一家揃って"香山"姓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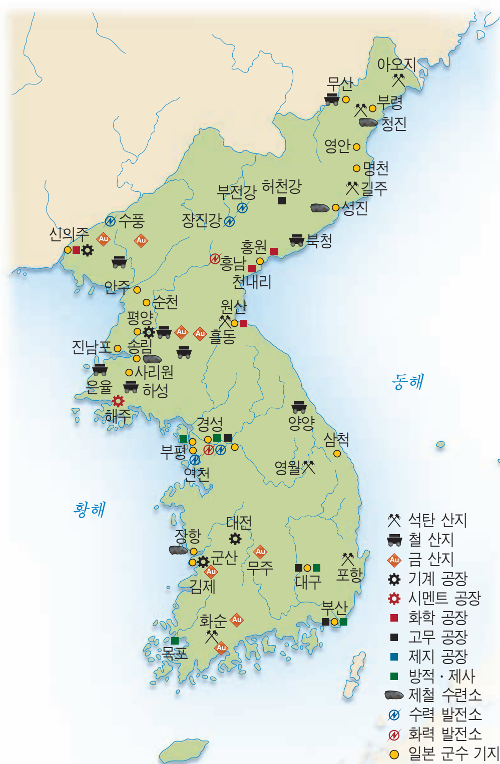
창씨개명 선전에 앞장선 이광수 (경성일보, 1939. 12. 12.)

일제는 1939년 창씨개명 방안을 발표하고 이광수 등을 앞세워 민족 간 차별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1940년 2월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창씨개명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이 호응하지 않자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농촌 진흥 운동을 전개하다

1930년 무렵 농촌 사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일제는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농촌 진흥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는 농민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춘궁 농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부채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조선 농지령을 제정하여 소작 쟁의를 중재하고 고율의 소작료를 제한하였으며, 소작농에게 토지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 잘살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전은 가난의 원인을 농민의 게으름이나 낭비 탓으로 돌려 농민의 불만을 잠재우려 한 기만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농민들은 여전히 고율의 소작료에 시달렸고, 금융 기관에 대한 부채가 늘어났다. 자력갱생 계획은 일제가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흐지부지되었다.



공업화 정책에 따른 중화학 공업과 군수 산업

한국을 병참 기지로 재편하다

일제는 대공황에 따른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한편, 일본, 한국, 만주를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일제는 만주를 점령하여 농업·원료 공급 지대로 삼고, 한국을 중화학 공업 지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전면 전쟁에 돌입하면서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군수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병참 기지**로 만들어 갔다.

이를 위해 일제는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하여 석탄과 철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부 지방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군수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금속·기계·화학 공

역사 더하기 + 일제 강점기 한국 농촌의 참상

우리가 농촌에서 보고 들은 것은 아무리 말해도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 많다. …… 가난한 농민의 식량을 참고로 봐도 한 홉 정도의 풀뿌리나 나무껍질을 섞어서 끓여 먹는다. 봄에는 풀의 새싹을, 겨울에는 뿌리를 채굴한다. 나무껍질은 소나무 속껍질, 아까시나무, 기타 모든 껍질을 잘게 하거나 도토리 열매로 가루를 낸 후 물을 넣어 단자(團子)를 만들고 소금을 쳐서 먹는다. 어떤 지방에서는 고령토를 먹는 경우도 있다. 그 상태는 일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비참하고 진기한 현상이다.

– "내외사정"(1932)


1930년대 보릿단을 지고 가는 자매
(다카하시 고시로 소장)

업에 집중 투자하였다. 일제는 원료와 식량을 확보하고자 광산 개발, 면화 재배, 양모 생산, 식량 증산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원과 인력을 전쟁에 동원하다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선포하고 이를 한국에도 적용하였다. 일제는 한국을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수탈할 수 있는 **전시 동원 체제**로 재편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조직하고, 마을마다 애국반을 편성하여 여기에 한국인을 소속시켜 일상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10대 여성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가 성 노예로 삼았다. 또 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청년들을 군대에 끌어갔으며, 전쟁 준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수탈하고자 국민 징용령을 실시하여(1939) 광산이나 공장, 비행장 등의 전쟁 시설을 세우는 데 한국인을 동원하였다. 전쟁 막바지에는 징병, 징용, 여자 근로 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한국인을 전쟁터와 군수 공장, 토목 공사장, 광산 등으로 데려갔다.

한편 일제는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식량과 각종 자원을 수탈하였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해지자 군량미를 조달하려고 쌀은 물론 감자, 고구마 등 농산물을 빼앗았다. 그리고 무기 제조에 필요한 철광, 석탄 등의 지하자원과 농기구, 놋그릇, 가마솥, 제기, 교회 종과 불상 등 각종 쇠붙이를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갔다. 또 위문 금품 모금과 국방 헌금을 강요하고 각종 세금을 신설하였다.

국가 총동원법(1938)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및 기타의 처분, 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 역사관(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공출된 놋그릇 무더기


중단원 마무리

1. 일본이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인을 동원하였던 방법을 써 보자.

2. 수요 시위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이와 같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까닭을 서술해 보자.

조건 관련된 신문 기사나 할머니의 증언 등을 활용할 것

1992년 1월 8일부터 이곳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2011년 12월 14일 천 번째를 맞이함에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이 평화비를 세우다.


위안부 평화비(서울 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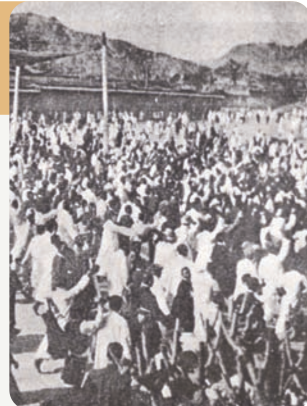
03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이 단원에서는 >> 1.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및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과정과 초기 활동을 말할 수 있다.

1 3·1 운동의 전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장(仗)하여 차(此)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此)를 포명함이며 ……. - 3·1 독립 선언문(1919)

● 위와 같은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는 사람들 ("한국 독립운동")

항일 비밀 결사를 만들다

1910년대 일제의 가혹한 억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계속되었다.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와해되는 등 국내 민족 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많은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국외로 이동하였다. 의병 부대들도 대부분 만주와 연해주 등 국외로 활동 근거지를 옮겨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105인 사건
일제가 군자금을 모으다 잡힌 안명근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확대·조작하여 신민회 회원 105명을 기소한 사건이다.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비밀 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임병찬 등이 조직한 **독립 의군부**는 국권을 회복한 후 고종을 황제로 복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의병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내각 총리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조직이 드러나 실패하고 말았다.



임병찬(1851~1916)
스승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쓰시마 섬에 유배를 당하였다. 귀국한 후 은거하던 그는 고종 황제의 비밀 지령을 받고 전국의 의병장과 유생들을 모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1912).

1915년에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결성된 **대한 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공화 정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만주에 사관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 전쟁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려 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광산과 우편차 등을 습격하여 일제의 재물을 빼앗고 부호들에게서 의연금을 걷었다. 또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평양의 송죽회와 기성볼단, 함남 단천의 자립단 등이 항일 운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비밀 결사 운동이 점차 어려워지자, 이후에는 사립 학교와 서당, 야학 등을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교육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독립 만세 운동을 준비하다

1918년에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듬해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다. 이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전후 처리를 위한 원칙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레닌도 식민지의 민족 해방 운동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민족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이에 상하이의 **신한 청년당**은 1919년 1월에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고자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민족 대표로 파견하였다. 또 국내와 연해주, 만주, 일본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독일 등 패전국이 지배하던 식민지에만 적용된 원칙으로, 미국과 일본 등 전승국의 식민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만주에서는 독립운동가 39명이 대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여 일제에 대한 무장 투쟁을 결의하였다. 미주 지역에서도 대한인 국민회의 이승만이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벌였다.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 청년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2·8 독립 선언**, 1919).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한 김규식(○)

국내에서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지도자와 학생 대표들이 비밀리에 모여 거족적인 민족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종의 국장일을 즈음하여 군중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대규모 시위를 통해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을 계획하였다.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 대표들은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화의 원칙을 정하고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여 전국 각지에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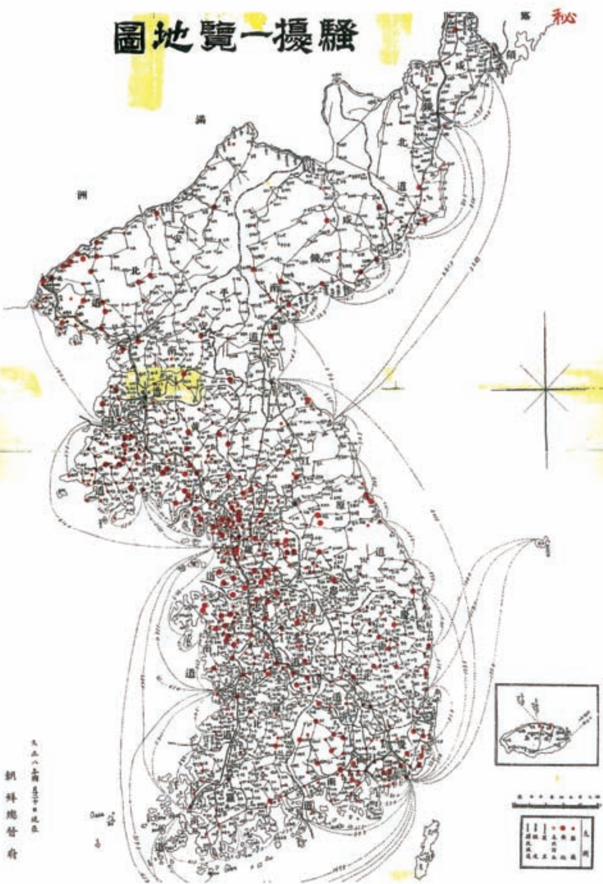
2·8 독립 선언서(조선 청년 독립단의 독립 선언 결의문)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지나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흘릴지니 …… 일본이 만일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야 영원히 혈전(血戰)을 선언하노라.

1. 본 단체는 한·일 병합이 우리 민족의 자유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서 독립을 주장함.
2. 본 단체는 일본 의회와 정부에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함.
3. 본 단체는 만국 평화 회의에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4. 전항의 요구가 실패할 때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함.


2·8 독립 선언을 발표한 유학생들

일본의 유학생들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여겨 1919년 2월 8일 도쿄 조선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독립 선언식을 가지고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3·1 운동의 발생과 총독부의 무력 진압
이 지도는 1919년 4월 20일에 총독부에서 제작한 '소요일람지도'이다. 오른쪽 상단에 붉은색으로 '비(秘)'라고 쓰여 있는 것을 통해 조선 총독부의 극비 자료였음을 알 수 있다. 3·1 운동이 철도를 따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일제는 지도에 만세 운동이 전개된 지역과 총기를 발포하여 무력으로 진압한 지역을 빨간 점으로 표시하였다. 만세 운동이 일어난 전체 지역의 30% 이상에서 총기를 발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다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민족 대표들은 자칫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장소를 바꿔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같은 시각 탑골 공원에서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모여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치며 늦은 밤까지 서울 시가를 행진하였다. 학생들은 서울 곳곳에서 연설을 하거나 신문, 전단, 선언서를 배포하여 군중을 모으는 등 시위를 주도하였다.

평양, 원산, 의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에 시위가 전개되었다. 일제가 시위를 탄압하려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자 유관순을 비롯한 학생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시위대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만세 시위는 교통이 편리한 철도를 끼고 주변 중소 도시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과 종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위를 전개하였고, 교사, 노동자, 상인 등도 가담하였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노동자들은 학생들과 연대 시위를 벌이거나 동맹 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무력으로 맞서다

3월 10일 무렵부터는 지방의 군 단위에서도 시위가 일어났고,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는 전국이 독립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시위는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조직화**되고 격렬해졌다.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역사 더하기+ 독립 만세의 횃불을 올린 유관순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화 학당 고등과 1학년에 다니던 유관순은 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10일 모든 학교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인 충남 병천으로 내려가 동지를 규합하고, 3월 31일 저녁 병천 매봉산에 올라가 횃불을 높이 올렸다. 유관순은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일본 헌병들은 평화 시위를 하는 군중에게 총을 쏘아댔다. 이날 유관순의 부모를 비롯한 19명이 죽고 유관순은 체포되었다.

유관순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 수감 중에도 독립 만세를 부르며 옥중 동료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계속되는 고문으로 1920년 9월 28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유관순(1902~1920)

3·1 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은 시위자들을 엄중하게 처단하겠다고 발표하고, 군대와 헌병 경찰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는 격화되었고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일제는 전국에 군대를 배치하고 무력 진압에 나섰으며, 시위 군중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였다. 전국의 감옥은 만세 시위로 잡혀 온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시위 도중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한편 일제는 경기 화성 제암리에서 주민을 교회에 불러 모아 학살하고 인근 교회와 민가에도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시기	발생 장소	투쟁 형태			합계
		단순 시위	폭력 시위		
			일제와 충돌	일제의 발포	
3. 1. ~ 3. 10.	113	97	15	15	127
3. 11. ~ 3. 20.	120	103	23	8	134
3. 21. ~ 3. 31.	214	164	57	24	245
4. 1. ~ 4. 10.	280	173	75	51	299
4. 11. ~ 4. 20.	39	27	5	7	39
4. 21. ~ 4. 30.	4	3	1	–	4
계	770(곳)	567(건)	176(건)	105(건)	848(건)

- 조선 소요 사건 일별 조표(1919. 3. 1.~1919. 4. 30.)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이상 시위가 전개되기도 함.

3·1 운동 시기별 투쟁 형태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분노한 농민들은 낫이나 몽둥이, 죽창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 관서와 헌병 주재소, 면사무소,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 식민 통치 기관을 공격하였다. 또 일본인 지주와 상인, 고리대금업자를 응징하기도 하였다.

3·1 운동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는 국외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서간도에서 부민단이 중심이 되어 수백 명이 모여 독립 축하회를 열고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북간도에서는 1만여 명의 한인들이 용정에 모여 독립 선언을 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다. 연해주에서도 한인들이 만세 행진을 하는 등 만주와 연해주에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미주 지역 동포들이 모여 3일간 한인 자유 대회를 열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미주 동포들의 시가행진(1919. 4. 16.)

역사 더하기 제암리 학살 사건의 현장

1919년 4월 15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경기 화성 제암리에 일본군 20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마을 주민을 교회에 모은 후 출입문을 잠그고 무차별 사격을 가한 후 불을 질렀다. 이때 주민 20여 명이 학살당했다. 이 같은 일제의 만행은 당시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스코필드가 학살 현장을 사진과 기록으로 담아 미국 언론에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70년 9월에는 일본의 양심적인 한 목사가 '제암리 교회 방화 사건 사죄 위원회'를 조직하고 모금 운동을 벌였다. 그는 성금으로 학살 현장에 제암리 교회를 지었다.


현대식으로 다시 지어진 제암리 교회


불에 타 폐허가 된 제암리 학살 현장

독립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리다

3·1 운동은 신분과 직업, 종교의 구별 없이 도시와 농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이 참여한 **거족적 민족 운동**이었다. 우리 민족은 단합된 독립 의지와 열망을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렸다. 세계 각지의 언론은 한국의 만세 운동을 보도하면서 일제의 탄압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독립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3·1 운동은 일제의 **통치 방식**을 **변화**시켰다. 일제는 더 이상 무단 통치와 같은 강압적 방법으로는 한국을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최소한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3·1 운동은 독립운동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고,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국내에서는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노동자, 농민들의 의식이 고양되어 1920년대에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었다.



간디(1869~1948)
간디는 1919년 봄 '사티아그라하(진실에의 헌신)' 투쟁을 선언하고 영국 정부에 대한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3·1 운동은 제1차 세계 대전 전승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민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대학생들이 군벌 타도와 반일을 주장하는 5·4 운동을 일으켰고, 인도에서는 간디가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베트남, 필리핀 등의 민족 운동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역사 더하기 — 3·1 운동을 보도한 외국의 언론들

일본 군대의 잔학성은 극에 달했다. 총살된 자, 찔려 죽은 자의 총수는 3,730명이며 부상했다가 사망한 자는 4,600명이다. 합계가 8,330명이다. 또 감옥 안에서 죽은 자가 다수일 터이나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다. 또 체포 수감된 자가 2만이 넘는다. – 하얼빈 노워스치즈니(1919. 4. 17.)

조선인들이 입으로만 독립 만세를 외쳐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문명적이고 질서 있는 행동으로서 천부의 자유와 독립을 성취하려는 것인즉, 일본에게 양식이 있다면 마땅히 경애하고 공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 중국 유일일보(1919. 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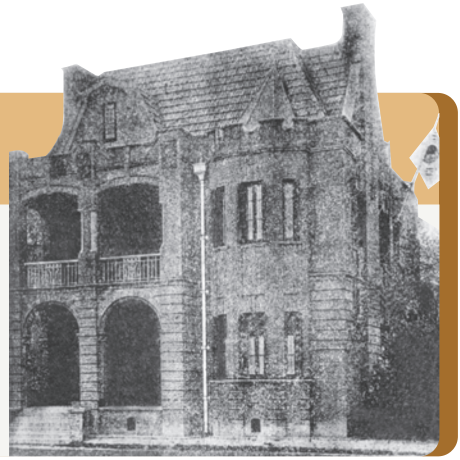
조선의 독립운동은 결코 두세 명의 유식 계급이 벌인 행위가 아니다. 또 과격주의자의 선동도 아니다. 이는 실로 조선 전체의 인민, 모든 종교, 모든 계급에 속하는 남녀 전체의 감정과 의사이다. 다른 나라의 패권 및 군국적 압박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강탈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의 주장이다. – 미국 뉴욕타임스(1919. 5. 21.)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 성공하리라 믿었다. 일본은 한국의 언어를 없애고 옛 전통을 말살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멀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한국인의 고난에 찬 절규를 강화 회의가 묵살해 버릴 것이 확실하다. 알자스-로렌 지방을 해방시킨 우리가 한국인이 영원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됨을 그대로 참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 프랑스 앙탕트(1919. 7. 7.)

2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 상하이와 연해주에 설립된 정부를 모두 해산하고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
- 정부의 위치는 외교 활동에 편리한 상하이에 둘 것
-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할 것

● 위와 같은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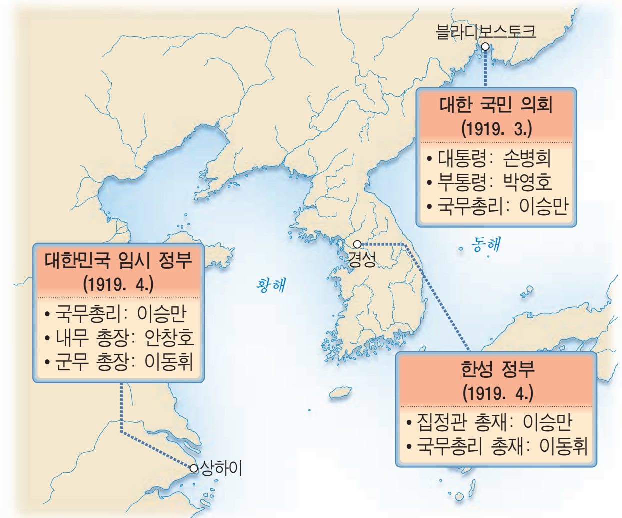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옛 청사

국내외 임시 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다

3·1 운동을 계기로 민족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연해주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서 결성되었던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가 **대한 국민 의회**로 개편되어 3·1 운동 직후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어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한 청년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족 운동가들이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서울에서도 13도 대표들이 모여 국민 대회를 열고 **한성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임시 정부의 수립

여러 곳에서 임시 정부가 구성되자 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대한 국민 의회는 통합된 임시 정부를 한인이 많이 살고 독립 전쟁에 유리한 간도나 연해주에 두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하이의 임시 정부는 일본군이 시베리아로 진격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면서 서양 열강의 조계 지역이 많아 외교 활동을 펴기에 유리한 상하이에 두자고 주장하였다.

여러 차례에 거쳐 논의를 한 결과 통합된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두고 정부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하며,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을 대통령,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제 정부가 성립**하였다(1919. 9.).

여러 지역에 수립되었던 정부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정부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독립 국가 건설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염원이 간절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은 개항 이후 진행되었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기도 하였다.



이륭 양행
아일랜드 인 쇼가 만주 안동(현 단둥)에서 운영하였던 이륭 양행의 2층에 안동 교통국이 입주해 있었다.

연통제를 실시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 기관인 의정원과 행정 기관인 국무원, 사법 기관인 법원을 두었다. 국무원 아래에는 행정을 분담하는 8개의 부를 두었다. 의정원은 출신 지역별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직할 조직으로 상하이, 톈진, 만주, 미주 등지에 민단을 두었다.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 워싱턴에 머물면서 외교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 힘썼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으로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정부와의 연락 책임자로 서울에 총판, 각 도, 군, 면에 각각 독판, 군감, 면감을 두고, 임시 정부 및 국외 독립운동 정보를 국내에 전달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 항일 운동의 지휘를 위한 연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 국내외 곳곳에 통신 기관으로서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외의 정보 수집과 분석, 연락 업무를 맡겼다. 특히 만주 안동 교통국의 활약이 컸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외 동포에게 독립 공채를 발행하고 의연금을 거두었다. 또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였으며,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요구가 정당함을 밝혔다.

탐구 활동 대한민국 임시 헌장(1919)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 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 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舊)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임시 정부와 임시 의정원 신년 축하 기념사진(1921)

1.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추구한 정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2.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외교 활동으로 독립을 이루려 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발행한 외교 선전 책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 활동**으로 독립을 달성하고자 주력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김규식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로 활동하며 국제 연맹과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달하였다.

미국 워싱턴에는 **구미 위원부**를 두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데 힘썼다. 그리하여 영국과 미국 의회에서 한국 독립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한국의 독립을 후원하는 단체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인민 대표 대회에 이동휘, 김규식 등이 참석하여 레닌과 면담을 하고 한국인의 독립운동 지원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직접 군대를 거느리지는 못하였지만 군사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 조직에 군무부를 두고 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만주의 독립군 단체들과 연결을 갖고 있었다. 또 남만주의 독립군을 통합하여 군무부 직할의 육군 주만 참의부로 편성하여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다.

국민 대표 회의를 열다



연통제 관련 재판 장면과 당시 신문 기사(동아일보, 1920. 8. 28.)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어 갔다. 1920년대 초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에 발각되어 모두 와해되면서 국내의 지원이 줄어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외교 활동은 강대국의 외면으로 번번이 좌절되어,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하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 독립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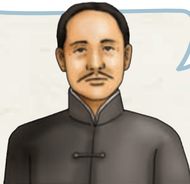
한편 대한민국 임시 정부 내에서 사회주의계와 민족주의계의 갈등이 불거졌다. 또 독립운동 노선을 두고 무장 투쟁을 중시하는 세력이 외교 활동에 대하여 거세게 비판하였다. 1921년 4월에는 신채호, 박용만 등이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국제 연맹에서 위임 통치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들면서 임시 정부와 의정원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내분이 깊어져 심각한 위기에 놓이자, 1923년에 국내외의 독립운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국내, 상하이, 베이징, 간도, 연해주, 미주 등에서 모인 130여 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4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임시 정부를 해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는 창조파와 임시 정부를 개혁하여 존속시키자는 개조파로 나뉘어 대립하다가 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이에 실망한 많은 애국지사들이 임시 정부를 떠나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조직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침체에 빠졌다. 1925년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미 위원부를 폐지한 후 박은식을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박은식은 대통령제를 내각 중심의 국무령제로 바꾸고 사임하였다.

탐구 활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 국민 대표 회의

다음은 민족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진로를 둘러싸고 나눈 대화를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다.



신채호



안창호



김구

위의 주장 중 독립운동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선택하고 그 까닭을 말해 보자.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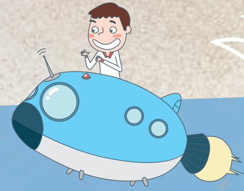
하나. 금일 오인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逸走)하지 말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요구를 쾌히 발표하라.
하나.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정명광대하게 하라.

– 기미 독립 선언서의 공약 3장

1. 이 공약을 보고 3·1 운동이 추구하였던 민족 운동의 방향을 써 보자.

2. 3·1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서술해 보자.

조건
- 3·1 운동의 전개 양상과 일제의 탄압을 밝혀 쓸 것
- 3·1 운동 이후 일제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 등을 포함할 것



3·1 운동의 현장을 찾아서

3·1 운동은 전국 229개 지역에서 1,491회에 걸쳐 200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었다. 3·1 운동의 현장을 찾아 그날의 함성을 되새겨 보고, 우리 고장에 있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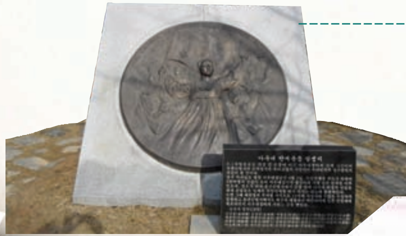




3·1 운동 기념 부조(서울 종로)
탑골 공원은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 만세를 외친 3·1 운동의 진원지이다. 공원 안에는 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장소인 팔각정, 독립운동 부조판, 손병희 동상 등 3·1 운동과 관련된 많은 기념물이 있다.

안성 3·1 운동 기념관(경기 안성)
3월 31일, 읍내에서 3천여 명이 시위를 벌이며 군청과 면사무소를 습격하거나 밤에 등불 행진을 벌였다.

아우내 만세 운동 발생지 기념석(충남 천안)
4월 1일, 병천(아우내) 장터에서 유관순 등의 주도로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일본군이 시위 행렬에 총격을 가하여 19명이 순국하였다.





3·1 운동 기념비(전북 임실)
3월 10일, 오수 공립 학교 학생의 시위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3일까지 매일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3·1 운동 계단(대구 중구)
일명 90계단이라고도 한다. 3월 8일 고등학생과 서문 시장 상인, 주민 등 많은 군중이 시가행진을 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상인으로 위장을 하여 비밀 통로 역할을 하는 90계단을 통해서 서문 시장으로 갔다.

만세 거리 표지석(부산 동래)
3월 13일, 장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동래군청 앞 망미루에 올라가 독립 만세를 외치며 수십 장의 전단을 뿌렸다. 이로부터 부산에서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



04 3·1 운동 이후의 국내 민족 운동

이 단원에서는 >> 1. 3·1 운동 이후 국내에서 전개된 실력 양성 운동과 대중적 사회 운동을 정리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1 실력 양성 운동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 가장 힘 있고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 …… 오늘날 조선인이 세계 민족의 일원으로 남과 어깨를 겨루고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의 발기 취지서(1923)

●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창립총회 기념

내 살림 내 것으로

3·1 운동 이후 일부 지식인들은 우리나라가 당장 독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일제가 내세운 이른바 문화 통치에 기대를 걸며 사회 진화론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 민족 자본의 형성, 사회 악습의 타파와 근대적인 문화의 수용 등을 독립의 선결 과제로 보았다.

3·1 운동 이후 회사령 폐지를 계기로 서울의 경성 방직 주식회사, 평양의 메리야스 공장과 고무신 공장 등 수많은 중소기업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이 세운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일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에서 면직물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폐지하려 하였다.

이에 1920년대 초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안도의 경제·교육계 인사들이 모여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은 서울과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강연회와 각종 선전 활동 등을 펼치며 국산품 애용을 호소하였다. 토산 애용 부인회와 같은 여성 단체들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청년 단체들은 국산품 애용, 근검절약, 생활 개선, 금주·금연 운동을 추진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은 한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도부가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민족 자본은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경성 방직 주식회사의 광고

못하여 상품 가격만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자들은 물산 장려 운동이 자본가의 이익만 위한다고 하며 비판하였다. 결국 물산 장려 운동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세우자

3·1 운동 이후 일제는 제2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여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등하게 교육하겠다고 하였다. 3면 1교 정책에 따라 보통학교가 증설되었고 대학 설립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국인에 대한 교육은 여전히 초등 교육과 실업 교육에 한정되었으며, 고등 교육에 대한 대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 우리 민족의 향학열을 감당하기에는 학교 수가 많이 부족하였다.

이상재 등 민족 지도자들은 조선 교육회를 만들어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發起總會

三月廿九日下午一時부터

中央基督敎青年會館

民立大學期成準備會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 발기 총회 공고(동아일보, 1923. 3. 20.)

1923년에 조선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가 언론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전국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모금 운동을 펼쳤다.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이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모금 운동은 국내는 물론 국외의 동포까지 호응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불온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기성회 임원을 미행하고 강연을 막았으며, 참가자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는 등 방해 공작을 벌였다. 한편으로는 경성 제국 대학 설립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 중반에 가뭄과 홍수가 계속되어 이재민 구호가 시급해져 모금이 지지부진해지자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중단되었다.



평양 조선 물산 장려회의 포스터(1922)

탐구 활동 물산 장려 운동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거의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위태한 일인 줄을 오늘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자매들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의지하여 살고서 볼 일이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 조선 사람, 조선 것

– 조선 물산 장려회 궐기문

1.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해 보자.
2. 물산 장려 운동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까닭을 알아보자.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 지도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립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조선 총독부의 탄압으로 대부분 실패하였다. 이에 개량 서당, 야학, 강습소 개설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1920년대에 많이 설립된 야학은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문맹을 퇴치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였다. 일부 야학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민족 교육의 온상이 되었다.

브나로드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청년 학생들이 학업을 버리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혁명 운동을 한 데서 유래하였다.

1920년대 후반에는 언론사가 문맹 퇴치를 위한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섰다.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표어를 내걸고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농촌 계몽, 문자 보급 운동을 벌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동아일보도 1931년부터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은 숙식을 비롯한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헌신적으로 **농촌 계몽 운동**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마을마다 야학을 열어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위생 생활, 미신 타파, 구습 제거, 근검절약 등 계몽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음악이나 연극 공연 등 문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문자 보급 운동에 쓰였던 교재 "한글 원본"

1931년에 조직된 조선어 학회는 한글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전국 각지에서 조선어 강습회를 열어 **문맹 퇴치 운동**을 지원하였다. 1935년에 발표된 심훈의 소설 '상록수'는 이러한 1930년대 농촌 계몽 운동을 배경으로 쓰인 소설이다. 조선 총독부는 농촌 계몽 운동이 점차 민족 운동의 성격을 드러내자 1935년부터 전면 금지하였다.

역사 더하기 + 농촌 계몽 운동의 전개

1. 문자 보급 운동

오늘날 조선인에게 무엇 하나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 산업과 건강과 도덕이 다 그러하다. 그러나 그중에도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을 들자면 지식 보급을 제외하고는 다시없을 것이다. 지식이 없이는 산업이나 건강이나 도덕이 발달할 수 없다. 문맹 앞에는 항상 끝을 알 수 없는 함정이 가로놓여 있으니, 그들이 가는 속에는 위험과 저주가 따라다닐 뿐이다. …… 전 인구의 2할밖에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취학 연령 아동의 3할밖에 학교를 갈 수 없는 오늘날 조선의 현실에서 간단하고 쉬운 문자의 보급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 조선일보(1934. 6. 10.)

2. 브나로드 운동



브나로드 운동 포스터


第一回 學生夏期브나로드運動
男女學生總動員·休暇는奉仕的으로
一 學生啓蒙隊

브나로드 운동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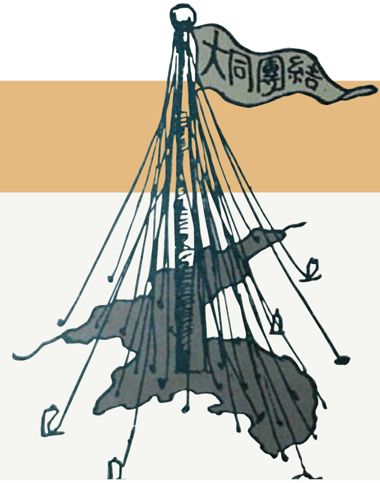
브나로드 운동은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학생 계몽대, 학생 강연대, 학생 기자대의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6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사로 참가하고 10만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2 민족 협동 전선 운동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신간회 강령(1927)

● 밑줄 친 '기회주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



신간회 결성을 축하하는 삽화(동아일보, 1928. 1. 1.)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다

사회주의 사상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직후 연해주 지역과 일본 등에서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교포 및 유학생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국내에서는 3·1 운동 이후 청년과 지식인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1921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서울 청년회가 결성된 이후 1925년에는 비밀리에 **조선 공산당**이 조직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사회주의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을 비롯한 청년 운동, 여성 운동 등 각종 대중 운동에 관여하였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이들은 사상적인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대립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나다

1926년에 대한 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서거하였다. 이에 사회주의 계열 단체와 천도교, 학생 단체 등은 힘을 합쳐 6월 10일 국장일을 기점으로 3·1 운동과 같은 거족적 만세 시위운동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던 일제 경찰에 발각되었다.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1925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회 과학 보급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생 운동 조직이다.

하지만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비롯한 학생 단체들은 예정대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일제 경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서울 시내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모여든 시민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이때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학생들은 **6·10 만세 운동**을 계기로 항일 민족 운동의 구심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후 학생 운동은 대중적 차원의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각급 학교에서는 항일 결사가 조직되어 동맹 휴학 등의 방법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6·10 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민족 협동 전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6·10 만세 운동을 진압하는 일제의 기마경찰

신간회가 결성되다

자치 운동론
이광수와 최린 등은 일제에 맞서기보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확보하여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고 주장하였다.

1920년대 일제가 펼친 이른바 문화 통치의 영향으로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자치 운동론을 들고 나섰다. 이에 이상재와 안재홍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 운동에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하였다. 한편 당시 조선 공산당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과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조선 민흥회를 만들었다. 또한 사회주의 세력의 일부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동 전선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민족 유일당으로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협동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


이상재(1850~1927)

신간회는 회장에 민족주의 계열의 이상재, 부회장에 사회주의 계열의 홍명희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지회를 설치하여 4만 명의 회원을 둔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신간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회와 연설회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또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지원하고 청년 운동, 여성 운동, 형평 운동 등과도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펴는 한편, 진상 보고를 위한 대규모 민중 대회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新幹會創立大會
會衆은無慮千餘
회원에서기어방청객도쇄도
會場은肅然中緊張
投票選定結果
會長은李商在氏

신간회 창립총회 기사

그러나 민중 대회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지도부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면서 내부의 노선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새 집행부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을 내세우자 사회주의 계열은 이에 반발하면서 신간회의 해산을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경제 공황의 영향으로 대중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 의식이 고양되자 계급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결국 신간회는 1931년에 해체되고 말았다.

탐구 활동 정우회 선언

민족주의적 노력의 대두로 인해 전개되는 정치적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의 형세인 이상, 우리는 차갑게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운동 자체가 벌써 종래의 국한되어 있던 경제적 투쟁의 형태에서, 보다 더 계급적·대중적·의식적 정치 형태로 비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전환기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체의 종래 모든 소아병적 자세를 지양하고 승리로의 구체적 전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위하여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 조선일보(1926. 11. 17.)

1. 정우회 선언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주장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다

1920년대 후반 학생 운동은 더욱 조직화되어, 전국의 각급 학교에 독서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비밀 결사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식민지 교육 철폐와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일본인 교원 배척과 학생회 자치 허용 등을 주장하면서 항일 의식을 고양하고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1929년 10월, 전남 광주로 통학하는 열차에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을 계기로 한·일 학생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과 교육 당국이 일본인 학생만 두둔하자 광주 지역의 학생들은 일제의 민족 차별 중지와 식민지 교육 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총궐기하였다. 일제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는 일반 시민까지 가담하면서 나주와 목포, 서울 등으로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광주의 신간회 지부를 중심으로 학생 투쟁 지도 본부를 설치하고 청년 단체, 노동 단체 등과도 연락을 하면서 투쟁을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光州高普, 中學生衝突事件
全南警察總動員
徹夜하며 嚴重警戒
雙方氣勢依然險惡

한·일 학생 사이의 충돌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동아일보, 1929. 11. 6.)
이 사건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학생 582명이 퇴학, 2,330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1,642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일제는 광주에 휴교령을 내리고 가담 학생들을 구속하였으며, 대규모 민중 대회를 개최하려 한 신간회 간부들을 대거 검거하였다. 그러나 학생 운동은 이듬해 1월 개학과 함께 다시 일어나 인천, 진주, 해주 등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험 거부와 백지 동맹, 가두시위와 동맹 휴학 투쟁 등이 전개되었다.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가담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 운동 이후 전개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었다. 시위가 확대되면서 학생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며 일제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학생들은 스스로가 독립운동의 주역임을 확인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격문(1929)

장엄한 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하여 궐기하라! 싸우자! 굳세게 싸우자!

1. 검거된 학생을 즉시 우리의 손으로 탈환하자.
2. 교내에 경찰의 출입을 절대 반대한다.
3.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4.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5. 직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가시키자.
6.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7.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8. 사회 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9.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기념탑 (광주 북구 광주 제일 고등학교 내)

3 대중적 사회 운동

이날은 5월 1일이니 어린이들의 새로운 명절이외다. 이날은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여러 어른이 크나큰 뜻을 가지고 어린이를 위하여 마련하여 놓은 명절이니, 재작년부터 시작하여 전 조선에서 해마다 기념하여 오는 즐거운 날이외다. 아직까지 귀중한 어린이를 위하여 즐거운 놀이를 지어 주지 못하고 반가운 때를 마련하여 놓지 못한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하여서는 둘도 없는 크나큰 명절이외다.

– 어린이날 기념사

● 어린이날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



어린이날 표어(소년 동아일보, 1925. 5. 1. 호외)

잘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일제 강점기에 어린이의 지위는 매우 열악하였다. 가난한 가정의 많은 어린이가 학교에 가는 대신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공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1921년에 방정환을 비롯한 천도교 청년들은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 이라는 최시형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천도교 소년회**를 창립하였다. 방정환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자는 뜻에서 '어린이' 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키우는 것이 독립운동의 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라 여겼다.



방정환(1899~1931)

천도교 소년회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 로 정해 기념행사와 소년 보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여 동요와 동화 등을 실으며 소년 애호 사상을 전파하였다. 이어 방정환은 일본에서 유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연구 단체인 색동회를 창립하였다. 한편 1922년에 조철호는 보이 스카우트의 전신인 조선 소년군을 창설하였다.

조선 청년 총동맹을 결성하다

1920년대 초 전국에 많은 청년 단체가 결성되었다. 청년들은 지덕체의 함양, 풍속 개화, 농촌 개량, 신교육 보급 등을 내세우며 강연회를 열고, 회원들 간에 토론회와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야학을 통해 계몽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자 노력하였다.

1923년 서울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조직한 서울 청년회의 주도로 전 조선 청년당 대회가 열렸다. 이어 1924년에는 전국 청년 단체 600여 개 가운데 250여 개가 참여한 연합 단체로서 **조선 청년 총동맹**이 출범하였다. 이 단체들은 지방에서 노동 운동과 농민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일제의 식민 교육에 맞서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형평 운동 기념탑(경남 진주)

갑오개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축이나 고기 파는 일에 종사하는 백정이 법적으로 천민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은 일제 강점기에도 여전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백정을 호적에 등재하면서 '도한(屠漢)'이라는 붉은 글자를 써넣거나 이름 위에 붉은 점을 찍었다. 또 백정의 자녀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으며, 설령 입학하였다고 해도 신분이 밝혀지면 학부모의 항의로 퇴학당하는 일이 벌어지곤 하였다.

백정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폐지하여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모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고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1923). 조선 형평사는 언론과 사회주의 계열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본부를 서울로 옮기고 회원을 크게 늘려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서울의 중앙 총본부는 형평사 전 조선 대회를 열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백정 자녀의 교육 문제, 각종 사회 운동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전국 회원의 단결을 꾀하였다. 나아가 여러 사회 운동 단체와 협력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소작 쟁의에 참가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1930년대 초 호적에서 백정의 신분 표시가 지워졌으며 백정 자녀의 입학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형평 운동은 급격히 퇴조하였다.

탐구 활동 조선 형평사의 활동



형평사 제6회 전국 대회 포스터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함이 본사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압박을 받아 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토록 통곡하여도 피눈물을 금할 길 없다. …… 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비천하고 굴종하였던 자는 누구였던가? 아아, 그것은 우리 백정이 아니었던가? ……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 우리만이 아닌 것이다. …… 우리도 조선 민족 2천만의 분자로서 <u>갑오년 6월부터 칙령으로써 백정의 칭호가 없어지고</u> 평민이 된 우리들이다. 애정으로써 상호 부조하며 생명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의 존영을 기하려 한다. 이에 40여 만의 단결로써 본사의 목적인 그 주지를 선명하게 표방코자 하는 바이다.

– 조선 형평사 취지문(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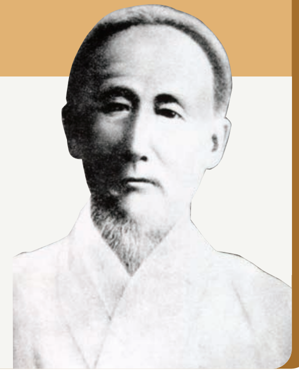
1. '형평'이라는 말을 사용한 까닭을 말해 보자.
2.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사실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4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으나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 박은식, "한국통사"

● 박은식이 정신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박은식(1859~1925)

일제가 한국사를 왜곡하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조선의 멸망과 일제의 주권 강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한국사를 왜곡하고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 하였다. 일제는 한국사의 특징이 정체성, 타율성, 당파성 등에 있다는 **식민 사관**을 만들어 주입하였다. 이는 한국인에게서 주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박탈하여 일제의 지배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 한국인과 일본인은 원래 하나의 조상을 둔 민족이며, 일본이 한국을 이끄는 역할을 해 왔다는 **일선동조론**을 유포하였다.

1910년대에 조선 총독부는 한국인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반도사"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3·1 운동 이후에는 조선사 편찬 위원회를 만들어 더욱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사"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조선사 편찬 위원회
조선 총독부가 한국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만들어 내고자 1922년에 설립한 기구이다.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로 개편되었다.

한국사 연구가 활기를 띠다

일제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여 한국사의 발전적 측면을 강조하고 **민족주의 역사관**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역사 더하기 식민 사관의 정체

타율성론 일제가 주장하는 타율성론이란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같은 대륙 국가도 아니고, 일본과 같은 해양 국가도 아닌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정체성론 정체성론은 한국에서 정치적 변화는 있었지만, 개항 당시 고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오랫동안 경제적 발전이 없었으며, 일제에 병합될 때까지 근대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이다. 일본은 한국을 구제하기 위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청과 러시아를 몰아내고 한국인을 문명 세계로 인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파성론 당파성론은 조선 왕조의 정치는 당쟁으로 얼룩진 역사로, 결국 조선 민족의 파쟁 의식과 분열주의 때문에 조선이 멸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일제는 당파성이 조선인의 민족성으로 고착되어 단결이 불가능한 민족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였다. 그는 "비록 국권을 강탈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혼'이 살아 있다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민족혼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와 "조선상고사"를 저술하여 일제의 식민 사학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고대사 연구를 통해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정신을 강조하였다. 정인보는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관을 계승하여 '민족의 얼'을 강조하였으며, "조선사연구" 등을 저술하였다.

유물 사관에 바탕을 두고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사람들도 나타났다.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일제가 주장한 정체성론을 비판하며, 우리나라가 서양 여러 나라와 비슷하게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실증 사학의 영향을 받은 이병도 등은 1934년에 **진단 학회**를 조직하고 "진단 학보"를 발간하여 한국사 연구에 힘썼다. 이들은 철저한 문헌 고증으로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 하였다.

한편 1930년대 안재홍, 정인보 등은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기념하며 "여유당전서"를 간행하면서 **조선학**을 제창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의 실학에 주목하며 실학자들의 학문적 전통을 정리하고 계승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찾으려는 학문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신채호(1880~1936)



정인보(1893~1950)

탐구 활동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 경제 사학

• 자료 1 신채호의 "조선상고사"(1931)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 조선 역사라 함은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고 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비아'라고 한다.

• 자료 2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차이, 문화 형태의 특징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사적인 역사 법칙에 의하여 다른 민족과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그 발전 과정의 템포나 문화적 특수성은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1. 자료 1을 보고 신채호의 역사관이 지니는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자료 2를 보고 백남운의 주장을 바탕으로 일제의 식민 사관을 비판해 보자.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다

민족의식을 지키고 항일 독립 의지를 고취하려는 노력은 국어 연구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대한 제국 시기 국문 연구소에서 일하던 주시경과 지석영은 우리말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뒤를 이어 주시경의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어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섰다(1921).


잡지 "한글"(1939, 독립 기념관)

조선어 연구회는 1926년에 한글날의 시초가 된 가갸날을 제정하는 한편, 한글을 대중화하고자 잡지 "한글"을 간행하였다. 또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하여 한글 보급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어 연구회는 이후 **조선어 학회**로 개편되었다(1931).

일제 강점기의 국어 연구는 사실상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띠었다. 국어학자와 단체는 국어·국문 연구와 보급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어는 민족 문화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국어 운동의 영향은 널리 미쳤다. 그러나 동시에 일제의 탄압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민족적 대사업의 당면 과제로 삼았다. 조선어 학회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1933), 한글 표준화를 위한 표준어를 정하였으며 외래어 표기법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우리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 원고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발생하여(1942) 잠시 중단되었다.

역사 더하기 — 조선어 학회 사건

일제는 중·일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였다. 1938년에는 제3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여 조선어를 필수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꾸었다. 이후 민족 말살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학교 수업에서 조선어 과목을 아예 없애 버렸다.

1942년, 함흥에서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던 영생 여자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우리말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잡혀간 일이 벌어졌다. 일제 경찰은 검거된 박영희라는 학생의 집을 수색하여 일기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일기에는 정태진이라는 선생님이 일본어를 사용한 학생들을 꾸짖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충사에서 모인 조선어 학회 표준어 사정 위원회(1935)

당시 정태진은 조선어 학회에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맡고 있었다. 일제는 이 사실을 알고 이극로, 정인승 등 조선어 학회 회원들을 체포하는 등 우리말 연구자들을 탄압하였다. 체포된 인사들 가운데 이윤재와 한징은 고문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다.

종교계가 민족 운동에 나서다

3·1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종교계는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식민 통치에 저항하면서 민족 운동을 이어갔다.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며 **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청년회와 소년회를 조직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는 등 청소년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 주었다.



개벽 창간호(한국 잡지 박물관)

대종교는 국권 피탈 이후 총본사를 북간도로 이전하였다. 대종교는 만주에 많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군 숭배 사상을 널리 전파하였다. 또 중광단 등 항일 무장 단체를 결성하였는데, 이는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어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었다.

한편 일제는 사찰령을 제정하여 불교를 통제하고 한국의 불교를 일본식으로 통합하려 하였다. 이에 한용운 등은 일제의 불교 침탈에 대항하여 민족 불교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다. 또 일부 청년 승려들은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여 **사찰 자치 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는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립정신**을 키웠으며, 남녀평등을 내세웠다.

개신교는 수많은 사립 학교를 세우는 등 **교육 운동**과 각종 문화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일부 개신교도는 1930년대 후반 일제가 강요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천주교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는 등 사회사업을 전개하면서 “경향” 등의 잡지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이바지하였다.

탐구 활동 정교(政敎)를 분립하라!

정치와 종교는 서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이요, 서로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는 국가를 본위로 하는 사무적 행위니 인민의 표현 행위를 관리하는 것이요, 종교는 지역과 족별(族別)을 초월하여 인생의 영계(靈界) 즉 정신을 정화 순화, 즉 존성화(存性化)하여 표현 행위의 근본을 함양하며, 안심입명(安心立命)의 대도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를 인위적 제도로써 제한 혹은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는 그 성질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인류의 정신계를 영도하느니, 지역적이고 단명적인 인위적 제도 즉 정치로써 종교를 간섭한다는 것은 향기로운 풀과 악취 나는 풀을 같은 그릇에 담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조화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사람에게 불행한 결과를 줄 뿐일 것이다.

– 한용운, “불교”(1931)


한용운(1879~1944)

● 한용운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한 까닭을 말해 보자.

언론이 민족의 처지를 대변하려 하다

3·1 운동 이후 민족 지도자들은 신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하여 국내외 여러 곳에서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의 지하신문들이 발간되었다. 한편 일제는 3·1 운동 이후 제한적으로나마 한국인에게 한글 신문과 잡지의 발간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창간되었다.

조선일보는 1924년 이상재가 사장에 취임한 이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처음으로 조·석간을 발행하고, 최초로 여기자 최은희를 채용하기도 하였다. 또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동아일보는 20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편집진을 구성한 청년 신문이었다. 훈춘에서 일어난 일본군의 한국 동포 학살 사건을 취재하러 갔던 기자가 일본군에 피살되어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순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언론사들은 한국인을 대변하는 표현 기관임을 내세우며, 물산 장려 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문맹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등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 다양한 문화 행사와 테니스, 수영, 마라톤 등의 각종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였다.



일장기가 지워진 사진과 기사(동아일보, 1936. 8. 25.)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 대회의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자, 동아일보는 시상식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의 유니폼에 그려져 있던 일장기를 삭제하였다. 이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무기 정간 처분을 받았다.

일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된 직후부터 신문 기사를 검열하여 일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거나 신문을 압수하고, 정간·폐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만주 침략 이후에는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신문 논조에서 민족주의적 태도가 퇴색하였고, 월간 잡지 간행과 광고 등 수익 사업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친일적인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36년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 언론의 항일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조선 총독부의 압력으로 1940년에 폐간되었다.



중단원 마무리

다음 민족 운동과 그에 어울리는 구호를 서로 연결해 보자.

(1) 물산 장려 운동 •	• ㉠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2) 민립 대학 설립 운동 •	• ㉡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3) 문자 보급 운동 •	•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4) 민족 협동 전선 운동 •	• ㉣ 모욕적인 칭호를 없애자.
(5) 소년 운동 •	• ㉤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
(6) 형평 운동 •	• ㉥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심화 주제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여성들을 만나다

천재 화가로서 예술가의 혼을 불태웠던 나혜석 (1896~1948)


나혜석

나혜석은 일본 도쿄의 여자 미술 학교로 유학하여 서양화를 공부하였다. 귀국 후 미술 교사로 지내다 3·1 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렀다. 1921년에 첫 유화 개인전을 열었고, 여성 화가로서는 유일하게 제1회 서화 협회 전람회에 유화를 출품하였다. 이후 조선 미술 전람회에 해마다 작품을 출품하여 특선을 거듭하였다. 자유분방한 영혼을 지녔던 그녀는 1927년에 외교관인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 파리에서 약 8개월간 머무르며 미술 공부를 하고, 유럽 각국의 미술관을 순례한 후 귀국하였다. 그러나 이혼과 정신 장애 등을 겪으며 살다 생애를 마쳤다.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 권기옥 (1903~1988)



동료들과 비행을 준비하는 권기옥(1935)

권기옥은 평양 숭의 여학교 3학년 때 송죽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3·1 운동에 참가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보낼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제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고 나와 1920년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항공 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로서 중국 공군에 근무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43년에는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 한국 애국 부인회를 조직하여 사교부장으로 활동하다 광복 후 귀국하였다.

을밀대 위에서 노동 조건 개선을 외친 강주룡 (1901~1931)


을밀대 위의 강주룡

강주룡은 서간도에서 남편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남편이 죽은 뒤 귀국하여 평양의 고무 공장에 취직하였다. 1931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자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였다. 평양 대동강변의 정자인 을밀대 지붕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면서 "국권을 빼앗긴 후 일본인들의 경제적 진출로 임금은 떨어지고 한국인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라고 연설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때 겪은 고초로 몸이 쇠약해져 숨을 거두었다.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기자, 최은희 (1904~1984)


◇행랑어멈으로변장한

부엌속에

어린애들

변장한 최은희와 기사(조선일보, 1924. 10. 13.)

최은희는 일본 여자 대학 유학 중에 이광수의 추천으로 조선일보사에 입사하였다. 가정주부로 변장하여 남성들이 가기 어려운 곳까지 취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은희를 '변장 탐방'이라 부르며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그녀는 6·10 만세 운동을 특종 기사로 보도하여 주목을 받았다. 1927년 근우회 창립에 참여하여 선전부장 등을 지냈고, 1940년에는 여권 실천 운동자 클럽 회장을 맡아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활동 일제 강점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여성들을 조사해 보자.

05 일제 강점기의 국외 민족 운동

이 단원에서는 >> 1. 국외에서 전개된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국내외에서 전개된 의열 투쟁을 정리할 수 있다.

1 국외 독립 투쟁의 전개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옛날 범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1910년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 이은숙, "독립운동가 아내의 수기–서간도 시종기"

● 이회영 집안이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만주로 떠난 까닭은 무엇일까?


이회영(1867~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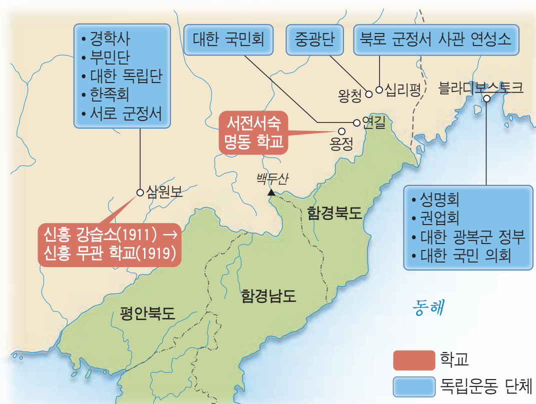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다

국권 피탈 이후 민족 지도자들은 국내에서 항일 운동이 어려워지자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 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신민회 회원들은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이회영 형제와 이상룡 등이 서간도 지역의 삼원보에 터를 잡고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이어 부민단으로 개편하여 자치 기관으로 삼고, 신흥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과 군사 교육을 실시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북간도 지역에서는 서전서숙과 명동 학교 등이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치 단체인 간민회가 설립되었다. 또 중광단과 간도 대한 국민회 등의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북로 군정서 사관 연성소에서는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밀산에는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한인 집단 거주지인 신한촌이 건설되었고, 민족 운동가와 의병 세력이 권업회를 결성하였다. 권업회는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다(1914).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 지역의 한인 단체를 망라한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가 결성되었다가 3·1 운동 직후 대한 국민 의회로 발전하였다. 하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

바롭스크에서는 이동휘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당이 조직되었다(1918). 한편 1937년 소련 당국은 연해주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해혁명 이후 민족 운동가들이 모여 일부는 중국의 혁명 운동에 동참하였고,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여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작성하여 대표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안창호(1878~1938)
3·1 운동 직후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윤봉길의 의거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받고 복역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다

1903년 하와이에 100여 명의 노동 이민이 시작된 이후 미주로의 한국인 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05년에는 멕시코 지역에도 노동 이민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한편 '사진 결혼'으로 한국인 부녀자의 하와이 이민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건너간 한국인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미주 지역에 한인 동포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모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각종 단체를 결성하였다.

안창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 협회를 조직하였다. 이어 여러 단체들이 통합되어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었다(1910). 대한인 국민회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하와이, 멕시코 등에 160여 개의 지방회를 설치하여 동포 사회의 결속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안창호는 재미 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조직하여 민족의 실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였다.

재미 한인 지도자들은 국제 외교에도 관심을 기울여 1917년 뉴욕에서 열린 약소국 동맹 회의에 박용만을 대표로 참가시키고, 파리 강화 회의에 이승만 등을 파견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 군단을 조직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국민회 하와이 지방 총회 임원들(미국 하와이)

역사 더하기+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연해주의 동포

1922년 말 시베리아 지역에서 전개된 소련의 내전에서 혁명군이 승리함에 따라 시베리아 전 지역이 볼셰비키 정권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때 반혁명군을 지원하던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소련 영토 내에서 한인들의 무장 독립운동을 허용하지 말 것을 소련에 요구하였다. 소련이 이를 수용하면서 연해주에서의 항일 민족 운동이 약화되었다.

1937년에는 스탈린의 소수 민족 통제 정책에 따라 소련 당국이 연해주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재산을 잃었다.



연해주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1937)

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다

훈춘 사건
일본이 중국 마적단을 매수하여 만주의 일본인 민가와 영사관을 습격하여 일본인을 살해하게 한 후,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어 만주에 군대를 출병시킨 사건이다.

1910년대 만주에 건설된 독립운동 기지를 기반으로 1920년대에 무장 독립 전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3·1 운동 이후 많은 청년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자 만주 지역에 오면서 50여 개의 크고 작은 독립군 단체가 결성되었다. 독립군은 수시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일본 군대와 경찰,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하였다.

독립군의 잦은 국내 진입 작전에 시달리던 일제는 독립군을 공격하고자 1920년 6월 추격 부대를 편성하여 훈춘 인근의 봉오동으로 진격해 왔다. 그러나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 부대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계곡에서 매복 작전을 펼쳐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참패한 일제는 훈춘 사건을 조작하여 약 2만 명의 일본군을 만주에 파견하였다.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를 비롯한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여 백두산 기슭의 화룡현 청산리 일대로 이동하였다. 1920년 10월, 독립군은 추격해 오는 일본군에 맞서 백운평, 어랑촌 등지에서 6일간 10여 차례의 치열한 접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탐구 활동 독립군이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

자료 1 북로 군정서 총재 서일이 임시 정부에 보고한 내용

1. 생명을 돌보지 않고 떨쳐 일어나 용감히 싸우는, 독립에 대한 군인 정신이 먼저 적의 사기를 압도하였다.
2. 양호한 진지를 먼저 차지하고 완전한 준비를 하여 사격 성능을 극도로 발휘할 수 있었다.
3. 임기응변의 전술과 예민 신속한 활동이 모두 적의 의표*를 찔렀다.

*의표: 생각 밖, 예상 밖

– 독립신문(1921. 2. 25.)



김좌진과 북로 군정서

자료 2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적군의 수는 우리보다 10배나 되었으며, 모두 훈련을 받아 전투에 익숙하고 각종 정예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였다면 어찌 태산이 알을 누르는 형세가 아니겠는가? 아군의 태반이 신참이고 …… 수일 동안 굶주려 피곤함과 배고픔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소지한 것이라고는 겨우 소총과 기관총뿐이었다. 4회에 걸친 격전을 통해 적 천여 명을 섬멸하였으나, …… 세계에 일찍이 없었던 위대한 전공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1.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던 독립군 부대를 알아보자.
2.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여러 요인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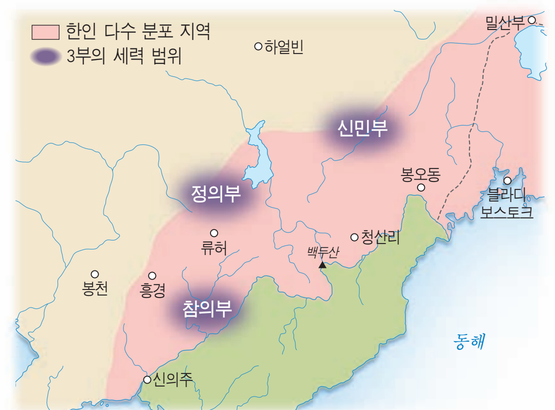
독립군이 시련을 겪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의 한인 마을에 들어가 한국인을 학살하고 민가와 학교, 교회 등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1920년 10월에 시작된 일제의 만행은 이듬해 봄까지 계속되었다(**간도 참변**).

이에 약 4천 명에 이르는 독립군 주력 부대들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밀산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 독립 군단을 조직하고 소련령인 헤이룽 강 연안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군에게 무장 해제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 부대는 러시아 혁명군에 편입되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일부만이 만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3부가 성립하다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항일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독립군 단체를 통합하였다. 그 결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결성되었다. 3부는 동포 사회를 바탕으로 민정 기관과 군정 기관을 갖춘 일종의 자치 정부로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교육 사업을 벌였으며 군사를 양성하였다.



3부의 위치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소속의 군정부로서 남만주 지역의 압록강 연안 일대를 근거지로 하였고, 정의부는 하얼빈 이남의 만주 중앙 지역을 근거로 하였다. 신민부는 자유시 참변 이후 돌아온 독립군 세력을 주축으로 조직되어 북만주 일대를 근거지로 삼아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만주의 독립군을 탄압하고자 만주 군벌 세력과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립군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1925).



미쓰야 협정과 독립군의 시련

1.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2. 만주에 있는 한인 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3.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4. 한국인의 단속 실황을 상호 통보한다.

– 미쓰야 협정의 주요 내용

미쓰야 협정을 기화로 만주 관료들이 독립군 체포에 전력하게 되니, 독립군은 물론이고 일반 농민들까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었다.

수없이 많은 혁명 투사가 만주 관료에게 붙들려서 봉천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진 다음 국내로 압송되어 교수대의 이슬이 된 사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우며, 물욕에 눈이 어두워진 만주 관료들 중에는 때때로 죄 없는 백의민족 농민을 잡아다가 죽이고 독립군을 잡아 왔다고 보상금을 받는 참극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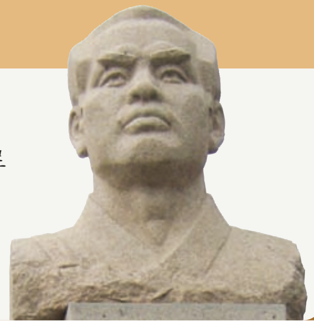
– 이강훈, “무장 독립운동사”

2 항일 연합 전선의 형성

조선 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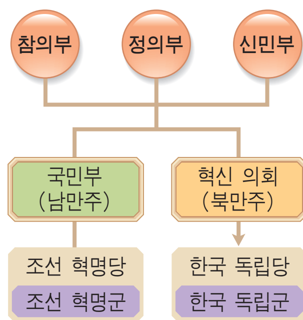
● 독립군과 중국군이 합심하여 일본군과 싸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조선 혁명군 사령관이었던 양세봉의 흉상(중국 랴오닝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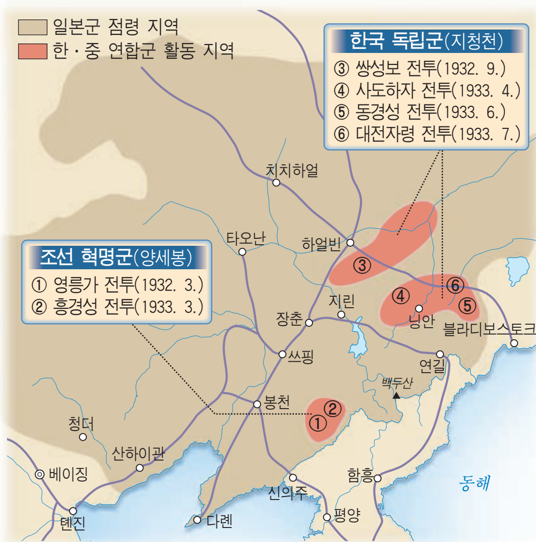
만주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다

1920년대 후반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다. 만주에서도 3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남만주에서는 **국민부**가 수립되고 북만주에서는 **혁신 의회**가 구성되었다.



3부의 통합과 개편

1931년 일제는 만주를 침략하고 이듬해 만주국을 세웠다. 이후 독립군은 중국인 부대와 함께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남만주 지역에서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북만주 지역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1930년대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 투쟁

조선 혁명군은 1934년 양세봉이 살해되고 간부들이 체포, 처형당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한편 한국 독립군은 전리품 배분을 둘러싸고 중국군과 갈등하다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만주에서 항일 유격 투쟁을 전개하다

만주 지역은 소련과 인접하여 일찍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었다. 만주 지역의 가난한 한국 농민들은 일제의 만주 침략 직후부터 반일적인 중국 농민들과 함께 중국인 지주와 군벌을 상대로 소작료 인하, 영구 소작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추수 투쟁과 춘황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은 농민들 사이에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무장 유격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유격대와 함께 1933년에 동북 인민 혁명군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동북 인민 혁명군 내부에 일본 첩자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한국인 유격대원을 숙청하였다.

세력이 위축된 동북 인민 혁명군은 1936년에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었다. 동북 항일 연군의 일부는 함경도 일대의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고 국내로 진입하여 일제 경찰

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9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토벌 작전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소련령으로 이동하였다.

중국 관내에서 한인 부대가 편성되다

일제의 만주 점령으로 무장 투쟁이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독립군은 중국 관내로 이동하였다. 당시 중국 관내에서는 다양한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였으며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들은 항일 통일 전선의 필요성이 커지자, 김원봉의 주도로 의열단,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 등의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혁명당**을 창당하였다(1935).



관내(關內)
관내란 중국인들이 자민족의 영토로 여겼던 만리장성 동쪽 끝 산하이관(山海關) 남쪽을 뜻한다.

그러나 내부 세력 간의 성향과 노선 차이 때문에 지청천 등 민족주의계의 일부 세력이 탈당하였다.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한국 국민당을 조직하였다. 이로써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은 김구, 지청천 중심의 민족주의 계열과 김원봉 중심의 사회주의 계열의 양대 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조선 의용대**를 편성하였다(1938). 조선 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로,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일 심리전과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조선 의용대의 일부는 소극적인 항일 투쟁과 중국 국민당의 과도한 통제에 반발하여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인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를 편성하고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 등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조선 의용대의 이동

역사 더하기 + 추수 투쟁과 춘황 투쟁

1931년 9월, 간도 지역의 농민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소작료를 줄이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추수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은 중국인이나 친일적인 지주들의 식량 창고를 강제로 열어 가난한 농민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추수 투쟁에 참가한 한국인 농민은 약 1만 5천여 명에 달하였으며, 투쟁은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한편 1932년 2월에는 농민들이 춘황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친일 앞잡이를 타도하자!", "지주에게서 식량을 꾸어 기근을 넘기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식량 획득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간도 지역의 대지주들도 어쩔 수 없이 식량 창고를 열어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춘황 투쟁에는 약 3개월 동안 2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3 의열 투쟁의 전개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한 김상옥의 혼령은 지금 어디 가서 있을꼬. …… 쇠망치를 들어서 번 돈과 단련한 팔뚝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수만 원의 돈을 그 일에 바치고 나중에는 효제동 한 모퉁이에서 빗발 같은 탄환을 받으며 비장한 최후를 이루었다. 아, 가슴에 품은 그 뜻은 어디 두고 이제 공동묘지 한 모퉁이에 누웠느뇨.

– 동아일보(1924. 4. 8.)

● 김상옥은 어떤 일을 하다가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일까?


被殺者는 金相玉

金相玉의 指揮에 依하야

김상옥(1890~1923)의 죽음을 전하는 기사

의열단, 폭력은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3·1 운동 이후 국외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싸울 강력한 조직을 모색하였다. 1919년에 김원봉은 만주 지린에서 일제 식민 기관의 폭파, 침략 원흉 응징 등을 목표로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의열단은 상하이와 베이징, 난징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주로 상하이와 국내를 중심으로 1920년대에 활발한 투쟁을 벌였다. 신채호는 김원봉의 요청으로 **'조선 혁명 선언'**을 지어 의열단의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의열단 단원인 김상옥, 나석주 등은 경찰서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 일제의 식민 기관에, 김지섭은 도쿄의 궁성에 폭탄을 던졌다.

1920년대 중반 의열단은 암살과 파괴 등 개별적인 의거 활동만으로는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활동 방향을 전환하려 하였다. 이에 중국이 지휘관을 양성하고자 설립하였던 황푸 군관 학교에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이 입교하여 군사 교육과 간부 훈련을 받았다. 또 1930년대 초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아래 난징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운영하였다.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애국지사들의 의거 활동도 여러 차례 전개되었다. 64세의 강우규는 1919년 서울역에서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고, 박열은 1923년 일본에서 국왕을 암살하려고 기도하였다. 또 조명하는 1928년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을 칼로 찌르는 의거를 일으켰다.

의열단의 활동



한인 애국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국민 대표 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더욱 침체되었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계속되었고, 자금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중국 관내의 항일 운동 세력은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국무령이었던 김구는 적극적인 의열 투쟁으로써 임시 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1931). 1932년에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탄 것으로 보이는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비록 거사는 실패하였지만 이 일을 두고 상하이의 신문들은 실패를 아쉬워하는 논조로 보도하였다.

한편 일제는 만주에 쏠린 세계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상하이를 침략하였다(상하이 사변, 1932). 일제는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 국왕의 생일 및 상하이 점령 축하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은 기념식 단상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하였다. 윤봉길의 의거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특히 중국인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하였으며, 뤄양 군관 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고 간부를 양성할 수 있게 하여 이후 한국광복군 창설에 큰 도움을 주었다.



윤봉길(1908~1932)



이봉창(1900~1932)
이 사진은 훗날 실제 사진을 근거로 편집된 것이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강도 일본을 내쫓으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 우리의 민중을 깨우쳐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 10만이 폭탄을 한 번 던진 것만 못하며, 천억 장의 신문·잡지가 한 번의 폭동만 못할지니라. ……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 – 신채호, '조선 혁명 선언'(1923)

1. 이 주장에 따라 활동하였던 단체와 그 단체가 행한 구체적인 활동의 사례를 써 보자.

2. 이 주장에 따른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서술해 보자.

조건 1920년대 중반 이후 활동의 변화 양상이 드러나도록 쓸 것

06 일제 강점기의 사회 변화

이 단원에서는 >>
1. 농민 운동과 노동 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항일 의식을 드러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일제 강점기 사회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정리할 수 있다.

1 다양한 사회 운동의 전개

지주에 대한 소작인의 불평이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지주들은 너야 굶어 죽든 말든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셈으로 한 번 매겨 놓은 소작료는 수확이 좋든 나쁘든 절대로 깎아 주지 않는다.

– 동아일보(1925. 2. 22.)

● 한국인은 억압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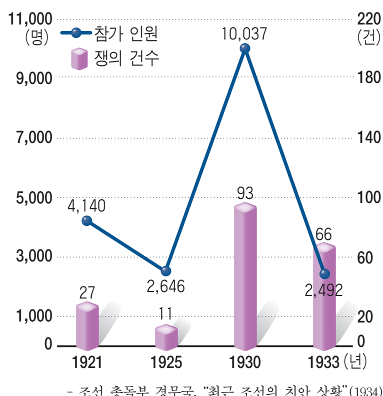


소작 문제 만평(동아일보, 1924)

높은 소작료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을 받다

일제가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처지는 열악해졌다. 지주들이 소작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소작료를 매기는 바람에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던 것이다. 19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면서 농민들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일제가 쌀 증산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비료 대금과 수리 조합비를 거두어들이자, 지주들은 많은 금액을 소작인들에게 전가하였다.

늘어나는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빼앗기기도 하였다.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하였다.



- 조선 총독부 경무국, "최근 조선의 치안 상황"(1934)

소작 쟁의의 전개

농민, 소작 쟁의를 일으키다

농민들은 열악해진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고자 소작인 조합, 농민 조합을 만들어 농민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에는 지주들이 마음대로 소작권을 박탈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소작인 조합은 소작권 이전 반대를 요구하였다. 또 날로 늘어나는 소작료를 인하해 달라면서 **소작 쟁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920년대 농민 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더욱 발전하였다. 소작인 조합은 자작농까지 참여하는 농민 조합으로 개편되었고, 소작 쟁의 건수도 늘어났다.

전남 신안 암태도에서는 고율의 소작료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소작 쟁의를 일으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암태도 소작 쟁의, 1923). 평북 용천에 있던 일본 토지 회사인 불이흥업의 농장에서도 무려 2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소작 쟁의가 일어났다.



암태도 소작 쟁의 기념탑(전남 신안)
암태도의 소작인들은 수확량의 70~80%에 이르는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며 소작 쟁의를 일으켰다.

농민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여러 농민 단체가 결성되어 농민 운동이 한층 조직화되었다. 1920년에 노동자 권익 옹호를 목표로 조선 노동 공제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단체에는 농민 운동을 지원하는 농민부와 소작인부가 설립되어 있었다. 농민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자 전국적인 농민 운동 단체인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어 보다 조직적으로 농민 운동을 이끌었다(1927).

193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주의 계열은 항일 투쟁의 일환으로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혁명적 농민 조합은 일제 경찰서와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저항 운동을 펼쳤다. 함남 영흥에서는 일제의 야학 폐쇄에 저항하여 농민 조합원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각종 선전물을 유포하여 항일 의지를 드높였다.

탐구 활동 일제 강점기 농민들의 처지

자료 1 세계 최고율의 소작료

소작료는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곳은 수확량의 8할 내지 9할까지 받기도 한다. …… 보통은 5할이 평균이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어느 지방에서는 소작인들에게 수확량의 8할을 내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충청북도 어느 지방도 지주가 소작인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소작료를 올려서 요즈음에는 6할 내지 7할에 이르게 되었다. 경상남도의 어느 지역에서는 소작료로 수확량의 8할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1927. 7. 4.)

(단위: 엔)

	지주	자작	자작 겸 소작	소작
수입	1,534	646	476	403
지출	989	559	451	414
차액	545	87	25	−11

- "동광"(1931)

한국 농가 1호당 수지 평균표(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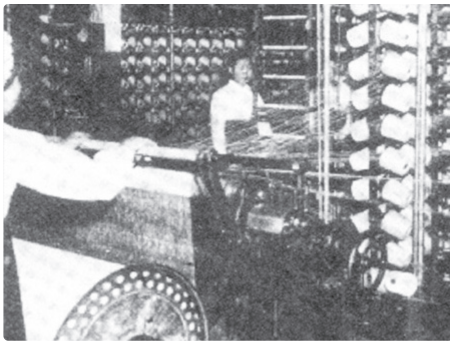
자료 2 농촌의 사회 문제

작년 어느 수리 조합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300평의 논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자작농은 쌀 판매 대금으로 19원 39전을 벌었지만 비료 대금과 수리 조합비로 21원 80전을 지출했다고 한다.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2원 41전이 부족하다. 이 조사 자료는 그나마 쌀값이 비쌀 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통계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농촌의 실정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평양 인근 지역의 경우 1원 92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농촌의 건실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작농조차 이와 같이 부채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참담한 경제적 지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울부짖고 있으며 마침내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광경을 보이고 있다. …… 날로 늘어나는 것은 고향을 등진 농민들이고 소작 쟁의는 매년 증가하여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 "동광"(1931.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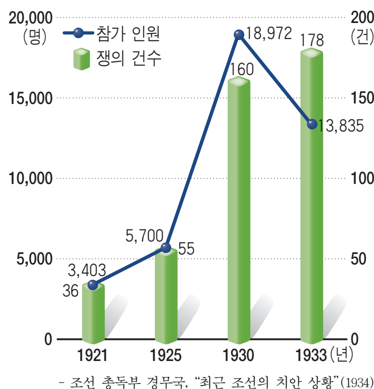
두 자료를 읽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가난해진 이유를 설명해 보자.

노동자, 노동 운동을 전개하다


경성 방직 주식회사 공장에서 조업 중인 노동자들

1920년에 일제가 회사령을 철폐함으로써 일본인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후 여러 곳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당시 회사 중에는 경성 방직 주식회사와 같이 한국인이 세운 것도 있었지만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훨씬 많았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한국인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노동 시간도 매우 길었다. 일본인 공장 관리인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민족 차별을 일삼았다.



- 조선 총독부 경무국, "최근 조선의 치안 상황"(1934)

노동 쟁의의 전개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임금 인하**에 **반대**하고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부산 부두 노동자 5천여 명은 임금 인하에 반발하여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으며, 평양 양말 공장 직공들도 노동 쟁의를 일으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원산에서는 일본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이 일어났다(원산 총파업, 1929).

노동 쟁의가 확산되면서 조선 노농 총동맹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단체가 만들어졌다(1924). 이 단체는 이후 농민·노동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조선 농민 총동맹과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분리되었다(1927).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

역사 더하기 — 원산 총파업

1928년 9월, 원산에서 조금 떨어진 문평의 제유 공장에서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려 중상을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회사 측에 항의하는 한편,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회사 측이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은 이듬해 1월에 최저 임금제 확립, 8시간 노동 실시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노동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과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이에 공감한 원산 지역 노동자 단체들은 파업 동참을 결정하고 나섰다. 파업은 순식간에 원산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가 산업, 운수, 교통 기관이 모두 정지되었다. 노동자들은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식량을 모으고 조직을 정비하였다.


원산 시내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조선일보, 1929. 2. 1.)

이처럼 한국인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일본군 제19사단 소속 부대와 일본인으로 구성된 재향 군인회가 원산 시내를 장악하고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당시 신문들은 이 검거 작전으로 '원산 지역이 마치 전시 상태와 비슷했다.'고 보도하였다.

여성 운동이 일어나다

1920년대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지식인을 중심으로 문맹 타파, 여성 인권 의식의 고양 등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초기의 여성 운동가들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인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에 뜻을 같이하여 여성 문맹 타파와 계몽 활동에 주력하였다.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 연합회는 야학, 문맹 퇴치, 금주·금연 운동 등을 펼쳤다.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됨에 따라 여성 노동자들의 계급 운동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조선 여성 동우회 등 사회주의 계열 단체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대상으로 야학과 여러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여성 동우회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던 여성 운동가들이 1924년 5월에 조직한 단체이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 전개되던 여성 운동은 민족 협동 전선을 표방한 **근우회**가 등장하면서 하나로 뭉쳐졌다. 근우회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차별 철폐, 조혼과 인신매매 폐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 등을 활동 목표로 내세웠다. 또 국내 각 지방과 일본 도쿄, 간도 등에 지회를 두고 여성 교양 강좌와 야학, 토론회를 열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문맹 퇴치 및 계몽 활동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신간회가 해체되자 근우회의 활동도 점차 활력을 잃었고, 결국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이탈함으로써 해체되었다.


근우회 창립총회(1927)

역사 더하기 신·구여성 좌담회 풍경

일제 강점기에는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여성이 많이 등장하였다. 세간에서 신여성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자, 언론에서도 신여성을 주제로 하는 기사를 많이 내놓았다. 다음 기사는 가사에만 종사하는 '구여성'과 사회생활에 몰두하는 '신여성'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좌담회 형식으로 꾸며 본 것이다. 신여성은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자아실현을 위하여 당당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여성: 요새 신여성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점점 남성적으로 변해 가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무리 현대적이라 할지라도 원래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여성: 여자처럼 몸가짐을 가진다고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여성들은 수천 년 동안 공자의 도를 천명으로 여겨서 스스로 남자의 부속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구여성: 신여성들은 제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너무 아는 체하고, 남편의 수입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만 하여 남편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신여성: 우리 신여성도 구여성처럼 살림을 잘합니다. 위생 관념도 철저합니다. 오히려 구여성들이 감옥 같은 집에서 지내다 보니 성격이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문학 작품이 발표되다

문학계에서도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1910년대에는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해 전 민족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계몽주의적** 작품이 다수 발표되었다. 최남선은 “소년”, “청춘”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근대 시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광수는 매일신보에 소설 ‘무정’을 연재하여 근대 소설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무정’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구어체 문장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일제의 검열로 삭제된 심훈의 시, ‘통곡 속에서’

3·1 운동 이후에는 기존의 계몽주의적 문학과 다른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일부 문인들은 “창조”,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를 발간하여 **순수 문학**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에 한용운의 ‘님의 침묵’, 심훈의 ‘그날이 오면’과 같이 **항일 의지**를 담은 작품도 발표되었다.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비판하고 독립의 염원을 드러냈다. 한편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식민지의 계층적 모순**을 **비판**하는 신경향파 문학과 프로 문학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작가들은 무산 계층의 경제적·민족적 저항을 주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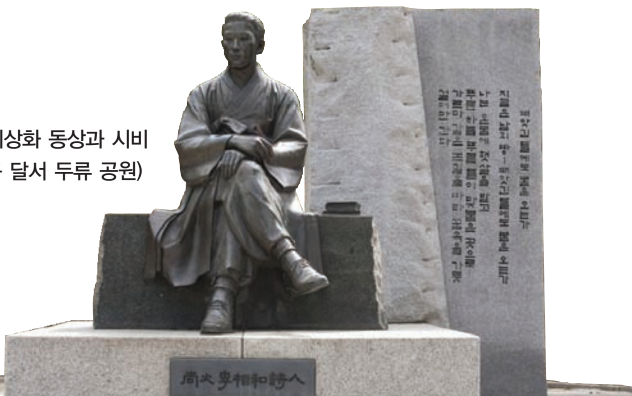
1930년대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창작 활동이 위축되었다. 일제가 항일 의지를 담은 문학 작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함에 따라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작품들이 주로 창작될 수밖에 없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일제에 협력하는 문인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육사, 윤동주 등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민족적 양심을 지키다가 수난을 당한 작가들도 있었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영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접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1926년 잡지 “개벽”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시에는 반일 민족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겨 얼어붙어 있을망정, 봄이 되면 민족혼이 담긴 국토가 우리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준다는 내용이다.



이상화 동상과 시비 (대구 달서 두류 공원)

민족의 정서를 담은 예술이 나타나다

음악계에서는 홍난파가 '봉선화', '고향의 봄' 등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국외에서 활동하던 안익태는 애국가, '코리아 환상곡'을 작곡하였다.

미술 분야에서는 안중식, 고희동, 나혜석, 이중섭 등이 활동하였다. 안중식은 조선 후기 장승업의 화풍을 계승하여 우리나라 전통 회화를 발전시켰다. 고희동은 서양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여류 화가인 나혜석은 유화를 들여와 독특한 작품 세계를 창조하였다. 이중섭은 소, 어린이 등을 소재로 삼아 민족의 힘을 표현하였다.


이중섭의 '황소'

연극 분야에서는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토월회를 중심으로 신극 운동이 일어났다. 토월회는 남녀평등, 봉건적 인습 비판 등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순회공연을 열었다. 1930년대에는 극예술 연구회가 등장하여 현실 비판적인 연극을 내놓았다.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띤 연극 활동을 금지하고, 연극인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후 연극을 자신들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였으며, 연극인들을 황국 신민화 정책에 동원하였다.

영화는 나운규에 의하여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나운규는 독립운동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한 인물로,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아리랑'은 일제에 억압받고 있는 민족의 고통을 그린 작품이다. 1930년대까지 민족적 색채를 유지하던 영화 예술은 1940년대에 이르러 조선 영화령이 공포되면서 탄압을 받았다.

역사 더하기+

영화 '아리랑'

1926년 10월 단성사에서 처음 개봉된 영화 '아리랑'은 일제로부터 탄압받던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이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3·1 운동의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앓고 있던 영진에게는 영희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영진의 친구 윤현구는 영진의 집에 머물다가 영희를 사랑하게 된다. 어느 날 일제 경찰의 앞잡이인 오기호가 영희를 겁탈하려 하였다. 이를 본 현구는 기호와 격투를 벌였고, 이에 휘말린 영진은 기호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제정신을 되찾은 영진은 경찰에 잡혀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 몸이 삼천리 강산에 태어났기에 미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는 저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갱생의 길을 가는 것이오니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 장면은 일제의 억압에 고통받는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명장면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영화 '아리랑'의 출연진과 제작진

2 의식주 생활의 변화

조선인의 생활 내용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내용에 비하여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인 생활이 국제화됨에 따라 각 국민의 생활도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

– '조선인 생활 문제 연구'("개벽", 1922)

●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서양식 복장을 한 나혜석과 남편 김우영

서양식 복장이 유행하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 대다수의 한국인은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생활하였다. 양복을 입는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층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서양식 복장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바지와 셔츠를 즐겨 입었고, 농촌에서는 하얀 한복에 염색을 하여 입기도 하였다. 당시 지식인들 중에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며 계몽 활동을 전개한 사람도 있었다. 1930년대에는 전국 각지에 색복 장려회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흰옷에 염색을 하자는 강연회를 열었으며, 장시를 중심으로 염색법을 가르치는 모임을 개최하였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일본이나 서양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이 한국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다. 신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서양식 옷차림을 차려 입고 머리를 짧게 잘라 멋을 냈다. 여성들은 트레머리를 하였으며 다홍치마를 평상복처럼 즐겨 입었다. 외국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새를 확인하고 이를 흉내 내는 사람도 있었다.



화신 백화점(현 서울 종로)

화신 백화점은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다. 백화점 옥상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광판이 설치되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도시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카페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시설들이 들어섰다. 서구식 상점들은 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제의 억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접하기도 쉽지 않았다.



일바지를 입은 여성들

일제는 1942년부터 일바지, 일명 '몸뻬'를 입도록 강요하였다. 일바지를 입지 않은 여성은 관공서, 극장 출입이 금지되었다.

일제는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 침략 전쟁에 뜻을 같이해야 한다면서 군복과 비슷한 모양의 국민복을 입도록 강요하였다. 일제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들까지 근로 보국대, 정신대 등으로 동원하여 노역을 부과하였는데, 이때 일바지를 입도록 강요하였다.

주거 문화가 변하고 새로운 음식이 전해지다

일제 강점기에 주거 문화가 크게 변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이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라면서 이른바 '문화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지식인 가운데 이러한 의견에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벽돌을 사용하여 집을 짓고 현관과 화장실을 갖춘 개량 한옥이 보급되었다. 일본인과 일부 한국인 부유층 사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집을 만들어 비싼 값에 파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반면 농촌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변두리 지역에 허름한 토막집을 짓고 살았다.

한편 일본인들이 애용하던 청량음료와 식용유 등 새로운 음식이 전해졌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조미료가 소개되었으며, 통조림을 구입하여 먹는 가정도 많아졌다.

일제는 본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고, 중·일 전쟁 이후 막대한 양의 쌀을 공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쌀 대신 잡곡을 먹는 사람이 늘었다. 일제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에 식량 배급 제도를 도입하여 쌀 소비를 통제하였다.



서울 삼판통의 문화 주택촌(현 서울 용산 후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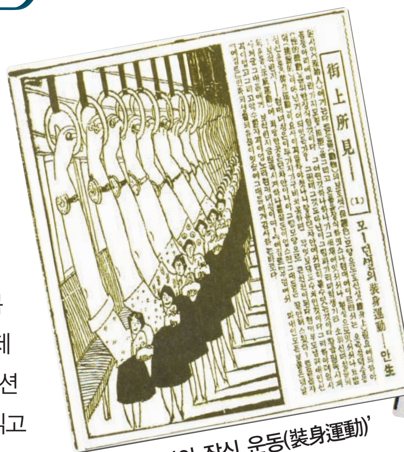


조미료를 소개하는 광고(조선일보, 1936. 3. 12.)

역사 더하기 — 모던 껄, 모던 뽀이

일제 강점기 전문학교 재학생 이상의 청년층 사이에서는 양복을 차려입거나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모던 껄' 혹은 '모던 뽀이'라고 불렀다.

'모던 껄'들은 구두와 양산, 손가방, 손목시계로 치장하고 다녔는데, 치마가 예전에 비해 짧아 발목이 드러났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을 받곤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모던 껄'들은 그해의 유행 패션과 유명 영화배우의 옷차림새를 소개하는 잡지를 읽고 그를 따라 하였다. 한편 사람들은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은 남자를 모던 뽀이'라고 불렀다.



'모던 껄의 장신 운동(裝身運動)'(신문춘추, 1927. 6월호)



'모던 뽀이의 산보'(조선일보, 1928. 2. 7.)

'모던 껄'과 '모던 뽀이'는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던 남촌의 화려한 상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백화점이나 요리집, 공연장을 드나들었다. 백화점과 일본인 거주 지역의 상점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판촉 행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경성의 거리


화려한 일본인 거리, 혼마치(현 충무로)


조선은행


미쓰코시 백화점의 옥상 카페


벚꽃 놀이 장소로 이용되었던 창경원 (현 창경궁)




가난한 한국인들이 살았던 변두리의 토막집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근래 ㉠ 동맹 파업이 끊일 새 없다. …… 물론 임금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다. 고용주도 사람이고 직공도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와 같은 학대와 저임금을 받고 불평이 생기지 않겠는가! 고용주들아! 파업이 계속되는 것은 그대들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손실이 아닌가!

– "개벽"(1925. 4.)

(나) 농촌의 쇠퇴는 극에 달하여 농민의 생활은 비참하다. …… 조선의 농촌이 이와 같은 참상에 이른 것은 ㉡ 소작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이유가 있다. 우리 농민의 생활을 빈궁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면 더 성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무엇보다도 소작 제도의 개선을 절규하는 바이다. 소작인들의 요구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작권을 보장하라! 지주가 자유자재로 경작지를 몰수함에 따라 소작인들은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2. 소작료를 인하하라! 소작인이 죽도록 경작에 노력하여 생산이 증가해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 "개벽"(1922. 11.)

1. ㉠에 해당하는 사례를 써 보자.

2. ㉡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술해 보자.

3. 일제 강점기 문학, 예술, 체육 분야에서 민족적 저항 의지를 잘 드러낸 작품이나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자.

일상 다반사

일제 강점기의 스포츠 활동



일제는 한국인의 저항 의식을 없애고자 체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체육 교육의 목표를 '규율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두었으며, 군인을 체육 교사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1920년에 체육인들은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 체육회를 만들었다. 이후 여러 체육인이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1936년에는 베를린 올림픽 경기 대회에 출전한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한국인의 체육 활동이 큰 성과를 이루자 일제는 조선 체육 협회를 조직하여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경평 축구 대회와 같은 체육 활동이 활발히 이어졌다.

야구 스타, 이영민

때는 1928년 6월 8일, 제2회 연희 전문–경성 의학 전문의 정기 교류전이 경성 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연희 전문 소속의 이영민은 1회 말 3번 타자로 나서 야구장 개장 이래 최초로 홈런을 쳤다. 이후 식산 은행 야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이영민은 일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던 투수 미야다케의 공을 때려 장외 홈런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영민은 일본에서 열리는 야구 대회에도 자주 출장하였다. 1933년에는 일본에서 열린 도시 대항 야구 대회에서 서울 대표로 나서 팀을 결승전까지 이끄는 기염을 토했다. 1934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가 베이브 루스, 지미 팍스 등 미국의 쟁쟁한 프로 야구 선수들을 초청하여 친선 경기를 할 때, 이영민은 올스타에 뽑혀 유명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었다.



베이브 루스와 이영민 (1905~1954)

일제 강점기 최고의 맞수 경기, 경평 축구 대회

조선일보사 주최로 1929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경평 축구 대회는 서울과 평양의 축구팀이 모여 실력을 겨루면서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의 의기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사였다. 서울 축구팀은 연희 전문학교와 보성 전문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평양팀은 숭실 학교 축구팀이 주축을 이루었다.

경평 축구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승부욕이 지나쳐 경기 중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았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은 2회 만에 대회를 중단하였다가 1933년에 행사를 재개하였다. 서울, 평양 축구팀의 교류전은 1942년에 일제가 모든 구기 종목 대회를 금지함으로써 중단되었다.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서울과 평양의 축구팀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1933)

07 광복을 준비하는 움직임

이 단원에서는 >> 1.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는 국내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광복을 위해 펼친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건국 준비 활동

우리 임시 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역량을 총집결하고 광복군으로 하여금 민족의 독립성을 수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전후 한국 독립과 임시 정부의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일치 노력할 것이다. – 한국 독립당 전당 대표 대회 선언문(1943. 6.)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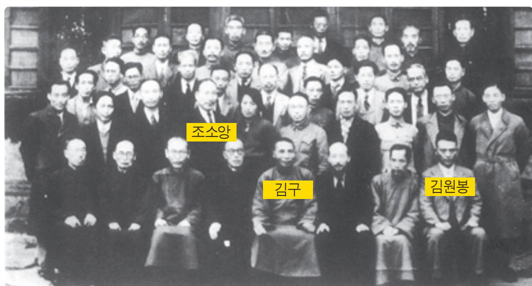


광복군이 독립을 염원하는 글을 써 넣은 태극기(독립 기념관)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재정비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의정원 의원들(1942)

윤봉길의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를 피해 여러 곳을 이동해 다녀야 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창사, 광저우 등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의 역량을 결집해 나갔다.

1940년에 충칭으로 이동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였다. 이때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에 가담하고 있던 한국 국민당, 한국 독립당, 조선 혁명당은 각각 그 조직을 해산한 후 다시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였다. 한국 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통해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한국 독립당은 1941년 11월에 일제가 패망할 것에 대비하여 건국의 방향을 제시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 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여 보통 선거에 의한 공화정 수립, 의무 교육제 실시, 주요 생산 시설의 국유화 등을 내세웠다.

이듬해 김원봉의 조선 민족 혁명당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한국 독립당과 조선 민족 혁명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한국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0년 9월에 지청천을 사령관으로 하여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 항'을 체결하고 군사 원조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광복군은 1944년 8월까지 중국 군사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한편 1942년에 조선 민족 혁명당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합류하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 병력도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다.



한국광복군 제5지대 성립 기념식(1941, 백범 기념 사업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정식으로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영국군과 함께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포로 신문, 정보 수집, 선전 활동에 참여하였다.

한국광복군의 일부 병력은 미국 전략 정보국(OSS)의 특수 훈련을 받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들을 국내에 들여보내 우리의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내 진공 작전은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무산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무렵 미국에서는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구미 위원부를 이끌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자 미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선전 포고문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영국, 미국, 소련, 캐나다 등이 일본을 패배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를 재건하기 위해 대일 선전 포고를 한 점을 축하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을 상대로 선전한다.
2. 1910년 병합 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한다.

(하략)



대한민국 건국 강령

보통 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등히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등히 하고, 공비(公費) 교육으로써 학권을 균등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등을 고칠 것이니 …… 대산업 기관의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공중의 운수 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과 성시, 공업 구역의 공공적인 주요 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한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 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용한 것으로, 광복 후 정치·경제·교육 각 분야에서 국민이 균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

조선 독립 동맹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운동을 하던 한국인들이 모여 화북 조선 청년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조선 독립 동맹으로 바꾸었다.

조선 독립 동맹이 활동하다

중국 화북 지방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 독립 동맹**이 결성되었다(1942). 조선 독립 동맹은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정권의 수립, 일본인 자산 몰수, 의무 교육제 실시 등을 강령으로 내걸고 항일 운동을 펼쳤다. 또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를 흡수하여 **조선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조선 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부대원의 일부는 일본군 점령지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전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무정 등 조선 의용군 간부들은 국내로 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국내에서도 광복을 준비하다

국내에서는 박헌영을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이 경성 콤그룹 등의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였으며, 상당수의 사회주의자들은 일제 경찰에 검거되어 고초를 겪었다. 일부 사회주의 세력은 책자, 유인물 등을 발간하여 창씨개명을 반대하고 전쟁의 실태를 꾸준히 알리고자 하였다.

한편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 있던 여운형은 건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1944년 8월에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다. 조선 건국 동맹은 징병으로 끌려가는 청년들을 탈출시키는 동시에,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면서 광복을 준비하였다.

역사 더하기 ✚ 조선 건국 동맹의 활동

조선 건국 동맹 강령

1.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2. 반추축 제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3.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 시위(施爲)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서울에서 열린 조선 건국 동맹 회합

여운형은 1942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미국 공군기가 공습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일본이 곧 패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였다. 국내로 돌아온 여운형은 조선 민족 해방 연맹을 결성하였고, 이듬해 이 조직을 확대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하였다.

조선 건국 동맹은 징병·징용 거부자와 학생들을 모아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 또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숨겨 주거나 공출 반대 활동을 펼쳤다.

역 사 산 책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발자취



1919. 4.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중국 상하이)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무렵 서울에서는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 국민 의회가 수립되었다. 임시 정부 조직들은 통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9월에 한성 정부를 계승하는 형식으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1919. 9.

1920. 1.



구미 위원부 간부들
미국 워싱턴에서 3·1 운동 1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임시 정부의 구미 위원부 간부들이 기념 촬영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9월 미국 워싱턴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구미 위원부는 미국, 유럽 각국을 대상으로 외교 업무를 맡아 보았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은 3·1 운동이 일어나자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였다.

1932. 4.



윤봉길의 훙커우 의거 직후 모습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이끌던 김구는 일본인 요인들을 암살하고자 1931년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다. 한인 애국단 단원이었던 윤봉길은 1932년 훙커우 공원에서 승전 기념식을 벌이고 있던 일본군 요인들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1940. 9.



한국광복군의 전투 훈련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총사령관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한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광복을 준비하였다.

1945. 8.



김구와 미국의 도너번
1945년 8월 7일, 김구는 광복군 제2지대 본부에서 미국 OSS 책임자 도너번과 국내 진공 작전을 협의하였다.

1945. 11.



임시 정부 요인들의 귀국
1945년 11월 3일, 임시 정부 요인들은 27년간의 망명 생활을 끝내면서 임시 정부 청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였다.

2 국제 사회의 움직임

전체주의를 최종적으로 물리친 후 모든 국민이 자국의 영토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와 가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 대서양 헌장(1941. 8.)

●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어떤 약속을 했을까?



루스벨트(좌)와 처칠(우)의 회담

연합국,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과 영국의 정상은 대서양 해상에서 만나 '전후에 강탈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데 합의하였다(대서양 헌장, 1941). 이 원칙은 한국에도 적용되었다.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연합국은 여러 차례 국제 회담을 통해 일제의 억압과 지배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킨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처음 한국의 독립이 거론된 것은 1943년 **카이로 회담** 때였다. 카이로 회담에서 영국의 수상 처칠과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중국의 총통 장제스는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데 합의하였다.

탐구 활동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회담

자료 1 카이로 회담 선언

동맹국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지역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3대 강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

– 카이로 회담 선언문(1943)

자료 2 '한국, 자유를 내다보다'

지금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럴수록 충칭에 망명 중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운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 카이로 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한국 해방을 약속했다. 적당한 기회가 마련되면 한국인은 일제 군국주의에 마지막 결정타가 될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매년 한국에서는 일제의 지배 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가 3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을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유능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

– 뉴욕타임스(1944. 11. 7.)

● **두 자료를 읽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이 연합국의 독립 약속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해 보자.**

1945년 2월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얄타에서 회담을 갖고 전후 독일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때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후 소련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독립이 재확인되다

1945년 7월에는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들이 모여 회담을 개최하였다.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 정상들은 일본군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로 하고, 전쟁 범죄자 처벌,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보장 등을 규정하였다. 또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포츠담 회담 선언문은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포츠담 선언문

1. 미국, 영국,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4. 무분별한 계산으로 일본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군국주의자들의 손에 일본을 맡길 것인지 결정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7.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연합국은 일본 영역을 점령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한 여러 섬에 국한될 것이다.



포츠담 선언문 발표



중단원 마무리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전후 조선의 독립과 자유는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강력히 보장받았다. ㉠ 이 회담 후 우리 민족과 국가의 국제적인 지위는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증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미국·영국 3대 연합국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 이렇게 유리한 국제 정세하에서 우리 독립운동은 중대한 진보를 이루었다. ㉡ 국내의 반일 투쟁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동북 지역 동포들도 용감하게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의 교포도 임시 정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본 당은 조선 의용대를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개편하였고 이로써 전 민족의 총 단결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 – 3·1절 제25주년 기념 선언(1944)

1. ㉠의 '이 회담'은 어떤 회담을 의미하는지 써 보자.

2.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써 보자.

(1) 국내의 반일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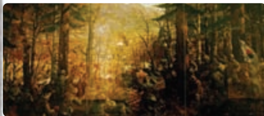
(2) 미주 지역 교포들의 활동:

3. ㉢의 '본 당'이 어떤 단체인지 쓰고, 그 활동을 서술해 보자.

조건 '본 당'이 만들어진 목적을 포함하여 쓸 것

연표로 정리하기

1910	조선 총독부 설치	조선 총독은 일본 국왕에 직속된 조선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1915	❶ □□ □□□ 결성	국내 비밀 조직으로서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공화 정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1919	3·1 운동, ❷ □□□□ □□ □□ 수립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 열망을 전 세계에 알렸다. 3·1 운동 이후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제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20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대한 독립군 등 독립군 연합 부대는 봉오동에서, 북로 군정서를 비롯한 독립군 부대는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특히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 전투상 최대의 승리였다.
1923	조선 물산 장려회 창립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산품 애용을 호소하였다.
1926	6·10 만세 운동	순종의 국장일을 계기로 일어난 민족 운동이다. 이후 학생 운동이 대중적 차원의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27	❸ □□□ 조직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의 일환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1929	원산 총파업, ❹ □□ □□ □□ □□	일제 강점기 노동 운동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4개월간 전개되었다. 한편 11월에는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 일어났다.
1932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	김구가 조직한 ❺ □□ □□□ 단원으로서 일본 국왕과 일본인 고관을 처단하기 위한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8	❻ □□ □□□ 편성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로,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항일 투쟁을 벌였다.
1940	❼ □□□□□ 창설	중국 충칭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군대이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 전쟁에 참가하였다.
1942	조선어 학회 사건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 한글을 연구한 학자들을 민족의식을 고양하였다는 죄목으로 탄압하였다.
1944	❽ □□ □□ □□ 조직	일제의 패망을 예상하고 있던 여운형이 건국을 준비하고자 국내에서 비밀리에 조직하였다.


▲청산리 대첩(민족 기록화)



▲조선 물산 장려회의 포스터


▲윤봉길


▲조선어 학회 회원



수행하기

다음은 일제 강점기에 전개되었던 사회 운동이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격문을 만들어 보자.

물산 장려 운동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자.
농민 운동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지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 한다.
노동 운동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 단체 계약권을 확립하고, 소년과 부인의 야간 노동과 갱내 노동 및 위험 작업을 금지하라.
소년 운동	어린이를 재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하게 하라.
형평 운동	호적에서 백정이라는 모욕적인 신분 표시를 삭제하고, 사회적 차별을 없애며 백정 자녀의 학교 입학을 허용하라.
여성 운동	여성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법률적 차별을 폐지하고, 일체의 봉건적 인습과 미신을 타파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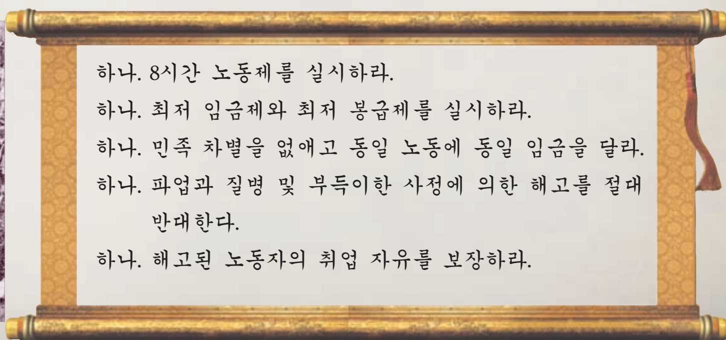
❶ 길잡이

1. 일제 강점기에 전개되었던 여러 사회 운동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선택한다.
2. 자신을 일제 강점기에 해당 사회 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라 가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글로 표현한다.
3. 작성한 글에 표제, 구호 등을 제시하고 사진이나 만화, 지도 등을 덧붙여 완성한다.

❷ 격문 만들기(예시)

우리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휴일도 없이 죽도록 일하고 임금은 쥐꼬리만큼 받고 있다. 게다가 일본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단결 투쟁만이 살 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하나. 최저 임금제와 최저 봉급제를 실시하라.
하나. 민족 차별을 없애고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달라.
하나. 파업과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해고를 절대 반대한다.
하나. 해고된 노동자의 취업 자유를 보장하라.

VI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상상화)

| 풀 |

김수영(1968년 作)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의 '풀'은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나타낸 시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 개발의 역군으로서 피땀 흘려 일하여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한편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치열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국 사회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였다.


△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서 활동하는 동명 부대


△ 경제 발전의 현장(부산 신항만)


△ 2002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당시의 응원 모습

0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 단원에서는 >> 1. 냉전 체제의 형성으로 달라진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1 냉전 체제의 성립

"미국 정부 수뇌자들은 현재 치열해지고 있는 냉전이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극동에서 확대되고 있는 공산주의를 저지하려는 자유 국가들의 대응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 국가들은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강화를 도모하여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 서울신문(1950. 6. 19.)

● 밑줄 친 부분을 이루기 위해 자유주의 진영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을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1884~1972)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립하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국은 세계 평화와 국제 협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국제 연합**을 창설하였다(1945. 10.). 그러나 곧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진영과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시작되었다.

전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패전국 독일의 영토를 네 지역으로 분할하였으며, 수도 베를린도 네 구역으로 분할하여 점령하였다.

한편 그 무렵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 진영의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하였다. 이어 서유럽 국가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는 **마셜 계획**을 발표하였다.

1948년에 서베를린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소련은 돌연 서베를린 지역을 봉쇄해 버렸다. 베를린은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영역 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서베를린 주민들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 미국 등은 군 수송기를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보급하였다.

양측 간의 긴장 상태는 소련이 11개월 만에 봉쇄를 풀면서 완화되



서베를린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수하는 미국의 수송기

었다. 이 사건 직후에 서유럽의 자유 진영 국가들은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조직하였다. 이에 소련은 동유럽의 공산 진영 국가들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를 만들었다.

동아시아에 냉전의 기류가 확산되다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오랫동안 내전을 벌이다가 중·일 전쟁 직전에 제2차 국·공 합작을 이루고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함께 싸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력을 강화한 공산당은 일본이 패망하자 세력을 확대하여 국·공 내전에서 승리하였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낸 다음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9).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

일본은 전후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통치를 받았다. 이때 일본은 전쟁 포기와 입헌 군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일왕 숭배에 바탕을 둔 군국주의를 뿌리 뽑고자 일왕을 신성시하는 일본인의 시각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또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을 열어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였다. 그러나 동서 냉전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쟁 책임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후에 분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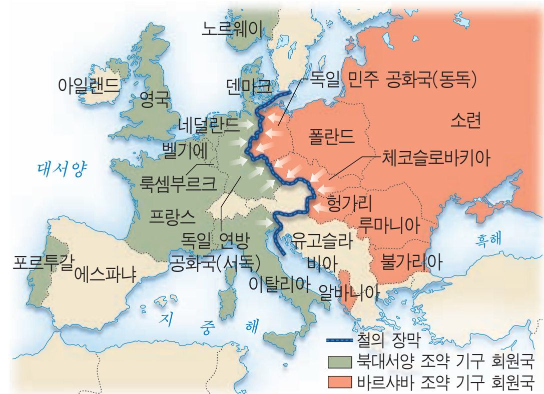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이 시작되고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전략 거점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 회의**를 열어 일본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전후 처리 문제를 마무리하였다(1951). 또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여 동아시아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역사 더하기 +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계획

1947년 3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트루먼 독트린'이라 불리는 외교 정책을 발표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동유럽 각국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이를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와 터키에 대규모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후 국무 장관 마셜은 유럽 부흥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는 공산 진영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피폐해진 서유럽의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소련은 마셜 계획에 대응하여 동유럽 공산 국가 간의 경제 상호 원조 협의체인 코메콘(COMECON)을 결성하였다.



냉전 체제의 형성과 대립

2 8·15 광복

흙 다시 만져 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 정인보, '광복절 노래'

● 밑줄 친 '이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


광복 소식에 기뻐하는 사람들

광복의 그날이 찾아오다

우리 민족은 3·1 운동 등으로 독립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자 연합국의 편에 서서 싸우는 등 끊임없이 항일 의지를 불태웠다.


38도선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미군과 소련군

한편 1945년 2월에 연합국 정상들은 유럽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자 얄타에서 회담을 개최한 바 있었다. 연합국은 얄타 회담에서 독일 패망 후 소련이 대일 전쟁에 참전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945년 8월,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였다. 소련도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참전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소련에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두 나라의 군대를 진주시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자고 제안하였다. 소련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한반도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게 되었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부의 포고 제1호(1945. 9.)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나는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국 정부가 연합국에 대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무력 충돌은 끝나게 되었다. 일왕의 명령과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 문서의 내용에 따라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한반도를 점령한다. 한국인이 오랫동안 노예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점과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독립시킬 것이라는 연합국의 결정을 명심하며, 한국인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의 규정들을 이행하고, 한국인의 인간적·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부대 총사령관인 본관은 이에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하여 군사적인 관리(군정)를 실시하고자 한다.

일본의 항복과 함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였다. 1945년 9월, 일본 도쿄에 있던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이와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에서 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다

광복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치안대**를 창설하고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확보에 주력하였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에는 좌우익의 여러 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그러나 김성수 등의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이에 가담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은 미군 진주 직후에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여운형은 미군이 진주하기에 앞서 미리 정부 조직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조선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지부들은 인민 위원회로 전환되어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정치 지도자들이 조직을 정비하다

광복 이후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이승만은 1945년 10월에 귀국한 뒤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참여하며 항일 활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도 1945년 11월 이후 귀국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이 참여한 한국 독립당도 국내로 거점을 옮기게 되었다.

사회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은 박헌영을 중심으로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였다. 이후 조선 공산당은 중도 좌파 정당과 합하여 남조선 노동당으로 개편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의 귀국을 환영하는 행렬

탐구 활동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선언(1945. 8.)

본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제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층각계에 완전히 해방된 통일 전선이요, 결코 혼잡된 협동 기관은 아니다. 왜 그러고 하면 여기에는 모든 반민주적 반동 세력에 대한 대중적 투쟁이 요청되는 까닭이다. 과거에 있어서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민족적 죄악을 범하였고 금후에도 그들은 해방 전 조선과 같이 그 건설 도중에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나니 이러한 반동 세력, 즉 반민주주의적 세력과 싸워 이것을 극복 배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강력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선언문

1. 자료를 보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어떤 세력으로 구성되었는지 말해 보자.
2.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어떤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는지 추론해 보자.

3 신탁 통치를 둘러싼 대립

이번 전쟁에 연합국이 수백만의 희생을 낸 데는 중대한 이유가 있다. 그는 곧 자유를 위함이다. 그런데 신탁 통치라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고, 우리 민족을 엄중히 구속하는 결정이다. – 동아일보(1945. 12. 30.)

● 정치인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 까닭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임시 정부 귀국 환영 대회 석상에 나란히 자리한 이승만과 김구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안이 결정되다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 장관들은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어 전후 처리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최고 5년 동안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였으나, 조선 공산당 등의 좌익 세력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합의 사항을 지지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에 사실상 정부 역할을 담당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했던 이 위원회는 토지 개혁 등을 진행하였다.



신탁 통치 반대(좌) 및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안 지지(우) 시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합의 사항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다(1946. 3.). 이 회의에서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만 민주주의 임시 정부 조직의 협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에 반대하면서 모든 정치 세력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미·소 공동 위원회는 5월 이후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다.

사료 쏙! 쏙!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안(1945. 12.)

1. 한국을 독립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제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2. 한국 민주주의 임시 정부 구성을 도울 적절한 방안을 연구하고 작성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관할 구역과 소련 관할 구역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 위원회는 그 제안서를 작성할 때에 한국의 민주적인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3. 공동 위원회는 미, 영, 중, 소의 4국 정부가 최고 5년 기간의 4개국 통치 협약을 작성하는 데 공동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제안을 작성한다. 이때 민주주의 임시 정부와 협의하도록 한다.

좌익 세력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조직한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우익 세력은 4개국이 5년 동안 한국을 통치하는 것은 민족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하였다.

좌우 합작 운동이 실패하다



좌우 합작 위원회의 위원들
여운형 사후에 찍은 것으로, 오른쪽 여운형의 모습은 후에 합성한 것이다.

미·소 공동 위원회의 휴회 기간 중에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편 정치 지도자들 중에 신탁 통치 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좌우의 정치 세력이 협력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섰던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하였다(1946. 7.).

좌우 합작 위원회는 임시 정부의 수립, 유상 매수·무상 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좌익 세력은 이 원칙에 친일파 처단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면서 비판하였다.

우익 세력 중에서는 좌우 합작 7원칙에 제시된 토지 개혁의 방법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또 반탁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방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논란 끝에 좌우 합작 위원회는 큰 성과 없이 활동을 중지하였다. 이후 1947년 5월에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으나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탐구 활동 좌우 합작 7원칙

1. 한국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2.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3. 몰수, 유상 몰수, 체감 매상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며, …… 통화 및 민생 문제를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 완수에 매진한다.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가 제안하여 만드는 입법 기구에서 심의·결정한다.
5.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남북 좌우익의 테러 행동을 일체 중지한다.
6.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7. 언론, 집회,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좌우 합작 운동을 풍자한 그림
악수를 나누는 여운형과 김규식을 극좌·극우 세력이 방해하고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1. 밑줄 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보자.
2. 좌우 합작 운동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떤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말해 보자.

4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민주 정부는 국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일반 국민은 각각 제 직책을 행하여서 우선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될 것이니,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 초대 대통령 취임사

●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던 것일까?



5·10 총선거 실시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합(유엔)에 상정하였다(1947. 9.). 유엔 총회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정부를 수립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총선거 실시 문제를 협의하고자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였다. 이에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이라도 우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환영식

단독 총선거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다

정치 지도자들은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구는 남한만 단독 총선거를 할 경우 민족이 분단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김규식 등의 중도 세력도 김구와 견해를 같이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한이 협상을 통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에 참가하였으나,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역사 더하기 ‘단결로 독립을 완수하자!’

조국은 분열에, 동포는 멸망에 직면한 이 위기에 있어서, 우리의 이 모임은 자못 심장한 의의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임무도 중대한 것이다. …… 우리 겨레의 정성과 단결은 우리의 통일,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 우리는 세계 평화 역사의 첫 페이지를 우리의 손으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우리 민족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 김구, ‘남북 협상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



남북 협상을 위해 38도선을 넘어가는 김구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남조선 노동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었다. 정부는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제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충돌로 일부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연기되기도 하였다(**제주 4·3 사건**).

한편 그해 10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 경비대 제14연대 소속 병사 중 일부가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제주도 출동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약 일주일 간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하였다. 진압군에 의해 사태가 수습되자, 이들은 지리산 등에 들어가 무장 게릴라 활동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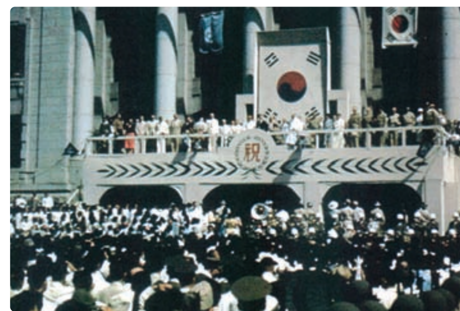
제주 4·3 사건의 발발과 전개

1947년 제주도 3·1절 기념식 참가자들의 가두시위를 응원 경찰들이 경찰서 습격으로 잘못 판단하여 발포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다. 이후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의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 제주 4·3 사건 위원회가 인명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신고는 10,715건이었으며 행방불명자 신고도 3,171명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에는 제주 4·3 평화 재단도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5·10 총선거에서 당선된 국회 의원들은 제헌 국회를 구성하였다. 제헌 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으며,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그해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하였다.

남한에 앞서 국가 체제를 정비해 간 북한은 1947년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1948. 9.).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각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3·1 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내각제적인 요소를 일부 가미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은 4년마다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친일 행위자의 행적을 고발하기 위한 투서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노력하다

제헌 국회는 일제에 협력하여 한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처벌하고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1948. 9.). 이 법에 의거하여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 특위는 박흥식, 최린, 이광수 등 친일 경력자들을 기소하였다.

반민 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자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로 지목된 일부 인사들의 체포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반민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친일파 체포 활동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반민 특위의 활동 기한이 단축되었는데, 이에 반발하여 반민 특위 위원장 등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후 반민 특위 활동은 침체에 빠졌고 1949년 10월에 결국 해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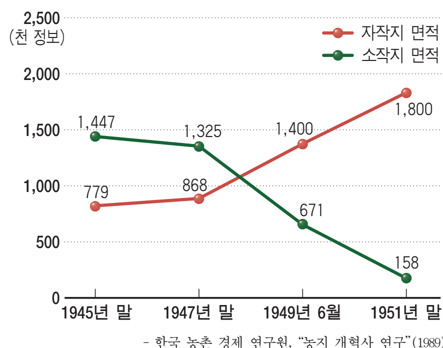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광복 후 미군정은 신한 공사를 설립하여 과거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소유했던 재산을 관리하였다. 또 소작료를 수확량의 3분의 1로 정하여 과도한 소작료 수납을 금지하였다. 미군정은 북한의 토지 개혁에 발맞추어 농지 개혁을 위한 법률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지주층과 한국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반대로 토지 분배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미군정은 일본인들이 소유하다가 군정 당국에 귀속된 재산을 일부 소작인에게 매각하였다. 신한 공사가 관리하던 농지의 상당 부분도 소작인들에게 팔아넘겼다.

북한의 토지 개혁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무상 몰수·무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때 농민에게 분배된 것은 경작권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소유권이었다. 북한은 농민들에게서 수확량의 25%에 이르는 현물세를 징수하였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실질 수익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6월에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정부가 3정보를 상한선으로 하여 지주의 땅을 매입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그보다 싼값에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주의 농지를 사들이는 가격과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할 때 받는 금액의 차이가 커서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1950년 3월에 농지 매상액과 상환액을 같은 수준으로 맞춘 개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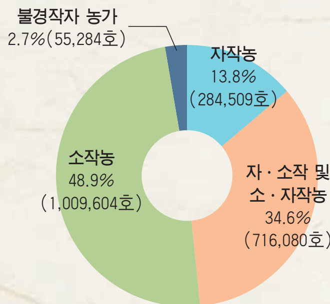
지주들 중에는 농지 개혁에 대비하여 미리 땅을 팔아버린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농지를 매입하는 대가로 현금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증서인 지가 증권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지주들이 지가 증권을 현금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농지 개혁 실시 전후의 자·소작지 면적 변화

탐구 활동 농지 개혁의 성과와 의미

자료 1 1945년 말 소유 형태별 농가 호수의 분포



- 조선 은행 조사부, "조선 경제 연보"(1948)

자료 2 농지 개혁법의 주요 내용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제6조 다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하지 않는다.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1가호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
제8조 정부는 피보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한다.
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 농지는 경작할 농가에게 다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하도록 한다.
1.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정부는 농지 개혁을 실시하여 지주들의 농지를 매입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다. 정부는 농지 매입 대가로 지주들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하였다. 또 1년 소출의 1.5배를 매각 지가로 산정한 다음 농민들에게 매년 소출의 30%씩 5년간 균등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전국 농지 230만여 정보의 15%에 해당하는 34만 2천여 정보가 분배되었다.

1. 자료 1을 보고 농지 개혁이 왜 필요했는지 말해 보자.
2. 자료 2를 참고하여 어떤 농지가 농지 분배의 대상이 되었는지 정리해 보자.

중단원 마무리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일입니다. 돌아보건대 작년 (　　　　　)을/를 통해 국회가 성립되고 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선거가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국회는 농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 <u>농지 개혁법을 제정하고 기타 재정 · 경제에 관한 중요안을 통과시켰습니다.</u>

– 국회 의장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사

(나) 조사 위원회는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와 민족에게 해독을 끼친 자들을 심판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돌연 특별 경찰대의 개입으로 사무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 <u>7월에 공소 시효 단축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이에 반발하여 위원장 등이 사직하였지만 결국 반민법 공소 시효를 단축하는 법이 개정, 공포되었다.</u>

– 반민 특위 위원장의 국회 보고서

1. (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보자.

2. 밑줄 친 ㉠의 의의와 한계를 서술해 보자.

3. 밑줄 친 ㉡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써 보자.

02 6·25 전쟁

이 단원에서는 >> 1. 6·25 전쟁의 발생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2. 전쟁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
3. 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사회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1 전쟁의 발발

밤사이 폭격 소리에 잠을 깨어 밝은 새벽 달빛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제 우리 조국은 무서운 살육과 파괴의 수라장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동포가 죽고 얼마나 많은 집이 불타고 있을까? – 김성칠, "역사 앞에서"

●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상처를 남겼을까?


폭격으로 끊어진 평양의 대동강 철교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다



애치슨 라인

1948년 말부터 1949년 초에 걸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미·소 양군이 철수하였다. 이에 정부는 조선 경비대를 모체로 국군을 창설하여 국방력을 정비하였다. 한편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았다. 1949년 10월에 중화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어 공산주의 세력은 한층 강화되었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으로 국·공 내전에서 활동하였던 조선 의용군 병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

그 무렵 38도선 부근에서는 소규모의 군사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소련 측에 남침 계획을 밝히고 이를 승인받았다.

한편 미국 국무 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여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남침한 북한군의 탱크

전쟁이 일어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은 안전 보장 이사회를 소집하고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북한이 이를 묵살하자 유엔은 참전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16개국의 군대로 이루어진 유엔군이 구성되었다.


서울 수복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군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다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국군도 전열을 정비하였다. 많은 어린 학생들이 학도 의용군으로 참전하였으며, 국외 동포들 중에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참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 끝에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9월 15일에는 **인천 상륙 작전**을 실행하여 전세를 역전하여 서울을 수복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으로 진격하여 평양에 입성하였고, 10월 말에는 압록강 연안까지 진출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뒤집혔다. 1951년 1월 초,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한강 남쪽으로 밀려났다. 이후 서울은 다시 수복되었지만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탐구 활동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

• 자료 1 결의문 82호(1950. 6. 25.)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 아래에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지와 적법한 의사 표시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선거로 수립되었으며,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와 같은 합법적 절차로 수립된 정부임을 확인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무장 공격은 평화를 깨는 심각한 행위라는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적대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당국은 군대를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해야 한다.

3. 유엔 회원 국가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북한 당국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는 안전 보장 이사회

• 자료 2 결의문 83호(1950. 6. 27.)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 당국이 전쟁 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지 않았다는 것과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는 데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청된다는 유엔 한국 위원단의 보고서를 주목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엔에 요청한 대한민국의 호소를 주목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1. 자료 1의 밑줄 친 '합법적 절차로 수립된 정부'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 보자.

2. 자료 2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알아보자.

2 전쟁의 결과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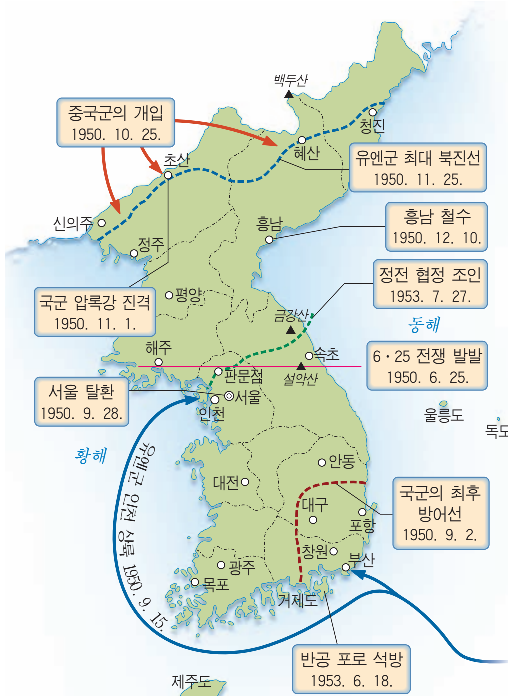
피난민의 상당수는 집단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자활 능력이 없는 그들은 오직 외국의 원조 구호물자에 의지하여 기아를 면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경기 지구 내의 월남 피난민 대부분은 식량 구호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기대할 수 없어 극도로 궁핍한 생활난에 빠져 있다. – '경기 지구 재민 구호 상황'(자유신문, 1951. 12. 12.)

● 이처럼 피난민이 많이 발생한 까닭은 무엇일까?



피난민 행렬

정전 협정이 체결되다



6·25 전쟁의 전개

38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된 상황에서 소련이 정전을 제안하였다. 유엔군과 공산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951년 7월부터 **정전 회담**이 시작되었다. 정전 회담은 2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양측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정전 회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포로 송환 문제였다. 북한은 전쟁이 끝나는 즉시 포로를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유엔군은 인도주의를 내세워 포로 본인이 스스로 돌아갈 곳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은 좀처럼 타협하지 못하다가 결국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중립국 포로 송환 위원회에 넘겨 처리한다.'라는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전에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가 반공 포로의 석방을 강행하기도 하였다.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은 1953년 7월 27일에 비무장 지대 설치,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시 위원단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정전 협정에 조인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정전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전 협정 체결

전쟁으로 남북한이 큰 피해를 입다

6·25 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5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수많은 **전쟁고아**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또 건물, 도로, 공장, 발전 시설 등 산업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전쟁으로 남북 사이에는 적대감이 깊어졌다. 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편을 들거나 협력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일도 잇달았다. 전쟁 초에 북한군은 점령 지역에서 북한

식 토지 개혁을 시행하고 지주나 공무원들을 숙청하였다. 국군이 북한군 점령 지역을 수복한 후에는 북한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뒤이었다.

남북한은 전쟁의 경험을 **독재 정치**를 **강화**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김일성은 반대 세력을 숙청한 후 김일성 유일 체제를 확립하였다.

전쟁으로 남북한의 주요 산업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곳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졌다. 농촌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도시로 이주하였고, 촌락 공동체 의식과 가족 의식이 이전보다 약해졌다. 또 외국의 원조가 늘어남에 따라 서구 문화를 무분별하게 따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단위: 명)

구분	사망	실종 및 포로	부상
한국군	137,899	32,838	450,742
유엔군	40,670	9,931	104,280
북한군("한국 전란 4년지")	508,797	98,599	–
중국군(추정)	148,600	25,600	798,400
민간인(남측)	373,599	387,744	229,625

- 국방부 군사 편찬 연구소, "6·25 전쟁사"

6·25 전쟁 당시 인명 피해

탐구 활동 6·25 전쟁의 영향

• 자료 1 산업 기반의 파괴

장기화된 전쟁으로 산업 시설은 대부분 파괴되고, 국내 경제 질서는 혼란에 빠졌다. 기간산업을 위시한 생산업체는 막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에 당국은 전쟁과 함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과 미국 역시 부흥 사업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 독립 국가로서 의식주의 기본 산업을 자급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외국 자본 및 기술과 협조 생산을 하는 데 노력하여 일관된 종합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 부흥책 일고'(서울신문, 1953. 4. 12.)

• 자료 2 사회적 영향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1983년에 KBS는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약 1만 명의 가족이 재회할 수 있었다. 이후 남북한 사이에서도 몇 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분단으로 인하여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산가족 찾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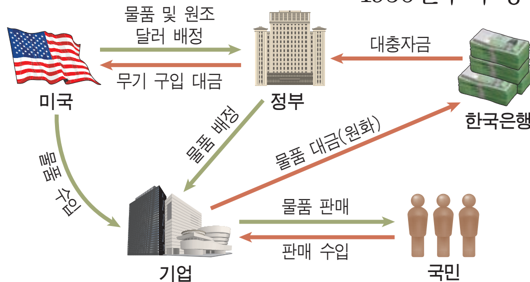
1. 자료 1을 보고 전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아보고, 외국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찾아보자.
2. 가족이나 주변 인물 중에서 자료 2와 같이 6·25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사해 보자.

폐허를 딛고 일어서다

전쟁으로 산업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됨에 따라 전후에 경제 복구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미국은 전쟁이 끝난 직후 경제 재건에 필요한 외환을 지원하였으며, 1956년부터 잉여 농산물을 대규모로 원조하였다. 정부는 무상 원조로 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마련한 **대충자금**으로 재정 수입을 확충하였다.

경제 복구 과정에서 일부 기업인들은 외화 공정 환율과 실질 시장 환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취하였다. 한편 3백 산업의 원료를 신규 기업에 불하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당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꾸준히 회복되어 1960년에는 국내 총생산이 전쟁 직후보다 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미국의 무상 원조가 줄어들면서 불황을 겪게 되었다.



대충자금 흐름도

대충자금은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물자 또는 외환과 같은 액수의 자국 통화를 특별히 적립해 둔 자금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은 무상 원조를 제공할 때 대충자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는데, 정부는 무상으로 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원화를 확보한 후 이것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대충자금을 마련하였다.

전쟁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변하다

6·25 전쟁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북한에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파견했던 중국은 6·25 전쟁을 겪으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였다. 또 제3 세계 등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은 중국과 각각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대결 정세를 강화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배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던 일본은 군수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경제 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강대국 간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미·일 동맹도 한층 강화되었다.



중단원 마무리

1. 다음 밑줄 친 ㉠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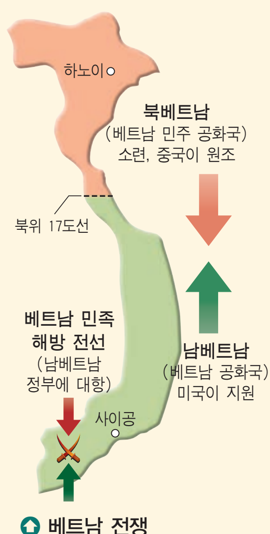
> 쌍방의 사령관들은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하도록 명령한다. …… 본 정전 협정의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의 쌍방에서 수용하고 있는 모든 전쟁 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 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바에 따라 집행한다.

2.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해 보자.

조건 전쟁으로 인한 물적·사회적 피해를 밝히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경향을 함께 쓸 것

심 화 주 제

베트남, 독일의 분단과 통일



베트남 전쟁

베트남은 1882년부터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베트남 독립 연맹(비엣민)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다. 그 결과 1954년에 프랑스군이 패배하면서 독립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곧바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공산 정권이 들어선 북베트남과 미국 등 서양 열강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으로 분단되었다.

1964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 등이 참전하였다. 북베트남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1973년에 파리 협정을 맺고 철군하였다. 미군이 철수하자 북베트남은 1975년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통일 이후 공산 정권은 권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사회는 경직되어 갔다. 그러나 최근 자본주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도이모이(베트남 어로 '쇄신')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활기를 되찾고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과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으로 분단되었다. 서독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가입하는 등 서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동독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였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자, 이를 막기 위하여 동독 정부는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지역 사이에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였다(1961).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축하하는 동·서독 시민들

198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 일대에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과 개방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89년 동독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였다. 이듬해 동독은 자유 총선거를 거쳐 서독에 흡수·통일되었다.

독일은 무력이나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동독과 서독 지역 국민의 합의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었다. 동독과 서독은 적대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갔다. 그러던 중 동유럽을 휩쓸던 민주화·개방화의 열풍에 힘입어 마침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활동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 사례가 우리나라의 분단과 통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토의해 보자.**

03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이 단원에서는 >> 1. 헌법 개정과 선거 등을 통해 1950년대의 정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2. 4·19 혁명 등 민주화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말할 수 있다.
3. 역대 정부의 수립 과정과 정책을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이승만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

나는 민주주의를 철저히 믿는 국회 의원들에게 헌법 개정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 헌법 개정에 나 개인으로는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나는 대통령의 지위를 보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렇게 됨으로써 영구한 평화는 보장되며 우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민족이 복리를 진보적으로 누릴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1951)

●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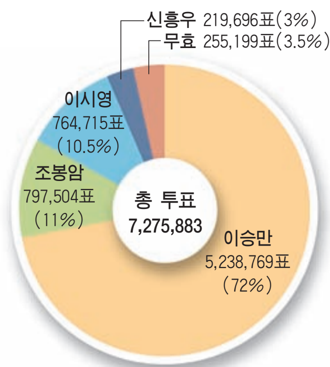
광복절 기념식을 마친 이승만 대통령

발췌 개헌이 이루어지다

6·25 전쟁 직전에 실시된 제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후보의 상당수가 탈락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제2대 대통령 선거 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재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자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자유당과 이승만은 폭력배를 동원하여 야당 인사들을 위협하는 한편, 임시 수도였던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부 국회 의원들을 체포하였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952. 7.). 1952년 8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반공을 내세워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냄으로써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자유당
1951년 12월 이승만 정부가 국민회·대한 청년단 등의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조직한 정당이다. 원래는 국회 의원들로 구성된 '원내 자유당'과 국회 밖에서 만들어진 '원외 자유당'으로 나뉘어 있다가, 1952년 7월에 통합하여 '통합 자유당'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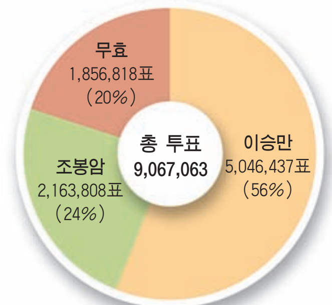


제2대 대통령 선거 결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헌정 질서가 유린되다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1954년에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였다. 이들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헌안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 의원 정수 203명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하고 135표만을 얻은 채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사사오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 부결을 번복하고 다시 통과시켜 버렸다(**사사오입 개헌**).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이 크게 손상된 사건이었다. 이로써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이승만은 연임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다.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대한민국 선거사"

제3대 대통령 선거 결과
선거 직전에 민주당 후보인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를 애석하게 여긴 시민들이 신익희에게 투표함으로써 많은 무효표가 나왔다.

비판의 목소리가 정부에 억압받다

그 무렵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은 평화 통일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1958년 1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관련자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고, 조봉암은 사형에 처해졌다.

이후 자유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 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1958). 또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자주 게재하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제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 측 포스터(좌)와 훼손된 모습(우)



진보당 사건으로 검거된 관계자들의 재판

탐구 활동 보안법 파동

자유당은 야당의 국가 보안법 개정안 반대 투쟁에 대항하기 위하여 반공 투쟁 위원회를 구성하리라 한다. 6·25 전쟁으로 우리 국민의 반공 사상은 깊이 배어 있다. 그러나 지금 반공 투쟁을 내세우는 것은 야당이 국가 보안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반공이라는 굴레를 씌워 보려는 것이다. …… 언론 통제를 위하여 반공의 굴레를 씌우고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 법을 이용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거니와, 결국 이것은 자유당이 자기 몸을 옭아매는 것이 될 것이다.

– 경향신문 사설(1958. 11. 22.)



보안법 개정 반대 선언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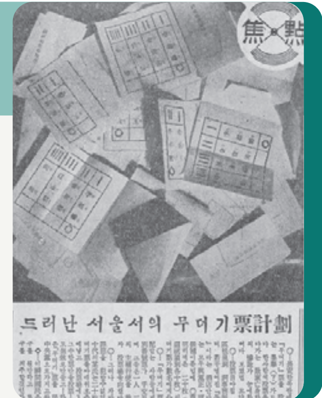
자료를 토대로 야당이 국가 보안법 개정에 반대한 까닭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2 4·19 혁명

이승만 1인 독재 체제 밑에서 참고 또 참아 오던 분노는 3·15 부정 선거에서 민주주의라는 이상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보았을 때 해일처럼 터지고 만 것이다. 맨주먹의 젊은 학생들이 독재의 아성을 향해 포효하며 육박하였을 때 국민이 일제히 이에 호응하였다.

– 조선일보 사설(1970. 4. 19.)

● 우리나라 국민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부정 선거에 사용된 무더기 계획표(동아일보, 1960. 3. 16.)

부정 선거가 자행되다

이승만 정부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국의 원조 물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다. 1950년대 말에 미국이 무상 원조를 유상 원조로 전환함에 따라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선거가 치러진 그날 위조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야당의 선거 참관인들이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와 같은 부정 선거가 자행됨으로써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오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3·15 부정 선거 지시 비밀 지령

1. 유권자의 4할에 해당하는 표를 투표 전에 미리 준비하기
2.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하여 조장들이 조원의 기표 상황을 확인할 것
3. 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 참관을 포기시키기

4·19 혁명이 일어나다

선거 당일 마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시위에 참가하였던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마산 시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였으며, 시위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

4월 18일 고려 대학교 학생들은 **부정 선거 규탄 대회**를 열고 총궐기 선언문을 발표한 후 서울 시내로 진출하였다. 이때 정치 폭력배들이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과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다음날에는 더욱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하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가 부정 선거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

이승만 정부는 즉각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저지하려 하였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장면 부통령은 부통령 사임을 발표하고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시위는 연일 계속되었으며, 4월 25일에는 대학교수들이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자, 결국 이승만은 4월 26일에 대통령 하야를 발표한 후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대학교수단의 시위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직후 허정을 대통령 대행으로 한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허정 과도 정부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고, 개헌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1960. 7.). 이 선거로 구성된 민·참의원은 합동 회의를 통하여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윤보선은 장면을 국무총리에 지명하였으며, 민의원은 장면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제2 공화국 출범 경축식

장면 내각은 남북통일, 국제 연합 가입, 대일 외교 정상화 등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각종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 왔던 노동 운동과 교원 노조 결성 운동, 청년 운동, 학생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와 함께 학생들과 혁신 계열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일부 대학생들은 1960년 11월 민족 통일 학생 연맹을 결성하여 남북 학생 회담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혁신계 정치 세력은 민족 자주 통일 협의회를 결성하여 학생들과 행동을 같이하였다. 이들은 1961년 5월 북한에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혁신계 정치 세력
4·19 혁명 이후 등장한 사회 대중당, 한국 사회당 등 급진적인 성향의 정당들을 일컫는다.



4·19 혁명의 의의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참여하여 지성과 진리, 자유의 정신을 뿌리고자 한다.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는 전제 권력에 의해 사라졌다. ……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우리는 침묵의 밤에 자유의 종을 치는 역할을 자랑한다. 영원한 민주주의를 위한 일은 자랑스럽기만 하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 서울 대학교 문리대학 학생 선언문(1960. 4. 19.)

4·19 혁명은 국민들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저버리는 독재 정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사건이었다. 이는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퇴진시킨 민주주의 혁명으로서 민주화 운동의 효시였다.


4·19 혁명 기념탑(서울 강북)

3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생략)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 박정희는 이와 같은 혁명 공약 발표 이후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을까?



군사 정변을 일으킨 직후의 박정희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다

4·19 혁명이 일어날 무렵 군부 내에서는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정변을 모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4·19 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통일 운동, 사회단체의 활동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1961년 5월 16일에 정변을 일으켰다. 박정희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창설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정 실시 직후 국가 재건 최고 회의는 정치 활동 정화법을 공포하여 3천여 명에 이르는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또 군사 정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농어촌 고리채 정리 계획, 부정 축재 처리안, 경제 긴급 시책 등과 같은 일련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박정희 등은 약속한 민정 이양 시기가 다가오자 대통령제로의 복귀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를 거쳐 통과시키고 민주 공화당을 창당하였다. 민주 공화당의 후보가 된 박정희는 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다

5·16 군사 정변 직후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고자 회담에 나섰다. 그러나 배상금과 독도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대립하여 난항을 거듭하였다.

1961년 10월에 비공개로 한·일 회담이 열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일 청구권 문제와 재일 동포 법적 지위 문제, 독도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 대표와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일 협정이 굴욕 외교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났고, 1964년 3월에는 한·일 회담 반대 시위가 시작되었다. 시위로 회담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한·일 회담 반대 시위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다



베트남에 파견되는 군인들

1964년에 미국은 북베트남의 공산 정권에 맞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973년까지 연인원 32만 명에 이르는 규모의 부대를 파견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파병의 대가로 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 제공,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차관 제공,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군수 물자 수출 협력 등을 약속받았다(**브라운 각서**, 1966).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국군의 전력이 증강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3선 개헌이 이루어지다

1968년 1월에 북한이 파견한 무장 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에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이 확실시되자 야당과 재야 세력은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민주 공화당에 개헌안 발의를 요구하였다. 민주 공화당은 국회에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상정하였다. 개헌안은 야당 국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였다.



한·일 기본 조약

제1조 두 조약 체결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수립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연합 총회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두 조약 체결 당사국은 양국 상호 관계에 있어서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는다. 상호의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 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1965년에 조인된 한·일 기본 조약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는 문서이다. 조약 조인 당시에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 사과를 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일 양국이 상호 발전과 지역 평화를 위한 동반자로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4 유신 체제의 성립과 민주화 운동

들으라! 우리는 유신 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 헌법의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우리는 유신 헌법의 비민주적 허위성을 고발한다. ……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민주 사회를 향한 결단의 깃발을 내걸어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공포의 사회가 도래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고발하고자 한다.

– 김상진의 양심 선언문(1975. 4. 11.)

●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를 주장하고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반유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변하다

3선 개헌 이후 박정희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야당인 신민당은 치열한 투표 끝에 김대중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두 후보는 접전을 펼쳤으나 박정희 후보가 승리하였다.

한편 1969년에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후 주한 미군의 축소를 추진하였다. 또 박정희 정부에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정세 변동에 대응하여 박정희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1971. 12.).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

이 무렵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적십자사 총재가 북한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제안하였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에 남북은 평화 통일 원칙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7·4 남북 공동 성명, 1972).

역사 더하기 + 닉슨 독트린



미국의 닉슨 대통령 (1913~1994)

1970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의회에 '1970년대 미국 대외 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외 주둔 병력 삭감을 요지로 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를 닉슨 독트린이라 한다. 닉슨 독트린은 1969년 7월 닉슨의 아시아 순방 도중에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②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
③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그에 대처하여야 한다.

유신 체제가 등장하다

1972년 10월, 정부는 갑자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에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한 유신 개헌안을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하였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였으며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는 대통령 선출권과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국회 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 국가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긴급 조치는 국회 해산권을 비롯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유신 헌법에 따라 박정희는 그해 12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다시 제8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비정상적으로 강화되었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권위주의적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긴급 조치 발표 직후의 대학교 풍경
군인들이 대학교 정문을 막고 학생들의 등교를 통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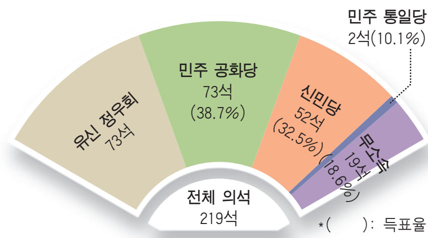
반유신 운동이 일어나다

유신 헌법이 발표된 후에 일본 도쿄에서 반유신 운동을 준비하던 김대중이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1973. 8.). 이에 대학가에서는 사건의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으며, 재야인사들은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학생들도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연맹(민청학련) 선언을 통해 유신 헌법 폐지를 요구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긴급 조치 제1호를 발표하여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속하였으나 시위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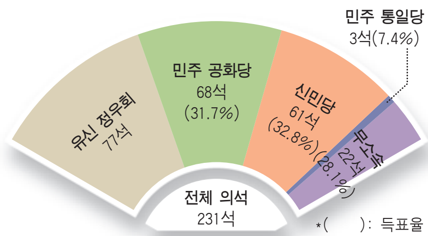
1974년 5월에 정부는 인민 혁명당이라는 조직이 전국적인 시위를 부추겼다고 발표하였다.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180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들 중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다음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었다(1975. 4.).



인혁당 사건 재심 공판 후 유족들의 기자 회견(2007. 1.)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인혁당 사건 재심 공판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언하였다.



제9대 국회 의원 정당별 분포(1973)



제10대 국회 의원 정당별 분포(1978)

유신 체제가 무너지다

거듭되는 긴급 조치에도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다.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 구현 사제단을 만들어 민주화 운동을 펼쳤고, 재야인사들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아울러 민주 회복 국민 회의를 결성하였다(1974). 재야 정치 지도자들은 1976년 명동 성당에서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였다.

반유신 운동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978년에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여당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하였다. 신민당은 1979년에 유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고 주장하는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하고, 민주화 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1979년 8월에 방직 회사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폐업 조치에 항의하며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런데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야당은 박정희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영삼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은 그를 국회 의원직에서 제명하였다. 이에 김영삼의 정치 근거지인 부산과 마산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부마 항쟁**, 1979. 10.). 정부는 부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탄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탐구 활동 대통령 긴급 조치 특별 담화문과 3·1 민주 구국 선언

자료 1 긴급 조치와 함께 발표된 대통령 특별 담화

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로 총화 단결하고 국론을 통일하여 국가의 안전 보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모든 국력을 기민하고도 유효하게 총집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따라서 나는 국민 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며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자료 2 3·1 민주 구국 선언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민주주의에 있다. 이북 공산주의 정권과 치열한 경쟁에 뛰어든 이 마당에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민주 역량이다. 국방력도, 경제력도 길러야 하지만 민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첫째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긴급 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다가 투옥된 민주 인사들과 학생들을 석방하여야 한다. 둘째, 유신 헌법으로 허울만 남은 의회 정치가 복원되어야 한다.

1. 자료 1을 보고 정부의 긴급 조치 발표 이후 자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자료 2를 보고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한 사람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지 정리해 보자.

일상다반사 그때 그 시절

장발 단속

1970년대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장발을 하고 통기타를 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 박정희 정부는 국민의 기강을 세운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청년들을 경범죄로 처벌하였다. 경찰은 귀를 덮을 정도로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잡아 즉석에서 머리를 잘랐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었다. 거리에서는 경찰들이 숙녀들을 세워 놓고 치마 길이가 무릎 위 15cm를 넘는지를 자로 재면서 훈계하는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통기타를 치며 여흥을 즐기는 젊은이들

대한늬우스

'대한늬우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매주 정부가 제작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영상 보도물이다. 1945년 광복 이후에 조선시보로 시작하여,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한전진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1953년부터는 대한늬우스로 이름이 바뀌었고, 나중에는 대한 뉴스로 개칭하였다. '대한늬우스'는 영화 상영 전에 꼭 보아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시절에 영화관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대한늬우스'를 전하는 성우의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늬우스 상영 장면


미니스커트 단속

야간 통행금지

1945년 9월에 미군정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였다. 이 조치는 6·25 전쟁 이후에 제주도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행되다가 나중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로 단축되었다. 통행금지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 도심이 조용해졌으며, 이따금 경찰관의 호루라기 소리만이 정적을 깨곤 하였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사람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어 즉결 심판을 받은 뒤 과태료를 내야 풀려날 수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는 1982년 1월 6일에 폐지되었다.


인적이 없는 서울 세종로

5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

국토 수호를 위임받은 군인이 제 나라의 양민을 학살하고 있다. 국민의 가슴이 산산이 부서진 오늘은 참을 수 없는 비극의 날이다. 5월 17일 밤을 기해 전두환과 그 일파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부 통치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민주 인사들을 체포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말살하였다. – 조선 대학교 학생 성명서(1980. 5. 20.)

● 시민들이 살상당하는 사태가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시위 도중 사망한 아버지의 영정을 안고 있는 아이

신군부 세력이 등장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자 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어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 취임하였다. 이때 야당은 유신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뽑은 후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최규하가 1979년 12월에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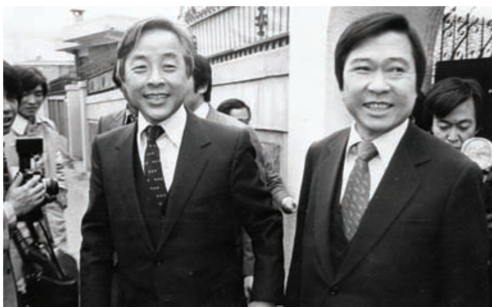


12·12 군사 반란의 주역들

그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던 전두환 보안 사령관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12·12 군사 반란**).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비상계엄령을 계속 유지하고 헌법 개정을 지연시켰으며,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면서 실권을 장악해 나갔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라

유신 체제가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다시 확립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동안 정부에 의해 가택 연금되어 있던 김대중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였고,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영삼도 개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국민 사이에서도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김영삼과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대중

당시 대학생들은 유신 체제 아래서 정부 시책을 지나치게 따랐던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1980년 5월에는 대학생 10만여 명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서울의 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에 김종필과 김대중 등 정치 지도자들을 부정 축재, 시위 배후 조종 등의 혐의로 체포하였다. 또 이튿날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정치인들의 활동은 금지되었으며, 언론·출판·방송은 검열을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5월 18일에 광주에서는 전남 대학교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위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하고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하였다.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분노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전라남도 도청을 중심으로 계엄군에 맞섰다. 신군부는 5월 27일에 대규모 군대를 투입하여 전라남도 도청을 장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탄압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과 대치하고 있는 계엄군

탐구 활동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통령들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시국 수습 방안의 실행을 모의하고,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 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 시민들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도 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

– 12·12, 5·18 사건 대법원 판결문(1997)


12·12 및 5·18 사건 공판 당시 피고인 전두환(우)과 노태우(좌)

1. 자료를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많은 인명이 희생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까닭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6 6월 민주 항쟁과 자유 민주주의의 진전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은 숱한 고문 사례의 한 가지이지만 그것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데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수감자에 대한 가혹 행위, 농성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수없이 시비가 일었으나 …… 어정쩡한 수사 태도가 급기야 박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 경향신문(1987. 1. 21.)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언제, 왜 일어난 것일까?



민주 열사 박종철의 비(서울 대학교 내)

전두환 정부가 수립되다

신군부는 1980년 5월에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상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는 주요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그들에게 비판적이던 언론인과 대학교수들을 내쫓았으며, 언론 기관을 통폐합하였다.



국외 여행 자유화에 따른 관광객 유치 광고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사임하자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신군부는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 공개,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만들었다. 개헌안이 확정되자 대통령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이듬해 2월에 대통령 간접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 해제, 두발·교복 자율화, 스포츠 산업 활성화, 컬러 TV 방송 시작, 국외 여행 자유화 등의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민주 한국당, 한국 국민당 등 신군부 세력에 호의적인 야당은 지원하는 반면, 비협조적인 야당 정치 지도자들의 활동을 억제하였다. 아울러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삼청 교육대를 운영하였다.

삼청 교육대
신군부는 1980년 8월에 폭력 조직을 근절하여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구실로 시민 2만여 명을 검거하였다. 신군부는 이들을 군대의 특수 훈련장에 보내 순화·근로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가혹한 훈련을 시켰다.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다

전두환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체제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점차 확산되었다.

정부의 규제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던 재야 정치인들은 1984년 5월에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이듬해 초에 신한 민주당이 창립되었다. 신한 민주당은 1985년 2월에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야당은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개헌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1987년 초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을 당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시민들은 이 사건에 분노하여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를 전개하였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4·13 호헌 조치**).

직선제 개헌 요구가 확산되자 야당과 종교계, 학생 운동 조직 등 각계각층은 힘을 합쳐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민주 항쟁은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한편 그해 6월 9일 연세 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민주화 시위를 벌이던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계기로 민주화 요구는 더욱 격렬해졌다.

이에 여당의 노태우 대표는 6월 29일에 대통령 직선제 수용, 언론의 자유 보장, 정당 활동 인정 등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6·29 선언**). 이 선언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6월 민주 항쟁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다

1987년 10월에 국회는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접 선거를 규정한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헌안은 국민 투표를 거쳐 확정되었다.

새 헌법에 따라 그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가운데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다음해에 실시된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여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지방 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 자치제가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었다.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또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 및 소련, 중국과 연이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등 **북방 외교**에 힘을 기울였다.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유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 폐막식



유엔 동시 가입이 확정된 후 악수를 나누는 남북한 대표

여야 정권 교체가 실현되다

노태우 정부가 수립된 직후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1990년 1월에 통일 민주당, 신민주 공화당이 여당인 민주 정의당과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을 구성하였다. 3당의 합당으로 여당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92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자유당의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정부 이후 30년 만에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 실명제**와 같은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정부는 거세지는 시장 개방 요구에 대응하여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계화를 강조하였다.



금융 실명제 실시

그러나 집권 말기에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등 경제 불황이 찾아왔다. 또 아시아 각국에 금융 위기가 밀려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외환 위기가 닥쳐왔다. 이 때문에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1997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 야당 후보인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 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 끝에 2001년에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발전'을 국정 수행의 원칙으로 삼았다. 또 국가 이미지가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 무역 기구(WTO),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으며, 6·15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2002년에는 FIFA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구제 금융을 상환하고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다

2002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이어받아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 관광 등에 합의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경 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친일 진상 규명법을 제정하여 친일파 문제 등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또 행정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를 위한 여러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임기 중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였고,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 비정규직 증가 등을 초래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2007년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신 발전 체제 구축'이라는 국정 목표 아래에 국가·사회 간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구축,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다원주의의 가치 존중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 등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좌)과 노무현 대통령(우)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민주주의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들 사이의 토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사상과 의견을 교환하는 국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도 각각 난관을 거치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시련 속에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업적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의 정치는 ㉡번영과 평화를 향유하기를 희망하는 나라에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
> – 유엔 한국 위원단 국회 방문 연설(조선일보, 1949. 2. 24.)

1. 밑줄 친 ㉠의 과정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서술해 보자.

2. ㉡을 위해 어떤 제도와 질서가 필요한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자.

04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이 단원에서는 >> 1.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3. 대중문화의 발달과 그로 인해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1 산업 사회의 발달

한국인들은 서독이 제2차 세계 대전 후 '라인 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과 같이, 서울을 관통하여 흐르는 '한강의 기적'과 같은 빛나는 공업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근면한 나라, 한국'(경향신문 기사 재인용, 1975. 8. 29.)

●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이룩할 수 있었을까?



'한강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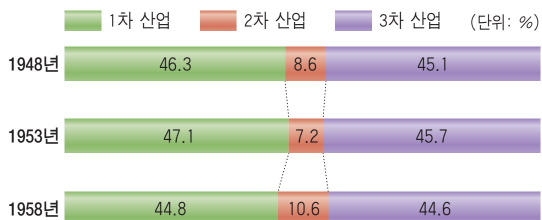
3백 산업이 발달하다

광복 직후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1950년대까지 물가 폭등과 물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 원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제조업에서는 제분, 제당, 면방직의 이른바 **3백 산업**을 비롯한 소비재 공업이 발전하였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었던 밀과 면화가 대량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밀과 면화 재배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작물의 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졌고,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소비재 산업은 한국의 농업과 유기적 관련이 약한 가운데 발전하였기 때문에, 농촌의 경제 사정은 어려워졌다. 춘궁기가 되면 전체 농가의 약 15% 정도가 봄에 양식이 떨어졌고, 대부분의 농가가 연이율 50% 이상의 고리대에 시달렸다. 농민들 가운데 농지를 팔고 소작농이 되거나 농촌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농민의 생산 의욕이 크게 떨어졌고 농가 소득 역시 감소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귀속 재산의 불하, 원조 경제의 수혜 등을 바탕으로 '재벌'이라 불리는 **독점 자본**이 **성장**하였다.



산업 구조의 추이

경제 개발 계획을 시작하다



경부 고속 국도(1970. 7. 7. 준공)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은 1961년부터 시작하는 5개년 종합 경제 재건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중소기업과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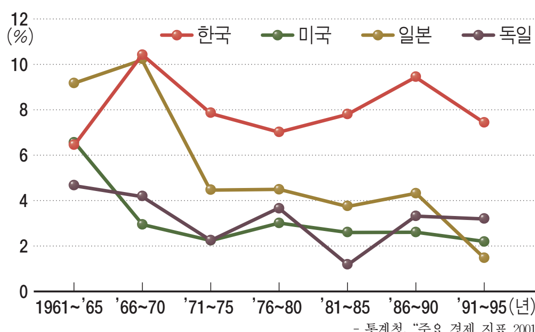
박정희 정부는 장면 내각이 수립해 놓았던 경제 개발 계획을 기초로 하여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수출 산업 육성으로 전환하였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독일과 일본 등에서 빌려 오거나 베트남 등에서 벌어들여 충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의류,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렸다.

수입 대체 산업
수입에 의존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수입 대체라고 하며, 이러한 산업을 수입 대체 산업이라고 한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은 시멘트, 전력 등 **기간산업 육성**과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울산 공업 단지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 조성되고 포항 종합 제철이 설립되었다. 또한 소양강 댐과 경부 고속 국도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두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부족한 산업 시설을 갖추고, 높은 교육열로 인해 우수한 산업 인력이 많이 배출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 주도하에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경제는 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수출을 늘리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면서,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 권익 향상에는 소홀하였다.

역사 더하기 각국의 경제 성장률



각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경제 개발 계획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보다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 하였다.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경제 개발 계획 추진 세력의 출현, 국민의 강인한 생활 의지, 값싼 노동력, 국제 정세의 호전 등이 원동력이 되었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다

1960년대 말 국제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외채가 누적되었다. 또 기업들은 사채를 상환하는 데 압력을 받아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사채 동결과 대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특혜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8·3조치, 1972).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76)과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은 **중화학 공업과 전자 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구미, 울산, 여수에 대규모 공업 단지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국제 유가 폭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다. 제1차 국제 유가 폭등은 중동 전쟁으로 비롯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중동에 진출하여 벌어들인 오일 달러로 극복하였다.



POSCO(경북 포항)
1968년에 포항 종합 제철로 설립되었다가 2000년에 정부 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되었으며, 2002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제선, 제강, 압연재 생산과 판매, 항만 하역업, 운수업, 창고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말에 제2차 국제 유가 폭등, 중화학 공업의 중복 투자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 감소와 국제 수지 악화라는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노동자, 기업, 정부의 노력과 함께 1980년대 중반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는 전자 제품, 선박,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 화학 등 중화학 공업 제품이 수출품의 주류를 이루었다. 수출액은 1977년에 100억 달러를 달성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가계 소득도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대 말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5천 달러를 넘어섰다.



국제 유가 폭등

박△△ 씨 등 주부 100여 명은 서울 도봉구 미아동의 ○○ 주유소로 석유통 2~3개씩을 들고 몰려와 "석유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박 씨 등은 "석유를 사기 위해 집에서 2km나 떨어진 이곳에 왔는데 며칠째 석유를 한 방울도 못 사고 그냥 돌아갔다."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 주유소 옆에서 낚시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 씨도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연 3일째 석유를 못 사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1979.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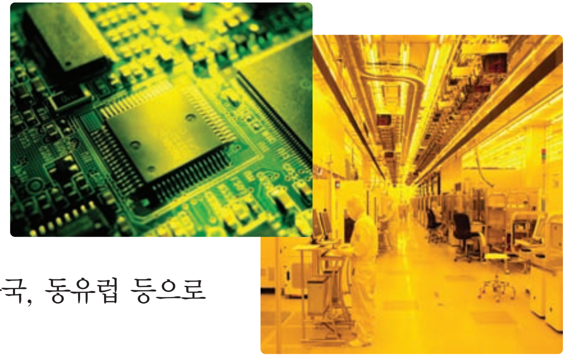
1973~1974년 중동 전쟁 당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1978~1980년 이란 혁명으로 인한 석유 생산의 대폭 감축으로 석유 공급이 부족해졌다. 이에 국제 석유 가격이 급등하였고, 그 결과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었다.



석유를 사려고 줄을 선 시민들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다

1990년대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전반에는 세계적으로 전자·통신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수출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유럽 연합(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등 세계 경제가 지역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외에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등 투자를 늘려 나갔다. 특히 냉전 체제가 종식되자 여러 기업이 러시아, 중국, 동유럽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메모리 반도체와 생산 공장

1996년에 우리나라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통상 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외교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 투기 자본의 유입으로 외환 질서가 어지러워졌으며, 급격한 개방 정책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다.

1997년 우리나라는 외형적 확대에만 치중했던 몇몇 대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외환 위기를 맞이하였다. 정부는 국제 통화 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 통화 기금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대기업과 금융 기관들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들어갔으며, 정부도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국민들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외채를 줄이는 데 동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국제 통화 기금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이룩하였다. 또한 G20에 참여하여 세계 경제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정책 협력을 통해 회원 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한 국제기구이다.

G20
1997년 아시아의 외환 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9년에 결성된 모임이다. G20에는 선진국 중심의 G7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 경제국 12개국, 유럽 연합(EU)이 참여하였다.

역사 더하기 + 외환 위기

1달러=1,719원, 나흘 새 500원 폭등! 주가는 22포인트 급락

환율이 연 4일째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외환 시장 개장 3분 만에 거래가 중단되고,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등 금융 시장의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환율은 최근 나흘 동안 무려 500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지난해 말(844원 20전)에 비해 2배 이상 뛰어 각 기업과 가계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11일 외환 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3분 만에 상승 제한선인 1,719원 80전까지 단숨에 뛰어올랐다. – 경향신문(1997. 12. 12.)

외환 위기는 기업 경영과 금융의 부실이 드러나 대외 신뢰도가 떨어져 국외로부터 외환 차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으로 환율 상승의 압력이 가해지는 악순환을 겪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타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경제 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금융 기관의 부실,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 경영으로 말미암아 대기업의 연쇄 부도, 대외 신뢰도 하락, 단기 외채의 급증 등으로 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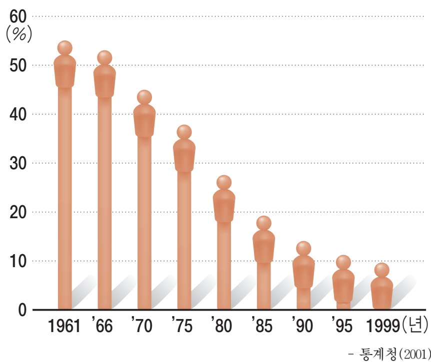
2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의료 보호 대상자인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병으로 장기 입원을 해야 할 경우, 보증인이나 간병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 병원들이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질병 대부분이 중풍, 암 등 난치병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한겨레(1997. 1. 23.)

●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탑골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



농촌 인구 비율의 변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농업 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로 변모하였다.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도시 거주 인구가 농촌 거주 인구보다 많아졌으며,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 인구의 과밀화,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지방 중소도시의 침체,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 등을 초래하였다. 도시 인구의 급증으로 주택 보급률이 낮아졌고, 대도시 외곽에는 빈민촌이 형성되었다. 정부는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활 공간을 잃게 된 서민들이 정부의 개발 정책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산업화에 따라 가족 구조, 인구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족 구조는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던 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하였다. 한편 향상된 생활 수준과 의료 혜택으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노령 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역사 더하기 + 광주 대단지 사건

1960년대 서울시는 철거민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착지 조성을 통한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 광주 중부면(현재 성남시) 일부가 광주 대단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전혀 조성하지 않았다. 이 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다. 이들은 1971년에 대지 가격 인하 및 분할 상환, 구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광주 대단지 사건). 이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도시 빈곤층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 빈민 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재개발 전 철거민의 천막촌(경기 광주)

노동 운동이 활성화되다

경제 개발 계획에 따른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성장에 치중하여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소홀하였고, 노동 조직은 정부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등 노동 운동을 억압하였다.

1970년 서울 동대문 평화 시장에서 재단사 전태일이 분신자살한 일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적극 가입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학생과 지식인들은 노동 야학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지원하였다. 동일방직 파업, YH 무역 노동자 농성, 강원 사북 광산 노동자 파업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두환 정부 시기에도 노동 운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사회 민주화와 함께 **노동 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노동 쟁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대기업과 사무직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민주노총 결성 대회(1995)

1991년에 우리나라는 국제 노동 기구(ILO)에 가입하여 국제 수준의 노동 규칙을 따르게 되었다. 1995년에는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이 결성되어 기존의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 시대를 열었다. 노동 운동의 활성화로 노동 조건은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청년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였다.



노동 운동의 상징, 전태일


전태일 동상(서울 종로)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 평화 시장으로 종업원은 3만여 명이 됩니다. …… 3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보조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7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저희의 요구는 하루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1일 10~12시간으로 단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 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을 50% 이상 인상해 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조영래, “전태일 평전”

1970년 무렵 서울 청계천 주변 봉제 공장에서는 어린 여공들이 허리조차 펴기 힘든 공간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였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기관지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치료조차 하지 못하였다. 전태일은 노동청과 청와대에 이와 같은 현실을 알리고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회의 높은 벽을 실감한 전태일은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하였다. 그의 죽음은 우리나라 노동 운동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새마을 운동

농업 환경이 변화하다

정부의 공업화 우선 정책과 저곡가 정책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날로 심해졌다. 농촌의 청년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농촌은 더욱 활기를 잃어 갔다. 정부는 1970년부터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강조하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쌀의 자급을 목표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기존 품종보다 30% 높은 통일벼를 개발, 보급하였다. 또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고 농민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자 이중 곡가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농업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과도한 영농 설비 투자,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한 등락은 농가 부채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1970년대에 농민들은 농민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추곡 수매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1976년 전남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요구는 지역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의 잘못된 농업 정책에 맞선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자 농민들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발효되면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 반대, 농산물 제값 받기, 쌀 시장 개방 반대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은 영농 방법을 개선하는 등 농촌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폐교 문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 분교 어린이 21명은 오늘 28일 정든 학교를 떠나 10리 밖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간다. 3년 전 벽돌로 멋지게 증축한 교실도 쓸모없게 됐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크다. 어린 자녀들이 통학 버스를 타고 해발 600m의 청우산과 불기산을 감돌아 겨울철에는 눈도 잘 녹지 않는 굽이길을 매일 오르내려야 할 판이다. – 동아일보(1994.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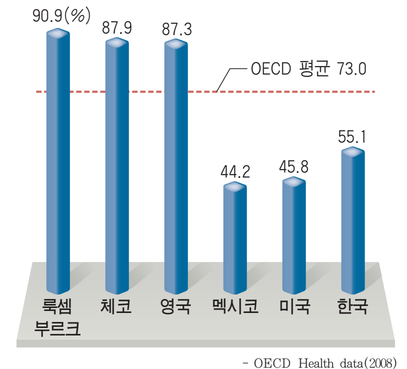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 탈농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촌에서는 취학생 수가 줄어들어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교육 재정의 부담 등을 들어 폐교 조치를 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폐교가 오히려 농촌 인구를 감소시키는 한 원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폐교와 시설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다

산업화가 진전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개인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보장 제도**가 계속 확충되고 있다.



OECD 국가 의료비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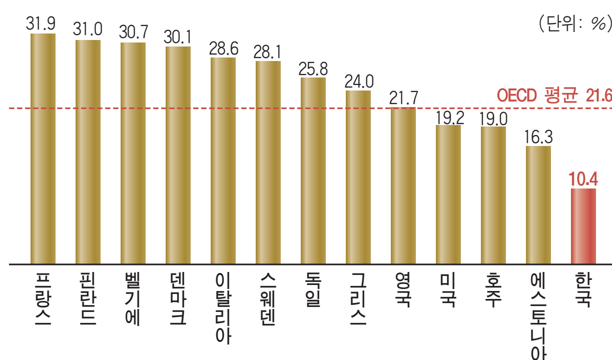
의료 보험 제도는 1977년 의료 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었고, 2000년에 국민 건강 보험으로 통합되었다. 국민 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고, 1999년에 도시 거주 자영업자가 가입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직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1995년부터 고용 보험 제도가 실시되었다.

한편 1997년 외환 위기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공공사업을 일으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빈민층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해 있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업률이 늘고 소득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가족 관계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여성의 지위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배려하자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촉진법 등 장애인 관련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역사 더하기 — 국제 사회와 비교해 본 한국의 복지 수준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 전체 부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최저 생활비조차 벌어들이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은 약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4년 OECD 국가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 복지 지출

3 대중문화의 발달

강원도 인제군은 맞춤형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 시스템 가동을 위해 각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군정 홍보와 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수렴하고 개선하는 소통 도구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 강원도민일보(2011. 8. 29.)

● 행정 기관들이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무엇일까?



누리소통망서비스로 소통하는 사회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다

광복 이후 신문 발간 현황
1946년 5월 28일 당시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은 242종에 이르렀다. 이해 9월에는 일간지 57종, 주간지 49종, 통신 13종 그리고 월간·격월간지 154종 등으로 정기 간행물의 수가 무려 274개로 늘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언론 통제 아래 있었던 대중 매체는 광복 이후 양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신문, 잡지의 종류와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4·19 혁명 이후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신문사가 설립되었다. 신문 발행 부수가 늘어나면서 **신문의 언론 기능**도 점차 **강화**되었다.

1950년대 민간 라디오 방송이 송출되었고, 1960년대 전반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이 설립되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뉴스, 연속극, 오락 프로그램, 스포츠 등을 방송하면서 영향력을 키워 갔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은 정치권력의 탄압과 통제를 받기도 하였다. 5·16 군사 정변 직후 박정희 군부 세력은 언론 기관을 일제히 정비하였다. 1980년에 전두환 군부 세력은 언론을 통폐합하여 지방 각 도에 1개의 일간지만 남기고 서울에는 조간·석간신문 3개씩만 남겼다. 또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은 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의 통제 아래 놓였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언론 노조가 결성되고 언론의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로써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언론 자체가 권력화**하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역사 더하기 +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1974년에 박정희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기로 했던 회사들이 무더기로 해약하였다. 이에 동아일보사는 광고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백지로 내보내거나 아예 전 지면을 기사로 채워 버렸다. 이 사건을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라 한다.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는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정부의 언론 개입에 반대하며 자유 언론 수호 대회를 열고 그 결의문을 신문에 게재한 것이 원인이었다.



광고란이 비워진 채 발간된 동아일보

대중, 문화를 소비하다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대중문화가 빠르게 유입되었다. 대도시의 중심가나 미군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식 춤과 노래가 유행하였다. 특히 6·25 전쟁 이후에는 감상적이고 비탄에 젖은 대중문화가 함께 나타났다.

1960년대 경제가 성장하면서 미국 중심의 서구 문화가 더욱 급격하게 유입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적 정서를 담은 가요와 영화가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1960년대 영화는 향토색 짙은 한국적 정서를 담거나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황을 그려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다.

1980년대 컬러텔레비전과 VCR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영상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영화는 한때 침체기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제작되면서 다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 국제 영화제

대중음악의 경우 전통적인 트로트 계열의 가요가 유행하는 가운데, 1970년대에는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포크 송 양식의 대중가요가 정부의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청소년층이 대중가요의 주된 소비층으로 등장하면서 방송 매체나 음반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가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K-pop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광복 이후 대중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서구 문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전통적 가치 규범이 파괴되고 대중문화가 물질적이고 향락적인 모습을 띠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 사회의 질서가 빠르게 해체되고 가치관의 혼란이 오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있었다.

역사 더하기 — 정부의 대중가요 통제 정책, 금지곡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레코드 표지

1975년에 정부는 공연 활동 정화 대책을 발표하여 모든 공연 예술의 심의를 강화하였다. 특히 대중가요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래 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패배·자학·비관적인 내용, 선정·퇴폐적인 것들을 골라내어 음반까지 폐기하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한국 문화 윤리 위원회는 국내외 대중가요에 대한 재심사 작업에 착수하여 국내 가요 222곡, 외국곡 261곡을 금지곡으로 확정·발표하였다.

당시 유행했던 가요 중 이장희의 '그건 너'는 책임 전가,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부정적 표현이 들어간 가사, 송창식의 '왜 불러'는 퇴폐적이며 시의 부적절, 신중현의 '미인'은 창법의 부적절,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신 풍조 조장, 배호의 '0시의 이별'은 통행금지 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음반 발매 및 방송 송출을 금지하였다.

인터넷으로 세상과 연결되다

1960년대부터 일반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자식 전화기의 보급으로 1가구 1전화기 시대가 열렸다. 1990년대부터 개인용 휴대 전화가 보급되어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2000년대 이후 휴대 전화가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이 보급되었다.

컴퓨터는 초창기에 일부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컴퓨터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타자기를 대체하였고, 표 계산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주판과 단순 계산기를 밀어냈다. 또한 컴퓨터는 교육과 게임 분야에서도 그 영역을 크게 넓혀 나갔다.



인터넷을 통한 학습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 업무나 상거래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의 검색과 공유는 물론 지식을 새롭게 창출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전기 통신과 결합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신망이 개척되었다. 인터넷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양하고 빠른 정보 검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신문이나 방송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였던 것과 달리 인터넷은 쌍방향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 산업과 전자 통신망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분야가 크게 부각되었다. 누리소통망서비스는 불특정 다수가 온라인에서 인맥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대인 관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또한 상거래에도 변화를 주었으며, 특히 휴대 전화와 결합하여 **정치·사회적 여론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단원 마무리

1. **경제 개발 계획의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서술해 보자.**

(1) 제1·2차 경제 개발 계획:

(2) 제3·4차 경제 개발 계획:

2. **다음 자료를 보고 (나)의 입장에서 (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가) 정부는 포항과 같은 제2의 종합 제철 공장 건설을 앞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또 대단위 기계 종합 공업 단지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중화학 공업 정책을 선언하고 이 방면에 중점적인 지원과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1973. 1. 12.)

(나) 저희들은 근로 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진정서(1969. 11.)

조건 근로 기준법의 개념을 포함하여 쓸 것

심 화 주 제

경제 성장의 명암

자료 1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 경제



항구에서 선적 대기 중인 자동차



조선소에서 제작 중인 선박

한국 무역 협회 국제 무역 연구원은 UN 상품 무역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2009년 우리나라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조사'를 발표하였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선박, LCD,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총 74개로 전년도에 비해 16개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업종별 세계 1위 품목으로는 화학 17개, 철강 16개, 섬유 14개, 비(非)전자 기계 8개 등으로 나타났다.

– 머니투데이(2011. 7. 7.)

자료 2 경제 성장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금융 회사 사무직에 취직했고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게 88만 원 세대인 건가요? 보통 집에서 일어나는 건 4시 30분, 5시 40~50분에 나오고요. 집에서 회사까지는 두 시간 거리고 아침 7시 50분까지 출근합니다. 끝나는 건 보통 8~9시. 정리하고 집에 가면 10시 반~11시 넘거나. 보통 엄마가 보고 있던 드라마가 끝나갈 때 들어가요. 토요일도 일하고요, 가끔 일요일도 나오라고 그래요. 사는 지역에 일자리는 없고 자취할 형편도 안 돼서 서울까지 나오는데, 월급이 133만 원 들어왔어요.

– http://pann.nate.com/talk/315982437(2012. 6. 8.)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는 취업 준비생

활동 1 자료 1에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활동 2 자료 2에서 말하는 이른바 '88만 원 세대'의 의미를 조사해 보자.

05 북한 사회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이 단원에서는 >> 1. 분단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 과정과 체제 위기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2. 1970년대 이후 추진된 통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3.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평화 통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 북한 세습 체제의 확립

북한은 김일성을 현재 우상화하다 못해 완전히 신격화하고 있다. 한 예로, 김일성은 모든 재앙의 구세주로 창조되고 있다. 민청호 558호가 폭풍으로 3일간 표류하는 동안 그 선원들은 김일성의 초상화 앞에서 구원될 것을 다짐하고 김일성의 항일 행적을 적은 책자를 읽어 마침내 불사조로 귀환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 경향신문(1963. 12. 16.)

● 김일성의 우상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을까?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는 북한 주민들

김일성 독재 체제를 구축하다

북한에서는 광복 직후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경쟁하였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국내 공산주의 세력과 허가이 등 소련파, 김두봉과 무정의 중국 연안파, 김일성의 만주파, 박금철의 갑산파 등이 정치적 파벌을 형성하였다. 김일성 세력은 소련군의 후원을 받으며 북한 권력의 주도적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6·25 전쟁 직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 북한의 재건과 향후 국가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6·25 전쟁의 실패를 이유로 남로당을 숙청하였고, 이어 외세 의존적이라는 이유로 연안파, 소련파 등 반대 세력을 차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김일성은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이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주체사상**을 내세웠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강화하여 김일성을 신적인 절대 권력자로 만들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주민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방하면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 독재 체제는 북한 체제의 안정을 가져왔지만, 사회적 폐쇄성과 경직성을 초래하였다. 이는 시대적 변화 및 외부 환경에 대한 체제의 대응력을 약화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안파
중국 연안(延安, 옌안)을 중심으로 항일 투쟁을 하다가 광복 후 입북한 조선 의용군 출신의 정치 집단을 말한다.

갑산파
1930년대 조국 광복회를 중심으로 함북 갑산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로서, 광복 이후부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파와 함께 북한 정치를 주도하였다.



주체사상탑

3대 세습 체제를 형성하다

북한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후 김일성의 독재 권력을 공식화하는 개헌을 단행하였다. 김일성은 신설된 국가 주석의 지위에 추대되었으며, 주체사상은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공식 통치 이념이 되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김정일은 1970년대부터 권력 기반을 굳혔고, 주체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지속적 충성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군사 최고 사령관, 국방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권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이른바 유훈 통치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통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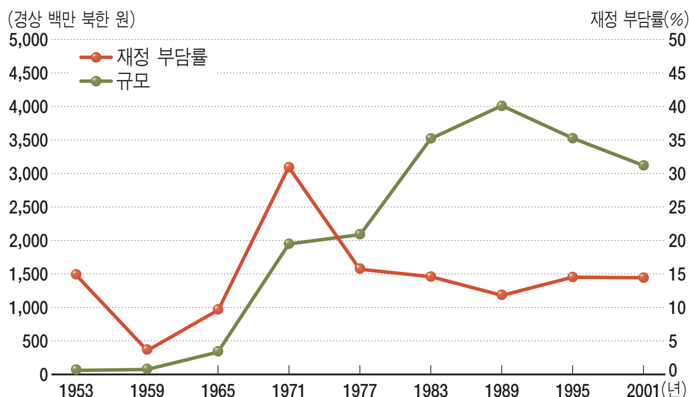
유훈 통치
이전의 지도자가 생전에 남긴 훈계나 뜻에 따라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은 후 3년간 김일성의 유훈을 내세우며 북한을 통치하였다.

1998년 북한에서는 헌법이 개정되어, 김정일이 국방 위원장의 지위를 차지하며 통치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북한은 형식적으로 국가 권력의 분산과 집단 지도 체제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 영도 체제를 형성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권력의 근간을 당보다 군에 두었다. 북한은 군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이용하여 경제 회복을 꾀하고, 군 조직을 활용하여 사회 통제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군사력의 우위를 내세워 남한과의 경쟁에서 경제적으로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려 하였다.

2010년에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 체제 구축과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김정은은 당 중앙 군사위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군부 세력의 충성을 유도하였다.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북한 국방 위원회 제1 위원장에 올라 실질적으로 북한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3대 세습 체제**를 **확립**하였다.

역사 더하기 — 북한 군사비의 변화



- 성채기, '북한 공표 군사비 실체에 대한 정밀 재분석'(2006)

북한의 군사비 재정 부담률 변화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 수호의 보루이자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외적으로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전체 재정 규모 중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다.

2 북한의 경제 변화

1959년 3월 8일 북한은 강선 제강소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자'는 구호 아래, 사회주의적 경쟁 운동 성격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천리마 운동)'을 전 북한 지역에 전개하였다. 천리마 운동은 1956년 12월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있었던 김일성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라는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을 전개한 까닭은 무엇일까?



천리마 운동 포스터

군사 경제 병진 정책을 추구하다

북한은 6·25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경제 건설 계획(1954~1961)을 추진하였다. 또한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하여 천리마 운동과 3대 혁명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제 발전을 지연하더라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군사 경제 병진 정책**을 내세웠다. 이때부터 북한의 군사비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총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 경제 병진 정책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었다.

군사 경제 병진 정책의 문제점
첫째, 기계 화학 공업이 군수 산업에 종속됨으로써 북한의 경제 구조에서 군수 산업과 민수(民需) 산업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둘째, 군수 산업 부문에 투자 재원이 집중되어 민수 산업의 성장이 더디어졌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 셋째, 군수 산업이 국방 경제에 한정하지 않고 민수 산업 분야에까지 침투하여 군수 산업이 특권 경제 세력으로 변질되어 갔다.

1970년대 북한은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술 혁명을 진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과 시설을 도입하려 하였다. 하지만 계획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국제 수지 악화로 무역 대금 지불을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적 신용이 크게 떨어졌고 외채 문제도 심각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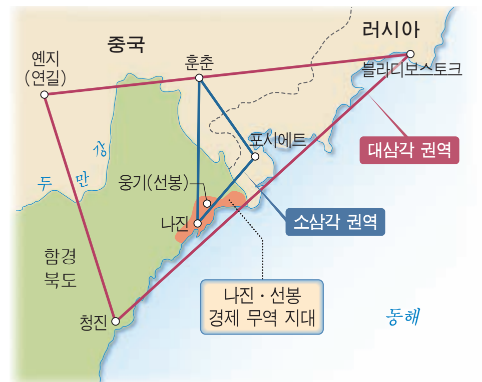
북한은 1980년대에 경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에너지 원료 산업과 철도 운송 부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대외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10년 동안 외국 기업의 투자 실적은 1억 달러에 불과하였고, 그중 80%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기업이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다

1990년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국제 교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겹치면서 북한 경제는 식량, 에너지, 생필품, 외화 획득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속출하며,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이른바 주체 농법의 실패, 사회주의적 집단 영농 방식에 따른 농업 생산력의 침체 등이 원인이었다.

북한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1년에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경제 무역 지대**를 설치하고 외국 자본과의 합작 및 직접 투자를 적극 추진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 자본의 제한적 투자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나진·선봉 경제특구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외형상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시장 경제 요소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신의주 특별 행정구 기본법, 개성 공업 지구법, 금강산 관광 지구법 등을 제정하여 경제특구를 확대하려 하였다. 그러나 신의주 행정 특구 설치는 중국과의 갈등으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개성 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 지구만 한국의 단독 자본 투자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은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으로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 조치를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국외 자본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재개발하고자 나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국가 개발 은행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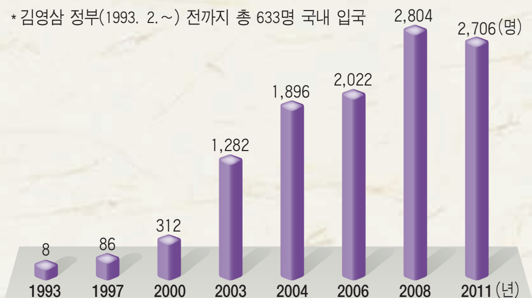
탐구 활동 북한의 인권 현황과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

자료 1 북한 주민의 인권 현황

국제 사회는 북한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약,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종교의 자유 탄압, 거주 및 여행의 자유 제한, 성분 분류에 따른 인민의 차별 대우 등을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생존을 위하여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다. 식량난이 심해질수록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탈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자료 2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



북한 이탈 주민 수 추이

2000년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한 까닭을 말해 보자.

3 통일을 위한 노력

대한 적십자사 관계자는 16일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가 활성화된 이후나 통일이 된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영상 편지를 제작한다."라고 밝혔다. – 뉴시스(2012. 7. 16.)

● 분단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을까?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다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 직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내세우며 북한의 적화 통일론에 맞서 **북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6·25 전쟁 직후에는 북진 통일론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남북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내세우는 조봉암의 진보당을 탄압하기도 하였다.

4·19 혁명 직후 혁신계 정당들은 **남북 협상**과 **중립화 통일안**을 제시하였다. 민간에서도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 적극적인 남북 교류를 주장하였다. 한편 장면 내각은 통일 정책으로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한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내세웠다.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고조되는 통일의 열망
1961년 5월에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남북 학생 회담 개최를 요구하였다.

5·16 군사 정변 이후에는 군사 정부가 수립되어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혁신계 정당들의 제의는 일축되었고, 군사 정부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을 유일한 통일 방안으로 재확인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을 내세워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한 국력 증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68년 무장 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등으로 남북한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조봉암의 통일론

이제는 북한이 남침을 한다는 것도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인 동시에 …… 우리가 북진을 한다는 것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소련 또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있어 전면적인 전쟁을 유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곧 세계 전쟁을 일으킨 후 비로소 한국의 통일 문제를 의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론이 되는 것이다. – "중앙정치"(1957)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진보당은 당시 금기시되던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과 그 배후의 소련·중국이 주장하는 중립국 감시 위원단 감시하의 총선거안과 같은 주장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통일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국제 정세는 양극 체제가 붕괴될 조짐이 보였다. 또한 미·소·중·일 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등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기운이 조성되었다.

1971년에 남한의 제의에 따라 남북 적십자사 회담이 개최되면서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고위 당국자 간의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간 합의 문서인 **'7·4 남북 공동 성명'** 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해에 남북한에서 각각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의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1973년 박정희 정부는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으로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을 발표하고 이산가족 편지 교류 및 상봉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의 수해 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후 남북 경제 회담, 적십자 회담, 국회 회담, 체육 회담 등이 성사되었으며,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제공한 수해 원조 물자(1984)

탐구 활동 7·4 남북 공동 성명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이후락

1. (남북)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적십자 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1. 7·4 남북 공동 성명에 제시된 통일의 3원칙을 써 보자.
2.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이후 남북한에서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조사해 보자.

공존과 협력 관계가 조성되다

1990년대에 한국은 북방 외교를 펼쳐 소련 및 동유럽,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 무렵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면서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는 북한에 남북 연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남북한은 상호 상대방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에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수립이라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수재로 식량난을 겪게 되자 쌀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를 통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북 정상 회담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김대중 정부는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0년 평양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이산가족 방문 재개 등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계승하고, 이전에 합의한 개성 공단 사업을 실현하여 남북 교류를 확대하였다. 또한 2007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명박 정부 수립 후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악화되었다. 더구나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켜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역사 더하기 —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 기본 합의서 교환

민간 교류가 확대되다

남북한의 민간 교류는 통일을 원하는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1980년대에는 체육 회담, 예술 공연단의 교환 방문 등이 이루어졌고, 1995년과 이듬해에는 북한이 수해를 입자 북한 동포를 도우려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남북한의 민간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민간 교류가 식량 구호 단계에서 개발 협력의 단계로 전환되었고, 민간 교류의 사업 분야와 교류 대상도 다양화되었다.


개성 공단 입주(2004)



금강산 육로 관광 실시(2003)


정주영의 소 떼 방북(1998)


남북 단일 탁구팀의 우승(1991)



중단원 마무리

1. 2000년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남북한의 교류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정부 차원의 교류:

(2) 민간 차원의 교류:

2. 다음과 같은 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한 사이에 추진된 교류와 협력의 내용을 써 보자.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 남과 북은 올해(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6. 15.)

06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협력

이 단원에서는 >> 1.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역사와 국제법을 근거로 들어 말할 수 있다.
2. 일본의 한·일 관계사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3. 중국이 만주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1 동아시아의 갈등

홍콩 민간단체인 댜오위다오 보호 행동 위원회는 활동가들이 카이펑 2호 선박을 타고 2012년 8월 15일 오후 5시쯤 센카쿠 열도에 상륙했다고 밝혔다.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해 온 이 위원회는 "활동가들이 중국 국기를 꽂고 중국 국가를 제창했다."라고 하였다. – 한국경제(2012. 8. 16.)

● 중국인들이 '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조어도(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에 접근하는 중국 선박

해양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다

21세기에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및 경제 성장, 일본의 장기간 경기 침체로 세력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민족주의가 고양되면서 영토와 역사 문제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는 해양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갈등으로는 한국·중국·일본의 대륙붕 개발 분쟁, 중국과 일본 사이의 조어도(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분쟁,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 4도 분쟁,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관련된 난사 군도와 시사 군도 분쟁이 있다. 이와 같은 분쟁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지역의 해양 경계와 도서 영유권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자원 확보 경쟁**과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해양 분쟁

주변 국가들이 영토 문제로 대립하다

동중국해 상에 위치한 조어도(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는 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현재 일본과 중국, 타이완이 영유권 분쟁

을 벌이고 있다. 조어도에는 석유, 가스 등 중요한 천연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1885년 이전까지 주인이 없는 섬이었으며, 1895년에 일본 영토로 공식 편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원래 중국의 영토이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반환되었어야 할 섬이라 주장하고 있다.

난사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의 중심에 있다. 난사 군도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해상 교통과 군사 전략상 수송을 포함하여 전 세계 해상 수송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천연가스 등 양질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난사 군도의 영유권 문제는 이 해역에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각되었는데,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이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다.



난사 군도

북방 4도(남쿠릴 열도)는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본은 1855년 러·일 통상 우호 조약 체결 이후 북방 4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였고,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사할린 남부 지역까지 차지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막바지에 소련이 대일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함으로써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수중에 넣었다. 두 나라는 지금 네 섬의 귀속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해양 영유권 분쟁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가 애매하게 이루어진 데서 유래하였다. 해양과 대륙붕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부근의 작은 무인도에까지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역사 더하기

영토 분쟁을 해결한 영국과 에스파냐

영국과 에스파냐가 지브롤터를 둘러싼 300여 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에스파냐 외무 장관과 영국의 유럽 담당 장관, 지브롤터 수석 장관은 (2006년 9월) 18일 지브롤터 공항 공동 이용 및 협력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역사적 협정에 서명하였다. 지브롤터는 에스파냐 남단의 바위 곶으로, 영국과 에스파냐가 300년간 주권 논쟁을 벌여 왔다. 1703년 영국·네덜란드 연합 함대가 에스파냐의 영토였던 지브롤터를 점령한 뒤, 에스파냐는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지브롤터를 공식적으로 영국에 양도했으나 이후 주권 회복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은 지브롤터에 대한 에스파냐 당국의 항공, 육상, 통신 관련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였다.

– 국민일보(2006. 9. 19.)



지브롤터

영국과 에스파냐는 오랫동안 이어진 영토 분쟁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여 다른 지역의 분쟁 해결에 모범을 보였다.

2 역사 인식의 충돌

후소샤 교과서 최종본에는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바다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 이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 개의 팔뚝이 돌출되어 있다. 그것이 조선이다. 조선 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배후지가 없는 섬나라 일본은 자국의 방위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했다."라고 적혀 있다.

– 연합뉴스(2001. 5. 8.)

● 일본은 왜 한반도가 일본을 위협한다고 생각할까?



후소샤 역사 교과서를 보고 있는 일본 학생들

역사 교과서 문제가 대두하다

일본과 주변의 나라들은 역사 교과서 기술을 둘러싸고 충돌하였다. 1982년 일본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한국의 3·1 운동을 '폭동',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등의 여론을 자극하여 외교 문제로 비화하였다. 이때 한국에서는 극일 운동이 일어나 국민 모금으로 천안에 독립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기술이 주변 여러 나라를 배려하는 쪽으로 개선되자, 일본의 우파 정치인과 지식인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들이 만든 후소샤의 교과서는 전쟁의 책임을 부정하고 일본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주변의 나라들이 강력히 반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일본은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해 안에 표시하였다. 이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고이즈미 전 총리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국왕을 위해 전사한 군인을 이른바 '호국의 영령'이라 부르며 추도하는 곳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메이지 유신 무렵부터 제2차 세계 대전까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비롯하여 모두 246만 명이 합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도 포함되어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일어나다

일본의 우익 정치가, 특히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일본인 모두가 야스쿠니 신사를 당당하게 참배함으로써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을 드높이자."라고 말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는 일본 정부와 사회가 과거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일부 일본인 사이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는 국왕 중심의 민족주의가 갖는 위험성과 왜곡된 역사 인식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 고대사 인식을 둘러싸고 갈등하다

한국과 중국은 민족과 역사의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2002년부터 5년 동안 중국 사회 과학원을 중심으로 동북 3성, 즉 랴오닝 성, 지린 성, 헤이룽장 성 등의 역사, 지리, 민족, 경제, 미래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동북 공정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다.'라는 연구가 부각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학계와 국민은 중국의 자국 중심적 고구려 인식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2004년에 한국과 중국은 고구려사를 정치 문제로 확대하지 않고 학술 교류를 통해 극복한다는 구두 양해 각서를 발표하였다.



중국 사회 과학원(중국 베이징)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발해에 대해서도 당에 조공을 했던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국가로 한국사의 일부라고 반박하고, 중국에 조공을 했다고 해서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구려사와 발해사 등을 둘러싼 역사 갈등은 학문 연구와 학술 교류, 상호 이해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제4회 역사 NGO 세계 대회(2011)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미주 등에서 여러 학자와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 청소년 등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평화와 공존을 위해 갈등을 화해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한·중 양국 구두 양해 5개항(2004. 8.)

1.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 현안 문제로 대두된 데 대해 중국 측이 유념하고 있다.
2. 양측은 향후 역사 문제로 인해 한·중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1992년 8월의 한·중 수교 공동 성명 및 1993년 7월 양국 정상 간 공동 성명에 따라 전면적인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 양측은 한·중 협력 관계라는 커다란 틀 아래에서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한다는 데 공동 인식을 같이한다.
4. 중국 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5. 양측은 학술 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면서 학술 교류와 양국 국민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

고구려사를 둘러싼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미래사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다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의 각료 회의로 출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해 있다.

ASEAN+3
동남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위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에 한국, 일본, 중국이 참가하여 만든 동아시아 협력 기구이다.

현재 동아시아는 매년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와 ASEAN+3, 동아시아 정상 회담 등을 개최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중·일은 서울에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은 서로 국익이 충돌하는 데다가 역사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다른 지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유럽의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유럽 공동체의 중심 내용은 경제 통합을 통한 냉전 극복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은 냉전으로 동서로 분단되었다. 이러한 분단을 극복하고자 독일과 프랑스가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분단국 독일과 프랑스는 방위와 경제 통합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하였다.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프랑스와 독일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역사적인 대립 구조를 상호 의존 구조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역사 교과서



한·중·일의 공동 역사 교과서(2005)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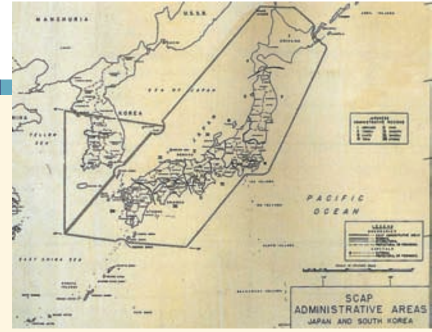
>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이 책의 편찬 지침은 유럽 통합과 양국 교육 제도의 발전,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력에 힘입은 것이이다. 또한 이 편찬 지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결과이다.
>
> –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서문

1. 영토 문제 등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역사적 갈등을 조사해 보자.

2.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역사 갈등의 해결 방안을 서술해 보자.

심화 주제

독도, 동해를 지키는 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관련 지도

독도는 1905년 러·일 전쟁 중 일본에 불법적으로 편입되었다가 제2차 세계 대전 후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 독도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에 따라 일본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946).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고자 국제 사회에서 로비 활동을 펼쳤으나, 연합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 10월 현재 독도에는 20여 명이 주민 등록을 두고 있다. 독도 경비 대원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고, 등대와 방사능 감지기 등도 운용하고 있다. 또 울릉도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선이 운행되고 있어서 매년 독도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독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독도 경비 대원

자료 1 연합국 자료에 나타난 독도

-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 "약간의 주변 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관한 각서"(1946)
  3. 이 각서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와 약 1천여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로 구성된다. ……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 등이다.
-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
  제3항 연합국은 일본이 과거에 영유권을 획득하였던 한국 본토와 주변의 모든 섬과 그 밖의 섬들을 일본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에 완전히 이양할 것을 합의한다.

자료 2 일본 법령에 나타난 독도

- 대장성령 4호(1951. 2. 13.)
  구령에 의해 공제 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를 제외한 섬을 말한다.
  ②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 총리부령 24호(1951. 6. 6.)
  정령 제14조의 규정에 근거, 정령 제291호 제2조 1항 2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에는 부속 도서로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말한다.
  ③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활동 1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자.

활동 2 일부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07 세계 속의 한국

이 단원에서는 >> 1.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유대 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원동력을 말할 수 있다.
3.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1 높아진 한국의 위상

G20 정상 회의는 재정 공조, 금융 규제 등의 문제에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 내는 기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한 것입니다. – G20 서울 정상 회의 홈페이지

● 한국이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였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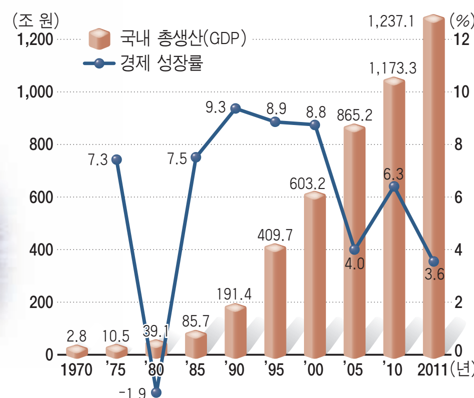
2010 G20 서울 정상 회의 개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를 가리켜 **압축 성장**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 소득이 1960년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대하였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첨단 기술의 개발 및 환경 산업, 바이오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 서비스 등 취약 부문은 인재 육성, 제도 개선, 선진국과의 교류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가동 중인 석유 시추선 두성호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률
2011년 한국의 경제 규모는 국내 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15위에 올라 있다. 정유, 반도체, 철강, 광역 통신망 등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제 사회에 적극 참여하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정치·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외교 활동은 대부분 석유 등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이 제3 세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하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보다 더 많은 국가와 수교하고자 노력하였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도 점차 커져 갔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걸맞은 활동을 요구하는 국가와 단체들이 많아졌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OECD 가입 등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189개국과 수교하여 국가적·민간적 차원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냉전 체제가 해체되어 가던 1990년 이후 과거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가 크게 늘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연합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5년에 이어 2012년에도 유엔 총회에서 2년 임기의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에 연임되었다. 이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다.

약칭	기구명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BIS	국제 결제 은행
FAO	유엔 식량 농업 기구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IBRD	국제 부흥 개발 은행
IEA	국제 에너지 기구
ILO	국제 노동 기구
IMF	국제 통화 기금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PCW	화학 무기 금지 기구
PCA	상설 중재 재판소
UNCTAD	유엔 무역 개발 회의
UNESCO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UPU	만국 우편 연합
WHO	세계 보건 기구
WTO	세계 무역 기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



OECD 가입 축하 연설을 하는 김영삼 대통령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에 선진국 진입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하였다. OECD는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선진 공업국들이 모여 합의에 따라 세계 경제의 현안에 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경제 기구이다.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06년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반기문은 2012년에 연임이 확정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 현안을 논의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국제 사회에 공헌하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제 사회에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파견 국가	역할
소말리아(1993. 7.~1994. 3.)	교량 및 도로 보수, 대민 지원
서부 사하라(1994. 8.~2006. 5.)	각종 의료 지원
조지아(1994. 10.~2009. 7.)	압하지야와의 휴전 협정 이행 감시
인도, 파키스탄(1994. 11.~현재)	카슈미르 분쟁 지역 정전 감시
앙골라(1995. 10.~1996. 12.)	교량 및 도로 보수, 대민 지원, 정전 감시
동티모르(1999. 10.~2003. 10.)	동티모르 안정 회복, 독립 정부 수립 지원

우리나라의 평화 유지군 파견 참여(일부, 국방부)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였다. 우리나라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지원한 것은 1991년 걸프 전쟁 때부터로, 당시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국군 의료 지원단을 파견하였다. 1991년 9월에 유엔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3년 소말리아에 상록수 부대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1년 7월 현재 전 세계 14개국에 1,400여 명을 파병하여 지역 재건, 의료 지원, 치안 유지 및 평화 정착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날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추적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금융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 참여하여 **선진국 및 신흥 개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국제 평화 정착, 환경 보전, 빈곤 퇴치, 재난 복구 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1년에는 부산에서 세계 개발 원조 총회를 개최하여 원조를 통해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국제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하여 지구촌 환경 보존 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제4회 부산 세계 개발 원조 총회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세계 개발 원조 총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세계 160여 개국 정부 대표와 70여 개 국제기구 및 NGO 단체장들이 모여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2 지구촌의 한국인

일본 유학 중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 남성을 구하다 숨진 고(故) 이수현 씨의 10주기 추모 행사가 한·일 양국에서 열렸다. 201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지요다 구에서 이 씨의 부친과 모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개최되었다.

– 연합뉴스(2011. 1. 27.)

● 일본인들이 고(故) 이수현을 추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故) 이수현 10주기 추모식

인력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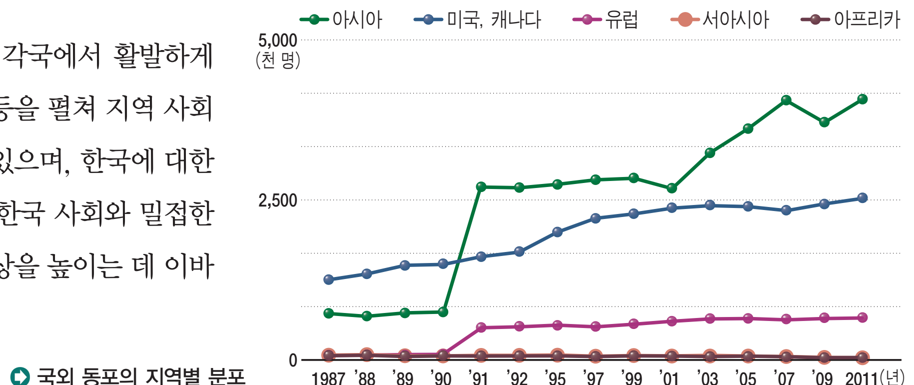
1962년 국외 이주법이 제정되면서 합법적인 국외 이민이 시작되었다. 이해에 브라질로 농업 이민 92명이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는 브라질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차후 브라질 이민에 장애가 되었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브라질 정부가 요구하는 농업보다는 상업과 제조업 분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정희 정부는 외화를 획득하고자 **이민이나 국외 이주**를 **장려**하였다. 정부는 1966년에 서독과 특별 고용 계약을 맺고 간호사 3천 명, 탄광 광부 3천 명을 파견하였다. 1977년까지 진행된 파견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와 간호사 등은 대부분 귀국하였으나 일부는 그곳에 정착하여 한인 사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독일에 파견된 탄광 광부

1965년에 미국이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미국으로의 이민도 활성화되었다. 이후 매년 2만여 명의 한국인이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이민을 하여 **한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꾸준히 증가하던 미국 이민자 수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자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봉사, 의료운 활동 등을 펼쳐 지역 사회에서의 지위를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외 동포의 지역별 분포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교류하며 세계 속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국제 분쟁 및 자연 재난, 환경 문제, 기아, 의료 등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예술, 스포츠,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

한국을 빛낸 사람들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는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경기 대회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 대회 유치 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약하였다.



김순권 박사
'옥수수 박사'라고도 불리는 김순권 박사는 아프리카에 옥수수 재배 기술을 가르쳐 주어 식량 자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박지성 선수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 대회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여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성악가 조수미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는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있다.



이태석 신부
이태석 신부는 생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그곳 주민을 위해 헌신하였다.





백남준과 비디오 아트 '다다익선'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한류에 열광하다



드라마 '대장금'

1988년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경기 대회의 개최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가 한국의 스포츠와 문화에 주목하였다. 또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연이어 배출되자 세계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1990년대부터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과 일본에 수출되면서 드라마, 대중음악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 일자, 2000년 2월 중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한류'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한국 대중문화 열풍은 중국뿐만 아니라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김치, 고추장, 라면, 가전제품 등 한국 관련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한국 대중가요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과 남미, 중동 지역까지 퍼져 나가 세계 각국에서 사랑을 받으며 드라마 한류 열풍을 이어갔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K-pop이라 불리며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춤을 추는 외국인들


중단원 마무리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63억 명의 세계를 만약 100인의 마을로 축소한다면 그중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으며 15명은 비만입니다. 모든 에너지 중 20명이 80%를 사용하고, 80명이 20%를 나누어 가집니다. 또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
> – 이케다 가요코, "만약 세계가 100인의 마을이라면"(2002)

1. 우리나라 국민은 대체로 100인 중 어디에 속할지 말해 보자.

2.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서술해 보자.

연표로 정리하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


▲5·18 민주화 운동



▲G20 정상 회의

1945	광복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에서 벗어났다.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 총선거를 통해 ❶ □□ 국회가 구성되었고, 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대내외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1950	❷ □·□□ □□ 발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3년간 동족상잔의 비극이 계속되었다. 1953년 7월에 휴전하였다.
1960	4·19 혁명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일어났다. 혁명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❸ □□ □□ 정부가 들어섰다.
1961	5·16 군사 정변	박정희 등이 군사력을 앞세워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박정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72	❹ □·□ □□ □□ □□ 발표, 유신 헌법 선포	냉전이 해체되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가 평화 통일 원칙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유신 개헌안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였다.
1980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❺ □□□□□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신군부 세력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1987	6월 민주 항쟁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과 ❻ □□□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199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하는 등 국제 정세가 변하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1996	❼ □□ □□ □□ □□(OECD) 가입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통상 정책의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2000	❽ □□ □□ □□ 성사	분단 이후 최초로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남북 협력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	G20 정상 회의 개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단원 마무리

수행하기

모둠별로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여, 관련 지역을 찾아 답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❶ 답사 계획 세우기

1. 4~6명씩 모여 모둠을 만든다. 각 모둠은 대표를 선출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2. 모둠별로 답사 주제를 선정하고, 각 모둠원은 관련된 자료를 도서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수집한다.
3.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정리하고, 답사 일정을 계획한다.
4. 각 모둠별로 선정한 지역을 답사한다.
5. 답사 내용을 정리하고 사진 등을 붙여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❷ 답사 보고서(예시)

답사 보고서	
1. 답사 일정	201○년 ○○월 ○○일
2. 답사 주제	5·18 민주화 운동
3. 답사 장소	전남 대학교 정문, 옛 전남도청 정문, 국립 5·18 민주 묘지 등
4. 답사 준비 과정	• 답사 전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기 •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별 전개 과정 살펴보기 • 답사 장소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사진 자료 수집하기 • 준비물 점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 필기구, 카메라, 녹음기 등
5. 답사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답사 수행: 일자별로 사건이 전개된 중심 지역을 답사하고 사진 자료를 확보하였음. • 보고서 작성: 모둠별 토론을 통해 사진을 붙이고 연표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역사 연표


▲탁자식 고인돌


▲가야의 뿔 모양 토기


▲백제 사신('양직공도')


▲충주 고구려비

한국사

- **70만 년 전** 구석기 문화
- **8000년경** 신석기 문화
- **2333** 고조선 건국
- **2000~1500년경** 청동기 문화 보급
- **194** 위만 조선 성립
- **108** 고조선 멸망, 한 군현 설치
- **57** 신라 건국 ("삼국사기")
- **37** 고구려 건국 ("삼국사기")
- **18** 백제 건국 ("삼국사기")
- **42** 가야 건국("삼국유사")
- **53** 고구려, 태조왕 즉위
- **194** 고구려, 진대법 실시
- **260** 백제, 16관등과 공복 제정
- **313** 고구려, 낙랑군 축출
- **356** 신라, 내물 마립간 즉위
- **372** 고구려, 태학 설치
- **373** 고구려, 율령 반포
- **384** 백제, 불교 전래
- **427** 고구려, 평양 천도
- **433** 나·제 동맹 성립
- **475** 백제, 웅진 천도
- **494** 고구려, 부여 복속

기원 **300** **400**

세계사

- **15만 년 전** 현생 인류 출현
-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성립
- **3000년경** 이집트 문명 성립
- **2500년**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성립
- **770** 중국, 춘추 시대 시작
- **492** 페르시아 전쟁 시작
- **334**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
- **317** 마우리아 왕조 건국
- **221** 진(秦)의 중국 통일
- **27** 로마, 제정 시작
- **25** 중국, 후한 건국
- **45** 인도, 쿠샨 왕조 성립
- **184** 중국, 황건적의 난
- **220** 중국, 삼국 시대 시작
- **226** 사산 왕조 페르시아 건국
- **280** 진(晋), 중국 통일
- **304** 중국, 5호 16국 시대 시작
- **313** 밀라노 칙령
- **320** 인도, 굽타 왕조 성립
- **375** 게르만족의 이동 시작
- **392** 로마, 크리스트교 국교화
- **395** 로마 제국의 동서 분열
- **420** 중국, 남북조 성립
- **476** 서로마 제국 멸망
- **485** 중국, 북위 균전제 실시
- **486** 프랑크 왕국 건국
- **492** 클로비스, 크리스트교로 개종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은제 접시


▲이집트의 피라미드


▲카타콤


▲중국의 윈강 석굴


▲이차돈 순교비


▲고구려의 비사성


▲석굴암 본존불


▲경주 불국사 다보탑

- 520 신라, 율령 반포
- 527 신라, 불교 공인
- 532 금관가야 멸망
- 538 백제, 사비성 천도
- 552 백제, 일본에 불교 전파
- 562 대가야 멸망

- 612 고구려, 살수 대첩
- 624 고구려, 당에서 도교 전래
- 645 고구려, 안시성 전투
- 660 백제 멸망
- 668 고구려 멸망
- 676 신라, 삼국 통일
- 698 발해 건국

- 722 신라, 정전 지급
- 751 불국사, 석굴암 중창 시작
- 756 발해, 상경 용천부 천도
- 780 신라 하대 시작(선덕왕 즉위)
- 788 신라, 독서삼품과 실시

- 822 김헌창의 난
- 828 장보고, 청해진 설치
- 834 백관의 복색 제도 공포
- 888 "삼대목" 편찬

500 **600** **700** **800**

- 529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 537 성 소피아 대성당 건립
- 552 돌궐 제국 성립
- 570 무함마드 탄생
- 589 수, 중국 통일

- 610 이슬람교 정립
- 618 중국, 당 건국
- 622 헤지라
- 645 일본, 다이카 개신
- 651 사산 왕조 페르시아 멸망
- 661 우마이야 왕조 수립

- 710 일본, 나라 천도
- 750 아바스 왕조 성립
- 751 탈라스 전투
- 755 당, 안·사의 난(~763)
- 756 후우마이야 왕조 성립
- 771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 통일
- 794 일본, 헤이안 시대 시작

- 800 카롤루스 대제, 서로마 황제 대관
- 829 잉글랜드 왕국 성립
- 843 프랑크 왕국 분열
- 875 당, 황소의 난
- 890년경 앙코르 왕조 성립


▲성 소피아 대성당


▲쇼토쿠 태자


▲앙코르 와트


▲태조 왕건


▲강감찬 동상


▲척경입비도


▲고려 후기 관리의 초상화

- 900 견훤, 후백제 건국
- 901 궁예, 후고구려 건국
- 918 왕건, 고려 건국
- 926 발해 멸망
- 935 신라 멸망
- 956 노비안검법 실시
- 976 전시과 실시

- 1009 강조의 정변
- 1019 귀주 대첩
- 1033 천리 장성 축조
- 1076 전시과 개정(경정 전시과)
- 1097 주전도감 설치

- 1107 윤관, 여진 정벌
- 1126 이자겸의 난
- 1135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 1145 "삼국사기" 편찬
- 1170 무신 정변
- 1196 최충헌 집권
- 1198 만적의 난

- 1231 몽골의 1차 침입
- 1232 강화 천도
- 1234 "상정고금예문" 간행
- 1270 개경 환도, 삼별초의 대몽 항쟁
- 1274 여·원 연합군의 제1차 일본 정벌

한국사

900 | 1000 | 1100 | 1200

세계사

- 907 당 멸망
- 946 거란, 국호를 요라 함
- 960 중국, 송 건국
- 962 오토 1세, 신성 로마 황제 대관
- 977 아프가니스탄에 가즈니 왕조 성립
- 988 러시아, 그리스 정교로 개종

- 1037 셀주크 튀르크 건국
- 1054 크리스트교, 동서 분열
- 1069 왕안석의 변법
- 1077 카노사의 굴욕
- 1096 십자군 전쟁 시작 (~1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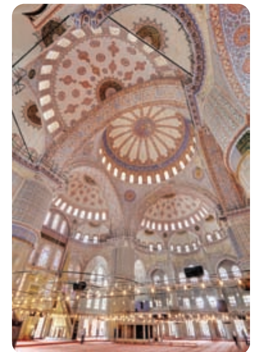
- 1115 여진족, 금 건국
- 1125 요 멸망
- 1127 북송 멸망, 남송 건국
- 1163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건축 시작
- 1192 일본, 가마쿠라 막부 성립

- 1206 칭기즈 칸, 몽골 통일
- 1258 아바스 왕조 멸망
- 1271 원 제국 성립
- 1293 마자파힛 왕조 성립
- 1299 오스만 제국 건국


▲송에서 만든 나침반


▲카노사의 굴욕


▲일본 무사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내부


▲직지심체요절


◀호패


▲이순신


▲ 상평통보

- 1359 홍건적 침입(~1361)
- 1376 최영, 왜구 토벌
- 1377 "직지심체요절" 인쇄
- 1388 이성계, 위화도 회군
- 1389 박위, 대마도 정벌
- 1392 조선 건국
- 1394 조선, 한양 천도

- 1402 호패법 실시
- 1413 지방 행정 조직 완성
- 1416 4군 설치(~1433)
- 1434 6진 설치(~1449)
- 1446 훈민정음 반포
- 1466 직전법 실시
- 1485 "경국대전" 시행

- 1510 3포 왜란
- 1519 기묘사화
- 1543 백운동 서원 설립
- 1555 을묘왜변
- 1592 임진왜란 발발
- 1593 행주 대첩

- 1608 대동법 실시(경기도)
- 1610 "동의보감" 완성
- 1623 인조반정
- 1627 정묘호란
- 1633 상평통보 주조
- 1636 병자호란
- 1653 하멜, 제주도 표착
- 1696 안용복, 독도에서 일본인 축출

1300 **1400** **1500** **1600**

- 1302 프랑스, 삼부회 소집
- 1309 아비뇽 유수
- 1336 일본, 무로마치 막부 성립
- 1337 백년 전쟁(~1453)
- 1351 중국, 홍건적의 난
- 1368 중국, 명 건국
- 1369 티무르 제국 성립
- 1378 교회의 대분열(~1417)

- 1405 명, 정화의 대항해
- 1428 안남, 명에서 독립
- 1453 비잔티움 제국 멸망
- 1455 영국, 장미 전쟁(~1485)
- 1467 일본, 전국 시대 시작
- 1492 콜럼버스, 서인도 제도 도착
- 1498 바스쿠 다가마, 인도 항로 발견

- 1502 사파비 왕조 성립
- 1517 루터의 종교 개혁
- 1519 마젤란, 세계 일주(~1522)
- 1521 에스파냐, 아스테카 제국 정복
- 1526 인도, 무굴 제국 성립
- 1536 칼뱅의 종교 개혁
- 1581 네덜란드 독립
- 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통일

- 1600 영국, 동인도 회사 설립
- 1603 일본, 에도 막부 수립
- 1616 누르하치, 후금 건국
- 1618 독일, 30년 전쟁(~1648)
- 1642 영국, 청교도 혁명
- 1644 청의 중국 정복
- 1648 베스트팔렌 조약
- 1688 영국, 명예혁명
- 1689 청과 러시아,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콜럼버스가 탄 산타 마리아호(복원)


▲타지마할


▲우키요에


▲규장각

- 1708 대동법,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1712 백두산정계비 건립
- 1725 영조, 탕평책 실시
- 1750 영조, 균역법 실시
- 1776 규장각 설치
- 1785 "대전통편" 완성
- 1786 서학 금지

- 1801 신유박해
- 1811 홍경래의 난(~1812)
- 1831 천주교 조선 교구 설치
- 1860 최제우, 동학 창시
- 1861 김정호, 대동여지도 제작
- 1862 임술 농민 봉기
- 1863 고종 즉위, 흥선 대원군 집권
- 1865 경복궁 중건(~1872)
- 1866 병인박해, 병인양요
- 1871 신미양요
- 1875 운요호 사건
- 1876 강화도 조약 체결


▲독립문

- 1881 조사 시찰단, 영선사 파견
- 1882 임오군란
- 1884 갑신정변
- 1885 거문도 사건, 광혜원 설립
- 1894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 1895 을미사변
- 1896 아관 파천, 독립신문 발간
- 1897 대한 제국 성립

한국사

1700 1800 1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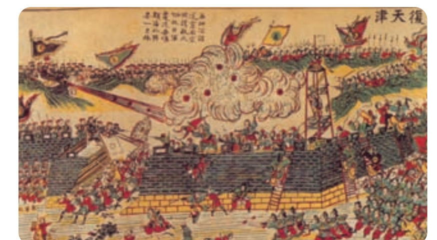
세계사

- 1701 프로이센 왕국 성립
- 1740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8)
- 1756 7년 전쟁(~1763)
- 1757 플라시 전투, 영국의 인도 독점
- 1776 미국, 독립 선언
- 1779 카자르 왕조, 페르시아 통일
- 1789 프랑스 혁명(~1799)
- 1796 청, 백련교의 난(~1804)


▲바스티유 감옥 습격

- 1814 빈 회의
- 1830 프랑스, 7월 혁명
- 1838 영국, 차티스트 운동
- 1840 청, 아편 전쟁
- 1848 프랑스, 2월 혁명
- 1851 청, 태평천국 운동
- 1857 인도, 세포이의 항쟁(~1858)
- 1858 일본,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 1861 러시아, 농노 해방령 발표
  미국, 남북 전쟁(~1865)
- 1863 링컨, 노예 해방 선언
-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 1869 수에즈 운하 개통
- 1871 프랑스, 파리 코뮌 성립
  독일 제국 성립

- 1882 3국 동맹 성립
- 1884 청·프랑스 전쟁(~1885)
- 1885 청과 일본, 톈진 조약 체결
- 188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성립
- 1894 청·일 전쟁(~1895)
- 1896 제1회 올림픽 경기 대회
- 1898 필리핀, 아기날도의 독립 선언
  파쇼다 사건
- 1899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청, 의화단 운동


▲의화단 운동

- 1905 을사늑약
- 1907 국채 보상 운동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강제 퇴위
  신민회 설립
- 1910 국권 피탈
- 1919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 1920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 1921 자유시 참변
- 1926 6·10 만세 운동
- 1927 신간회 조직
- 1929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1932 이봉창, 윤봉길 의거
- 1940 한국광복군 창설
- 1945 8·15 광복
-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50 6·25 전쟁 발발
- 1953 휴전 협정 조인
- 1960 4·19 혁명, 장면 내각 수립
- 1961 5·16 군사 정변
- 1962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6)
- 1963 박정희 정부 수립
- 1972 7·4 남북 공동 성명, 10월 유신
- 1977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1980 5·18 민주화 운동
- 1981 전두환 정부 수립
- 1987 6월 민주 항쟁
- 1988 노태우 정부 수립
  제24회 서울 올림픽 경기 대회 개최
- 1991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1993 김영삼 정부 수립
- 1994 북한, 김일성 사망
- 1998 김대중 정부 수립



▲G20 정상 회의

- 2000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개최
- 2002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개최
- 2003 노무현 정부 출범
- 2005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개최
- 2006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 2007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 2008 이명박 정부 출범
- 2010 G20 정상 회의 개최
- 2011 북한, 김정일 사망

1900 1950 2000

- 1904 러·일 전쟁(~1905)
- 1907 3국 협상 성립
- 1911 청, 신해혁명
- 1914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 1917 러시아 혁명
- 1919 베르사유 조약 체결
  중국, 5·4 운동
- 1920 국제 연맹 성립
- 1921 워싱턴 회의
- 1922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수립
- 1923 터키 공화국 수립
- 1928 네루, 인도 독립 연맹 결성
- 1929 대공황
- 1935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침공
- 1939 제2차 세계 대전(~1945)
- 1945 일본 항복, 국제 연합 성립
- 1947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

- 1955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 1956 이집트, 수에즈 운하 국유화
- 1962 쿠바 봉쇄
- 1972 미국의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 1973 베트남 전쟁 종식
- 1978 미국·중국, 국교 정상화
- 1980 이란·이라크 전쟁(~1988)
- 1988 팔레스타인 독립 선언
- 1989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 1991 소련 해체, 독립 국가 연합(CIS) 성립
- 1993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유럽 연합 출범
- 1994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당선
- 1995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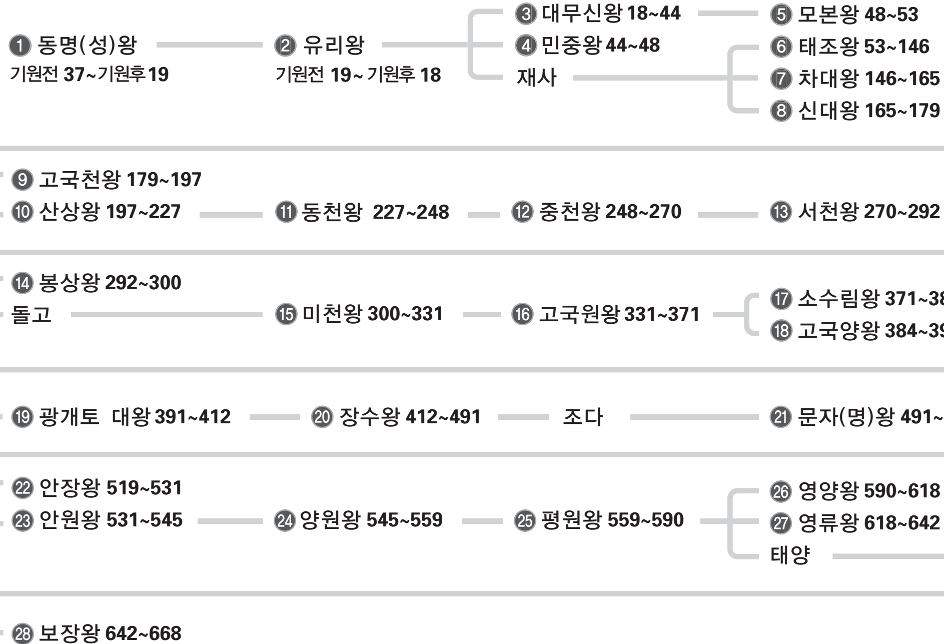
- 2001 미국, 뉴욕 세계 무역 센터 테러 발생
- 2002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에서 독립
- 2003 룰라, 브라질 대통령 취임
  이라크 전쟁
-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 경기 대회 개최
- 2009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 2011 일본 도호쿠 지역 대지진


▲지구촌

우리나라 역대 왕조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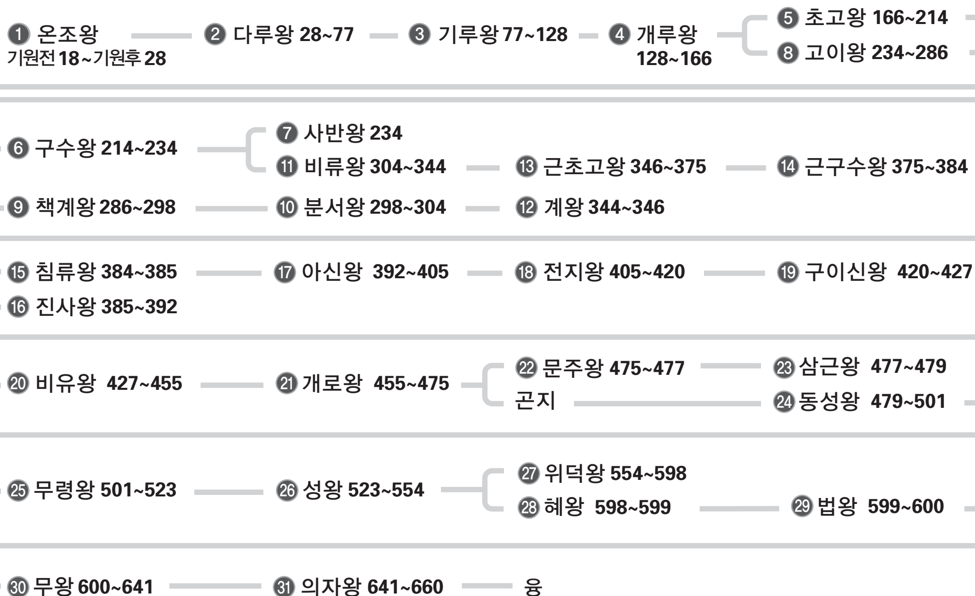
고구려

"삼국사기" 기원전 37 ~ 기원후 668



백제

"삼국사기" 기원전 18 ~ 기원후 660



신라 "삼국사기" 기원전 57 ~ 기원후 935

박씨 · 7왕

- ❶ 혁거세 기원전 57~ 기원후 4 — ❷ 남해 4~24 — ❸ 유리 24~57
  - ❺ 파사 80~112 — ❻ 지마 112~134
  - ❼ 일성 134~154 — ❽ 아달라 154~184

석씨 · 8왕

- ❹ 탈해 57~80 — 구추 — ❾ 벌휴 184~196
  - 골정 — ⑪ 조분 230~247, ⑫ 첨해 247~261
    - ⑪ 조분 — ⑭ 유례 284~298, 걸숙 — ⑮ 기림 298~310
  - 이매 — ⑩ 나해 196~230 — 우로 — ⑯ 흘해 310~356

김씨 · 37왕

- 김알지
  - 구도 (김알지 5세손)
    - ⑬ 미추 262~284
    - 말구 — ⑰ 내물 356~402
      - ⑲ 눌지 417~458 — ⑳ 자비 458~479 — ㉑ 소지 479~500
      - ? — 습보 — ㉒ 지증왕 500~514
        - ㉓ 법흥왕 514~540
        - 입종 — ㉔ 진흥왕 540~576
          - 동륜 — ㉖ 진평왕 579~632 — ㉗ 선덕 여왕 632~647
            - 국반 — ㉘ 진덕 여왕 647~654
          - ㉕ 진지왕 576~579 — 용춘(문흥왕) — ㉙ 무열왕 654~661 — ㉚ 문무왕 661~681 — ㉛ 신문왕681~692
            - ㉜ 효소왕 692~702
            - ㉝ 성덕왕 702~737 — ㉞ 효성왕 737~742, ㉟ 경덕왕 742~765 — ㊱ 혜공왕 765~780
  - 대서지 (김알지 후예) — ⑱ 실성 402~417

- ㊲ 선덕왕 780~785 (내물왕 10세손)
- ㊳ 원성왕 785~798 (내물왕 12세손)
  - 인겸
    - ㊴ 소성왕 798~800 — ㊵ 애장왕 800~809
    - ㊶ 헌덕왕 809~826
    - ㊷ 흥덕왕 826~836
    - 충공 — ㊹ 민애왕 838~839
  - 예영
    - 헌정 — ㊸ 희강왕 836~838 — 계명 — ㊽ 경문왕 861~875
      - ㊾ 헌강왕 875~886 — ㊿ 효공왕 897~912 (52)
      - (50) 정강왕 886~887
      - (51) 진성 여왕 887~897
    - 균정 — ㊺ 신무왕 839 — ㊻ 문성왕 839~857
      - ㊼ 헌안왕 857~861

박씨 · 3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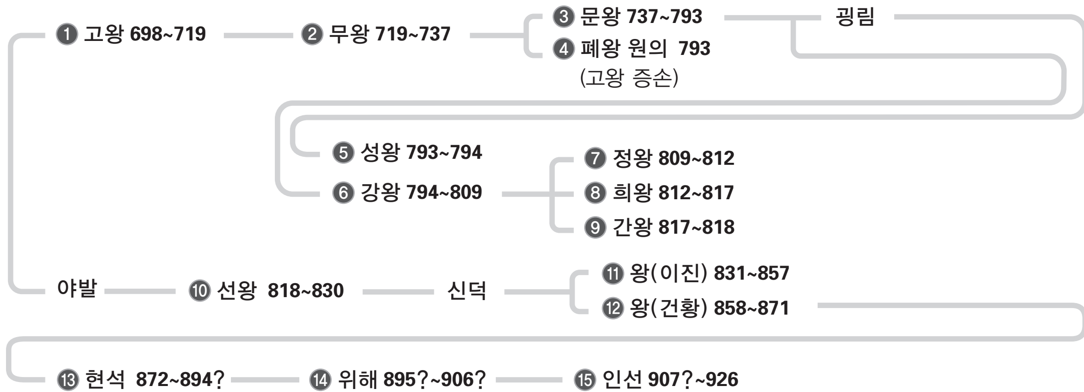
- (53) 신덕왕 912~917 (아달라 원손)
  - (54) 경명왕 917~924
  - (55) 경애왕 924~927

김씨 · 1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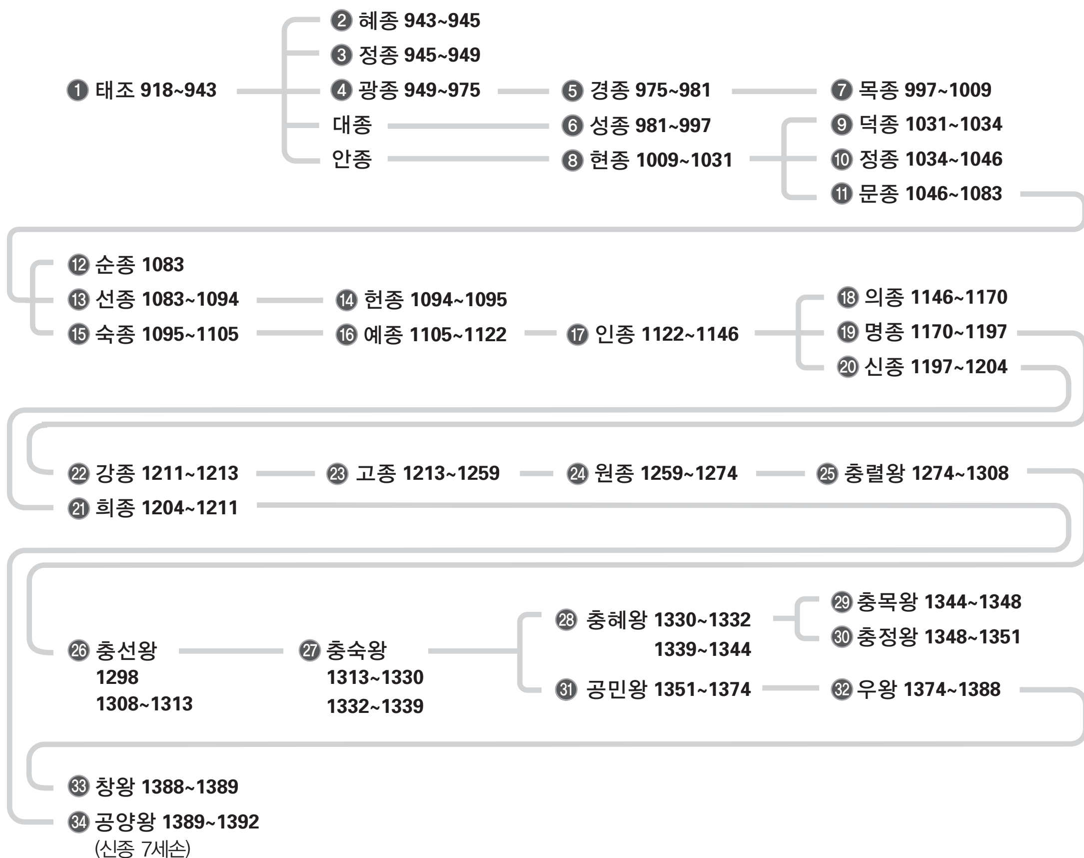
- (56) 경순왕 927~935 (문성왕 6세손)

우리나라 역대 왕조 계보

발해 698 ~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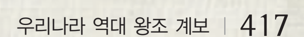


고려 918 ~ 1392



조선 1392 ~ 1910

❶ 태조 1392~1398
- ❷ 정종 1398~1400
- ❸ 태종 1400~1418 — ❹ 세종 1418~1450
  - ❺ 문종 1450~1452 — ❻ 단종 1452~1455
  - ❼ 세조 1455~1468
    - 덕종 — ❾ 성종 1469~1494
      - ❿ 연산군 1494~1506
      - ⓫ 중종 1506~1544
        - ⓬ 인종 1544~1545
        - ⓭ 명종 1545~1567
        - 덕흥 대원군 — ⓮ 선조 1567~1608
          - ⓯ 광해군 1608~1623
          - 원종 — ⓰ 인조 1623~1649 — ⓱ 효종 1649~1659 — ⓲ 현종 1659~1674 — ⓳ 숙종 1674~1720
            - ⓴ 경종 1720~1724
            - ㉑ 영조 1724~1776 — 장조
              - 은언군 — 전계 대원군 — ㉕ 철종 1849~1863
              - ㉒ 정조 1776~1800 — ㉓ 순조 1800~1834 — 익종 — ㉔ 헌종 1834~1849
              - 은신군 — 남연군 — 흥선 대원군 — ㉖ 고종 1863~1907
                - ㉗ 순종 1907~1910
                - 강
                - 은
    - ❽ 예종 1468~1469



찾아보기

ㅂ

ㅅ

참고 문헌 및 인용 자료, 사진 출처

[참고 문헌 및 인용 자료 출처]

- 강만길, "조선 후기 상업 자본의 발달", 고려대 출판부, 1973.
- 강명관,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2.
- 강봉룡 외,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2.
-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웅진지식하우스, 2011.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7.
- 고성호 외,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11.
- 국사 편찬 위원회 편, "한국사", 국사 편찬 위원회, 1995~1998.
- 국사 편찬 위원회, "한국 문화사-화폐와 경제 활동의 이중주", 두산동아, 2006.
- 권덕영, "재당 신라인 사회 연구", 일조각, 2005.
- 권오영, "무령왕릉: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돌베게, 2005.
- 권태억 외, "자료 모음 근현대 한국 탐사", 역사비평사, 1994.
-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조선 양반의 일생", 글항아리, 2009.
- 김경일, "일제하 노동 운동사", 창작과 비평사, 1992.
- 김구, "백범일지", 청목, 1993.
- 김기흥, "삼국 및 통일 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 김세기,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2003.
- 김용덕, "조선 후기 사상사 연구", 을유문화사, 1977.
- 김창석, "삼국과 통일 신라의 유통 체계 연구", 일조각, 2005.
- 김태준, "임진란과 조선 문화의 동점", 한국 연구원, 1977.
- 김한식, "실학의 정치사상", 일지사, 1979.
- 김호일, "한국 개항 전후사", 중앙 대학교 출판부, 2001.
- 남동신, "영원한 새벽 원효", 도서출판 새누리, 1999.
- 남재우, "안라국사", 혜안, 2003.
- 노길명, "가톨릭과 조선 후기 사회 변동", 고려대 민족 문화 연구소, 1988.
- 노명호, "고려 국가와 집단의식", 서울 대학교 출판 문화원, 2009.
- 노중국, "백제 정치사 연구", 일조각, 1988.
- 노태돈 편저,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 다할 편집실, "한국史 연표", 다홀미디어, 2008.
- 동북아 역사 재단, "동아시아의 역사-3", 동북아 역사 재단, 2011.
- 매켄지 저, 이광린 역, "한국의 독립운동", 일조각, 1995.
- 문사철 기획, "근현대사신문-근대편", 사계절, 2010.
-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강, 1996.
-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한국 민주화 운동사", 2008.
- 민현구, "조선 초기의 군사 제도와 정치", 한국 연구원, 1983.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 박종기, '또 하나의 전통, 고려 왕조', "우리 역사의 길라잡이", 2008.
- 박찬승 편,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0.
- 박천홍,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현실문화, 2008.
- 백성현 · 이한우,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새날, 1999.
- 백승옥,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 2003.
- 변태섭, "한국사 통론", 삼영사, 1989.
- 브루스 커밍스, "한국 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 서영교, "나·당 전쟁사 연구: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2006.
- 서인한, "대한 제국의 군사 제도", 혜안, 2000.
- 손승철, "조선 시대 한일 관계사 연구", 지성의 샘, 1994.
- 송찬식, "이조 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한국 문화 연구소, 1973.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신동준, "개화파 열전", 푸른역사, 2009.
- 신용하, "한국 개화사상과 개화 운동의 사회사", 지식산업사, 2010.
- 안병직 외, "한국 근대 민족 운동사", 돌베개, 1980.
- 안병태, "한국 근대 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백산서당, 1982.
- 역사 교과서 연구회(한국), 역사 교육 연구회(일본), "한일 교류의 역사", 혜안, 2007.
- 역사 신문 편찬 위원회, "역사 신문", 사계절, 2010.
- 역사학회, "실학 연구 입문", 일조각, 1973.
- 오성, "조선 후기 상인 연구", 일조각, 1989.
-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 오주석,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솔, 2005.
- 유봉학, "연암일파 북학 사상 연구", 일지사, 1995.
- 유용태, 박진우, 박태균,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비, 2010.
- 유홍준, "국보순례", 눌와, 2011.
- 윤대원, "21세기 한중일 역사 전쟁", 서해문집, 2009.
- 이경구,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푸른역사, 2009.
- 이광린, 신용하, "사료로 본 한국 문화사", 일지사, 2001.
- 이기동, "백제사 연구", 일조각, 2000.
- 이기백 편, "한국사 시민 강좌 제2집: 고조선의 제문제", 일조각, 1988.
- 이성무, "조선 시대 당쟁사", 동방미디어, 2000.
- 이순우, "정동과 각국 공사관", 하늘재, 2012.
- 이윤기, 김익겸, "연해주와 한민족의 미래", 오름, 2008.
- 이이화, "역사", 열림원, 2007.
- 이종범 등저, "자료 한국 근현대사 입문", 혜안, 1998.
- 이준걸, "조선 시대 일본과 서적 교류 연구", 홍익재, 1986.
- 이충렬, "그림으로 읽는 한국 근대의 풍경", 김영사, 2011.
- 이태진, "동경대생에게 들려 준 한국사", 태학사, 2005.
- 이형기, "대가야의 형성과 발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이황직, "독립 협회, 토론 공화국을 꿈꾸다", 프로네시스, 2007.
-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 임윤정, 전혜숙, "내한 서양인 저서에 나타난 19세기 말 조선 남자의 상투와 단발령에 관한 시각", 한복 문화 학회, 한복 문화 15(2), 2012.
- 장동희, "정약용의 행정 사상", 일지사, 1986.
- 장지연, "마주 보는 한국사 교실 5", 웅진주니어, 2010.

- 전국 역사 교사 모임, “마주 보는 한일사”, 사계절, 2006.
- 전덕재, “한국 고대 사회 경제사”, 태학사, 2006.
- 전석담, 허종호, 홍희유, “조선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과학 백과사전 종합 출판사, 1971.
- 전호태, “고구려 고분 벽화 연구”, 사계절, 2000.
- 정진석 외, “제국의 황혼”, 21세기북스, 2011.
- 조광환, “소통하는 우리 역사”, 살림터, 2008.
- 조범환, “신라 선종 연구”, 일조각, 2001.
- 지수걸, “일제하 농민 조합 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1993.
- 차문섭, “조선 시대 군제 연구”, 단국대 출판부, 1973.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 최영희, “임진 왜란 중의 사회 동태”, 한국 연구원, 1975.
-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 한국 고고학회,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2007.
- 한국 고대사 학회,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 서경문화사, 2007.
- 한국 근현대사 학회, “한국 근대사 강의”, 한울아카데미, 2007.
- 한국 역사 연구회, “고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청년사, 2005.
- 한국 역사 연구회, “조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청년사, 2005.
- 한국사 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상”, 지식산업사, 2008.
- 한국 역사 연구회 고대사 분과, “고대로부터의 통신–금석문으로 한국 고대사 읽기”, 푸른역사, 2004.
- 한규철, “발해의 대외 관계사”, 신서원, 1994.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1998.
- 한·중·일 3국 공동 역사 편찬 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휴머니스트, 2012.
- 한·중·일 3국 공동 역사 편찬 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례 출판, 2005.
- 한형조, “왜 조선 유학인가”, 문학동네, 2008.
- 홍영기, “대한 제국기 호남 의병 연구”, 일조각, 2004.

[사진 출처]

- 거창 박물관 101(上)
- 경인일보 71
- 구글어스 126(下), 395
- 국가 문화 유산 포털 195(右)
- 국립 경주 문화재 연구소 34(上)
- 국립 중앙 박물관 118, 129(左), 142(下), 196(下右), 192(下右)
- 굿이미지 103, 105(上), 183, 201(左), 240(中), 240(下右), 331(上右)
- 김좌진 장군 기념 사업회 308
- 뉴스뱅크 84(下), 95(下中), 110(下), 112(中), 224(下), 225, 228, 233(上), 245(上), 248(上), 272(上), 296(下), 300(下), 301(下), 302(上), 304(下右), 306(下), 313(下右), 320, 321(右), 327(上), 335(下左), 335(中右), 348(上), 353(上), 354, 359, 360(下), 361(上), 362, 364(上, 中), 365(上), 367(上, 下), 368(下), 369(上, 下), 370(下), 371(上, 下左), 372(下), 373, 376(下), 378(上右, 下), 380, 384, 385(下), 390(上), 391(下), 393(中), 396(上), 399(下), 404(上左, 上右, 中), 405(下右)
- 독립 기념관 257, 283, 285, 289(上), 295, 304(上), 324(下), 330(下右), 332(下), 333(下), 334, 344(上)
- 독립 유공자 유족회 216(上), 293(上), 332(上)
- 문화재청 39, 64(下右), 76(下), 86, 87, 101(下), 108(上), 110(中), 141(上右), 205(下)
- 문화 체육 관광부 109(下), 198(中), 309(上)
- 발해를 다시 본다 63(中), 70(下)
-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 협회 333(上)
- 부산 박물관 195(中)
- 불교 신문 110(上)
-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33(下), 112(下), 113(下), 218, 259(上), 267(上)
- 사진으로 본 백 년 전의 한국 236(上)
-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 년 254
- 살아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20
- 서울 대학교 규장각 164, 173(下右), 184(上)
- 서울 신문 114(上)
- 서울 역사 박물관 382(下)
- 아틀라스 한국사 111(下)
- 안견과 몽유도원도 148
- 연합뉴스 36(下), 92(上左), 126(上), 140(下右), 176, 181(上), 241(上右), 245(下), 246(下), 261(下), 266(下左), 275(左), 289(下), 29(下), 293(下右), 302(下左), 307(下), 311(下), 316, 327(下), 335(上, 中右), 341(上), 355, 361(下), 365(下), 371(下右), 378(上左), 379(上), 383(上), 386, 392, 393(中右, 下), 394, 396(下), 401, 402, 403(上), 404(上中)
- 유로크레온 25(下左), 30, 32(下), 34(下), 61(上), 73(下右), 112(上), 125, 130, 131, 132, 134, 136, 140(下右), 140(中右), 141(中右), 141(下左), 157(下), 158(左), 168, 180, 181(下右), 185(上), 190(下), 194(下右), 201(下右), 209(上), 223(上左), 224(上), 233(下), 240(上右), 241(中右), 241(下), 260(下), 275(下右), 284, 299(上左), 305(下), 314, 326(下), 338(上), 341(下右), 379(下)
- 위키피디아 58(下左), 109, 168(下), 173(上), 173(下左), 173(中左), 126(中), 162(上), 203(上), 212(上), 213(上), 214, 232(下), 236(下左), 248(下), 263(上), 264(上), 271, 287(下), 291(上), 301(上), 303(下), 304(下左), 313(上左), 330(上左), 330(下左), 342(下), 343, 347, 348(下), 364(下), 400(上), 407
- 이경찬의 한국사 교실 19(下), 22(上), 82, 92(上右), 99, 113(上), 187(上), 226, 242(上), 252, 261(上), 281, 282(下), 348(中), 353(下), 363
- 이뮤지엄 73(左), 92(下), 105(下), 108(下), 120, 255(下)
- 이미지클릭 382(上)
- 태영 민속 박물관 123(上)
- 토픽포토 11(左), 32(上右), 129(右), 140(中左), 140(下), 155(下), 162(下), 199(右), 196(上), 196(中), 197, 195(左), 199, 202(下), 241(中), 266(下右), 268, 276, 280(上), 331(上左), 341(下左), 369(中), 374, 375, 376(上), 377, 385(上), 404(下右)
-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151, 193(上), 345(下)
- 한국 생활사 박물관 114(中)
- 한국 역사 연구회 107
- 한국학 중앙 연구원 159(下), 167, 309(下)
- 히스토피아 246(上)

* 사진이 한 면에 위아래로 있을 경우에는 면수(上), 면수(下) 순으로 표기하였음. 좌우로 있을 경우에는 면수(左), 면수(右) 순으로 표기하였음.
* 출처가 같은 사진이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면수를 나열하고 출처는 한 번만 밝혔음.
* 집필진의 직접 집필인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 출처표시를 안한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집필진

정재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도쿄대학교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동양사학과 한국사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 박사,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현)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김태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고대사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고대사 박사, (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강석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 박사, (현)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최병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근현대사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근현대사 박사, (현)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과 교수

장종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현) 문현고등학교 교사

박찬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현) 광남고등학교 교사

김태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현) 명덕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박귀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 석사, (현)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만든 사람들

개발 책임 황해영
편집 윤흥상, 최윤자, 임지연
디자인 디바젤
삽화 이소영
컷 김동현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 심사를 하였음.

고등학교 한국사

2014. 3. 1. 초판 발행 2016. 3. 1. 3쇄 발행 정가 원
지은이: 정재정 외 7인
발행인: (주)지학사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인쇄인: (주)벽호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43

이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누리집 주소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전화 02-2608-2800, 누리집 주소 http://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관련문의: (주)지학사 콘텐츠본부 사회팀 전화 02-330-5460 전송 02-325-7111
공급업무대행: (사)한국검인정교과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당재봉로 29-28
개별구입문의: 누리집 주소 www.ktbook.com 전화 031-8071-7981~4 (사)한국검인정교과서
누리집 주소 www.jihak.co.kr 전화 02-330-5302 (주)지학사

ISBN 978-89-05-04089-5 53900